

국립국어원2009-01-45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133-14

2009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박 경 래

■ 연구 보조원 : 홍 현 화

■ 조 사 지 역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연구책임자 : 박 경 래

2009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7
2. 전사 원칙	21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27
제 2 편 어휘	287
제 3 편 음운	336
제 4 편 문법	378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파일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제보자 조사표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내륙도로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충청북도 지역어 조사는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을 고려하고 인구의 분포를 고려하여 연차적인 조사계획을 세워 진행되었다. 먼저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 충주, 제천시 지역을 조사하고 이어서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충청북도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제천시를 조사하였고, 2006년에는 충청북도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청원군(청주시)을 조사하였다. 2007년에는 충청북도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이 접하는 충주시에서 조사하였고 2008년에는 충청북도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면서 충청남도와 인접한 옥천군에서 조사하였으며 2009년에는 충청북도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면서 경상북도와 인접한 보은군에서 조사하였다.

보은군은 삼한(三韓) 시대에는 마한(馬韓)에 속했으나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세력이 북상하면서 백제의 국경 분쟁지였다. 신라 자비마립간 13년 서기 470년에 삼년산성을 축조하여 백제와 국경을 이루었다. 지증왕 3년 502년에는 주현제(州縣制)를 실시하여 삼년산군(三年山郡)이라고 불렀다. 진흥왕 14년 553년에 법주사를 창건하였고 경덕왕 16년 757년에는 삼년군(三年郡)으로 개칭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보령(保齡, 保令)이라고 불렀다.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는 상주목에 속했고 명종 2년 1172년에는 감무를 두었다. 조선 태종 13년에 경상도 상주목에서 충청도로 편입하였고 동 16년 1416년에 현재의 이름인 보은(報恩)이라고 고치고 현감을 두어 보은현이 되었다. 고종 32년 1895년에 군으로 승격되었다. 1973년 보은면이 보은읍으로 승격하여 1읍 10면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은군의 면적은 충청북도 전체 면적 7,431.50km² 중 7.9%에 해당하는 584.26km²다. 보은군은 충청북도 남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양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커다란 분지라는 인상을 준다. 고도가 높은 소백산맥이 위치한 보은군의 동부 지역은 서부의 저지대에 비해 특이한 기후현상을 보인다. 보은군의 연평균 기온은 11.7℃이며, 최고 기온은 34.0℃, 최저 기온은 -10.8℃이다. 또한 강수량은 1532.1mm, 평균 습도는 73%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기준)

보은군은 우리나라의 내륙에 위치해 있고 소백산맥 줄기에 위치해 있어 온도차가 큰 대륙성기후를 보이는 곳이다. 온도차가 큰 기후의 특성으로 맛있는 보은 황토사과와 황토배의 산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추의 최대 산지이기도 하다. 특히 조사지점인 보은읍 종곡마을은 보은 대추의 원산지라고 한다. 지금은 논으로 바뀌었지만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마을 앞 들이 모두 밭이었고 여기에 대추나무가 많았었다고 한다.

보은군은 관광지로서도 유명하다. 태백산맥에서 뻗어 내린 소백산맥의 줄기 가운데 위치한 속리산은 백두대간이 지나고 있는 한국 팔경 가운데 하나로 충북의 보은군, 괴산군과 경북의 상주시의 경계에 있다. 화강암 봉우리와 산 전체를 뒤덮은 울창한 삼림은 속리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 법주사와 조화를 이루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다. 속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을 비롯하여 비로봉, 길상봉, 문수봉, 관음봉, 상학봉, 묘봉 등 8봉과 문장대, 입석

대, 신선대, 경업대, 학소대, 청법대 등 8대 그리고 은폭동계곡, 만수계곡, 화양동계곡, 선유동계곡, 쌍곡계곡, 장각폭포, 오송폭포 등의 명소가 있다. 이 외에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송과 천연기념물 207호인 망개나무 등 다양한 식물종과 천연기념물 242호인 까막딱다구리와 천연기념물 328호인 하늘다람쥐 등의 희귀동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동물들이 서식하는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속리산은 주변의 구병산, 금적산과 함께 보은의 삼산(三山)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8월 31일 현재 보은군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15,094 세대이며 총 인구는 34,846 명으로 세대당 인구는 2.31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이 9,436 명이고 외국인은 38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남자가 143명, 여자가 241명이다. 2009년 지역어 조사지인 보은읍 종곡리에는 7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는 158명이다. 이 가운데 남자가 85명이고 여자가 73명이다. 종곡리는 본래 밭농사가 대부분이었던 마을인데 마을 뒤편에 저수지를 막으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현재는 논이 52ha, 밭이 27ha, 임야가 416ha, 과수원이 3.7ha로 주로 논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2009년도 충청북도 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보은군은 충청북도의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충청북도의 남부 방언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조사 지점은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다. 종곡리는 보은읍에서 속리산 방향으로 약 3km쯤 가다가 왼쪽으로 보이는 종곡리 안북실이라는 표지석을 지나 약 3km 들어간 골짜기 끝에 있는 마을이다. 보은읍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동쪽은 내속리면, 서쪽은 학림 신합리, 남쪽은 강신 성족리, 북쪽은 산외면에 접하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종남·종서·종동·월안리를 병합하여 종곡리라 하고 읍내면에 편입 되었다. 보은읍 종곡리는 경주 김씨 집성촌이다. 종곡리는 마을 뒷산이 종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경주 김씨 문중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오면 북소리가 은은하게 들린다고 하여 안북실 또는 종곡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이 마을은 고려말 판도판서 김장유 공이 이곳에 낙향하여 이룩된 마을로 그 후세가 이곳에 세거하면서 경주 김씨 집성촌을 이룬 마을이라고 한다. 16세기에는 대학자였던 대곡 성운이 내려와 후학을 양성하며 은거하여 서화담, 조남명, 이효정, 성동주 같은 당대의 거유들이 찾아와 담론을 하며 머물렀다고 한다. 충암 김정 같은 선비와 충신열사가 많이 배출되고 효자와 열부가 많이 나온 곳이다.

종곡리는 마을 북쪽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자락 아래 막다른 골짜기 끝에 위치하여 외부와의 왕래나 교류가 적고 주민의 이동도 적은 곳이다. 이러한 지형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1894년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갑오동학농민군 가운데 북접 농민군이 무주 영동을 거쳐 보은 관아를 점령하던 무렵 일본군과 관군으로 구성된 토벌군에 쫓겨 이곳 북실에 피해 있다가 기습공격을 받으면서 쌍방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이때 마을에 있던 은행나무에 불이 붙어 일주일 밤낮을 탔다고 한다. 이곳 북실 전투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이 손실을 입었고 살아남은 북접 농민군은 속리산을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안으로는 낡고 썩은 사회를 개혁하고 밖으로는 외세를 물리치고자 일어난 동학농민전쟁은 북실에서 미완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고 한다.



1.2 예비답사와 제보자 선정 과정

2009년도 충청북도 지역어조사 지역은 충청북도의 남부지역에 위치한 보은군을 선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조사지역이 제천시, 충주시, 청원군(청주시) 등 시 지역이었고 충청북도의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역어 조사지역을 옥천군으로 하고 조사지점과 제보자 선정을 위해 2008년 7월 7일 보은 군청을 방문하여 문화관광과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은군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집성촌을 소개받았다. 보은군청에서 소개받은 집성촌은 다음과 같다.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 경주 김씨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 - 단양 우씨
 보은군 회남면 금곡리 - 양씨
 보은군 수한면 광촌리 - 화순 최씨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정 담당자로부터 보은읍 종곡리 경주 김씨 마을을 소개받으면서 2005년 12월 충청북도와 보은군과 (사)충북향토문화연구소에서 충청북도 전통마을 시리즈 가운데 제1권으로 간행한 『전통과 인심이 살아 숨쉬는 보은 종곡마을』이라는 책자와 함께 보은문화원에서 간행한 향토자료집 『보은군 지리지(報恩郡 地理誌)』(2008년)와 『보은의 지명지』(2000년) 그리고 보은군과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간행한 『문화유적분포지도(文化遺蹟分布地圖)-보은군-』와 그 CD를 자료로 받았고 보은문화원에서 발행한 보은의 민요 CD 4장을 보은군 자료로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이들 자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분들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

보은군청 정 담당자로부터 보은읍 종곡마을을 소개받으면서 종곡마을이 보은읍 관내 이므로 보은읍 사무소의 김 씨를 소개해 주어 읍사무소로 찾아갔다. 김 씨는 종곡리의 자세한 속사정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종곡리가 경주 김씨 집성촌이고 종곡리 앞에 있는 마을 강신리에도 경주 김씨가 많이 산다고 하면서 경주 김씨인 종곡리 이장 김 씨와 새마을 지도자 김 씨를 소개해 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7월 10일(금) 보은읍 종곡리 김 이장님을 찾아갔으나 마침 신축한 집을 손질하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마당에 서서 군청에서 소개하여 왔다고 하면서 방문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오후에 마을 어른들을 마을회관에 모아줄 테니 그때 오라고 하여 명함만 주고 돌아왔다.

7월 11일(토) 오전 11시 무렵에 종곡리 이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종곡리에 올 것이냐는 확인전화였다. 오후 3시까지 가겠노라고 하니 마을 어르신들을 마을회관에 모아 놓을 테니 마을회관으로 오라고 하였다. 약속 시간에 맞추어 오후 3시에 종곡리 마을회관으로 찾아 갔다. 거기에는 김 이장님을 비롯하여 김 (76세), 김 (83세), 김 (83세) 할아버지가 계셨다. 이분들께 인사를 하고 마을을 찾은 목적과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이런 일을 하겠노라고 말씀드렸더니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들에 나가 계시는데 잠시 후면 이리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황 (86세) 할아버지를 추천해 주셨다. 황 할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보자를 물색할 겸 해서 세 분의 할아버지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극쟁이와 그 부분 명칭에 대하여 물었는데 부분명칭을 정확히 기억하시 분이 아무도 없었고 소에 걸치는 부품에 대한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황 (黃鐘淵) 할아버지가 선친 어른 산소에 다녀온다면서 마을회관으로 들어오셨다. 마을 회관에 계시던 분들이 황 할아버지께 물랐던 부분 명칭과 부품 이름을 물었더니 단번에 즉 말씀해 주셨다. 황 할아버지께 출생지와 성장지 및 간단한 경력을 여쭙어 보았더니 바로 이 종곡리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으며 특별한 경력이 없고 오직 농사만 지어오다가 지금은 연로하셔서 쉬운 논농사만 조금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제보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보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더니 아는 것은 답해주겠노라고 하여 다음에 올 것을 약속하고 현장을 적당히 마무리한 다음 전화번호를 받고 돌아왔다.

7월 14일 저녁에 황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요즈음은 보은 읍내에 나가는 일이 있으니 다음에 연락을 하라고 하여 방문을 하지 못했다. 주말인 18일과 19일에는 일이 있어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 주인 20일에 연락을 드리고 다음날 가도 되겠는지를 물었더니 21일은 장날인데 장날은 읍내에 나가 교통 계도를 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에 연락하라고 말씀하셔서 다음에 다시 전화를 드리기로 하였다. 며칠 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7월 30일 저녁에야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31일에는 찾아와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7월 31일(금) 아침에 마을 앞에 도착하여 택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마을회관으로 오라고 하여 마을회관으로 가서 잠시 기다렸다. 잠시 후 황 할아버지께서 오시더니 마을의 다른 어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혼자 사시는 김 할머니택으로 안내를 해 주었다. 김 할머니는 10여 년 전에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혼자 살고 계신다고 하였다. 황 할아버지와 함께 김 할머니 택에 갔더니 휴가차 온 셋째 아들 가족들이 와 있었다. 할머니의 인적사항을 대략 물으니 황 할아버지와 나이가 같은 갑자년 생(86세)이고 보은군 탄부면에서 출생하여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이곳 종곡리로 출가하여 지금껏 이렇게 살고 있으며 아무 것도 모른다고만 하셨다. 방문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을의 유래와 마을에 들어서면서 보이는 효자문과 비각 등에 대하여 여쭙어 보았다. 마을에 관련해서는 주로 황종연 할아버지가 답변해 주셨다. 마을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주제를 바꾸어 할머니가 관심을 가질만한 의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제보자들에게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이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두 분 다 비교적 또박또박 말씀을 잘해 주셨고 의생활에 대해서도 황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주도하면서

구술을 해 주셨다. 할머니의 셋째 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속리산에 간 사이 황 할머니와 함께 의생활에 대한 구술발화를 조사하는 사이 점심때가 되어 김 할머니의 며느님이 해 주는 점심을 먹었다. 호박잎에 밥을 얹고 된장찌개로 간을 해서 먹는 호박잎쌈밥 점심은 별미였다. 오랜만에 토속적인 음식으로 어릴 적 향수를 느끼게 해 주었다. 점심을 먹고 나자 할머니가 지루해 하기도 하였고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에 조바심을 내는 듯이 보였다. 이날 오후부터 아들과 딸들 가족이 모두 모여 8월 3일(월)까지 휴가를 즐기기로 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점심을 먹고 대충 현장을 마무리하고 휴가가 끝나면 오겠다고 하고 황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댁을 나왔다. 황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드린다고 하면서 할아버지를 차에 태워 모셔다 드리고 따라 들어가 몇 가지 더 여쭙어 보겠다고 하고 구술발화 조사를 이어갔다. 할아버지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킬 겸 조사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농사일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였다. 황 할아버지는 묻는 내용에 대한 답변에 자심감이 생겨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다. 이렇게 하여 첫날 조사가 저녁때까지 이어졌다. 날이 저물기 전에 이날의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다음날 와도 되는지를 확인했더니 보은읍내 장날이라고 하였다. 보은 읍내에는 닳새마다 장이 서는데 5일장인데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고 하며 장날인 8월 1일은 건너뛰고 8월 2일에 오라고 하셨다. 장날에는 읍내에 나가 교통 계도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셔서 8월 2일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8월 1일 저녁에 황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다음날 가겠다는 약속을 확인하고 8월 2일 아침 9시에 보은읍 중곡리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자 전날 와서 할아버지 댁에서 잔 둘째 아들 가족이 할머니를 모시고 물가로 놀러 나갔다. 이 때문에 할아버지와 단둘이 앉아서 구술발화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점심때는 할아버지를 읍내로 모시고 나가 한정식으로 점심을 대접해 드렸다. 이날 조사한 내용은 논농사, 밭농사에 관한 조사와 집짓기에 관한 것이었다. 저녁 6시 30분 경에 이날의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다음날인 3일은 읍내에 가서 8월달 교통계도 일정을 확인해야 지역어 조사 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하여 다음날 확인 전화를 하기로 하고 돌아왔다. 황 할아버지가 하시는 교통계도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일이었는데 일주일에 사흘씩 오전에만 하셨다.

8월 4일 아침 제보자와 통화하여 조사 일정을 조정하였다. 제보자의 교통계도 일정상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8월 8일 저녁에 통화하기로 하였다.

8월 8일 저녁에 제보자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방문해도 되는지를 확인했더니 와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다음날 제보자에게 드릴 복숭아 한 상자와 음료수 두 상자를 미리 준비하여 차에 실어 놓았다. 이른 아침 시간에는 이런 것을 살 곳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월9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9시에 제보자 댁에 도착하였다. 복숭아와 음료수를 꺼내 놓고 오전 조사를 시작하였다. 오전 조사를 마치고 할머니께서 해주신 점심을 먹고 나서 잠시 쉬면서 더위도 피하고 바람도 쐬 겸 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웃 마을에 있는 보은 동학농민운동 기념공원을 둘러보고 왔다. 동학농민 운동을 하던 동학군들이 일본군과 관군에 밀려마지막에 진을 쳤던 곳이 이곳 보은읍 중곡이 일대여서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조사에서 특기할 점은 제보자의 선친이 일제강점기 때 약방을 했기 때문인지 제보자도 질병과 약제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조사할

때와 비교하여 질병과 약재에 대한 조사 내용과 시간이 많았다.

8월 10일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여 오전 여덟시 삼십분에 제보자 댁에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점심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녁 여섯 시 무렵에 조사를 마칠 때까지 종일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제보자 할아버님도 조사에 응하느라 힘드셨을 테지만 맨바닥에 오랜 동안 앉아 있데 익숙하지 않은 조사자로서는 더 없이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이날 하루 많은 양의 조사를 할 수 있었다.

8월 11일 아침 9시에 제보자 댁에 도착하여 하루 종일 조사를 하였다. 점심은 제보자 할아버지의 배우자 되시는 김 할머니가 해 주셔서 조사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8월 12일 오전 여덟 시 사십 분에 제보자 댁으로 가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제보자 댁에서 할머니가 해 주신 점심 식사를 한 다음 오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웃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제보자와 외사촌 간)가 놀러 오셔서 함께 조사에 임해주셨다. 김 할아버지는 이 마을을 처음 찾았을 때 마을회관에서 뵈었던 분이다. 두 분이 함께 조사에 하셔서 조사가 한결 수월하였다. 조사 중간 중간에 가끔씩 막혀서 머뭇거리던 시간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오후 조사는 저녁 시간인 오후 여섯 시 사십 분경에 마치고 이날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13일부터 15일까지는 읍내에 나가시는 당번 날이어서 쉬고 다음 주 일요일인 16일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8월 16일 아침에 제보자 댁으로 가서 이날의 조사를 시작하였다. 점심은 제보자의 배우자인 할머니가 해 주셔서 조사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8월 17일에도 점심은 제보자 댁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약간의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조사를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제보자에게 쉬었다가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는 바로 계속하시자고 하셔서 하루에도 장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8월 18일은 제보자의 사정으로 조사를 하루 쉬었다. 8월 19일에는 보조제보자 김 할아버지가 오전부터 함께 하셨다.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제보자 내외분과 보조제보자를 읍내로 모시고 가서 한정식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렸다. 점심 식사 후 돌아와 오후에 조사하는 것으로 보은 지역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조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보조제보자인 김 할아버지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작은 성의라며 수박 한 통을 건네 주셨다. 제보자의 집 앞에서 제보자 내외분과 보조제보자가 함께 서서 사진을 찍었다. 제보자들과 사진을 찍고 나서 나중에 보충조사 때 다시 올 것을 약속드리고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마을 사진을 찍기 위해 마을 뒤 저수지 뚝 위로 올라가서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마을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10월 8일에는 일부 보충조사를 위해 다시 종곡리를 찾았다. 구술발화 자료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확인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두었다가 이날 확인조사를 위해 제보자 댁을 방문하였다. 제보자인 황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그간의 안부를 묻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할아버지께서 다른 분들과 함께 보은을 대표하여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속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읍내에서 연습을 하는데 민요도 하고 전통 생활용품 제작도 한다고 하셨다.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민요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였다. 모찌는 노래, 모심는 노래 등 민요 몇 자락을 녹음하는 부수적인 행운을 얻었다. 민요 녹음 과정에서 ‘상주 함창 공갈 못에 연밥 따는 저 처녀야...’로 시작하는 민요가 있는데 이 노래는 충청도 노래가 아니라고 하면서 노래 부르기를 사양하여 녹음할 수 없어 아쉬웠다. 노래 가사에 ‘상주’라는 말이 들어가므로 경상도 노래기 때문이라

는 이유였다. 녹음을 마친 후 민속경연대회 연습 이야기를 더 듣고 몇 가지 보충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날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1.3 조사 기간

현지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 조사는 2009년 7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루어졌다. 7월 7일과 7월 10일 그리고 7월 11일은 조사지점과 제보자 선정을 위한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다. 7월 7일에는 군청과 읍사무소를 통하여 조사지점인 종곡리를 소개받았다. 7월 10일에는 종곡리를 찾아 이장님 댁을 방문하였으나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방문 목적을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마을회관으로 오면 마을 어른들을 모아 놓겠다고 하여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왔다. 다음날인 7월 11일 보은읍 종곡리 마을회관에서 제보자인 황종연 할아버지를 소개받고 제보자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사에 응해줄 것을 약속받고 연락할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돌아왔다. 조사자와 제보자의 사정으로 본격적인 조사는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에 지역어조사 질문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제2차 조사는 10월 8일에 이루어졌다. 제2차 조사는 제1차 조사 기간 동안에 빠뜨렸던 내용과 제1차 조사 기간에 조사된 내용 가운데 확인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모아 보충 조사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조사 기간이 길었던 것은 제보자의 사정과 조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제보자인 황 할아버지는 읍내에서 일주일에 사흘씩 교통계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하루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 제보자의 사정을 물어 교통 계도가 없는 날이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할아버지가 당번인 날에는 조사를 쉬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7월 7일부터 시작한 보은 지역 일차 조사가 8월 19일에야 끝날 수 있었다.

1.4 제보자

(1) 주제보자

- 이름: 황
- 성별: 남자
- 나이: 86세(1924년 6월 29일생, 실제는 1924년 4월 24일생)
- 출생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거주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선대거주지: 경상북도 상주군 모동면, 아버지 대에 보은읍 이거하였다고 함.
- 직업: 농업(고령이어서 논농사만 짓고 다른 농사는 하지 않고 있음.)
- 경력: 특별한 경력 없음.
- 학력: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서당에 다녀 약간의 한자도 읽을 수 있다고 함.
- 병역: 해방 직전에 일본군에 징집되어 간도(중국 길림성 왕청현 부근에서 약 두 달 정도 있다가 탈출했다가 해방을 맞이하였음.)
- 제보자 소개 과정: 7월 7일 보은군청에서 소개받은 집성촌 여럿 가운데 하나인 보은군 을 7월 11일 방문하여 이장님을 통하여 소개받았다. 는 경주 김시 집성촌으로 제보자인 황 할아버지의 외가 마을이기도 하다. 마을회관에서 소개받은 몇 분의 마을 어른들이 기억력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천거해 주셨다.

- 제보자의 특기 사항: 나이에 비해 충기가 좋고 기억력도 좋으나 치아가 좋지 않아 틀니를 하고 있어 말을 할 때 이따금씩 어눌한 발음을 하기도 하였지만 말쑥을 잘 하였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려 하였다. 건강은 매우 양호한 편이어서 집에서 보은읍까지 약 6km나 되는 곳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다. 근력이 좋고 시력도 좋은 편이어서 떠돌을 배어다 자리를 맴 준비를 하시기도 하였다.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보은읍내에 나가 교통 계도를 하시러 다니신다. 건강하셔서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의 조사에도 끄떡없이 응해 주셨다.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발음을 또박또박 하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틀니를 해서 발음이 약간 어색하게 들리는 부분인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무난한 편이다.

(2) 보조 제보자1

- 이름: 김
- 성별: 여자
- 나이: 86세(1924년 생)
- 출생지: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 거주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선대거주지: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 직업: 없음(예전에는 농업)
- 경력: 없음
- 학력: 없음
- 병역: 해당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7월 31일 주제보자인 황 할아버지께 조사를 하기 위해 마을회관으로 갔더니 황 할아버지께서 다른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김 할머니댁으로 안내를 해 주었다. 방문 취지를 말씀드리고 황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 내력과 의생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제보자로서의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 제보자의 특기 사항: 건강하고 충기도 좋으나 소극적이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는 편이고 주로 묻는 말에 대답하는 정도였다. 몇 년 전에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혼자 사신다.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다고 하면서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해서 주제보자로 삼기에는 주저되었다.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며 발음이 분명하다.

(2) 보조 제보자2

- 이름: 김
- 성별: 여자
- 나이: 86세(1924년 8월 1일생)
- 출생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거주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선대거주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직업: 없음(예전에는 농업)

- 경력: 없음
- 학력: 없음
- 병역: 해당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주제보자인 황 할아버지의 배우자로 조사 과정에서 옛 고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받고 구술하였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경주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고 장손 집안인 황 할아버지께 출가하여 남자가 하는 일에는 나서지 않으려는 강한 태도를 보였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나 무릎 관절 수술로 걷는데 매우 불편해 하시고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였다.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는 불편함도 지역어 조사와 같은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보였다.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나이에 비해 목소리가 크고 발음이 분명하였다.

(2) 보조 제보자3

- 이름: 김
- 성별: 남자
- 나이: 83세(1921년 월 일생)
- 출생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거주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선대거주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직업: 농업
- 경력: 농업
- 학력: 없음
- 병역: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제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장의 안내로 마을 회관에서 처음에 만났던 세 분의 어른 가운데 한 분인데 주제보자인 황 할아버지의 외사촌이다. 이웃에 살고 있어 황종연 할아버지가 제보자로 선정된 것을 알고 조사 기간에 이따금씩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 제보자의 특기 사항: 경주 김씨로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계신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나가서 생활한다. 이웃에 100세가 넘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따금 조사에 참여하면서 침착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보여주었다. 아시는 것도 많아 보이고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성격이다. 제보자인 황 할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아주 총명하신 분이라고 한다.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낮은 목소리로 말을 천천히 해서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였다. 말소리는 느리지만 발음은 또박또박 잘 하는 편이다.

1.5 조사 일정

- (1) 조 사 자: 박경래(세명대 교수)
- (2) 조사 일시: 2009년 7월 7일~10월 8일

제 1차 조사: 7월 11일~8월 19일

제 2차 조사: 10월 8일

(3)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296번지(황종연, 김동임, 김영구)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335번지(황종연, 김옥순)

(4) 조사 내용:

번호	파 일	조사 일자	제보자	영역 순서	조사 시간	항목 번호	비 고
01	SCB_BE_01	7월 31일		구술1	2:08:01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마을 들여다보기 1.2. 일생의례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02	SCB_BE_02	"		구술2	0:17:36	1.2. 일생의례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2.3. 전통 혼례식 1.4 의생활 1.4.1. 목화의 재배와 길쌈	
03	SCB_BE_03	"		구술3	1:11:21	1.2. 일생의례(김순옥 할머니) 1.2.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1.4 의생활 1.4.1. 목화의 재배와 길쌈 1.4.2. 누에치기와 비단 짜기 1.4.3. 옷 만들기	
04	SCB_BE_04	"		구술4	2:06:41	1.2. 일생 의례 1.2.3. 전통혼례식 1.2. 6. 환갑잔치 1.2.7. 장례 절차 1.2.8. 제사	
05	SCB_BE_05	7월 31일		구술5	0:07:45	농기구 및 기타 조상 관련	
06	SCB_BE_06	8월 2일		구술6	2:20:02	제1편 구술 1.3.3. 가을걷이와 겨우사리(자 리 매기) 1.3. 생업 활동 1.3.1. 논농사 1.3.2. 밭농사(~10313)	
07	SCB_BE_07	"		구술7	1:23:32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4~10323)	
08	SCB_BE_08	"		구술8	1:18:48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24~)	

						1.3.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소)	
09	SCB_BE_09	"		구술9	1:37:57	1.6. 거주생활 1.6.1. 집짓기	
10	SCB_BE_10	"		구술10	0:02:08	1.6. 거주생활 1.6.2. 가신과 조상 숭배 신앙	
11	SCB_BE_11	8월 9일		구술11	0:29:34	1.6. 거주생활 1.6.2 가신과 조상 숭배 신앙 1.6.3 금기 생활	
12	SCB_BE_12	"		구술12	1:25:51	1.7 질병과 민간요법 1.7.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13	SCB_BE_13	"		구술13	0:20:38	1.7 질병과 민간요법 1.7.2 약초 캐는 과정과 주변 이야기	
14	SCB_BE_14	"		구술14	0:04:03	1.7 질병과 민간요법 1.7.2 약재에 대한 이야기	
15	SCB_BE_15	"		구술15	0:26:22	1.7 질병과 민간요법 1.7.2 약초 종류와 효능 등에 대한 이야기	
16	SCB_BE_16	"		구술16	1:23:01	1.5 식생활 1.5.1 채소재배와 요리 1.5.2 나물채취와 요리	
17	SCB_BE_17	"		구술17	1:25:23	1.8 세시풍속과 놀이 1.8.1 세시풍속 1.8.2 전통놀이	
18	SCB_BE_18	8월 10일		구술18	0:58:36	1.8.3. 전설과 설화 1.9. 특수지역 생활 1.9.2 고기잡이(민물) 1.9.3. 약초 캐기 1.9.4. 사냥	
19	SCB_BE_19	"		어회1	1:58:55	농경 도입부 구술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 20316 껌질)	
20	SCB_BE_20	"		어회2	0:34:27	2.1.4 곡물 (20401곡식~20425고소하다)	
21	SCB_BE_21	"		어회3	2:26:53	2.1.5 채소 (20501 채소~20731 부침개)	
22	SCB_BE_22	"		어회4	0:37:50	2.2.3 부엌과 그릇 (20801부뚜막~20842개다리소반)	
23	SCB_BE_23	"		어회5	1:22:39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 21024 굴뚝)	

24	SCB_BE_24	"	어휘6	0:24:05	2.3.3 마당 (21101 뜰 ~ 21120 모서리)	
25	SCB_BE_25	8월 11일	어휘7	1:46:43	2.3.4. 마을과 가게 (21201마을 ~ 21265여남은)	
26	SCB_BE_26	"	어휘8	1:39:35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치마~21443다듬이질)	
27	SCB_BE_27	"	어휘9	1:00:41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설날 ~ 21528도깨비)	
28	SCB_BE_28	"	어휘10	1:29:09	2.5.2. 농경용품 (21601고삐 ~ 21742도롱이)	
29	SCB_BE_29	"	어휘11	1:26:13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 21937 목물)	
30	SCB_BE_30	8월 12일	어휘12	1:14:47	2.6.3. 하체 (22001복사뼈~22136잠꼬대)	
31	SCB_BE_31	"	어휘13	1:04:57	2.7. 육아 (22201 입덧 ~ 22258 부아)	
32	SCB_BE_32	"	어휘14	2:54:02	2.8 친족 (22301아버지~22379사투리)	
33	SCB_BE_33	"	어휘15	1:17:38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물고기 ~ 22541방개)	
34	SCB_BE_34	"	어휘16	1:13:11	2.9.3. 가축 (22601가축 ~ 22736올가미)	
35	SCB_BE_35	"	어휘17	0:54:06	2.10. 식물 2.10.1. 꽃과 식물 (22801진달래꽃~22828잔디)	
36	SCB_BE_36	8월 16일	어휘18	1:53:06	2.10.2. 나무(22901 소나무 ~) 2.11. 자연 2.11.1.산과 들(~23131-1찰흙)	
37	SCB_BE_37	"	어휘19	1:35:01	2.11.2. 강과 바다(23201 물 ~ 2.11.4.날씨와 방향(~23441서풍)	
38	SCB_BE_38	"	음운1	1:58:27	제3편 음운 3.1 음운 목록 3.1.1 단모음 (31001테 ~ 31088적다(少))	
39	SCB_BE_39	"	구술19	0:14:59	제1편 구술 식물 - 풀 종류에 대한 구술	
40	SCB_BE_40	"	음운2	2:35:02	3.2. 음운 과정 3.2.1. 활용 (32001막다(防)~32090마르다(裁))	

41	SCB_BE_41	8월 17일		음운3	2:50:42	3.2. 음운 정 3.2.1. 활용 (32091까다(안개-)~32212가볍다)	
42	SCB_BE_42	"		구술20	0:16:47	제1편 구술 보은 읍내 터에 대한 설명	
43	SCB_BE_43	"		구술21	0:10:40	제1편 구술 옛기름으로 옛 고는 과정	
44	SCB_BE_44	"		음운4	1:45:06	3.2. 음운과정 3.2.1. 활용 (32213젓다 ~ 32294부럽다)	
45	SCB_BE_45	"		음운5	0:55:46	3.2. 음운과정 3.2.1. 활용 (32295얹다~32331하얹다)	
46	SCB_BE_46	"		음운6	0:56:10	3.2. 음운과정 3.2.2. 곡용 (32332국(羹) ~ 32362밖(外))	
47	SCB_BE_47	"		문법1	0:45:06	제4편 문법 4.1. 대명사 4.1.1. 인칭대명사 (40101나~40113무엇-이냐/입니까)	
48	SCB_BE_48	"		구술22	0:03:43	제1편 구술 지역어조사에 대한 생각	
49	SCB_BE_49	"		구술23	0:28:15	제1편 구술 지역어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 동학혁명에 대한 이야기	
50	SCB_BE_50	8월 19일		문법2	1:28:31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 4.2.2 보조사~40241 가지고)	
51	SCB_BE_51	"		문법3	1:27:59	4.2.3 문장 뒤 조사 (40242-고~ 4.6 시제 (~ 40618 -겠-))	
52	SCB_BE_52	"		문법4	0:08:57	4.7 부정 (40701 안/않 ~ 40708 안/않)	
53	SCB_BE_53	"		문법5	1:22:59	4.8. 사동과 피동 4.8.1. 사동 ~ 4.11.2. 속담 (40801 살리다 ~ 41116 아 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랏)	
54	SCB_BE_54	"		구술24	1:17:21	1.5.3. 밀반찬 관련 이야기 일상 관련 이야기	
55	SCB_BE_55	"		구술25	0:11:06	제1편 구술 일상 관련 이야기 마을 지명 관련	

- (5) 조사 시간: 총 64시간 58분 53초
- (6) 녹음기: 마란츠 PMD 660
- (7) 마이크 : SHURE SM11

1.6. 전사

- (1) 전사자: 홍현화 / 박경래

전사 일시: 2009년 8월 24일 ~ 2009년 12월 5일

전사 내용: 구술발화 1번, 3번, 4번, 5번, 6번 파일 및 어휘, 음운, 문법 항목 전사

구술발화 전사시간: 6시간 00분

구술발화 SCB_BE_01 - 1:30:10

구술발화 SCB_BE_03 - 1:11:21

구술발화 SCB_BE_04 - 2:06:41

구술발화 SCB_BE_05 - 7:35

구술발화 SCB_BE_06 - 1:04:35

어 회 SCB_BE_19 ~ SCB_BE_37

음 운 SCB_BE_38

음 운 SCB_BE_40 ~ SCB_BE_41

음 운 SCB_BE_44 ~ SCB_BE_46

문 법 SCB_BE_47

문 법 SCB_BE_50 ~ SCB_BE_53

- (2) 1차 점검: 박경래 / 홍현화

1차 점검 일시: 2009년 9월 18일 ~ 2008년 11월 15일

- (3) 2차 점검: 박경래

2차 점검 일시: 2009년 11월 18일 ~ 2009년 12월 5일

2. 전사 원칙

2.1. 구술발화 전사

보은 지역어의 구술 발화는 여섯 시간 정도의 분량을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되 발음을 그대로 전사하였다. 구술발화는 발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여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분절하여 전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말과 조사자의 말을 각각의 문장으로 나누어 전사하였다. 구술 내용이 전환될 경우에도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전사하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하였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별로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한 다음 이어서 { } 안에 전사한 지역어에 대응하는 표준어 문장을 직역하여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단어의 일부가 생략되었지만 추정이 가능한 경우 () 안에 생략된 부분을 넣어 의미 파악이 용이하게 하였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마다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구술 내용과 질문지에 제시된 질문 내용의 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 “#1”(보조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제보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 인용하여 말한 경우에는 해당 인용 부분을 따옴표(‘ ’)로 표시하였다. 보은 지역어 조사의 제보자는 세 명이였다. 으나 각각 따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구술 참여자가 조사 상황에 여럿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또는 들리더라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경우에는 음절 수 또는 모라(mora) 수 만큼 * 부호를 넣었고,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추측 가능하거나 생략되었더라도 추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측할 수 있는 말이나 생략된 말을 () 안에 표기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음절이나 형태소 경계에서 제보자가 휴지를 두어 발음한 경우에는 음절 사이에 “-”를 넣어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발화된 내용에 따라 별도의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의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조사된 어절 단위로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각각의 분절에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보고서에는 하나의 표제항 아래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그 외에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도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지역어형을 분절하고 어휘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 또는 조사된 항목에 대하여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를 하였고,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 ⑪ 조사 시 제보자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응답형을 생각하지 못할 때 조사자가 해당 어형을 제시하여 나온 응답형일 경우 (조사자 제시)로 기록하였다.
- ⑫ 제보자의 응답형에 대해 제보자가 확신할 수 없어하는 경우에는 (?제)로, 조사자가 응답형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로 표시하였다.
- ⑬ 확인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어휘 항목은 구술발화의 보조 제보자 표시 부호와 나란하게 “#1”를 어휘 뒤에 붙였고 어휘나 음운, 문법 조사에서 보조 제보자의 응답형은 방언형 뒤에 “(보조)”라고 표시하였다.
- ⑭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어휘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분절하고 전사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등)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음운 항목 번호로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분절하고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문장 단위로 분절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문장 단위로 분절한 것은 해당 문법 항목의 사용 환경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다.

- ② 질문항목에 없거나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문법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분절하고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면 ‘위’로 전사하고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면 ‘위[wi]’로 전사하였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 [wE]로 실현되면 각각 ‘웨’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모음 ‘에(e)’와 ‘애(ɛ)’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ㅐ’로 통일시켜 표시하였다. 옥천 제보자는 ‘에(e)’ 발음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으로 특히 긴 장음은 “::”으로 표시하였다.
- ⑥ 이중모음 으([yi])는 으ㅡㄴ:구(연구), 으ㅡㅇ:감(영감) 등과 같이 표기하였다.
- ⑦ 하나의 단어 내에서 음절과 음절 사이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발음하는 곳에는 “-”으로 표기 하였다.
- ⑧ 말을 하다가 생략한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 발화

파일 번호: 01

SCB_BE_01

파일 내용: 제1편 구술발화: 1.1. 조사마을의 환경과 배경, 1.2. 일생의례-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3 생업활동-1.3.2 밭농사, 1.3.1 논농사, 1.1. 조사마을의 환경과 배경-1.1.1. 마을 들여다보기

조 사 자: 박경래(1958년생)

제 보 자: 황**(黃**) 1924년생(甲子年), 男, 86세, 쥐띠, 무학, 한글 해독, 서당에서 천자문 학습, 농업)

보조 제보자: 김**(金**) 1924년생(甲子年), 여, 86세, 쥐띠, 무학, 농업)

전 사 자: 홍현화, 박경래

주 소: 황**-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김**-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조 사 장 소: 김** 제보자의 집

조 사 일 시: 2009년 7월 31일

1.1. 조사마을의 환경과 배경

10101 # 여기 드려오다가 마을비에 저: 자 어:... {여기 들어오다가 마을비에 저 자 어...}

10101 @ 예. {예.}

10101 # 마을비에 거기 다: 새깅 거 보시라고 하대:, 으? {마을비에 거기 다 새깅 거 보셨다고 하데, 응?}

10101 @ 예. {예.}

10101 # 내가 머 애:기 하나 아나나 고거 보시쓰면 머 거기 다: 으: 거시키가 돼:찌유, 머. {내가 뭐 애기 하나 안 하나 그거 보셨으면 뭐 거기 다 응 거시기가 되었지요, 뭐.}

10101 # 나두 이 머:- 참 으:런들한테 드꾸서 하는 애:기지 머, 내가 그리 이썬서 머 거시 해쓰르는 알: 쭈가 인나. {나도 이 뭐 참 어른들한테 듣고서 하는 애기지 뭐, 내가 글이 있어서 머 거시기 했으면 알 수가 있나.}

10101 # 그리 난 그리유. {그래(요) 난 그래요.}

10101 @ 예:. {예.}

10101 # 월:래 여가 김씨 경주 김씨, 저:... {원래 여기가 김씨, 경주 김씨, 저...}

10101 # 참 토 토 토배기라구 하문 하까, 이 무시칸 말루 토배기라구 하까 허. {참 토 토 토박이라고 하면 할까, 이 무식한 말로 토박이라고 할까 허.}

10101 # 여가 이 반초니요. {여기가 이 반촌이요.}

10101 @ 예. {예.} 10101 # 으: 아주 양:반초닌대, {응, 아주 양반촌인데,}

10101 # 든넌 마:래년 여가 이:저내 지금 저 반기문 장관. {들은 말에는 여기가 이전에 지

금 저 반기문 장관.}

10101 # 그 반씨내 터썬때요. {그 반씨내 터였었대요.}

10101 @ 네. {네.}

10101 # 내가 드끼넌. {내가 들기로는.}

10101 # 근대 그 인재: 반씨내 턴대 경주 김씨내가 여기 드리오, 그 장: 짜 유 짜 하는 그
 냥바니 드리오시민서루 우트개 스사루 자꾸 그 반씨내가 대:꾸 풀리 나가개 대구.
 {그런데 그 이제 반씨내 터인대 경주 김씨네가 여기 들어오, 그 장 자 유 자 하는
 그 양반이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시나브로 자꾸 그 반씨네가 자꾸 풀려 나가게 되
 고.}

10101 # 으:, 이래서 여가 전부가 김씨내 터유, 음:. {응, 이래서 여기가 전부가 김 씨내 터
 요, 응.}

10101 @ 예, 그 그림 언:재썬 생겨때요, 이 동네가? {예, 그 그림 언제썬 생겼대요, 이 동
 네가?}

10101 @ 먼 년 저내? {몇 년 전에?}

10101 # 오:래돼찌. {오래 되었지.}

10101 # 아이 동:내 생긴 건 머 모:르지 머, 원:재쩍 쓰 머 원:재버텨 생긴 건지 머 그:.
 {아이 동네 생긴 건 뭐 모르지 뭐, 언제 적 뭐 언제부터 생긴 건지 뭐 그.}

10101 # 으:, 그 인재 여 와서 서, 자:끼넌 그 장: 짜 유 짜 하시넌 으르니 드루와서루 인
 쥔- 그 자손덜 퍼차따니깨루. {응, 그 이제 여기 와서 서, 잡기는 그 장 자 유 자
 하시는 어른이 들어와서 인재 그 자손들을 퍼뜨렸다니까.}

10101 # 오래돼찌유 머. {오래되었지요 뭐.}

10101 @ 그러면 이 동네는 성씨가 주로 김씨드리겐내요? {그러면 이 동네는 성씨가 주로
 김씨들이겠네요?}

10101 # 전부 거짐 김씨요. {전부 거의 김씨요.}

10101 # 타이 타 타이넌 메단대요. {타인 타 타인은 몇 안돼요.}

10201 # 으:, 나는 승:이 장수 황간대, 황히 황 정성 이:십삼대 소니유, 황히 황 정성. {응,
 나는 성이 장수 황가인데, 황희 황 정승 이십삼대 손이에요, 황희 황 정승.}

10201 @ 예:, 황히 정승? {예, 황희 정승?}

10201 # 예:, 그래서루... {예, 그래서...}

10201 # 우리넌 월래 고향이 상주 모동이유, 여 경북. {우리는 원래 고향이 상주 모동이에
 요, 여 경북.}

10201 # 상주. {상주.} 10201 @ 저: 선대는? {저 선대는?}

10201 # 예:, 거기 다 계:시고. {예, 거기 다 계시고.}

10201 # 또 저: 황히 정성 둘:째 아덜 소년대요, 어:. {또 저 황희 정승 둘째 아들 손인데
 요, 어.}

10201 # 그 으르넌 소:윤공이라구 인재 하시구. {그 어른을 소윤공이라고 이제 하시고.}

10201 # 또 크나더런 저: 호:완공이고: 크나더런. {또 큰아들은 저 호완공이고 큰아들은.}

10201 # 우리 하라부지넌 소:윤공이시구. {우리 할아버지는 소:윤공이시고.}

10201 # 또 시:째넌 절라도 저: 거 가서루 배포릴 하신넌대, 거기넌 수 짜 진까 열썬공이
 유, 그 어르넌. {또 셋째는 전라도 저 거기 가서 배포를 하셨는데, 거기는 수 자
 진 자 열성골이에요, 그 어른은.}

10201 # 어:, 시:째 어른. {응, 셋째 어른.}

10201 # 그래 우리가 중파찌비요. {그래서 우리가 중파 집이에요.}

10201 @ 예:. {예.}

10201 # 중파찌빈대 인재 그 중파 하라부지는 우리가 시향을 모:시지유, 으 모시구. {중파 집인데 이제 그 중파 할아버지는 우리가 시향을 모시지요, 응 모시고.}

10201 # 큰하라부진 인재 큰하라부지 인재 장:파찌배서 인재 모시구. {큰할아버지는 이제 큰할아버지 이제 장파 집에서 이제 모시고.}

10201 # 삼:파루 그르캐 다: 그르캐 노나서 그르캐 인재 갈라져 인는데. {삼파를 그렇게 다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데.}

10201 # 그러면 대꿈 애:기 해두 돼요? {그러면 자꾸 애기 해도 돼요?}

10201 @ 예! 하시구 시풍 거 다 하셔두 돼요. {예!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10201 # 그래서 인재 이개 다: 다: 우 자꾸 우리집 애:기만 하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다 우(리) 자꾸 우리집 애기만 하네요.}

10201 @ 헤헤헤. {헤헤헤.}

10201 # 그래서 인재 그:: 중파애 소:윤공 하라부지 인재 후손. {그래서 이제 그 중파애 소 윤공 할아버지 이제 후손.}

10201 # 그: 후손하문 인재 후소니 여러: 인재 거시키 머 수 읍짜나요? 수수 읍는데, {그 후손하면 이제 후손이 여러 이제 거시기 뭐 수도 없잖아요? 수도 없는데,}

10201 # 참 그 가운데서두 인재 글도 하시구. {참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글도 하시고.}

10201 # 참 나라애 벼슬 가서 벼슬도 하시고 인재 그래 잠 이럼 인년, 기:시년 으러년, {참 나라애 벼슬, 가서 벼슬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참 이름은 있는, 계시는 어른은,}

10201 # 그 상조 저:, {그 상주 저,}

10201 # 그르니께 그 머 시 시:내두 아니구 그냥 산, 저 모동 며:니유. {그러니까 그 뭐 시 시내도 아니고 그냥 산, 저 모두 면이에요?}

10201 # 면사무소 그: 미태 가머년 저: 수봉이라년 하년 동네가 이씨요, 수봉. {면사무소 그 밑에 가면은 저 수궁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수궁.}

10201 @ 수봉? {수봉?}

10201 # 예:. {예.}

10201 # 수봉애 거긴- 정자덜 모시씨요. {수봉애 거기 정자를 모셨어요.}

10201 # 저기 그 방촌 선조 인재 방촌 선조 그 저기 정자를 지:꾸서. {저기 그 방촌 선조 이제 방촌 선조 그 저기 정자를 짓고서.}

10201 # 고: 아패년 인재 여푸루년 저: 서원, 서원. {고 앞에는 이제 옆으로는 저 서원, 서원.}

10201 @ 예. {예.}

10201 # 으: 서워널 인재 이러캐 지:꾸서루 거기다 위패덜 모셔씨요. {응, 서원을 이제 이렇게 짓고서 거기다 위패를 모셨지요.}

10201 @ 예:. {예.}

10201 # 어: 위:패를 인재 그 인재 방촌 선조 그분하고 또 나한테 저: 그 조금 저 우애 또 하라부지 또 그 우:애 줌 하라부지하구 그래 인재 세: 분 아니개쓰요? {어 위패를 이제 그 이제 방촌 선조 그분하고 또 나한테 저 그 조금 저 위에 또 할아버지 또 그 위에 줌 하라부지하고 그렇게 이제 세 분 아니겠어요?}

10201 # 그라구 인재 드르니까루 그른 서워애넌 타:인두 이쓰야 댜대요. {그리고 이제 들으니까 그런 서원에는 타인도 있어야 된대요.}

10201 # 타인두 모:시야지 내 조상만 모:시머넌 근 나만태 요그더 멍넌다고. {타인도 모셔야지 내 조상만 모시면 그건 남한테 욱 얻어 먹는다고.}

10201 # 저: 옥쳐내 전, 저: 전 씨 옥천 전 씨 한 부넌 참 고명하싱개비요. {저 옥천에 전, 저 전 씨 옥천 전 씨 한 분은 참 고명하싱가 봐요.}

10201 # 그 으:러닐 거기 가치 이러캐 모:셔때요, 으:. {그 어른을 거기 같이 이렇게 모셨대요, 응.}

10201 # 그래서 거 네: 부넌 모시구. {그래서 거기 네 분을 모시고.}

10201 # 그래서 인재 열래는 그 저: 방촌 선조께서루 그 저 회, 외자 이르미요 으: 회 으:.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저 방촌 선조께서 그 저 회, 외자 이르미요, 응 회 응.}

10201 # 그 으:르니 저: 지난 장 장수, 장수에 와서 기셔써때요, 으:. {그 어른이 저 진안 장 장수, 장수에 와서 계셨었대요, 응.}

10201 # 근대 거기 기:실 찌개 예: 사지닐 이러캐 해서루 저: 찌건넌대, 지금-무루 말하면 인재 이 춘:, 츠:내다 이러캐 찌건넌지 명주애다 찌건넌지 이런, 이렇 거릴 이르캐 사진얼 참 해:가주서루 간수릴 하다가:, 그 머 새워리 이러캐 흐:매 가주서루 그걸 잘:: 이개 보과닐 할라니깨루 누가 보관하덜 모타.{그런데 거기 계실 적에 예 사진을 이렇게 해서 저 찍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 천, 천에다 이렇게 찍었는지 명주애다 찍었는지 이런, 이런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참 해 가지고 간수를 하다가, 그 뭐 세월이 이렇게 험해 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보관을 하려니까 누가 보관하지를 못 해.}

10201 # 그래서 인재 우리 하라부지가, 둘:째집 하라부지가 우리 하라부진대 그 으:러니 그글 저 영장얼 삼:장 모셔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집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인데 그 어른이 그걸 저 영정을 계속 모셨대요.}

10201 # 그래 모:시 가주서루 저:기 인젠, 그 인재 인재 사후애 인재 거시캐서 모:션넌대, 방촌 선조 인저 사후애 인재 이러캐 모:시따가서루, {그렇게 모셔 가지고 저기 이제 그 이제 이제 사후애 이제 거시기해서 모셨는데, 방촌 선조 이제 사후애 이렇게 모셨다가,}

10201 # 그 인저 서워닐 인재 지꾸서루 서워내다 저기 이러캐 또 또 갓, 모:시씨요 그리, 서워내다가. {그 이제 서원을 이제 짓고서 서원에다 저기 이렇게 또 또 갓, 모셨어요 그리로, 서원에다.}

10201 # 그래 모:셔따가서루 인재 요 중녀내, 중녀넌 멀:두 안해요. {그렇게 모셨다가 이제 요 중녀내, 중녀는 멀지도 않아요.}

10201 # 인재 요 한 이삼, 한 이 태 내애, {이제 요 한 이삼, 한 이태 내애,}

10201 # 우리 저: 대종계가 이씨요, 서우래, 저: 창:신동애. {우리 저 대종계가 있어요, 서우래, 저 창신동애.}

10201 # 황, 우리 장수 황가애넌 다: 거기 저기 거기 거시기가 대 대이씨유, 으. {우리 장수 황가애는 다 거기 저기 거기 거시기가 되어 되어 있어요, 응.}

10201 # 저: 그 인재 중중얼 팔리할 거시기가 대 이씨요. {저 그 이제 중중을 팔리할 거시기가 되어 있어요.}

10201 # 그래 그 거기에 인재 이먼더리 모셔, 저 모이 가주서루, {그렇게 그 거기에 이제

임원들이 모셔, 저 모여 가지고,}

10201 # 그 그 하라부지 황 히 정승 그 하라부지 영장얼 옥똥 서위내 게:시녕 걸 중앙방물
과내다가 기증얼 하자구, 으. {그 그 할아버지 황 히 정승 그 할아버지 영정을 옥
동 서원에 게시는 걸 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하자고, 응.}

10201 # 그래 가주서루 중앙방물과느루 모 모:셔가쵸요, 그 저: 영장얼. {그래 가지고 중앙
박물관으로 모 모셔갔어요, 그 저 영정을.}

10201 # 그래서 지금 여기 옥똥 서위내넌, 몰라 또 저: 거시키해서루 인재:, 그걸 머라 구
리야, 이 저: 새루 이러개 쩡:녕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옥동 서원에는, 몰라 또
저 거시키해서 이제, 그걸 뭐라 그래, 이 저 새로 이렇게 찍는 거?}

10201 # 그걸 해서루 어:, 모:신 데가 인능가 몰라두 원파넌 중앙방물과느루 모 모:시 가쵸
요. {그걸 해서 어, 모신 데가 있는가 몰라도 원판은 중앙박물관으로 모 모셔 갔
어요.}

10201 @ 예:. {예.}

1.2. 일생의례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하라버님:이 성하미? {할아버님이 성함이?}

10201 # 황중연. {황중연.}

10201 @ 중 짜는? {중 자는?}

10201 # 연 짜, 몬 연 짜. {연 자, 못 연 자.}

10201 @ 몬 연 짜구, 중 짜는? {못 연 자고, 중 짜는?}

10201 # 쇠, 저: 쇠북 쫑 짜. {쇠, 저 쇠북 중 자.}

10201 @ 쇠북 쫑 짜. {쇠북 중 자.}

10201 # 어: 예 어 쇠금 벼내: 술, {어 예 어 쇠금 변에 설,} 10201 @ 아이 동 짜 쫑 거.
{아이 동 자 쓴 거.} 10201 # 어:, 소리파고 미태 마을 리. {어, 설 입하고 밑에
마을 리.}

10201 @ 예, 예. {예, 예.}

10201 # 이기 중 종사니요, 중. {이게 중 종산이에요, 중.} 10201 @ 예. {예.} 10201 #
종이라는 중 종사닌대, {종이라는 중 종산인데,} 10201 @ 예예. {예예.}

10201 # 내가 여기 와서루 우리 아버지가 여기 오시서루 오시던 대 이쵸 가주서 고 이듬
해 날 나:때요, 나털.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 오셔서 오시던 해 있어
서 고 이듬해 낳 낳았대요, 나털.} 10201 @ 예. {예.}

10201 @ 예. {예.}

10201 # 그래 날: 낳: 거시 발 팔썸눔너니 돼:쵸유. {그래 날 난 것이 팔, 팔십육 년이 됐
어요.}

10201 # 그래서 여기 중 짜:털 는너라구 그래 중연니라. {그래서 여기 중 자를 넣느라고
그래서 중연이라.}

10201 # 인재 연 짜넌 돌림짜구:. {이제 연 자는 돌림자고.}

10201 @ 네:. {예.}

10201 # 으:. {응.}

10201 # 그래서 종 짜릴 하하하하 느:따구 그러케 말쓰멀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종 자를 하하하하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10201 @ 으응. {으응.}

10201 # 츠:매년 식, 애:명으루넌 시물 썩 짜여. {처음에는 식, 아명으로는 심을 식 자야.}

10201 # 종얼 가따 여기다 시머따. {종을 갖다 여기다 심었다.}

10201 @ 예예:, 예예:. {예, 예.}

10201 # 허허허 허 시물 식 짜 근 애:명인대, {허허허 허 심을 식 자 그건 아명인데,}

10201 # 근 돌림짜두 아니요, 식 짜넌. {그건 돌림자도 아니요, 식 자는.}

10201 @ 예예:. {예.}

10201 # 음:, 그래요. {응, 그래요.}

10201 # 아버님한테 드른 대루만 나넌, {아버님한테 들은 대로만 나는,} 10201 @ 예 예:. {예 예.} 10201 # 예:, 말씀드리닝 거요. {예, 말씀드리는 거요.}

10201 @ 연새가?: {연새가?}

10201 # 예:, 몬 연 짜가 돌리미요. {예, 못 연 자가 돌립이요.}

10201 @ 아이 연새가 지금 여든여서시라 그르셔짜나요? {아니, 연새가 지금 여든여섯이라 그러셨잖아요? 10201 # 예:, 예. {예, 예.}

10201 @ 그럼 무슨 떠:이시쥬? {그럼 무슨 떠이시지쥬?}

10201 # 쥐 떠:. {쥐 떠.} 10201 #1 지 떠유. {쥐 떠요.}

10201 @ 쥐 떠. {쥐 떠.} 10201 #1 예 그르잉까 한 동개비라고 그르케:, {예 그러니까 한 동갑이라고 그렇게,} 10201 # 쥐 떠, 쥐 떠여. {쥐 떠. 쥐 떠야.} 10201 #1 와서 소길 하자나. {와서 소개를 하잖아.}

10201 @ 그러며는 어: 삼십삼 년 생이신가요? {그러면 어 삼십삼년 생이신가요?}

10201 # 그리잉께 그저내 이, 일구이사년. {그러니까 그전에 이, 일구이사년.}

10201 @ 아, 일구이사년 생이시라구? {아, 일구이사년 생이시라고?}

10201 # 어: 일구이사년 생이유. {어, 일구이사년 생이요.}

10201 @ 예:. {예.}

10201 @ 아: 그러켄내, 예:. {아 그렇겠네, 예.} 10201 # 그래, 그리잉께 왜정 때:, {그래, 그러니까 왜정 때,}

10201 # 시물한 살 머그머넌 일본놈더리 무조:껌 구넌 가느라구 부째피 가썰. {스물한 살 먹으면 일본놈들이 무조건 군인 가느라고 붙잡혀 갔어.}

10201 # 그래서, 먼저두 내가 말씀 드리썬지 왜 저:기 노인정에서? {그래서,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었지 왜 저기 노인정에서?}

10201 @ 예:. {예.}

10201 # 내가 하꼬릴 모: 땡기썰. {내가 학교를 못 다녔어.}

10201 @ 예. {예.}

10201 # 하두: 우리 아버지가 가나나개 사르시구. {하도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게 사시고.}

10201 # 그래서 인저: 농사질 짜라미 이썬야지. {그래서 이제 농사지를 사람이 있어야지.}

10201 # 우리 아버지 일: 모 타시지. {우리 아버지는 일을 못 하시지.}

10201 # 쪼마창 나며 땅 으:더 가주구서루 부치넌대 일꾼 새경 주구 머 내 이배 드리갈 끼

이썬니까? {조그만큼 남의 땅 얻어 가지고 부치는데 일꾼 사경 주고 뭐 내 입에 들어갈 게 있습니까?}

10201 # 그래서 나랏 하꼬릴 모: 깔키썬요. {그래서 나를 학교를 못 가르쳤어요.}

10201 # 모: 깔키구 인재 내가 농사랏 지:민서루, 쪼끄마창 이거 이 거시캐서 지:민서, 할 쫑두 모루넝 걸 지:민서루, {못 가르치고 이제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조그만큼 이거 이 거시기해서 지으면서, 할 줄도 모르는 걸 지으면서,}

10201 # 인재 내: 동생이 인재 또 알루 저기 두:리 두:리 나:썬요. {이제 내 동생이 이제 또 아래로 저기 둘을 둘을 낳았어요.}

10201 # 그 그: 인재 새이애. {그 그 이제 사이애.}

10201 # 그래 인재 그 동생더런 인재 하꼬릴 가짜, 궁민하꼬로. {그 이제 그 동생들은 이제 학교를 갔지, 초등학교로.}

10201 # 그땐 보:통하꼬여. {그땐 보통학교야.}

10201 @ 예:. {예.}

10201 # 예:, 보:통해꼬 인재 둘: 다 보:통해꼬 가고. {예, 보통학교 이제 둘 다 보통학교 가고.}

10201 # 나넝 참, {나는 참,}

10201 # 머꾸 그저 나무나 해다 끌거다 때구:, {먹고 그저 나무나 해다 굶어다 때고,}

10201 # 불, 불 때서 어머니 아버지가 여개 바패다 주넝 대루 머꾸서루 가 그저 낭기나 해 오구 그래, 그 정도구. {불, 불때서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에 밥 해다 주는 대로 먹고서 가서 그저 나무나 해 오고 그래, 그 정도고.}

10201 # 인재 쪼꿈 인재 나이가 인재 줌 드러서루 열:: 다썬 내지 여썬 대썬 썬개버텀 인저: 내가 마타서 농사랏 해썬요.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줌 들어서 열다섯 내지 여섯 되었을 적에부터 이제 내가 말아서 농사를 했지요.}

10201 # 어:, 인저 그땐 일:꾼 두덜 모티야. {응, 이제 그때는 일꾼 두질 못 해.}

10201 # 일꾼 둘 새경이 안 나와 나무 농사꺼리 으:더 가주구서. {일꾼 둘 사경이 안 나와 남의 농삿거리 얻어 가지고서.}

10201 # 허허 허, 그래민서 인재 내 동생얼 갈쳐짜:. {허허 허, 그러면서 이제 내 동생을 가르쳤지.}

10201 # 내 동생두 마이 배워썬요. {내 동생도 많이 배웠어요.}

10201 # 인저. {이제.}

10201 @ 예:. {예.}

10201 # 선생, 선생꺼지 해:썬, 저긴대. 두:, 시 시:썬 동생언 근 참 머: 궁민해꼬배긴 몬: 나오고. {선생, 선생까지 했어, 저긴대. 둘, 세 셋째 동생은 그건 참 뭐 초등학교밖에는 못 나오고.}

10201 # 건 저: 경기도 저: 안산, 안산 가서 사라요. {그건 저 경기도 저 안산, 안산 가서 살아요.}

10201 # 어. {어.} 10201 @ 음. {음.}

10201 @ 이: 동네가, 동네 주소가 어트개 돼요? {이 동네가, 동네 주소가 어떻게 돼요?}

10201 # 종공니. {종곡리.}

10201 # 어, 보은읍 종공니여. {어, 보은읍 종곡리야.}

10201 @ 보은읍 종공니. {보은읍 종곡리.} 10201 # 어 어, 종. {어 어, 종.}

10201 # 중 짜 아까 그 중 짜. {중 자 아까 그 중 자.}

10201 @ 쇠북 쫑 짜. {쇠북 중 자.}

10201 # 어: 골 곡 짜, 예: 불 화 미태 이 저:... {응, 골 곡 자, 예 불 화 밑에 이 저...}

10201 @ 예예. {예예.}

10201 # 어, 중궁니. {응, 중곡리.} 10201 @ 골 곡 짜고. {골 곡 자고.} 10201 # 예.
{예.}

10201 @ 여기 하라번님 외가찌비 이 동네라 그러서짜나요? {여기 할아버님 외갓집이 이
동네라 그러셨잖아요?}

10201 # 바루 고 여패 찌비유, 그 큰:: 기와집. {바로 고 옆에 집이요, 그 큰 기와집.}

10201 @ 지금 그, {지금 그,} 10201 # 어: 거 보시찌유? {응, 그거 보셨지요?}

10201 @ 별통 인는 집? {별통 있는 집?}

10201 # 예:, 별통 인는 그 지금 별통 이래: 마당애 가따 와짜나요? {예, 별통 있는 그 지
금 별통 이렇게 마당애 갖다 났잖아요?}

10201 @ 예:. {예.}

10201 # 거:기서 내가 난: 사라미유. {거기서 내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10201 @ 네:. {네.}

10201 # 고 지금두 고대:루 이썬요, 그 나 난: 지비. {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내가
(태어)난 집이.}

10201 @ 예:. {예.}

10201 # 헤헤헤 헤. {헤헤헤 헤.}

10201 # 그래. {그래서.}

1.1. 조사마을의 환경과 배경

10102 @ 여기 저기 저기 저수지:애 대한 무슨 전서리나 이렇 거 이썬요? {여기 저기 저기
저수지에 대한 무슨 전설이나 이런 거 있어요?}

10102 @ 이 동네애 무슨 전,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 {이 동네에 무슨 전, 옛날부터 내려오
던 거.}

10102 @ 사니나 전, 저수지나 머 이렇 거애 대한 얘기 이짜나요. {산이나 전, 저수지나 뭐
이런 거애 대한 얘기 있잖아요.}

10102 # 저:, 전서리라능 거선 머 다름 거 우:꼬, 지금도 유지해 가주구 인넌대, {저, 전설
이라는 것은 뭐 다른 거 없고, 지금도 유지해 가지고 있는데,}

10102 # 저: 성 대:곡 선생니미 해구, 그 그 어르니 저기 대:고기 인재 저: 호, 흥:개비구,
{저 성 대곡 선생님이 하고, 그 그 어른이 저기 대곡이 이제 저 호, 호인가 보고.}

10102 @ 예:. {예.}

10102 # 또: 함짜넌 따루 인능개비요. {또 함자는 따로 있는가 봐요.}

10102 @ 예:. {예.}

10102 # 근테 거가 저기 그: 선생님 우패럴 모신 대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가 저기 그 선
생님 위패를 모신 데가 아니라,}

10102 # 그 그 으르니 선생님:미신대 그렇게 훈:하걸 헐, 훈:학 훈:해기라 구라자나? {그

그 어른이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훈학을 했, 훈학 훈학이라 그러잖아?)

10102 @ 예:. {예.}

10102 # 남 자식, 개 갈키느라구 후:나긴대, 후:낙 하민서루 그 저기 계:자더리 이래 계:럴
 파 가주서루, {남의 자식 가르치느라고 훈학인데, 훈학 하면서 그 저기 계자들이
 이렇게 계를 모아 가지고서,}

10102 # 계:럴 파 가주 그 뒤: 사내서 모두 재모걸 래다 그 지별 지어따구 그르캐 너리와
 썩요. {계를 모아 가지고 그 뒤 산에서 모두 재목을 내다가 그 집을 지었다고 그
 령게 내려왔어요.}

10102 # 으:, 그래서 지금 팔리두 거 계:에서 해요. {응, 그래서 지금 팔리도 그 계에서 해
 요.}

10102 # 으:, 김씨, 김씨두 이꾸 머: 참 거기 머 마:늘 테지 머 거 계:월더리. {응, 김씨, 김
 씨도 있고 뭐 참 거기 뭐 많을 테지 뭐 거 계월들이.}

10102 # 참 위토답뚜 장만하구 그래서 그 드, 저: 대:곡 선생님 저 위토를 맨드러서, {참
 위토답도 장만하고 그래서 그 대, 저 대곡 선생님 저 위토를 만들어서,}

10102 # 산소가 지금 저: 고개 너머 이썩니다. {산소가 지금 저 고개 너머에 있습니다.}

10102 # 여기서 저: 너매 너머가녕 고 바루 고. {여기서 저 너머에 넘어가는 고 바로 고
 기.}

10102 # 산쨍등 너매 거기 비가기 이썩요. {산등성이 너머에 거기 비각이 있어요.}

10102 # 비가기 인년대, 산소로 바:, 산소두 거기 바루 이꾸. {비각이 있는데, 산소도 바
 (로), 산소도 거기 바로 있고.}

10102 # 그래서 김씨 문중에서루 지금 다: 그 수:서 나가요, 거 산소를. {그래서 김씨 문중
 에서 지금 다 그 수서 나가요, 그 산소를.}

10102 # 나 이가 이러캐 저: 새로 해 느:떠니 자꾸 마:리 새:서 잘 안 나와, 어:, 허허허허.
 {나 이가 이렇게 저 새로 해 넣었더니 자꾸 말이 새서 잘 안 나와, 응, 허허허허.}

10102 @ 머, 갠차느신대요 머. {뭐, 갠찮으신대요 뭐.}

10102 # 나 나 드끼애넌 그리유. {나 나 듣기에는 그래요.}

10102 @ 예, 해해. {예, 해해.}

10102 # 나 드킨 그래서. {내가 듣기는 그래서.}

10102 # 참 그 대곡 선생님 유래가 여기 엄청 참 지푼대, 저 역사가 지푼대, 다: 내가 알들
 모 태 애:길 다: 모 태요, 그래. {참 그 대곡 선생님 유래가 여기 엄청나게 참 깊
 은데, 저 역사가 깊은데, 다 내가 알지를 못 해 애길 다 못 해요, 그래서.}

10102 # 마:른 그라태요:. {말은 그렇데요.}

10102 # 여긴년 이 서태곡 선생님 시산나런 질 가년 행인두 와서루 그나런 시사 참사하넌
 데라구, 음. {여기는 이 성대곡 선생님 시샷날은 길 가는 행인도 와서 그날은 시
 사 참석하는 데라고, 응.}

10102 # 그 선대에서 그: 선생니만태 다: 모두 글 배운 선대래야. {그 선대에서 그 선생님
 한테 다 모두 글 배운 선대래요.}

10102 @ 네. {네.}

10102 # 으:, 그래서루. {응, 그래서.}

10102 # 우리지배 아번님두 여기에 점 사:시닝께 그 머 가잡짜나, 여기서? {우리집 아버님
 도 여기에 좀 사시니까 뭐 가잡잖아, 여기서?}

10102 # 그래 시:산나런 그 김씨 문중에서 인재 그래 저기 가시자구 그르케 하는 때가 늘
봐:써유 내가. {그래서 시삿날은 그 김씨 문중에서 이제 그렇게 저기 가시자고 그
렇게 하는 때가 늘 봤어요, 내가.}

10102 # 그래 가시면 참 추판, 어 추판 하시구 음. {그렇게 가시면 참 축관, 응 추관 하시
고 음.}

10102 @ 추파니 머요? {축관이 뭐예요?}

10102 # 축, 충: 잉녕 거. {축, 축 읽는 거.}

10102 @ 아, 추강능 거?: {아, 축 읽는 거?} 10102 # 어:. {응.}

10102 # 어:, 인재 혼:과는 인재 혼:과는 인재 저 그 저 묘: 아패 가서 인재 이 자리 깔구:
이래 무루 꾸꾸 안즈면 인재 이짜개서 술, 저: 저기서 잔 잔 너리다가 잔 너리다
가 인재 이래 이라머닌. {응, 이제 현관은 이제 현관은 이제 저 그 저 묘 앞에 가
서 이제 이 자리 깔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이제 이쪽에서 수, 저 저기에서
잔 잔 내려다가 잔 내려다가 이렇게 이러면.}

10102 # 그 집싸라 구라지, 집싸? {그 집사라 그러지, 집사?}

10102 @ 네:. {네.}

10102 # 여기서 인재 술뺑 따라 가주서 이러캐서 술 부머닌 이러캐 올리 노쿠, 음:. {여기
서 이제 술병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술을 부으면 이렇게 올려 놓고, 응.}

10102 @ 여기 동네 이르른 어트개서 생겨때요? {여기 동네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겼대
요?}

10102 @ 종고기라는 이름. {종곡이라는 이름.}

10102 # 종고기라 이 사늘: 가주 주잉, 저:기 종고기라고 항 거 그때요. {종곡이라는 이 산
을 가지고 주잉, 저기 종곡이라고 한 거 같대요.}

10102 # 이 산, 이 종그치 생겨따구. {이 산, 이 종같이 생겼다고.}

10102 @ 요기 저기 여 저... {요기 저기 여 저...} 10102 # 예:, 이 산. 야:, 요 똥:고란해
요 요거 사니. {예, 이 산. 예, 이 동그래요 요거 산이.}

10102 # 저::기서부터 인재 삼::장 저 뒤싸내서부터 따라 내려온 건대, {저기서부터 이제
사뭇 저 뒷산에서부터 따라 내려온 건대.}

10102 # 요구 와선 이러캐 똑 수박끄치 이러캐 이래 와서 동그라케 이래 뭉치 가주서루
요구 와서 요기 요기 마마리똥 기여 요기. {여기 와서는 이렇게 꼭 수박같이 이렇
게 이렇게 와서 동그랴게 이렇게 뭉쳐 가지고서 요기 와서 요기 마무리된 거야 요
기.}

10102 @ 예:. {예.}

10102 # 어: 요기 요 교회 뒤편에 와서 예:. {응, 요기 요 교회 뒤편에 와서 예.}

10102 # 그래서 그래서루 여가,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10102 #1 안쫑고기라구 하지. {안종곡이라고 하지.} 10102 # 음:. {응.}

10102 # 그래서 여가 종고기란대 이:전애, {그래서 여기가 종곡이라는 데 이전애,} 10102
#1 *****서 종고긴대, {***** 종곡인데,}

10102 # 어:, 이:전애넌 으:런더리 하시넌 말쓰미 열두:, 열두 동네씨떠야, 이 종곡캐 종고
카는 디가. {응, 이전애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열두 열두 동네였었는데, 이 종곡
종곡이라고 하는 데가.}

10102 @ 예. {예.}

10102 # 저: 인재 주위루 저리 나무서 다: 이 종곡 그 종고기라구 그르케 해써따구 구래요. {저 이제 주위로 저리 나가서 다 이 종곡 그 종곡이라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10102 @ 어디 어디 열두 구? {어디 어디 열두 군데?}

10102 # 저 머 다: 저쪽 도라가면서 그 머 이 저 대면 여:러 군대지 머. {저 뭐 다 저쪽 돌아가면서 그 뭐 이 저 대면 여러 군대지 뭐.}

10102 @ 큰 소리루 하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10102 # 아니여:. {아니야.} 10102 @ 큰 소리루. {큰 소리로.}

10102 # 종고카면 인저 종곡 인저:, {종곡하면 이제 종곡 이제,}

10102 #1 아이, 삼상골, 모종꿀, 땡편, 중땡, 다라:니 그르차나? {아니, 삼성골, 모종골, 땡편, 중등, 다라니 그렇잖아?}

10102 # 음:, 그른 아이 저기 바까부실꺼정 다: 도리가민서, {응, 그런 아니 저 바깥부슬까지 다 돌아가면서,} 10102 #1 바까부실꼬:정 글썤 열뚜 동네리야. {바깥부슬까지 글썤 열두 동네래.}

10102 # 그썤 그래서루 열뚜 동네리야. {글썤 그래서 열두 동네래.}

10102 # 삼 머 강신, 성족, 저: 누저. {삼 뭐 강신, 성족, 저누저.}

10102 #1 거기꺼정 다: 열뚜 동네여. {거기까지 다 열두 동네야.} 10102 # 으:, 어: 길, 길 쌍 대:야 거기두 다: 여 일부루 드루와때요, 그 이:저내년. {응, 응 길, 길상 대야 거기두 다 여기 일부로 들어왔대요, 그 이전에는.}

10102 # 음:, 명칭이. {응, 명칭이.}

10102 # 근대 지금 다: 불류가 대서루 인재 지그면 다: 이기 노나저찌마넌. {그런데 지금 다 분류가 되서 이제 지금은 다 이게 나눠졌지만.}

10102 # 음, 이:저낸 그래서 열뚜 동네가 돼따구 그런 얘:기가 이때요. {응, 이전에는 그래서 열두 동네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10102 @ 예. {예.}

10102 @ 그렇 거 하라버님 말씀 안해 주시면 인재 나:중애 모:르자나요, 동네 절문 사람드른. {그런 거 할아버님이 말씀 안해 주시면 이제 나중엔 모르잖아요, 동네 절은 사람들은.}

10102 # 그래 나 이 나두 이 드른 전서리지. {그래 나 이 나도 이 들은 전설이지.}

10102 @ 예. {예.}

10102 # 으:, 전서리지 내가 그 실찌루 봐:써야지 머. {응, 전설이지 내가 그 실제로 봤어야지 뭐.} 10102 #1 절문 사람덜 그렇 걸 자라지: 배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지 배워...}

10102 # 인재 팔썸여서태배끼, {이제 팔썸여섯 해밖에,}

10102 #1 시방 절문 사람덜 암 배운 사람 움짜나:. {시방 젊은 사람들은 안 배운 사람 없잖아.}

10102 #1 이런 노인내년 안 배워찌. {이런 노인네는 안 배웠지.}

10102 @ 몰:라요, 그래두. {몰라요, 그래도.} 10102 # 팔 팔썸여서쌀 된 사라미. {팔 팔썸 여섯 살 된 사람이.} 10102 @ 양 가르치자나요, 그렇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

10102 # 머 그보다 더 역싸 기폰 애기년 알덜 모태 머여 으: 모티야. {뭐 그보다 더 역사 깊은 애기는 알지를 못해 뭐 으: 못해.}

10102 @ 요 저수지: 유래는 업써요, 저수지에 대한 얘기는 업써요? {요 저수지 유래는 없어요, 저수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10102 # 저수지년 인재:, {저수지는 이제,} 10102 #1 아이, 그건 몰라. {아이, 그건 몰라.}

10102 # 땡 거신. {된 것은.}

10102 # 제:가 말씀 드리께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10102 # 저수지 땡 거년 여 다르미 아니고:. {저수지 된 거는 여기 다름이 아니고.}

10102 # 예: 이 동네가 전::부 바시씨유:. {예 이 동네가 전부 밭이었어요.}

10102 # 노니라능 개 이 아패루 읍써씨요, 전::부 바시여:. {논이라는 게 이 앞으로 없었어요, 전부 밭이여.}

10102 #1 바시여, 대:추나무 밭. {밭이야, 대추나무 밭.} 10102 # 으:, 이:저내. {응, 이전에.}

10102 # 바시구, 대추나무가 막 이렇 거시 누: 바치던지 대:추나무 안 드러신 바시 읍:씨씨요. {밭이고, 대추나무가 막 이런 것이 누구 밭이든지 대추나무가 안 들어선 밭이었었어요.}

10102 # 그래서 대추나무가 그래 참 잘 되다가. {그래서 대추나무가 그렇게 참 잘 되다가.}

10102 @ 그래서 유명항가부내요, 대추가? {그래서 유명한가 보내요, 대추가?}

10102 # 예:, 그때:. {예, 그때.} 10102 #1 바시 조으닝개 대추나무가... {밭이 좋으니까 대추나무가...} 10102 # 으:, 그때는 인재 왜정팬대유. {응, 그때는 이제 왜정팬인데요.}

10102 # 왜정팬대, 일본놈덜 일본 싸람더리 그 저 인재 시키서루 대추나무 거 묘모걸 줌모도. {왜정팬데, 일본놈들 일본 사람들이 그 저 이제 시켜서 대추나무 그 묘목을 줌 모두.}

10102 # 그땐 머 돌따무라개구 어디구 대 맨 대추나무 거시기여, 새끼 요령 거. {그때는 뭐 돌담이고 어디고 대 맨 대추나무 거시기야, 새끼 요런 거.}

10102 # 그래서 그 자:꾸 캐오라구 해니 우트키야? {그래서 그 자꾸 캐오라고 하니 어떻게 해?}

10102 # 캐다 쥘:년대. {캐다 주었는데.}

10102 # 그 후루 우투캐 그만 스사루 자:꾸 대추나무가 주거 버려. {그 후로 어떻게 그만 시나브로 자꾸 대추나무가 죽어 버려.}

10102 # 대추나무가. {대추나무가.}

10102 # 근대 그기 머 마른 머 어디루 절라도 워데로 워 가따구 인재 그라 그라능 거 그 때요, 그 뿌렁이 캐 강 개시. {그런데 그게 뭐 말은 뭐 어디로 전라도 어디로 갔다고 이제 그러 그러는 것 같대요, 그 뿌리 캐 간 것이.}

10102 # 뿌렁이 인재 군:청에서 군:청 살림:조하배서루 살림개에서 이러개 캐: 가서넌. {뿌리 이제 군청에서 군청 삼림조합에서 삼림계에서 이렇게 캐 가서는.}

10102 # 절라도 어디루 가따 구리야. {전라도 어디로 갔다고 그래.} 10102 #1 그래 오:디 가따 구래씨. {그렇게 어디 갔다 그랬어.} 10102 # 그르카구선 어: 스사루 고만 대추나무가 죄 주거버리유. {그렇게 하고는 응 시나브로 고만 대추나무가 죄다 죽어버려요.}

10102 #1 북썰 시악씨더런 이비 다 빼쭈카다구 헨년대, 하두 대출 머거서. {북썰 색시들은

입이 다 뽕죽하다고 했는데, 하도 대추를 먹어서.} 10102 # 음:. {응.}

10102 @ 북씨리 어디요? {북실이 어디예요?} 10102 # 여가 북씨리여. {여기가 북실이
야.}

10102 # 어: 구:명으루 인재 북씨리라구 하구 인저 관명으루넌 종고기여. {응, 구명으로는
이제 북실이라고 하고 이제 관명으로는 종곡이야.}

10102 #1 북쌀:: 해: 노쿠 바깥쪽쌀두 북쌀 여기두 북쌀. {북실이라고 해 놓고 바깥 북실도
북실 여기도 북실.} 10102 # 음:, 음:. {응, 응.}

10102 #1 그러면 인재 여기 드러오면 안종곡.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오면 안종곡.}

10102 #1 그래 또 안종곡 두루와서넌 삼상골, 모종골, 땡펜, 다라니. {그래 또 안종곡 들어
와서는 삼상골, 모종골, 동편, 다라니.}

10102 @ 으음:, 아 여기를 북씨리라구 그런다고요? {으응, 아 여기를 북실이라고 그런다고
요?} 10102 # 야, 야, 구:명으루 북씨리구: 관명으루넌 종고기여. {예, 예, 구명으
로는 북실이고 관명으로는 종곡이야.}

10102 # 관명으루넌 종고기여, 여가. {관명으로는 종곡이야, 여기가.}

10102 @ 네:. {예.}

10102 # 예:, 해해. {예, 해해.}

10102 # 그래서 인재 답:치나무가 다: 쭈꾸 인재 그란 뒤에 인재 즈:수지라는 거시 그 저:
왜정 때 저: 거시키 상:궁이라넌 데, 상:궁 내북면 상:궁 거기 즈:수지가 생기씨썩
요. {그래서 이제 대추나무가 다 죽고 이제 그런 뒤에 이제 저수지라는 거시 그
저 왜정 때 저 거시기 상궁이라는 데, 상궁 내북면 상궁 거기에 저수지가 생겼었
어요.}

10102 @ 예. {예.}

10102 # 거기 생겼넌데, 예: 여긴 전부 바시구. {거기 생겼는데, 예 여기는 전부 밭이고.}

10102 # 전부 바시씨썩. 그래 저: 내 예: 동생애 장인되넌 으:러니 의성 김썩대 그 으르니
수리조합짱얼 하시씨요. {전부 밭이었었어. 그래 저 내 동생의 장인되는 어른이
의성 김씨인데 그 어른이 수리조합장을 하셨어요.}

10102 # 의성 기매, 김창:환 씨여. {의성 김예, 김창환 씨야.}

10102 @ 예:. {예.} 10102 # 그 어:르니. {그 어른이.}

10102 # 김창환 씨신대 그 으런하구 내 외숙 되시넌 으런 그 큰 기와지베 사시넌 그 하라
부지-하구 말씀하시기럴, {김창환 씨이신데 그 어른하고 내 외숙 되시는 어른 그
큰 기와집에 사시는 그 할아버지하고 말씀하시기럴,}

10102 # 여기두 즈:수지럴 하나 해: 주머넌 우리가 이 반 반만 거주면 몬: 머꾸 사니 여긴
노니 될 테니께 노닐 저: 될라머넌 저:수지럴 하나: - 저:수지럴 하나 해 달라고.
{여기도 저수지를 하나 해 주면 우리가 이 밭 밭만 갖고는 못 먹고 사니 여기는
논이 될 테니까 논이 저 되려면 저수지를 하나 저수지를 하나 해 달라고.}

10102 # 이런 상이럴 말쓰멸 하시닝 걸 봐:씨요. {이런 상의를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10102 @ 예:. {예.} 10102 # 으:. {응.}

10102 # 건 참 이거넌 저: 그 으러니 그 저: 김창환 씨 인재 그 수리조합짱하시넌 으러니
무야:니 이러개 생가카시더이마넌, {그건 참 이것은 저 그 어른이 그 저 김창환
씨 이제 그 수리조합장하시는 어른이 무한히 이렇게 생각하시더니만,}

10102 # 여기넌 뭉니가 올마 안 돼서 따로 하기가 어려우니 거기다 확창을 시키서, 확창궁

사 으? 으. {여기는 물리가 얼마 안 돼서 따로 하기가 어려우니 거기에다 확장을 시켜서, 확장공사 어? 응.} 10102 @ 예:. {예.}

10102 # 확장 공사될 해서루 인재 그러케 시밀 쓰 보견-개따구. {확장공사를 해서 이제 그렇게 힘을 써 보겠다고.}

10102 # 그러케 하시더니 참 올때 이따가서루 그기 인가가 나썸때요, 허가가 저? {그렇게 하시더니 참 얼마 있다가 그제 인가가 났었대요, 허가가 저?}

10102 # 그래서 여기다가서 인재 즈:수지릴 인재 글 책종얼 항 기여, 여기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저수지를 이제 그걸 책정을 한 거야, 여기에다.}

10102 @ 예:. {예.}

10102 # 그래서 인재 그 즈:수지 물 그 아내 침수되던 데가 토지가 또 참 메썸지기 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저수지 물 그 안에 침수되는 데가 토지가 또 참 몇 섬지기 돼요.}

10102 # 그런데 그 토지 가진: 이더런 인재 참 다 어:, 가난하이두 이찌마넌 인넌 인넌 사 라면 참 논 썸지거나 그거 그 아내 가주 인넌 사람두 이꾸 그른데 그이더리 참 그러케 모두 허락걸 해: 주구. {그런데 그 토지 가진 이들은 이제 참 다 응, 가난한 이도 있지마는 있는 있는 사람은 참 논 썸지거나 그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이들이 참 그렇게 모두 허락을 해 주고.}

10102 # 그래서 그 즈:수지가 생기따구 이 으: 잉 결루 이러케 생가글 해요. {그렇게 그 저수지가 생겼다고 이 응, 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102 # 메 태 걸리썸요, 그제. {몇 해 걸렸어요, 그제.}

10102 @ 예:. {예.}

10102 # 저: 청주에 김원그니 김원그니라구 하넌 이가 그 저: 토건회사 그 그 주이닌대 엄청이 그가 도:니 만타대요. {저 청주에 김원근이 김원근이라고 하는 이가 그 저 토건회사 그 그 주인인데 엄청나게 돈이 많다고 하대요.}

10102 # 그 그 회사에서 와서 해썸요, 김원그니 회사에서. 흐. {그 그 회사에서 와서 했어요, 김원근이 회사에서. 흐.}

1.2. 일생의례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하라버니:는 저기: 하표는 안 다니셔따 그래짜나요? {할아버지는 저기 학교는 안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10201 # 아:이구 안 당겨썸요, 그째 하표 머...{아이고 안 다녔어요, 학교 뭐...} 10201 @ 농사만 지꾸? {농사만 짓고?}

10201 # 그러치:. {그렇지.}

10201 # 하표두 몬 땡기구. {학교도 못 다니고.}

10201 @ 군대는 어트개 하셔썸요. {군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10201 # 군대는 글썸 아까 말씀드린 드린 대루 내가 저: 일본놈 정치가 그래썸짜나요. {군대는 글썸 아까 말씀드린 드린 대로 내가 저 일본놈 정치가 그랬었잖아요.}

10201 # 시물한 살만 머그머넌, {스물한 살만 먹으면,}

10201 # 인재 즈: 나라에서넌 인재 군 저기 모:지라니께 구니니 모지라니께루. {이제 자기 나라에서는 이제 군 저기 모자라니까 군인이 모자라니까.}

10201 # 인재 조선두 내선일치라구 그래서 그 사람더리 내선일치라구. {이제 조선도 내선 일치라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내선일치라고.}

10201 # 내선일치라넌 건 일버니나 조서니나 다: 가치 인재 한 거시키라구:. {내선일치라는 건 일본이나 조선이나 다 같이 이제 한 거시기라.}

10201 # 그래서 일번 우리릴 가따가서루 구니닐 뽐넌대: 시물한 사리면 아주 저경이 정너 니여. {그래서 일본 우리를 갖다가 군인을 뽐는데 스물한 살이면 아주 정년 정년 이야.}

10201 # 시무래 만: 시물, 만: 시무란 사리면, 응. {스물에 만 스물, 만 스물한 살이면, 응.}

10201 # 그래서 내가 만 시물한 사리 때써. {그래서 내가 만 스물한 살이 됐어.}

10201 # 만 사리, 시물한 사리 돼: 가주서 인재 그 제:도가 나완넌대, 하꼬릴 모 빼와쓰니 어떠키야. {만 살이, 스물한 살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제도가 나왔는데 학교를 못 배웠으니 어떻게 해.}

10201 # 그래 인재 그 저기가 인재 정치릴 그르케 하드라구. {그래서 이제 그 저기가 이제 정치를 그렇게 하더라고.}

10201 # 하꼬에서 인재 예: 아동더릴 오저내 갈치서 보내고, 오후 빠내 오후 빠내 인재: 그랑개 줌신 머꾸 나리가넌 거지 인재 거기릴, 거러서. {학교에서 이제 예 아동들을 오전에 가르쳐서 보내고, 오후 반에 오후 반에 이제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내려 가는 거지 이제 거기릴, 걸어서.}

10201 #1 해구 모두 가치 가서... {하고 모두 같이치 가서...}

10201 # 으:, 그래 나 하나뿌니 아니라 이 동네서 다서시 땡기썩요. {응, 그래서 나 하나뿐 아니라 이 동네에서 다같이 다녔어요.}

10201 # 하플 모: 땡기구 인재 저:기 그래 가서 그 인재 일본놈 지배바다서 인재 훌:련하구. {학교를 못 다니고 이제 저기 그래 가서 그 이제 일본놈 지배받아서 이제 훈련하고.}

10201 # 그래 한 사람더리 다서시 땡기썩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섯이 다녔어요.}

10201 @ 어디루 다녀썩요? {어디로 다녔어요?}

10201 # 보은으배 삼산핵 지금 삼산해꼬요. {보은읍에 삼산학 지금 삼산학교요.} 10201 #1 그땐 거:러땡겨썩유. {그땐 걸어다녔어요.} 10201 # 으:, 삼산해꼬여. 거러 땡기썩유 머 자정거두 문:꾸 걸어 땡겨썩. {응, 삼산학교야. 걸어 다녔지요 뭐, 자전 거도 없고 걸어 다녔어.} 10201 # 으: 누:니 누:니 썩이두 걷:꾸, 나리... {응, 눈이 눈이 쌓여도 걷고, 나리...}

10201 #1 냄:물두 저기 가마니 저기 몰개 느:서 이래 봐서 냄:물두 이르케 건네 가짜나. {넷물도 저기 가마니 저기 모래 넣어서 이렇게 봐서 넷물도 이렇게 건너 갔잖아.}

10201 # 야, 야:. {예, 예.}

10201 #1 그르케 거러 땡기썩. {그렇게 걸어 다녔어.}

10201 # 그래 인저: 그러면 인저 그 나오라넌 날짜가 저기 또 명새서릴 해: 줘요, 거:가 이런 종이다가.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나오라는 날짜가 저기 또 명새서를 해 줘요, 거기에 이런 종이에다가.}

10201 # 메친 날 메친 날 이러케 어: 인저 공일랄 ** 나오라넌대, 그 나오 나가라 나오라

넌 나쁜 가야 디야, 꼭. {며칠 날 며칠 날 이렇게 응, 이제 공일날 ** 나오라는데,
그 나오 나가라 나오라는 날은 가야 돼, 꼭.}

10201 # 으:, 앙 가머넌, {응, 안 가면,}

10201 #1 아:유 앙 가머넌 ****. {아유, 안 가면 ****.}

10201 # 앙 가머넌 안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10201 # 또 마::냐개 참 유고한 이:리 이쓰머넌 써서루 거 교장한테다가서루 줘:야 디야.
{또 만약에 참 유고한 일이 있으면 써서 그 교장한테다 줘야 돼.}

10201 # 아무거시넌 지배 무슨 사유가 이써서 모: 도니, 으:, 양해 줌 해 주십시오. {아무
개는 집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 오니, 응, 양해 줌 해 주십시오.}

10201 # 이러케 해야지 그거뚜 읍씨 그냥 앙 가머넌 그러차러가면 주거.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안 가면 그렇지 않으면 죽어.}

10201 # 그 마꾸서 뚜디리 마꾸 주거. 어헤헤헤헤 헤. {그 맞고서 두드려 맞고서 죽어. 어
헤헤헤헤 헤.}

10201 # 그러그루 해서루 그 기가늘 다: 마춰씨요, 그 연성소. {그럭저럭 해서 그 기간을
다 마쳤어요, 그 연성소.}

10201 @ 연성소? {연성소?}

10201 # 일변말루 도꾸베스렌세이쇼 데스네 허허허허허, 어? {일본말로 ***** 허허허허
허, 어?}

10201 # 이 일 특뻔 연성소. {이 일 특별 연성소.}

10201 # 어:. {응.}

10201 @ 연성소? {연성소?}

10201 # 예:, 특뻔 연성소. {예, 특별 연성소.}

10201 # 그기 그래 인재 일본말:루 그래 그때 그래써. 도꾸베스렌세이쇼. {그게 그래 이제
일본말로 그래 그때 그랬어. *****.}

10201 # 노새이도. {****.}

10201 # 생도. 허허. {생도. 허허.}

10201 @ 예:. {예.}

10201 # 도꾸베스렌세이쇼노 새이도데스 오래가. 허허 허허. 그러캐씨요. {***** *****
***. 허허 허허. 그러캐 했어요.}

10201 # 그래 인재 마치구서루 이쓰니개 머: 참 여기서 인저 예:비금사털 하대: 신체금사
털, 여기서. {그래 마치고서 있으니까 뭐 참 여기서 이제 예비검사를 하대 신체검
사를, 여기서.}

10201 # 예:비금사털 하는데 나는 지그미나 그때나 모미 늘 항:가지요 지금, 이룬대. {예비
검사를 하는데 나는 지금이나 그때나 몸이 늘 한가지요 지금, 이룬대.}

10201 # 조금 *니넌 갑종얼 때리구. {조금 *이는 갑종을 때리고.}

10201 # 나넌 제:이를쫓얼 때리드라구, 일:-을쫓. {나는 제일을종을 때리더라고, 일을쫓.}

10201 # 자꾸 이 자꾸 마리 자꾸 안 나와, 으. {자꾸 이 자꾸 말이 자꾸 안 나와, 응.}

10201 # 을쫓두 인재 이:을쫓 삼을쫓 그르케 나가넌대 그래 인재 병:종 무:종 이러케 나
가:. {을쫓도 이제 이을쫓 삼을쫓 그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병종 무종 이렇게
나가.}

10201 #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저: 군대두 그 여러 가지드라구.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저 군대도 그 여려 가지더라고.}

10201 # 갑종이 인재 젤: 저 존: 근:강한 사라미구. {갑종이 이제 제일 좋은 건강한 사람이고.}

10201 # 인저 을종인 고 둘, 둘:째여. {이제 을종은 그 둘 둘째야.}

10201 # 신채두 인재 줌 야카고 어넌 사라면 을종이여. {신채도 이제 좀 약하고 하는 사람은 을종이야.}

10201 # 그라더이만 머 저기, 인재 만 참 스물한 살 그때 저기 머여. {그러더니만 뭐 저기, 이제 만 참 스물한 살 그때 저기 뭐야.}

10201 # 해방되든 해요, 그 때 그 해가. {해방되던 해요, 그 때 그 해가.}

10201 # 해방되던 해: 예:: 양녀그루 유월따랑가? {해방되던 해 에 양력으로 유월달엔가?}

10201 # 구닌 가라구 소집 영쟁이 나와썬. {군대 가라고 소집 영장이 나왔어.}

10201 # 저기 일, 거시기에서. {저 일, 거시기에서.}

10201 # 경찰소에서 헨넌지 군: 군:청에서 헨넌지, 군:청이나 머 경찰소나 다: 한가지지 머면:소나?: {경찰서에서 했는지 군 군청에서 했는지, 군청이나 뭐 경찰서나 다 한가지지 뭐 면사무소나?}

10201 # 그때년 다: 일본놈 지배바다가주 하닝개 다: 또까통 개요. {그때는 다 일본놈 지배받아가지고 하니까 다 똑같은 거요.}

10201 # 그래서 메친 날 인재 구니들 가야 되년대, {그래서 며칠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10201 # 개 이 동네서 나하구 저: 안동내 저 김씨내 김씨 문중애 사라민대 그넌 하꼬넌 앙가구 지배서 한:문만 일거썬요, 으:. {그래 이 동네서 나하고 저 안동네 저 김씨네 김씨 문중의 사람인데 학교는 안 가고 집에서 한문만 읽었어요, 응.}

10201 # 김필구라는 사라미여, 그 사라면. {김필구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10201 # 그래 그하구 나하구 인재 이러캐 그날 가게 대서루 가년대, {그래 그이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그날 가게 돼서 가는데,}

10201 # 개 보은 군: 저 읍, 보 보 보은 저: 거시기 면:소 그 여패 군:청이 지금 지금 읍사무소 짜리요, 보은 읍사무소 짜리. {그래 보은 군 저 읍, 보 보 보은 저 거시기 면사무소 그 옆에 군청이 지금 지금 읍사무소 자리요, 보은 읍사무소 자리.}

10201 # 그 마당에서 인재 집껴럴 해 가주구서루 가년대, 옥처느루 가드라구요, 인재 태워가주구서. {그 마당에서 이제 집결을 해 가지고 가는데, 옥천으로 가더라구요, 이제 태워 가지고서.}

10201 # 옥처느루 가는데 옥천 인재 거 여개 가더니마넌 거기서 인재 모두 너리 저 하:물차에서 내리 가주서루 기차릴 태워. {옥천으로 가는데 옥천 이제 거 역에 가더니만 거기서 이제 모두 내려 저 화물차에서 내려 가지고 기차를 태워.}

10201 # 내:빠도 모 티야, 워디루. {내빠지도 못 해, 어디로.}

10201 # 또 내빠니 머 도가내 든 쥐지 머, 허허? {또 내빠니 뭐 독 안에 든 쥐지 뭐, 허허?}

10201 # 허허 참 머 무시칸 말루 도가내 든 쥘대. {허허 참 뭐 무식한 말로 독 안에 든 쥐인데.}

10201 # 꿈썬뚜 모: 타지 머. {꿈썬도 못 하지 뭐.}

10201 # 아:, 그래서 인재 참 서울 용산 녀그루 가더니만 거기서 차에서 너리드라구, 너리

년대, {아, 그래서 이제 참 서울 용산역으로 가더니만 거기서 차에서 내리더라구,
 내리는데,}

10201 # 그 거가 저: 머시여 저: 유꾼본부가 거기 이시 이씨-씨요, 저: 용사내. {거 거기가
 저 뭐야 저 육군본부가 거기 있었 있었어요, 저 용산에.}

10201 # 상각짜라는 데. {삼각지라는 데.}

10201 # 그래, 우리가 거가 예: 이백이십이 부대래유, 거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예 이
 백이십이 부대래요, 거기가.}

10201 # 나 우리 가서 입때하, 저 드러간 대가, 으:. {나 우리(가) 가서 입대한, 저 들어간
 대가 으.}

10201 # 그르대 거기가 예: 워디 팔리릴 하냐 하머년, 저: 만주. {그런데 거기가 어디 팔
 리를 하느냐 하면, 저 만주.}

10201 # 그르니까 관동군, 거가 관동그니여, 거길 관동구니라 구리야, 으:. {그러니까 관동
 군, 거기가 관동군이야, 거기를 관동군이라 그래, 응.}

10201 # 관동구니머년 켈: 신: 부대가 관동구니래요. {관동군이면 제일 쉰 부대가 관동군
 이래요.}

10201 # 일번, 일번 싸람덜 켈: 신: 부대가 간도 관동구니리야. {일본, 일본 사람들 제일
 쉰 부대가 관동 관동군이래.}

10201 # 그래 그리 가게 대: 이쓰요. {그래 그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10201 # 하루빠멀 거 용산서 자더니만 그리 데리구 가. {하룻밤을 거기 용산서 자더니만
 그리로 데리고 가.}

10201 # 그래 난 년새 밤 녀새를 걸러써. {그래서 낮 옛새 밤 옛새를 걸렸어.}

10201 # 구닌차년 나재년 왕넬 모 티야 잘, 그 철로 때미내. {군인차는 낮에는 왕래를 못
 해 잘, 그 철로 때문에.}

10201 # 으:, 철로 때미내 천노털 즈 맘:대루 인저 저 거시길 하닝깨루 모: 타구서 바무로
 꼭: 가는대 여서 빠멀 가씨요. {응, 철로 때문에 철로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저
 거시기 하니까 못 하고서 밤으로 꼭: 가는데 여섯 밤을 잤어요.}

10201 # 워디루 간너냐 하머년 도:문.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도문.}

10201 # 만주 도:문 지내가 거주서루 저: 이러케 가머년 저: 저: 거시기 목탄강으루 이러케
 드러가구. {만주 도문 지나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면 저 저 거시기 목단강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10201 # 우리년 이러:케 드르가서루 이리 이리 가면 훈천, 훈처느루 드르가 훈처느루. {우
 리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리 이리로 가면 훈춘, 훈춘으로 들어가 훈춘으로.}

10201 # 으:, 훈처느루 드르가는데 아주:: 사낙지대유, 여가 일루 드르가니께: 으:. {응, 훈
 춘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산악지대요 여기가 이리로 들어가니까, 응.}

10201 # 개 지도상으루 본다면 이러케 지도상에 여 퇴끼 귀그치 이러케 생겨짜너요? {지
 도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지도상에 토끼 귀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10201 @ 네:. {예.}

10201 # 으:, 이 이러케 생겼년대 여 퇴깁이 귀 인년대 여기여, 어:. {응,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토끼 귀 있는데 여기야, 응.}

10201 # 여 함경북도 나남 거기서 보머년 가차와 거기서년 바다루. {여기 함경북도 나남
 거기서 보면 가까워 거기에서는 바다로.}

10201 # 가차운대 거기 역쩌내서 너리넌대 너리가서 드르가니께 거가 예: 그 여기 예: 노
 흑싸나라는 예기요, 노흑산. {가차운대 거기 역전에서 내리는데 내려가서 들어가
 니까 거기가 예 그 역이 예 노흑산이라는 역이요, 노흑산.}

10201 # 어:, 늘글 로 짜, 늘글 로 짜, 거물 흑 짜, 뫼 산 짜, 노호 노흑싸나라는. {응, 늘을
 로 자, 늘을 로 자, 검을 흑 자, 뫼 산 자, 노흑 노흑산이라는. }

10201 # 그: 역쩌내서 거 마진바래기 나가니께 거기 병사럴 이러께 지어 노쿠서루 그리 그
 리 모도 배칠해서 그리 드르가드라구요. {그 역전에서 그 맞은편으로 나가니까 거
 기 병사를 이렇게 지어 놓고서 그리 그리로 모두 배치를 해서 그리 들어가더라고
 요.}

10201 # 그래 머 어트개심 먼:, 시기넌 대루 할 쑈배긴 더 이썬유, 일번 일번놈덜 시키넌
 대루.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더 있어요, 일본 일본놈들이
 시키는 대로.}

10201 # 개 드르가니께 병사가 다: 비썬:. {그렇게 들어가니까 병사가 다 비었어.}

10201 # 전:부 빈 지비여. {전부 빈 집이야.}

10201 # 그래 여기만 그렇가 하구서 인재 화장시래 가따가두 이러:캐 산 이래 사:방 이래
 병사럴 살펴보니께 다: 병사가 다: 비썬, 으: 다: 비:고. {그래서 여기만 그런가 하
 고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도 이렇게 산 이렇게 사방 이렇게 병사를 살펴보니까 다
 병사가 다 비었어, 응 다 비고.}

10201 # 말, 말 메기고 하던 대, 그 저: 기마병덜. {말, 말 먹이고 하던 데, 그 저 기마병
 들.}

10201 # 그: 말두 인재 다: 읍 읍썬저썬, 읍썬지구 말 메기던 인재 거시키만 나마뜨라구.
 {그 말도 이제 다 없 없어졌어, 없어지고 말 먹이던 거시키만 남았더라고.}

10201 # 저: 근거만 이썬, 말 메기딩 거. {저 근거만 있어, 말 먹이던 거.}

10201 # 그래 거기서루 예: 한 이시 빌, 이시 빌 줌 넘캐시리 아:무 거뚜 안 지꾸 그냥 이
 르케 안잔넌-꼬, 밥만 그냥 아 한 때 요망꿈썬가개 주넌대, {그래 거기서 예 한
 이십 일, 이십 일 줌 넘게 아무 것도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앉았는-고, 밥만 그
 냥 아 한 때 요만큼썬하게 주는데,}

10201 # 하루 시: 번썬 이래 주넌대 머꾸 이썬니께, {하루 세 번썬 이렇게 주는데 먹고 있
 으니까,}

10201 # 한 날 저:기 아치매, 어: 지너기로구나. {한 날은 저기 아침에, 아 저녁이로구나.}

10201 # 지녕 머, 지녕 머꾸서루 오 누가 나오더니마넌 이러:캐 조이 쪼가릴 들구 나오더
 니, {저녁 먹, 저녁 먹고서 오 누가 나오더니만 이렇게 종이 조각을 들고 나오더
 니,}

10201 # 여기서 호:명얼, 이 지금나면 호:명이지 머 호:명. {여기서 호명을, 이 지금으로 하
 면 호명이지 뭐 호명.}

10201 # 이럼 이러덜 부루넌 사라면 나오, 이룬 이짜그루 나오느라. {이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나오, 이룬 이쪽으로 나오느라.}

10201 # 이르카드라구 일본 싸람더리. {이렇게 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10201 # 그래서 참 일본 싸람 저: 이러덜 부르넌대 내가 거기 이럼 췌키썬. {그래서 참 일
 본 사람이 저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거기 이름이 적혔어.}

10201 # 또 저: 또 하나가 인저 가치 간 사래미 저: 보은, 거기두 읍 팔래요. {또 저 또 하

나가 이제 같이 간 사람이 저 보은, 거기도 읍 관내요.}

10201 # 저: 월송애 배상구라구 하는 사람미 인는데 그 사람하구. {저 월송애 배상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10201 # 그래 두:리 이르미 찌히서 거길 나, 인재 드르가썸, 드르간는데, {그 둘이 이름이 적혀서 거길 나, 이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10201 # 그래 이사람드른 데리구서 인재, 다른 사람 다: 드르가라카구서 우리는 데리구서에: 여구루 데리구 가드라구, 기차여구루. {그렇게 이사람들은 데리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라고 하고 우리는 데리고서 에 역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기차역으로.}

10201 # 그래 데리구 가든대 여 기차엘 타라구.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여기 기차에 타고.}

10201 # 타찌 머. 탄는데 거기서 또 하루빠벌 드러가. {탔지뵤. 탔는데 거기서 또 하룻밤을 들어가.}

10201 # 또 하루빠벌 드러가는데 일본 말루넨 거가 거그 간 데가 라시꼬 라시꼬. {또 하룻밤을 들어가는데 일본 말로는 거기가 거기 간 데가 나자고 나자고.}

10201 # 조선말로는 나자고:, 으: 나자고:. {조선말로는 나자고, 응 나자고.}

10201 # 고 이 고: 짜넨 먼질 몰라. {고 이 고 자는 무엇인줄 몰라.}

10201 # 이 벌: 라 째지, 벌: 라 째지 근 나자고:, 아들 자 짜. {이 벌 라 자인지, 벌 라 자인지 그진 나자고, 아들 자 자.}

10201 # 고 짜넨 무슨 고 째지 몰르거썸. {고 자는 무슨 고 잔지 모르겠어.}

10201 # 근대 그 나자고라넨 대루 인재 드르가드니만 너리라구 해서 너린넨대, {그 나자고라는 데로 이제 들어가더니만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

10201 # 아:이구 거기서 머: 인재 인재 머: 전:부 무:기 다: 내주구. {아이고 거기서 뭐 이제 이제 뭐 전부 무기 다 내주고.}

10201 # 이래서 인재 무:기 가주구 인재 무기래 인재 거두 거시키넨 읍썸:, 실 실탄넨. {이래서 이제 무기 가지고 이제 무기라(야) 이제 거시기는 없어, 실 실탄은.}

10201 # 실탄는 빈: 껍떼기분 가주서루 훈련하지: 화약 뜨룽 개 아니유. {실탄은 빈 껍떼기만 가지고서 훈련하지 화약이 들은 게 아니요.}

10201 # 머 인저 엽떠리서두 하구 기: 가능 거뚜 배우구 머: 가서 찌르닝 거뚜 배우구 머: 별걸 다 하지 머. {뭐 이제 엽드려서도 하고 기어 가는 것도 배우고 뭐 가서 찌르는 것도 배우고 뭐 별걸 다 하지 뭐.}

10201 # 한 나마 한 이시빌 똥안 냉기 그러케 홀::려닐 머 되:개 해썸:. {한 아마 한 이십 일 동안 넘게 그렇게 훈련을 뭐 되게 했어.}

10201 # 한 되:게 되:개 해썸. {한 되게 되게 했어.}

10201 # 어:터캐 그 저: 거시기가 엄한 지 마리오:, 훈련하다가서 거 실탄 껍떼기 그거 하나를 이러 버린넨대, {어떻게 그 저 거시기가 엄한 지 말ियो, 훈련하다가 그 실탄 껍떼기 그거 하나를 잃어 버렸는데,}

10201 # 훈련하구 나면 전:부 시어 바야 디야, 일번 싸람더리. {훈련하고 나면 전부 세어 봐야 돼, 일본 사람들이.}

10201 # 그걸 다: 시어 바. {그걸 다 세어 봐.}

10201 # 그래 하나가 비:니깨루 막 잔댕일 쥐: 뜨더가민서 그걸 차자. {그래 하나가 비니

까 막 잔디를 쥐어 뜯어가면서 그걸 찾아.}

10201 # 그 그 실탄을 찬느라구, 그러케 허허허 그러케: 저: 한번 싸람 떠리 정시니 그러케 시:드라고요. {그 그 실탄을 찬느라고, 그렇게 허허허 그렇게 저 일본 사람들이 정신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10201 # 그른대 그르카다가서루 인재 한 날 찌녀개 불침바늘 시넨대 비행기 소리가 나.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날 저녁에 불침번을 서는데 비행기 소리가 나.}

10201 # 그래 인재 드루와서 그 서님하사 깨워 가주서 아이 비행기 소리가 난다구.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그 선임하사를 깨워 가지고 아이 비행기 소리가 난다고.}

10201 # 그라니깨루, 그르냐구. {그러니까, 그러냐고.}

10201 # 그래면 나가서 인저 비행기 소리 나니께 그라다 인재 끄쳐 버려 비행기 소리가. {그러면 나가서 이제 비행기 소리 나지 그러다 이제 그쳐 버려 비행기 소리가.}

10201 # 그래 인재 자물 자구 나니깨루 아:이구: 대번 소개령이 너리요, 우애 상부에서, 으:. {그래 이제 잠을 자고 나니까 이이구 대번에 소개령이 내려요, 위에 상부에서, 응.}

10201 # 대번 소개령이여 나오라구 마리여, 말짱 짐 싸 가주 나오라구. {대번 소개령이 나오라고 말이야 모두 짐 싸 가지고 나오라고.}

10201 # 그 인저 배낭, 배낭 담:노 머 배낭에 인재 담:노 다: 이짜나요, 거 인재? {그 이제 배낭, 배낭 담요 뭐 배낭에 이제 담요 다 있잖아요, 거 이제?}

10201 # 여 대:금 여기, 여기 차구 인재 구구식, 구구시기여 그 총이, 구구식. {여기 대검 여기, 여기 차고 이제 구구식, 구구식이야 그 총이, 구구식.}

10201 # 함 번 이러키 이러키 꺼져 가주서루 이러케 밀:면 살쌍 따라 드리가구, 이러케 체크어서 인재 대:구 쏘구 인재 그라는데 아홉 빨 드르가 아홉 빨, 구구시기라능 개. {한 번 이렇게 이렇게 꺾어 가지고서 이렇게 밀면 실탄이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젓혀서 이제 대고 쏘고 이제 그러는데 (실탄이) 아홉 빨 들어가 아홉 빨, 구구식 이라는 게.}

10201 # 구구식 총 쥐:찌 실탄, 머: 심 인넨 대루넨 가주 가리야, 심 가주구 나가리야. {구구식 총 쫓지 실탄, 뭐 힘 있는 대로는 가지고 가래, 힘 가지고 나가래.}

10201 # 그래찌 머 수류타니니 또 명 명넨 저 싱냥 배낭에 다: 질 모두 느:찌. {그랬지 뭐 수류타이니 또 먹 먹는 저 식량 배낭에 다 쫓(어) 모두 넣었지.}

10201 # 개 그거 점부 열매나 무구워유 그개? {그래 그저 전부 얼마나 무거워요 그제?}

10201 # 그래서 또 기차릴 타라 구라대. {그래서 또 기차를 타라고 그러대.}

10201 # 기찰 타구 나니깨루 그 병사애다 막: 부를 질런넨지 막: 머가 막 거문 연기가 막 이러케 나넨대 엄청 히야:. {기차를 타고 나니까 그 병사애다 막 불을 질렀는지 막 뭐가 막 검은 연기가 막 이렇게 나는데 엄청 해.}

10201 # 발:개 전 불바다여 거가, 인재. {빨개 전 불바다야 거기가 이제.}

10201 # 우리 떠난 부대가. {우리가 떠난 부대가.}

10201 # 그래서 하루빠멀 거:서 나오더니만 너리넨데 츠:매 가 이편 부대, 노흑산 부대 아 패여 거가, 으.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서 나오더니만 내리는데 처음에 가 있던 부대, 노흑산 부대 앞이야 거기가, 응.}

10201 # 개 거기서 인는 너리서루 인재 존:장하루 인재 올라간다 구리야 존:장하루.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려서 이제 전쟁하러 이제 올라간다고 그래 전쟁하러.}

10201 # 인저 고:찌, 인재 인재 야마 야마 인저 저 고:찌라능 개 산꼭뚜배기 거 준:장터가 인저 산꼭뚜배기서 하는데, 그리 간다 구라는데. {이제 고지, 이제 이제 야마 야마 이제 저 고지라는 게 산꼭대기 거기 전쟁터가 이제 산꼭대기에서 하는데, 그리 간다고 그러는데.}

10201 # 구닌더런 원재던지 지금두 그러텅구만 이개 이:열 이:열루 이러캐 지내가머년 가운데릴 비워 노쿠서 지릴, 여기릴 비워 노쿠서 양짜그루 이르캐 벌:리서 땡기유. {군인들은 언제든지 지금도 그렇더구먼 이개 이 열 이 열로 이렇게 지나가면 가운데를 비워 놓고서 길을, 여기를 비워 놓고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다녀요.}

10201 # 으, 이러캐 땡기녕 기유. {응, 이렇게 다니는 거요.}

10201 # 그래 너리서 총알 참 이러캐 모도 미:구 이러카서 가니까 아아: 비행기가 오더니 막 기관총알 막 쏘구 이라넌데, 하하하하 하. {그래 내려서 총을 참 이렇게 모두 메고 이렇게 해서 가니까 아, 비행기가 오더니 막 기관총을 막 쏘고 이러는데, 하하하하 하.}

10201 # 다: 땡짱 가서 머어 어디 가 업떠리구 머 개파리 시드태찌 머. {다 땡짱 가서 뭐 어디 가 엎드리고 뭐 개파리 쉬듯 했지 뭐.}

10201 @ 예? 머하드태따구요? {예? 뭐하듯 했다고요?}

10201 # 개: 모가지애 파리가, {개 목에 파리가,} 10201 @ 아:. {아.} 10201 # 생기면 파:리가 막 대들면 막 이래 흔들면 내:빼자나? {생기면 파리가 막 대들면 막 이렇게 흔들면서 내빼잖아?}

10201 @ 예. {예.}

10201 # 그거 항 가지루 인재 구닌더리 막 호터지구 그래 돼:찌. {그거와 한가지로 이제 군인들이 막 흠어지고 그렇게 됐어.}

10201 # 그래구다가 매이깨루 비행기가 어찌 차차루 거시기가 도:녕 거시 즉:떠라구 회쑈가. {그러다가 보니까 비행기가 어찌 차차로 거시기가 도는 것이 적더라고, 횃수가.}

10201 # 으:, 회쑈가 즉:꼬. {응, 횃수가 적고.}

10201 # 또: 구닌덜 봐:두 포껴근 안 히야. {또 군인들을 봐도 폭격은 안 해.}

10201 # 하능 개비래 공포릴 히야, 어:. {하는 가본데 공포를 해, 응.}

10201 # 공포 공중에 공포릴 해여. {공포 공중에 공포를 해.}

10201 # 그라드니만 머 나중에 차차:루 인재 사느루 달래 드러 자꾸 인재. {그러더니만 뭐 나중에는 차차로 이제 산으로 달려 들어 자꾸 인재.}

10201 # 사느루 인재 달래 드러 거주서루 필 피 피란 피란하녕 거마냥 피:신 땡겨, 으:. {산으로 이제 달려 들어 가지고 필 피 피난, 피난하능 것같이 피신 다녀, 응.}

10201 # 장:교 여기 개다짜 이러캐 부치 거주구 장:교가. {장교 여기 개다짜 이렇게 붙여 가지고 장교가.}

10201 # 지그무루무루 말하머년 아마 아: 한 영급 되내비요, 어: 그런 장:교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아 한 영급 되는가 봐요, 응 그런 장교가.}

10201 # 저개 족: 아패 서서 이러캐 인솔하구 구라넌데. {저기 족 앞에 서서 이렇게 인솔하고 그러는데.}

10201 # 개 메:치릴 따라 땡겨찌 머:. {그래 며칠을 따라 다녔지 뭐.}

10201 # 함:챙이 노푼 사닐 머: 이러캐 따러 너머 땡기넌데, {엄청나게 높은 산을 뭐 이런

게 따라 넘어 다니는데,}

10201 # 한: 머: 그 나무 이렇 거시 기냥 부릴 질러서 너머 강 거시 씨러져서루 참: 머 밤 이면 기양 스:기릴 히야. {한 뭐 그 나무 이런 것이 그냥 불을 질러서 넘어 간 것이 쓰러져서 참 뭐 밤이면 그냥 서기를 해.}

10201 # 나무가 오래 써거 대서 써근 제 저: 주근 제가 오래 대머년 바매 벌:거캐 이러캐 보이요. 그 저 허 벌:거캐. {나무가 오래 썩어 되어서 썩은 지 저 죽은 지가 오래 되면 밤에 벌짱게 보여요. 그 저 허 벌짱게.}

10201 # 그걸 스:기라 구리야. 그래 보이넌대, {그걸 서기라고 그래. 그래 보이는데,}

10201 # 그래 머 가다 바매 인재 이 나침판 가구주서 땡기다가서루 거시가면 인재 우트캐 줌 자야 땡 꺼 아니요? {그래 뭐 가다 밤에 이제 나침판 가지고 다니다가 거시기 하면 이제 어떻게 줌 자야 될 거 아니요?}

10201 # 그 풀쑈개서 인재 가서 머 엮떠리서 자넌대 머: 모기가 머 말:쓰 몹씨 마나 모기가. {그 풀 속에서 이제 가서 뭐 엮드려서 자는데 뭐 모기가 뭐 말도 못하게 많아 모기가.}

10201 # 그러면 그 머 이래 너리고 신도 시는 채 그냥 이러카구 자구. {그러면 그 뭐 이렇게 내리고 신도 신은 채 그냥 이렇게 하고 자고.}

10201 # 여기 머 뜨더서 여개 뜨더서 머 채 정신 모차리게 뜨꾸. {여기 뭐 뜯어서 여기를 뜯어서 뭐 정신 못 차리게 뜯고.} 10201 #1 아:는 버글버글 하구. {이는 버글버글 하고.}

10201 # 이년 읍씨유:! {이는 없어요!}

10201 #1 왜 저 이가 읍쓰까? {왜 저 이가 없을까?} 10201 # 어: 인재 거:서 야글 해 처, 야글 처 주닝개 저기 야글 처서루 인재, {응, 이제 거기에서 약을 해 처, 약을 처 주니까 저기 약을 처서 이제,}

10201 #1 일짱 시대애? {일정 시대애?} 10201 # 으: 함 번 거기서 이꾸 나온 오순 그 인재 그건대:, {응, 한 번 거기서 입고 나온 옷은 그 인재 그건데,}

10201 # 하: 머 그 그래 거 올때나 더운 때여. {하 뭐 그 그래 그 얼마나 더운 때야.}

10201 # 점 저: 지금 여기 모싱기한 꼬태 지금 이 일 이때여 지금. {지금 저 지금 여기 모 내기한 끝에 지금 이 이 이때야 지금.}

10201 # 지금 유월팔 아니요? {지금 그 유월달 아니예요?}

10201 # 어: 유월 유월따린대 지금, 유월초 돼:씨 그때가. {응, 유월 유월달인데 지금, 유월 초가 되었어 그때가.}

10201 # 음너그루 유월 초 돼:씨. {음력으로 유월 초가 되었어.}

10201 # 자우간 여기 머 군복 땡어리 머 소 소곰 땡어리여 소곰 땡어리. {좌우간 여기 뭐 군복 등이 뭐 소 소곰 땡어리야 소곰 땡어리.}

10201 #1 그러치 머. {그렇지 뭐.}

10201 # 허::여캐 기냥 막 그 군보개 국빵색 군보개, {허영게 그냥 막 그 군복에 국방색 군복에.} 10201 #1 따미 나:서... {땀이 나서...} 10201 # 으: 땀이 나 가주구서 이 이기 이러카면 버시럭 버시러캐유, 소구미. {응, 땀이 나 가지고 이 이게 이렇게 하면 버스럭 버스럭 해요, 소금이.}

10201 # 그러캐 따말 흐리니깨루 젤:: 무리 머꾸 시퍼 주꺼씨. {그렇게 땀을 흘리니까 제일 물이 먹고 싶어 죽겠어.}

10201 # 무리 머꾸 시버 주껀넌대 어슨대두 참 이러캐 주머그루 쿡 찢릉 거그치 이래 우
 멍한 대 물 권: 데가 이써. {물이 먹고 싶어 죽겠는데, 어떤데는 참 이렇게 주먹으
 로 쿡 찢른 것같이 이렇게 우멍한 데 물이 괴인 데가 있어.}

10201 #1 아 그 항토물두 머거따는대 머. {아 그 항토물도 먹었다는데 뭐.} 10201 # 어트
 가꺼나 말거나 업떠리서 기냥 머 쪽:쪽 흑꺼지 따라 드리오구 머 마시두 시언차나
 그래두. {어떻게 되었거나 말거나 옆드려서 그냥 뭐 쪽쪽 흡까지 따라 들어오도록
 뭐 마셔도 시원찮아 그래도.}

10201 # 그라구다가 한, 한 한 나흐린가 그라구 도러댕기다 나닝깨루 쪼꿈 평지루 인재 와
 서루 전:부 집껴를 하구서는 인재 판:는데 싱냥이 이써? {그러다가 한, 한 한 나홀
 인가 그렇게 돌아다니다 나니까 조금 평지로 이제 와서 전부 집결을 하고서는 이
 제 모았는데 식량이 있어?}

10201 # 다: 가주 나강 거 다: 터러 머꾸 싱냥이 이쓰야지, 배가 고라서 인재. {다 가지고
 나간 거 다 털어 먹고 식량이 있어야지, 배가 곱아서 이제.}

10201 # 아이, 일번 싸람덜두 비얌두 자바 먹떠라넌대. {아이, 일본 사람들도 뱀도 잡아 먹
 더라는데.}

10201 # 막 머 아이 자바 명녕 거 봐:썩쇼. {막 뭐 아이 잡아 먹는 거 봤어요.}

10201 # 비얌: 자바 가주서 불루 *** 꼬 꿩: 가주서루 비얌두 뜨더 머꾸 이래 저기던대.
 {뱀 잡아 가지고 불로 *** 꿩 꿩 가지고서 뱀도 뜯어 먹고 이래 저기던대.}

10201 # 아하하호 하하. 저만 자:꾸 애기해서 돼요? {아하하호 하하. 저만 자꾸 애기해서
 돼요?}

10201 @ 아이 아이 하셔요. {아니 아니 하세요.}

10201 @ 나중에 할머니뜨 또 여쭙볼 거요. {나중에 할머니도 또 여쭙볼 거예요.}

10201 # 그래 장콘니미 하나 저기 어너 어디 가머넌 그 저: 존:장하다가서루 거기 머꾸서
 나면 거기 저: 감빵이니 머: 다: 마:니 거기 이 이썬 이썬 꺼니 이썬 테니 갈 싸라
 미 인너냐. {그래 장교님이 하나 저기 어느 어디 가면 그 저 전쟁하다가 거기 먹
 고서 남은 거기 저 건빵이니 뭐 다 많이 거기 이 이을 있을 거니 있을 테니 갈 사
 람이 있느냐.}

10201 # 그 갈 싸람 이썬랑 거: 그거 가질루 갈 싸람 이썬랑 나오느라. {그 갈 사람 있거
 든 그 그거 가지러 갈 사람 있으면 나오느라.}

10201 # 일본말루 인재 그러캐 히야. {일본말로 이제 그렇게 해.}

10201 # 그래 내가 나가썬. {그래서 내가 나갔지.}

10201 # 나강께 나 인재 따라서 여러시 나와. {나가니까 나 이제 따라서 여럿이 나와.}

10201 # 그래 인재 큰 고:찌털 하나 너머 간넌대 고질 너머 가니깨루 참 큰: 대론대 여꾸
 루 망 무리 졸졸졸졸 너리가구 저 또랭이. {그래 이제 큰 고지를 하나 넘어 갔는
 데 고지를 넘어 가니까 참 큰 대로인데 옆으로 막 물이 졸졸졸졸 내려가고 저 도
 랑이.}

10201 # 그래 가던썰루 배가 고프니까 감빵. {그래 가던 걸로 배가 고프니까 건빵.}

10201 # 일번 싸람덜 감빵이라녕 거선 저: 이래 큰 저 함석통이요 함석. {일본 사람들 건
 빵이라는 것은 저 이렇게 큰 저 함석통이요 함석.}

10201 # 함석 노:란 함석그루다가서 이러캐 이피 가주서루 공기 안 드르가게 이르케 포장
 얼 항 건대. {함석 노란 함석으로 이렇게 입혀 가지고 공기 안 들어가게 이렇게

포장을 한 건데.}

10201 # 한 통을 인재 이래 고만 둘러 미구서루 뛰: 나와찌 머 거기서. {한 통을 이제 이래 고만 둘러 메고서 뛰어 나왔지 뭐 거기서.}

10201 # 어: 뛰 나와서 인재 휘미진 데꺼정 뛰 나와 가주서루 여기 여 대:그먼 여기 차쓰닝께 대:그무루다 폭 찢르닝께 거 함석 드르갈 꺼 아니개썬요? {응, 뛰어 나와서 이제 후미진 데까지 뛰어 나와 가지고 여기 여 대검은 여기 찢으니까 대검으로 폭 찢르니가 그 함석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10201 # 으: 쪽 찢개 노쿠션 함 봉 꼬:내니개 그개 저기유. {응. 쪽 찢어 놓고서 한 봉 꺼 내니가 그개 저기요.}

10201 # 외열배라고 하면 인재 망사. {외열배라고 하면 이제 망사.}

10201 # 어: 망사애다 다몽 건대 물 대신 요만크만 그 별:그치 생긴 거시키가 드러썬요, 과자가. {응, 망사애다 담은 건대 물 대신 요만큼한 그 별같이 생긴 거시기가 들었어요, 과자가.}

10201 # 엄:칭이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10201 # 설탕이 달다 캐도 설탕 메: 빼가 단 단 고런 설탕이 망사아내 그 메 개씩 드러썬. {설탕이 달다고 해도 설탕보다 몇 배가 단 단 그런 설탕이 망사안에 그 몇 개씩 들었어.}

10201 #1 일:번 싸람더리 당 걸 잘 머거. {일본 사람들이 단 걸 잘 먹어.}

10201 # 예: 그래서 인재 감빵 머그먼 인재 물 머꾸 시폴째 그거 그 별:사탕 인재 그누멀 씨부먼 그개 무리여. {예, 그래서 이제 건빵 먹으면 이제 물 먹고 싶을 때 그것 그 별사탕 이제 그눔을 씹으면 그개 물이야.}

10201 # 아: 그래서 인재 외열: 외열배 쭈머니 이마냥 걸 하나가 다: 머거쓰니 하하 헤헤 배가 인재 잔:뜩 부르지. {아, 그래서 이제 열 열배 주머니 이만한 걸 하나를 다 먹었으니 하하 헤헤 배가 이제 잔뜩 부르지.}

10201 # 아, 그르니 무럴 머거야 살:자나? {아, 그르니 물을 먹어야 살잖아?}

10201 # 거기다가서 인재 그: 미태 인재 너리가넌 또랑애 가서 무럴 머그니까루 배가 터: 지능 거 그찌 머 이르케 허허. {거기다가 이제 그 밑에 이제 내려가는 도랑애 가서 물을 먹으니까 배가 터지는 거 같지 뭐 이렇게 허허.}

10201 # 그래 인재 거기 나온 사람 인재 간 사람덜두 땀:짱 그렁 거 인재 가주구 나오구 머 머. {그래 이제 거기 나온 사람 이제 간 사람들도 땀짱 그렁 거 이제 가지고 나오고 뭐 뭐.}

10201 # 땀짱 헤쳐서 머 수머 안자서 그눔 머 모두 다: 머꾸 인재 그래찌 머. {모두 헤쳐서 뭐 숨어 앉아서 그눔을 뭐 모두 다 먹고 이제 그랬지 뭐.}

10201 # 그래서 인재 남저지 머꾸서 남저지 가주구 인재 거기루 가니깨루 땀짱 거기 그때 꺼정 그러카구 이썬. {그래서 이제 나머지 먹고서 나머지 가지고 이제 거기로 가니까 땀짱 거기 그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

10201 # 그래 가따 피: 노니개 머 그거 머, 참 머 머 아까 불티강사니라더니만 헤헤헤헤. {그래 갖다 퍼 놓으니까 뭐 그거 뭐, 참 뭐 뭐 아가 불티강산이라더니만 헤헤헤헤.}

10201 # 대반 무슨: 누가 가주 간지두 모르개 다: 머 읍썬지 버리더라구 그개. {대반 무슨: 누가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개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개.}

10201 @ 불티강사니요? {불티강산이요?}

10201 # 불티강사내 불티라는 부리라능 개 타머닌 다: 그 으 으 부리라능 기 타머닌 재가
고만 저:: 공중으루 날라가자나? {불티강산은 불티라는 불이라는 게 타면 다: 그
어 어 불이라는 게 타면 재가 저 공중으로 날아가잖아?} 10201 #1 인재: 배로는
사람더리 환장하구... {이제 배끓은 사람들이 환장하고...}

10201 @ 금방 확 업써지지요. {금방 확 없어지지요.}

10201 # 그걸 그걸 불티강사니라 그라드라구. {그걸 그걸 불티강산이라고 그러더라고.}

10201 @ 예. {예.} 10201 # 허. {허.}

10201 # 거 다: 읍써저 버리구 읍써: 누가 가주 간 재두, 나뭇 거닌. {그 다 없어져 버리고
없어 누가 가지고 간 지도, 남은 거는.}

10201 # 그래 그래구 이따나니깨루 차차루. {그래 그러고 있다니까 차차로.} 10201 #1
으:, 엠:나랜 망고풍상 ***. {응, 옛날에 망고풍상 ***.}

10201 # 그 졸병더릴 데리구서루 장:교가 민중으루 드러서 인저. {그 졸병들을 데리고 장
교가 민중으로 들어서 이제.}

10201 # 어:, 민중으루 자:꾸. {응, 민중으로 자꾸.}

10201 # 그 이 조바시키릴 지도를 보구 나침반 가서 이 지 저: 민중으루 들 드러가드라
구? {그 이 ****를 지도를 보구 나침반 가지고 이 지 저 민중으로 들 들어가더라
고?}

10201 # 그 인저 어딘가닌 좀 큰 저거 민중인데, 으: 사람사닌 민중. {그 이제 어딘가는 좀
큰 저기 민중인데, 으 사람 사는 민중.}

10201 # 민중 사닌:은? 사람 사닌 민중이라 구라드라고. {민중 사닌? 사람 사는 민중이라
고 그러더라고.}

10201 # 어: 민 민초:니라구 하두 하구 민중이라구 하두 하구 인재 그러케 하드라구 그저
내 으:런덜 말씨미. {응, 민촌이라고도 하고 민중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더
라구 그전에 어른들 말씀이.}

10201 # 그래 거기서 인재 지녀걸, 그래 드러와쓰닝개 동:내서 인재 그 동:내서 인재 좀
머걸 켜 해: 달라잉개 안 해 줄 쭈가 이써?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녁을,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동네에서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좀 먹을 걸 해달라니까 안 해 줄
수가 있어?}

10201 # 일번 싸람더리 그래 해 달라잉개. {일본 사람들이 그래 해 달라니까.}

10201 # 개 멀 해다가 막: 이러케 그러시다 노쿠서 머 요마:쿰씩 주먹빠부루 이래 띠: 주
구 인재 그라는데. {그래 뭘 하다가 막 이렇게 그릇에다 놓고서 뭘 요만큼씩 주먹
밥으로 이렇게 떼어 주고 그러는데.}

10201 # 개 한 덩어리 으더 머꾸서는 생가걸 하잉개 안 되거써:. {그래 한 덩어리 얻어 먹
고서는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어.}

10201 # 나닌 어차피 인재 인재 주근 사래민데, 주근 사래민데, 배가 고파서두 주꾸, 도망
해서 나간 대두 일본 싸라만데 잘모타면 도망해서 주글 텐데. {나는 어차피 이제
이제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인데, 배가 고파서도 죽고, 도망해서 나간다고 해도
일본 사람한테 잘못하면 도망하다 죽을 텐데.}

10201 # 예:유 나: 아무때나 머 두판치노쿠서 내 해 본다구. {에유 나 아무튼 뭘 두판치고
내가 해 본다고.}

- 10201 # 그 가치 인재 우리 조선 싸람덜 인재 저: 저 제 충북 제천, 음성 이런 데 싸람덜 모도 간 사람덜두 이꾸 가치 간 사람덜 이꾸, 또 일본 싸람덜 그 졸병덜두 이꾸 한테. {그 같이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 이제 저 저 제 충북 제천, 음성 이런 데 사람들 모두 간 사람들도 있고 같이 간 사람들 있고 또 일본 사람들 그 졸병들도 있고 한테.}
- 10201 # 그 인재 우리 동:요찌리, 인재 조선 싸람덜찌리, '애, 나넌 오늘 찌녀개 도망얼 할라 할라 할 텐데 너 가치 도망얼 할래'? {그 이제 우리 동료끼리,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애, 나넌 오늘 저녁에 도망을 하려 하려고 할 텐데 너 같이 도망을 할래?'}
- 10201 # 그라니깨루 '아이 그르케 히야, 나두 갈 끼여, 나두 갈 끼여' 그래민서. {그러니까 '아이 그렇게 해,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그러면서.}
- 10201 # 아 불과 한 여닐곱 띠야, 그 동요가. {아 불과 한 여닐곱 돼, 그 동료가.}
- 10201 # 그래노쿠선 인재 쪼 꼬 쪼금 밤 인재 어둡뚜룩 기달리느라구 인재 이르개 이따 보닝개 재미 이르개 드러써. {그래놓고선 이제 족 고 조금 밤이 이제 어둡도록 기달리느라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잠이 이렇게 들었어. }
- 10201 # 이래 꾸벅: 꾸벅 재미 드런넌데 깜짝시러워서 이래 깨: 보니까 아 워디루 다: 다라나구 이 사람더리 읍써 하나두. {이렇게 꾸벅 꾸벅 잠이 들었는데 깜짝놀라서 이렇게 깨어 보니까 아 어디로 다 달아나고 이 사람들이 없어 하나도.}
- 10201 # 나 하나빼긴 안 нама써. {나 하나밖엔 안 남았어.}
- 10201 # 야: 참 괴씸하구나! {야 참 괴씸하구나!}
- 10201 # 설또넌 내가 헨넌데 개 찌:찌리만 간나, 이런 생개기 드러가. {설도는 내가 했는데 그래 저희끼리만 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
- 10201 # 그래 고만 다 인재 맬:짱 재미 드러서 머 꼬 맬:짱 꼬라져 자 자넌데, '예파, 나두 모르거파, 주그나 사나 나넌 뛰어서 뭇 뭇 쭈배끼 읍파'. {그래 그만 다 이제 말짱 잠이 들어서 뭇 꼬 말짱 꼬라져 자 자는데, '예파, 나도 모르겠다, 죽으나 사나 나는 뛰어서 뭇 뭇 수밖에 없다'.}
- 10201 # 거기서 다: 지버 내버리쎬요. {거기서 다 집어 내버렸어요.}
- 10201 # 다: 지버 내버리구 기양 군복, 거시기 머 칼두 다 띠: 내버리구 인재 군복 이봉 거만 이꾸서루. {다 집어 내버리고 그냥 군복, 거시기 뭇 칼도 다 떼어 내버리고 이제 군복 입은 것만 입고서.}
- 10201 # 인재 거기 항 가지가 우리가 해: 가주 간 오시 이쎬요:. {이제 거기 한 가지가 우리가 해 가지고 간 옷이 있어요.}
- 10201 # 그때 여기 저 노인정에선 아마 그거 말썽 디리썰 끼여:. {그때 여기 저 노인정에선 아마 그거 말썽 드렸을 거야.}
- 10201 # 우리 장:누니미 서울 기시넌데 동생이 구닌 간다구 하니깨로, {우리 큰누님이 서울 계시는데 동생이 군인 간다고 하니까.}
- 10201 # 워디 저: 전서래 그런 마리 난넌지 쉰님바리라고, 이 쪼끼 조끼그치 지어 가주서:, 오설. {어디 저 전설에서 그런 말이 났는지 쉰님발이라고, 이 조끼 조끼같이 지어 가지고, 오설.}
- 10201 # 쪼끼그치 지어 가주서루 쉰님바리라고 천 명, 천 명이 고릴 하낙씩 떠서 이부머넌 총이 드르와두 여기 총아리 안 드러오구 산:다능 기요. {조끼같이 지어 가지고 쉰

님발이라고 천 명, 천 명이 고를 하나씩 떠서 그걸 입으면 총이 들어와도 여긴 총
 알이 안 들어오고 산다는 거요.}

10201 #1 뜨루 땡기썩요. {뜨러 다녔어요.}

10201 # 어:. {응.} 10201 #1 그 마으럴 다: 도라 땡기매 뜨루... {그 마을을 다 돌아 다니
 며 뜨러...}

10201 # 그기 그기 쎄님바리여, 일본 말루 쎄님바린대. {그게 그게 쎄님발이야, 일본 말로
 쎄님발인데.}

10201 @ 일본말이에요? {일본말이에요?}

10201 # 야:. {예.}

10201 # 일바나 쎄님바리여, 허 허. {일본어 쎄님발이야, 허허.} 10201 #1 왜 요러캐 코로
 이러캐... {왜 요렇게 코로 이렇게.}

10201 @ 하나 하나? {하나 하나?}

10201 # 야:, 하나: 하나씩 이래 고를 떠. {예, 하나 하나씩 이렇게 코를 떠.}

10201 # 그래 서울려 가페:, 이 으:르니 서울려 가페 가주 가서 이러캐 퍼 노코 안자서루
 우리 동생 구닌 간대 해 달라구. {그래 서울역 앞에, 이 어른이 서울역 앞에 가지
 고 가서 이렇게 퍼 놓고 앉아서 우리 동생이 군인가는데 해 달라고.} 10201 #1
 도라 땡기민 다: 떠서. {돌아 다니면서 다 떴어.}

10201 # 참 이래서루 쪼끼릴 하나 맨드러썩. {참 이렇게 해서 조끼를 하나 만들었어.}

10201 # 그래서 인재 군 구닌갈 날짤 바다 노쿠서루. {그래서 이제 군 군인갈 날짜를 받아
 놓고서.}

10201 @ 글 그러면 고 쎄님바리라능 거, 우리말로능 머라고 해요? {그 그러면 고 쎄님발
 이라는 거, 우리말로능 뭐라고 해요?}

10201 # 쪼끼여 쪼끼. {조끼야 조끼.}

10201 @ 조끼?: {조끼?}

10201 # 야:, 조끼, 어 조끼, 어 어. {예, 조끼. 어 조끼, 어 어.} 10201 #1 왜 저:기 코바
 늘루 실:루 이래 떠서... {왜 저기 코바늘로 실로 이렇게 떠서...} 10201 # 교수니
 미 이봉거 그치 이리여:. {교수님이 입은 것 같이 이래.}

10201 @ 아: 요로캐? {아, 요렇게?} 10201 # 어 어 어. {응 응 응.}

10201 # 그럼, 쪼끼유, 쪼끼인데, {그럼, 조끼요, 조끼인데,} 10201 @ 예. {예.}

10201 # 등허리 요거털 천 코털 뜨아 뜬 그 쪼끼라고. {등허리 요거를 천 코를 뜨 뜬 조끼
 라고.}

10201 # 음:. {응.}

10201 @ 그럼 두 두껍겐내요? {그럼 두 두껍겠네요?}

10201 # 예, 쪼꿈 저: 쪼꿈 저 두껍, 이러캐 얹뜰 아나구 쪼꿈 두꺼워요. {예, 조금 저 조
 금 저 두껍, 이렇게 얹지를 얹고 조금 두꺼워요.}

10201 # 그래야 바늘로 꿰: 가주서 이러캐 고를래구 이래자나. {그래야 바늘로 꿰 가지고
 이렇게 고를 내고 이러잖아.}

10201 @ 네:. {예.}

10201 # 그래 저 소:개닌 그거 하나 이봉 거 배끼닌 가주 강 기 읍썩. {그래 저 속에는 그
 거 하나 입은 것 밖에는 가져 간 게 없어.}

10201 # 여기 저 머 뵈쓰구 머구 다: 그 군대서 나옴 거 다: 이꾸 그른대. {여기 저 뭐 뵈

티고 뭐고 다 그 군대에서 나온 거 다 입고 그런데.}

10201 # 그래서 거기털 인재 참 그 인재 영무널 버서저 나가 가주구서루 해매다 보니까
머:.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참 그 이제 영문을 벗어 나가지고서 해매다 보내까 뭐.}

10201 # 거 봉만주라던 데년 이러캐 벌파니 읍때요. {거기 북만주라는 데는 이렇게 벌판이
없대요.}

10201 # 한 머 이러캐 저: 쪼마쿠만 저: 거시기 골짜 골짜구이 이: 인재 이런: 텐대. {한
뭐 이렇게 저 조그마한 저 거시기 골짜기 골짜기 이 이제 이런 텐데.}

10201 # 가다 보며년 우트개 밤에 머 뵈이덜 아나구 가다 보며년 한쪽 다리가 폭: 빠져 버
러. {가다 보면 어떻게 밤에 뭐 보이질 않고 가다 보면 한쪽 다리가 폭 빠져 버
러.}

10201 # 그러면 그개 쭈:똥이여, 물라년 쭈:통인데, {그러면 그개 수통이야, 물나는 수통인
데,}

10201 @ 무슨 똥이요? {무슨 통이요?}

10201 # 쭈: 쭈. {수, 수.}

10201 @ 쭈. {수.}

10201 # 어: 물 마 물 마이 나녕 거 수:라 구래요 여기 지금, 어. {응 물 많(이) 물 많이
나는 걸 수라고 구래요 여기서 지금.}

10201 @ 예, 예.{예, 예.}

10201 # 그 수:똥인데, {그개 수통인데,} 10201 #1 노:내두 이르캐 폭: 빠:지자너. {논에도
이렇게 이렇게 폭 빠지잖아.}

10201 @ 예. {예.}

10201 # 그래 고: 물라녕 거 인재 고걸 바래 가주서루 고기 인재 푸럴 뽀구 거기 사람덜
머꾸 사:능 기 그러트라우유? {그렇게 고 물 나는 거 이제 그걸 바라고 고기 이제
풀을 뽑고 거기 사람들 먹고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10201 # 인재 소시랑으루다가서루 이르캐 푸럴 인재 뽀바 내:비리구서년 이러캐 해: 노쿠
선 물 괴이개 해 노쿠년 나라그루 기양 이러캐서 이러캐 이러캐 언지 가주서루 인
재 올라오면, 이삭 올라오면 기양 이르캐 까부년지 우짖지 이러캐서 거 홀터다가
그글 양시기라구 해 머거꾸 사라요. 으:. {이제 쇠스랑으로 이렇게 풀을 이제 뽑아
내버리고는 이렇게 해 놓고선 물이 괴게 해 놓고는 나락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렇게 이렇게 었어 가지고 이제 올라오면, 이삭이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까부는지
어찌는지 이렇게 해서 그 홀터다가 그글 양식이라고 해 먹고 살아요. 응.}

10201 # 하머 사:년대, 아 그런 대 가 폭: 이르캐 빠:저 가주선 기: 나오닝개 머머. {하면서
사는데, 아 그런 데 가서 폭 이렇게 빠져 가지고서 기어 나오니까 뭐뭐.}

10201 # 이기 참 다리가 두: 다리니깨 암 빠저찌. {이게 참 다리가 두 다리니까 안 빠졌
지.}

10201 # 순 갈때바태서. {순 갈때밭에서.}

10201 # 갈때, 요기 저 또랑애 갈때, 갈때바친대. {갈대, 요기 저 도랑애 갈대, 갈때밭인
데.}

10201 # 그래서 인재 이르캐 이래: 노쿠서 기: 나와 가주서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래
하고서 기어 나와 가지고서.}

10201 # 엄, 아이 전부 흑터뱅이지 머. {엄, 아이 전부 흙투성이지 뭐.}

10201 # 아 그래 또 기: 또 기: 가야지 머 우투기야. {아 그래 또 기어 또 기어 가야지 뭐 어떻게 해.}

10201 # 개서 인저 나리 어지가:니 새: 갈라구 하년대 부리 뵈여. {그래서 이제 날이 어지 간히 새려고 하는데 불이 보여.}

10201 # 그래서 거기털 부털 보구서 차자 드러가니까 그래. {그래 거기를 불을 보고서 찾아 들어가니까 그렇게.}

10201 # 참, 그 거기년 마:시래 이러캐 마:시릴 예럴 드러서 이기 이기 마시리면 이 뱅이 마시리라구 예럴 드러서 말하자머년, {참, 그 거기는 마을에 이렇게 마을을 예들 들어서 이게 이게 마을이면 이 방이 마을이라고 예들 들어 말하자면.}

10201 # 이 주위 도라가민서루 저: 사내 저 참나무, 저 나무털 비다가서루 전:부 이르캐 저 거시키털 세워 가주서루 그기 울따릴 맨드러 그 아내. {이 주위 돌아가면서 저 산에 저 참나무, 저 나무를 베어다가 전부 이렇게 저 거시기를 세워 가지고 그제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에.}

10201 # 그라구서 그: 아내 사라유, 으 집. {그러고서 그 안에 살아요, 응 집.}

10201 # 아주 머 이 사:년 지번 한테 부따시피 이러캐 총총이 이러캐 가주구 사:년데. {아주 뭐 이 사는 집은 한테 붙다시피 이렇게 총총히 이렇게 해 가지고 사는데.}

10201 # 그기 저기 나:중에 알구 보니까 여기서 인재 제 땅 우꾸 외로운 사람더런 일변 싸람더리 그리 이:미널 보낸 사람더리유, 이:민. 어:, 그리 인재 여기서 인재. {그제 저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 땅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그리 이민을 보낸 사람들이요, 이민. 응, 그리 이제 여기서 이제.}

10201 # 저: 영주권 해: 가주구서루 그리 거 가 사르라구 인재 드르간 사람더런데. {저 영주권 해 가지고 그리 거기 가 살라고 이제 들어간 사람들인데.}

10201 # 그래 드르가서 인재 쥬 양바닐 차즈니까 하라부지가 한 분 나 이르캐 무닐 여러 주시민서루 '누구나!' 해여. {그래 들어가서 이제 주인 양반을 찾으니까 할아버지가 한 분 나와 이렇게 문을 열어 주시면서 '누구나!' 해요.}

10201 # 아이, 저년 그릉 기 아니라 충청북도 보:운에서루 여 구니닐 와따가 으: 거기서 주캐 대:서루 내가 도망얼 처서 나완년대 하라부지 나쥬 살리 주시요. {아이,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충청북도 보우에서 여기 군인을 왔다가 거기서 죽게 돼서 내가 도망을 처서 나왔는데 할아버지 나 쥬 살려 주세요.}

10201 # 그라니까루, 아이구 야 드르오느라. {그러니까, 아이구 야 들어오너라.}

10201 # 경상도 싸라미유, 경상도. {경상도 사람이요, 경상도.}

10201 # 저 문 저 문경 싸라미요, 그 하라부지가. {저 문 저 문경 사람이요, 그 할아버지가.}

10201 # 나중에 인 저: 차차루 알구 보니까 문경 싸라미여. {나중에 인 저 차차로 알고 보니까 문경 사람이야.}

10201 # 그리유? 저년 충청북도 보우내 저 송니산 그: 너매 거가 와 우리 지빈대, {그래요? 저는 충청북도 보운에 저 속리산 그 너머에 거기가 우리 집인데.}

10201 # 구니닐 와따가서 내가 불 도망얼 해서 이래 나와 가주서루 나와쥬요. {군인을 왔다가 내가 불, 도망을 해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서 나왔어요.}

10201 # 나 하라부지 나쥬 살리주시요, 그라니까, {나 할아버지 나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10201 # 아이구: 얼른 드르오느라 그래민서 머 바 방우루 부짜바 디리여. {아이고 얼른 들어오너라 그러면서 뭐 방 방으로 붙잡아 들어.}

10201 # 개, 얼러 얼렁 군복 버서라. 으, 버서라. {그래 얼른 얼른 군복 벗어라. 응, 벗어라.}

10201 # 연새가 마:나 그때두 그 낭바니. {연새가 많아 그때도 그 양반이.}

10201 # 그 낭반두 그때두 머: 아: 한: 오, 육십 이:상 돼:씨요, 나이가. {그 양반도 그때도 뭐 아 한 오, 육십 이상 됐어요, 나이가.}

10201 # 그런데 그른 하라부지가...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가...}

10201 # 개 머 오설 버스니께 워:다 가따 치원넌지 뵈이두 아니야. {그래 뭐 옷을 벗으니 까 어디다 갖다 치웠는지 보이지도 않아.}

10201 # 워느저래 가따 워다 워다 가따 파무던넌지 우짖지두 몰라. {어느새 갖다 어디다 어디가 갖다 파묻었는지 어졌는지도 몰라.}

10201 # 근대 거기 인재 아까 말:썸디링 거 쟈님바리, 으: 똥 거 쪼끼. {그런데 거기 이제 아까 말썸드린 거 쟈님발이, 응 뜯 거 조끼.}

10201 # 그거뚜 강 거기다 그걸 그거 들키며넌 구니넌 줄 알구서 주길 캄녕이, 히히. {그것도 그냥 거기다 그거 그거 들키면 군인인 줄 알고서 죽일 까봐, 히히.}

10201 # 다: 버서 조 빠리씨, 그기 다, 허허 허 참:. {다 벗어 줘 버렸어 거기다, 허허 허 참.}

10201 #1 그래 오설 함 벌 으:더 이꾸서... {그렇게 옷을 한 벌 얻어 입고서...}

10201 # 그래서 인재 거기서 인재 오설 하나 버꾸서 나니께 주넌데: 삼베:, 삼베오신대 아주 입따 입따 문: 니버서 인재 가따 내버리넌 오싱개비여.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옷을 하나 벗고 나니까 주는데 삼베, 삼베옷인데 아주 입다 입다 못 입어서 이제 갖다 내버리는 옷인가 봐.}

10201 #1 그러치 머, 연:나랜 귀하자나. {그렇지 뭐, 옛날에 귀하잖아.} 10201 # 워디 저:, 불 때넌 굴뚝 여패다 가따 놔:썸넌지 전 거 손 그떡 뚱어리여씨. {어디 저, 불 때는 굴뚝 옆에 갖다 났었는지, 전 거 술 거멍 덩어리였어.}

10201 # 새카마야, 어:. {새까매, 응.}

10201 # 요기 채여, 요기. {요기 채여, 요기.}

10201 # 요기 요기 채이닝 거구 요 이거뚜 이거 이진 너머 지:러. {요기 요기 채이는 거고 요 이거 이진 너무 길어.}

10201 # 요기 채이닝 건 인재 우또리넌 이렇 거 하구 그거덜 저기 이 저 소:개 뻥, 쪼마냥 거 뻥쓰 하나 주구 인저 그라는데. {요기 채이는 건 이제 옷도리 이런 거 하고 그거를 저기 이 저 속에 뻥, 조그만한 거 팬티 하나 주고 이제 그러는데.}

10201 # 그걸 그걸 이버씨요. {그걸 그걸 입었어요.}

10201 # 그걸 이꾸서 인재 나니께루 멀 머걸 꺼럴, 배가 고폴 텐대 멀 머걸 쥔 주여 댕다 고 해민서, 머 옥씨기딩가 머럴 하이턴 주넌데, 아이 이기 머 옥씨가 이배 드르 가두 아내요, 게비 나서:. {그걸 입고 이제 나니까 뭘 먹을 것을, 배가 고폴 텐데 뭘 먹을 것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뭐 옥수수던가 뭐를 하여튼 주는데, 아이 이게 뭐 옥수수가 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겁이 나서.}

10201 # 어:, 일본놈더리 일번 부짜부로 오녕 거 그터 마:매, 에헤 허허허 헤. {응, 일본놈들이 금방 붙잡으러 오는 것 같아 마음에.}

10201 # 그럴 때 이게 장:판 요래캐서 아: 이거 재미 모진 거 아니여? {그럴 때 이게 잠깐
요렇게 해서 아 이거 잠이 모진 거 아니야?}

10201 # 그: 미서운 중애두 잉겐 눈 이러카니께루 재미 오더라구. {그 무서운 중에도 그러
니까 눈을 이렇게 하니까 잠이 오더라고.}

10201 # 그래 어트개민서 재미 펼:떡 깨이넌대, 아이구 저거 한:대 일변 일변남 싸람더리
부짜부러 웅 거 그터. {그래 어떻게 하면서 잠이 펼쩍 깨는데, 아이고 저거 한테
일본, 일본놈 사람들이 붙잡으러 온 거 같아.}

10201 # 그래니께, {그러니까,} 10201 #1 그러치, 저 이 도망얼 오닝께 미서워서... {그렇
지, 저 이 도망을 오니까 무서워서...} 10201 # 어: '하라부지! 하라부지!' 그라니
께루 잘 하라부진 자느라구 생각뚜 하지 아나구.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
까 잘 할아버지는 자느라고 생각도 하지 않하고.}

10201 # 하라부지 하라부지 흔들민서 그라니께, '왜 그러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흔들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니?}

10201 # 아이구 여 일변 싸라더리 나 부짜부러 오녕 오넌데 저 여기서 또 내:빨래유. {아
이고 여기 일본 사람들이 나 붙잡으러 오는 오는데 저 여기서 또 내빨래요.}

10201 # 그라면 너 지금 나가면 워디루 갈라 구라니? {그러면 너 지금 나가면 어디로 가
려고 그러니?}

10201 # 하이틴 워:디던지 워:디 가 수머야지 난 주거요. {하여튼 어디든지 어디 가 숨어
야지 난 죽어요.}

10201 # 흐흐 허, 일봄마 일본놈 소내 주거요. {흐흐 허, 일본놈 일본놈 손에 죽어요.}

10201 # 그래 인재 그 인재 그때 나리 인재 해변:하개 썰라고 하넌대 이래 또 보니께루 또
야 부리 뵈이넌 지비 이떠라고요. {그래 이제 그 이제 그때 날이 이제 흰하게 새
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예 불이 보이는 집이 있더라고요.}

10201 # 그래 거길 차자 드르가니께루 그 낭바니 연세가 그때:: 하노:: 한 한 사:시번 너
머꺼썬. {그래 거길 찾아 들어가니까 그 양반이 연세가 그때 한 오(십) 한 한 사
십은 넘었쥬어.}

10201 # 한 오:십 가차이 대:썬 그때. {한 오십 가까이 됐어 그때.}

10201 # 근대 아덜 하나 데리고 내우: 그렇게 시: 씨꾸가. {그런데 아들 하나 데리고 내외
그러니까 세 식구가.}

10201 # 시: 씨꾸가 소 한마리 메기구. {세 식구가 소 한마리를 먹이고.}

10201 # 개 드루 인재 그런대 드르오라캐션 재 드르가서루. {그래 들어 이제 그런데 들어
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10201 # 오:서 완느냐구 무러.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

10201 # 구닌, 구닌 와따가서루 부째피서 저: 도망쳐서 나완넌대 사:녕 건 나 사:녕 건 충
청북도 보우내서루 지빔니다. {군인, 군인 왔다가 붙잡혀서 저 도망쳐서 나왔는데
사는 데는 나 사는 데는 충청북도 보은에서 집입니다.}

10201 # 근대 내가 도망언, 군내에서 도망얼 처가주 나와 가주서루 밤새:두룩 도라댕기다
가 여: 아저씨 때글 차저 드루완너니라고. {그런데 내가 도망은, 군대에서 도망을
쳐 가지고 나와 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여기 아저씨 댁을 찾아 들어왔느니
라고.}

10201 # '나쭈 살려주시오:', 하니께루 드르오라구. {'나 쭈 살려주세요' 하니까 들어오라

고.}

10201 # 인재 드르가니께 참 머 대우가 극쩍히야, 어: 극쩍하구 구라넌대. {이제 들어가니까 참 뭐 대우가 극진해, 응 극진하고 그러는데.}

10201 # 그래 인재 그 지배 인재 농사릴 쫓쫓 하드라고요? {그래 이제 그 집에 이제 농사를 조금 하더라고요?}

10201 # 거기 농사라녕 거시 보매 가서 봄버릴 가랴요. {거기 농사라는 것이 봄에 가서 봄보리를 갈아요.}

10201 # 봄버릴 가넌데 뭐어: 거르미 머가 이써, 여기넌 비:료가 이찌만 버이 비:료도 오꼬. {봄보리를 가는데 뭐 거름이 뭐가 있어, 여기는 비료가 있지만 거니는 비료도 없고.}

10201 # 인재 나무해다 인재 땀: 저: 나무카서 땀: 재:. {이제 나무해다 이제 땀 저 나무해서 땀 재.}

10201 # 재릴 모디면 재까니 변소여. {재를 모으면 잿간이 변소야.}

10201 # 변소, 오줌 누구 인재 똥 누구 인재 그런 변손대, 인재 그거릴 재하구 이러케 피머 비비 놔:따가, {변소, 오줌 누구 똥 누구 이제 그런 변소인데, 이제 그거를 재하고 이러케 비벼 비벼 났다가,}

10201 # 해:동하머넌 가서 인재 사내 가서 인저: 바태 가서 참 이러케 저기 팽이루 이래극 어: 팽이루 극:꾸선 인재 보리째하구 재하구 부비닝개 인재 그거 언치구서루 이르케 더푸면 인재 나서루 인재 멍넌대, {해동하면 가서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밭에 가서 참 이렇게 저기 팽이로 이렇게 굽 응 팽이로 굽고는 이제 보릿재하고 재하고 비비니까 이제 그것을 얹혀서 이렇게 덮으면 이제 나서 이제 먹는데,}

10201 # 그때 가니께루 굽 가니께 그래서 해:따구 그랜: 얘기하는데 그 버리여. {그때 가니까 굽 가니까 그래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보리야.}

10201 # 그 인재 이래 비비 보니께 그기 저: 쌀버리더라구 또. {그 이제 이렇게 비벼 보니까 그게 저 쌀보리더라고 또.}

10201 # 아이 아이 쌀버리가 아니라 꺾빠리여. {아니 아니 쌀보리가 아니라 꺾보리야.}

10201 # 꺾빠린대 이르케 지:러. {꺾보린대 이렇게 길어.}

10201 # 쉬예미 이 저: 지 이만:해. {수염이 이 저 길(어) 이만해.}

10201 # 그래 인재 그 아, 그지바덜하구, 그래 거 구루마. {그래 이제 그 아, 그집 아들하고, 그래 그 구루마.}

10201 # 소가 썩 개 인재 구루마. {소가 쓰는 게 이제 구루마.}

10201 # 걸 달구지라 구래요. {그걸 달구지라 그래요.}

10201 # 거기선 만, 만주선 달구지라 구리야 그걸. {거기서는 만(주), 만주서는 달구지라 그래 그걸.}

10201 # 여기서넌 소구루만:대. {여기서는 소구루마인데.}

10201 # 그걸 인재 끌:구서루 가서 인재 보리두 비다가서루 인재 주구. {그걸 이제 끌고 가서 이제 보리도 베어다가 이제 주고.}

10201 # 또 쇠:풀두 인재 그 아덜하구 인재 가치 이러:캐 비다 주구. {또 쇠풀도 그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베어다 주고.}

10201 # 그러구루다 한 대싸 이쓰니께루 그 주인 아자씨가 '아이 애 해:뱅이 되판다'. {그럭저럭 한 땃새 있으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아이 애 해방이 되었단다.'}

10201 # '아자씨, 해방이 머요?' {'아저씨, 해방이 뭐요?'}

10201 # 해해 해해, '해방이 머요?' {'해해 해해, '해방이 뭐요?'}

10201 # 그라니께 '아: 한번 싸람덜하:구 미국 싸람덜하구 존:장행 거 아니여?' 그래닝께 아이 그러치요. {'그러니까 '아 일본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전쟁한 거 아니야?' 아이 그렇지요.}'

10201 # 한번 싸라더리 지금 패재저내서 다: 지구서 항보캐:띠야. {'일본 사람들이 지금 패전해서 다 지고서 항복했대.'}

10201 # 어, 항보카구선 지금 으: 저: 저 도:문 거기 가머닌 머어: 피란미니 머 엄청이, 줌 나리가넌 사람 나리가구: 올라오넌 사라면 올라오구 인재 이라넌대, {'어, 항복하고선 지금 응, 저 저 도문 거기 가면 뭐 피난민이 뭐 엄청나게, 줌 내려가는 사람은 내려가고 올라오는 사람은 올라오고 이제 이러는데,'}

10201 # 올라간다구 그 아이 저 그러케 돼:따구 그런 얘기될 하시드라구, 주인 아저씨가. {'올간다고 그 아니 저 그렇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주인 아저씨가.'}

10201 # 그래, '아유: 그리유 아자씨.' {'그래, '아유 그래요 아저씨.'}

10201 # '인지 사란내요 아자씨, 나넌.' {'이제 살았네요 아저씨, 나는.'}

10201 # 으: '인지 사란내요.' {'응, '이제 살았네요.'}

10201 # '저넌 인재 넬: 아자씨 때글 떠나 거주서루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루 갈래요.' {'저는 이제 내일 아저씨 택을 떠나 가지고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러 갈래요.'}

10201 # '갈래요' 구라니께루 그 아자씨 마리 '아이구 쯔썸 간정대결랑언 가그라' 으: 그러카시여. {'갈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말이 '아유, 쯔썸 진정되거든 가거라.' 응 그렇게 하셔.}'

10201 @ 머 대면요? {'뭐 되면요?'}

10201 # 쯔썸 간정, 이 인재 시어 거시기가 간정, 날리가 간정대결랑언. {'조금 진정, 이 이제 거시기가 진정, 난리가 진정되거든.'}

10201 @ 예:. {'예.'} 10201 # 어. {'응.'}

10201 # 간정 됴 되결랑 가그라. {'진정 된 되거든 가거라.'} 10201 @ 조용해지면? {'조용해지면?'}

10201 # 어: 조음 조용해지그면 가그라. {'응, 조용, 조용해지면 가거라.'}

10201 # 그래 걸 간정이라구 난 그러케 지끄리여. {'그래 그걸 간정이라고 난 그렇게 지꺼리여.'}

10201 @ 예:. {'예.'} 10201 # 어. {'어.'}

10201 # '이 나라가 쯔 간정이 되결랑언 가거라' 이르케 하시드라고. {'이 나라가 쯔 진정이 되거든 가거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10201 @ 거기 게셔뜬 대가 어디애요, 도문? {'거기 게셨던 데가 어디예요, 도문?'}

10201 # 노:혹싸니라는 텐테: 어 거 내가 아니여 아니여, 거가 저: 왕청현 천교:런 이번지라는 부래기여 거가. {'노혹산이라는 텐테 어 거 내가 아니야 아니야, 거기가 저 왕청현 천교런 이번지라는 부락이여 거기가.'}

10201 # 어: 나: 가서 그 아자씨가 저 해:방대따구 갈쳐 주넌 데가, 어:. {'으, 내가 가서 그 아저씨가 저 해방되었다고 가르쳐 주던 데가, 으.'}

10201 @ 거기 충청도 싸람들두 이씨씨요? {'거기 충청도 사람들도 있었어요?'}

10201 @ 거 왕청애? {'거기 왕청애?'}

10201 # 충청도 싸라면 나 도망해선 모 뽕구: 그 피란 저:기 와서 저: 수머 이뻐 떼년 경, 경상북도 싸람덜 지비유, 둘: 다: 으: {충청도 사람은 나 도망해서는 못 보고 그 피난 저기 와서 저 숨어 있던 데는 경, 경상북도 사람들 집이요, 둘 다. 응.}

10201 # 저: 두: 번째 드르간 떼년 여: 경북 용화. {저 두 번째 들어간 데는 여기 경북 용화.}

10201 @ 예: {예.}

10201 # 어, 여기 와 여: 온천 난다는데 용화. {어, 여기 왜 여기 온천 난다는데 용화.}

10201 @ 예 예. {예 예.}

10201 # 거기 대추쟁이라구 하년 동네가 이씨요. {거기 대추장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10201 # 거기서 와떠야. {거기서 왔대.}

10201 # 으, 거기서 완넰대 그이너 승:씨가 저: 염씨구. {응, 거기서 왔는데 그이는 성 씨가 저 염 씨고.}

10201 # 츠:매 가 드르가뻐 하라부지년 문경서 오신넰대, {처음에 가 들어갔던 할아버지는 문경에서 오셨는데,}

10201 # 그이년 성:씨덜 몰라씨. 어. {그이는 성 씨를 몰랐어. 응.}

10201 # 몰:라서 그러개 고:마께 해 줘씨두 승:씨 모:, 모:다라씨. {몰라서, 그렇게 고맙게 해 줘어도 성 씨를 못, 못 알았어.}

10201 # 인재 여기 두: 번째년 드르가서 메칠 이씨쓰니께 그 냥바년 인재, {이제 여기 두 번째는 들어가서 며칠 있었으니까 그 양반은 이제,}

10201 # 염무새밍가 도:새밍가 그래 형재년, 그 형언 여기 살:고 동생이 거기루 이:민 드루와따 그라드라구? 으. {염무삼인가 도삼인가 그렇게 형제인데, 그 형은 여기 살고 동생이 거기로 이민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응.}

10201 # 그래 인재 그 아자씨더러 '아이구 나년 갈 텨년 아자씨두 고만 나하구 동행해서 가치 고향애 너리가시지요' 그라니께루, {그래 이제 그 아저씨더러 '아이구 나는 갈 텨년 아저씨도 그만 나하고 동행해서 같이 고향애 내려가시지요' 그러니까,}

10201 # 머::하개 생각하시드니만 '나년 닝큼 모 가니 자네가 머녀 가게' 으:, 이러시더라고. {명하게 생각하시드니만 '나는 닝큼 못 가니 자네가 먼저 가게' 응, 이러시더라고.}

10201 # 개 보니께 재산이라넌 건 아:무거뚜 읍씨:, 소 한 바리배께 읍씨유. {그래 보니까 재산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소 한 마리밖에 없어요.}

10201 # 그 토지 해 먹뎡 거 가 머 만주 땅 그거 나면 고마이지 머: 워디 돈: 바꾸 팔 쭈두 읍넌 거구 그기 그래요. {그 토지 해 먹던 거 가 뭐 만주 땅 그거 나면 그만이지 뭐 어디 돈 받고 팔 수도 없는 거고 그게 그래요.}

10201 # 그러니께 '아이구 나 조금 이따가서루 갈 태니께루 금 자넬랑 금 먼저 금 가게'. {그러니까 '아이구 나 조금 있다가 갈 태니까 그럼 자넬랑은 그럼 먼저 그럼 가게'}

10201 # 그르카세요. {그렇게 하세요.}

10201 # 그래 인재, 이:전애 으:른덜 으:런더란테 인, 저기 작빨할 쟈년 으:런더란테 이러캐 저덜 하고서로 가: 어: 이:전 버비 그리유. {그렇게 하세요.} {그래 이제, 이전에 어른들 어른들한테 인(사), 저기 작별할 때는 어른들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서 가.

응, 이전 법이 그래요.}

10201 @ 예:. {예.}

10201 # 으:. {응.}

10201 # 가서 갈 찌개 가서 만나면 이르게 절하구 인사하구, 또 저 땡기서로 가머넌 또 나 오머넌 나을 찌개 '저 갑니다' 하구서 또 저털 하구 나오구 그리야. {가서 갈 적 에 가서 만나면 이렇게 절하고 인사하고, 또 저 다니러 가면, 또 나오면 나을 적 에 '저 가립니다' 하구서 또 절을 하고 나오고 그래.}

10201 # 으: 그런 법 지금 절르니더란테 얘기하면 저 저거 머 괴상한 놈 다 괴상투 안한 놈 소릴 하구 인내. {응, 그런 법 지금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저 저거 뭐 괴상한 놈 다 괴상하지도 안 한 놈 소리를 하고 있네.}

10201 # 우 우리는 그러 그러커넌 내가 그러케 행동얼 해: 너리 와꼬:. {우 우리는 그렇 그렇게 하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 내려왔고.}

10201 # 그래 인젠 작빠릴 하구서 인재 그 낭반 작빨 하구서 나오니께, {그래 이제 작별을 하고서 이제 그 양반하고 작별을 하고서 나오니까,}

10201 # 참 메::치릴 거러서 이러케 나오지 머: 나오니께, 그기:: 저기 항 군대 싸람덜만 아니리야, 거기 꾸니니. {참 며칠을 걸어서 이렇게 나오지 뭐 나오니까 그게 저기 한 군대 사람들만 아니라, 거기 군인이.}

10201 # 으:, 그개 쏘련군, 거기 머 그 연합꾸니니리야 전부가, 그 팔로구니라넌 거시. {응, 그개 소련군, 거기 뭐 그 연합군인이라 전부가, 그 판로군이라는 것이.}

10201 # 으:, 팔로구니라넌 개 조선 싸람두 이꾸: 저: 머: 쏘련 싸람두 이꾸, 가꾸 싸람더리 모아 가주서 인능 기 그기 팔로, 저: 팔로구니라넌 구래요. {응, 판로군이라는 게 조선 사람들이 있고 저 뭐 소련 사람도 있고, 각국 사람들이 모아 가지고 있는 게 그개 판로, 저 팔로군이라는군 그래요.}

10201 # 그 사람더리 인재 밀구 나온 기여, 으? {그 사람들이 이제 밀고 나온 거야, 응?}

10201 # 일본놈더릴 인재 밀:구 너, 밀:구 나온 기여, 으:. {일본놈들을 이제 밀고 나, 밀고 나온 거야,. 응.}

10201 # 저짜개 인재 일번서 인재 다: 절판나니께루 인재 여기서 망 밀:구서 저 만주서 이 러케 그 팔로군더리 내, 내밍 기요 그때. {저쪽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다 결단나 니까 이제 여기서 막 밀고서 저 만주서 이렇게 그 판로군들이 내, 내민 거요 그 때.}

10201 # 그래서 인재 나오니께 일본놈더리 아: 기냥 내 줄라구 히야? {그래서 이제 나오니 까 일본놈들이 아 그냥 내 주려고 해?}

10201 # 또 아파두 그 머머 마:른 머 저: 괴기 까번 주거두 괴기 까번 하구 중는다구 그 마리 이짜나 속파매. {또 아파도 그 뭐뭐 말은 뭐 저 고기 값은 죽어도 고기 값을 하고 죽는다고 그 말이 있잖아 속담에.}

10201 # 그래 막 불질두 해 보구 인재 그 저: 도:문 거기서 오니께루 거기 인젠 줌 저기 널르드라구 거가 머. {그래 막 불질도 해 보고 이제 그 저 도문 거기에 오니까 거 기 이제 줌 저기 넓더라고 거기가 뭐.}

10201 # 거 역뚜 이꾸. {거기 역도 있고.}

10201 # 마:니 주거써:. {많이 죽었어.}

10201 # 사라미 거:서 참 마:니 주거써요. {사람이 거기서 참 많이 죽었어요.}

10201 # 그때꺼정두 모도 머: 부릴 질러서 막 타너라구 영기가 나구 그러 그러타라구요, 거가요. {그때까지도 모두 뭐 불을 질러서 막 타느라고 연기가 나고 그러 그러타라구요, 거가요.}

10201 # 그래 간:시이 인재 거기서 인재 거기서년 이짜 하, 조선땅 인재 근:너오년 대년 맘:대루 근:너 와. {그래 간신히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쪽 한(국), 조선땅 이제 건너오는 데는 마음대로 건너 와.}

10201 # 근:너 오년테 메::치릴 해 돼 가주서루 여기 저: 저 연천이라년 데, 경기도 연천, 꺼지 와썬서. {건너 오는데 며칠을 해 돼 가지고서 여기 저 저 연천이라는 데, 경기도 연천, 거기까지 왔었어.}

10201 # 참: 장 머, 밥 굴머 가며 참 워디 가서 이거 저 으:더두 먹 머 참 머끼두 하구, 모:드터 머그먼 그냥 굴머서두 오구. {참 장 뭐, 밥 굶어 가며 참 어디 가서 이거 저 얻어도 먹 먹 참 먹기도 하고, 못 얻어 먹으면 그냥 굶어서도 오고.}

10201 # 머리를 모: 까까서 망: 머리가 이러 이러쿠:. {머리를 못 깎아서 막 머리가 이러 이렇고.}

10201 # 지그: 그러케 비우가 업썬. {** 그렇게 비위가 없어.}

10201 # 워디 가서 그 머리 깎년 대 가서 나 이 머리 좀 이 까까 달래요, 주십소 해면 그 그 좀 하나 양 까까 주거썬, 불쌍한 놈? {어디 가서 그 머리 깎는 데 가서 나 이 머리 좀 이 깎아 달래요, 주십소 하면 그것 좀 하나 안 깎아 주겠어, 불쌍한 놈?}

10201 # 그 오뚜 그 저 그 전::부 요기 채이닝 거 그 저: 기차, 고평차. {그 옷도 그 저 그 전부 요기 채이는 거 그 저 기차, 화물차.}

10201 # 그 인재 저 화물차 인재 그 저: 우:에 이러케 이러케 저기릴 송파느루다 이르기 짜서루 언징 기 이썬유. {그 이제 저 화물차 이제 그 저 위에 이렇게 이렇게 저기를 송파느루다 이렇게 짜서 엮은 게 있어요.}

10201 @ 뚜경 어:꾸 이르:캐, {뚜경 없고 이렇게,} 10201 # 어, 어어, 화물차 우:애. {어, 어어, 화물차 위에.} 10201 @ 시를 쭈 이께. {실을 수 있게.} 10201 # 날망애 {마루애.}

10201 @ 예예. {예예.}

10201 # 기차 날망애. {기차 마루애.}

10201 @ 예. {예.}

10201 # 거기 타구 너리와따구요. {거기 타고 내려왔다고요.}

10201 # 그러면 그 굴: 쏘개 드러가면 그기 전부 수검둥이여. 그 그기 전부 수검둥이라구 오새. {그러면 그 굴 속에 들어가면 그게 전부 솟 검둥이야. 그 그게 전부 솟 검둥이라고 옷애.}

10201 # 흐 헤헤, 오시 그러케 그래두 그 어디 가서 그 흐:논 버서 내버리닝 거 그거 하나 좀 쪼끔 낭 거 좀 으더 달:라, 달:라 쏘리릴 모:티애썬, 내가. {흐 헤헤, 옷이 그렇게 그래두 그 어디 가서 그 헛 옷 벗어 내버리는 거 그거 하나 좀 쪼끔 나온 거 좀 얻어 달라, 달라 소리를 못 했어, 내가.}

10201 #1 옴:나래 아이고:... {옛날에 아이고...}

10201 # 그래 가주구서루, {그래 가지고,}

10201 #1 그래 그 짤른 탐방바지만 이꾸 완내? {그래 그 짧은 탐방바지만 입고 왔네?}

10201 # 그래서 여 경기도 연천 여기릴 오니께루 모: 까개 히야, 거 강. {그래서 여기 경기

도 연천 여기를 오니까 못 가게 해, 거 강.}

10201 # 인재 경계서니여. {이제 경계선이야.}

10201 # 삼팔선 경계서닌대, 쏘련누미 이래 경계럴 하닌대, 보니까 여긴 맨 시게여.{삼팔선 경계선인데, 소련놈이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맨 시게야.}

10201 # 어, 이런 대. 여 맨: 시게 시게 양쪽 팔뚝개 어 총들구 이르게 선닌대. {응 이런데 여 맨 시게 시게 양쪽 팔뚝에 응 총들고 이렇게 섰는데.}

10201 # 줌 글러가개 해:, 안 들려, 모: 까개 히야. {줌 건너가게 해, 안 된대, 못 가게 해.}

10201 # 그래 그 여파 하라부지가 애기럴 하나 어꾸서루 찌우:찌우 이러캐 와따: 가따 이르게 하시여. {그래 그 옆에 할아버지가 애기를 하나 업고서 기웃기웃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

10201 # 살:살 그그 가서루 '하라부지! 하라부지!' 그래니께, '왜그라니?' {살살 거기 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러니?'}

10201 # '제:가 저 강얼 근:너 갈라카니께 모: 까개 하니, 그 마:넌 사래미 워디루 가던지 가닌 대가 이쓰니께 이찌 간 대 읍씨머닌 모: 짱 꺼 아니요?' {'제가 저 강을 건너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니, 그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가는 데가 있으니까 있지 간 데가 없으면 못 간 거 아니요?'}

10201 # '여개 머: 사:라미 백씨알 그튼대 워디로 나가닌 대가 이씨요?' 그라니께로, {'여기 뭐 사람이 백씨알 같은데 어디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201 # 생각하더이 요기 여 강뚜그루 요리 따라 너리가면 그 미슨 전:부 이 밤:나무여. {생각하더니 요기 여 강둑으로 요리 따라 내려가면 그 밑은 전부 이 밤나무야.}

10201 # 밤:나무가 거 똑빵애 이러캐 이러캐 선닌대, 그리루 수머서 이러캐 너리가면 그: 아래 가면 뽕, 배가 이쓸 끼다. {밤나무가 그거 똑방애 이렇게 이렇게 섰는데 그 리로 숨어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 아래 가면 배, 배가 있을 거다.}

10201 # 근:네가닌 배가 이쓸 태니 거 가서 사정해 보라구 구리야. {건너가는 배가 있을 태니 거기 가서 사정해 보라고 그래.}

10201 # 개 참 가니께루 배럴 아유 한: 배 시러씨, 사라멸. {그래 참 가니까 배를 아주 한 배 실었어, 사람을.}

10201 # 거지만 다: 매서래씨. {거지만 다 **했어.}

10201 # 그래 사공떠러 그래찌 머:. {그래 사공떠러 그랬지 뭐.}

10201 # 새:카먼 수껌덩이가 사공떠러, {새까만 솿 검댕이가 사공떠러,}

10201 # '나 줌 살리 주시요.' {'나 줌 살려 주세요.}'

10201 # '저 가 여길 건너가면 살:건닌대: 나 줌 근내 주르세요'. {'저 가 여기를 건너가면 살겠는데 나 줌 건내 주세요.}'

10201 # '나넌 도:나라넌 거넌 머: 피:전 한 푼 움넌 사라미요'. {'나는 돈이라는 거는 뭐 피전 한 푼 없는 사람ियो.}'

10201 # '나 줌 살리 주시요', 하니께 헤헤헤, 올라 오라고, 올라 오라고. {'나 줌 살려 주세요', 하니께 헤헤헤, 올라 오라고, 올라 오라고.}

10201 # 그래서 그거넌 인재 건너서 인재 나오니께 거가 저: 청냥니, 청냥니루 빠:저 너리 와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건너서 이제 나오니까 거기가 저 청량리, 청량리로 빠져 내려 왔어요.}

10201 # 하하, 아이 거기 청량리서루 서울러걸 그저 머 막 날라씨 날라. {하하, 아이 거기

청량리에서 서울역을 그저 뭐 막 날았어 날아.}

10201 # 날라서 막 시물한 사리니께 머 저 머거서니께 머 그때 잘 거리짜너, 그때만 해두, 기우니. {날아서 막 스물한 살이니까 뭐 저 먹어서니까 뭐 그때 잘 걸었잖아, 그 때만 해도, 기운이.}

10201 # 그래서 내가 사려 온 사래미요. ㅎㅎㅎ 어. {그래서 내가 살아 온 사람이요. ㅎㅎㅎ 어.}

10201 @ 고생 마:니 하선내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10201 # 으, 으. {으, 응.}

10201 @ 그 하라버지 가서던 그 도문 왕청 인는 대, {그 할아버지 가셨던 그 도문 왕청 있는 데,}

10201 # 예:. {예.}

10201 @ 제 여러 번 가따 와썬요. {저 여러 번 갔다 왔어요.}

10201 # 아:, 그리여 그리여. {아, 그래 그래.}

10201 # 내 저 그, 저 그짐말 하나두 안해찌:. {내 저 거, 저 거짓말 하나도 안했지.}

10201 @ 아하하하! 그짐마른 무슨 그짐마리셔요. {아하하하!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세요.} 10201 # 하하하, 어:. {으허허허, 어.}

10201 @ 그러며는 어릴 때 여기서 태어나서서, {그러면 어릴 때 여기서 태어나서서,}

10201 # 그럼. {그럼.}

10201 @ 여기서:. {여기서.}

10201 # 그럼. {그럼.}

10201 # 여적 거기 여기서 사년대. {여지껏 거기 여기서 사는데.} 10201 @ 그럼 어릴 때는 뭐: 어티개 뭐 하셔썬요. {그러면 어릴 때는 뭐 어떻게 뭐 하셨어요?}

10201 # 어릴 때년 그췌 머: 철라기 저내 머 저긴지 머: 철라기 저내 아:무 거뚜 아내췌. {어릴 때는 글췌 뭐 철나기 전에 뭐 저기저 뭐 철나기 전에 아무 것도 안 했어.}

10201 # 아나구선 그냥 저 나무나 하구 인재 그래찌 머: 나무나 해 끄다다 때구. {안 하고서 그냥 저 나무나 하고 이제 그랬지 뭐 나무나 해 끌어다 때고.}

10201 # 그때 머: 여 나이 머 열 열 어: 여나무살 머거선대 그때 인재 우리 아버지가 일: 모타시구 나무 땅 쪼꿈 으:등 거 가주서루 머 농살 지:니 일:꾼 새경 줄 꺼나 되야 어:. {그때 뭐 여 나이 뭐 열 열 응 여남은 살 먹어서인데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고 남의 땅 조금 빌린 거 가지고 뭐 농사를 지으니 일꾼 사경 줄 것이나 돼, 응.}

10201 # 비짜루 씨러부칭 거 그거뚜 그거뚜 참네가 안 도라와썬췌요. {빋자루 쓸어부친 거 그것도 그것도 참견이 안 돌아왔었어요.}

10201 # 일:꾼 새경얼, {일꾼 사경을,}

10201 #1 엔:날랜 그래췌. {옛날에는 그랬어.}

10201 # 나무 나무 사람 데리구 이:릴 해쓰면 품싸걸 조야 할 꺼 아니여? 어:. {남의 남의 사람 데리고 일을 했으면 품삯을 줘야 할 것 아니야? 응.} 10201 #1 엔:나래넌 됴:목뚜 농꾸 머머 아이구. {옛날에는 뒷목도 나누고 뒷뒷 아이고.}

10201 # 그러개 그르케 해 가주서루 그래서 내가 해폴 모: 땡겨췌.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학교를 못 다녔어.}

10201 @ 하라버지 저:기 형재는 어티개 되신다 그러서찌? {할아버지 저기 형제는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셨지요?}

10201 # 삼형젠데:, {삼형제인데,}

10201 @ 예. {예.}

10201 # 둘:째는 저: 저기 과나꾸 실림동, {둘째는 저 저기 관악구 신림동,}

10201 @ 예:. {예.}

10201 # 예 거: 가서 그 사람두 선생노르태서요. {예, 거기 가서 그 사람도 선생노릇 했어요.}

10201 @ 하라버지가 마지예요? {할아버지가 맞이에요?}

10201 # 야: 내가 마지여, 으:. {예, 내가 맞이야, 응.}

10201 # 저: 상어패교:, {저 상업학교,}

10201 @ 예. {예.}

10201 # 상어패교 선생, {상업학교 선생,} 10201 #1 홍마니하구:, {홍만이하고,}

10201 # 응: 그리여 홍마니하구 동 저거 동기여. {응 그래 홍만이하고 동 저거 동기여.}

10201 # 동기여 그때 저 홍마니 여 살 궁민하교 땡길 찌개 저: 홍파리 아버지: 그이가 선생니미썬년대 그 해 해교애 일리리면 함 번씩 저기털 히야:. {동기여 그때 저 홍만이 여기 살 초등학교 다닐 적에 저 홍팔이 아버지 그이가 선생님이었는데 그 해 학교애 일이 있으면 한 번씩 저기를 해.}

10201 # 구닐 세워:. {군을 세워.}

10201 # 그 마당애 풀두 뽕꾸 머 이렇거 씨래기 하구. {그 마당애 풀도 뽑고 뭐 이런 거 쓰레기 하고.}

10201 # 그런데 이제 그: 큰지배 나무 해다 놓 거 그거 인재 한 다발씩 줌 저다 달라 그라 드라구. {그런데 이제 그 큰집에 나무 해다 놓은 거 그거 이제 한 다발씩 줌 저다 달라고 그러더라고.}

10201 # 그러면 인재 저: 글: 지금 그 형 저: 도라가신 그 형니마구 저: 아줌마: 실랑 헤헤 헤 헤. {그러면 이제 저 그 지금 그 형 저 돌아가신 그 형님하고 저 아줌마 신랑 헤헤헤 헤.}

10201 # 그 으:런하구 두:리 그 홍마니 갈칠 찌개. {그 어른하고 둘이 그 홍만이 가르칠 적에.}

10201 #1 홍마니. {홍만이.}

10201 # 그래:. {그래.}

10201 # 그건 머 그건 아마 물:를 끼여 그르케 향 거. {그건 뭐 그건 아마 모를 거야 그렇게 한 거.}

10201 # 그래 두:리 나무 이러케 한 다발씩 지구 가머넌 저기 너리 노쿠서 저 머 배고플 테니께 머 쪼꿈 달래서 머꾸 가:. {그래 둘이 나무 이렇게 한 다발씩 지고 가면 저기 내려 놓고 저 뭐 배고플 테니가 뭐 조금 다라고 해서 먹고 가.}

10201 # 그래잉께 저: 홍파리 난 어머니 그 양반 참 배 그 양반 큰 고상 하구 도라가시서. {그러니까 저 홍팔이(를) 난 어머니 그 양반 참 배 그 양반 큰 고생하고 돌아가셨어.}

10201 # 여기 요기 산소 요기지 지금. {여기 요기 산소 요기지 지금.}

10201 # 게 줌 머글 켄 주면 고만 머꾸서루 그라구 올라가: 지베. 헤헤 헤헤헤. {그래 줌 먹을 것을 주면 그만 먹고서 그리고 올라가 집에. 헤헤 헤헤헤.}

10201 # 게 아까두 말씀이지만 그거 그 시:째 똥생언 저: 경기도 안사내 거가 사:는대 가:

두 머 초등학교배끼 모: 저: 모: 모: 땡기썩쇼.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그 셋째 동생은 저 경기도 안산에 거기가 사는데 개도 뭐 초등학교밖에 못 저 못 못 다녔어요.}

10201 # 근대 즈: 자식떠리-런 고등학교-년 나오구 그래:서. {그런데 저희 자식들이-은 고등학교년 나오고 그래서.}

10201 # 기냥 근:그니 사라요 거: 가서. {그냥 근근이 살아요 거기 가서.}

10201 @ 그러면 부모님 고향은 어디시구? {그러면 부모님 고향은 어디시고?}

10201 # 상주 모동. {상주 모동.}

10201 @ 상주 모동이구, 상주 모동이구. {상주 모동이고, 상주 모동이고.} 10201 # 아까 어: 아까 말씀드리짜너 경상북도 상주 모동.{아까 어 아까 말씀드렸잖아 경상북도 상주 모동.}

10201 @ 어머니는 이 동네구. {어머니는 이 동네고.}

10201 # 어: 엄마 바로 고 큰 지비구, 고기 기아 큰 기아집. {응, 엄마 바로 고 큰 집이고, 고기 기와 큰 기와집.}

10201 @ 예:. {예.}

10201 @ 그러구서 일루 여기: 이사오셔 거주구. {그러고서 이리로 여기 이사오셔서.}

10201 # 야: 그 그러치. {예, 그 그렇지.} 10201 @ 어:르시니 여기서 사르싱 거지요? {어르신이 여기서 사신 거지요?}

10201 # 어:. {응.}

10201 # 그리여. {그래.}

10201 # 제:우 고짜개서 나서 커 거주구 요짜구루 여푸루 지금 사:년 대 거 함석찌비 그리 제:우 이사 나온다는 게 고리 나와썩쇼. {겨우 고쪽에서 낳아서 커 가지고 요쪽으로 옆으로 지금 사는 데 거기 함석집에 그리 겨우 이사 나온다는 게 고리 나왔어요.}

10201 @ 으: 그러면 부모님께서 하신 일두 농사지싱 거내요? {으 그러면 부모님께서 하신 일도 농사지으신 거내요?}

10201 #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10201 @ 예:. {예.}

10201 # 우리 아버지 농사 기냥 쪼끔 그:들기나 해썩두: 이:털 아 모 아나, 아나시썩. {우리 아버지 농사 그냥 조금 거들기나 했어도 일을 안 못 안 하, 안 하셨어.}

10201 # 기냥, {그냥,}

10201 @ 그러구 그 저기 약빵하싱 거요, 그럼? {그리고 그 저기 약방하신 거예요, 그러면?}

10201 # 어: 그래요. 약빵얼 하시썩. {응 그래요. 약방을 하셨어.}

10201 # 우리 아버지두 해썩두 모:땡기시구:. {우리 아버지도 학교도 못 다니시고.}

10201 # 그 일번 싸람더리 정치애 또 대충 일번 말두 배워야 되::내비요. {그 일본 사람들 정치애 또 대충 일본 말도 배워야 되나 봐요.}

10201 # 이러자통이라고: 이러자통, 그거털 채기 수시 이러캐 두꺼워 이래썩. {일어자통이라고 일어자통, 그것을 책이 쏙이 이렇게 두껍고 이랬어.}

10201 # 이렇 거털 향 권 이러캐 거주구 기시썩년대 이 내가 해썩두 모:까구 하녕께 너 이 거 피 노쿠서 이거 배와라. {이런 것을 한 권 이렇게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 내가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너 이거 펴 놓고서 이것 배워라.}

10201 # 그래민서 보니 머: 거기 머 머 알: 쭈가 이썬?: {그러면서 보니 뭐 거기 뭐 뭐 알 수가 있어?}

10201 # 아이구 그냥 그거 책 그거 뒤: 지금 뒤:썬먼 그거 골통푸민대. {아이 그냥 그거 책 그거 두었 지금 두었으면 그거 골통푸민대.}

10201 # 일변 이래 거시기 하구서 일변늬 썬람 절판나구선 워다 가따 태완년지 다: 읍썬져 서요 그개. {일본 이래 거시기 하구서 일본 늬 사람 결단나고는 어디가 갓다 태웠는지 다 읍어졌어요 그개.}

10201 #1 태우구 머 그래썬. {태우고 뭐 그랬지.}

10201 # 그래서 인재 우리 아변니먼 대충 일변 마릴 하시썬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은 대충 일본 말을 하썬어요.}

10201 # 저개 일변 썬람더리 여 와서 도폴해구 와서 치안할 썬개 인재 이 우 그. {저기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토벌하고 와서 치안할 적에 이제 이 우 그.}

10201 # 지그먼 다미 이썬만 그뎌 답두 읍썬요. {지금은 답이 있지만 그때는 답도 없어요.}

10201 # 전부 산애 가 소까지 해다가서 돌리가민 꼬꾸선 이래 작때기 이래 대구서 떠매구서 이러캐 사라썬. {전부 산애 가서 술가지 해다가 돌려가면서 썬고는 이렇게 작대기 이렇게 대고 떠매고 이렇게 살았지.}

10201 # 그러면 거 울타리 떠넹기구 답 썬라늬 기여. {그러면 그 울타리 떠넹기고 답을 썬으라는 거야.}

10201 # 변소칸두 떠넹기구 답: 저기 화장실두 그래 맨들라카구. {변소도 떠넹기고 답 저기 화장실도 그렇게 만들으라고 하고.}

10201 # 그래 인재 그썬개 인재 우리 외가썬 저썬 그 채:마저내 고희나무가 이렇 개 이 이러캐 썬 거시 두: 개가 이썬썬요. {그래 이제 그썬에 이제 우리 외가썬 저썬 그 채마전에 고희나무가 이런 게 이 이렇게 썬 것이 두 개가 있었어요.}

10201 # 이썬 썬선 찰고요미구 저썬 썬 뚝꼬요미여. {이썬 썬은 찰고옴이고 저썬 썬은 뚝고옴이여.}

10201 # 그썬 인늬 썬. {그썬 있는 썬.}

10201 # 그래서 이개... {그래서 이개...} @ 찰고요마구 뚝꼬요마구 달라요? {찰고옴하고 뚝고옴하고 달라요?}

10201 # 틀리지유. {다르지요.}

10201 @ 어트개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10201 # 어: 찰고요면 이러 이러캐 찰고요면 이러개 어: 찰고요면 이러캐 썬:썬카고: 뚝꼬요믄 뚝구래요. {어 찰고옴은 이렇 이렇게 찰고옴은 이렇게 어 찰고옴은 이렇게 길죽하고 뚝고옴은 동그래요.} #1 마시 다르지: 달라나: 찰고요믄. {맛이 다르지 달잖아 찰고옴은.}

10201 # 어: 뚝구래여. {어 동그래.}

10201 @ 마썬 달라구? {맛도 다르고?}

10201 # 예: 마시 이썬니 찰고요면 찰 머그만 썬썬 뜨러부썬 이베. {예 맛이 있으니까 찰고옴은 찰 먹으면 썬썬 들어볼지 입에.}

10201 # 그래 인재 우리 외할머니가 그 인재 아 인저 우리 아부지하구 일변 썬람덜하구

인재 그 통역쥬 해달라구 한서 우리 아버지두 배끼닌 통역카리가 읍써:. {그래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그 이제 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그 통역쥬 해달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도-밖에는 통역할 이가 없어.}

10201 # 간시니 저: 일변 말 쪼꿈 배우신넌데. {간신히 저 일본 말 조금 배우셨는데.}

10201 # 그래 고요멸 인재 이러캐서 상애다 바치서루 그췌 사랑 아래채 사랑인대 말래다 이래 가따 노쿠닌 일변 일 일변 사람 고래: 머 머냐 그래구서 일변 말루 무르시내 비여. {그래 고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상애다 받쳐서 그췌 사랑 아래채 사랑인데 마루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는 일본 일 일본 사람(이) 고래와 뭐 뭐냐고 그러고서 일본 말로 묻나 봐.}

10201 # 그래이개 고래가와 고가끼데쓰 고가끼. {그러니까 고래가와 고가끼데쓰 고가끼.}

10201 # 가:먼 각끼라 구라자나요? {감은 각끼라 그러잖아요?}

10201 # 어 고가 고가끼데쓰 어허어허 허. {어 고가 고각끼데쓰 어허어허 허.}

10201 # 으: 먼 그 저태서 드리췌두 몰:라췌어:. {으 뭐 그 곁에서 들었어도 몰랐어.}

10201 # 머 마시 조타구 그래내비여, 마시 조타구 그래 얘기하드라구. {뭐 맛이 좋다고 그러나 봐, 맛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1.3 생업활동

1.3.2 밭농사

10307 @ 이 동네 사람드른 주로 머: 하구 사라췌요, 그럼 그때는? {이 동네 사람들은 주로 뭐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10307 # 그때 머 다: 농사지췌유 머:. {그대 뭐 다 농사지었지요 뭐.} 10307 #1 다 농사지췌:. {다 농사지었지.} 10307 @ 무슨 농사. {무슨 농사.}

10307 # 담배 농사두 하구 머. {담배 농사도 하고 뭐.}

10307 #1 담:배 농사, 바치 마느닝께 나매. {담배 농사, 밭이 많으니까 남의.} 10307 # 으: 담배 농사, 담배 농사. {응, 담배 농사, 담배 농사.}

10307 @ 일 일췌 때두? {일 일제 강점기 때도?} 10307 # 그러치 왜정 어 어. {그렇지 왜정(때) 응 응.}

10307 # 담배 농사 인재 왜정 때 해췌 머 일변눔 정치 때. {담배 농사 이제 왜정 때 했지 뭐 일본눔 정치 때.}

10307 # 왜정 때두 하구 또 해:방 되구서두 저기 황생년초 어 일변 췌치 때넌, {왜정 때도 하고 또 해방 되고서도 저기 황색연초 어 일본 정치 때는.} 10307 #1 황 츠매 환상, 환상연초래여췌이:. {황 처음에 황색, 황색연초였지.}

10307 # 아니여. {아니야.} 10307 #1 츠:매 우리 시아주바니. {처음에 우리 시아주버니.} 10307 # 아니여. {아니야.}

10307 #1 이췌개 황상영초 해췌. {이췌에 황색연초 했어.}

10307 # 그리여 췌때 해는데 근 나:중이여 저기: 어:. {그래 그때 했는데 그건 나중이야 저기 어.}

10307 # 저: 츠:매넌 저: 태양애 말리눔 거 그거 해췌췌:. {저 처음에는 저 태양애 말리는 거 그거 했었어.}

10307 #1 태양애 말리찌 우리두: 상구 다: {태양애 말렸지 우리도 사뭇 다:}

10307 # 그쵸 태양애 말리능 거 하다가서 나:중애, {글쵸 탕야애 말리는 거 하다가 나중애,} 10307 #1 그거 하다가 황 저:기 건조실 지어쵸. {그거 하다가 황 저기 건조실 지었어.} 10307 # 그리여 그리여 마저 건조실 해쵸요. {그래 그래 맞아 건조실 했어요.}

10307 @ 연나래는 건조실두 업써명 거내요, 그럼? {옛날에는 건조실도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10307 # 읍:쵸쵸요: {없었지요.}

10307 #1 여기 담:배 농사 하는 사람... {여기 담배 농사 하는 사람...} 10307 # 어: 그 그렇게 저:... {어 그러니까 저...}

10307 # 어:: 일변 일변 정치 그 저 말려내 간-응가 그때: 해:방 되궁가 그 자시 그뎌 모 르건내요. {에 일본 일본 정치 그 저 말년에-인가 그때 해방 되고인가 그 자세히 그때는 모르겠네요.}

10307 # 이래 건조시리라구 이러케 저기 흑짱 흐 흑 흑짱두 아니구 이르게 지동 세우구 서: {이렇게 건조실이라고 이렇게 저기 흑장 흑 흑 흑장도 아니고 이렇게 기둥 세우고.}

10307 #1 건조실 크:개 지어짜나. {건조실 크게 지었잖아.} 10307 # 지동 세우구서 이르게서 열꾸서루 흐크루다 이래 싸발라서 이러케 건조해는데 그 아내 인재 어: {기둥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얹고 흙으로 이렇게 싸 발라서 이렇게 건조하는데 그 안에 이제 어.}

10307 # 담:배 다들라면 이개 달때덜 이러케 이러케 달때 이러케 이러케 해 노쿠서루 양짜개 이러케 해 노쿠서 이 사내끼지루 사내끼다 여꺼 가주 담:배 여꺼 가주서 이러케 죽:죽 이러케 저기 여푸루 이러케 다러 노쿠선 미테서 불 때구 그래쓰니께 해:방 되궁개비여 연탄 나오닝 거 보니께 연탄 때짜나, 나:중앤. {담배 달려면 이게 달대를 이렇게 이렇게 달대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서 양쪽에 이렇게 해 놓고서 이 새끼줄로 새끼에다 엮어 가지고 담배를 엮어 가지고 이렇게 죽죽 이렇게 저기 옆으로 이렇게 달아 놓고서 밑에서 불 때고 그랬으니까 해방 되고인가 바, 연탄 나오는 거 보니까 연탄 땃잖아, 나중에는.} 10307 #1 끄뎌 연탄 안 때서. {그때는 연탄 안 땃어.}

10307 # 츠:매년 나무 때쵸, 처:매년. {처음에는 나무 땃어, 처음에는.} 10307 #1 나무 때서유. 우리는 나무 때서 쵸쵸유. {나무 땃어요. 우리는 나무 때서 쵸쵸요.}

10307 # 츠매 나무 때 쓰다 나중애 연탄 또 나서 연짜너. {처음에 나무 때 쓰다가 나중애 연탄 또 나서 연탄을.} 10307 #1 나중애 연탄 때짜나. {나중애 연탄 땃잖아.} 10307 # 연타닐 때쵸, 쵸쵸. {연탄을 때서, 쵸쵸.}

10307 @ 담:배 하구, 그러면 담배 농사 주로 마니 해쵸요? {담배 하고, 그러면 담배 농사 주로 많이 했어요?}

10307 # 그리치요 머: 바태 담배 농사 하구 인재 머 싱냥 이배 드르가닝 거 인재 스:숙 스스건 조 아니여 조 그 으:. {그렇지요 뭐 밭에 담배 농사 하고 이제 뭐 식량 입에 들어가는 거 이제 서숙 서숙은 조 아니야 조 그 어.}

10307 # 스승 농사 하구 바태 해능 건. {서숙 농사 하고 밭에 하는 건.}

10307 # 스승 농사 버리 농사 스승 농사가 쵸:, {서숙 농사 보리 농사 서숙 농사가 제일,}

10307 #1 스승 농사 하구 밀 하구 스승뻘 마니 머꾸 고 다매넌 또 알래미싸를 나와짜나.
{서숙 농사 하고 밀 하고 좁쌀밥 많이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안남미쌀이 나왔잖아.}

10307 #1 알래미 나라기 나와서 아들래미쌀 알래미 농사 지:서 먹따가 그래구 인재 인재 이 쌀 통사가 나옴 기여. {안남미 나락이 나와서 안남미쌀 안남미 농사 지어서 먹다가 그러고 이제 이제 이 쌀 농사가 나온 거야.}

10307 # 그리여 알라 알람미라능 기 나와서 저기 쌀루. {그래 안남 안남미라는 게 나왔어 저기 쌀로.}

10307 @ 그러면 그때:는 여기 저수지가 이쨌나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 저수지가 있었나요?}

10307 # 그때 읍씨씨유. {그때 없었지요.} 10307 @ 그땐 저수지가 업쨌꾸. {그때는 저수지가 없었고.} 10307 # 어 으:. {응 응.} 10307 #1 즈:수지 읍씨서 그러케 고상 얼 해찌이:. {저수지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 10307 # 그 후에 으: 그 후에 그 후에 즈:수지가 생기찌. {그 후에 어 그 후에 저수지가 생겼지.}

10307 @ 그러면 그땐 버리:는 안 해찌요? {그러면 그때는 보리는 안 했어요?}

10307 # 왜: 버리 해찌요. {왜 보리 했지요.}

10307 # 보리 만:니 해찌요. 보리하구, {보리 많이 했지요. 보리하고,} 10307 #1 즈:수지 마근 지가:. {저수지 막은 지가.}

10307 # 그르케 지금 선생 저: 교수니만태 말씀디렁 기 그리요. {그렇게 지금 선생 저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래요.} 10307 #1 즈:수지 마근 지가, {저수지 막은 지가,}

10307 # 사람 이베 드러가녕 거션, 바태서 나오녕 개 보리 처째 버리가 주로 콩, 판:, 인재 저: 거시기 조: 스숙: 그거여.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은 밭에서 나오는 게 보리 첫째 보리가 주로 콩 팔 이제 저 거시기 조 서숙 그거야.}

10307 # 그 명녕 거 그때넌 고구마두 츠:매넌 안 일번 쟁치애 고구마두 그 귀:해씨요, 츠:맨. {그 먹는 거 그때는 고구마도 처음에는 안 일본 정치애 고구마도 그 귀했어요, 처음에는.}

10307 # 나:중애 인재 고구마가 나워 저: 그 하기 시자캐서 인재 마:너서 그 고구마 가주 사라씨요 하이턴. {나중에 이제 고구마가 나워 저 그 하기 시작해서 이제 많아서 그 고구마 가지고 살았어요 아여튼.}

10307 #1 저:수지 마근 지가 사:십 내가 우리 저: 마흔 시살 머궁 거 나쿠서 안 땡기쓰닝 까, 일:하루 땡기다가 상:구 사:십 너니 너먼내. {저수지 막은 지가 사십 내가 우리 저 마흔 살 먹은 거 낳고서 안 다녔으니까, 일하러 다니다가 사뭇 사십 년이 넘었네.}

10307 # 이 동네:, {이 동네,} 10307 @ 그때 지 지장은 안 시머씨요? {그때 기 기장은 안 심었어요?}

10307 # 지장? {기장?}

10307 @ 예. {예.}

10307 # 아: 지장두 시머씨유. {아 기장도 심었지요.}

10307 # 잔지리 지장. {잔지리 기장.}

10307 @ 잔지리? {잔지리?}

10307 # 어: 잔지리라넹 거 또 지장그치 생깁 기 이썬요. {어 잔지리라는 거 또 기장같이 생긴 게 있어요.}

10307 # 또 자라 더, 지장보다. {또 잘아 더, 기장보다.}

10307 @ 그걸 머라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해요?}

10307 # 잔지리. {잔지리.}

10307 @ 잔지리? {잔지리?}

10307 # 어:. {응.}

10307 # 그건 저: 노내 모 모: 썩구서 가무려 가주 모 모모 몸. {그건 저 눈에 모 못 심어서 가물어 가지고 모 모 못.} 10307 #1 시방 사람더런 몰라: 잔지리라면:. {시방 사람들은 몰라 잔지리라고 하면.}

10307 # 모 모 썩구면 그 잔지리 가따가 그 저 글 대:파, 대:파 한다 구리야. {모 못 심으면 그 잔지리 갖다가 그 저 그걸 대파, 대파한다고 그래.}

10307 # 모 모썩구구 다룽 거 하만 그걸 대:파라 구리야. {모 못 심고 다른 거 하면 그걸 대파라 그래.}

10307 # 대:파하능 기라구. {대파하는 것이라고.}

10307 @ 시기가 느껴서. {시기가 늦어서.}

10307 # 예: 예. 그거 대:파라구. {예 예. 그거 대파라고.}

10307 #1 스:썩 깔:구. {서숙 같고.}

10307 # 여:, 메물두 싱구구 머:. {예, 메밀도 심고 뭐.}

10307 #1 병자녀낸 메물 깔:구. {병자년에는 메밀 심고.}

10307 @ 병자녀? {병자녀?}

10307 # 으:. {응.}

10307 @ 그때는 수해 나썩요? {그대는 수해 났썩요?}

10307 # 아니여 병자녀니면 그 그때. {아니야 병자녀이면 그 그때.} 10307 #1 병자녀내 엔나래, 10307 # 아니야 수해 수 어 팔 팔공년도. {아니야 수해 수 어 파 팔십년도.} 10307 #1 병자녀내 메무럴 머 노내다가 모럴 모썩머 가주. {병자녀에 메밀을 뭐 눈에다가 모를 못 심어 가지고.}

10307 #1 가물라서. {가물어서.}

10307 @ 가무려서. {가물어서.}

10307 # 예: 팔썩년도 그때 큰 수해 나썩요, 여기. {예 팔십년도 그때 큰 수해 났어요, 여기.}

10307 # 으: 그때는 해:방 되구서 거시킨대 그 전 저내 전 애기럴 지금 하는데. {어 그대는 해방 되어서 거시기인데 그 전 전에 전 애기를 지금 하는데.} 10307 #1 저: 드래 가따 한참 ***. {저 들에 갖다 한창 ***.}

10307 @ 네. {예.}

10307 @ 그: 꼬추 농사두 지꾸 그러자나요? {그 고추 농사도 짓고 그러잖아요?}

10307 # 그래: 그때는 썩 저, 지그머서 저: 교수님! 지그면 모럴 이러케 해 가서루 포트에 대서 이러케 하자나? {그래 그대는 고(추) 저, 지금은 저 교수님! 지금은 모를 이렇게 해 가지고 포트에 길러서 이렇게 하잖아?}

10307 @ 예. {예.}

10307 # 그저넹 바티다가서루 이래 소루다 깔:구서루: 꼬추씨 이러케 썩루다 뿌리썩요.

{그전에는 밭에다가 이렇게 소로 갈고서 고추씨 이렇게 씨로 뿌렸어요.}

10307 # 뻘: 빠리구서넌 인재 거름하구서 인재 씨 빠리구서넌 깔키루 이러케 해서 글꾸.
{뿌 뿌리고는 이제 거름하고 이제 씨 뿌리고 갈퀴로 이렇게 해서 굽고.}

10307 # 그래 인재: 거러매라넌 거시 머: 꼬추 가러 노쿠 인재 인분 사:람 저 인분 저 따
루 저 화장 저: 다 그놈 퍼다가 기양 꼬추 간 우애 기양 이러케 퍼 언치구. {그래
이제 거름이라는 것이 뭐 고추 갈아 놓고 이제 인분 사람 저 인분 저 따로 저 화
장(실) 저 다 그놈 퍼다가 그냥 고추 간 위에 그냥 이렇게 퍼 언치고.}

10307 # 그래서 인재 나넌 놈 인재 가주서 인재 소꺼 내버리구서 인저: 씨 수루망콕씩 여
여개 이러케 이러 이러케 해서 두구서루. {그래서 이제 나는 놈을 이제 가지고 이
제 속아 내버리고 이제 씨 수만큼씩 여 여기에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두고.}

10307 # 그래두 그 그 머 꼬추 농사가 잘 되씨요 그때는. 허허허허 허허허. {그래도 그 그
뭐 고추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때는, 허허허허 허허허.}

10307 @ 그거 저기 콩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이씨요? {그거 저기 콩도 종류가 여러 가지
가 있어요?}

10307 # 그른데 지금 그러치 이:저내는 몰라요 종류가: 항 가진지 머 그뎐 그 잘 모르거
씨. {그런데 지금 그렇지 이전에는 몰라요 종류가 한 가지인지 뭐 그때는 그 잘
모르겠어.}

10307 # 지그먼 머: 여러 가지라 그라대요, 지금. {지금은 뭐 여러 가지라 그라대요, 지
금.}

10307 # 개: 종자가 개: 개 개량이 돼:서 그른지. {개(량) 종자가 개 개 개량이 되어서 그
런지.}

10307 @ 콩 콩가치 생긴 거 콩 종류가 콩하구 파타구 비스탕 개 콩두 이꾸, {콩 콩같이
생긴 거 콩 콩 종류가 콩하고 팔하고 비슷한 게 콩도 있고,}

10307 #1 아니 콩이 왕:콩, {아니 콩이 왕콩,} 10307 @ 파뚜 이꾸. {팔도 있고.}

10307 #1 또: 메주: 쭈넌 종콩, 또 질금 명년 질금콩, {또 메주 쭈는 종콩, 또 질금 먹는
질금콩.} 10307 # 그러치 어: 어: 인재. {그렇지 어 어 이제.} 10307 #1 그르치
머. {그렇지 뭐.}

10307 @ 예:. {예.}

10307 #1 속 콩 콩 종류가 그래 시: 가지여. {속 콩 콩 종류가 그래 세 가지야.}

10307 @ 바배 느: 명넌 거뚜 이짜너요? {밥에 넣어 먹는 것도 있잖아요.}

10307 #1 으? 바배 느: 명넌 기 꺼먹콩. {어? 밥에 넣어 먹는 게 검정콩.}

10307 #1 꺼먹콩. {검정콩.} 10307 # 꺼먹콩이여 그거 왕콩. {검정콩이야 그거 왕콩.}

10307 #1 이 이망크망 거. {이 이만큼한 것.}

10307 #1 그 꺼먹콩이 마이 나가자나요오:, 그 비싸구. {그 검정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
비싸고.}

10307 # 으: 그리여. {응, 그래.}

10307 #1 그래:서 시: 가지여. {그래서 세 가지야.}

10307 @ 그개 방:콩이라구두 해요? {그게 밤콩이라고도 해요?}

10307 # 예: 예:. {예 예.} 10307 #1 그거 방:콩이라구두 하구 그래 꺼먹콩. {그거 밤콩이
라고도 하고 그래 검정콩.}

10307 @ 그러구 저:기 저 저 머냐, 송편 송퍼내 너 명넌 거뚜 이짜너요.{그리고 저기 저

저 뭐야 송편 송편에 넣어 먹는 것도 있잖아요.}

10307 # 그건 팔. {그건 팔.}

10307 @ 쿵 거 이마:냉 쿵, 빨:경 거. {큰 거 이만한 쿵 붉은 거.}

10307 #1 그건 저기 감자쿵. {그건 저기 감자쿵.}

10307 #1 감자로 감자 놀: 때 싱구녕 거. {감자 감자 심을 때 심는 거.}

10307 @ 이마:난 거. {이만한 거.}

10307 #1 어: 이망:꾸마개. {어 이만큼하개.}

10307 @ 예. {예.}

10307 #1 대:국쿵이라 그리야 그걸. {대국쿵이라고 그래 그걸.}

10307 @ 예? {예?}

10307 #1 대:국쿵. {대국쿵.}

10307 @ 대:국쿵? {대국쿵.}

10307 #1 으:. {응.}

10307 # 대:구쿵이라구 저: 중국서 나와따구 그기 대:구쿵이라 그리여.{대국쿵이라고 저 중국에서 나왔다고 그게 대국쿵이라 그래.} 10307 #1 대:국쿵이라 구리야. {대국쿵이라고 그래.}

10307 # 중구그로 대:구기라 그라자나? {중국을 대국이라 그러잖아?} 10307 @ 대국쿵: {대국쿵.}

10307 # 대:국쿵. {대국쿵.}

10307 @ 동부두 이꾸. {동부도 있고.}

10307 # 어:. {응.} 10307 #1 동부그나 양대. {동부거나 양대.}

10307 # 또 요 동부 동부 양댄 동부. {또 요 동부 동부 양대는 동부.} 10307 #1 동부라구 두 하구 양대라구두, {동부라고도 하고 양대라고도,} 10307 @ 양대라구, {양대라고,} 10307 #1 녹뚜. {녹두.}

10307 @ 녹뚜. {녹두.}

10307 #1 녹뚜 청푸. {녹두 청포.}

10307 # 녹뚜넌 이:전버텐, {녹두는 이전부터,} 10307 #1 아이 노래두 이짜나,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개 안찌 마라 녹뚜 고치 떠러지면 청푸장사 울구 간다' 그라자나, 하하하하. {아이 노래도 있잖아,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나무에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수 울고 간다' 그러잖아, 하하하하.}

10307 @ 그렇 거뚜 뒤에 하나: 하나 제가 여쭙 볼 거요. 여기 저, 그림두 이썬요. {그런 것도 뒤에 하나 하나 제가 여쭙어 볼 거요, 여기 저 그림도 있어요.}

10307 # 으:. {으.}

10307 @ 그렇 거 흐 헤헤. {그런 거 흐 헤헤.} 10307 #1 그래 물만 다: 명궁 거 바. {그래 물만 다 먹은 거 봐.}

10307 @ 그렇 다: 아시 아시자나요? {그런 거 다 아시 아시잖아요?}

10307 #1 그래:주꺼 그까지꺼 알:만 머: 다: 아능 걸 머머 {그까짓거 그가짓거 알면 뭐 다 아는 걸 뭐뭐.}

10307 @ 아이 이르를 잘 몰라서. {아이 이름을 잘 몰라서.} #1 왜? {왜?}

10307 @ 지금 저:기 방:쿵이라구 그르셔꾸. { 지금 저기 밤쿵일고 그러셨고.}

10307 #1 으:. {응.}

10307 @ 대:국콩이라구 대국콩이라능 기 {대국콩이라고 대국콩이라는 게.} 10307 #1 방:콩. {밤콩.}

10307 # 대:국콩언 지금 요새두 저: 요새두, {대국콩은 지금 요새도 저 요새도,} 10307 #1 대:국콩. {대국콩.}

10307 @ 양:대 머 이런 거. {양대 뭐 이런 거.} 10307 # 요새 나오녕 거. {요새 나오는 거.}

10307 # 대:국콩언. {대국콩은.} @ 그럼 말 요새 안 써요: 몰라요:. {그런 말 요새 안 써요 몰라요.} 10307 #1 종콩. {종콩.}

10307 #1 종콩언 메주 쭈구 장: 답꾸. {종콩은 메주 쓰고 장 담그고.}

10307 @ 누:령 거. {느런 거.} 10307 # 하양 하양 거. {하얀 하얀 거.} 10307 #1 하양 거. {하얀 거.} 10307 @ 하양 거. {하얀 거.}

10307 #1 또 저기:, {또 저기,} 10307 # 논뚝콩. {논뚝콩,} 10307 #1 질곰 나 명녕 거 질곰콩. {지금 놓아 먹는 거 질곰콩.}

10307 # 질곰콩. {질곰콩.}

10307 #1 또 양대:. {또 양대.}

10307 @ 예:. {예.}

10307 # 양:대년 저 율따리에, {양대는 저 율타리에,} 10307 #1 양:대는 동부라구두 하구 양대라구두 하구. {양대는 동부라고도 하고 양대라고도 하고.} 10307 # 율따리에 이렇게 인재 질:개 이러캐 이래 이래 해 나가능 거. {율타리에 이렇게 이제 길게 이렇게 이래 이래 해 나가는 거.} 10307 @ 그래 가꾸 그 저 소태다 느서 찌먹끼 두 하구. {그래 가지고 그 저 술에다 넣어서 찌먹기도 하고.}

10307 # 아: 그르치유. {아 그렇지요.}

10307 #1 그래 콩 종뉴두 만:치. {그래 콩 종류도 많지.}

10307 @ 그런 종콩 이런 거 저 첨 드러 바요. 그러니까 자꾸 여쭙보능 거지요. {그런 종콩 이런 거 처음 들어 봐요. 그러니까 자꾸 여쭙어 보는 거지요.}

10307 # 그래 종콩이라녕 건 종콩이라녕 건 단 향 가지루 마라자만 저: 두부 저: 거시기 메주 메주. {그래 종콩이라는 건 종콩이라는 건 단 한 가지로 말하자면 저 두부 저 거시기 메주 메주.} 10307 @ 메주. {메주.}

10307 #1 메주 쭈구. {메주 쭈구.}

10307 # 으 으 메주 수구 인재 두부두, 메주 쭈구 두부두 해 머꾸 하능 기 그걸 종 향 가지루 종콩이라 구리야. {으 으 메주 쭈구 이제 두부도 메주 쓰고 두부도 해 먹고 하는 게 그걸 종(콩) 한 가지로 종콩이라고 그래.} 10307 @ 장 ㄷ당구는 거지요? {장 담그는 거지요?}

10307 @ 네:. {예.}

10303 @ 그런 농사 질라면 동네애: 동네 사람드리 서로 도와주자너요? {그런 농사지으려면 동네에 동네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잖아요?}

10303 # 어: 그러치요. {어 그렇지요.}

10303 @ 그렇 거 하기 위해서 이르캐 게: 가통 거 해써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게 같은 거 했어요?}

10303 # 게:~? {게?}

10303 @ 예:. {예.}

10303 #1 아:니야. {안 해.}

10303 # 게:라능 거 업써썌요. {게라는 거 없었어요.}

10303 @ 여기 그렇 거 업써썌요? {여기 그런 거 없었어요?}

1.3.1 논농사

10303 # 그냥 어: 인재 우리가 예릴 드려서 농사릴 인재 이러케 진년대: 하루에 모릴 다: 싱구 싱구녕 거뚜 아니구 도라기민서 나릴 바다 가주구서 푸마시: 예릴 드려서 오 너런 우리 해 싱권대 내:런 인재 이 아주먼내 싱구구 또:, {그냥 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이제 이렇게 짓는데 하루에 모를 다 심는 심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날을 받아 가지고 품앗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우리 것을 심는데 내일은 이제 이 아주머니네 심고 또,} 10303 #1 그저넌 그래썌. {그전에는 그랬지.} 10303 # 모:레루 이르케 날 바드면 모:레루 인재 교순님덜 해 싱구구 그러케, {모레로 이렇게 날을 받으면 모레로 이제 교수님들 것 심고 그렇게,} 10303 @ 도라가면서. {돌아가면서.} 10303 # 야 도라가면서 그러케 시머썌요. {예, 돌아가면서 그렇게 심었지요.}

10303 #1 그저넌 그래썌 시방언 기계루 다: 남 돈: 줘서 하기 때매, {그전에는 그랬지 시방은 기계로 다 남 돈을 줘서 하기 때문에,} 10303 # 으: 으: 그래, {으 으 그래,}

10303 # 그때넌 꼬때넌 줄모릴 아내썌요. {그때는 그때는 줄모를 안 했어요.}

10303 # 그때는 왜정 때요. {그때는 왜정 때요.}

10303 @ 예:. {예.}

10303 # 왜정 땀대 줄모릴 할 썌릴 아라? {왜정 때인데 줄모를 할 줄을 알아?}

10303 #1 아:배피 그냥 그냥 막 이래 시머썌 머 이래. {앞앞이 그냥 그냥 막 이렇게 심었지 뭐 이렇게.} 10303 # 어: 한 줄두 몰르구서. {응, 할 줄도 모르고서.}

10303 # 이러케 이러케 이:꾸짜루다 이러케 마춰서 시므라능 기여 그기. {이렇게 이렇게 입구 자로 이렇게 맞춰서 심으라는 거야 그제.}

10303 # 일번 사람더리 *** {일본 사람들이 ***} 10303 @ 그러면 줄모는 그 나중에 나옉 거지요? {그러면 줄모는 그 나중에 나온 거지요?} 10303 #1 그 나:중에... {그 나중에.}

10303 # 아:이 줄모넌 아 일번 싸람더리 시키서 줄모 행 거지요. {아이 줄모는 아 일본 사람들이 시켜서 줄모 한 거지요.} 10303 #1 어: 일번 싸람더리 줄모 시키썌. {어 일본 사람들이 줄모 시켰어.} 10303 # 아:이 줄모, 줄모 아:나따구 이르케 그걸 인재 기냥 막 이르케 싱구녕 건 산:시기여 그기 산:식. {아이 줄모, 줄모 안 했다고 이렇게 그걸 그냥 막 이렇게 심는 건 산식이야 그제 산식.}

10303 # 그 인재 허틀 썌 허틀 썌짜 인재 개비지? {그 이제 흙을 산 자 이제-인가 보지?} 10303 #1 그건 상:시기유. {그건 산식이요.}

10303 @ 예:. {예.}

10303 # 으: 산:시기여 산:시킨대, {어 산식이야 산식인데,}

10303 # 우리 아버지 건 뉘에 농사릴 참 오래 하신년대. [우리 아버지가 그 누에 농사를

참 오래 하셨는데.}

10303 #1 일번 싸람더리 줄모럴 안 시무면 막 와 뽀바써어:. {일본 사람들이 줄모를 안 심 으면 막 와서 뽑았어.}

10303 @ 으:. {아.}

10303 #1 그래서 줄모럴 해야 디야. {그래서 줄모를 해야 돼.} 10303 # 이 봄내럴 봄내 발싸 다: 인재 엉가니 다: 거시키 꺼건내. {이 봄내를 봄내 벌써 다 이제 엔간히 다 거시기 꼬졌네.}

10303 @ 그래서 나옹 개 그 모쭈리지요. {그래서 나온 게 못줄이지요?}

10303 # 예: 예:. {예 예.} 10303 #1 모쭈리 이래써유. {못줄이 이랬어요.}

10303 # 산:시그루 시머따구 산:시그루 시머따무 일번 싸람더리 저 면:소에서루 와서루 막 노내 드러가서 막 홀 막 이러카구 막 홀 뽀바써. {산식으로 심었다고 산식으로 심 었다고 일본 사람들이 저 면사무소에 와서 막 눈에 들어가서 막 홀 막 이렇게 하 고 막 홀 뽑았어.}

10303 # 그래 고 여패 게:시년 내 나한테 큰외숙 띄시년 으:르니 참 배써미 조아 그 으르 니 머:. {그래 고 옆에 게시는 내 나한테 큰외숙 되시는 어른이 참 뱃심이 좋아 그 어른이 뭐.}

10303 # 아이 소:시랑얼 가주구 나가서루 가서 업떠리서 모 뽑넌 누멀 똥때길 내매 훈대후 리땀 마리며. {아이 쇠스랑을 가지고 나가서 업드려서 모 뽑는 놈을 등을 냅다 후 려때렸단 말이야.}

10303 # 어 이놈 새끼덜 배고라 가민서 저기 모 싱귀 농거럴 으: 홀 뽑넌 놈덜 이따구 마 리며. {어 이놈 새기들 배끓아 가면서 저기 모 심어 놓은 것을 으 홀 뽑는 놈들 있다고 말이야.}

10303 # 아: 그래니 이 사람드리 쪼끼나:서 인재 너리간는데 아:이우 그때넌 머 일번 싸람 더리 머 새카마케 올라와써. 허허 허허 허허허 허허. {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쫓 겨나서 이제 내려갔는데 아이고 그대는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새까맣게 올라왔어. 허허 허허 허허허 허허.}

10303 # 그 우리 외삼촌 으:르니 그런 읍써두 캄: 기푸미 그래 조아써요 그짜개. {그 우리 외삼촌 어른이 글은 없어도 참 기품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쪽에.}

10303 # 어: 지금 손자가 지금 거기 저: 이:평 아빠뜨애 살민서 팔리럴 하구 이써요 지금 손자가. {어 지금 손자가 지금 거기 저 이평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손자가.}

10303 @ 그래 가주구 그: 그래쓰면 그 뒤에 또 일본 놈덜한테 ***짜나요. {그래 가지고 그 그랬으면 그 뒤에 또 일본 놈들한테 **잖아요?} 10303 # 아:이 아:이 머 별 거시키 안 당해써요 그래두. 헤헤헤 헤. {아이 아이 뭐 별 거시기 안 당했어요 그 래도. 헤헤헤 헤.}

10303 @ 머꾸 사:능 걸 그래쓰니까. {먹고 사는 걸 그랬으니까.}

10303 # 그래서 머 별 거시기 안 당하구 그래서 인재 나중애 차차루 줄모럴 인재 아라 가 주구서루 하니개 그기 말뜨라구. {그래서 뭐 별 거시기 안 당하고 그래서 이제 나 중애 차차로 줄모를 이제 알아 가지고 하니까 그게 맞더라고.}

10303 # 여기 하사 여기 하나 여기 인재 줄 대는 사라미 꼬 꼬설 이라구 줄 부짜구 인넌 사라미 냉기자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이제 줄 대는 사람이 쫓고 이렇게

하고 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넘기잖아.}

10303 # 다: 시무면 냉기구 구라넨대 요기 인재 싱구넨 사라미 요기 하나 요기 하나 요 카 거리 거리 요래 마춰서 이꺼딩. {다 심으면 넘기고 그러는데 요기 이제 심으면 사람이 요기 하나 요기 하나 요 카 거리 거리 요렇게 맞춰서 있거든.}

10303 @ 예:. {예.}

10303 # 요기 하구 요기 하구 서루가 이러캐 이러캐 이러캐 마저야지 여기서 이러캐 이 이년 이짜구루 가구 저짜근 또 저짜구루 가구 하면 안 대요. {요기하고 요기하고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지 여기서 이렇게 이 이는 이쪽으로 가고 저 쪽은 또 저쪽으로 가고 하면 안 대요.}

10303 # 둘:씩 둘:씩 이러캐 소닐 마자야 디야. {둘씩 둘씩 이렇게 손이 맞아야 돼.}

10303 @ 요로케 와따가 요러캐 가따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10303 # 그러치 만날 와따 가따 이러캐 이러캐 이러캐 이르키 와따 가따 해야 디야. {그 령지 만날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10303 # 그래 함목 떠러지구 일조 이러캐 고개털 치들면 홀뎡 너머가 '예: 냉김민다' 하구 떠 냉기구 하하 허. {그래 한꺼번에 떨어지고 일조 이렇게 고개를 쳐들면 홀뎡 넘 어가고 '예 넘깁니다'하고 떠 넘기고 하하 허.}

10303 @ 그거 이개 줄 하는 사라물 머라 그래요? {그거 이렇게 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요?}

10303 # '냉기오:' 그라지. {넘겨요 그러지.}

10303 @ 그 그 쏜는 사라물 머라구 이르믄 따루 업썬요? {그 그 (못줄)쏜는 사람을 뭐라고 이름은 따로 없어요?}

10303 # 따로 업썬요 그거넨. {따로 없어요 그건.}

10303 #1 줄 대넨 사라미라 그래:. {줄 대는 사람이라 그래.}

10303 # 기양 저, {그냥 저.}

10303 #1 노부들라면 줄 대넨 사람 둘: 으더야 한다구 그래. {놉 얻으려면 줄 대는 사람 둘 얻어야 한다고 그래.}

10303 # 줄 대넨 어: 으: ... {줄대는 어 으...}

10303 @ 줄 대는 사람? {줄 대는 사람?}

10303 # 거기넨 모 모썰구너 이두 덴 고 이고 칸 인재 봐:서 고, 그뚜 잘 하라면 요기 장 일두 이썬. {거기는 모 못 심는 이도 덴 고 있고 이제 봐서 고, 그것도 잘 하려면 요기 장 일도 있어.}

10303 # 고 누내다 가따 대야 되넨대 기냥 기냥 이러캐 느닝 걸 그걸 편조시기라 구라지 기양. {고 눈에다 갖다 대야 되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넣는 걸 그걸 편조식이라고 그러지 그냥.}

10303 # 으 요기 누나 눈 누니 읍썬 기냥 예 저 어리매서 띠넨 거넨 편조시래요. {으 요기 눈 눈 눈이 없이 그냥 예 저 어림해서 떼는 것은 편조식이라 그래요.}

10303 # 편조. {편조.}

10303 @ 편조식. {편조식.}

10303 # 어: 편조. {응 편조.}

10303 # 기양 이러캐 이러캐 향 가지로만 줄 마춘다능 거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로만 줄을 맞춘다는 거지.}

10303 @ 여푸루만 마추능 거? {옆으로만 맞추는 거?}

10303 # 그러치 이러 이러캐 떠 이러캐 다: 마짜:. {그렇지 이렇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맞지.}

10303 # 온 여개 저만 눈넨 눈 대만 대만. {온 여기 저만 눈 있는 눈 있는 데만 대면.}

10303 @ 그 그말두 첨: 드리 바요 편조라는 말두. {그 그말도 처음 들어봐요 편조라는 말도.} 10303 # 그래 그걸 편 기냥 편, {그래 그걸 편(조) 그냥 편(조),} 10303 @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렇 거 해야 되능 거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요.}

10303 # 이거 이 이대루만 시무면 편조여, 편조구. {이거 이 이대로만 심으면 편조야, 편조구.} 10303 #1 이 이런 양:바년 연:나래 이러케 **** {이 이런 양반은 옛날에 이렇게 ****}

10303 # 편조고 요고하구 요로케 싹싹 이래 근:내 가서루 요로케 마즈면 증:조구:. {편조고 요거하고 요렇게 싹싹 이렇게 건너가서 요렇게 맞으면 정조고.}

10303 @ 예:. {예.}

10303 # 그래서 기계털 그 사람더리 인재 일변 싹사람더리 기계털 맨들 찌개 머냐하며던 이 줄 단대루 인재 기계가 이씨 요마나개. {그래서 기계를 그 사람들이 잇 일본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 적에 뭐냐하면 이 줄 단대로 이제 기계가 있어 요만하게.}

10303 # 그라면 서서 이러케 죽죽 미는데 그거뚜 바리 두: 개요. {그러면 서서 이렇게 죽죽 미는데 그것도 발이 두 개요.}

10303 # 여기 아패 인년 발 뒤부나 뒤에 인년 건 넓짜카구: 아패 이년 건 여서 빠쪼카고. {여기 앞에 있는 발 뒤보다 뒤에 있는 건 넓적하고 앞에 있는 건 요기서 뽀죽하고.}

10303 # 이래서 글루 민:는데 이러케두 밀:구 이러케두 밀:구 이러케두 밀구 하면 답 다: 그기 푸리 재편다구. {이래사 그걸로 미는데 이렇게도 밀고 이렇게도 밀고 이렇게도 밀고 하면 다 다 그게 풀이 잡힌다고.}

10303 @ 아 그거 저:기 저 풀 뽀불 때 하능 거요? {아 그거 저기 저 풀 뽀을 때 하는 거요?} 10303 # 어: 아: 풀. {어 아 풀.}

10303 # 풀 풀 인재 제:거할 찌개. {풀 풀 이제 제거할 적에.} 10303 @ 그거 이르미 머요 그거? {그거 이름이 뭐요 그거?} 10303 # 제초기. {제초기.}

10303 @ 그거 제초기라 그래요 그걸? {그걸 제초기라 그래요 그걸?} 10303 # 야: 그걸 제초기여. {예, 그게 제초기야.}

10303 #1 그거뚜 일변 싹사람 때 나와쪼유? {그것도 일본 사람 때 나왔지요?}

10303 @ 예:. {예.} 10303 # 거 일변 일변 쟁치 때 나와쪼. {그 일본 일본 정치 때 나왔어.}

10303 # 지금 그거 간수하니 읍쪼유 지금 머 다:. {지금 그거 간수한 이 없어요 지금 뭐다.} 10303 #1 시방은 읍쪼. {시방은 없어.}

10303 # 다: 고물장사 다: 씨러주구 읍쪼 그거. {다 고물장수 다 쓰러주고 없어 그거.}

10303 # 그라면 이래 이러케 죽:쪼기꾸 인재 저 막때기 인재 대나 저 나무때기루 하구 이 양쪼개 손재비 들구 이력케 이러케 미닌대. {그러면 이래 이렇게 죽죽 있고 이제 저 막대기 이제 대나(무) 저 나무때기로 하고 이 양쪼개 손잡이 들고 이렇게 이렇게 미는데.}

10303 # 그 조종 잘 저 거시기 잘모타면 꺾: 시미 드려요, 어: 그기. {그 조종 잘 저 거시기 잘못하면 꺾 힘이 들어요, 어 그제.}

10303 # 뒤:럴 이래 된데 이 뒤:럴 나추면 시미 들구 이러케 치:들리며던 시미 들: 들구 그 룡 거요. 허허허 허허. {뒤를 이렇게 되었는데 이 뒤를 낮추면 힘이 들고 이렇게

쳐들리면 힘이 덜 들고 그런 거요. 허허허 허허.}

10303 @ 저두 그거 바:썩요. {저도 그거 봤어요.}

10303 # 야:. {예.} 10303 @ 쪼만할 때. {조그만할 때.} 10303 # 그래 보시썩 끼유. {그
래 보셨을 거요.}

1.1. 조사마을의 환경과 배경

10103 @ 동네 고사:두 지내썩요? {동네 고사도 지냈어요?}

10103 # 여기? {여기?}

10103 @ 예. {예.}

10103 # 아: 고사 지내썩유. {아 고사 지냈지요.}

10103 @ 고사 어트개 지내요? {고사 어떻게 지내요?}

10103 # 저: 사내 가서 산-고사 인재 동네 동: 글 동: 동:지사라 구리야 동:지사. {저 산에
가서 산고사 이제 동네 동 그걸 동 동제사라 그래 동제사.}

10103 @ 예. {예.}

10103 # 저:: 사내 저기 올라가 가주서루. {저 산에 저기 올라가 가지고.}

10103 @ 그거 처 처음부터 준비하능 거에서부터 지내능 거까지 함 번. {그거 처 처음부터
준비하는 거에서부터 지내는 것까지 한 번.}

10103 #1 한 일주일 기도해 가주구 동네 추림 거더 가주구 기냥. {한 일주일 기도해 가지
고 동네 추림 걷어 가지고 그냥.}

10103 # 거뚜 인재 저: 그러닝개 정월 보름날 찌녀개 열, 으: 열라흔날 찌여깁가? {그것도
이제 저 그러니가 정월 보름날 저녁에 열, 예 열나흔날 저녁인가?} 10103 #1 열
라흔날 찌여개. {열나흔날 저녁에.}

10103 # 어 열라흔날 음녁 열나흔날 정월, 그날 지녀개. {어 열나흔날 음력 열나흔날 정월,
그날 저녁에.}

10103 # 열나흔나리면 다리 오래: 이씨야 떠자녀요? {열나흔날이면 달이 오래 있어야 뜨잖
아요?}

10103 # 그리구 보름파리 보름달런 오래: 되가주 똥고라커덩. {그리고 보름달이 보름달은
오래 되어 가지고 동그랑거든.}

10103 # 그러면 저: 어:: 지영 머꼬 한 지그무루 말하머넌 아홉 씨썩밈머넌. {그러면 저 예
저녁 먹고 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홉 시썩이면.}

10103 # 그 인재 증히야 고양주릴 증히야 동네서. {그 이제 정해 공양주를 정해 동네서.}

10103 # 그 인저 생기복떠걸 마취 가주구서. {그 이제 생기복덕을 맞춰 가지고.}

10103 @ 생기복떠기요? {생기복덕이요?}

10103 # 생기복때기라넌 건 인재 그 나이 그 사람 나이 그 제사 제관. {생기복덕이라는 건
이제 그 나이 그 사람 나이 그 제사 제관.}

10103 @ 예. {예.}

10103 # 제사지내넌 제:관 그거시 나이를 맡 그 인재 마추넌 걸 그걸 생기복떠기라 구리
야. {제사지내는 제관 그 나이를 맞(추는) 그 이제 맞추는 것을 그걸 생기복덕이
라고 그래.}

10103 # 거: 생기복떠걸 이 글자가 마진은 사래미래야 그기 저: 제관 노르설 할 쭈가 이씨

요. {그 생기복덕을 이 글자가 맞는 사람이라야 그게 저 제관 노릇을 할 수 가 있어요.}

10103 # 그라구 인재 저: 거시기 고 거 고양주 고 고양주 저:. {그리고 이제 저 거시기 고 거 공양주 고 공양주 저.} 10103 #1 고양주넌 애기: 이씨두 안 대구 머: 상채두 안 대구 머: 여간: ****. {고양주는 애기 있어도 안 되고 뭐 상채도 안 되고 뭐 여간 ****}

10103 # 어 고양주: 하구 인재 어 두:리 두리 두:털 이러개 증:해서 두:리 가개 매련되넌 대. {어 공양주 하고 이제 어 둘이 둘을 둘을 이렇게 정해서 둘이 가게 마련되는 데.}

10103 @ 고향주? {고향주?}

10103 # 고양주. {고양중.} 10103 #1 고양주래. {공양주라고 해.}

10103 # 어 고양 고양주라 그래써 고양주라구. {어 공양 공야주라고 그랬어 공양주라고.} 10103 #1 천마내 가주 가서 지내넌 사람얼 고양주라... {**에 가지고 가서 지내는 사람을 고양아주라 ...}

10103 # 그럼 이제 그: 지녀개 인재 바매 가서 인재 거가 인재 불불 나무털 해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저녁에 이제 밤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불 피울 나무를 해 놓아야 돼요.}

10103 # 으 나무털 인재 해 노는대 인재 동:내서 인재 이래 메치 인재 거뚜 줌 깨끄타구 인재: 그런 사람덜 증해가서 나:시구 다서시구 이래 증해서 가서 난 나물 해: 노쿠 너리와:. {어 나무를 이제 놓는데 이제 동네서 이제 이렇게 몇이 이제 그것도 좀 깨끗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정해 가지고 넷이고 다섯이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 나(무) 나무를 해 놓고 내려와.}

10103 # 인재 너리오면 인재 그날 그 나무 해 가주 온 사람덜 거: 와서루 이 고양주찌배 와서 인재 저녁 해서 다: 메기구. {이제 내려오면 이제 그날 그 나무 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 공양주집에 와서 이제 저녁 해서 다 먹이고.}

10103 # 그래서 인재 배미 거시기 한참 되머넌 올라갈 쟈 증:얼 때리어 증. {그래서 이제 밤이 거시기 한창 되면 올라갈 때 징을 쳐 징.}

10103 # 땅:: 땅 이러개 시: 버널 때리면 그라면 동네가 조용::해 참 잡소리 우꾸 징소리 드꾸 아 잡담 자봄 저: 잡소리 읍씨 한 뵈미 되자넌 그 뜨시여. {땅 당 이렇게 세 번을 치면 그러면 동네가 조용해 참 잡소리가 없고 징소리 듣고 아 잡담 잡음 저 잡소리 없이 한 몸이 되자는 그 뜻이야.}

10103 # 그래서 인재 메 뻔 이러개 치구선 그래 올라가지 거길.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치고서 그렇게 올라가지 거기를.}

10103 # 그래 올라가면 인재 거 샤:매 가서루 좀 쌀 쌀 씨꾸 깨끄타개 씨꾸 인재 거기 인재 저:.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 샘에 가서 좀 쌀 쌀 씻고 깨끗하게 씻고 이제 거기 이제 저.}

10103 # 저: 탕:바나라구 지금 저: 거시기 흐:쿠루 맨등 거 요고만 해요 지금. {저 탕반이라고 지금 저 거시기 흙으로 만든 거 요고만 해요 지금.}

10103 # 요고만향 거 고거 사서 인재 그거 하구 또 정조수 인재 정한수 이 저: 참 물 깨끄타개 씨구 인재 물 거 소태 불 꺼 물 하구 또 또 사바래 이러개 물 하나 떠 놀 깨 이씨요, 그러시. {요거만한 거 고거 사서 이제 그거 하고 또 정한수 이제 정한수

이제 찬 물 깨끗하게 씻고 이제 물 그 솥에 부을 것 물하고 또 도 사발에 이렇게 물 하나 떠 놓을 게 있어요, 그릇이.}

10103 # 그람 거 물 항 그럭 고기 떠 노쿠. {그러면 그 물 한 그릇 거기 떠 놓고.}

10103 # 줌:비는 고거여 제사지내넌 줌:비넌. {준비는 고거야 제사지내는 준비는.}

10103 #1 해: 바씨유? {해 봤어요?}

10103 # 어? {응?}

10103 #1 고양주 해: 바씨유? {공양주 해 봤어요?}

10103 # 해: 바씨요. {해 봤지요.}

10103 # 아 내가 추판 추판 해 바씨 추판. {아 내가 축관 축관 해 봤어 축관.}

10103 #1 추판 해 바씨유? {축관 해 봤어요?} 10103 # 어:. {응.}

10103 # 추판 해: 바씨요. {축관 해 봤어요.}

10103 # 그래서 인재 저버미라넌 거선 거 화:기 화:기라넌 건 저:저 그 이 저 당년초 왜 그거 꺼 꺼꺼서 이러케 바배 이러:캐. {그래서 이제 젓가락이라는 것은 그 화기 화기라는 건 저저 그 이 저 당년초 왜 그거 꺾 꺾어서 이렇게 밥에 이렇게.}

10103 @ 딸: 꺼꺼요? {뭘 꺾어요?}

10103 # 당년초라고 저: 거시기 저 풀. {당년초라고 저 거시기 저 풀.}

10103 @ 당년초? {당년초?}

10103 # 어: 당년 당년내 나 가주 중넌 거시 당년초. {어 당년 당년에 나가지고 죽는 것이 당년초.}

10103 @ 예: 예. {예 예.}

10103 # 그걸 당년초라 구리야. {그걸 당년초라 그래.}

10103 @ 그럼 주로 어떤 풀릴 가주 해씨요? {그러면 주로 어떤 풀을 가지고 했어요?}

10103 # 거 인재 왕:새개기라구 이러케 쿵 기 맨 이래 이씨유, 이렇 개, 깨끄탕 개. {거 이제 왕새갱이라고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깨끗한 게.}

10103 @ 왕...? {왕...?}

10103 # 예, 왕:새개이. {예, 왕새갱이.}

10103 @ 왕새개이. {왕새갱이.}

10103 # 예: 왕새개이. {예, 왕새갱이.}

10103 # 그러면 인재 이개 바비면 인재 바배 인재 요로케 가서 가따 걸:치 노쿠 요 물 로 쿠 요 초빨 키 노쿠 으 요기 요기 초 안. {그러면 이제 이개 밥이면 이제 밥에 이제 요렇게 가서 갖다 걸쳐 놓고 요기 물 놓고 요기 촛불 켜 놓고 으 요기 요기 초 안.}

10103 # 초빨 아 요기 요기 조고 초빨 키 노쿠서. {촛불 아 요기 요기 요기 촛불 켜 놓고 서.}

10103 # 그럼 저 여기 머 위패 이닝 거뚜 아니구 으: 기냥 이러케 바우 미치면 바우 미태: 인저 나무면 나무 이러케 이러케. {그러면 저 여기 뭐 위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이렇게 바위 밑이면 바위 밑에 이제 나무면 나무 이렇게 이렇게.} 10103 @ 밤만 해요? {밥만 해요?}

10103 # 어? {어?}

10103 @ 밤만 해요? {밥만 해요?}

10103 # 아니여 사내 가서 고런 대만 기양 증:해 가주서 고기서 그냥 지니야. {아니야 산

에 가서 고런 데만 그냥 정해 가지고 고기서 그냥 지내.}

10103 @ 아이 근대 아니 밥. {아니 그런데 아니 밥.}

10103 # 아: 바깥그럭 처 물: 항 그러시여. 야:. {아 밥 한 그릇 처 물 한 그릇이야. 예.}

10103 @ 따릉 거 아나구? {다른 거 안 하고?}

10103 # 아: 다릉 거 아나지유. {아 다른 거 안 하지요.} 10103 @ 떡 까툰 거 아나구?
 {떡같은 거 안 하고?} 10103 # 아나지유 사내 가녕 건 안 히야 다. {안 하지요,
 산에 가는 건 안 해 다.}

10103 # 단 고거만 히야. {단 고거만 해.}

10103 # 그러면 인재 여기 저기 저: 거시기 고양주가 여기 어: 인저 업띠리서루 인재 거시
 캐서 이러캐 다: 해 노쿠선. {그러면 이제 여기 저기 저 거시기 공양주가 여기 어
 이제 옆드려서 이제 거시기 해서 이렇게 다 해 놓고는.}

10103 # 여기서 인재 축 충녕느니가 자꾸 추글 일거. {여기서 이제 축 축 읽는 이가 자꾸
 축을 읽어.}

10103 # 인재 동:내 인재 전:부 호호이 죄: 이러멀 다 다: 저거 거주구서. {이제 동네 이제
 전부 호호마다 죄다 이름을 다 다 적어 가지고.}

10103 # 으:, 그거 인재 그래 일:그머넌 자꾸 인재 여기 인너넌 절만 히야. {응, 그거 이제
 그렇게 읽으면 자꾸 이제 여기 있는 이는 절만 해.}

10103 # 어 초뿔 여기 땡겨서 인재 환:하개 이러캐 키 노쿠선. {춧불 여기 땡겨서 이제 환
 하개 이렇게 켜 놓고는.}

10103 # 그래서 동네 인재 다: 그러캐서 호명해서 일꾸넌 소:지럴 인재 한 인재 아바피
 다: 이르캐 하먼 더디자나 그라니캐루 한 시: 시: 사람 니: 사람 이러캐 어울러서
 루 이르캐 저버 거주선 여 초뿌래 땡기서 이래: 하먼 확 타올라 가구 확 타올라
 가구 으 이러키 이러키 해서. {그래서 동네 이제 다 그렇게 해서 호명해서 읽고는
 소지를 이제 한 이제 앞앞이 다 이렇게 하먼 더디잖아 그러니까 한 세,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어울러서 이렇게 접어 가지고 여기 춧불에 땡겨서 이렇게 하먼 확
 타올라 가고 확 타올라 가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103 # 고 인재 다: 끝나머넌 고만 저기 너리와: 여가. {고게 이제 다 끝나면 고만 저기
 내려와 여기로.}

10103 # 메뺨 메뺨 거주구 너리와. {멧밥 멧밥 가지고 내려와.}

10103 # 초뿔만 키 나두구 다: 너리오능 기여 인재. {춧불만 켜 놔두고 다 내려오는 거야
 이제.}

10103 @ 밥뚜 거주구? {밥도 가지고?}

10103 # 아: 바쁜 거주 와요. 바쁜 인재 고양애. {아 밥은 가지고 와요 . 밥은 이제 고양
 애.}

10103 @ 그걸 메빠비라 그래요? {그걸 멧밥이라 그래요?} 10103 # 야:, 글. {예, 그걸.}

10103 # 그거 인재 그르캐서 거주 나오넌대.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10103 # 그러면 인재 그 불까애 와서루 인재 멍너이, 밤 멍너이넌 머꾸 그 밥:. {그러면 이
 제 그 불 가에 와서 이제 먹는 이, 밥 먹는 이는 먹고 그 밥을.}

10103 # 그래서 이: 빈 그러선 이:저내 여기 여기 저짱 모텡이 거 사내 가따가 이래 간수
 하는 대가 이썬서요, 나 바우 미태:. {그래서 이 빈 그릇은 이전에 여기 여기 저쪽
 모퉁이 거기 산에 갖다 이렇게 간수하는 데가 있었어요, 나(무) 바위 밑에.}

10103 # 그래 머: 애더리 그런지 다: 깨 내버리구 읍:써 지그먼 다 읍는데. {그래 뭐 애들이 그런지 다 깨 내버리고 없어 지금은 다 없는데.}

10103 # 그러케 해 너리 완넌대 하:두 머러:, 저가:. {그렇게 해 내려 왔는데 너무 멀어 저기가.} 10103 #1 엔:나래넌 그르케 저기했넌데. {옛날에는 그렇게 저기 했는데.}

10103 # 으: 거 제사지내넌 데가 저: 고개 날맹인데. {어 그 제사지내는 데가 저 고개 날맹인데.}

10103 # 우 우 내 우리 아버님두 그저내 저: 그 동:내서 하라능 거 모:탄다구 나 모:티야 으:. {우 우 내 우리 아버님도 그전에 저 그 동네서 하라는 거 못한다고 못해 응.}

10103 # 함 번 증:해지면 해야지 안 하군 안 디야. {한 번 정해지면 해야지 안 하고는 안 돼.}

10103 # 그래서 거기 거 하느니가 여기 여 한쪽 소내 물 드러찌 쌀 써서서 이러케 이래 가주구 여 양쪽 쏘내 들구 거길 올라가야 된다구. 허허허 허. {그래서 거기 거 하는 이가 여기 여기 한쪽 손에 물 들었지 쌀 씻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여기 양쪽 손에 들고 거기를 올라가야 된다고. 허허허 허.}

10103 # 그러케: 그러케 저기 해 정성시러케 해여 된다는 기여. {그렇게 그렇게 저기 해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야.}

10103 # 그런대 인재 차차:루 자꾸 세워리 배끼닝께 좀 멀:다구 또 가까이 이 미태 너리와서 그 중터개 새, 새미 인넌데. {그런데 이제 차차로 자꾸 세월이 바뀌니까 좀 멀다고 또 가까이 이 밑에 내려와서 그 중턱에 샘, 샘이 있는데.}

10103 # 거가 물 떠 가주 올라가던 새미여, 거가. {거기가 물 떠 가지고 올라가던 샘이야, 거기가.}

10103 # 인저 고 삼: 저트루 또 온다구:. {이제 고 샘 곁으로 또 온다고.}

10103 # 거 저짜구루 저짜개 저짜개 저 도랑 근:내 너덜 까문태 거가서 하다가 또 거기두 멀:다구 해서루 이짜개 삼: 여패 또 또 증헨내. {거 저쪽으로 저쪽에 저쪽에 저 도랑 건너 너덜경 가운데 거기 가서 하다가 또 거기도 말다고 해서 이쪽에 샘 옆에 또 또 정했네.}

10103 # 삼 여패 증응 거 아시자나. {샘 옆에 정한 거 아시잖아.}

10103 # 삼: 여패루, 무수매기 삼: 여패. {샘 옆으로, 무수막이 샘 옆에.}

10103 # 그리 와따가서 또 인재 여기 여 보똥 여패 여 와서 지니야 인재, 지그먼. {그리 왔다가 또 이제 여기 여 붓둑 옆에 여기 와서 지내 이제, 지금은.} 10103 #1 장 너내 거기서 지내 가주구. {작년에 거기서 지내 가지고.} 10103 # 어 여기서 지내요. {어 여기서 지내요.}

10103 @ 예:. {예.}

10103 @ 아까 무슨 너 너 너택? {아까 무슨 너 너 너덜?}

10103 # 으? {응?}

10103 @ 너더개서 지내따구요? {너덜에서 지냈다고요?} 10103 #1 너덜. {너덜.}

10103 @ 너더리 머요? {너덜이 뭐요?} 10103 #1 저 사내:: 왜 돌너덜... {저 산에 왜 돌너덜...} 10103 # 어 너덜. {어 너덜.} 10103 @ 너덜. {너덜.} 10103 # 여: 솔 돌 썰재기 이러케:, {어 솔 돌 사이 이렇게...}

10103 @ 도리 마니 이러케 ...{돌이 많이 이렇게...}

10103 # 그러치 마니 마니 인넌덜 너더리라 구라지. {그렇지 많이 많이 있는 데를 너덜이

라고 그러지.} 10103 @ 수부:카개 이러:캐 널:개 싸여 인능 거? {수북하게 이렇게 넓게 쌓여 있는 거?}

10103 # 예:. 그 넓, {예, 그 넓게...} 10103 #1 저 어래서 쳐다보만 저::기 노푼 사니 이 써유. {저 아래에서 쳐다보면 저기 높은 산이 있어요.}

10103 # 너리라 구라지 그걸. {너털이라고 그러지 그걸.} 10103 @ 아 그걸 너더리라 그 래요? {아, 그걸 너털이라고 그래요?} 10103 # 예 예. {예 예.}

10103 @ 예:. {예.}

10103 # 아 그래 여기서 저: 나보다 더 여 이짜개 백두 살 잡쑈 양반 그 으:런하구 또 하나 저: 건내 저건 그르르:: 양반두 구십 구십 한 구십 너머쓰, 방치꼴 양반 나: 그 래 산지당얼 자꾸 일루 외 너리 왕:기라구 해서루 동네서 모두 네 멀:다구 네리 웅기자구 해서루 질 따꼴 무러배 시:시 가써. {아 그래 여기서 저 나보다 더 여 이쪽에 백두 살 잡수신 양반 그 어른하고 또 하나 저 건너 저건(너) 그 양반도 구 십 구십 한 구십 넘었어, 방치꼴 양반 나 그렇게 산제당을 자꾸 이리 읊 내려 읊 기라고 해서 동네에서 모두 내(려) 멀다고 내려 읊기자고 해서 길 님을 무렵에 셋 이 갔어.}

10103 # 시시 간는데 모개우래 저: 오삼추년: 이짜 장똥날 쪼그루 올라가시구 이러캐 오근 대, 방추꼴 양바넌 질루다가 해서 인재 그리 올라가구, 나넌 그짜 근:내루 해서 인 저 그 저 둘: 복판에 거기 가니께. {셋이 갔는데 모개울에 저 외삼촌은 이쪽 장똥 날 쪽으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옥은테로, 방추꼴 양반은 길로 해서 이제 그리 올라 가고, 나는 그쪽 건너로 해서 이제 그 저 둘 복판에 거기 가니께.}

10103 # 아이 이런 암세기 하나 이러캐 선년대, 요로캐 똑 평풍 시궁: 거그치 요러캐 생긴 도리 이써. {아이 이런 암석이 하나 이렇게 섰는데, 요렇게 꼭 병풍 세운 것같이 요렇게 생긴 돌이 있어.}

10103 # 아 거가 조와 봐여. {아 거기가 좋아 보여.}

10103 # 그래 소 소릴 해찌:. {그래서 소리를 쳤지.}

10103 # 아:이 여기 줌 와 보세유 와 보세유 그라닝께루, 왜 그르냐 구리야. {아이 여기 줌 와 보세요 와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

10103 # 아:이 여기 내 माम 여기 조와 봐이년대 일루 오라구. {아이 여기 내 마음에 여기 가 좋아 보이는데 이리 오라고.}

10103 # 그래 와 보시더니 아 여 거 과너 그거 땡:내. {그래서 와 보시더니 아 여기 그 ** 그거 되었네.}

10103 # 그래서 거기서 뜯- 한 삼 년 지내써,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또 한 삼 년 지냈 어, 거기서.}

10103 #1 그라구 *** {그러고 ***} 10103 # 그 자리서. {그 자리에서.}

10103 # 그래서 인재 나중엔 그 저: 물 떠 가주 올라가던 대: 거길: 또 이러캐서 저기 다 듨꾸 그래 도:덜 가따 깔구 그래서 거 지내다가 인재 일:루 와써 여기 보여. {그래 서 이제 나중에는 그 저 물 떠 가지고 올라가던 데 거기를 또 이렇게 해서 저기 다듬고 그렇게 돌을 갖다 깔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다가 이제 이리로 왔어 여기 **.}

10103 # 또 저기 그거뚜 한 해 안 해짜나 아나다가 동:내서 또 왜 존소캐서 해야지 이:저 내 으:런덜 하딩 걸 안 하너냐구 으:. {또 저기 그것도 한 해 안 했잖아 안 하다가

동네에서 또 왜 존속해서 해야지 이전에 어른들이 하던 걸 안 하느냐고 어.}

10103 # 자:꾸 세워리 바께 지니께개루 그러트라구요:, 으:. {자꾸 세월이 박해지니까 그렇
더라고요, 으}

10103 #1 시방 애:더런 그기... {시방 애들은 그제...}

10103 # 고만 고만 다: 거더 치우자구. {그만 그만 다 걸어 치우자고.}

10103 @ 아까 이러케 저기 된 대를 머라구 한대구요? {아까 이렇게 저기 된 대를 뭐라고
한대구요?}

10103 # 능선. {능선.}

10103 @ 예, 아까 세 세 부니 올라가서따 그래짜나요? {예, 아까 세 세 분이 올라가셨다
고 그랬잖아요?}

10103 # 야 야 야 야. {예 예 예 예.}

10103 @ 거 어떠 어떤 대루 올라가서따구요? {그 어떤 어떤 데로 올라가셨다고요?}

10103 # 거가 저 저 거시기 조 어:: 승:지꼴 찡등잉가바. {거기가 저 저 거시기 저 예 승지
꼴 등성마루인가 봐.}

10103 @ 예:. {예.}

10103 # 아이 승:지꼬리지 그거? {아이 승지꼴이지 그거?}

10103 # 어어 어디 어디건 그 샴:매서 이짜개. {어어 어디 어디건 그 샴에서 이쪽에.}

10103 #1 무수머기 이짜개 저:기 거시기지. {무수막이 이쪽에 저기 거시기지.}

10103 # 충주꼴 장등이여 거가:. {승지꼴 등성마루여 거기.}

10103 # 으: 승지꼴. {으 승지꼴.} 10103 #1 승지꼴 장등이여? {승지꼴 등성마루여?}

10103 # 아 어디 어딩이꼴 찡등이다. {아 어등 어등이꼴 등성마루다.}

10103 # 어 어딩이꼴 장등이여. {응 어등이꼴 등성마루여.}

10103 @ 근대 그걸: 이르케 좀 평평한 대가 이꾸:, {그런데 그게 이렇게 좀 평평한 데가
있고,}

10103 # 예:. {예.}

10103 @ 더 이런: 대가 이짜나요? {더 이런 데가 있잖아요?}

10103 @ 더 이렇: 걸 머라 그래요? {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10103 # 너푼대? {높은데?}

10103 @ 예. {예.}

10103 @ 올라가기 어려꾸 왜. {올라가기 어렵고 왜.}

10103 # 그 그걸 머 머여 너푼 너푼 능서니라 구라까 평지라구 하까, 평지는 아니구 능서
니라 구라야 그라지 머 능선 능선 능선. {그 그걸 뭐 뭐야 높은 높은 능선이라고
그럴까 평지라고 할까, 평지는 아니고 능선이라고 그래야지 뭐 능선 능선 능선.}

10103 # 그러치 머. {그렇지 뭐.}

10103 @ 그리구 또 동네에서요: {그리고 또 동네에서요?}

10103 @ 인재 동네 사람들끼리:,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10103 # 으:. {응.}

10103 @ 누가 호닌 하자너요? {누가 혼인하잖아요?}

10103 # 으:. {응.}

10103 @ 그거 도와준다구 호닌개 하구 이렇 거는 업써썩요? {그거 도와준다고 혼인게 하
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10103 # 그렇 거:선 잘 모르거썬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10103 #1 여기넌:... {여기는...}

10103 @ 호닝께가 어꾸 다: 가튼 지반드리라 그런나요? {혼인계가 없고 다 같은 집안들이라 그랬나요?}

10103 # 어: 게 계:라넝 건 몰라썬꼬:. {응 게 계라는 건 몰랐었고.}

10103 @ 당계: 상여께 이렇 거뚜 업썬꾸요? {당계 상여계 이런 것도 없었고요?}

10103 # 상여께넌 인재: 이 지금 저 지그와서루 상여께 생겨썬:. {상여계는 이제 이 지금 저 지금 와서 상여계가 생겼지.} 10103 #1 옼나랜 상여께가 이썬넌대 움썬유, 지금. {옛날에는 상여계가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

10103 @ 그건 머: 하능 계요? {그건 뭐하는 계요?}

10103 @ 어떠케 하능 개 상여께요? {어떻게 하는 게 사영계요?} 10103 #1 생애 나오면 그기... {상여 나오면 그계...}

10103 # 상 그걸 상조 그기 상조:. {상 그걸 상조 그계 상조.} 10103 #1 주구가는 태이는 거 태이능 거. {주고 태이는 거 태이는 거.}

10103 # 상조 깨 상조-계:. {상조계 상조계.}

10103 @ 예. {예.}

10103 # 상조계라구 인재 이 중녀내 그 생겨서 해:썬요. {상조계라고 이제 이 중녀내 그 생겨서 했어요.}

10103 # 그저내 이 우리 쯔고마내서넌 상조계라넝 거 읍:썬요. {그전에 이 우리 쯔그만해서는 상조계라는 것이 없었어요.}

10103 @ 그건 어트개 하능 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103 # 그 인재 뭐여 여녕얼 인저 여녕얼 마추던지 인재 여녕얼 여녕 뽀바서 그더리 인재 하구: 으: 그래 해썬유 머, 여 동네서. {그 이제 뭐야 연령을 이제 연령을 맞추든지 이제 연령을 연령 뽀아서 그이들이 이제 하고 응 그렇게 했지요 뭐, 이 동네에서.}

10103 # 그때넌 머 예:저네넌 동:내 초상이 나머넌 아 우투기야 주근니 기냥 나들 썬가 업쓰닝께 동:내서 전 이래 나서서 그냥 그래 시신 모시다가 어디 증:한 자리 가따 장네 모시구 그래썬:. {끄대는 뭐 예전에는 동네에 초상이 나면 아 어떻게 해 죽은 이를 그냥 봐들 수가 없으니까 동네에서 전부 이렇게 나서서 그냥 그렇게 시신을 모셔다가 어디 정한 자리에 갖다 장례 모시고 그랬지.}

10103 # 그래 인재 계:라넝 거선 이 중녀내 나썬요. {그래 이제 계라는 것은 이 중녀내 났어요.}

10103 @ 으응:. {아아.}

파일 번호: 03

SCB_BE_03

파일 내용: 제1편 구술발화: 1.2 일생의례-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2.5 시집살이 경험담, 1.4 의생활-1.4.1. 목화 재배와 길쌈, 1.4.2. 누에치기와 비단 짜기, 1.4.3. 옷 만들기

조 사 자: 박경래(1958년생)

제 보 자: 황종연(黃鐘淵, 1924년생(甲子年), 男, 86세, 쥐띠, 무학, 한글 해독, 서당에서 천
자문 학습, 농업)

보조 제보자: 김순옥(金順玉, 1924년생(甲子年), 여, 86세, 쥐띠, 무학, 농업)

전 사 자: 홍현화, 박경래

주 소: 황종연-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296번지.

김순옥-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355번지.

조 사 장 소: 김순옥 제보자의 집

조 사 일 시: 2009년 7월 31일

1.2 일생의례

1.2.5 시집살이 경험담

10218 #1 시집와서 시집짜리넌 안 하고 그저: 사:너라고 움:넌 지배 와서 고상해:찌 머.

{시집와서 시집살이는 안 하고 그저 사느라고 없는 집에 와서 고생했지 뭐.}

10218 @ 그거 한 번 얘기 하, 해 보श्य 머던지. {그거 한 번 얘기 해, 해 보श्य 뭐든
지.}

10218 #1 어? {어?}

10218 @ 처매 와서 무슨 닐 하션는지 어터캐 고생하션는지... {처음에 와서 무슨 일 하셨
는지 어떻게 고생하셨는지...}

10218 #1 츠:매 와서: 바패, 시꾸는 만:쿠 시아주바이 미테 마똥새 미테 와서 바패 가주구:
드:래 이:라는대 바패다 주구:. {처음에 와서 밥해, 식구는 많고 시아주버니 밑에
만동서 밑에 와서 밥해 가지고 들에 일하는데 밥해다 주고.}

10218 @ 그러면 둘째:시어썸요, 하라버지가? {그러면 둘째셨어요, 할아버지가?}

10218 #1 야:. {예.}

10218 @ 아:, 그 시택 시꾸드리 누구누구 이썸썸요? {아, 그 시택 식구들이 누구누구 있었
어요?}

10218 #1 시택 시꾸 머, 시아주버이두: 아덜두 움썸 살:다 도라가시구, 그라구 우리가 마터
가주구 사러... {시택 식구 뭐, 시아주버니도 아들도 없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리
고 우리가 맡아 가지고 살아...}

10218 @ 그리잉까, {그러니까,} 10218 #1 으. {어.} 10218 @ 시, 시: 어른들두, {시, 시
어른들도,} 10218 #1 야. {예.} 10218 @ 게썸썸 꺼 아니요? {계셨을 거 아니에
요?} 10218 #1 야:. {예.}

10218 #1 아직 우리 시어머니, 모:시다가 도라가시썸, 유기사뻐내. {아직 우리 시어머니 모
시다가 돌아가셨어, 육이오사뻐내.}

10218 @ 아이, 그리잉까 맨: 처:맨, {아이 그러니까 맨 맨 처음에는,}

10218 #1 맨: 처매:~? {맨 처음에?}

10218 @ 시지보श्य썸 때. {시집오셨으을 때.}

10218 #1 시지볼: 때, 시아주바이하구 마똥썸: 애기도 안 논 나쿠 마똥새하구 이따가, {시
집을 때, 시아주버니하고 만동서는 애기도 안 못 낳고 만동서하고 있다가,}

10218 #1 인저 시지봐서: 마똥새 데리구 살다가 보니까: 시아주버이가 고만 병: 드리 주그
 닝께 마똥새 도망가구, 고만 가 빠리구, 우리 시모님 데리구 그래. {이제 시집와서
 맏동서 데리고 살다가 보니까 시아주버니가 그만 병 들어 죽으니까 맏동서는 도망
 가고, 그만 가 버리고 우리 시모님 데리고 그래.}

10218 @ 시누? {시누이?}

10218 #1 야:, 시몬님, 어 시어머니. {예, 시모님 어 시어머니.} 10218 @ 아, 시모:님. {아
 시모님.} 10218 #1 시어머니. {시어머니.}

10218 #1 그래 데리구 살:다가, {그래 데리고 살다가,} 10218 @ 맨: 처매 시지보셔쓸 때
 시아버님은 양 게서썩요? {맨 처음에 시집오셨을 때 시아버님은 안 게셨어요?}

10218 #1 엄썩유 머, 도라가시썩. {없어요 뭐, 돌아가셨어.}

10218 @ 시몬님하구, {시모님하고,}

10218 #1 그라구 살:다가 그라:캐 고냥, 우리 시어머니 인저 딸 하나 나:쿠 나서 유기사변
 -내 딸 둘 라쿠 주길 도라가싰구나. {그리고 살다가 그렇게 그냥, 우리 시어머니
 이제 딸 하나 낳고 나서 육이오사변에 딸 둘 낳고 죽었, 돌아가셨구나.}

10218 #1 그라구선 이때 살:다가 영:감은 인저 한 도라가신 제가: 한: 안죽 십 녀는 더 안
 댜나. {그리고는 이때까지 살다가 영감은 이제 한 돌아가신 지가 한 아직 십 년은
 더 안 되었나.}

10218 #1 어: 으 십 녀니 너머꾸나 참, 시보 년 댜:내. 영감 도라가신 제. {어 으 십 년이
 넘었구나 참, 십오 년 되었네.}

10218 @ 시누이는 업썩썩요? {시누이는 없었어요? 10218 #1 어? {어?}

10218 @ 시누는 업썩썩요? {시누이는 없었어요?} 10218 #1 움썩썩, 시누년:. {없었어, 시
 누이는.}

10218 @ 그러면 형제부니션네? {그러면 형제분이셨네?}

10218 #1 야. {예.}

10222 @ 딱, 으응:. 그럼 저:기 자재부는 먼 명이나 돼:썩요, 할머니? {딱, 응. 그러면 저기
 자재분은 몇 명이나 되었어요, 할머니?}

10222 #1 아드리 님: 딸 싣 칠남매 예헤헤헤 헤. {아들이 넷 딸 셋 칠남매 예헤헤헤 헤.}

10222 @ 칠남매시고:. 갱장이 조아겐내요, 사람 시꾸가 마:나서. {칠남매시고 팽장히 좋았
 겠네요, 사람 식구가 많아서.}

10222 #1 사:너라고 키우너라고 고상얼 마:니 해찌 내가 글썩:. {사느라고 키우느라고 고생
 을 많이 했지 내가 글썩.}

10222 #1 저: 공사애 댜기민 다:꾸지럴 안 헨나 차무 장살 안 헨나 그렇 그렇 거 마:니 해
 찌 머. {저 공사판에 다니면서 닥구질을 안 했나 참외 장사를 안 했나 그런 그런
 거 많이 했지 뭐.}

10222 #1 키우너라고 고상, 크년 애:덜두 쌀바 판 번 배볼르게 몸 머꾸 만날 버리밥 조밥:
 그르케 먹꾸:. {키우느라고 고생, 크는 애들도 쌀밥 한 번 배부르게 못 먹고 만날
 보리밥 조밥 그렇게 먹고.}

10222 #1 크년 애덜두 우리지배 고상: 고사~이 커 가주구 즈: 저래 나가서: 바번 머꾸 사
 라유. {크는 애들도 우리집에 소생 고생이 커 가지고 저희 저렇게 나가서 밥은 먹
 고 살아요.}

10222 @ 저두 그래썩요, 어릴 때.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10222 #1 그러. {그래.}

10222 @ 맨:날 국수 해 머꼬. {만날 국수 해 먹고.}

10222 #1 그래: 아덜:이, 또 딸두 다: 머꾸 저 머꾸 그냥, 뭐 나무 지배 저:기 참 저:긴 아
나구: 머꾸 사라요. 그래서... 그래. {그래 아들이 또 딸도 다 먹고 저 먹고 그냥,
뭐 남의 집에 저기 참 저기는 안 하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 그래.}

10222 #1 그랑개 내가 인재 시방언 팔자가 펴 거지 머, 시방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방
은 팔자가 편 거지 뭐, 시방은.}

10222 @ 예:. {예.}

10222 #1 메:눌래가 저러개 인재 두, 인재 오구 인전 저 히:가니까 저르개 개 온디야 넬.
{며늘네가 저렇게 이제 두, 이제 오고 이제는 저 휴가니까 저렇게 온대 내일.}

10222 #1 다: 마든디야, 인재 칠람매가. {다 모인대, 이제 칠남매가.}

10222 @ 보기에 조으셔요. {보기에 좋아요.}

10222 #1 호하하하하 하. {호하하하하 하.}

10222 #1 그래서, 그래: 모:. {그래서, 그래 뭐.}

10222 #1 사:느라곤 고상해:찌, 애:덜 키우너라구넌. {사느라고는 고생했지, 애들 키우느라
고는.}

10222 #1 우리 딸래구 모도: 바벌 안 싸 가주 해꼬 가서 해꼬 배우고 오고:. {우리 딸네고
모두 밥을 안 싸 가지고 학교 가서 학교 배우고 오고.}

10222 #1 조밥 버리배비라구 안 싸 가주 가드라구 그르키. {조밥 보리밥이라고 안 싸 가지
고 가더라고 그렇게.}

10222 #1 안 싸 가주 가구: 그개 그래 가서 구전:두룩 공부하고 오면 저녁개 주걸 끄리던
지 바벌 하던지 그래면 한 술씩 머꾸:. {안 싸 가지고 가고 그개 그래 가서 배고
프도록 공부하고 오면 저녁에 죽을 끓이든지 밥을 하든지 그러면 한 술씩 먹고.}

10222 #1 고르개 고상얼 하고 공부럴 해따고 우리 자손더리.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공부를
했다고 우리 자손들이.}

10222 #1 그래 가지고, 그래 가서: 그러고:: 저러고 내가 인재, 나무 일두 하고: 그저: 머
모두 싱구루 가구 지배 농사 지:야 양도 되고, 그래: 저래 참 사라서 인저: 으-
○:감두: 고상하다가 그르개 하다 도라가시구 나넌 호강해유, 시방. 이래. {그래
가지고, 그래 가서 그러고 저러고 내가 이제, 남의 일도 하고 그저 뭐 모도 심그
러 가고 집에 농사 지어야 양식도 되고, 그래 저래 참 살아서 이제 영감도 고생하
다가 그렇게 하다 돌아가시고 나는 호강해유, 시방. 이렇게.}

10222 #1 가마:니 안자서 이 집 지키너라구, 우리 크나더리 인저 이 지벌, {가만히 앉아서
이 집 지키느라고, 우리 큰아들이 이제 이 집을,}

10222 #1 떠내리 가씨:. {떠내려 갔어.}

10222 #1 팔년도에 왜 큰 장마져씨찌? {팔년도에 왜 큰 장마졌었지?} 10222 @ 비 마니
와서. {비 많이 와서.}

10222 @ 예, 예 {예, 예.} 10222 #1 그때, 지비 싹: 떠내리 가씨, 그냥. {그때, 집이 싹
떠내려 갔어, 그냥}

10222 #1 살리미고 머고 싹: 떠내리 가서 워디가 이따가 인재: 이 조립찌벌 진: 기 이기
심늬 년채유. {살림이고 뭐고 싹 떠내려 가서 어디 가 있다가 이제 이 조립집을
지은 게 이게 십육 년째요.}

10222 @ 예:. {예.}

10222 #1 심늬 녀첸대, 우리 손자 나:매 이 조립찌벌 저 아래 가 이따가 진는데, {십육 년 쯤데, 우리 손자 낳으면서 이 조립집을 저기 아래 가 있다가 지었는데,}

10222 #1 심늬 녀첸대 우리, 대전 가 이썬, 우리 크나더런. {십육 년째 우리, 대전 가 있어, 우리 큰아들은.}

10222 @ 네:. {네.}

10222 #1 아덜 하나, 딸 새명재, 아덜 하나. {아들 하나, 딸 삼형제, 아들 하나.}

10222 #1 그래 시방 고딩해:표, 아덜, 손자가 고딩해표 가구. {그래 시방 고등학교, 아들, 손자가 고등학교 가고.}

10222 #1 그래 인저 우리, 처운 오남매가 이꾸. {그래 이제 우리, ** 오남매가 있고.}

10222 #1 둘째, 시:째, 시째넌 저기 여 메느리가 시째구, 와꾸. {둘째, 셋째, 셋째는 저기 여기 며느리가 셋째고, 왔고.}

10222 #1 또 딸: 시:디꾸. {또 딸 셋 있고.}

10222 #1 대전: 크나더런 대전서 노리방 하구 이꾸. {대전 큰아들은 대전에서 놀이방 하고 있고.}

10222 #1 망녕이년 청주서 내:오 저기 선생하구 이꾸, 궁민해표. {막내는 청주에서 내외 저기 선생하고 있고, 국민학교.}

10222 #1 망녕이년 지가 하::두 공부릴 할라구 모멸 써서 어거지루. {막내는 자기가 하도 공부를 하려고 몸을 써서 어거지로.}

10222 #1 어거지루 어거지루 지 생이 그리두 느터니, 그르케 선상: 해 가지구 두, 두리 선생 노르태서 갠창꾸. {어거지로 어거지로 제 형이 그렇게 넣더니, 그렇게 선생 해 가지고 두, 둘이 선생 노릇해서 괜찮고.}

10222 #1 그래, 그래, 나넌 그래 머, {그래, 그래, 나는 그래 뭐,}

10222 #1 호이수릴 하, 호일호실하구 이에 호강하구 사:넌 거지 머, 나넌. {호식하고, 호위 호식하고 이게 호강하고 사는 거지 뭐, 나는.}

10222 @ 다보카시네. {다복하시네.}

10222 #1 어, 나넌. {어, 나는.}

10222 @ 절머서 고생하셔쓰니까 머:. {젊어서 고생하셨으니까는 뭐.}

10222 #1 정위넌 절머선 참 고상 마니해찌유. {젊어는 젊어서는 참 고생 많이 했지요.}

10222 @ 그래니 연세 드셔서래두 좀 피난하셔야지.{그러니 연세 드셔서라도, 좀 편안하셔야지.}

10222 #1 응, 세상에 다꾸지릴 안 헨나 머, 고지라릴 하러 안 간나. {응, 세상에 탁구질을 안 했나 뭐, 고지를 하러 안 갔나.}

10222 @ 고지요? {고지요?}

10222 #1 저:기 모 심구루 만:날 새보꾸루. {저기 모 심으러 만날 새벽으로.}

10222 #1 그래두 고상: 그르케 해서: 그래 인저 시방은 행모캉 게유, 내가 어.{그래도 고생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시방은 행복한 거요, 내가 응.}

10222 #1 시방언 내가 행모캉 기여. {시방은 내가 행복한 거야.}

10222 #1 그거 사:녕 거뚜 그거지 머. {그거 사는 것도 그거지 뭐.}

10222 # 자체덜한데 대우 잘 바다:. {자체들한테 대우 잘 받아.}

10222 @ 그 저내 그러면 시 시지보시기 저네: 친정찌파구:, {그 전에 그러면 시 시집오시

기 전에 친정집하고,}

10222 #1 친정집두 여 저 땡퍼네 여기 사라유, 친청이. {친정집도 여 저 동편에 여기 살아
요, 친청이.}

10222 @ 예, 거기하구, 친청에는 누구누구 이씨요? {예, 거기하고, 친청에는 누구누구 있
어요?}

10222 #1 친정엔 두 머, 우리 오빠두 주꾸, 조카덜 여러시유. {친정에는 또 뭐, 우리 오빠
도 죽고, 조카들 여럿이요.}

10222 #1 저 부산두 가두 살:구 서울 가 살:구 여기년. {저 부산에도 가서 살고 서울 가서
살고 여기는.}

10222 #1 아덜 하나하구 올캐 혼자 살:구, 저: 땡퍼넨데. {아들 하나하고 올캐 혼자 살고,
저 동편인데.}

10222 @ 할머니 여기: 오시기: 전에 친정에...{할머지 여기 오시기 전에 친정에...}

10222 #1 나넌 하이트 시지벌 여기서 와 가지구 열대 쌀 머거 시지봐 가지구 요그서 요르
캐 늘그능 거유, 요고도, 요 동내서. {나는 하이트 시집을 여기서 와 가지고 열댓
살 먹어 시집 와 가지고 시집 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늙는 거요, 여기서 요 동
네에서.}

1.2. 일생의례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과정

10201 @ 할머니:는 성하미 어트개 되는데요? {할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요?}

10201 #1 김해 김가. {김해 김가.} 10201 @ 김:, {김,} 10201 #1 김해. {김해.} 10201
@ 또? {또?}

10201 #1 여긴 경부, 경주. {여기는 경부, 경주.}

10201 #1 여기 경주 쩡가 모 모자리 아니여? {여기는 경주 김가 모 못자리 아니야?}

10201 @ 예. {예}

10201 # 이리멀 물으라구. {이름을 말하라고.} 10201 @ 이름:. {이름.}

10201 #1 이럼? {이름?}

10201 #1 김수노. {김순오.}

10201 @ 김:, 순:, {김, 순,} 10201 #1 김수:늑. {김순옥.}

10201 @ 옥? {옥?} 10201 #1 어. {어.}

10201 @ 순:할 순짜, 구슬 옥짖가요? {순할 순자, 구슬 옥자이가요?}

10201 #1 몰:라, 그거넌 난, 글씨릴 몰롱께 그건 몰르고 순옥. {몰라, 그건 난 글씨를 모르
니까 그건 몰르고 순옥.}

10201 #1 김수:늑. {김순옥.}

10201 #1 그양 수늑 *** 마질 끼여, 구슬 옥짜가 마질 끼여. {그냥 순옥 *** 맞을 거야.
구슬 옥자가 맞을 거야.} 10201 @ 예:, 쥐띠고. {예, 쥐띠고.}

10201 #1 지띠구. {쥐띠고.}

10201 @ 여기 어디서 사셔따고요, 요 미태? {여기 어디서 사셨다고요, 요 밑에?}

10201 #1 어? {어?}

10201 @ 어디서 이쪼그루 시지보셔따고요? {어디서 이쪽으로 시집 오셨다고요?}

10201 #1 저: 땡패넌대: 오기년 저 백찌서. {저 동편인데 오기는 저 벽지에서.} 10201 #
저짜 근내 똥넌데:. {저쪽 건너 동네인데.}

10201 #1 백찌서 완넌대 우리 친정이: 모: 짜르잉께 또 일루 이사랴 와썬유. {벽지에서 왔
는데 우리 친정이 못 사니까 또 이리로 이사를 왔어요.} 10201 # 탄:부며니유.
{탄부면이요.}

10201 @ 탄부며내서? {탄부면에서?} 10201 #1 와서 버:러 멩너라고 탄:불며내서 와 가주
구. {와서 벌어 먹느라고 탄부면에서 와 가지고.}

10201 @ 탄부며내서 요쪼그로 오셔따구요? {탄부면에서 요쪽으로 오셨다고요?} 10201
#1 으:. {응.}

10201 @ 덕퍼네? 댁퍼네? {덕편에? 댁편에?}

10201 # 동퍼니유, 동편. {동편에, 동편.}

10201 #1 요:기 조 건내가 땡퍼니여 조 건내가. {여기 저 건너가 동편이야 저 건너가.}

10201 @ 아: 땡퍼내? {아, 동편에?}

10201 #1 예:, 요기, 요: 또랑 건:내가 땡퍼니여. {어, 요기, 요 도랑 건너가 동편이야.}

10201 # 전부가 종짜야. {전부가 종자야.}

10201 # 종잘드름 느:서 지썬, 동명얼. {종자들을 넣어서 지었어, 동명을.}

10201 #1 여기년 모종꿀, 조 건넌 땡편. {여기는 모종꿀, 저 건너는 동편.}

10201 # 내가, 내가 그 말씀 해드리께. {내가, 내가 그것은 말씀해 드릴 게.}

10201 # 저건 종:동.{저건 종동.}

10201 @ 예. {예.}

10201 # 여긴 종:남. {여긴 종남.}

10201 @ 예. {예.}

10201 # 인저, 저짜개는 종:서라구 그래지, {이제, 저쪽에는 종서라고 그러지.}

10201 # 저짜개는 종:서라구 그러케 해넌대, {저쪽에는 종서라고 그렇게 하는데,}

10201 # 저 종공니: 하먼 종공니가 다:, {저 종곡리하면 동곡리가 다:,}

10201 @ 할머니는 어디예요? 종:, 종서? {할머니는 어디예요? 종, 종서?}

10201 # 여기:~? {여기?}

10201 @ 아니 할머니 친정. {아니 할머니 친정.}

10201 #1 저: 땡편. {저 동편.} 10201 # 거기, 종동. {거기, 종동.}

10201 @ 종 동쪽? {종 동쪽?}

10201 #1 고가, 거가 종동이라까? {거기가 거기가 종동이라고 해?} 10201 # 종동이라 그
래썬, 종동. {종동이라고 그랬어, 종동.}

10201 #1 바라, 바라니 워라 워라니라구 하넌대 거기년 종동이라 구리야? {바란, 발안이
월안 월안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종동이라고 그래?}

10201 # 그리야, 종동이야. {그래, 종동이야.}

10201 #1 몰라. {몰라.}

10201 #1 땡패니라구 우렁 그래구. {동편이라고 우리는 그러고.}

10201 # 그래: 동퍼니 그 종동이야. {그래 동편이 그 종동이야.}

10201 #1 으:. {응.}

10201 @ 아, 저쪽 동쪽이라고 해서?: {아, 저쪽 동쪽이라고 해서?} 10201 # 예:, 동쪽이라고. {예, 동쪽이라고.}

10201 # 이저내 이저내 그러케 으:런더리 그러케 이러멀 부쳐찌유. {이전에 이전에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요.}

10201 @ 제가 하라버지한테 여기 지명도 여쭙봐야 되겠네, 뭐 하두 마너지구 모르개써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여기 지명도 여쭙어 봐야 되겠네, 뭐 하도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10201 # 고 요 동네 고거배끼 몰라요. {그 요 동네 그것밖에 몰라요. }

10201 @ 예:. {예:}

10201 @ 그 거기: 친정하구: 여기 시비보셔쓸 때 시대카구: 혹시 이르게 저 사는 방식기 다르지 아니써요? {그 거기 친정하고 여기 시집오셨을 때 시댁하고 혹시 이렇게 저 사는 방식이 다르지 않았어요?}

10201 #1 아이구:, 나넌 움:넌 지배서 태어나 가주구 움씨: 부모 어머니만 혼자 인년대 살:다가 그냥 누가 딸 달라닝께 쪼마냥 거릴 그냥 여길 내: 줘짜나.{아이구, 나는 없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없이 부모 어머니만 혼자 있는데 살다가 그냥 누가 딸 달라니까 조그만한 것을 그냥 여기에 내 줬잖아.}

10201 #1 내: 줘서, 그래서 여기서 데리다가 한 벌 온 찌다 이피 가주 시집, 여기서 데리다가 행니하서 그냥 사넌 거유. {내 줘서, 그래서 여기에서 데려다가 한 벌 옷 지어다 입혀 가지고 시집, 여기에서 데려다가 행례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10201 #1 나넌 여적, 여적 여 모:종꿀루 와 가주구 여적 여기서 사능 기여. {나는 여지껏, 여지껏 여기 모종꿀로 와 가지고 여지껏 여기서 사는 거야.}

10201 @ 모:종꿀? {모종꿀?}

10201 #1 여개 모:종꿀. {여기 모종꿀.}

10201 #1 어, 모:종꼬리라 구리야, 여기가. {어, 모종꿀이라고 그래, 여기가.} 10201 @ 모:종꼬리라 그래요? {모종꿀이라 그래요?}

10201 #1 여:가 늙능 기여 인재. {여기에서 늙는 거야 이제.}

10201 #1 여기서 주거 나가능 기여 인재, 에헤헤헤 헤. {여기서 죽어 나가는 거야 이제, 이해헤헤 헤.}

10201 @ 그러면 친정 제:사하구 예쪽 시집 제:사하구 지내능 개 혹시 다르지는 아니써요? {그러면 친정 제사하고 이쪽 시집 제사하고 지내는 게 혹시 다르지는 않았어요?}

10201 #1 지사는 뭐:어 머, 시집 찌사는 시집 찌사대루구 친정 찌사는 머... {제사는 뭐 뭐, 시집 제사는 시집 제사대로고 친정 제사는 뭐...}

10201 #1 친정 찌살 지내루 가? 시집 찌사나 지내지? {친정 제사를 지내러 가? 시집 제사나 지내지?}

10201 #1 친정 찌사. {칭정 지사.}

10201 # 제:레넌 다: 또까타. {제레는 다 똑같아.}

10201 #1 다: 또까찌 머:. {다 똑같지 뭐.} 10201 @ 또까타요? {똑같아요?}

10220 @ 시어머니하구는 사이가 조으써써요? {시어머니하고는 사이가 좋으셨어요?}

10220 #1 야:, 우리 시어머이넌 머: 노 노인내잉께 만날 내가 밥만 해 디리서 그저 요래, 이래 하다가 도라가시써유, 유 유기사버네. {예, 우리 시어머니는 뭐 노 노인네니까 만날 내가 밥만 해 드려서 그저 요렇게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육 육이

오사변에.}

10220 #1 유기사:버내 도러가시썸. {육이오사변에 돌아가셨어.} 10220 @ 그때 도라가서 썸요? {그때 돌아가셨어요?}

10220 #1 그때 도라가시썸.{그때 돌아가셨어.}

10220 @ 우트가다가 도러가서썸요?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10220 #1 아이 머:, 인제 늘거서 한 팔썸, 팔썸 너머서 도라가서쓰이~. {아니 뭐, 이제 늘어서 한 팔썸, 팔썸 넘어서 돌아가셨쓰니.} 10220 # 전부 노환이, 연세가 마:나. {전부 노환이, 연세가 많아.}

10220 #1 연시가 마:느잉께. {연세가 많으니까.}

10220 @ 그럼 그때 시지보셔썸 때 이미 연세가 마:느션내요? {그럼 그때 시집오셨을 때 이미 연세가 많은셨네요?} 10220 #1 야: 마:너썸. {예 많았어.}

10220 #1 항:갑 찌내뜨라구유, 시지보니까. {환갑 지났더라고요, 시집오니까.}

10220 @ 그러면 그:: 손위 동서가 이썸짜나요? {그러면 그 손위 동서가 있었잖아요?}

10220 #1 손위똥썸 다: 시아주버니가 주거쓰잉께 가썸. {손위 동서는 다 시아주버니가 죽었으니까 갔지.}

10220 @ 시아주버니-가 일찍 도라가서썸요? {시아주버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0220 #1 야, 일찍. {예, 일찍.}

10220 #1 아, 자손두 안 나쿠 도라가시쓰잉께 가썸. {아, 자손도 안 낳고 돌아가셨으니까 갔지.}

10220 @ 그러믄 뭐 그 동서하고는 사이가... { 그러면 뭐 그 동서하고는 사이가...}

10220 #1 사이야 조, 조:아찌마넌: 뉘퍼니 주그닝께 고만 살림 매끼구 나가더라구. {사이야 조 좋았지만은 남편이 죽으니까 그만 살림 맡기고 나가더라고.}

10220 @ 예. {예.}

10222 @ 요즘 절믄 사람드른 시집싸리 모르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집살이 모르지요?}

10222 #1 시집싸리는: 아내썸, 나. {시집살이는 안 했어, 나.}

10222 @ 아니, 요새 절믄 사람들. {아니 요사이 젊은 사람들.}

10222 @ 옛날 으:른들 시집싸리 얘기 드려보면 머, {옛날 어른들 시집살이 얘기 들어보면 뭐,} 10222 # 지금덜 시집싸리 안 히야, 지금덜. {지금은 시집살이 안해, 지금들.} 10222 @ 시:매따 그래는 분드리 마:는대... {심했다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10222 #1 예:. {예.}

10222 #1 미태서, 시어머이 미태서 시:마구, 아이구: 뉘메느리대 뚜드리 마꾸 하는 사람 만치:. {밑에서, 시어머니 밑에서 심하고, 아이구 민며느리 되어서 두드려 맞고 하는 사람들 많지.}

10222 @ 그런: 얘기 혹씨 드려본 적 이썸요? {그런 얘기 혹씨 들어본 적 있어요?}

10222 #1 그거넌, {그것은,}

10222 @ 다른 다른 사람 얘기? {다른 다른 사람 얘기?} 10222 #1 나넌 난, {나는 난,}

10222 #1 어: 다른 사라먼 그르께 한 사례미 이따구 으:런덜 만날 그라대:. {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 어른들 만날 그라대.}

10222 #1 뉘메느리 데리다가 그르께 키우너라구 머 오주키야:. {민며느리 데려다가 그렇게

키우느라고 뭐 오죽해?

10222 #1 딸그치 두드리 패: 주구 막 그러지 머. {딸같이 두드리 패 주구 막 그러지 뭐.}

1.4 의생활

1.4.1. 목화 재배와 길쌈

10401 @ 모과: 아까 얘기 해짜나요? {목화, 아까 얘기 했잖아요?}

10401 #1 응. {응}

10401 # 다 해써, 모과. {다 했어, 목화.} 10401 @ 예. {예.}

10401 @ 고: 고: 얘기를: 첨:부터, 시머서부터: 움 맨드는 데까지 여쭙볼까요? {그 그 얘기를 처음부터, 심어서부터 옷 만드는 데까지 여쭙볼게요?}

10401 @ 시머서부터?: 맨:처매. {심어서부터? 맨처음에.}

10401 @ 모과 심:짜너요? {목화 심잖아요?}

10401 @ 어디에 시머요, 주로? {어디에 심어요, 주로?}

10401 #1 바태. {밭에.}

10401 #1 바태 이러캐, 이르캐 이르캐 자옥 쳐 가주구 갈:구서 헨치 가주구 나:먼 매:서 크 먼 이만:치 크자너. {밭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옥 쳐 가지고 갈고서 뿌려 가지고 (씩이)나면 (김을)매서 크면 이만큼 크잖어.}

10401 #1 그러면 하:이야캐 피면 그걸 따지 머. {그러면 하얏캐 피면 그것을 따지 뭐.}

10401 @ 자옥 쳐 가주구 가랴요? {자옥 쳐 가지고 갈아요?}

10401 #1 인제 이르캐 자우걸 치면, 요르캐 가라 가주 자우걸 치면 모과씨가 인제 이걸 드르가자나. {이제 이렇게 자옥을 치면, 이렇게 갈아 가지고 자옥을 치면 목화씨가 이제 이리로 들어가잖아.}

10401 #1 이르캐 더푸만 더피자나 그래. {이렇게 덮으면 덮히잖아 그래.}

10401 @ 자옥 친대는 개 어트개 하는 건지... {자옥 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10401 # 발꿈치루 밭바서... {발꿈치로 밟아서...} 10401 #1 예, 밭:루 이르캐 밭:바. {예, 밭로 이렇게 밟아.} 10401 @ 아:, 발꿈치루? {아, 발꿈치로?}

10401 #1 저기: 어, 저기 {저기 어, 저기,} 10401 @ 코코크 드리가개?: {코코크 들어가게?}

10401 #1 그럼, 코코크 드리가개. {그럼, 코코크 들어가게.} 10401 # 밭짜옥 아니여 밭 밭짜옥. {밭자국 아니야 밭 밭자국.}

10401 #1 요르캐 자우걸 쳐 가주. {요렇게 자옥을 쳐 가지고.}

10401 @ 그래 가주구 고기다가 씨:를 느쿠, 그래구 더폰다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씨를 넣고 그리고 덮는다고요?}

10401 @ 그럼 패:난 대다가 하는 거내요? {그럼 판판한 데에다가 하는 거내요?}

10401 #1 아니요. 그람, {아니요. 그러면,}

10401 #1 패:난 대다 하면 이 씨가 안 데피자나:. {판판한 데다가 하면 이 씨가 안 덮히잖아.}

10401 #1 씨가 인제 이 싹뚜구루 드르가야 나기 때매 그래: 썩썩 드르가개 밟는 기여:. {씨가 이제 이 싹둑으로 들어가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썩썩 들어가게 밟는 거야.}

10401 # 고:런 안 ** 기여. 고래다가 인재 꺼꺼시 망얼 지 가주서루 거... {골은 안 ** 거야. 글에다가 이제 *** 망을 지어 가지고 거기...}

10401 #1 밥:꾸서 이르케 혼치자나. {밥고서 이렇게 흘뿌리잖아.}

10401 @ 아, 그러먼:, {아, 그러먼,}

10401 # 이거마냥으루 이거마냥으루 고:덜 맨드러서 여기다가 이러케 이러케 이러케 이러케 지꾸자꾸루다가 일 번말 어?{이것처럼 이것처럼 골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일본 말 어?}

10401 #1 그래 가지구 이르케 더푸먼, 인재 더피먼 저 나자너. {그래 가지고 이렇게 덮으면, 이제 덮히면 이제 나잖아.}

10401 @ 아:. {아:.}

10401 @ 그래잉까 소루다가 바틀 가려서? {그러니까 소로 받을 갈아서?}

10401 #1 야. {예.}

10401 # 음:. {응}

10401 @ 요로:케 갈면 요기 쪽 드러가지요? {이렇게 갈면 여기 쪽 들어가지요?}

10401 @ 고:리 생기지요? {골이 생기지요?} 10401 #1 시방, {시방,} 10401 # 어: 이걸 매드러야지. {응, 이걸 만들어야지.}

10401 #1 시방 싸람덜 그걸 몰:라야:. {시방 사람들은 그걸 몰라.}

10401 @ 그리잉까. {그러니까.}

10401 @ 요로:카문 고리 생기구? {요렇게 하면 골이 생기고?}

10401 # 으:. {응.}

10401 @ 요로:케 인재 수부카게 한쪼그로 이르케 호글 모으면 요기도 수부카구 골: 리꾸 또 수부카고 이르케 대자너요? {요렇게 이제 수북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흙을 모으면 여기도 수북하고 골 있고 또 수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10401 # 그래: 그래 마자. 이그 이그 항 가지여 이거. {그래 그래 맞아. 이게 이게 한 가지야 이거.}

10401 @ 고기다가 인재 요기 이로:케 고리 이꼬, 여기 이러케 수부카면 여기다가 발루다가 자우글 이르케 이르케 친담 마리지요? {고기다가 이제 요기 이렇게 골이 있고, 여기 이렇게 수북하면 여기다가 발로 자국을 이렇게 이렇게 친다는 말이지요?}

10401 #1 그러먼 쑥:쑥 드러가자나. {그러면서 거길 들어가잖아.}

10401 #1 그러먼 혼치면 고 자오개. {그러면 흠치면 그 자옥에,}

10401 #1 씨가 드러가면 그래 이르케 덤넨다구. {씨가 들어가면 그래 이렇게 덮는다고.}

10401 # 그걸 그걸 먼 먼 며나씨라 구리야: 씨깅씨릴. {그걸 그걸 먼 먼화씨라 그래 씨를.}

10401 @ 매나씨? {면화씨?} 10401 # 모카씨를 메나씨라 구라넨대에:, {목화씨를 면화씨라고 그러는데,}

10401 @ 예. {예.}

10401 # 그걸 재하구 인재, 여: 인재 그때 인재 그 거르미라구 오조멸 거다 부어 가주서 오종하구 재하구 인재 멘화씨하구 시: 가지릴 인재 비비서 막 이래 비비서 말려. {그걸 재하고 이제, 어 이제 그때 이제 그 거름이라고 우즘을 거기에다 부어 가지고서 오즘하고 재하고 이제 면화씨하고 세 가지를 이제 비벼서 막 이렇게 비벼서 말려.}

10401 @ 네. {네.}

10401 # 말리면 인재 그래 가주서 가년 날 이르캐 저 소느루 지버 지버 가주서루 현치며
 년 그 인재 자오그루 드르갈 꺼 아니여? {말리면 이제 그래 가지고서는 가는 날
 이렇게 저 손으로 집어 집어 가지고서 훌뿌리면 그 이제 좌우로 들어갈 것 아니
 야?}

10401 @ 네. {네.}

10401 # 그러면 인재 그글 깔퀴루 글거두 안 되능 기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깔퀴로 굵어
 도 안 되는 거예요.}

10401 # 밀개:. {밀개.}

10401 @ 예. {예.}

10401 # 꼬재기 왜 넓저캥걸루 여 구녕 뚫버서 이 밀개루다가 이러캐 이러캐 꼬:댕기서 이
 래: 던 던, 짹: 데피지? {꼬챙이 왜 넓직한 것으로 여기 구멍 뚫어서 이 고무래로
 이렇게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댕 댕, 짹 댕히지?}

10401 # 깔퀴루 글르면 뭘 비지르미 마:나서루. 그기 잘 안 나. {깔퀴로 굵으면 뭘 비지름
 이 많아서 그게 잘 안 나.}

10401 @ 그 밀개가 저거 하능 경가요? {그 밀개가 저거 하는 건가요?} 10401 # 나랑 널
 구 하능 거. {나랑 널고 하는 것.} 10401 @ 저 나랑 널 때 장:거요. {저 나랑 널
 대 긴 거요.} 10401 # 그러치요, 그 나락. {그렇지요, 그 나락.}

10401 #1 이르캐 이르캐 자루 하자나. {이렇게 이렇게 자루 하잖아.}

10401 @ 예. {예.}

10401 #1 그래: 그개 밀:개여. {그래 그개 밀개야.}

10401 @ 그거 나중에 저 그리르로 함 번 보여드리개요. {그거 나중에 저 그림으로 한 번
 보여드릴게요.}

10401 # 그래요. {그래요.}

10401 @ 그걸루 해 가지구 씨를 심꾸, 그림 인재 씨가 나지요? {그걸로 해가지고 씨를 심
 고, 그림 이제 씨가 나지요?}

10401 # 그러치유. {그렇지요.}

10401 @ 이망:큼 나서 그냥 나: 두면, {이만큼 나서 그냥 봐 두면,} 10401 #1 그래서,
 {그래서,}

10401 # 그개 인재 나중에 아니라 달:면 뽑아 내버리구, {그개 이제 나중에 아니라 달면
 뽑아 내버리고,}

10401 # 인저 이만큼하개 ****서루 하나를 뿌런지 두:개릴 뿌런지 이르캐구서, {이제 이만
 큼하개 ***서 하나를 뚫든지 두 개를 뚫든지 이렇게 하고서,}

10401 @ 아, 그르치. {아, 그렇지.} 10401 # 키울 루문 키우구선 인재 뽀바 내부려야지.
 {키울 높은 키우고서 이제 뽑아 내버려야지.}

10401 @ 예. {예.}

10401 #1 그래 인재는 모카가: 하:야캐 대면 따서: 전:부애 다 매상해야 디야. {그래 이제
 는 목화가 하얗게 되면 따서 전부 다 매상해야 돼.}

10401 #1 저기, 공출해야 디야. {저기, 공출해야 돼.}

10401 @ 예. {예.}

10401 @ 달:면 뽀바낸다 그리자나요. {달면 뽑아낸다 그리잖아요.}

10401 @ 그 뽑, 뽑능 거를 저기 속? {그 뽑, 뽑는 거를 저기 속?}

10401 #1 소까 내능 기여. {숙아 내는 거야.}

10401 #1 쏘까 내능 기여. {숙아 내는 거야.}

10401 @ 아, 소까 내능 거지요? {아, 숙아 내는 거지요?}

10401 @ 그러구 인재 키울 꺼만 냉겨 두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키울 것만 남겨두는 거
지요?} 10401 # 그러치유, 키울 꺼만... {그렇지요, 키울 것만...}

=1 #1 머, 옥씨끼릴 다 가주 오냐:. {뭐 옥수수를 다 가지고 오냐.} =1 # 으: 으: 가따 완
내? {응 응 갔다 왔네?}

=1 #3 전 앙 가씨요. {저는 안 갔어요.}

=1 # 앙 갇... {안 갔...}

=1 #1 워디 갇, 이거 아이구 찌찌 시방? {어디 갔, 이거 아이고 찼어 시방?} =1 #3 예 예,
큰지배서 가꾸 와씨... {예 예, 큰집에서 갖고 왔어...}

=1 #1 큰지배서 가따 찌찌? {큰집에서 갔다 찼어?}

=1 #1 옥씨끼 파라 시방? {옥수수 팔아 시방?}

=1 #3 예:, 드셔 보새요. {예, 드셔 보세요.}

=1 # 아 여기 저 이짜개? {아 여기 저 이쪽에?}

=1 #1 예: 저기 저 광광 기사. {예 저기 저 관광버스 기사.}

=1 # 어어: 그려. {응 그래.}

=1 #1 이거 이 옥씨끼 하나 드리 보셔. {이거 이 옥수수 하나 들어 보셔.}

=1 @ 아, 예 저 잡수셔요. {아, 예 저 잡수세요.}

=1 #1 애, 찌찌 하나 가주와. {애, 찌찌 하나 가져와.}

=1 #1 여 두: 개만 내나. 아유 뚜구워. {여기 두 개만 내봐.} 아유 뚜구워. {아이, 뜨거워.}

=1 # 달라요 찰옥씨기. {달라요 찰옥수수.}

=1 @ 아:. {아.}

=1 @ 그래서 거기 송니산광강 그개 이쨌내요? {그래서 거기 속리산관광 그개 있었네요?}

=1 # 어:, 송니산광강이 그 차여. {어, 속리산관광이 그 차야.}

=1 #1 송니산광강이여. {속리산관광이야.}

=1 #1 가주 가시유. {가져 가세요.}

=1 # 난 송니산광강 저 그 보구서 마요 이쪽 어디 가따 오신나 그랜내. {나는 속리산관광
저 그 보고서 마요 이쪽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랬네.} =1 #1 그 나가 으 가지가
머거 가지가. {그 나가 응 가져가 먹어 가져가.}

=1 @ 네에:. {네.}

=1 #1 이거 쫌 하나 드려보시야 하한테 머 지꺼리너라구 머 머거씨. {이것 쫌 하나 들어
보셔야 하는데 뭐 지껄이느라고 뭐 먹겠어.} =1 # 몸 머거 나느. {못 먹어 나느.}

=1 @ 잡수셔요, 예. {잡수세요, 예.}

10402 @ 그래서 키우면 그개 인재 나중애 꼬치 피고, 쫌 피지요? {그래서 키우면 그개 이
제 나중에 꽃이 피고, 꽃피지요?} 10402 # 응 피지:. {응 피지.}

10402 @ 쫌:- 디땅:큼, {꽃 이만큼,}

10402 #1 모카꼬시 이빠. {목화꽃이 예빠.}

10402 @ 예, 이쁘대요? {예, 이쁘대요?}

10402 @ 그거 피어서 인재 열랭 개 아까 다래라 그래쥬요, 모카 따래? {그거 피어서 이제 열린 게 다래라 그랬지요, 목화 다래?}

10402 #1 그래 인재 모과 따서: 말리 가주 전비에 다마서 궁, 매상해야 디야:. {그래 이제 목화 따서 말려 가지고 전부에 담아서 매상해야 돼.} 10402 # 다래, 그 모카 다래요. {다래 그개 목화 다래야.}

10402 @ 예. {예.}

10402 #1 일:번 싸람 그걸루 베릴 난넌대, 감차 나따가 인재 몰:래 해야지 그거덜. {그걸로 베를 낫는데, 감춰 났다가 이제 몰래 해야지, 그거를.}

10402 @ 차래 차래 제가 여쭙 보게요. {차래 차래 제가 여쭙 볼게요.}

10402 # 문:는 대루만...{묻는 대로만...} 10402 @ 목, 모카따래:가 생기자나요. {목, 목חת 다래가 생기잖아요.}

10402 @ 그거 나두면 하:야캐 피지요? {그거 놔두면 하얹게 피지요?}

10402 @ 그걸 머라 그래요, 핑 거? {그걸 뭇라 그래요, 핀 거?}

10402 #1 모카 핑 기라지 머. {목화 핀 거라고 하지 뭇.} 10402 # 그기 인재 모카여 인저. {그개 이제 목화여 이제.}

10402 #1 모카지 머 그개. {목화지 뭇 그개.} 10402 @ 모카? {목화?}

10402 #1 모카 다:래에서 나옉 기 모카여. {목화 다래에서 나옉 게 목화야.}

10402 @ 모과. {목화.}

10402 # 꼬꺼치 뵈잉개 목-화여. {꽃같이 보이니까 목화야.}

10402 @ 예, 모카송이라고는 안 해요? {예, 목화 송이라고는 안 해요?}

10402 #1 모카송이:, 머: 머가 허연하구 이틀시루우면 아이구: 애 그거 모과 송이 그따 그라자나. {목화송이, 뭇 뭇가 하얹고 이틀스러우면 아이고 애 그거 목화 송이 같다 그러잖아.} 10402 # 그 대공에서...{그 대에서...}

10402 @ 아:. {아.}

10402 # 수내기 인재 꼬너야 접쭈니 크거덩? {순을 이제 끓어야 접순이 크거든?}

10402 @ 예. {예.}

10402 # 이래 이래 되는대루 크면 자꾸 질개 커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대로 크면 자꾸 질개 커서.}

10402 # 수내기 꼬너 내비리야, {순을 끓어 내버려야.}

10402 #1 모과송이 그따 쏘틸 하자나. {목화 송이 같다 소리를 하잖아.}

10402 @ 예:. {예:} 10402 # 꼬너 내부리야 그개 저 모카 다래두 굴:거지구. {끓어 내버려야 그개 저 목화 다래도 끓어지고.}

10402 @ 그래면 그걸 저 모카를 따다가, 아까 씨, 씨아시루? {그러면 그것을 이제 목화를 따다가, 아까 씨, 씨아로?}

10402 # 음 으: 말리서 씨아시. {음 응 말려서 씨아.}

10402 @ 말려가주구? {말려가지고?}

10402 # 어:. {어.}

10402 #1 그거 인제: 베 날라면 씨아시 하지: 공칠하넹 건 그냥 다마서 다:... {그거 이제 베 짜려면 씨아 하지 공출하는 건 그냥 담아서 다...} 10402 @ 씨채루? {씨채로?}

10402 #1 그냥:, {그냥.} 10402 @ 씨채루 해서요? {씨채 해서요?} 10402 #1 구럼:, 푸:

대애다 이르게 다머 가주 가따 공출하자나. {그럼, 부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다 공출하잖아.}

10402 @ 예. {예.}

10402 @ 그래잉까 인재 베 나를라면 씨아시루? {그러니까 이제 베 짜려면 씨아로?}

10402 #1 씨아시루 해 가주구, {씨아로 해 가지고,}

10402 @ 아서서, {앗아서,}

10402 #1 활루 타서, {활로 타서.}

10402 @ 예. {예.}

10402 #1 꼬치럴 비비서 맨드라 가주, {고치를 비벼서 만들어 가지고,}

10402 @ 예. {예.}

10402 #1 물:래애다가 인재 자:야지. {물레애다 이제 자아야지.}

10402 #1 물:래 이짜나. {물레 있잖아.}

10402 @ 예. {예.}

10402 #1 가라개다 이러케 만날, 실: 빼야지 이러케 만:날 안자서. {가락에 이렇게 만날, 실을 빼야지, 이렇게 맨날 앓아서.}

10402 #1 그래 가주구 그래 베 나녕 거여. {그래 가지고 그렇게 베 짜는 거야.}

10402 # 거꺼정 아까 임넉대쓰 쥘? {거기까지 아까 입력되었을 걸?}

10402 @ 그개 무명이에요? {그개 무명이에요?}

10402 @ 미영? {미영?}

10402 # 그르치. {그렇지.}

10402 @ 미영? {미영?}

10402 # 어, 그 짠 개 무명 베여. {어, 그 짠 것이 무명 베야.}

10402 @ 무명이라 그래요 미영이라 그래요? {무명이라고 그래요 미영이라고 그래요?}

10402 #1 베, 베. 베짜취. 베. {베, 베. 베짜치. 베.}

10402 @ 베짜치? {벧자취?}

10402 #1 어, 베. {어, 베.}

10402 #1 베 짜 가주구 해먼 '아이구: 베짜취 너러 나써 베짜취 너러 나써' 이라자나? {베 짜 가지고 하먼 '아이구 베짜치 널어 났어 베짜취 널어 났어' 이러잖아?}

10402 @ 으: 베짜치는 그러면 짱: 거 갱: 거 그걸 베짜치라 그러나요? {벧자취는 그러면 베짜치는 그러면 짠 것 긴 것 그걸 베짜치라 그러나요?} 10402 #1 베. {베.}

10402 # 짱 걸 가주구 애깁기여. 어: 천: 천:. {짠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어 천 천.}

10402 @ 처:늘? {천을?}

10402 #1 어:. {어.}

10402 #1 시방언 처:나라 카지만 그땐 베: 베짜치. {시방은 천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베 베 짜치.} 10402 @ 베:짜치. {베짜치.}

10402 @ 예에. {예에.}

10402 # 요거닐 요마콤 하지 머 요거. 요거릴 요마콤... {요고를 요만큼 하지 뭐 요거. 요 거를 요만큼...}

10402 @ 요, 요만:침 그지요? 요망:큼 요리:케. {요 요만큼 그렇지요? 요만큼 요렇게.}

10402 # 만:날 이게 왁따 갇따 이래자나. {만날 이게 왔다 갔다 이러잖아.}

10402 @ 그: 그: 그걸 이리:캐 저:기, 아까 꼬치? {그 그 그걸 이렇게 저기, 아까 꼬치?}

10402 #1 예. {예.}

10402 @ 고걸 요로:캐 하며는 시:리 되자녀요? {그걸 요렇게 하면 실이 되잖아요?}

10402 #1 그럼 인재 밀:래애다 그 이르게 가라개. {그럼 이제 물레애다 그 이렇게 갈아야 지.} 10402 @ 그 시:른 무슨, 먼: 시리라 그래요? {그 실은 무슨, 뭘 실이라 그래요?}

10402 #1 어? {어?}

10402 # 미영:실! {무명실!}

10402 #1 미영:시리라구 그러지. {무명실이라고 그러지.}

10402 @ 미영:실? {무명실?}

10402 #1 가라개 무 미영까락. {가락에 무 무명가락.}

10402 #1 미영까락 장: 거넌 그 인재 밀: 미영까락, 아유 애 미영:까락 아이구 마이 잔:내. {무명가락 잔 거는 그 이제 밀, 무명가락, 아유 애 무명가락 아이구 많이 자왔네.}

10402 #1 '항 가락 잔:네, 두 가락 잔:네' 이라자나, 마니 자:면. {'한 가락 자왔네, 두 가락 자왔네' 이러잖아, 많이 자면.}

10402 #1 이르게 하머넌 이르게 항 가락씩 해면 빼 노코 또 자:꼬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가락씩 하면 빼 놓고 또 갖고 또...}

10402 @ 그 물레로 해능 거유? {그거 물레로 하는 거예요?}

10402 #1 야, 물레, 물레 이르게. {예, 물레, 물레 이렇게.}

10402 @ 물레 돌려 가꾸? {물레 돌려 가지고?}

10402 #1 으: 이르게 이르게 이르게 이르게 자꾸. {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꾸.}

10402 @ 그르니까 끈, 꼬치에서? {그러니까 고 꼬치에서?}

10402 #1 야, 실: 나와서. {예, 실 나와서.} 10402 @ 실: 뽀바 가주구 자아 놓개 그개. {실 뽑아 가지고 자아 놓은 게 그개.} 10402 # 실: 뽀바서..{실 뽑아서..} 10402 #1 야, 그래 가주구 인재, {예, 그래 가지고 이제,}

10402 #1 그거덜 열 까락씩 요런 또... {그것을 열 가락씩 요런 또...}

10402 #1 아이고 그기 머라구 히야 또. {아이고 그개 뭐라고 해 또.}

10402 #1 그건 머 이저 버린내. {그건 뭐 잊어 버렸네.}

10402 # 실 나능 거? {실 나는 거?}

10402 #1 어, 실 나르능 거. {어, 실 나는 거.}

10402 #1 이래 가주구 또 베짜치릴 저:기다 머 말뚝 바가 노코 와따 가따 날라 가주구 그래 베짜지. {이래 가지고 또 베짜치를 저기다 뭐 말뚝 박아 놓고 왔다 갔다 날라 가지고 그렇게 베짜지.}

10402 #1 베 하자너. {베를 하잖아.}

10402 #1 쌀마서 아이구:.. {삶아서 아이구.} 10402 # 그기 먼: 트리라구 하는지 모르겐네. {그게 무슨 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10402 @ 말뚝글 바거 가꾸요? {말뚝을 박아 갖고요?}

10402 #1 그건 베 나는, 베 날 베 나르 날라 나라. {그건 베 나는, 베 나를 베 나르 날라 날아.}

10402 @ 다: 짜 놓거? {다 짜 놓은 거?}

10402 #1 아니:. {아니.} 10402 # 실:. {실.}

10402 #1 실: 사 사례. {실 사 사례.} 10402 @ 실:. {실.}

10402 #1 사례릴 인재 열, 미영 까라걸 열 까라걸 요래 또. {사례를 이제 열, 무명 가락을 열 가락을 이렇게 또.}

10402 #1 나사 트래다가 거러 노쿠선 막 나라:. {나사 틀에다가 걸어 놓고선 막 날아.}

10402 #1 저: 질꺼르매다 이르캐, {저 질에다 이렇게.}

10402 @ 시:를, 이리:캐 와따 이리:캐 이캐 가른 거지요? {실을,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렇게 감은 거지요?} 10402 #1 그래 가주구 어:. {그래 가지고 어.}

10402 #1 또 술:루 베 쓸루 매:구. {또 술로 베 술로 매고.}

10402 @ 예에:. {예.}

10402 #1 어. {어.}

10402 #1 바디애가 인재 끼: 가주구 뵈- 술루 매:자너. {바디에다 이제 끼워 가지고 베 술로 매잖아.}

10402 #1 술: 이짜나 여기 술: 매녕 거. {술 있잖아 여기 술 매는 거.} 10402 # 술: 라오 대. {술 나오데.}

10402 # 풀칠 해 가주구선 요, {풀칠 해 가지고는 요.}

10402 @ 아, 풀칠 해서. {아, 풀칠 해서.}

10402 # 미트루 미캐 불: 노쿠서루 불 루애 인재 이러캐 이러캐 땡 거릴 화투불 우애 *** {밀으로 몇 개 불 피우고서 불 위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을 화투불 위에 ***} 10402 #1 웅기뿔 지배 피 피워 노코. {왕겅불 집에 피, 피워 놓고.}

10402 @ 웅기뿔 우애다가? {왕겅불 위에다가?}

10402 #1 그래구 여기 도투마리 여 노코. {그리고 여기 도투마리 여기 놓고.}

10402 #1 거기 저: 도투마리에 저: 저거 느 개민 저르캐, {거기 저 도투마리에 저 저거 넣어 가면서 저렇게.}

10402 #1 제륙매-에 이래 느 개민 대꾸: 말리넨 대루 가:마 가주 그래 짜지. {겨릅대에 이렇게 넣어 가면서 자꾸 말리는 대로 감아 가지고 그렇게 짜지.}

10402 # 그래서 인재 베트래 올라 가능 기여. {그래서 이제 베틀에 올라 가는 거야.}

10402 @ 예:. {예.}

10402 #1 그래 베틀. {그래 베틀.}

10403 @ 모카:, 사문 여기 안 시머썬요? {목화, 삼은 여기 안 심었어요?}

10403 #1 엔:나래 시머썬 안 시머썬. {옛날에 심었썬 안 심었어.}

10403 @ 엔나래 그썬. {옛날에 글썬.}

10403 #1 엔나래 시머썬유 구썬. {옛날에 심었지요 글썬.}

10403 #1 다: 매상해따니까. {다 매상했다니까.}

10403 @ 삼, 삼. {삼, 삼.}

10403 #1 사문 안 해썬. {삼은 안 했어.}

10403 @ 저기 저:... {저기 저...}

10403 # 머 저: 대마? {뭐 저 대마?}

10403 @ 대마 예. {대마 예.}

10403 #1 안 해썬유. {안 했어요.}

10403 # 대마 일번 정치 때 해 가주서루. {대마 일본 정치 때 해 가지고.}

10403 #1 그거넌 몰라, 하넌 사라면 해찌. {그것은 몰라, 하는 사람은 했지.} 10403 #
 *****서루 그 공출 할라구 시머써찌 그 때는 응, 그거:뚜. {*****서 공출 하려고
 심었었어 그 때는 응, 그것도.}

10403 @ 그거뚜 그건, {그것도 그것,}

10403 # 그거 여기서 가공해 가주구서 삼, 베는 안나, 안 짜 바썰요. {그거 여기서 가공해
 가지고 삼, 베는 안 날(아), 안 짜 봤어요.} 10403 @ 으응:. {아아.}

10403 # 내가 알근대는 근대 몰라, 이거 내가 대다패두 갠자나? {내가 일기로는 그런테 몰
 라, 이거 내가 대답해도 괜찮아?}

10403 @ 갠차능 거요, 예. {괜찮은 거예요, 예.} 10403 # 어:. {어.}

10403 @ 그 꺾떠기, 그거뚜 꺾떼기 쓰능 거자너요. {그 꺾떼기, 그것도 꺾떼기 쓰는 거잖
 아요.}

10403 # 아:이 그 꺾떼기루 쓰능 기여. {아이 그 꺾떼기로 쓰는 거야.} 10403 #1 그걸루
 삼베 나넌 기여: 꺾떠기루. {그걸로 삼베 나는 거야 꺾떼기로.}

10403 @ 예:. {예.}

10403 @ 그건, 그걸루 향 개 삼베:. {그건, 그걸로 한 개 삼베.}

10403 # 그건 삼베여. {그건 삼베야.}

10403 #1 근네 내가 해: 보던 안 헨넌대 모도 그걸루 삼베 하더라구. {그런테 내가 해 보
 지는 안 했는데 모두 그걸로 삼베 하더라고.}

10403 @ 그걸루 삼베 하구, 저 모카루 하능 거는...{그걸로 삼베 하고, 저 목화로 하는 거
 는...}

10403 # 무명. {무명.} 10403 #1 베:. {베.}

10403 #1 미명, 미명 베. {무명, 무명 베.} 10403 # 미영, 무명 베 무명 베. {무명, 무명
 베 무명 베.} 10403 @ 무명 베, 미명 베? {무명 베, 무명 베?}

10403 @ 으:으. {아아.}

10403 # 인재 인재 저: 뉘애 꼬추루 하구 쌍 거넌 그건 저: 명주. {이제 이제 저 누에 고
 치로 하고 쌍 것은 그건 저 명주.} 10403 #1 명주. {명주.}

10403 @ 고건 뒤에 나와요, 또. {고건 뒤에 나와요, 또.}

10403 @ 뒤에 또 여쭙 볼 꺼요. {뒤에 또 여쭙 볼 거예요.}

10403 #1 아유: 원재 여쭙: 아유 질렁나. {아유 언제 여쭙, 아유 진력나.}

10407 @ 그럼 길쌈할 때 아까 인재 배트리라 그래짜나요. {그럼 길쌈할 때 아까 이제 베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10407 @ 씨 빼능 거는 씨아시구. {씨 빼는 것은 씨아고.}

10407 10408 #1 응, 그건 씨아시구. {응, 그건 씨아고.}

10407 @ 이르:캐 인재 실: 감능 거 이르:캐, 동:그러캐 돌리능 거 이짜나요? {이렇게 인재
 실 감는 거 이렇게 둥그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10407 10408 # 물:래. {물
 래.}

10407 @ 그거는 물:래라 그래구. {그것은 물래라고 그러고.} 10407 10408 #1 물:래여
 물:래, 미영 잔는다고. {물래야 물래, 무명 잣는다고.}

10407 @ 예. {예.}

10407 10408 #1 물:래지 물:래, '물:래 어디가썬, 물:래질 해야지, 미영 자야지:' 이라구.
 {물래지 물래, '물래 어디갔어, 물래질 해야지, 무명 자아야지' 이라고.}

10407 @ 얼래래능 거뚜 이썬요, 얼래? {얼래라는 것도 있어요, 얼래?}

10407 10408 #1 월:래는 우:꾸:, {얼래는 없고,}

10407 @ 얼래. {얼래.} 10407 10408 #1 월래는 우:꾸 미명 저: '미명 자:야지 몰래 가따
놔:' 그러지. {얼래는 없고 무명 저 '무명 자아야지 몰래 갖다 놔' 그러지.}

10407 @ 그래 가꾸 인재 그 다 자:면 시:리 대 이짜나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다 자으
면 실이 되어 있잖아요?}

10407 @ 그걸 인재 베트래 올려 가지고, {그걸 이제 베틀에 올려 가지고,}

10408 #1 어:, 가락, 시 미영 까락. {어, 가락, 시 무명 가락.}

10408 @ 미영 까락. {무명 가락.}

10408 #1 미영 까락 가따가 인재: 이르캐 저기 거시기 트래다 이르캐 꼬바 가주 나라서
그래 인재 그개 미영 베 난능 거유. {무명 가락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저기 거시기
틀에다 이렇게 꼽아 가지고 날아서 그래서 이제 그개 무명 베 나는 거예요.}

10408 @ 베 나능 거지요? {베 나는 거지요?} 10408 #1 으:. {응.}

10408 @ 그: 베 날 때 인재 베틀 아까 이름 이짜나요? {그 베 날 때 이제 베틀 아까 이름
있잖아요?}

10408 @ 그거 인재 마, 말쓰를 하션는데 아까 제가 이거 인재 안 해짜나요. {그거 이제
마 말쓰를 하션는데 아까 제가 이거 이제 안 했잖아요.}

10408 @ 그거 한 번 쪽: 얘기해 보세요. {그거 한 번 죽 얘기해 보세요.}

10408 @ 그 베틀 이름. {그 베틀 이름.}

10408 @ 지금 할머니 말씀해 주실려고 항 거. {지금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려고 한 거.}

10408 #1 베 저 베 짜서: 이러캐 짜서 마능 거닌 말코:. {베 저 베 짜서 이렇게 짜서 마는
것은 말코.}

10408 @ 예. {예.}

10408 #1 말코여, 거기 그기 이썬? {말코야, 거기 그게 있어?} 10408 # 가, 가마이 차
저... 나올라나. {가, 가만히 찾아... 나오려나.}

10408 @ 그냥 말씀하세요 예. {그냥 말씀하세요 예.}

10408 @ 여기 어디: 이쓰 건대. {여기 어디 있을 건데.}

10408 @ 어딘는지 모르겐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10408 @ 이개 씨 씨아시지요? {이게 씨 씨아지요?} 10408 # 어, 건 씨아시여. {어, 그건
씨아야.}

10408 #1 그건 씨아시내. {그건 씨아네.}

10408 @ 씨아시구. {씨아고.}

10408 #1 어. {어.}

10408 #1 씨아시여. {씨아야.} 10408 @ 요거는? {요것은?}

10408 # 그건 저기: 자새:. {그건 저기 자새.}

10408 # 꿀 뽕이 소 꿀뽕이 디리구 하는 자새. {고빼 소 고빼 들이고 하는 자새.} 10408
#1 자새. {자새.}

10408 @ 자새? {자새?}

10408 # 자새. {자새.}

10408 @ 요거는? {요것은?}

10408 # 그 물:래여 그기. {그게 물레야 그게.}

10408 @ 이게 물레고? {이게 물레고?} 10408 #1 이기 물:래여 이기. {이게 물레야 이게.}

10408 # 이견 괴:머리구. {이견 괴머리고.}

10408 #1 어. {어.}

10408 # 이견 괴:머리. {이견 괴머리.}

10408 @ 괴:머리. {괴머리.}

10408 #1 어, 미명: 까락 잔:능 건, {어, 무명 가락 찾는 건,}

10408 # 거기 또 그 또 가락또 인내 거기. {거기 또 그 또 가락도 있네 거기.}

10408 #1 야:. {예.}

10408 @ 요 강: 개 가라가지요, 이게? {요 긴 게 가락이지요, 이게?}

10408 #1 야, 미영 까락. {예, 무명 가락.} 10408 # 그 가라기여. {그게 가락이야.}

10408 @ 가라기고 요거는 괴:머리? {가락이고 요것은 괴머리?}

10408 # 음:, 괴:머리. {응, 괴머리.}

10408 @ 이게 괴:머리고 요개 가라기고, 이게 전체가? {이게 괴머리고 요개 가락이고, 이게 전체가?}

10408 # 물 물레. {물 물레.}

10408 @ 물레고. {물레고.} 10408 #1 물:레. {물레.}

10408 @ 예. {예.}

10408 @ 여기 베틀 그리미 이거 말고 이썬는데 여기는 업나부내요? {여기 베틀 그림이 이거 말고 있었는데 여기는 없나보네요?}

10408 @ 함 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베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베틀...}

10408 @ 어떤 이르미 인는지. {어떤 이름이 있는지.}

10408 @ 아까 허리에: 하능 건 머:라 그래따 그래찌요? {아까 허리에 하는 건 뭐라 그랬다 그랬지요?}

10408 #1 말코. {말코}

10408 #1 말:코. {말코.} 10408 @ 이거 이거. {이거 이거.}

10408 #1 어? {어?}

10408 @ 여기 허리에 이르케 하능 거. {여기 허리에 이렇게 하는 거.} 10408 #1 어, 허리에 디에 다능 거 말켜. {어, 허리에 뒤에 대는 거 말코.} 10408 # 부티여 부티. {부티야 부티.}

10408 #1 어, 디에 대능 거 부:태. {뒤에 대는 거 부티.}

10408 @ 부:테. {부티.} 10408 # 이기 그기 이거여 부:태. {이게 그게 이거야 부티.}

10408 #1 어. {어.}

10408 #1 아패 이르케 이르케 가마 돌리서 요기 대능 건 말코. {앞에 이렇게 이렇게 감아 돌려서 요기 대는 건 말코.}

10408 # 이거 소 소 요거 손재비. {이거 소 소 요거 손잡이.}

10408 #1 이거넌, {이것은,}

10408 # 요거 손재비 요기 인내 요기, 요 손재비 요거 손 대짜너? {요거 손잡이 여기 있네 여기, 요 손잡이 요거 손 댔잖아?}

10408 #1 저기 아니여? {저기 아니야?}

10408 # 베 베 짚대루 이르케 감넌 거. {베 베 짚대로 이렇게 감는 거.}

10408 # 이래 가마서. {이렇게 감아서.} 10408 @ 요 요쫓개 요기? {요 요쫓개 요기?}

10408 # 어 어 그리여. {어 어 그래.} 10408 #1 어. {어.}

10408 @ 이쫓:가패두 여기 넓쫓개 거 두: 개 이꾸, 요기다가 쫓 거 감쫓요, 이려:개 둘러서? {이쫓:앞에도 여기 넓쫓개 거 두 개 있고, 요기다가 쫓 거 감쫓요, 이렇게 둘러서?}

10408 # 이거시 인재 여기 와서 갱기여. {이것이 이제 여기 와서 감겨.}

10408 @ 예. {예.}

10408 # 베 짜면 인재 여 와서 갱기여. {베 짜면 이제 여기 와서 감겨.}

10408 @ 예. {예.}

10408 # 아가 이 아가씨 아패 와서 갱기여. {아가 이 아가씨 앞에 와서 감겨.}

10408 @ 예: {예.}

10408 # 으:, 그 말코에서 감:기능 기여. {응, 그 말코에서 감기는 거야.} 10408 #1 그리여 말코. {그래 말코.}

10408 @ 요개 말코? {요개 말코?}

10408 #1 여 디애 디애: 여기 부태 부태고, 디애 요르개 대녕 거넌. {여기 뒤에 뒤에 여기 부티, 부티고, 뒤에 요렇게 대는 것은.} 10408 # 부:테. {부티.}

10408 @ 예, 이개 허리 디애? {예, 이개 허리 뒤에?} 10408 #1 어. {어.}

10408 #1 그라구 이: 저기 저기 하녕 거넌 부 북:. {그리고 이 저기 저기 하는 것은 부 북.}

10408 # 북:. {북.}

10408 @ 와따 가따 하능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10408 # 고거 실: 실: 느 자주구 요래 와따 가따 하능 거. {고거 실 실 넣어 가지고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10408 #1 북:. {북.}

10408 @ 예. {예.}

10408 #1 그 인저: 부개다 꾸리 비, 꾸리 인재 이르개 요러개 비: 자주구 꾸리 느꾸. {그 이제 북에다 꾸리 베, 꾸리 이제 이렇게 요렇게 베 가지고 꾸리 넣고.} 10408 # 그 그르치 꾸리. {그 그르치 꾸리.}

10408 # 거 시 실: 꾸리 는능 기여 그 아내. {거기 실 실꾸리 넣는 거야 그 안에.} 10408 #1 또 어, 또 인저 요기 요 매따, 요기 이 이기 응앵가 잉아? {또 어, 또 이제 요기 요 매달(아), 요기 이 이게 잉아인가 잉아?}

10408 #1 저기 응. {저기 응.}

10408 @ 요 아패 인능 거 질개 이르:개 머리 아패 나옹 거 이거 머요? {요 앞에 있는 거 길게 이렇게 머리 앞에 나온 거 이거 뭐예요?}

10408 # 그기 그기 이 잉 잉아, 잉아 거룽 기여. *** 잉아. {그게 그게 이 잉 잉아. 잉아 건 거야. *** 잉아.} 10408 #1 잉아, 잉아, 잉아여 잉아. 잉아 거능 기여 이기. {잉아, 잉아, 잉아야 잉아. 잉아 거는 거야 이게.} 10408 @ 잉아? {잉아?}

10408 #1 예, 잉아. {예, 잉아.}

10408 # 어:, 이아때. {어, 잉앗대.}

10408 #1 잉아 거룽 거여. {잉아 건 거야.}

10408 @ 이거는뇨? 요 긴: 거 요기. {이것은요? 요 긴 거 요기.}

10408 # 그 활 거튼 거? {그 활 같은 거?}

10408 @ 예, 이르케 활 카튼 거. {예, 이렇게 활 같은 거.}

10408 #1 거시기. {거시기.}

10408 # 그개 그개 자부 달리머닌 이개 올라가고. {그개 그개 잡아 당기면 이개 올라가고.}

10408 #1 발, 발로. {발, 발로.}

10408 # 자부 달리면 이개 올라가구: 허리쭈멀 이러카면 이개 너리가구:, 이기 그러케 여 괘 하능 기여, 이기. {잡아 당기면 이개 올라가고 허치춤을 이렇게 하면 이개 내려가고, 이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야, 이개.} 10408 #1 그리여. {그래.}

10408 @ 그개 잉아구, 요거는? {그개 잉아고, 이것은?}

10408 # 잉아는 인재 요: 미태 드러찌, 인재 요 뵈이덜 안해 그러치 요 미태 드러찌. {잉아는 이제 요 밑에 들어 있지, 이제 요기 보이질 안해서 그렇지 요 밑에 들어 있어.}

10408 @ 예:. {예.}

10408 # 으:, 그기 인재 잉아라능 기 요기 인재. {응, 그개 인재 잉아라는 게 요기 이제.}

10408 #1 이기, {이제.}

10408 #1 요거 이러멀 이저 버리서 안 다노내. {이거 이름을 잊어 버려서 안 나오네.}

10408 #1 요기 신, 요기 신 싱:꾸 와따 가따 하능 거 여. {요기 신, 요기 신 신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10408 # 그러 그러, 그러. {그래 그래, 그래.}

10408 #1 어, 신 싱꾸, 그라고 어:. {어, 신 신고, 그리고 어.} 10408 # 요 주리, 요 요 줄 요기 인쇄, 줄. {요 줄이, 요 요 줄 요기 있네, 줄.}

10408 @ 신추리? {신추리?}

10408 # 신추리가 아니여. {신추리가 아니야.}

10408 # 그기 머:라고 하덩구만 머 이러버런내. {그게 뭐라고 하더구면 뭐 잊어버렸네.}

10408 @ 이거는 머:라 그래요, 이거는 활때?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활대?}

10408 #1 그 글썸:, 요기 요기 요거여, 요기. {그 글썸, 요기 요기 요거야, 요기.}

10408 # 으:, 그기 그개. {응, 그개 그개.} 10408 #1 신 싱꾸 저기 하녕 거여. {신 신고 저기 하는 거야.} 10408 # 그기 그개. {그개 그개.}

10408 #1 요기 잉아닌 요기 잉아닌 와따 가따 와따 가따 인쇄. {요기 잉아는 요기 잉아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10408 #1 발루 이르케 자바 땡기면 발라 와따 가따 하고. {발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발로 와따 가따 하고.} 10408 # 그래 일태면 시:리 이래 된는데 이개 자버 땡기면 이러케 올라가구:. {그래 이를테면 실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개 잡아 당기면 이렇게 올라가고.}

10408 @ 예. {예.}

10408 # 허리썤멀 거시키 해서 이러케 주면 이 알루 너리가구. {허리 힘을 거시키해서 이렇게 주면 이 아래로 내려 가고.} 10408 #1 이견 저거 아니여? {이견 저거 아니야?}

10408 #1 이견 도투마리 아니여? {이견 도투마리 아니야?}

10408 # 그건 마자. {그건 맞아.}

10408 @ 예. {예.} 10408 #1 도투마리. {도투마리.}

10408 @ 예. {예.}

10408 #1 도투마리여. {도투마리아.}

10408 # 그래 그래 ***. {그래 그래 ***.} 10408 @ 이게 도투마리. {이게 도투마리.}

10408 #1 도투마리. {도투마리.}

10408 @ 예. {예.}

10408 #1 어, 도투마리구. {응, 도투마리고.}

10408 @ 이견 부:태구. {이견 부티고.} 10408 #1 응, 부태:. {응, 부티.}

10408 @ 요기 아패 두: 개 요로:캐 나옴 거 이견 머요? {여기 앞에 두 개 이렇게 나온 거 이견 뭐예요?}

10408 @ 작, 짹때기 이러:캐, 끈. {작, 작대기 이렇게, 끈.}

10408 #1 잉아, 잉아. {잉아, 잉아.}

10408 @ 이게 잉아구. {이게 잉아고.} 10408 #1 잉아때. {잉앗대.} 10408 @ 잉아. {잉아.}

10408 #1 잉아때. {잉앗대.}

10408 @ 잉아때. {잉앗대.}

10408 #1 어. {응.}

10408 @ 그 다매: 요 강: 거 이견 머예요? 여기 이러:캐. {그 다음에 요 긴 거 이견 뭐예요? 여기 이렇게.}

10408 #1 그기 그기 잉아때 아녀? {그게 그게 잉앗대 아니야?}

10408 #1 이기 그기 잉아떨 곁? {이게 그게 잉앗대일 곁?}

10408 #1 이르캐 두: 개가 늘어저썩캐. {이렇게 두 개가 늘어졌으니까.} 10408 # 이기 이개 그거여. {이게 이게 그거야.}

10408 #1 어:. {어.}

10408 #1 이기 등애 찌여 올라가따 내리와따 올라가따... {이게 등에 ** 올라갔다 내려와따 올라갔다...}

10408 # 요개 꼬챙이가 진: 테. {요개 꼬챙이가 긴 테.}

10408 #1 어. {어.}

10408 # 이거 두: 개가 여기 배켜썩요. {이거 두 개가 여기 박혔어요.} 10408 #1 이기 이기 배키저 가주구 이걸 시넬 싱꾸 자버 땡기면 올라가구. {이게 이게 박혀 가지고 이걸 신을 신고 잡아 당기면 올라가고.}

10408 #1 노:던 너리가구, 그래서 짜능 기여 이게. {놓으면 내려가고, 그래서 짜는 거야 이게.} 10408 # 그리여, 그래서 이기 이 이래... {그래, 그래서 이게 이 이렇게...}

10408 @ 용, 용:두머리래능 거. {용, 용두머리라는 거.} 10408 #1 용두... {용두...}

10408 #1 어, 용두머리가, 참 이기? {어, 용두머리인가, 참 이게?}

10408 #1 용두머리지? {용두머리지?}

10408 # 그래 용두머링 개비다 그기 용두머리여. {그래 용두머리인가 보다 그게 용두머리야.} 10408 #1 용두머리여, 용두머리. {어. 용두머리야, 용두머리.}

10408 # 용두머리여 이게. {용두머리야 이게.}

10408 @ 어떻 거가요? {어떤 거가요?}

10408 # 요 요기 요 요 요, {요 요기 요 요 요,}

10408 #1 요 꾸부령:한, {요기 구부정한.} 10408 @ 활카치 생깁 거? {활같이 생긴 거?}

10408 # 꾸부령:한. {구부정한.}

10408 # 꼬챙이 꼬챙이 바근 거시 팬 이거시 용두머링 개비여. {꼬챙이 꼬챙이 박은 것이
팬 이것이 용두머리인 가봐.} 10408 #1 꼬부랑:한 기 용두머리여, 용두, 용두.
{구부정한 게 용두머리아, 용두, 용두.}

10408 @ 저기 활가치 생긴 거애 바근 긴: 작때기? {저기 활같이 생긴 것에 박은 긴 작대
기?} 10408 #1 야, 어 용두머리여. {예, 어 용두머리아.}

10408 # 그 용두머리라 그리야. {그걸 용두머리라 그래.}

10408 @ 용두머리구. {용두머리고.}

10408 @ 요 아패 부기 이꾸, 고 북 아내? {요기 앞에 북이 있고, 고 북 안에?}

10408 # 실:. {실.} 10408 @ 실:. {실.}

10408 #1 저기 꾸리. {저기 꾸리.} 10408 @ 꾸리, 꾸리가 이꾸. {꾸리, 꾸리가 있고.}

10408 #1 꾸리. {꾸리.}

10408 @ 예. {예.}

10408 # 실:꾸리라 그래자너 실:꾸리. {실꾸리라고 그리잖아 실꾸리.} 10408 @ 그리고 그
시 실: 요로케 요로케 치능 거 이찌요? {그리고 그 시, 실을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있지요?}

10408 #1 잉아여, 잉아 잉아, 잉아때. {잉아야, 잉아 잉아, 잉앗대.}

10408 @ 땡기 땡기능 거. {당기 당기는 거.}

10408 #1 잉아. {잉아.} 10408 @ 아니 저: 실: 구멍애 이로:캐 너 가주고. {아니 저 실
구멍애 이렇게 넣어 가지고.}

10408 #1 어어:. {어.}

10408 @ 그건 머요? {그건 뭐예요?}

10408 #1 그검 부기지 머 북:. {그건 북이지 뭐 북.}

10408 # 부기여 그개. {북이야 그개.}

10408 #1 부기여 북. {북이야 북.}

10408 #1 구녕 똥퍼 가주구. {구멍 뚫어 가지고.}

10408 @ 이쪽 저쪽 와따 가따 하능 거.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거.} 10408 #1 야,
이러캐. {예, 이렇게.}

10408 #1 그기 부기유, *** 그기. {그게 북이에요, *** 그개.}

10408 # 이기 이기 잉아떨새, 잉아때. {이게 이게 잉앗떨새, 잉앗대.}

10408 # 잉아 다: 걸면 이걸 뽀바 내자나. {잉아 다 걸면 이걸 뽀아 내잖아.}

10408 # 뽀, 아이 뽀바 내능 개 아니라 저기 여기 잉아 잉아가 저기 거 걸리 가주서루 여
기서 작동하능 거 아니여 그기? {뽀, 아니 뽀아 내는 게 아니라 저기 여기 잉아
잉아가 저기 거 걸려 가지고 여기서 작동하는 거 아니야 그개?} 10408 #1 글썸,
머 하도 오래 돼:서 머. {글썸, 뭐 하도 오래 돼서 뭐.} 10408 @ 예:. {예.}

10408 #1 오:래 돼서 인저 그렇 거 다:.... {오래 돼서 이제 그런 거 다...} 10408 # 그르캐
작동해. {그렇게 작동해.}

10408 # 이 이 꼬닐 보녕개 그리여, 이거 꼬닐 보녕개루. {이 이 끈을 보니까 그래, 이 끈
을 보니까.}

10408 #1 옴:나래 야: 나쿠, 저기 어, 언:나 나:쿠서넌. {옛날에 아기 낳고, 저기 어 어린애
낳고서는.}

10408 # 으:. {응.}

10408 #1 안: 헨넨대 머, 저기... {안 했는데 뭐, 저기...}

10408 #1 유기사변 나구선 다: 짐 내부리짜나, 그: 저거:. {육이오사변 나고선 다 짐 내버렸잖아, 그 저거.}

10408 #1 전비 다 지버 내버리썬:. {전부 다 집어 내버렸어.}

10408 @ 바디두 이썬요? {바디도 있지요?}

10408 #1 어? {어?}

10408 # 으:~? {응?}

10408 @ 바디. {바디.}

10408 @ 바디. {바디.}

10408 # 바디, 바디? {바디, 바디?}

10408 @ 예. {예.}

10408 # 바디: 이기 바, {바디 이게 바,} 10408 #1 바디가:, {바디가,} 10408 # 음:. {응.}

10408 #1 바디가 저기 바디집 소:기 드릉 기 바디여, 바디:집. {바디가 바디가 저기, 바디집 속에 들은 게 바디야. 바디집.}

10408 # 그리여. {그래.}

10408 # 이러캐 이러캐 된 데 이기 바디지비구. {이렇게 이렇게 된 데 이게 바디집이고.}

10408 #1 어:, 소:개 들. {어, 속에 들은.} 10408 # 여기 소:개 여 바디가 여 다: 드러썬. {여기 속에 여기 바디가 여기 다 들었어.} 10408 #1 이 바디애다가 이 시:릴 다 끼:자나, 바디애다 눈누리. {이 바디애다가 이 실을 다 꿰잖아, 바디애다 눈마다.}

10408 @ 하나 하나 끼는 거지요? {하나 하나 꿰는 거지요?} 10408 #1 야, 야. {예, 예.}

10408 # 그러치. {그렇지.}

10408 #1 그래 가주구 그래 그기 짜능 기유. {그래 가지고 그렇게 그게 짜는 거예요.}

10408 # 근대 인재 알:루 올라가구 너리가구 저 우:루 올라가구 너리가구 하능 개 여기에서 인재 갈리미 돼: 이썬 여기서. {그런데 이제 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갈림이 되어 있어 여기서.}

10408 # 여기 이, 여기 이거에서 시:리. {여기 이, 여기 이거에서, 실이.} 10408 @ 음:. {음.}

10408 # 그래잉개 그랭개 이러캐 이러 이러캐 대: 이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 이렇게 되어 있지.}

10408 # 이러:캐 이러캐 이러캐 이러캐 이러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0408 @ 예 예 예. {예 예 예.}

10408 # 이러 끌:고 올라가구. {이렇게 끌고 올라가고.} 10408 #1 끌:구 가구. {끌고 가고.} 10408 # **면 너리가구. {**면 내려가고.}

10408 #1 이래: 그거릴 잉아애다가 요러캐 죄: 오리릴 요로캐 해 가주구 이르캐 다라 매니께, {이렇게 그것을 잉아애다가 요렇게 죄다 오리를 요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달아 매니까,} 10408 # 그러치. {그렇지.}

10408 #1 이기 너리가면 봉 느쿠 올라가면 봉 느쿠 너리가만 봉 느쿠, 그기 그기여. {이게 내려가면 북 넣고 올라가면 북 넣고 내려가면 북 넣고, 그게 그거야.}

10408 @ 할때래능 거뚜 이썬요, 할때? {할대라는 것도 있어요, 할대?}

10408 #1 응? {응?}

10408 @ 할때. {할대.}

10408 @ 말코래능 건, 아까 요기 아패 인능 개. {말코라는 거, 아까 요기 앞에 있는 게.}

10408 # 도투마리. {도투마리.}

10408 @ 여기. {여기.}

10408 # 용두머리라능 기 이기 이기 이 그경 가배:?. {용두머리라는 게 이게 이게 이 그건 가봐?}

10408 # 용두머리라구. {용두머리라고.} 10408 #1 용도머릴 가주구 할때여:. {용두머리를 가지고 할대(라고 하는 거)야.}

10408 #1 이 꾸부름항 기 스치느루 자바 땡기면 올라가구 올라가구, 이 그기 용두머리여 그기. {이 구부정한 게 **으로 잡아 당기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 그게 용두머리야 그게.}

10408 # 으:. {응.}

10408 #1 그기 할때여. {그게 할대야.}

10408 #1 할때가 그거여. {할대가 그거야.}

10408 @ 할때래능 거 하구 용두머리라능 거 하구 이르미 이씨요? {할대라는 거 하고 용두머리라능 거 하고 이름이 있어요?}

10408 # 용두머리는, 용두머린 요걸 어:. {용두머리는, 용두머리는 요것을 어.}

10408 # 아이 용두머리 요거 올케 저건내비여. {아니 용두머리 요거 옹게 적었나 봐.}

10408 # 이러케 된 대 양짜개 이러케 이러케 드리가서 이기 이러케 이러케 이러케 이러케 하능 기여 이기. {이렇게 된 데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10408 @ 예:. {예.}

10408 # 그래서 인재 이거 두: 개 꼬터머리에 꼬니 달려 가주구서 인재 잉아 이거 이거 자꾸 작동열 해 주능 기여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꼬트머리에 끈이 달려가지고서 이제 잉아 이거 이걸 잡고 작동을 해 주는 거야 이거.}

10408 @ 예:. {예. }

10408 # 어, 이거. {어, 이거.}

10408 # 이 새재기에서루 시:리 올라가구 너리가구 거기서 인저 그 츠 그래 되닝 거여, 이기. {이 사이에서 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그 처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10408 @ 말코래능 거뚜 이씨요? {말코라는 것도 있어요?}

10408 # 말코래능 건 여기 저 베 베 짜서 감:닝 거. {말코라는 건 여기 저 저 베 베 짜서 감는 거.} 10408 #1 말코 여기 디애: 여 디애다 저 짜맹 기 말코여 말코. {말코 여기 뒤에 여기 뒤에다 저 동여맨 게 말코야 말코.}

10408 #1 저기 머여 {저기 뭐야.} 10408 # 베 짱 거 감:닝 거. {베 짱 것 감는 거.}

10408 #1 베 짜닝 거닐 이르키 꼬쟁이 이르케 이르케 가주구. {베 짜는 것을 이렇게 꼬챙이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10408 # 감:짜나? {감잖아?}

10408 #1 저: 베 짜면 요래 돌돌돌 가르면 이 저기 여기 여 부:태... {저 베 짜면 요렇게 돌돌돌 감으면 이 저기 여기 여 부티...} 10408 # 꼬쟁이, 꼬쟁이가 이짜나? {꼬챙이 꼬챙이가 있잖아?}

10408 #1 이 부태 이러케 이르케 해 가주구 이르케 이르케 가마 가주구 잔:뜯 심 쓰자나.

{이 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감아 가지고 잔뜩 힘 쓰잖아.}

10408 #1 그기 그기 부:태라구, 부:태. {그게 그게 부터라고, 부터.}

10408 @ 말코는? {말코는?} 10408 #1 말:코구 말코구 그기. {말코고 말코고 그제.}

10408 #1 요기 요기 감:능 기 말:코구. {요기 요기 감는 게 말코고.} 10408 @ 감, 그렇까
짱: 거 가마 놓 거? {감, 그러니까 짱 거 감아 놓은 거?} 10408 #1 야, 말:코.
{예, 말코.} 10408 # 말코 꼬재이 ***덧 저:, {말코 꼬챙이 ***덧 저,}

10408 # 요기서 요로:캐 요로캐서 요기 요기. {요기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기 요기.}

10408 @ 예. {예.}

10408 # 요로캐 요기 거 띠: 내버리구 또 이짜개두 요로:캐서 요로캐서 요로캐 띠: 내버리
구. {요렇게 요기 거 떼어 내버리고 또 이쪽에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떼어 내버리고.}

10408 @ 예. {예.}

10408 #1 으:, 그래서 그기 말:코여. {응, 그래서 그게 말코야.}

10408 # 이 부:테, 부 부:테 여기 이짜나? {이 부터, 부 부터 여기 있잖아?}

10408 # 이 부:테 꼬니 이짜개두 꼬니 이꾸 이짜개두 꼬니 여기 이썸. {이 부터 끊이 이쪽
에도 끈이 있고 이쪽에도 끊이 여기 있어.} 10408 #1 그래 인재, {그래 이제,}

10408 @ 예:. {예.}

10408 # 그래 이거릴 베 짜너니가 안자서 *****. {그래 이것을 베 짜는 이가 앉아서
*****.} 10408 #1 여기다 말코릴, {여기다 말코를,}

10408 #1 이기, 이기 저 베짜치면유 여기다 말코릴 요기다 느: 가주 돌돌돌돌... {이게, 이
게 저 베짜치면유 여기다 말코를 요기다 넣어 가지고 돌돌돌돌...}

10408 # 그리여. {그래.} 10408 #1 저 마라요. {저 말아요.}

10408 #1 마라 가주구서넌 또 잔뜩 퍼치구, 그래 그기 말코유, 말코. {말아 가지고서는 또
잔뜩 퍼고, 그래 그게 말코예요, 말코.} 10408 # 그걸 막때기 지금 **짜나? 말코
막때기, 막때기여, 응 막:때기. {그걸 막대기 지금 **잖아? 말코 닥대기, 막대기야,
응 막대기.}

10408 @ 예:. {예.}

10408 # 그러면 인재 찌우루면 이짜기 찌우루면 이짜걸 조금 느추구, 이짜개 또 끼면 또
저 치면 이짜걸 늘쿠구, 그래 가물 찌개넌 이짜걸 풀러 노쿠션 인재 이걸 소누루
마라.{그러면 이제 기울면 이쪽이 기울면 이쪽을 조금 늦추고 이쪽에 또 기울면
또 저 기울면 이쪽을 늘리고 그래서 감을 적에는 이쪽을 풀어 놓고서는 이제 이걸
손으로 말아.}

10408 @ 예:. {예.} 10408 # 이거릴 짱 거릴. {이것을 짱 것을.} 10408 @ 예 예. {예
예.} 10408 # 그래서 마치마께 또 여기다가. {그래서 또 마침맞게 또 여기에다
가,} 10408 #1 그래 가주구 잔뜩 버티구.{그래 가지고 잔뜩 버티고.}

10408 # 그래니까 반:대지 인재 이짜카고 이짜카고 반:대적 감지. {그러니까 반대지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 반대로 감지.}

10408 # 이러캐 가마쓰면 이짜겐 이짜개루 이러캐 되구. {이렇게 감았으면 이쪽에는 이쪽
으로 이렇게 되고.}

10408 @ 예:. {예.}

10408 # 그래 자부 땡기면 서로 시멜 써서 암 푸러지지. {그래서 잡아 당기면 서로 힘을

써서 안 풀어지지.}

10408 @ 예:. {예.}

10408 @ 그거 하능 걸 질쌘한다 그래요? {그거 하는 걸 질쌘한다고 그래요?}

10408 #1 질쌘한다구, 어. {질쌘한다고, 어.} 10408 # ** 질쌘이지 머, 질쌘이여. {** 질쌘이지 뭐, 질쌘이야.}

10409 @ 그: 할 때 인재 지 기리 지리:가 이짜나요, 지력찌가. {그거 할 때 이제 기 길이 길이가 있잖아요, 길이가.}

10409 # 음:. {음.}

10409 # 그러치 인재 지력찌는 인저, {그렇지 이제 길이는 이제,} 10409 @ 그거 그거 일정한 지력찌루 이러캐 팔기두 하구 그러지요? {그거 그거 일정한 길이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지요?}

10409 # 그러치 인재:. {그렇지 이제.}

10409 @ 그걸 머:라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10409 #1 인재: 그거넌: 그거넌 필루. {이제 그거는 그거는 필로.}

10409 @ 필, 피리면 어느...{필, 필이면 어느...}

10409 #1 열:, 서른 자 함 피리던지 시무 자 함 피리던지 끈넌 대루. {열, 서른 자 한 필이든지 스무 자 한 필이든지 끊는 대로.}

10409 @ 아 아:. {아 아.}

10409 #1 시무 자 함 피리던지 서른 자 함 피리던지 고르캐 끈넌 대루. {스무 자 한 필이든지 서른 자 한 필이든지 그렇게 끊는 대로.} 10409 # 거기선 거기서 인재 풀롱거, 풀러서 짤 거 인저 맨 짜 인재 될 만창 하만 인재 고거 예상해서면 가새루 꼬너 버리고서, {거기서 거기서 이제 푼 것, 풀러서 짤 거 이제 몇 자 이제 될 만큼 하면 이제 그거 예상해서 가위로 끊어 버리고서,} 10409 #1 이 저기 {이 저기.}

10409 #1 이 이거릴 베릴 나르면 저기 니: 피릴 날거던? {이 이것을 베를 날면 저기 네 필을 날거든?}

10409 #1 꼬쟁일 니: 개릴 요래 다라 노코 니: 피릴 이래 이르캐 거러 노머넌 니: 피리어 그개, 한 틀 하능 기. {꼬쟁이를 네 개를 이렇게 달아 놓고 네 필을 이렇게 이렇게 걸어 놓으면 네 필이야 그개, 한 틀 하는 게.}

10409 #1 그러면 고: 쭈꺼멍얼 가따가 요래 요래 발라 노면 인재 고거 짜면 인저 꼬너. {그러면 그 솟을 갖다가 요렇게 요렇게 발라 놓으면 이제 고것 짜면 이제 끊어.}

10409 #1 그래 그래 그걸 함 피리라카능 기여. {그래 그래 그걸 한 필이라고 하는 거야.}

10409 @ 그럼 함 피리면 보통은 몇 짜요? {그러면 한 필이면 보통는 몇 자요?}

10409 #1 아이 시무 자: 함 필두 이꾸 서른 자 함 필두 이꾸 그리여. {아이 스무 자 한 필도 있고 서른 자 한필도 있고 그래.} 10409 # 그건 증:하기 달려썩요. {그건 정하기에 달려썩어.}

10409 @ 그냥 저:기, {그냥 저기,}

10409 #1 마:니 하면 서른 자가 한 필. {많이 하면 서른 자가 한 필.} 10409 @ 베, 베 짜는 사람 마:미애요? {베, 베 짜는 사람 맘이애요?} 10409 #1 야. {예.}

10409 # 그러치 머. {그렇지 뭐.} 10409 #1 아니: 고러캐 이 나라서 인재 지리기릴 하넌, 할 타시지. {아니 그렇게 이 날아서 길이를 하는, 할 타이지.}

10409 #1 애! 여 와 즈:나 바더 바. {애! 여기 와서 전화 받아 봐.}

10409 @ 음:. {응.}

10410 @ 하루에 얼마나 잘 수 이썬썬요? {하루에 얼마나 잘 수 있었어요?}

10410 #1 아유 몰:라유, 그거넌 나가, {아유 몰라요, 그것은 나가,} 10410 @ 할머니 하루 짜면 얼마나 짜썬썬요? {할머니 하루 짜면 얼마나 썬썬요?} 10410 #1 그건 몰라. {그건 몰라.}

10410 # 얼마 모: 짜요. {얼마 못 짜요.}

10410 #1 요곰만 모: 짜지 머:, 그래잉개, {조금밖에 못 짜지 뭐, 그러니까,}

10410 @ 함 썬 썬 짜요? {한 썬 짜요?}

10410 #1 함 썬 짜만 함 썬 모: 짜요. {한 썬 짜면, 한 썬 못 짜요.}

10410 #1 잘: 짜넌 이넌 하루 함 썬 썬다대. {잘 짜는 이는 하루 한 썬 썬다대.}

10410 #1 탁탁타타타타타카넌 함 썬 썬다카던데 우리넌 그건 모: 짜. {탁탁탁탁 탁탁탁하는 한 썬 썬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건 못 짜.}

10411 @ 질썬할 때 머 힘드러면 거나 머 그런 애기 이썬썬요? {질썬할 때 뭐 힘들었던 거나 뭐 그런 애기 있어요?}

10411 #1 아이 심드러썬유:, 그거 할 때:. 만날 머 그저 머. {아이 힘들었지요, 그거 할 때. 만날 뭐 그저 뭐.} 10411 # 싱냥, 싱냥이 읍썬썬루 ***면 배고파 가머 짜썬 머. {식량, 식량이 없어서 ***면 배고파 가머 썬지 뭐.}

10411 # 으: 싱냥이 이썬? {식량이 있어요?} 10411 #1 아침 뺨 지넌 썬 그거 머꾸 사라썬니까. {아침 밥 저녁 썬 그거 먹고 살았으니까.}

10411 #1 심드러썬유, 애덜하구:. {힘들었지요, 애들하고.}

10411 #1 그냥 두구 두구 하구 머 그러치. {그냥 두고 두고 하고 뭐 그렇지.}

10411 #1 애덜하구, 애덜 키우고. {애들하구, 애들 키우고.}

10411 #1 참 엔:나랜 고상언 머 나만 항 개 아니라 엔:날 으런더런 다 고상한 거유, 그때. {참 옛날엔 고생은 뭐 나만 한 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은 다 고생한거예요, 그때.}

10412 @ 그 질 질썬할 때 아까 노래 이썬썬나요? {그 질 질썬할 때 아까 노래 있었썬아요?}

10412 @ 그개 기:러요, 월래가? {그개 길어요, 월래가?}

10412 #1 아:니:. {아니.}

10412 @ 긴: 노래 아니요? {긴 노래 아니예요?}

10412 #1 긴: 노래도 아니고 그냥. {긴 노래도 아니고 그냥.}

10412 #1 그냥 머 그래 그냥 병어리 타릉으루 그르 그냥 함 번 해 바:썬 머:, 개 썬썬.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병어리 타릉으로 그렇게 그냥 한 번 해 썬지 뭐, 그렇게 조금.}

10412 @ 고거 다시 함 번 해 보세요. {고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10412 #1 뭐릴? {뭐를?}

10412 @ 아까 그 길 지 질썬... {아까 그 길 기 질썬...}

10412 #1 베트릴 노새 하넌 거? {베틀을 노새 하는 거?}

10412 #1 으:응:, 그거덜 또 하? 하하하하! {으응, 그거를 또 해? 하하하하!}

10412 @ 여기는 안 드려 가썬썬. {여기는 안 들어 갔어요.}

10412 #1 안 드려 가썬? 흐허헤. {안 들어 갔어? 허허허.}

10412 #1 베트럴 노세:, 베트를 노세에:, 웡냥:가내다 베틀 노세:. {베틀을 노세, 베틀을 노세, 옥난간에다 베틀 노세.}

10412 #1 나재: 짜능 건 월강다니요오:, 바매: 짜능 건 일강다니라. {낮에 짜는 건 월강단 이요, 밤에 짜는 건 일강단이라.}

10412 #1 베트럴 노새:, 베트를 노아아:. {베틀을 노세, 베틀을 놓아.}

10412 #1 머? 아이 또 머라 카더라? {뭐? 아이 또 뭐라고 하더라?}

10412 # 웡냥가내 베트를 노새, 또. {옥난간에 베틀을 노세, 또.} 10412 #1 아이 참 저 어: 베트:럴 노세하고. {아이 참 저 어 베틀을 노세하고.}

10412 # 또 이베럴 짜서 누구릴 주랴. {또 이 베를 짜서 누구를 주랴.}

10412 #1 이 베럴 짜서: 누구릴 주랴아:, 필피리 짜서:... {이 베를 짜서 누구를 주랴, 필필 이 짜서...}

10412 #1 머? 시장가세 하딩가 윈, 가따 파라:. {뭐? 시장가세 하든가 윈, 갖다 팔아.}

10412 # 음:. {응.}

10412 #1 어: 파라. {응, 팔아.}

10412 #1 그래 그래 하다가 모라서 몰라:. {그래 그래 하다가 관뒤서 몰라.}

10412 #1 그 배끼 몰라. {그것 밖에 몰라.}

10412 @ 그래두 자꾸 그러캐 하시니까 생가기 나시네요. {그래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생각이 나시네요.}

10412 @ 하라버지두 그거 드려 보신 적 이쓰신가 보다. {할아버지도 그거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 보다.}

10412 @ 하라버지두 총, 총기 조으시내:. {할아버지도 총, 총기 좋으시네.} 10412 # 아, 이러버리썬 죄 드려 받는데. {아, 잊어버렸어 죄다 들어 봤는데.}

10412 @ 두 두 두 부니 하시니까, {두 두 두 분이 하시니까,} 10412 # 머 머 마른 머, {뭐 뭐 말은 뭐,}

10412 @ 이저버린 거뚜 해내구. {잊어버린 것도 해내고.} 10412 # 정 정든 정 저 뭐 정 든 니매 의 이보글 지어 보세 머 허, 어: 조상니매 머 머. {정 정든 정 저 뭐 정든 님의 의(복) 의복을 지어 보세 뭐 허, 어 조상님의 뭐 뭐.}

10412 # 머두 한다구 하구 머. {뭐도 한다고 하고 뭐.}

10412 #1 머: 그렇 거 인는데 안 해썬. {뭐, 그런 거 있는데 안 했어.}

10412 #1 그렇 거 난 안 해썬. {그런 거는 난 안 했어.} 10412 # 머 몰라, 다 이러버리서 그까이 하다가 끈치머년 하나마나여. {뭐 몰라, 다 잊어버려서 그까짓것 하다가 끊기면 하나마나야.}

10412 @ 그렇까 그난 개: 지금 갱장이 소중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10412 # 야, 야. {예, 예.}

10412 @ 근대 업짜나요:. {그런데 없잖아요.}

10412 @ 어디 가서 차자 봐도 업꼬:. {어디 가서 찾아 봐도 없고.}

10412 #1 애이:, 옴:날 노인 늘그이덜 어지간한 사람 다 잘 나보단 잘 히야:. {에이, 옛날 노인 늙인들이 어지간한 사람 다 잘 나보다는 잘 해.}

10412 # 아까 저:, {아까 저,}

10412 @ 아이고 제가 여:러 분 여쭙 받는대요, 잘 모르시더라구요. {아이고 제가 여러 분

여쭙 봤는데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10412 # 거 인재 그 인재 거 인재 바꿔 끼우문 디야. {그거 이제 그 이제 그거 이제 바꿔 끼우면 돼.}

10412 # 나재 짜능 건 일광다니요, 바매 짜능 건 월광다니라. {낮에 짜는 건 일광단이요, 밤에 짜는 건 월광단이라.}

10412 @ 예. {예.}

10412 # 응? {응?}

10412 # 바매 짜능 건 월광다니여. {밤에 짜는 건 월광단이야.} 10412 @ 그르치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10412 # 고거 순서가 배끼써, 어 내가 드러 봐두. {고거 순서가 바뀌었어, 내가 들어 봐도.}

1.4.2. 누에치기와 비단 짜기

10413 @ 누에도 처짜나요? {누에도 쳤잖아요?}

10413 @ 누에 처서 오뚜 맨드러짜나요. {누에 처서 옷도 만들었잖아요.}

10413 #1 뉘:는 뉘:넌 처서 가따 바치찌 안 해 바써. {누에는 누에는 처서 다 갖다 바쳤지 안 해 봤어.}

10413 @ 음:, 누에두 저기 처:매 가져오면 저기 머요, 거. {음, 누에도 저기 처음에 가져오면 저기 뭐예요, 거.}

10413 # 알로 가져 와찌 알로. {알로 가져 왔지 알로.}

10413 @ 알로? {알로?}

10413 # 응:. {응.}

10413 #1 알로 가따가 {알로 갖다가} 10413 # 알로 가져온 기 나중애넌, {알로 가져온 게 나중에는,}

10413 @ 예:. {예.}

10413 # 새끼 나온 거 저 거미 아주 새끼 거무 저 가:미. {새끼 나온 거 저 거미 아주 새끼 거무 저 개미.} 10413 @ 꺾: 꺾:망 거. {까만 까만 거.}

10413 # 개미.{개미} 10413 @ 예. {예.}

10413 # 고령 거 가따가 이르캐 노나 주고 그래쎄요.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나눠 주고 그랬어요.}

10413 @ 고거 고 크면서 이르미 달라요? {고거 그 크면서 이름이 달라요?}

10413 @ 처:매. {처음에.}

10413 #1 애기 잠 자구. {아기 잠 자고.}

10413 @ 애기 잠 자구? {아기 잠 자고?}

10413 #1 어. {어.}

10413 # 으:, 니 부는 자야 디야. {응, 네 번은 자야 돼.}

10413 #1 이듬 저: 두 두: 잠 자구, 두: 잠 자구, 시: 잠 자구, 막잠 잔다카구. {이듬 저 두 두 잠 자고, 두 잠 자고, 세 잠 자고, 막잠 잔다고 하고.}

10413 # 네: 자멸 막짜미면 인재 막잠 자구 이레털 머그만, {네 잠을 막잠이면 이제 막잠 자고 이레를 먹으면,} 10413 #1 이렐 머그면 이만큼 하자너. 그래만 꼬출 지어. {이레를 먹으면 이만큼 하잖어. 그러면 고치를 지어.} 10413 # 꼬출 지능 기여.

{고치를 짓는 거야.}

10413 @ 근대 애기잠 잘 때 고 켜까만 거 이르미 따로 이썬요, 그 누애애요? {그런데 애기잠 잘 때 고 조그만 거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누애애요?}

10413 #1 애기잠이라구 그라지 애기잠. {애기잠이라고 그러지 애기잠.} 10413 @ 이르문 업꾸: 그냥 잠 자능 거만 이꾸? {이름은 없고 그냥 잠 자는 것만 있고?}

10413 #1 '우린 애기잠 자:' 그라구 그래... {'우린 애기잠 자' 그러고 그래...} 10413 # 따로이 읊써. {따로 읊어.}

10414 @ 그건 저: 저기 누애 칠라면 그림 메기야 되자녀요. {그건 저 저기 누애 치려면 그러면 먹여야 되잖아요.}

10414 # 뽕. {뽕.}

10414 #1 뽕. {뽕.}

10414 @ 뽕? {뽕?}

10414 # 으:. {응.}

10414 @ 그거는 어트개 해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10414 #1 뽕 따다가 머머 애기잠 잘 쟈 쫑::쫑 쓰:러 주구. {뽕 따다가 뭉뭉 아기잠 잘 때 쫑쫑 썰어 주고.}

10414 # 그래요. {그래요.}

10414 #1 이듬 잠 잘 쟈넌 쫑쫑 구:개 요 요로케 쓰:러 주구. {이듬 잠 잘 때는 조금 굵게 요 요렇게 썰어 주고.}

10414 #1 시: 잠 잘 때 저: 시: 잠 잘 때는 쫑쫑 더 구:개 쓰:러두 되구. {세 잠 잘 때 저 세 잠 잘 때는 조금 더 굵게 썰어도 되고.}

10414 #1 막:잠 잘 때넌 막 그냥 통걸루 막 이래 줘:두 머 버석버석버석 다: 먹꾸 그러치 요 머. {막잠 잘 때는 막 그냥 통것으로 막 이렇게 줘도 뭉 버석버석버석 다 먹고 그렇지요 뭉.}

10414 # 지금 지금 여기 뭉여: 농약 때때 이런 대선 지금 안 안되는데, {지금 지금 여기 뭉야 농약 때문에 이런 대선 지금 안 안되는데,} 10414 #1 인재 모 처: 이런 대넌. {이제 못 처 이런 데는.}

10414 # 저: 산골짜개, 그런대서 지금 자머파는 사람드른, {저 산골짜기에 그런 데서 지금 잠업하는 사람들은,} 10414 #1 모: 썬. {못 처.} 10414 # 전부 가쟁이럴 지금 썬다가 히야:. {전부 가지를 지금 썬다가 해.}

10414 #1 가랭 가쟁일 썬다 척청 노태: 여기 태래비 보면. {가지 가지를 썬다가 척척 놓더라고 여기 텔레비전 보면.}

10414 # 봄 뉘넌 그러코 갈 뉘넌 이퍼릴 따. {봄 누에는 그렇고 가을 누에는 잎을 따.}

10414 # 따서 메기야, {따서 먹여야,} 10414 #1 이퍼릴 요러케 요케 따자나. {잎을 이렇게 따잖아.} 10414 # 그 뽕나무가 내년애, {그 뽕나무가 내년애,}

10414 @ 또 피니까. {또 피니까.}

10414 # 어:, 또 피야 항께. {어, 또 피어야 하니까.} 10414 @ 아:, 그르 그르께. {아, 그렇게 그렇게.} 10414 # 그 일 녀내 두: 버널 처:, 뉘넌. {그 일 년에 두 번을 처, 누에는.}

10414 @ 예:. {예.}

10414 # 뉘: 농사넌, {누에 농사는,}

10414 @ 봄 갈루? {봄 가을로?}

10414 # 야. {예.}

10414 # 우리 아버지가 뉘:루다 늘그신 양바니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누에로
늘으신 양반이예요, 우리 아버지가.}

10414 @ 뉘:?: {누에?}

10414 # 야:, 하냐도 하셔찌마넌 참, {예, 한약도 하셨지만은 참,}

10414 @ 그거뚜 머 얼마 치구 얼마 치구 그렇 개 이짜나요. {그것도 뭐 얼마 치고 얼마
치고 그런 게 있잖아요.}

10414 # 가져기? {가격이?}

10414 @ 아니, 저:기 양:. {아니, 저기 양.}

10414 #1 한 장. {한 잠.}

10414 @ 한 장? {한 장?}

10414 #1 으:, 한 장, 반: 장. {응, 한 장, 반 장.} 10414 # 그기 한 장, 반: 장. {그게 한
장, 반 장.}

10414 # 이래 이래 똥고래미루, 이래 병 하나 가따 놓 거 거치 똥고래미루 이래 노쿠서 이
아내다 번디기릴,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병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놓고서 이 안에다 번테기를,} 10414 #1 한 장, 반: 장. {한
장, 반 장.}

10414 # 이 아내다 통 아내다 이러케 저: 이 미꾸녕 업는 통에:. {이 안에다 통 안에다 이
렇게 저기 이 밑이 없는 통에.}

10414 #1 거:다 번디길 함 마리 저: 나뻥이릴 지버 느머넌 고거시 뽕뽕 도라가면서 고 아
내서 아릴 깔리유. {거기에다 번테기를 한 마리 저 나방을 집어 넣으면 고것이 뽕
뽕 돌아가면서 고 안에서 알을 깔려요.}

10414 @ 예:. {예.}

10414 # 그래 또 또 요거 요 요거 노코 요기 열 개가 반: 장이여, 시무 개면 한 쟁이구
그: 똥고래미가. {그래서 또 또 요거 요 요거 놓고, 요기 열 개가 반 장이야, 스무
개면 한 장이고 그 동그라미가.} 10414 @ 예:. {예.}

10414 #1 그래 반: 장, 한 장 뭐어: 그르케 처 바써. {그렇게 반 장, 한 장 뭐 그렇게 처
봤어.}

10414 @ 으:. {으응.}

10414 @ 그거 칠 때마다 썬: 뽕 쓰러 주자나요? {그거 칠 때마다 저 뽕 썰어 주잖아요?}

10414 # 그르치 쓰러 주지. {그렇지 썰어 주지.} 10414 @ 그러면 인재 머꾸 자꾸 올라가
서 미태 이래 썬:자나요? {그러면 이제 먹고 자꾸 올라가서 밑에 이렇게 쌓이잖
아요?}

10414 #1 대꾸 가리자나:. {자꾸 가리잖아.} 10414 # 인재 걸 똥열 가리야지. {이제 그걸
똥을 가리야지.} 10414 #1 대꾸 이르케 이르케 가리자나:, 똥열. {자꾸 이렇게 이
렇게 가리잖아, 똥을.}

10414 @ 똥을 가린다구요? {똥을 가린다고요?}

10414 #1 그럼!: 똥열 자주 가리야 하닝 걸. {그럼! 똥을 자주 가려야 하는 걸.} 10414 #
그르치, 그기 인재 애기 애기 썬:개넌, {그렇지, 그게 이제 애기 애기 적에는,}

10414 # 그 전, 저 대나무 꼬챙이 이러케 두: 개릴 해써루 저봄 거치 매드러서루 저버무루

다 요래 살살 이르게 거더서로 저기 놔:, 노쿠서 인재 그 처징 기 이짜나? {그 저, 저 대나무 꼬챙이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젓가락 같이 만들어서 젓가락으로 요렇게 살살 이렇게 걷어서 저기 놔, 놓고서 이제 그 처진 것이 있잖아?}

10414 @ 예. {예.}

10414 # 거기 인재 뽕 이퍼릴 가따 올리머넌, {거기 이제 뽕 잎을 갖다 올리면,} 10414 #1 뽕 주면, 뽕 이퍼리 주면 올라가. {뽕 주면, 뽕 잎 주면 올라 가.} 10414 # 뽕 이퍼릴 맨날 머꾸서 새카마케 올라간다고, 그리 머글 꺼라구. {뽕 잎을 맨날 먹고 서 새카맣게 올라간다고, 그리 먹을 거라고.}

10414 @ 예:. {예.}

10414 # 그람 인재 그 뽕 이퍼릴 일루루 왕기 노:먼 그기 똥 가리능 기여. {그러면 이제 그 뽕 잎을 이리로 옮겨 놓으면 그게 똥 가리는 거야.}

10414 @ 아:, 그러면 누애가 다: 이쪼그루 가니께?: {아, 그러면 누애가 다 이쪽으로 가니까?} 10414 # 그래 그러치요. {그렇 그렇지요.} 10414 @ 그러면 인재 남 나무 거만 똥만 나무니까? {그러면 이제 남 남은 것은 똥만 남으니까?}

10414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414 # 뽕: 저 다 머거야 애기 찌개야 그 이퍼리 줌 말라부꾸 인재 이렇 건 저 내버리구. {뽕을 저 다 먹어야 애기 적어야 그 잎이 줌 말라붙고 이제 이런 것은 저 내버리고.} 10414 #1 똥언 자주 가라 줘야 히야:. {똥은 자주 갈아 줘야 해.}

10414 @ 그 미태 까능 거 이, 이리:케 네모로 땡 거 이짜나요, 싸리까지 그렇 걸루? {그 밑에 까는 거 이, 이렇게 네모로 된 거 있잖아요, 싸릿가지 그런 걸로?}

10414 # 잠박. {잠박.}

10414 #1 잠박:. {잠박.}

10414 # 으:, 잠박. {응, 잠박.} 10414 @ 잠박? {잠박?} 10414 #1 그걸 잠바기라카지. {그걸 잠박이라고 하지.}

10414 @ 잠박? {잠박?}

10414 # 뇌 뇌 잠 잠바기 응. {누에 누에 잠 잠박이 응.} 10414 #1 거기 인저 신문지를 까라야 되야. {거기 이제 신문지를 깔아야 돼.}

10414 # 잠 잠이라능 거 잠. {잠 잠이라능 거 잠.} 10414 #1 그래, 그걸걸 자주구 잠배기 라카지.{그래, 그걸 가지고 잠박이라고 하지.}

10414 # 거기 신문지 깔구 인재 그래 처찌 뭐. {거기 신문지 깔고 이제 그렇게 찢지 뭐.}

10414 @ 그: 그거 할 때에: 애기 때는 쪼꾸마두 대지만: 그개 인재 커:지만 여:러 개 해야 대자나요? {그 그거 할 때 애기 때는 조그만해도 되지만 그개 이제 커지면 여러 개 해야 되잖아요?}

10414 #1 아이구:: 상서리릴 요기다 이러케 가뜩 매자나:. {아이고 상서리를 요기다 이렇게 가뜩 매잖아.} 10414 # 아이 만:치유. {아이 많지요.}

10414 @ 상서리요? {상서리요?}

10414 #1 상서리:. {상서리.} 10414 # 상서리 꼬챙이 이러케. {상서리 꼬챙이 이렇게.}

10414 #1 꼬챙이, {꼬챙이,} 10414 # 꼬챙이 예릴 드러서루 이러케 양짜개다 지주:... {꼬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쪽에다 지주...}

10414 @ 새다리 가치 맨드능 거지요? {새서리 같이 만드는 거지요?}

10414 # 으:. {응.} 10414 #1 그래 자주구, {그렇게 해 가지고,} 10414 # 지주릴 지주릴

이러케 세우고 이러케 세우고 또 이쪽뚜 이러케 이러케 세우면 요 요 가루때릴 이
래 칭칭이 이래 가루때가 이써 이래, 그람 거기다 얹지여, 그때년. {응, 지주를 지
주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또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세우면 요 요 가루대
를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가루대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얹어, 그때는.}

10414 @ 아아: 그걸 상사리라 그래요? {아 그걸 상사리라고 그래요?}

10414 # 예:, 그걸 상다리라 그러지유. {예, 그걸 상다리라 그러지유.}

10414 @ 그러면 이르:캐 양쪼개 지주때가 이꾸 요로캐 요로캐 상 이쪽뚜 이르캐 이르캐
해서 고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지주대가 있고 요롭게 요롭게 상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기다가,} 10414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414 #1 그래
이러케 이르캐 {그래 이렇게 이렇게}

10414 #1 상서리 치 친대 친대 치대 치대마냥... {상서리 친대 친대 치대 치대처럼...}

10414 @ 이르:캐 긴: 작때기 이진 머라 그래요? {이렇게 긴 작대기 이진 뭐라고 해요?}

10414 # 그개 상다리- 대:. {그개 상다릿대.}

10414 @ 그건 상사리때구, 이거 저 전:채가 상사리내요 그럼? {그건 상사릿대고, 이거 저
전채가 상사리네요 그럼?}

10414 # 그래: 그 전채가 상다리라 구리여 그걸, 상다리. {그래 그 전채를 상다리라 그래
그걸, 상다리.}

10414 @ 여패 인능 건 머라 그래요? {옆에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10414 # 다: 상다리 맨다 구리야 그러면. {다 상다리 맨다 그래 그러면.} 10414 #1 아이
저기 거시길 뭐여 새다리라 그라자나 새다리. {아이 저기 거시기 뭐야 사다리라고
그러잖아 사다리.}

10414 @ 음:. {음.} 10414 # 그건 신종이지 머 그기. {그건 신종이 뭐 그게.} 10414 #1
그건 새다리여. {그건 사다리야.}

10414 #1 양쪼개 시더리 새다리 가따가 노쿠 매능 기 새다리구두 하구 머 기둥이라구두
하구 머. {양쪽에 *** 사다리 갖다가 놓고 매는 게 사다리라고도 하고 뭐 기둥이
라고도 하고 머.}

10414 @ 상? {상?}

10414 @ 상다리? 상사리? {상다리? 상사리?} 10414 # 응, 상다리.{응, 상다리.} 10414
#1 상, {상,}

10414 #1 상사리, 아이구: 우리년 얼릉 상다리 매야 하건넌대 그리야. {상다리, 아이구 우
리는 얼른 상다리 매야 하겠는데 그래.} 10414 # 상다리여 상다리. {상다리야 상
다리.} 10414 # 뉘애릴 뉘:릴 저기:, {누에를 누에를 저기,}

10414 # 그저 꼬추는 머애 머 머하능 거 거터. {그저 고치는 무엇에 뭐 뭐하는 것 같아.}

10414 # 으:, 그걸 상다리라고 그리야. {응, 그걸 상다리라고 그래.}

10414 # 자몹 자머빈데: 어: 자몹 농산대 거기 인재 분류해 가주서 이걸 여기 언지 농걸
상다리라 그라드라구. {잠업 잠업인데 잠업 농산대 거기 이제 분류해 가지고 이걸
여기 얹어 놓은 걸 상다리라 그러더라구.}

10414 @ 상다리라 그래요, 상사리라 그래요? {상다리라 그래요, 상사리라 그래요?}

10414 # 상다리여 상다리. {상다리야 상다리.}

10414 #1 상다리 맨:다 구리야, 상다리 맨:다구. {상다리 맨다고 그래, 상다리 맨다고.}

10414 @ 상다리 맨다구요? {상다리 맨다고요?}

10414 # 으:. {응.}

10414 @ 그리구 나서 인재 다: 먹짜너요, 그럼 누애가 허여텅 개 좀 누르스름해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먹잖아요, 그럼 누애가 하얗던 게 좀 누르스름해지지요?}

10414 # 그러치유, 그 그래 그리유. {그렇지요, 그 그래 그래요.}

10414 @ 그러면 그거 인재 저: 오, 올:리야 대자나요. {그러면 그거 이제 저 오, 올라야 되
 잼아요.}

10414 # 아, 그러치. {아, 그렇지.} 10414 #1 그래: 인재 저 뭐: 거시기: 저간...{그래, 이
 제 뭐 거시기 저기...} 10414 @ 다: 크면. {다 크면.} 10414 # 인재 인재 인재
 꼬추털... {이제 이제 이제 고치를...}

10414 #1 꼬:싱이, 집쑤생이 이르게 행: 개 꼬싱이라 구리야. {꼬싱이, 집수세미 이렇게 한
 것을 꼬싱이라 그래.}

10414 #1 그걸 가따가 올: 이르게 거리다 노쿠 고걸 요래 요래 노면 말짱 거기 올라가 다:
 지짜나. {그걸 갖다가 올 이렇게 걸이에다 놓고 그걸 요렇게 요렇게 놓으면 말짱
 거기 올라가 다 짓잖아.}

10414 #1 꼬:싱이라 구라지 왜 그걸 가주구. {꼬싱이라고 그러지 왜 그걸 가지고.}

10414 @ 꼬싱이라 그래요? {꼬싱이라 그래요?} 10414 # 꼬싱이라 구리야. {꼬싱이라 그
 래.} 10414 @ 꼬싱이? {꼬싱이?}

10414 # 산내끼털, {새끼를,}

10414 @ 예. {예.}

10414 #1 파: 가주구 지벌 지벌 무꺼 가주구 요만 저: 문지러 가주... {꼬아 가지고 짚을
 짚을 묶어 가지고 요만(큼) 저 문질러 가지고...} 10414 # 산내끼 이러케 저 파:
 가주서루 대충 이러케 이러케 해서 비비여. {새끼 이렇게 저 파 가지고 대충 이러
 게 이렇게 해서 비벼.}

10414 # 그래서 인재 요만:창 할라면 요만:창 꼬너 가주서루 지필 요로 요정도 요로케 질:
 개 꼬너서루 이러케 무꾸멀 해 가주서 요래: 피서 나오민서 자꾸 저기서 자새루
 이래: 돌리머넌, 쏘새가 이르게 이 이래 도라가민서루 그 그러케 대나 와요. {그래
 서 이제 요만큼 하려면 요만큼 끊어 가지고서, 짚을 요랑(게) 요정도 요렇게 길게
 끊어서 이렇게 묶음을 해 가지고 요렇게 피서 나오면서 자꾸 저기서 자새로 이러
 게 돌리면, 쏘새가 이렇게 이 이렇게 돌아 가면서 그 그렇게 돼 나와요.}

10414 @ 이로:케 되지요 동:구러케, 예. {요렇게 되지요 동그랑게, 예.}

10414 # 어: 여기다 이러케 몰리 가주서루 한 짜개서 이러케 자:꾸 돌리머넌, 또 이누미
 도라가민서 지피 퍼져서 그래 그래서 그 저 미여 인재 어: 시:리 나오게 끝 꼬추
 가 거기 거기서 인재 지깨 대능 기여. {응, 여기다 이렇게 몰려 가지고 한 쪽에서
 이렇게 자꾸 돌리면 또 이놈이 돌아가면서 짚이 퍼져서 그래 그래서 그 저 명주
 이제 어 실이 나오게 고(치) 고치가 거기 거기서 이제 짓게 되는 거야.}

10414 @ 예:. {예.}

10414 @ 그걸 그걸 꼬싱이라 그랜다구요? {그걸 그걸 꼬싱이라 그런다고요?}

10414 # 야: 그걸 꼬싱이라 그래유. {예, 그걸 꼬싱이라 그래요.}

10414 #1 그래서 그거 따찌. {그래서 그거 따지.} 10414 @ 섭-피라구는 안 해요, 섭?
 {섭이라고는 안 해요, 셴?}

10414 #1 서비라구두 하구 꼬싱이라구두 하구. {셴이라고도 하고 꼬싱이라고도 하고.}

10414 # 서비라구두 하구, 뉘에 서비여 뉘에 섭. {쇼이라고도 하고, 누에 쇼이야 누에 쇼.}

10414 #1 뉘: 서벌 하년대: '아유 우리 지벤 꼬싱이럴 더 마 마:니 맨드러이 히야:' 이라드 라구. {누에 쇼을 하는데 '아유 우리 집엔 꼬싱이를 더 마 많이 만들어야 해' 이러 더라구.}

10414 @ 아아:. {아아.}

10414 #1 그래서 꼬:싱이여. {그래서 꼬싱이야.} 10414 @ 그거 저기 저:... {그거 저기 저...}

10414 #1 서비 이써 또:, 이러캐 벌:리 논넌 서번 또 따루 이써, 그런대, {쇼이 있어 또, 이렇게 벌려 놓는 섭은 또 따로 있어, 그런대,}

10414 @ 예? {예?}

10414 #1 꼬:싱이럴 이르캐 마:니 맨드러야. {꼬싱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10414 @ 꼬싱이하구 서과구 달른 거내요? {꼬싱이하구 쇼하고 다른 거내요?} 10414 # 츠매 츠매 인재 *** 이... {처음에 처음에 이제 *** 이...} 10414 #1 똑까찌 인재 이 다: 이 얼리지. {똑같지 이제 이 다 이 올리지.}

10414 # 일본 싸람더리 인재 그걸 연:구해 가서루 이래 이래 이래 이래 해서루, {일본 사 람들이 이제 그걸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414 #1 여:꾼 진 거, 여:꾼 거넌: 서비라구 하구 그건 꼬싱이라 구라드라구. {엮은 거, 엮은 거는 쇼이라고 하고 그건 꼬싱이라 그러더라구.} 10414 # 이게 이거하구 이 거하구 틀려.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

10414 # 또 이러 또 이러캐 해서루 이러캐서 줄 대구서 이러캐 이러캐 해면 철싸가 와서 딱땅 매저저서루, 이러캐 자버 땡기면 너리가구: 또 이러캐 밀면 또 너리가구 그 래서루.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줄을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철사가 와서 딱딱 땡어져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내려가고 또 이렇게 밀면 또 내 려가고 그래서.}

10414 # 그러면 인재 마마리 되면 요만하지. {그러면 이제 마무리 되면 요만하지.}

10414 # 그러면 그 뉘에 저기 그 늘근 뉘에 인저 이르캐 잠바개 노쿠서루 그걸 쪽 피서루 이래 쪽 피서 올리 노먼 그리 말짱 기어 올라가서 거 가서... {그러면 그 누에 저 기 그 늙은 누에를 이제 이렇게 잠박에 놓고서 그걸 쪽 피서 이렇게 쪽 피서 올려 놓으면 말짱 기어 올라가서 거기 가서...}

10414 @ 아아:, 그개 요로케, {아아, 그개 요렇게} 10414 # 그러치유. {그렇지요.} 10414 @ 요로케 요로 요로 한 요로케 대따 요로케 대따 이래 가주고 저브면 요로케 되 고? {요렇게 요러 요러 한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 이래 가지고 접으면 요렇게 되고?} 10414 # 그리여, 그리여. 그래야지 딱 뜨러 부찌. {그래, 그래. 그래야지 딱 들어 붙지.}

10414 @ 쪽: 피면 요로케 요로케 요러캐 대능 거지요? {쪽 피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 는 거지요?} 10414 # 야 야 야 야, 스프링시그루다. {예 예 예 예, 스프링식으 로.} 10414 @ 예 예 예. {예 예 예.}

10414 #1 그래야 인재 고기다 고 새재기다 지짜나. {그래야 이제 고기다 고 사이에 짓잖 아.}

10414 @ 예:. {예.}

10414 #1 지벌, 하이::야캐 지면. {집을, 하얏게 지으면}

10414 @ 예:. {예.}

10414 # 일본 짜람더리 그 트릴 가따 줘서루 우리 아버지가 그걸 이 보은굴래 서벌 죄: 맨 드리 줘 버리쎬. {일본 사람들이 그 틀을 갖다 줘서 우리 아버지가 그걸 이 보은 군내 쏘을 죄다 만들어 줘 버렸어.}

10414 @ 아: 그 그거는 서비라 그래요? {아 그 그건 쏘이라 그러고?}

10414 #1 어:, 서비라구 하구. {응, 쏘이라고 하고.}

10414 @ 새끼? {새끼?}

10414 # 그거뚜 다 새비여. {그것도 다 쏘이야.} 10414 #1 새끼, 새끼 이르캐: 저기 하능 건 ㄸ:썩이, 아이구 ㄸ:싱이릴 더 맨드리야 하년대 그라지. {새끼, 새끼 이렇게 저기 하는 건 ㄸ:싱이, 아이고 ㄸ:싱이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10414 # 그거뚜 모: 타면 저: 사내 가서 저 화렷쑤, 화렷쑤는 하년대 화렷쑤넌 조:턴 아나 구 솔립. {그것도 못 하면 저 산에 가서 저 활엽수, 활엽수를 하는데 활엽수는 좋지 않고 솔잎.}

10414 @ 소, 소나무? {소, 소나무?}

10414 #1 소나무 꺾어다가 이래 또 세워서 얼리구. {소나무 꺾어다가 이렇게 또 세워서 올리고.}

10414 # 화렷쑤느루다가 징: 거넌 꼬추가 반들반들 히야. {활엽수로 지은 것은 고치가 반들반들 해.}

10414 @ 예:. {예.}

10414 # 반들반들 히야, 이기 거시기가 이기 자: 수이 읍썩야 되거던. {반들반들 해, 이게 거시기가 이게 자 *이 없어야 되거든.}

10414 # 저: 이래 허무릴 빼끼머넌, {저 이렇게 허물을 벗기면,}

10414 @ 예:. {예.}

10414 # 화렷쑤넌. {활엽수는.}

10414 @ 예. {예.}

10414 # 그래니까 솔리편 자리가 그르캐 마:니 안 나유. {그러니까 솔잎은 자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10414 @ 예:. {예.}

10414 # 그래서 등 가능 대 대:번 일 똥 이: 등 그래 나오자나, 그 등. {그래서 등수를 매기는 데 대번 일 등 이 등 그렇게 나오잖아, 그 등수가.}

10414 #1 그랜제 저 참나무애 징: 거넌 무리 드러, 허허. {그런데 저 참나무에 지은 것은 물이 들어, 허허.}

10414 #1 참나무 입싸기가...{참나무 잎사귀가...} 10414 # 물두 들구: 이파리에 가서 딱 드러 부터지면 그래 충나:. {물도 들고 이파리에 가서 딱 들어 붙어지면 그렇게 충나.} 10414 #1 흐:, 참나무에 부통 거넌...{흐, 참나무에 붙은 거는...} 10414 # 응, 그리여. {응, 그래.}

10414 @ 그 그거 나중에 이르캐 찰러 보면 소개 꿈틀꿈틀 하능 거, {그 그거 나중에 이렇게 찰라 보면 속에 꿈틀꿈틀 하는 거.} 10414 # 그 인재 번디기. {그게 이제 번데기.} 10414 #1 번디기지. {번데기지.} 10414 # 뻥디기. {번데기.}

10414 # 뻥디기 장애 마:니 나대 그거 참. {번데기 장애 많이 나대 그거 참.}

10414 # 그기 저 수입 수입 뻔디기라야. {그게 저 수입 수입 번데기래.}

10414 @ 예:. {예.}

10414 #1 큰 등 저, 특 똥 일 똥 머: 머여 머 메: 똥 이르캐. {큰 등 저, 특 등 일 등 똥 똥야 똥 똥 등 이렇게.}

10415 @ 그거뚜 저:기 소태다가 싸 쌀마 자주구 씨를 빼지 아나요? {그것도 저기 술에다가 삶아 가지고 씨를 빼지 않아요?} 10415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415 # 요만:한 웅술 꺼리 노코넨, {요만한 웅술 걸어 놓고는,} 10415 #1 요맨치 요 손 꺼리 노쿠서 거기다 느쿠서 이 자세에다 대꾸 돌리구 저범질 아니여. {요만큼 요 술 걸어 놓고서 거기다 넣고서 이 자세에다 자꾸 돌리고 젓가락질 아니야.}

10415 # 그라먼 자세가 아래 위로 이르 이르케 이층이여 두: 가지. {그러면 자세가 아래 위로 이렇(게) 이렇게 이층이야 두 가지.}

10415 # 이 이래 이래 두: 가지루 이래 배키씨. 이기 지둥이 이래. {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박혔어. 이 기둥이 이렇게.} 10415 #1 그래먼 실: 빼 자주구 그래 명지 나넨대 안해 안해 바씨, 나 그거. {그러면 실 빼 가지고 그렇게 명주를 나는데 안해 안해 봤어, 나는 그거.}

10415 # 이거시 두: 갠대: 그래 인재 이 이러캐 이러캐 대: 이씨 이기. {이것이 두 갠데 그래 이제 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10415 # 기리 이리 이래 대: 자주서 이기 이래 대: 자주서 도라가민서루, {길이 이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돌아 가면서,}

10415 @ 예:. {예.}

10415 # 이리 자꾸 이래 뽀바 올려. {이리 자꾸 이렇게 뽀아 올려.}

10415 @ 예:. {예.}

10415 # 그라먼 인재 저버덜 언저서 자:꾸 이래 저스민서루 자:꾸 이러캐 저씨. {그러면 이제 젓가락을 언저서 자꾸 이렇게 저으면서 자꾸 이렇게 젓지.}

10415 #1 번디기나 주서 머그루 땡기구. {번데기나 주워 먹으러 다니고.}

10415 # 윈:쪼그루 이르캐 물래 돌리구 오른쪼그로넨 오른쪼그론 이르캐 자꾸 시:릴 이러캐 저서 조야마니 시:리 배해비 돼:서 올라가능 기여. {왼쪽으로는 물레를 돌리고 오른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자꾸 이렇게 실을 이렇게 저어 주어야만 실이 배합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야.}

10415 @ 예. {예.}

10415 # 그라먼 인재 거기서 다 빼꺼지 노면 인저 저: 거시기가 나오지, 뻔디기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벗겨져 놓으면 이제 저 거시기가 나오지, 번데기가.}

10415 @ 그 그 시:른 무슨 시리라 그래요? {그 그 실은 무슨 실이라 그래요?}

10415 # 명주시리지 머 명주실. {명주실이지 뭐 명주실.} 10415 #1 명주실. {명주실.}

10415 @ 명주? 명주실? {명주? 명주실?}

10416 #1 명주 나차나유. {명주 날잖아요.}

10416 #1 시방 미웅:주 장사 잘 땡기대:. {시방 명주 장사 잘 다니대.}

10416 #1 그 미웅:주 그래 나서 하능 건대. {그 명주 그렇게 나서 하는 건데.}

10416 @ 그: 실:루다가 짱 개 명주구? {그 실로 짱 게 명주고?}

10416 #1 야:. {예.}

10416 @ 아까 모카루 짱 거는? {아까 목화로 짱 거는?}

10416 #1 모:카년 미명이구. {목화는 무명이고.} 10416 # 무명베, 무명베. {무명베, 무명베.}

10416 @ 무명베고. {무명베고.} 10416 #1 미명베고:. {무명베고.}

10416 @ 이거는 명주고? {이거는 명주고?}

10416 @ 아, 명주. {아, 명주.} 10416 # 그래 이개 이개 이개 이개 며 저: 명주로 하는 개 우리 조선 비단이야. {그래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명(주) 저 명주로 하는 게 우리 조선 비단이야.}

10416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416 # 아, 그개 전부 이기 그 비단이 그거여. {아, 그개 전부 이게 그 비단이 그거야.}

10416 # 사:람 주거서두 이걸루다 수이릴 하자나, 잘하년 부자년. {사람 죽어서도 이걸로 수의를 하잖아, 잘 하는 부자는.}

10416 @ 명주실 나 난:다 그래요? 명주실 나 나다? {명주실 나 난다 그래요? 명주실 나 나다?} 10416 # 그러치 명주실두 날지. {그렇지 명주실도 날지.}

10416 @ 날 나른? {날 나른?}

10416 #1 그거뚜 베:짜던 탈라던 거뚜 그르케 나라가주 해녕 거유. {그것도 베짜듯 하려면 그것도 그렇게 날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10416 # 그래 나라, 근 근 모랭이루 이래 가마야 디야 똥구라캐 복송마냥. {그렇게 날아. 그 그건 모랑이로 이렇게 감아야 돼, 동그랗게 복송아같이.}

10416 # 이래 가마 가주구 그러실 한 주래 하나씩 그러시 다 드르가져 이렇 기. {이렇게 감아 가지고 그릇을 한 줄에 하나씩 그릇이 다 들어가 이런 게.}

10416 # 그래서 고 아래다 모랭일 느쿠서루 인재 이런 트리 이짜나? {그래서 고 아래에 모랑이를 넣고서 이제 이런 틀이 있잖아?}

10416 # 트릴 요래 조옥: 족 이러케 해 가주서루. {틀을 이렇게 족 족 이렇게 해 가지고.}

10416 #1 몰:라. {몰라.}

10416 #1 주모 아주마이 그렁 거 잘 해쓰잉께 알 티지. {주모 아주머니 그런 거 잘 했으니까 알 테지.}

10416 #1 난 그거 안해 봐써, 그거년. {난 그거 안 해 봤어, 그거는.} 10416 # 이걸 자바 당겨서루 이러케 이러케 자버당겨서 이걸 가마. {이걸 잡아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걸 감아.}

10416 # 가마 가주구서루 그거뚜 인재 매능 거슨 아까 베 매능 거하구 또까타 저 무명 베 매능 거하구. {감아 가지고 그것도 매는 것은 아까 베 매는 거하고 똑같아 저 무명베 매는 거하고.}

10416 @ 모랭이? 모랭이라 그래요? {모랭이? 모랭이라 그래요?}

10416 # 그 이 실 모랭이. {그 이 실 모랑이.}

10416 #1 실 모랑이. {실 모랑이.}

10416 # 실 모랭이, 가뭇 결. {실 모랑이, 감은 결.} 10416 @ 몰, 아:. {몰, 아.}

10416 @ 실 가마 놓 결 실 모랭이라 그래요? {실 감아 놓은 결 실 모랑이라 그래요?}

10416 #1 멍지실 마 모랭이라 하자너. {명주실 모 모랑이라고 하잖아.}

10416 @ 요로:캐 똥:그라캐 가마 놓 거? {요렇게 동그랗게 감아 놓은 거?} 10416 # 그러치유. {그렇지요.}

10416 @ 그 하나 하나를 실: 모랭이라 그래요? {그 하나 하나를 실 모랑이라 그래요?}

10416 # 야 야, 그러케 되유. {예 예, 그렇게 돼요.}

10416 @ 응:, 그거뚜 또 춤: 듣는 마리에요, 제가. {응, 그것도 또 처음 듣는 말이에요, 제가.}

10416 # 실 모랭이여 그기. {실 모랑이야 그제.}

10416 @ 어어:. {어어.}

10416 # 그걸 한 디다 노코 하면 이쫓개 자꾸 가서 갱기서 안 되능 기유, 그기. {그걸 한테다 놓고 하면 이쪽에 자꾸 가서 감겨서 안 되는 거요, 그제.}

10416 # 그래서 그러시 다: 으: 따루따루 다 이쓰야 디야, 그기. {그래서 그릇이 다 으 따로따로 다 있어야 돼, 그제.}

10416 @ 그럼 명주: 베 짤 때두 또까치 저 저거 미영 베 짜드시 그러케 하능 거요? {그러면 명주 베 짤 때도 똑같이 저 저거 무명 베 짜듯이 그렇게 하는 거요?} 10416 #1 또까, 또까타유. {똑같, 똑같아요.} 10416 # 야: 또까통기여 어: {예 똑같은거야 어.}

10416 # 또까튼대 단 그기 쪼끔 줌 들: 드르가능 건 그 인재 명주넌 인재 저기라. {똑같은데 단 그제 조금 줌 덜 들어가는 건 그 이제 명주는 이제 저기라.}

10416 # 미태 부리: 무명 베: 짜 저 말리넌 불보다넌 이기 들 시어두 디야. {밑에 불이 무명 베 짜 저 말리는 불보다는 이게 덜 세도 돼.}

10416 @ 예:. {예.} 10416 # 씨어서 들: 해두. {세서 들 해도.}

10416 @ 그렇 걸루 가주구 인재 온 맨들자나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옷 만들잖아요.}

10416 # 그러치유. {그렇지요.}

10416 @ 예:, 그 움 맨드는 개 아까 베:두 이꾸, 베. {예, 그 옷 만드는 게 아까 베도 있고, 베.}

10416 # 무명 베. {무명 베.}

10416 @ 무명 베 이꾸. {무명 베 있고.}

10416 # 이거넌 저: 거시기 명주 베. {이거는 저 저기 명주 베.}

10416 @ 명주 베 이꾸. {명주 베 있고.}

10416 @ 또 저:기 대마로 하능 거는? {또 저기 대마로 하는 거는?}

10416 # 삼베:. {삼베.}

10416 @ 삼베 이꾸. {삼베 있고.}

10416 # 그 대 대:마릴 그 삼베라 그라자나. {그 대 대마를 그 삼베라고 그러잖아.}

10416 @ 예. {예.}

10416 @ 모:시래능 거뚜 이씨요? {모시라는 것도 있어요?}

10416 # 모시 또 이찌, 모시두. {모시 또 있지, 모시도.}

10416 @ 모:시는 또 딸롱 거지요? {모시는 또 다른 거지요?}

10416 # 모:시는 여긴 모시 여가내 구경 모: 태씨요. {모시는 여기는 모시 여간해서 구경 못 했어요.}

10416 @ 응:. {으응.}

10416 # 저 절라도 어디 마:니 하대 지금 ***. {저 전라도 어디는 많이 하대 지금 ***.}

10416 @ 예:. {예.}

10416 # 모시 이찌. {모시 있지.}

10416 @ 그리잉칸 명주가 비다니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주가 비단이네요, 그러니

까?}

10416 # 그래 명주가 주로 비다니여,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래 명주가 주로 비단이야, 알기 쉽게 말하자면.}

10416 # 나이롱, 헤헤 그거뚜 비:다난대 음:. {나일론, 헤헤 그것도 비단인데 음.}

10416 # 우리 우리 우리 한:구개서는 명주가 젤: 비:다니여. {우리 우리 우리 한국에서는 명주가 제일 비단이야.}

10418 @ 흥:거비라능 거는 멀 흥거비라 그래요? {형끓이라는 거는 뭘 형끓이라 그래요?}

10418 # 흥, {흥,}

10418 @ 흥:겁. {형끓.}

10418 #1 흥:거븐 저 이런 온 떠러지능 거 그 저기. {형끓은 저 이런 옷 떨어진 것 그 저기.} 10418 # 인재 *** 저기. {이제 *** 저기.}

10418 # 나뭇 거. {남은 거.}

10418 #1 나뭇 거 머 쪼가릴 가주구 누비라지 머. {남은 거 뭘 쪼가리를 가지고 누비라고 하지 뭘.}

10418 @ 아:, 온 짜:고 ** 나뭇 거? {아, 또 옷 짓고 ** 남은 거?} 10418 #1 어:, 오 짜꾸: 쪼가리 이렇 거 나오자나유. {어, 옷 짓고 쪼가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10418 #1 그걸 가주 흥거비라지유. {그걸 가지고 형끓이라고 하지요.}

10418 # 어 기리빠시지 머 지금 인재 말하자면. {어 기리빠시지 뭘 지금 이제 말하자면.}

10418 #1 지:야지 그 소리지. {지어야지 그 소리지.} 10418 # 꼬쟁이두 말르구 나뭇 건 인재 그거 인저 기리빠시 아니여, 그개? {꼬챙이도 마르 남은 건 이제 그거 이제 기리빠시 아니야, 그개?}

10418 # 그거 한 가지여 촛:두. {그거 한 가지야 천도.}

10418 @ 예. {예.}

1.4.3. 옷 만들기

10419 @ 그른 처느루: 무슨 온, 무슨 오슬 맨드러써요? {그런 천으로 무슨 옷, 무슨 옷을 만들었어요?}

10419 #1 머? {머?}

10419 # 명주 천? {명주 천?}

10419 @ 예, 하이튼 머 명주든 삼베든 베루, {예 하여튼 뭘 명주든 삼베든 베로,}

10419 #1 아이 무슨 만드러 이런 대: 바지, {아이 무슨 만들어 이런 데 바지,} 10419 # 말 말씀 해 봐요. {말씀 해 봐요.}

10419 @ 온 온 맨등 거, 온 종류가 여러 가지 이짜나요, 남자 입능 거 여자 입능 거. {옷 옷 만든 거, 옷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남자 입는 거 여자 입는 거.}

10419 #1 남:자더런 중우적삼 해 주구:. {남자들은 중의적삼 해 주고.}

10419 #1 잡췌. {잡췌.}

10419 #1 어: 남자더런 중우적삼 꼬, 말라서 꼬:매구, 여자더런 고쟁이 소꿉 머 적삼 치매 저고리 압치마 이렇 거 해 이버찌 머. {남자들은 중적삼 꼬, 말라서 꿰매고, 여자들은 고쟁이 속곳 뭘 적삼 치마저고리 앞치마 이런 거 해 입었지 뭘.}

10419 @ 고쟁이? {고쟁이?}

10419 #1 어:. {어.}

10419 @ 고쟁이하구 소꼬타구 어트개 달라요? {고쟁이하구 속곳하고 어떻게 달라요?}

10419 # 소곤, 소곤. {속웃, 속웃.} 10419 #1 그럼, 옴:나래. {그럼, 옛날에.}

10419 #1 옴:나래. {옛날에.}

10419 @ 예. {예.}

10419 # 여자 여자 소:고시여. {여자 여자 속웃이야.}

10419 #1 그럼: 말라서 다: 소니루 해 이버찌. {그럼 말라서 다 손으로 해 입었지.}

10419 @ 소:고시지요, 고쟁이하구 소:꼬시? {속웃이지요, 고쟁이하구 속곳이?}

10419 #1 여자덜 오선 그르개 만:치, 어:. {여자들 웃은 그렇게 많지, 어.} 10419 # 으: 소:개, 치마 쏘개 인재 저구리 쏘개 임녕 건 다... {으 속에, 치마 속에 이제 저구리 속에 입는 것은 다...}

10419 #1 남자더런, {남자들은,} 10419 # 소:고시여. {속웃이야.} 10419 #1 저:기 속 사리마다라구 하지:. {저기 속 팬티라고 하지.}

10419 #1 속: 사리마다라구 히야 머라구 히야? {속 팬티라고 해 뭐라고 해?} 10419 @ 그 그 일본말이구. {그 그 일본말이고.} 10419 #1 그러카구 중우적삼만 하면 대구. {그렇게 하고 중의적삼만 하면 되고.}

10419 @ 중우적삼? {중의적삼?}

10419 #1 으: 중우적삼. {응, 중의적삼.}

10419 @ 치마:, 치마, {치마, 치마.} 10419 #1 여자더런 치마: 뭐: 고쟁이 속꼐 흐허허허 저구리 머머 그래. {여자들은 치마 뭐 고쟁이 속곳 으허허허 저고리 뭐뭐 그래.}

10419 # 저 저구리. {저 저고리.}

10419 @ 애기들 임능 거는? {아기들 입는 거는?} 10419 #1 애기들. {애기들.} 10419 # 두루매기: 또 도:포. {두루마기 또 도포.}

10419 # 노인네덜 입는 저 도포 이짜나 지:사 지넬 찌개 도:포. {노인네들 입는 저 도포 있잖아 제사 지넬 적에 도포.}

10419 # 도포두 명주를. {도포도 명주를.}

10419 # 그 저 중해꼬 드르가면...{ 그 저 중학교 들어가면...} 10419 #1 애기덜 왜 애기덜 압치기 맨드라 주구. {애기들 왜 애기들 앞치기 만들어 주고.}

10419 @ 압치기? {앞치기?}

10419 @ 여기 흘릴까바? {여기 흘릴까봐?} 10419 #1 압치기 요기 요기에, {앞치기 요기 요기에.} 10419 # 치물 흘린다구 침 흘린다구 압치기 해여. {침을 흘린다고 침 흘린다구 앞치기 해.}

10419 @ 침 흘린다구 하능 거? {침 흘린다고 하는 거?} 10419 #1 나 옴:나래: 애:덜 키울 쟈 거 딸내 키울 쟈 압치기 요래 베루 해서 맨드러서 그냥 바가서 맨드러가 그래. {나 옛날에 애들 키울 때 거 딸들 키울 땐 앞치기 요렇게 베로 해서 만들어서 그냥 박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

10419 @ 어떤 베로 맨드러써요? {어떤 베로 만들었어요?}

10419 #1 아이: 미명 짜 가주구. {아이 무명 짜 가지고.}

10419 @ 무명 짜 무명 베루? {무명 짜(서) 무명 베로?}

10419 @ 애들 요기 저 오새 빨간색 노란색 요로캐, {애들 요기 저 옷에 빨간색 노란색 요

링케,}

10419 #1 에이: 그건 그거넌 움꾸:: 난. {에이, 그건 그거는 없고 나는.} 10419 @ 그런
 저고리두 해 입짜나요. {그런 저고리도 해 입잖아요.}

10419 #1 에이, 모: 태 건. {에이, 못 해 그건.}

10419 #1 그거넌 도:니 드러야 하녕 걸 머. {그거는 돈이 들어야 하는 걸 뭐.}

10419 #1 물 다리 가주 해야 하녕 걸 머. {물 들어 가지고 해야 하는 걸 뭐.} 10419 @
 색 색똥은? {색 색똥은?}

10419 #1 색똥얼. {색똥을.}

10419 # 색똥저구리. {색똥저고리.}

10419 #1 색똥저구리넌 뭐: 저 명지애다 무릎 알룰랑로랑하개 다리 가주 해야 하녕 걸 누
 가 그거털 다리구 이써? {색똥저고리는 뭐 저 명주애다 물을 알록달록하게 드러
 가지고 해야 하는 걸 누가 그것을 들고 있어?}

10419 #1 안 다리써, 안 해써유. {안 드렸어, 안 했어요.} 10419 @ 손두 마니 가구. {손
 도 많이 가고.} 10419 #1 손두 마니 가구, 그건 안 해써. {손도 많이 가고, 그건
 안 했어.}

10419 @ 오답짜나요, 온? {옷 입잖아요, 옷?}

10419 @ 남자들 오 디블 때 요로:캐 어깨에 걸치는 오슨 머라 그래요? {남자들 옷 입을
 때 요렇게 어깨에 걸치는 옷은 뭐라 그래요?}

10419 #1 쪼끼. {조끼.} 10419 # 쪼끼. {조끼.}

10419 #1 그 쪼끼두 그냥 미명으루 그냥 말라서 그냥 소니루 꼬매 조찌. {그 조끼도 그냥
 무명으로 그냥 말라서 그냥 손으로 꿰매 줬지.} 10419 @ 무명으루. {무명으로.}

10419 @ 고 고 아:내 입는 오슨 머애요, 여기 팔 여까지 내려오능 거? {고 고 안에 입는
 옷은 뭐예요, 여기 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10419 # 토시 토시. {토시 토시.}

10419 @ 아니, 온. {아니, 옷.}

10419 #1 머어: 적삼. {뭐 적삼.}

10419 @ 쪼끼 아:내 입는 온. {조끼 안에 입는 옷.} 10419 #1 적삼. {적삼.}

10419 @ 적삼? {적삼?}

10419 #1 적삼미지 뭐, 무슨 머 시방그치 뭐 와이사쓰니 머 이렇 거 이써? {적삼이지 뭐,
 무슨 뭐 시방같이 뭐 와이셔츠니 뭐 이런 거 있어?}

10419 #1 적삼미지, 중우적삼매다가 쪼끼 하나 해서 입찌. {적삼이지, 중의적삼매다가 조
 끼 하나 해서 입지.}

10419 @ 쪼끼 하나. {조끼 하나.}

10419 #1 중우적삼매다. {중의적삼매다.}

10419 @ 중우는 미태 입능 거요? {중의는 밑에 입는 거예요?}

10419 #1 어:, 미태. {어, 밑에.}

10419 @ 여길 무 무릅? {여기 무 무릎?}

10419 #1 아이, {아이,} 10419 @ 어디까지 오능대요? {어디까지 오는대요?} 10419 #1
 엔:나래내 시방 무릅 인녕 거 팔릉 걸 입찌 엔:나래 오:런더런 이 중우적삼 여꺼정
 너리오녕 거 해 이버. {옛날에는, 시방 무릎 있는 거 짧은 걸 입지 옛날엔 어른들
 은 이 중의적삼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해 입어.}

10419 @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이버썬요? {여기까지 내려 오는 거 입었어요?}

10419 #1 그래, 주무적삼. {그래, 주무적삼.}

10419 #1 잡싸. {잡쉬.}

10419 #1 더 가따 주께. {더 가져다 줄게.}

10419 @ 좀 찰봉 거는 머라 그래요? {좀 짧은 거는 뭐라 그래요?}

10419 #1 어? {어?}

10419 @ 찰봉 거. {짧은 거.} 10419 #1 담뱃중애. {잠뱃이}

10419 @ 예? {예?}

10419 #1 담:방중우. {잠방이.}

10419 @ 담:방중우? {담방중우?}

10419 #1 으. {응.}

10419 @ 그거뚜 또 찜: 드러 보는 소리에요. {그것도 또 처음 들어 보는 소리에요.}

10419 #1 담:방중우. {잠방이.}

10419 @ 예, 그 남자드리 입능 거요? {예, 그거 남자들이 입는 거요?} 10419 # 단방중우
여, 단: 짜를 단짜. {단방중우야, 단 짧은 단자.}

10419 #1 찰르여 다, 찰러 찰르게 요리캐 해 놓 건 '단방중애 이번내' 그래지. {짧아 다,
짧아 짧게 이렇게 해 놓은 건 '단방중우 입었네' 그러지.} 10419 # 찰를 단짜, 찰
불 단짜 단방중우여. {짧을 단자, 짧은 단자 단방중우야.}

10419 @ 남자? {남자?}

10419 @ 남자 오시지요? {남자 옷이지요?} 10419 #1 남자. {남자.}

10419 # 담방중이 아니라 단방중이여 단방, 찰불 단짜. {담방중이 아니라 단방중이야 단방,
짧을 단자.}

10419 @ 예:, 예:. {예, 예.}

10419 @ 잠: 잠백? 잠뱃이? {잠 잠백? 잠뱃이?}

10419 #1 담뱃이. {담뱃이.}

10419 @ 잠:뱃이라 그래요, 잠:뱃이? {잠방이라 그래요, 잠방이?}

10419 #1 담방이, '담뱃이 해 줘야지' 그러대? {잠방이, '잠방이 해 줘야지' 그러대?}

10419 #1 아이구: 우리, 어. {아이구 우리, 어.} 10419 @ 담뱃이능 머요? {담뱃이는 뭐에
요?}

10419 #1 글썸 담방중우 한다 쏘리가 '담뱃이 하나 지 조야지' 그러더라구. {글썸 담방중우
한다는 소리가 '잠방이 하나 지어 줘야지' 그러더라고.}

10419 #1 담방중우, 요래 찰룽 거, 요만치. {담방중우, 요렇게 짧은 거, 요만큼.} 10419 @
예:. {예.}

10419 @ 잠:뱃이라능 거뚜 이썬요? {잠방이라능 것도 있어요?}

10419 #1 아니여, 담방중우를 가주 구리야:. {아니야, 담방중우를 가지고 그래.}

10419 #1 담:방중우를 가주 구리야. {담방중우를 가지고 그래.}

10419 @ 남자들 저기 어디 갈라면 온 아래 우에 차려 입짜나요? {남자들 저기 어디 가려
면 옷 아래 위에 차려 입잖아요?}

10419 #1 그거넌 머여, 저기지 머. {그거는 뭐야, 저기지 뭐.}

10419 #1 근 신사보구루 해야 또:, {그건 신사복으로 해야 또,}

10419 @ 여자드른 치마저고리라 그래구, 남자드른? {여자들은 치마저고리라 그러고, 남자

들은?}

10419 #1 진, 두루매기. {짓, 두루마기.}

10419 #1 두루매기 바지저구리 두루매기:. {두루마기 바지저고리 두루마기.}

10419 @ 네. {네.}

10419 #1 쪼끼:. 그거지 머. {조끼, 그거지 뭐.}

10419 @ 바지 저고리는 두루매기 아:내 입능 경가요? {바지저고리는 두루마기 안에 입는 건가요?} 10419 #1 야. {예.}

10419 # 음:, 마자. {응, 맞아.}

10419 #1 후름매기. {두루마기.}

10419 @ 거기두 오뚜 보면: 오새 이름이 여:러 가지가 이짜나요. {거기도 옷도 보면 옷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0419 #1 아 머 도:포니 머머 벨 거 다: 이찌 머:. {아 머 도포니 뭐뭐 벨 거 다 있지 뭐.}

10419 @ 이기 인제 두루매기자나요, 이개 치마고. {이게 이제 두루마기잖아요, 이게 치마고.}

10419 #1 이건 치매여, 치마여. {이건 치마야, 치마야.}

10419 @ 이거는? {이거는?}

10419 # 쪼고리, 쪼고리여 쪼고리. {저고리, 저고리야 저고리.}

10419 #1 저고리, 옴:날 저고리내. {저고리, 옛날 저고리네.}

10419 @ 요거는. {요거는.}

10419 #1 색똥저고리구. {색똥저고리고.} 10419 # 색똥저고리. {색똥저고리.} 10419 @ 색똥저고리구, 요거는? {색똥저고리고, 요거는?}

10419 #1 바:지. {바지.}

10419 @ 여자들 입능 거? {여자들 입는 거?}

10419 #1 여자덜 꼬장바지내, 여 봐. {여자들 고쟁이네, 여기 봐.} 10419 # 그 인제 여자 입능 거여, 쪽빠지여 쪽빠지. {그 이제 여자 입는 거야, 고쟁이야 고쟁이.}

10419 #1 여 봐 여, 꼬냉이두 달구 쪽빠지지. {여기 봐 여기, 끈도 달고 고쟁이지.} 10419 # 쪽빠지여 그거 쪽빠지. {고쟁이야 그거 고쟁이.}

10419 @ 쪽빠지? 꼬장바지가 쪽빠지요? {쪽바지? 고쟁이가 쪽바지예요?}

10419 # 여기 여기 여가 타 타 타져써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가 타 타 타졌어 여기가.}

10419 @ 예:. {예.}

10419 #1 꼬장바지여. {고쟁이야.}

10419 @ 꼬장바지? 그걸 쪽빠지라고두 해요? {고쟁이? 그걸 쪽바지라고도 해요?}

10419 @ 요개 인제 두루매기지요? {요게 이제 두루마기지요?}

10419 # 나 노래 인자 그 이짜나, '남자 바지는 통바지:, 여자 바지는 쪽빠지:' 이히 그 거 해헤허? {노래 이제 그거 있잖아, '남자 바지는 통바지, 여자 바지는 쪽바지' 이히 그 그거 해헤허?}

10419 #1 이진 쪼끼치마. {이진 조끼치마.}

10419 @ 그 그런: 노래가 이써요? {그 그런 노래가 있어요?}

10419 # 으:. {응.}

10419 # 그 인제 몰라, 그 그런 그런 소리만 드러써. {그 이제 몰라, 그 그런 그런 소리만 들었어.}

10420 @ 오시 여기 보면요, 요건 머:라 그래요, 요거 요거? 매:자녀요. {옷을 여기 보면요, 요건 뭐라 그래요, 요거 요거? 매:자녀요.} 10420 #1 조고리:, 여 조고리내:. {저고리, 여기 저고리내.} 10420 # 깨끼 깨끼저고리자나, 깨끼. {깨끼 깨끼저고리잖아, 깨끼.} 10420 #1 깨끼저고리, 깨끼저고리. {깨끼저고리, 깨끼저고리.}

10420 # 깨끼저고리. {깨끼 저고리.} 10420 #1 깨끼저고리. {깨끼 저고리.}

10420 @ 오새 보면요, 요기 요 하얏 거 요거 대지요 요러캐? {옷에 보면요, 요기 요 하얏 거 대지요 요렇게?} 10420 # 고거 동정, 동정. {고거 동정, 동정.}

10420 #1 요건 동정, 저고리 동정. {요건 동정, 저고리 동정.} 10420 @ 동정. {동정.}

10420 #1 응, 저고리동정이구. {응, 저고리 동정이고.}

10420 @ 그 다매 요기 끄는? 이거 강: 거. {그 다음에 요기 끈은? 이거 긴 거.}

10420 #1 오:꼬름. {옷고름.}

10420 # 오꼬름. {옷고름.}

10420 @ 오꼬름. {옷고름.}

10420 @ 그 다매 요기 요기 이르캐 달 달 온 단능 거 이짜나요. {그 다음에 요기 요기 이렇게 달 달 옷 달는 거 있잖아요.}

10420 @ 요거. {요거.}

10420 #1 이거 지다니여 질: {이거 깃 아니야 깃.} 10420 @ 버러지지 말라고. {벌어지지 말라고.} 10420 #1 질:, 동정. {깃, 동정.} 10420 @ 요거는? {요거는?}

10420 #1 요거넌 동 요거넌... {요거는 동(정) 요거는...} 10420 @ 동정 달려 인는 대가지시지요? {동정 달려 있는 데가 깃이지요?} 10420 # 그리여. {그래.} 10420 #1 어:, 질:. {어, 깃.}

10420 @ 그, {그.}

10420 #1 이견 머스루 대능 거구 또. {이견 멋으로 대는 거고 또.}

10420 @ 예:. {예.}

10420 @ 지시구. {깃이고.}

10420 @ 요기는 뭐라 그래요, 요기? {요기는 뭐라 그래요, 요기?}

10420 #1 꼬똥. {끝동.}

10420 @ 꼬똥. {끝동.}

10420 #1 어. {어.}

10420 @ 여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머라 그래요? {여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 그래요?}

10420 #1 이거 이: 파리지 머: 저:기. {이거 이 팔이지 뭐 저기.} 10420 # 소매, 소매. {소매, 소매.} 10420 #1 소매:, 소매:. {저기 소매. 소매.} 10420 @ 소매, 예:. {소매, 예.}

10420 @ 남자드:른 온 온 보면요, 남자 남자들 오새는 여기 이러캐 차능 거 이써찌요? 할머니들두 여기, 담배두 느쿠 머. {남자들은 옷 옷 보면요, 남자 남자들 옷에는 여기 이렇게 차는 거 있었지요? 할머니들도 여기, 담배도 넣고 뭐.}

10420 # 염랑인가? {염랑인가?} 10420 #1 여 영:랑주 주, {여 염랑주 주,}

10420 # 주머니! {주머니!}

10420 #1 바:랑 주머니여, 머여? {바랑 주머니야, 뭐야?}

10420 #1 고거 무슨. {고거 무슨.}

10420 # 돈: 는능 건, 돈 는능 건 염낭 주머니구. {돈 넣는 건, 돈 넣는 건 염낭 주머니
고.}

10420 @ 예. {예.}

10420 # 담:배 이때는 이:저넨 하라부지덜 담:배 는능 건 담:배-쌈찌. {담배 이전에는 이전
에는 할아버지들 담배 넣는 건 담배쌈지.}

10420 #1 쌈지:, 쌈지락카구:. {쌈지, 쌈지라고 하고.}

10420 @ 쌈지. {쌈지.} 10420 # 쌈지쭈머니, 쌈지쭈머니. {담배쌈지, 담배쌈지.}

10420 @ 예. {예.}

10420 # 하라부지 담: 저 쌈지또니. {할아버지 담, 저 쌈지돈이.} 10420 #1 하라부지 쌈지
돈 머:. {할아버지 쌈지돈 뭐.}

10420 # 해해 그래 호호. {해해 그래 호호.}

10420 #1 손자: 주다 봉개 머 탈탈 비어따 그래능. {손자 주다 보니까 텅텅 비었다 그러
는.}

10420 @ 아:, 그럼 개요? {아, 그런 거예요?} 10420 #1 으:. {응.}

10420 @ 쌈, 그러면 쌈지에 담:배 는능 거요? {쌈, 그러면 쌈지에 담배 넣는 거예요?}

10420 # 으:, 담:배 는능. {응. 담배 넣는 (거).}

10420 # 담:배두 느쿠 머, 돈:두 느쿠 그래씨:. {담배도 넣고 뭐, 돈두 넣고 그랬어.}

10420 @ 저기는? 불 불 키능 거. {저기는? 불 불 켜는 거.}

10420 # 부시? {부시?}

10420 #1 부시. {부시.}

10420 # 불부시. {불부시.}

10420 @ 예. {예.}

10420 # 부시여 부시 기양 ****. {부시야 부시 그냥 ****.} 10420 @ 고: 둘:두 이꾸. {고
둘도 있고.}

10420 #1 둘:. {둘.}

10420 # 부시똥. {부싷똥.}

10420 #1 부시똥:이락카구:, {부싷똥이라고 하고.} 10420 # 차돌. {차돌.}

10420 #1 저:기 부시똥:루 저:기 야쭈기지? 그거. {저기 부싷똥으로 저기 약쭈이지? 그거.}

10420 # 음:, 아니여, 수리치기. {응, 아니야, 수리취.}

10420 #1 수리치기, 발루 싹싹 비 가주구 그래서 툇 치면 부리 나능 거. {수리취, 발로 싹
싹 비벼 가지고 그래서 툇 치면 불이 나는 거.}

10420 @ 이퍼리 뒤에 허:연 경가요? {이파리 뒤에 허연 건가요?}

10420 # 허영 거, 그래 마자. {허연 거, 그래 맞아.}

10420 @ 이 이퍼리 뒤에 허영 거. {이파리 뒤에 허연 거.}

10420 # 빠짱 말리서 부래다가, {바싹 말려서 불에다가,}

10420 #1 그런대 왜: 수리치기가 움때매: 시방. {그런데 왜 수리취가 없다며 시방.}

10420 # 사니 지서서 그리유. {산이 짓어서 그래요.}

10420 #1 워:서 또 완내. {어디서 또 왔네.}

10420 #1 아:, 또 인재:- 즈:놔가. {아, 또 이제 전화가.} 10420 @ 그르구. {그리고.}

10420 @ 이 이렇 건 머라 그래요, 여기 다름 거는 염낭, 쌈지, 주머니 그래자나요? {이 이

런 건 뭐라 그래요, 여기 다른 거는 얹냥, 씹지, 주머니 그러잖아요?)

10420 # 그리유. {그래요.}

10420 @ 이거는, 이러:캐 생깁 건?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건?}

10420 # 건 머 엽쭈머니지 그기 **. {그건 뭐 옆쭈머니지 그게 **.} 10420 #1 거 그 머
 개쭈머이라구 하지 머: 오새:. {거 그 뭐 갓쭈머니라고 하지 뭐 옷에.} 10420 #
 그렇 개 이썬 머가? 아주 바지저고리애는 엽썬 그기:. {그런 게 있어 뭐가? 아주
 바지저고리애는 없어 그게.}

10420 #1 오새 개 개쭈머이라 구라지:.

10420 #1 양복쭈머이라 구라지 머머 머리야. {옷에 개 갓쭈머니라고 그러지.} {양복쭈머니
 라고 그러지 뭐뭐 뭐래.} 10420 @ 개쭈머니? {갓쭈머니?}

10420 #1 야:, 개쭈머이. {예, 갓쭈머니.}

10420 @ 개쭈머니. {갓쭈머니.}

10420 # 개화쭈머니. {개화쭈머니.}

10420 @ 개화쭈머니? {개화쭈머니.}

10420 @ 이견 이견 개량 이 저: 애새 헨날 오시 아니지요? 우리 오시. {이견 이견 개량
 이 저 요새 헨날 옷시 아니지요? 우리 옷이.}

10420 @ 드러온 오시지요? {들어온 옷이지요.} 10420 # 그리여. {그래.} 10420 #1 시방,
 시방 신시고신대 머. {시방, 시방 신식 옷인데 뭐.}

10420 @ 호주머이라구두 해요? {호주니라고도 해요?}

10420 #1 야? {예?} 10420 #1 호주머이. {호주머니.}

10420 #1 호주머이라구두 하구:. {호주머니라고도 하고.} 10420 @ 호주머이는 어떻 걸
 호주머이라 그래능 거요? {호주머니는 어떤 걸 호주머이라 그러는 거예요?}

10420 #1 아이 그 다: 호주머이라구두 하구 머: 저기 개쭈머이라구두 하구 이라
 자나:. {아니 그 다 호주머니라고도 하고 뭐 저기 갓쭈머니라고도 하고 이러잖아.}

10420 @ 여패 매달링 거를 호주머이라구는 안 해지요? {옆에 매달린 거를 호주머니라고는
 안 하지요?}

10420 @ 여기. {여기.}

10420 # 아너: 근 그냥 주머니구. {아니야, 그건 그냥 주머니고.} 10420 @ 그냥 주머니
 고. {그냥 주머니고.}

10420 @ 이 인제 온 니부먼 이르키 매자나요? {이 이제 옷 입으면 이렇게 매잖아요?}

10420 # 헐, 띠: 허리띠. {허리, 띠 허리띠.}

10420 @ 허리띠. {허리띠.}

10420 @ 그거 멀:루 맨드러요? {그거 뭘로 만들어요?}

10420 # 아이 그건 머, 그: 저: 이분 오새 따라서루 하지 머. {아이 그건 뭐, 그 저 입은
 옷에 따라서 하지 뭐.}

10420 # 명지 오슨 명지루 하능 기 조:쿠, 저: 무명 베넌 무명으루다 하능 기 조:쿠 그르차
 나요? {명주 옷은 명주로 하는 게 좋고, 저 무명 베는 무명으로 하는 게 좋고 그
 령잖아요?}

10420 @ 남자들 이르케 미태 임능 거를 머라 그래요? {남자들 이렇게 밑에 입는 것을 뭐
 라 그래요?}

10420 @ 남자드리 미태 임능 거. {남자들이 밑에 입는 거.}

10420 # 바지. {바지.} 10420 #1 아이, 바지라 구라지 머:. {아이, 바지라고 그러지 뭐.}

10420 @ 바지자나요? 그럼 요로::캐 해 가주구, {바지잖아요? 그럼 요렇게 해 가지고,}

10420 # 댄님,. 저:. {댄님, 저.}

10420 #1 댄님 맨다 구라지. {댄님 맨다 그러지.}

10420 @ 댄님? {댄님?}

10420 #1 으:, 댄님. {응, 댄님.} 10420 # 으: 꼬니 따루 이썬요, 여 널븐 기. {으 끈이 따로 있어요, 이 널븐 것이.}

10420 @ 요기 매능 거는? {여기 매는 거는?} 10420 #1 버전 싱:꾸 댄님 요기 요로캐 요로캐 가주 댄님... {버전 신고 댄님 요기 요렇게 요렇게 해 가지고 댄님...}

10420 @ 또 어디 갈라면 요기두 매능 거 이썬요? {또 어디 가려면 여기도 매는 거 있어요?}

10420 # 행진. {행진.}

10420 @ 그건 행저니라 그래요? {그건 행전이라 그래요?}

10420 # 으:, 토시그치... {응, 토시같이...} 10420 @ 아, 요기서부터 요까지 이르캐? {아,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이렇게?}

10420 # 그래, 그래, 그래, 그리야. 여기서 꼬러서 여기서 짬매자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기서 끝어서 여기에서 동여매잖아?}

10420 @ 아:. {아.}

10420 # 그걸 행저니라 그리야. {그걸 행전이라 그래.}

10420 @ 발모개서부터 여기 저: 저기 오금쟁이 인는 대까지 이로:캐 싸서 매닝 건 행진. {발목에서부터 여기 저 저기 오금쟁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싸서 매는 건 행진.}

10420 #1 으:. {응.}

10420 @ 그리고 끈 꼬늘 요기다 뭉능 거를? {그리고 끈 끈을 여기다 묶는 것을?}

10420 # 그걸 그 행진 꼬니유, 근. {그것을 그 행진끈이에요, 그건.} 10420 @ 행진 꼬니라 그래요? {행진끈이라 그래요?}

10420 # 야:. {예.}

10420 # 걸 짬:매야 나리가덜 아나거덜. {그걸 잡아 매야 내려가지를 앓거든.}

10420 @ 아:, 중대님이래능 건 업썬요? {아, 중대님이라는 건 없어요?}

10420 #1 야? {예?}

10420 @ 중댄님. {중대님.}

10420 #1 중대니면 중가내 매능 기 중대니밀 티지. {중대님은 중간에 매는 게 중대님일 테지.} 10420 # 움썬:, 중대니미라구 따루 움꾸 따루 움썬. {없어, 중대님은 따로 없고 따로 없어.} 10420 #1 중대니면 움썬. {중대님은 없어.} 10420 # 우리가 보기는 그리여.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10420 # 그 저내 선비 하라부지덜 다: 하싱 걸 보구서 하는 애기지, 우리가 그걸 우린 모매 대: 보두 모: 태썬 그렇 거. {그 전에 선비 할아버지들이 다 하신 걸 보고서 하는 애기지, 우리가 그걸 우리는 몸에 대어 보지도 못 했어 그런 거.}

10420 @ 예:. {예.}

10420 @ 그:, {그,} 10420 # 아 인재, {아 이제,}

10420 @ 예. {예.}

10420 # 아이, 말씀하유. {아이, 말씀해요.}

10421 @ 바지저고리나 치마저고리 맨들 때: 맨: 처음에 천: 이짜나요? 베짜치 가따가 이케
 뿐 떠가지구 가워루 가새루다 이르게 찢르지요? {바지저고리나 치마저고리 만들
 때 맨 처음에 천 있잖아요?} {베짜치 갖다가 이렇게 본 떠 가지고 가위로 가위로
 이렇게 자르지요?}

10421 # 으:. {응.}

10421 @ 그걸 머 한다 그래요? {그걸 뭐 한다 그래요?}

10421 # 거뚜 개다리** {그것도 개다리**} 10421 #1 온 말른다 구라지 머. {옷 마른다
 그러지 뭐.}

10421 #1 두루매기 말른다구 해:구. {두루매기 마른다고 하고.}

10421 #1 중우적삼 말라야지:. {중의적삼 말라야지.} 10421 # 지그무루 말하면 재다니지
 머.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단이지 뭐.}

10421 #1 재다, 시방언 재다니라구 하는데, {재단 시방은 재단이라고 하는데,}

10421 @ 였나랜 다: 말... {옛날에는 다(른다)...}

10421 #1 어? {어?}

10421 @ 예. {예.}

10421 # 그 이부리한테 그 치수를 맞춰 가주서루 그 재다늘 하지:. {그 이불이한테 그 치
 수를 맞춰 가지고 그 재단을 하지.}

10421 #1 시방은: 마다. {시방은 모두.} 10421 # 지금두 그르차나요? {지금도 그렇잖아
 요?}

10421 #1 우리능 그냥 이르게 말라서 해쩌만 였:날, 시방더런 재다니라 구라자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라서 했지만 옛날, 시방들은 재단이라 그러잖아.}

10421 @ 다 말른다 그러능 거잖아요. {다 마른다 그러는 거잖아요.}

10421 @ 말라서 한다구. {말라서 한다고.} 10421 #1 으 시방언 말라서 재단 말른다구 구
 라드라구. {으 시방은 말라서 재단 마른다고 그러더라고.} 10421 # 으 말라서 한
 다 그래구 말라서 온감 말른다 구래찌. {으 말라서 한다 그러고 말라서 옷감 마른
 다 그랬지.}

10421 @ 그거 머, 그걸 머라 그래요? {그거 뭐, 그걸 뭐라 그래요?}

10421 @ 마룽개지리라고 그래요, 마름개지리라고 그래요? {마름개질이라고 그래요, 마름
 개질이라고 그래요?}

10421 # 마룽개지리라고 구라지 머. {마름개질이라고 그러지 뭐.} 10421 #1 마름개지리라
 구... {마름개질이라고...} 10421 # 마룽개지리라 구래짜나? {마름개질이라고 그랬
 잖아?}

10421 #1 였:나래 초상이 나두 다: 지배서 마름개질 해: 가주구 꼬매짜나. {옛날에 초상이
 나도 다 집에서 마름개질 해 가지고 꿰맸잖아.} 10421 # 으: 온 말, 어: 온 마르
 자나. {어 옷 마(르), 어 옷 마르잖아.}

10421 @ 마룽개질 해서? {마름개질 해서?}

10421 # 지그른 재다니여 그건. {지금은 재단이야 그건.}

10421 @ 그거 할라면 인재 지 지럭찌를 재:야 대지요? {그거 하려면 이제 기 길이를 재야
 되지요?}

10421 # 그러치 자:, 자가 이짜나, 이저내 쓰던 목짜. {그렇지 자, 자가 있잖아, 이전에 쓰

던 목자.}

10421 # 지금 저 신 신식 목짜가 아니구, 저: 자가 아니구 이저넨 목짜 까까 가주서루. {지금 저 신 신식 목자가 아니고, 저 자가 아니고 이전에는 목자 째아 가지고서.}

10421 # 이 여개 머 바 반: 치니 한 치니 요로케 해서 누넨 맨드러 가주서루 그걸 가주구 해짜나. {이 여기 뭐 바 반 치니 한 치니 요렇게 해서 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잖아.}

10421 @ 예:. {예.}

10421 @ 자루다 해 가지구 이게 인제 바:잖아요? {자로 해서 이게 이제 베 잼아요?}

10421 # 야:, 가새. {예, 가위.}

10421 @ 그 바:능 건 머요? {그 베는 건 뭐예요?}

10421 #1 가새. {가위.}

10421 @ 가새. {가위.}

10421 @ 가새구. {가위고.}

10422 @ 바느질 할 때 또 뭐: 머가 피료해요? {바느질 할 때 또 뭐 뭐가 필요해요?}

10422 @ 이렇 거꾸 피료하지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요?}

10422 #1 뭐어: 요거넨 골미내? {뭐 요거는 골무네?} 10422 # 골밀썰 멀. {골무일세 뭘.}

10422 #1 골미. {골무.} 10422 # 바늘 바늘 요고 요고 찌고 해야 바느리 요걸 찔르덜 안하지. {바늘 바늘 요거 요거 끼고 해야 바늘이 요걸 찌르지를 않지.}

10422 #1 아 아푸넹개 이 골미 찌구 하네. {아프니까 이 골무 끼고 하네.} 10422 @ 예. {예.} 10422 #1 골미네. {골무네.}

10422 @ 그 바느질 할 때, 바느질 한다 그래지요? {그 바느질 할 때, 바느질 한다 그러지요?}

1042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422 @ 그럼 바느질 할라 그러면 그거 이러:캐 지버 는능 거 이찌요? {그럼 바느질 하려고 하면 그거 이렇게 집어 넣는 거 있지요?}

10422 @ 여러 개 드려 이찌요, 거기? {여러 개 들어 있지요, 거기?}

10422 #1 응:, 반누지끄럭. {응, 반질고리.}

10422 @ 바너, 으? {바느(질), 네?}

10422 #1 반지끄럭. {반질고리.}

10422 @ 반지끄럭? {반질그룩?}

10422 #1 어 반지끄럭. {어, 반질고리.} 10422 # 반질끄럭, 반질, 반질. {반질고리, 반질, 반질.}

10422 @ 반질끄럭? {반질고리?}

10422 # 어:. {응.}

10422 @ 그 아내 머 머 드려써요? {그 안에 뭐 뭐 들었어요?}

10422 #1 머: 가새 들구 실꾸리 들구 이 골미 들구 그루치 머.

10422 #1 흥겹 인저 흥겹 쪼가리: 머: 쓸 꺼: 느쿠. {뭐, 가위 들고 실꾸리 들고 이 골무 들고 그렇지 뭐.} {형겘 이제 형겘 조각 뭐 쓸 거 넣고.}

10422 @ 예. {예.}

10422 #1 구루치 뭐:. {그렇지 뭐.}

10422 @ 바늘: 바늘두? {바늘, 바늘도?}

10422 #1 바늘 실꾸리에 바늘 꼬아서 누쿠:. {바늘 실꾸리에 바늘 꽂아서 넣고.}

10422 @ 그걸 그거: 한:... {그것 그거 한...}

10422 #1 바느질개. {바느질개.}

10422 @ 한 쌈, 예? {한 쌈, 예?}

10422 # 쌈지라 구래써 한 쌈지. {쌈지라 그랬어 한 쌈지.} 10422 #1 바느질개. {바느질개.}

10422 @ 바느질개? {바느질개?}

10422 #1 바느질개에 바늘 꼬아서 누쿠:. {바느질개에 바늘 꽂아서 넣고.}

10422 #1 바느 엔:날 바느질개 요: 짤쫘:망 개 이짜나:. {바늘 옛날 바느질개 요 길죽한 게 있잖아.} 10422 # 바늘 꿈능 거, 바늘 꿈능 거 이써. {바늘 꽂는 거, 바늘 꽂는 거 있어.} 10422 @ 바늘 꿈능 거? {바늘 꽂는 거?} 10422 #1 그 아내 달리써. {그 안에 달려 있어.}

10422 @ 바느질개. {바느질개.}

10422 # 으:. {응.}

10422 @ 그래구 쌈, 쌈지요? 쌈? 바늘쌈? {그리고 쌈, 쌈지요? 쌈? 바늘쌈?}

10422 # 한 쌈지가 그기 머 열 개 시무 개 왜 바늘 꼬친 개*. {한 쌈지가 그게 뭐 열 개 스무 개 왜 바늘 꽂힌 게 **.}

10422 @ 예. {예.}

10422 # 파는 기 그리여. {파는 게 그래.}

10422 # 그 한 쌈지 주시요 하머넌 그 하 하나가 한 쌈지여. {그 한 쌈지 주세요 하면 그 하 하나가 한 쌈지야.}

10422 # 열 개면 열 개 스무 개면 시무 개. {열 개면 열 개 스무 개면 스무 개.}

10422 #1 그런데 머 시방 바느질개가 먼:지 머 바느리 먼:지 머 아라? {그런데 뭐 시방 바느질개가 뭔지 뭐 바늘이 뭔지 알아?}

10422 #1 머 어디 머 바느지를 해야지. {뭐 어디 뭐 바느질을 해야지.} 10422 # *** 칭칭 이루 굴:근 늬. {*** 층층으로 굵은 늬.}

10422 # 굴:근 늬 중간 늬 아주 가능 늬, 그래 칭칭이지 머 바느리. {굵은 늬 중간 늬 아주 가는 늬, 그렇게 층층이 뭐 바늘이.}

10422 @ 예. {예.}

10422 @ 이렇 거. {이런 거.}

10422 #1 이기 바 이니 이기 반지끄르깅 개비여. {이게 반 이게 이게 반질고리인가 봐.}

10422 # 그쵸 그 그거 그티여. {글세 그 그거 같아.}

10422 #1 반지끄럭. {반질고리.}

10422 #1 그 가새 인내. {거기 가워 있네.}

10422 @ 왜 이꾸 이렇 건 머요? {되어 있고 이런 건 뭐예요?}

10422 # 재봉이여 쫘만 자봉. {재봉틀이야 조그만 재봉틀.} 10422 #1 이거 자방트리내. {이거 재봉틀이네.}

10422 #1 재방틀. {재봉틀.}

10422 # 재봉 이거 이걸 다: 지금 지금 지금 저 신시기여 이저내 저 재봉이 어디써. {재봉틀 이거 이걸 다 지금 지금 지금 저 신식이야 이전에 저 재봉틀이 어디 있어.}

10423 @ 바늘 바느질하는 방법뚜 여러 가지가 이짜나요? {바늘 바느질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0423 @ 요로:캐 가주구 요로:캐 똥그라캐 가무면서 하능 거 이꾸, 또 요로캐 요로캐 요로캐 요로캐 하능 거 이꾸.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똥그랴게 감으면서 하는 거 있고, 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고 있고.} 10423 # 그러치 감... {그렇지 감...}

10423 # 그러캐 이래 감:치녕 거 이꾸 또 이러캐서 이래 해 하녕 거 이꾸 왜 여러 가지지 머 그기. {그렇게 이렇게 감치는 거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하는 거 있고 왜 여러 가지지 뭐 그게,}

10423 #1 바:금질. {박음질.}

10423 @ 어트개 하능 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423 #1 바:금질 디애 바눌루 디:떠서 요리캐 바:금질. {박음질 뒤에 바눌로 뒤를 떠서 요렇게 박음질.}

10423 @ 예. {예.}

10423 #1 감:치면 요로캐 요로:캐 감치구 요로캐 감치구. {감치면 요렇게 요렇게 감치고 요렇게 감치고.}

10423 @ 예:. {예.}

10423 #1 감:치구:, {감치고,}

10423 @ 예. {예.}

10423 #1 호: 흠질. {호 흠질.}

10423 @ 흠질. {흠질.}

10423 #1 요 요래요래래래래 대 다:꾸 그냥 화: 나가자나. {요 요래요래래래래 대 자꾸 그냥 화 나가잖아.} 10423 # *** 함빠내 이래 자버댕기자나. {*** 한번에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10423 #1 흠질 그르치 머. {흠질 그렇지 뭐.} 10423 @ 아아. {아아.}

10423 @ 그거는 요로캐 요로캐 끼어서 짹: 자버다녕 개, {그것은 요렇게 요렇게 꿰어서 짹 잡아당긴 개,} 10423 # 그러치 실: 어: 자부댕기능 거. {그렇지 실 어 잡아당기는 거.}

10423 @ 그개 흠:지리구 바금지른, 그러 그러캐 하면 고기 안 다, {그개 흠질이고 박음질은, 그러 그렇게 하면 고기 안 다,} 10423 #1 디애 디애 어: 디릴 떠서 대꾸 대꾸 자바댕기여:, 요로캐 떠서: 자바댕기 또 떠서 자바댕기면 바금질. {뒤에 뒤에 어 뒤를 떠서 자꾸 자꾸 잡아당겨, 요렇게 떠서 잡아당기(고) 또 떠서 잡아당기면 박음질.}

10423 #1 또 감:침지런 요로캐 요로캐 대꾸 감치 나가구. {또 감침질은 요렇게 요렇게 자꾸 감쳐 나가고.} 10423 # 휘휘 감:능 거구. {휘휘 감는 것이고.}

10423 # 예. {예.}

10423 #1 요래 요래 감치 나가구. {요래 요래 감쳐 나가고.}

10423 @ 늑: 누 뉘비능 거는. {누비 누 뉘비는 것은.}

10423 #1 니비녕 건 몰:라유. {누비는 건 몰라요.}

10423 #1 니비녕건 아내 아내 바서 그건 몰라. {누비는 건 안 해 안 해 봐서 그건 몰라.}

10423 # 뉘비녕 건 이:저넌, {누비는 건 이전에는,} 10423 #1 아이, 쯡쯡 화:서 니비대: 옴:나래. {아이, 촌촌하게 화서 뉘비던데, 옛날에.}

10423 #1 이르캐 쯡쯡 화:서 뉘비능 거 바:써 나. {이렇게 촌촌하게 화서 뉘비는 거 봤어

내가.}

10423 # 아니 총총히 총총히 인재 그걸 뜨만 그거 뉘비징 거지 머. {아니 총총히 총총히 이제 그걸 뜨면 그제 누벼진 거지 뭐.} 10423 #1 근데 머:, {그런데 뭐,}

10423 #1 자방틀 라구서넌 머:. {재봉틀 나오고는 뭐.} 10423 @ 온 온- 있자나요, 온? {옷 옷 있잖아요, 옷?}

10423 @ 온 여기두 지꾸 여기두 지꾸 이런 오슬 머:라 그래요. {옷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이런 옷을 뭐라고 그래요.}

10423 @ 다: 떠러져서 진: 온. {다 떨어져서 기운 옷.} 10423 # 흐:논. {헨 옷.}

10423 # 기냥 흐:노시지 머. {그냥 헨 옷이지 뭐.} 10423 #1 흐녕 흥:가진 머 누:디기 지 떼타다지 머, 누:디기:. {헨 헨 가지 뭐 누더기 깃뚫한다지 뭐, 누더기.}

10423 #1 누:디기, 지:서 누:디기라구 구라지 뭐:. {누더기, 기워서 누더기라고 그러지 뭐.} 10423 @ 예 누:디기. {예, 누더기.}

10423 #1 누:디기 지떠탄다구. {누더기 깃뚫 한다고.} # 헤하하하. {헤하하하하.}

10424 @ 그거 인재 또 온 이부먼 때:가 무짜나요? {그거 이제 또 옷 입으면 때가 묻잖아 요?}

10424 # 으:. {응.}

10424 @ 그럼 저 빠러야 되지요? {그러면 저 빨아야 되지요?}

10424 # 그럼. {그럼.}

10424 @ 그럼 빨라 그러면 머머가 피료해요. {그러면 빨려고 하면 뭘뭘이 필요해요.}

10424 #1 거 비누: 이써야지 비누:. {그 비누 있어야지 비누.}

10424 #1 비누루 치래서 방맹이루 투덜구, {비누를 칠해서 방망이로 두드리고,}

10424 @ 예. {예.}

10424 #1 시방언 인재 사 저: 거시기 가루비누는 효허 느:서루: 당가 놔따가 빨구 머:. {시 방은 이제 사 저 거시기 가루비누는 ** 넣어서 담가 놔다가 빨고 뭐.}

10424 #1 또 인저 뭐: 저: 세탁끼, 쿵 거넌 세탁끼 느:서 빨구 그러지 머. {또 이제 뭐 저 세탁기, 큰 것은 세탁기에 넣어서 빨고 그러지 뭐.}

10424 @ 예:저내는뇨? {예전에는요?}

10424 #1 옴:나라넌 다: 아수 비누루 다: 빠라서 발:바하구 투디리서 비비서 빨지 머:. {옛 날에는 다 아이 비누로 다 빨아서 밟고 두드리서 비벼서 빨지 뭐.}

10424 # 나 나무재 나무재루 해짜나요? {나 나무 재 나무 재로 했잖아요?}

10424 #1 나무 때:서 양젼물루 해서 씹:꾸:. {나무 때서 양젼물을 해서 삶고.}

10424 # 양재물 양 양젼물루 끌러내 나옴 거구. {양젼물 양 양젼물은 근년에 나온 것이 고.} 10424 #1 저기 재애 재: 바다 놔따 다마서 젼물 래:서 그 물루 빨 쌀마 빨 구. {저기 재애 재 받아 놔다가 담아서 젼물 내서 그 물로 빨 삶아 빨고.} 10424 # 젼물 너리 ***. {젼물 너리 ***.}

10424 # 무병 무병 베에 , {무병 무병 베에,}

10424 #1 무병 베넌 다: 그르캐 해써, 그때는. {무병 베는 다 그렇게 했어, 그때는.}

10424 @ 그거 빨래할 때는 어디 가서 해찌요? {그거 빨래할 때는 어디 가서 했지요?}

10424 #1 여: 또랑에:. {여기 또랑에.} 10424 # 또랑애 물 러리가는 데. {또랑에 물 내려 가는 데.}

10424 @ 거기를 머라 그래요, 빨래***?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빨래***?}

10424 #1 개우레 빨래하루 간다 구라지. {개울에 빨래하러 간다고 그러지.} 10424 # 빨래
장 하는대는 빨래터. {빨래 장 하는대는 빨래터.}

10424 @ 빨래터:. {빨래터.}

10424 #1 으:. {응.}

10424 #1 개우레 빨래하루 간다 구라지. {개울에 빨래하러 간다 그러지.}

10424 @ 빨래하러 간다 그래구. {빨래하러 간다 그러고.}

10424 @ 그걸 이르게, {그거 이렇게,}

10424 #1 방망이루 투디리서 빨지. {방망이로 두드려서 빨지.} 10424 # 방망이 조:기. {방
망이 조기,}

10424 @ 무슨 무슨 방 이진. {무슨 무슨 방 이진.}

10424 #1 으: 이:런 방망이루, {어, 이런 방망이로.} 10424 # 이거여 이거. {이거야 이거,}

10424 @ 이걸 머 무슨, {이걸 뭐 무슨} 10424 # 빨래빵매이~. {빨랫방망이.} 10424 #1
방: 뭤래빵매이~ {방 뭤랏방망이.}

10424 # 빨래빵매이 빨래 빨래빵매이. {빨랫방망이 빨래 뭤랏방망이.} 10424 #1 빨래빵매
이. {뭤랏방망이.}

10424 @ 이거뚜 오뚜 함 벌 함번 빨구: 두 범 빨구 그래지요? {이것도 옷도 한 벌 한 번
빨고 두 번 빨고 그러지요?}

10424 #1 아이구 머: 만날 머 버서 빨래 빠능 기 이리지 뭐:, 버서서. {아이고 뭐 만날 뭐
벗어 빨래 하는 게 일이지 뭐, 벗어서.} 10424 # 다: 떠러져 내부리 두면 내부리
지르면 쌀마 빠라 가주, {다 떨어져 내버려 두면 내버려지르면 삶아 빨아 가지
고,}

10424 #1 하닐 저 메칠 이부먼 버서 빨구 버서 빨구 머 만날 그기지 뭐어:. {한 일 저 머
칠 입으면 벗어 빨고 벗어 빨고 뭐 만날 그기지 뭐야.}

10424 @ 처음 빠능 건 머라 그래요? {처음 빠는 건 뭐라고 그래요?}

10424 @ 너무 호까통 거 마:니 무드면 함 번 대충 빨구 그 다매 또 깨끄타게 빨자나요?
{너무 흙 같은 것 많이 묻으면 한 번 대충 빨고 그 다음에 또 깨끗하게 빨잖아
요?}

10424 #1 이듬 빨구 이듬 빨래 썸:짜나:. {이듬 빨고 이듬 빨래 삶잖아.}

10424 @ 예, 그러면 두 번째 빠능 개 이드미지요? {예. 그러면 두 번째 빠는 게 이듬이지
요?}

10424 @ 처으매 빠능 거는? {처음에 빠는 것은?}

10424 #1 츠:매 빠능 거 아이 빠라 가주: 썸:닝 거 이듬 빨래. {처음에 빠는 거 애벌 빨아
가지고 삶는 것은 이듬 빨래.}

10424 @ 예:. {예.}

10424 #1 쟈물 래능 거 사암등애 쟈물랜다카구. {젓물 내는 것은 ***& 젓물낸다고
하고.}

10424 # 아이구 이:저내 상 기. {아이고 이전에 산 것이.} 10424 #1 옴:나래 그래서 옴:나
래, 쟈물.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젓물.} 10424 @ 머:애 쟈물 랜다구요? {뒤에
젓물 낸다고요?}

10424 #1 아이 그 빨래애 쟈물이 부터쓰닝개 또 무 뜨신 뜨근 무래다 쫄쫄 끄리서 당과따
너러야 푸래서. {아이 그 빨래에 젓물이 붙었으니까 또 물 따듯한 뜨거운 물에다

펄펄 끓여서 담갔다가 널어야 풀을 해서.}
 10424 @ 아아. {아아.}
 10424 @ 그렇 거요? {그런 거요?}
 10424 @ 그래 소니 마:니 가짜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갔지요?}
 10424 #1 아이 소니 엄청 가지: 그놈 다 푸래서 손지래서 다리서, {아니 손이 엄청나게 가지, 그놈 다 풀을 해서손질 해서 다리서,}
 10424 # 이:저내는 이저넨 여자더리 드:래 나가 일 모:태써, 이렇 거 해 대느라구. {이전에는 이저네는 여자들이 들에 나가 일 못 했어, 이런 거 해 대느라고.}
 10424 #1 해: 대너라구. {해 대느라고.}
 10425 @ 빨래: 해서 말려야 되지요? {빨래 해서 말려야 되지요?}
 10425 # 그럼. {그럼.}
 10425 @ 어디다 말려요. {어디에다 말려요?}
 10425 #1 아이 어다 말려 저: 줄 매:구 너러서 말리지. {아이 어디다 말려 저 줄 매고 널어서 말리지.}
 10425 @ 그 줄 그: 주를 머라 그래요? {그 줄 그 줄을 뭐라고 그래요?}
 10425 # 빨래줄. {빨랫줄.} 10425 #1 빨래줄. {빨랫줄.}
 10425 @ 빨래줄. {빨랫줄.}
 10425 @ 그저내는 저 울-파리에두, {그전에는 저 율타리에도,}
 10425 # 아이 그런 데두 거러서 저 다매 그튼데두 **** {아이 그런 데도 걸어서 저 담 같은데도 ****} 10425 #1 빨래줄루, 다매 거튼데두 걸지마넌 빨래쭈래 널:지 머 빨래줄. {빨랫줄로, 담 같은데도 걸지마는 빨랫줄에 널지 뭐 빨랫줄.}
 10425 @ 그래서 너리파가 옛날 오슨 또 이거 해야 되자너요 이거 또. {그래서 널었다가 옛날 옷은 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또.}
 10425 #1 따디미. {다듬이질.}
 10425 @ 예:. {예.}
 10425 #1 따디미빵맹이루 두디리여. {다듬잇방망이로 두드려.}
 10425 @ 미태: 그건 머라 그래요? {밑에 그건 뭐라고 그래요?}
 10425 #1 따딤뚝. {다듬잇돌.}
 10425 @ 예? {예?}
 10425 #1 따디미뚝. {다듬잇돌.}
 10425 @ 따딤 따디미뚝. {다듬이 다듬잇돌.} 10425 # 다디미 다디미뚝 다디미. {다듬이 다듬잇돌 다듬이.} 10425 #1 다:디미뚝. {다듬잇돌.}
 10425 # 다디미뚝. {다듬잇돌.}
 10425 @ 그러고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10425 #1 방맹임. {방망이.}
 10425 # 다디미방맹이. {다듬잇방망이.} 10425 #1 다:디미방맹이. {다듬잇방망이.}
 10425 @ 다디미방맹이. {다듬잇방망이.} 10425 # 이진 빨래빵맹이. {이진 빨랫방망이.}
 10425 @ 예. {예.}
 10425 @ 이거 하능 걸 머: 한다 그래요? {이거 하는 걸 뭐 한다고 그래요?}
 10425 #1 다:디미질. {다듬이질.}
 10425 @ 다디미질한다 그래구. {다듬이질한다 그러고.}

10425 # 어: 불 다마 가주 이래 다리능 거. {어 불 담아 가지고 이래 다리는 거.} 10425 @ 예. {예.}

10425 @ 그러구 인재 여기다가 불 다며 가주구 이르케 피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불 담아 가지고 이렇게 피지요?}

10425 #1 이기 옴:날 따리미내. {이게 옛날 다리미네.} 10425 # 그래 이기 인:날, 옴:날 따리미여. {이게 옛날 옛날 다리미야.}

10425 # 난 암만 봐두 난 이거 머 모:장가 그래썬, 그래 이기.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이게 뭐 모자인가 그랬어, 그래 이게.} 10425 #1 어 이거 옴:날 따리미여, 요로케 요기다 불 다며 가주 이걸루 다리서 이래: 이래 자너썬. {어 이거 옛날 다리미야, 요렇게 요기에 불 담아 가지고 이걸로 다리서 이래 이래잖았어.}

10425 @ 한 쪼개서 부짜버 주구. {한 쪽에서 붙잡아 주고.}

10425 #1 하나 인재 두:리 부짜구 이르:케 이르케 다리썬. {하나 이제 둘이 붙잡고 이렇게 이렇게 다렸어.} 10425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425 @ 예. {예.}

10425 @ 머한다 그래요 이걸? {뭐한다 그래요 이걸?}

10425 # 다 다리미 다리미질. {다 다리미 다리미질.}

10425 #1 다리미 다리미질. {다리미 다리미질.}

10425 @ 다리미질. {다리미질.}

10425 @ 그: 그거: 할 때 또 화:리에다가 끼워따가 요로:케 요로케 민능 거 이썬요? {그거 할 때 또 화로에다가 끼웠다가 요렇게 요렇게 민는 거 있지요?}

10425 # 윤:두. {인두.} 10425 #1 윤:두. {인두.}

10425 # 인두 이거 이거. {인두 이거 이거.} 10425 #1 윤:두. {인두.}

10425 @ 윤:두? {인두?}

10425 #1 아이 질팔구 머: 꼬불 때 윤:두 꼬버따가 요래 쪼:옥: 다리야자나 이래 놀:러 달고. {아이 깃 달고 뭐 썬을 때 인두 썬았다가 요렇게 죽 다리야 하잖아 이래 놀러 달고.}

10425 @ 이게 인재 다미또기구, {이게 이제 다듬잇돌이고.}

10425 #1 다리미또리구. {다리밧돌이고.} 10425 # ***** 방맹이. {***** 방망이.}

10425 # 다디미방맹이. {다듬잇방망이.} 10425 #1 다디미방맹이내. {다듬잇방망이네.}

10425 @ 다디미방맹이루 이르케 다디미질하능 거지요? {다듬잇방망이로 이렇게 다듬이질 하는 거지요?}

10425 @ 예. {예.}

10425 # 그 장단 마취서 이거 두:리 하면 ** 마자. {그 장단 맞춰서 이거 둘이 하면 ** 마자.} 10425 #1 시방두 시방두 다디미질 잘하대 여기, {시방도 시방도 다듬이질 잘 하더, 여기.} 10425 @ 예. {예.} 10425 #1 태래비 보먼. {텔레비전 보먼.}

10425 @ 그 온-뚜 인재 그러케 맨드러 가주구 새깔 냉 내개 할라면, {그 옷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색깔 색 내게 하려면.}

10425 #1 생 내개 하머년 인재 무럴 디리야지. {색 내게 하면 이제 물을 들여야지.}

10425 @ 예. {예.}

10425 @ 무슨 물 디려요? {무슨 물 드려요?}

10425 #1 아, 옥쟁물두 디리구 부:농물두 디리구 머: 파랑물두 디리구 머어: 이러케 해 가

주 애덜 해 이피지. {아 옥색물도 들고 분홍물도 들고 뭐 파랑물도 들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애들 (웃을) 해 입히지.}

10425 @ 멀:루다가 드려요 그걸? {뭘로 들어요 그걸.}

10425 #1 옴:나래 무리 이때:. {옛날에 물이 있던데.} 10425 @ 사 사요? {사 사요?}

10425 #1 우리 우리 찌개는. {우리 우리 적에는.}

10425 @ 사요? {사요?}

10425 #1 야:, 우리 찌개는 무리 이씨유. {예, 우리 적에는 물이 있어요.}

10425 #1 요망:꿈 사 사가다가 빨강물 머 파랑물 노랑물 다: 사씨. {요만큼 사 사다가 빨강물 뭐 파랑물 노랑물 다 샀어.}

10426 @ 쪽 쪽-이라능 거 이씨요? {쪽 쪽이나는 거 있어요?}

10426 # 쪽기찌. {쪽 있지.}

10426 @ 쪽 쪽물, {쪽 쪽물.} 10426 # 쪽기라능 거시 그개 옥색기여. {쪽이라는 것이 그개 옥색이야.}

10426 @ 옥색, 예. {옥색, 예.}

10426 #1 쪽무런 옥색기여. {쪽물은 옥색이야.} 10426 # **** 쪽기라능 건. {**** 쪽이라는 건.}

10426 @ 그거 멀:루다 해요. {그거 무엇으로 해요?}

10426 # 몰라 그 씨가 이씨서: 저 울타리 밑에 시무먼 그개 * ***는대. {몰라 그 씨가 있어서 저 울타리 밑에 심으면 그개 ***는데.} 10426 #1 난 몰라 난 파랑물 사다만 디리 바:씨. {난 몰라 난 파랑물만 사다가 들여 봤어.} 10426 # 그거 씨가 그거 온감물 디리씨서. {그것 씨가 그것 온감물 들었었어.}

10426 @ 풀루 풀루.{풀로 풀로.} 10426 #1 옥쟁물. {옥색물.}

10426 # 푸리어 푸린대 어 씨서 인재 그거 무렐, {풀이야 풀인데 어 썬어서 이제 그것 물을,} 10426 @ 풀. {풀.} 10426 # 저기 해능 기여. {저것 하는 거야.} 10426 #1 아이 시방두: 그런 풀 쌀머 가주 디리대 머. {아이 시방도 그런 풀 삶아 가지고 들이더구먼 뭐.}

10426 # 그 쪽기여 그기. {그 쪽이야 그개.}

10426 # 인재 지금 쪽 하:나두 귀경 모티야 그거. {이제 지금 쪽 하나도 구경 못해 그거.}

10426 # 이퍼리가 이래 동구리야. {있이 리렇게 동그란해.}

10426 # 이래 동굴 쪽니퍼리그따 그라자나. {이렇게 둥근 쪽이파리 같다 그러잖아.}

10426 @ 예:. {예.}

10426 @ 양참무리나 재물:루두 빨래하구, {양젓물이나 젓물로도 빨래하고,}

10426 # 으:. {응.}

10427 @ 기와짱 빵 걸루두 해씨요? {기왓장 빵 것으로도 했어요?}

10427 #1 그거넌 그럭 땅녕 거지:. {그것은 그릇 닦는 거지.} 10427 # 그건 땅녕 거여 기양. {그건 닦는 거야 그냥.} 10427 #1 옴:날 노꾸러억:.{옛날 닳그릇.} 10427 @ 노끄럭? {닳그릇.} 10427 # 노꾸럭. {닳그릇.}

10427 # 노꾸럭 땅능 거지. {닳그릇 닦는 거지.} 10427 #1 그럭 거는 그거 처 가주 노꾸럭 따까찌:. {그런 것은 그거 처 가지고 닳그릇 닦았지.}

10427 #1 노꾸레기 한참 바다 머그만 시키면 하닝개: 만날: 이라구 안자 따가서, 따끄면 뽀이얀 하구:, 또 메칠 바다 머그면 노꾸러기 노:끼 노:끼, 노:끄럭, 논씨끼. {닳그

릇이 한참 받아 먹으면 시커머니가 만날 이려고 앉아 닭아서, 닭으면 뽕얇고, 또
며칠 받아 먹으면 낫그릇이 낫기 낫기, 낫그릇.}

10427 @ 예:. {예.}

10427 #1 그거 따가찌 머. {그거 닭았지 뭐.}

10427 # 지:사가 지:사가 도라오면 정하게 해야 된다고: 꿈: 노끄럭 따까 거주서 제:사
전... {제사가 제사가 돌아오면 정하게 해야 된다고 꼭 낫그릇 닭아 가지고 제사
전...}

10427 # 물 항 그러기래두 그 따끈 그러새다 떠 봐야지. {물 한 그릇이라도 그 닭은 그릇
에 떠 봐야지.}

10427 @ 양젼물하구 켜무른 그 무명 가통 거:, {양젼물하고 젼물은 그 무명 같은 거.}

10427 #1 그건 쌀마. {그건 삶아.}

10427 @ 씹 쌀머 거주구 저:, {삶 삶아 가지고 저,} 10427 #1 사다. {사다가.} 10427 @
깨끄타개 할라 그래능 거지요, 하야케 할라구.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하얇게 하려고.}

10427 # 양젼무런 일본 짜람 나오구 양젼물 나오썬요:. {양젼물은 일본 사람 나오고 양젼
물 나왔어요.} 10427 @ 예. {예.}

10427 #1 그저내는 저기 켜물 봐: 거주, {그건에는 저기 젼물 놓아 가지고,} 10427 @ 켜
무른, 켜무른 멀:루다가 맨드러 썬요? {젼물은, 젼물은 무엇으로 만들어 썬어요?}

10427 #1 쿵각찌 그통 거 때 때: 거주구, {쿵각지 같은 거 때 때 가지고,

10427 #1 재털 바다 나:따, {재를 받아 났다가,} 10427 @ 쿵각찌. {쿵각지.} 10427 #1
그러면 미끄러워. {그러면 미끄러워.} 10427 # 어: 저 사내: 사내 저 푼나무, {어
저 산에 산에 저 푼나무,}

10427 @ 예. {예.}

10427 # 푼나무 이저내 저 까가다 말려서 때:썬요. {푼나무 이전에 저 갔다가 말려서 땀어
요.}

10427 @ 예:. {예.}

10427 # 그거 바다 봐:따가 이르케 퍼니기에 다마 노쿠서루 그 우애 물 부머닌 그 무리 너
리가: 알루 인재. {그거 받아 났다가 이렇게 퍼내기에 담아 놓고서 그 위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내려가 아래로 이제.}

10427 @ 예. {예.}

10427 # 그러면 그 물 그기 켜무리여. {그러면 그 물 그게 젼물이야.}

10427 @ 예:. {예.}

10427 @ 그걸루다가 하면 오시 깨끄태저서요? {그것으로 하면 옷이 깨끗해저서요?}

10427 #1 예 뽕얇 하지요. {예, 뽕얇지요.}

10427 @ 아이구: 저:기 오느른 요기까지 하께요. 허허. {아이고 저기 오늘은 요기까지 할
게요, 허허.}

10427 #1 아유 그래유. {아유 그래요.}

10427 #1 질령나 나 질령나 주꺼썬어:, {진력나 나 진력나 주썬어.} 10427 @ 할머니한테
여쭙볼 깨: 저:기 채소하구 그: 나물로다가 머 이르케 짐치 당구능 거:. {할머니한
테 여쭙어볼 게 저기 채소하고 그 나물로 뭐 이렇게 김치 담그는 거.}

10427 @ 할라부지두 다: 아실 건대 그러면. {할아버비도 다 이실 것인데 그러면,} 10427

아니여 몰라:. {아니야 몰라.}

10427 #1 알:지 몰라아::? {알지 몰라?}

10427 @ 고: 고롱 거 쯔 여쭙볼라 그러구. {그 그런 것 쯔 여쭙어 보려 그러고.}

10427 #1 아이구 저 오늘 질령나서 고만히야. {아이고 저 오늘 진력나서 그만해.}

10427 #1 아이구 찌거리 질령나 나. {아이고 찌거리 진력나 나.}

10427 @ 사 사실 쪽, {사 사실 쪽,} 10427 #1 너머 오래:.. {너무 오래...} 10427 @ 쯔
 쯔 하구 놀:구 그래야 되는데: 하라부지 얘기 재미 이썬서, {조금 하고 놀고 그래
 야 되는데 할아버지 얘기가 재미 있어서,} 10427 # 나: 오늘 월래: 어디 월래 멀:
 리 무슨, {나 오늘 원래 어디 원래 멀리 무슨,} 10427 @ 할머니 얘기 재미 이꾸.
 {할머니 얘기 재미 있고.} 10427 # 크닐하루 갈라구 하다가 교순니미 **서루 거
 기두 모:까구 이러캐 부짜피 가주 인능 기여. {큰일 하러 가려고 하다가 교수님이
 **서 거기도 못가고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있는 거여.} 10427 #1 내 저 저 잘
 아:는 사라멀 디리구 가지. {내가 저 저 잘 아는 사람을 들이고 가지.}

파일 번호: 04

SCB_BE_04

파일 내용: 제1편 구술발화: 1.2. 일생 의례-1.2.3. 전통혼례식, 1.2.6. 환갑잔치, 1.2.7. 장
 례 절차, 1.2.8. 제사.

조 사 자: 박경래(1958년생)

제 보 자: 황종연(黃鐘淵, 1924년(甲子年)생, 男, 86세, 취미, 무학 한글 해독, 서당에서 천
 자문 학습, 농업)

보조 제보자:

전 사 자: 홍현화, 박경래

주 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296번지

조 사 장 소: 황종연 제보자의 집, 보은읍 종곡리 296번지

조 사 일 시: 2009년 7월 31일

=1 @ 파월 따래두 또까치 고 날짜애 나가능 거요? {팔월 달에도 똑같이 고 날짜애 나가는
 거예요?}

=1 # 안직 몰라요, 저기 사밀랄 저기 또 회릴 총회릴 해 가주서루 인재 거기서 또 하라는
 대루 하능 거지 머 우트개. {아직 몰라요, 저기 삼일날 저기 또 회를 총회를 해 가지
 고 이제 거기서 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어떻게.}

=1 @ 그럼 사밀까지는 안 나가시능 거내? {그럼 삼일까지는 안 나가시는 거네?}

=1 # 인재 사미리래야 머 메칠 나마썬요? 인재 한 사날 나마는데 그 안 또 침 머는 머 깨
 췌기 시머 농 거뚜 손질해야 되고 인재 그래 채:마 바뚜 인재 맨드러야 되고. {인제
 삼일이래야 몇일 남았어요? 이제 한 사날 남았는데 그 안(에) 또 *** 뭐 깨 포기 심
 어 놓은 것도 손질해야 되고 이제 그래 채마 밭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1 # 그뚜 그가내 해야 봐야지. {그것도 그간에 해 봐야지.}

=1 @ 짐장할 꺼? {짐장할 것?}

=1 # 야 짐장 야 짐장 꼬추. {야, 짐장 야 짐장 꼬추.}

1.2. 일생 의례

10222 # 늑개:야 자시걸 늑개 뒤썩요:. {늑개야 자식을 늑개 뒀어요.}

10222 # 딸만 모조:리 딸 딸만 대여선 나:썩, 모조:리 딸 따릴 그러케 마:니 나쿠선, 나타 보니께 꼬트머리 가서 자 아덜 자시기 두:리 태이드라구. {딸만 모조리 딸 딸만 대여섯 낳았어, 모조리 딸 딸을 그렇게 많이 낳고는, 낳다 보니가 끝머리 가서 자 아들 자식이 둘이 태이더라고.}

10222 # 하나넌 계:묘생 하나넌 경 저: 머시 병:오생 그리유. {하나는 계묘생 하나는 경 저 뭐야 병오생 그래요.}

10222 # 계:묘생 병오 병오생이 둘째 둘째 아:가 병오생이구. {계묘생 병오 병오생이 둘째 둘째 애가 병오생이고.}

10222 @ 꼬트루 두:리 아드리내요? {끝으로 둘이 아들이네요?} 10222 # 예:. {예.} 10222 @ 그러면? {그러면?}

10222 @ 위로 따리구? {위로 딸이고?}

10222 # 다: 따리유, 여선. {다 딸이요, 여섯.}

10222 # 여서선 다: 따린대. {여섯은 다 딸인데.}

10222 @ 여서시요? {여섯이요?}

10222 # 으: 따리 여서신대. {으 딸이 여섯인데.}

10222 # 시:썰 딸 시:썰 따리 배결뽕이 들리 가주서 주거썩 시:썰 따리. {셋째 딸 셋째 딸 이 백혈병이 걸려 가지고 죽었어, 셋째 딸이.}

10222 @ 으으:. {으음.}

10222 @ 아이고:. {아이고.}

1.2.3. 전통혼례식

10207 @ 아까 저기:, 전통 그: 홀례썩 얘기해짜너요? {아까 저기 전통 그 혼례식 얘기했잖 아요?}

10207 # 으:. {으.}

10207 @ 홀례시칼 때:, 그: 머 머 준비해요? {혼례식할 때, 그 뭐 뭐 준비해요?}

10207 @ 여자가 입는 오슨 아까, 그냥 치마조고렁가요? {여자가 입는 옷은 아까, 그냥 치마저고리인가요?}

10207 # 그러치 머:, 저:개 근재 그개 관뵈긴대: 인저 남자넌 인재 참 이 바지조고리면 바지조고리 인재 두루매 저기에 두루매기 이꾸:. {그렇지 뭐, 저기 그 인재 그개 관복인데 이제 남자는 이제 참 이 바지저고리면 바지저고리 이제 두루매기 저기에 두루매기 입고.}

10207 @ 머 머뒤에, {뭐 무엇 위에,}

10207 # 양보기면 양복 우애두 인재 그걸 이꾸 저: 거시기가 이썸, 관보패 저:기 마냥으로, 저: 향:교애 지사지내능 거 그치 그 그 관퇴기거덜. {양복이면 양복 위에도 이제 그걸 입고 저 거시기가 있어, 관복 왜 저기 마냥으로, 저 향교에 제사지내는 것 같이 그 그 관복이거든.}

10207 @ 예. {예.}

10207 # 그거이 이꾸서 인재 저: 거시기 여기 관, 관 그거 쓰구, 그르케 인재 하구. {그거 입고 이제 저 거시기 여기 관, 관 그거 쓰고 그렇게 이제 하고.}

10207 # 여자는 인재 원새미라구 원삼. {여자는 이제 원삼이라고 원삼.}

10207 @ 예. {예.}

10207 # 원사미라구 인재 그 여자들만 원삼 이러캐서루 두루매기 그치 이르케 생겼는데 참 색동조고리라구 여기 여기 빨:강 거 새파랑 거 이러케 느: 놔서루 이러케 향 건대. {원삼이라고 이제 그 여자들만 원삼 이렇게 해서 두루마기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참 색동저고리라고 여기 여기 빨간 것 새파란 것 이렇게 넣어 놔서 이렇게 한 건대.}

10207 # 그거하구 인재 쪽또리, 쪽또리 쪽또리:가 남자로 말하면 관 쯤 기여,{그거하고 이제 족뚜리, 족뚜리 족뚜리가 남자로 말하자면 관 쓴 거야.} 10207 @ 예:. {예.}

10207 # 여자는. {여자는.}

10207 # 그거 인재 우애 인재 이러캐 하구서 뒤에 머리 이러캐서 인재 읍씨면 이거 달비라구 인재 그저 머리 으 탄 사람 저 머리 이러캐 장: 거 이러캐 해 가주서 요래 요래 짬:매구선 이걸 이 낭잘 여 비:겔 비넬 맨들지. {그거 이제 위에 이렇게 하고서 뒤에 머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없으면 이거 다리라고 이제 그저 머리 으 다른 다람 저 머리 이렇게 긴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요래 요래 동여매고 이걸 이 낭자를 여 비녀를 비녀를 만들지.}

10207 @ 예. {예.}

10207 # 이거 비개 빈내 인재 이만::창 장 거 인재 그거. {이거 비녀 비녀 이제 이만큼 긴 거 이제 그거.}

10207 # 저 테레비 나오년대 보면 거 연기하던대 보면 그기 마:니 나오대 그기.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거 연기하는데 보면 그게 많이 나오데 그제.}

10207 @ 예:. {예.}

10207 # 그러케 하구서 인재 여기 빨:간 칠하구 인재 요기하구 연지 글 연지라 구리야 연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 빨간 칠하고 이제 여기하고 여진 그걸 연지라 그래 연지.}

10207 # 연지 곧지 쨍는다 구라자나? {연지 곧지 찍는다 그러잖아?}

10207 @ 어디가 연지구 어디가 곧지요? {어디가 연지고 어디가 곧지요?}

10207 # 아 이 이기 인재 연지라 구리야 여기 다: 하능 거 연지. {아 이 이게 이제 연지라 그래 여기 다 하는 거 연지.}

10207 # 어 연지 연지 쨍는다고. {어 연지 연지 찍는다고.}

10207 # 요기 시: 군대 요기 빨가케 요기 빨개 요기 빨가케 이르케. {요기 세 군데 요기 빨강게 요기 빨강게 요기 빨강게 이렇게.}

10207 # 군대 그때는 무릎 태년대 지그면 거 빨:강 걸루다 오리서루 부치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물을 탔는데 지금은 그 빨간 걸로 오려서 붙이더라고.}

10207 @ 예:. {예.}

10207 # 그 그거지 머: 으:. {그 그거지 뭐 으.}

10207 # 머 저, {뭐 저,}

10207 @ 실 실두 준비하지 아나요? {실 실도 준비하지 않아요?}

10207 # 실? {실?}

10207 @ 빨강 거 머 파랑 거 이렇 거. {빨간 거 뭐 파랑 거 이런 거.}

10207 # 그게 인재 이찌:. {그게 이제 있지.}

10207 # 그 인재 그 대래쌍애, {그 이제 대래쌍애,}

10207 @ 예. {예.}

10207 # 대래쌍애 인저 술뽕이여 술 어 술뽕얼 이:짜 저:짜 이 이래 이래 두: 개럴 논넨대 거기다 대나무럴 꼬:꺼덩 으? {대래쌍애 이제 술병이야 술, 술병을 이쪽 저쪽 이 이래 이래 두 개를 놓는데 거기에다 대나무를 꽂거든 으?}

10207 # 대나무가 사:철 이퍼리가 핀다고 그래서 그 대나무 가따 꼬자 그 수래다 술뽕애 다. {대나무가 사철 잎이 핀다고 그래서 그 대나무를 갖다 꽂아 그 술애다 술병애 다.}

10207 # 그라운 예: 실랑은 실랑이 실랑이 청소리 청시랑가 홍시랑가 걸 잘 모루건내. {그러면 예 신랑은 신랑이 신랑이 청실이 청실인가 홍실인가 그걸 잘 모르겠네.}

10207 # 그래서 청실 홍시릴 그 대나무다 이러케 걸:끼지. {그래서 청실 홍실을 그 대나무애다 이렇게 걸치지.}

10207 # 그래 걸:끼고서 인재, 절한 뒤에 실랑 새당 인재 절한 뒤에 절한 뒤에 그 시:릴 그 술 저기 실랑이 이러:케 여기다 걸:더라구 홀모개다, 새택뚜 걸:구. {그래 걸치고서 이제, 절한 뒤에 신랑 새택 이제 절한 뒤에 절한 뒤에 그 실을 그 실 저기 신랑이 이렇게 여기에다 걸더라고 손목애다, 새택두 걸구.}

10207 # 그르카구서 인재 서루 새대기 술 부머넨 실랑 가따 주구 실랑이 수릴 부먼 새택 까따 주고, 이러케 바파서 자넨. {그렇게 하고서 이제 서로 새택이 술을 부으면 신랑 갖다 주고 신랑이 술을 부으면 새택 갖다 주고, 이렇게 바파서 잔을.}

10207 # 그러케 함 번 그러케 잔 와따 가따 이러카구서넨 인재 글루 잔 올리닝 건 끈나, 고기서. {그렇게 한 번 그렇게 잔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걸로 잔 올리는 것은 끝나, 거기서.}

10207 @ 그때 그: 실 실랑이라 그래구 여자는 머라 그래요? {그때 그 신 신랑이라 그러고 여자는 뭐라 그래요?}

10207 # 신부:. {신부.}

10207 @ 신부. {신부.}

10207 # 으: 신부. {으 신부.}

10207 # 념 내미 얘기할 켜 그리여, 실랑 신부. {남 남이 얘기할 때 그래, 신랑 신부.}

10207 @ 예, 새 새 따기라구는 앙 그래요? {예, 새 새택이라고는 안 그래요?}

10207 # 새대기라구 안 하구 그건 신부라 구리여. {새택이라고 안 하고 그건 신부라 그래.}

10207 @ 그럼 이제 그거 끈나구 지배 와쓸 때 새 새대기라 그래나요 새택? {그럼 이제 그거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새 새택이라 그러나요 새택?}

10207 # 그르치 인재 내미 얘기할 찌개 인재 새대기라 구라지. {그렇지 이제 남이 얘기할

적에 이제 새댁이라 그러지.}

10207 # 으 내미 얘기할 쟤 인재 새댁. {으 남이 얘기할 때 이제 새댁.}

10207 # 그때는 인재 그기 신부라 구라드라구. {그때는 이제 그게 신부라 그러더라고.}

10207 @ 고때는 심 실랑 심부라 그래구. {그때는 신 신랑 신부라 그러고.}

10207 # 어:. {어.}

10207 # 그리잉개 새루 어든 새 새루 인재 내 거시기 만내따구래 새: 신짚지:, {그러니까 새로 얻은 새 새로 이제 거시기 만났다고 그래서 새 신자인지.}

10207 @ 예. {예.}

10207 # 어:, 새: 신짚지 그건 몰라. {어, 새 신자인지 그건 몰라.}

10207 @ 예:. {예.}

10207 # 그 저 인재 그 그래 새루 만내따 그래 신부, 실랑. {그 저 이제 그 그래 새로 만났다고 그래서 신부, 신랑.}

10207 @ 네:. {네.}

10207 # 실랭이라능 기 그래서 실랭이라구 하능 거 그뜨라구. {신랑이라는 게 그래서 신랑이라고 하는 거 같더라고.}

10207 @ 예:. {예.}

10207 # 실랑 신부 만내서, {신랑 신부 만나서,}

10207 @ 예 예. {예 예.}

10207 # 머리가 머 파뿌리 그치 시:두룩 살 살 살 산:다구, 헤헤헤. {머리가 뭐 파뿌리 같이 세도록 살 살 살 산다고, 헤헤헤.}

10207 # 어 전서래 그르케 나와 이뜨라구유. {어 전설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0207 @ 네:. {네.}

10207 @ 그래서 인재 그: 지배 오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오잖아요?}

10207 # 으 으. {으 으.}

10207 @ 그러면 인재 여자가 지배 와서 방에 처매는 가마:니 이찌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방에 처음에는 가만히 있지요?}

10207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07 @ 그럼 동네 싸람드리 보루 간다 그러지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보러 간다 그러지요?}

10207 # 그러치 보루 와 새댁 꾸경하러 온다구 모도 그러지. {그렇지 보러 와 새댁 구경하러 온다고 모두 그러지.}

10207 # 또 시지배 가두 그리여. {또 시집에 가도 그래.}

10207 # 인재 그러다 인재 시지부루 인재 그뻐 인재 인재 글 글 우레라 구리여 우레:. {이제 그러다 이제 시집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이제 그걸 그걸 우레라 그래 우레.}

10207 @ 예? {예?}

10207 # 우레:. {우레.}

10207 @ 우레? {우레?}

10207 # 어: 시 썬 실랭이 장:가가서 인재 그 이튼날 인재 하루뻐 자구서:, {어, 시 새 신랑이 장가가서 이제 그 이튼날 이제 하룻밤 자고서,}

10207 @ 예. {예.}

10207 # 자구서 그 이튼날 인저 새댁걸 데리구 오자나? {자고서 그 이튼날 이제 새댁을

테리고 오잖아?}

10207 @ 아: 신부 찌배 가서? {아, 신부 집에 가서?

10207 # 신 인재 신부 저: 신부 찌배서 자구서로 실랑 찌부르 인재 가자나? {신 이제 신부
저 신부 집에서 자고서 신랑 집으로 이제 가잖아?}

10207 @ 예:. {예.}

10207 # 우레라 구리야 우레. {우레라 그래 우레.}

10207 @ 우레. {우레.}

10207 # 어: 우 우레 우레:해: 온다구 그리야. {어 우 우레 우레해 온다고 그래.}

10207 @ 예:. {예.}

10207 # 어: 그랄 쟈 그 새대기 그때 그 저 행리 때 입땡 거 그거 원삼 그거 이꾸: 여기
참 쪽또리 여개 쓰구 이래 여기 하구서, {어 그럴 때 그 새택이 그때 그 저 행레
때 입던 거 그거 원삼 그거 입고 여기 참 족뚜리 여기 쓰고 이렇게 여기 하고서,}

10207 # 인재 하루뵘 자쓰닝개 이거 다 머 바르능 개 새로 인재 새로 인재 거시기 지루
지그무루 말하면 새로 화장하능 거지: 으:. {이제 하룻밤 잤으니까 이거 다 뭐 바
르는 게 이제 새로 이제 새로 이제 거시기 지금으로 말하자면 새로 화장하는 거
지, 으.} 10207 @ 예:{예.}

10207 # 그르카구서 인재 실랑 지뵐 따라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신랑 집으로 따라가.}

10207 @ 예. {예.}

10207 # 어: 따라 따라가는데... {어, 따 따라가는데...}

10207 # 그러면 인저 거 가서 인재 폐:배기라구 인저 하녕 거선 인재 시어머니 시아부지
계:시머넌 그- 한테 인재 그 잔 올리닝 개 그개 폐:배긴대예:.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폐백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시면 그(분들)
한테 이제 그 잔을 올리는 게 그개 폐백인데.}

10207 @ 예. {예.}

10207 # 그 폐백 쭈릴 따루 가주가요. {그 폐백 술을 따로 가져가요.}

10207 @ 예:. {예.}

10207 #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마려널 해줘:.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마련을 해줘.}

10207 @ 예. {예.}

10207 # 거기 인재 머: 수란주 머 다컬 한다던지 그 거 이러캐 해 가주서루 거다 느: 줘
요. {거기 이제 뭐 술안주 뭐 닭을 한다든지 그 거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넣어
줘요.}

10207 # 느: 주면 거 가서 인저 저: 그: 폐:백 바들 찌개 폐백 싸들 찌개 시어머니 시아부
지가 이러캐 안자쓰면 인재 실랑 하구 부부가 부부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이러
캐 자널 올리고 저럴 히야. {넣어 주면 거기 가서 이제 저 그 폐백 받을 적에 폐
백 받을 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신랑 하고 부부가 부
부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잔을 올리고 절을 해.}

10207 # 으: 저럴 하면 인저 저: 시어머니 시아부지가 인재 걸 바다 잡쭈찌. {으, 절을 하
면 이제 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제 그걸 받아 잡수시지.}

10207 # 으: 바다 잡쭈꾸. {으, 받아 잡수시고.}

10207 # 그럼 인재 거 저 폐백 밤: 니꾸 대:추가 이꾸 폐:배개 인재 어?: {그럼 이제 거 저
폐백 밤 있고 대추가 있고 폐백에 이제 어?}

10207 # 그 머 구구하 거 여러 가지유. {그 뭐 구구해 그 여러 가지요.}

10207 @ 예:. {예.}

10207 # 거기 머 저: 과:두 머 자:스로 맨든다는지 참 인년 지빈 머 골:고루 다: 해서 이러
캐 보... {거기 뭐 저 과도 뭐 잣으로 만든다든지 참 있는 집은 뭐 골고로 다 해서
이렇게 보기...}

10207 # 저기다 이저내는 도방구리가 이러케 인는데 저: 거시기루 맨든 도방구리가 인는데
그 인재 뚜껑 더퍼서 이러케 인재 폐:백 보재기 인는데 보재기루 이래 싸: 매 가
주구서 그래 인재 가:마 아내 느: 가주서 이러케 가거덩. {저기다 이전에는 도방구
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 거시기로 만든 도방구리가 있는데 그 이제 뚜껑 덮어서 이
렇게 이제 폐백 보자기가 있는데 보자기로 이렇게 싸매 가지고 그래 이제 가마 안
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가거든.}

10207 # 차애 차 인재 차루 갈 경우에는 차 아내 들구두 가구. {차애 차 이제 차로 갈 경
우에는 차 안에 들고도 가고.}

10207 # 그때 인재 그 저기털 끌러서 노쿠서 인재 거기 술란주 인녕 걸 내: 노쿠서 그르카
구 시어머이하구 시아버지한테 저털 히야 그때서. {그때 이제 그 저기를 끌러 놓
고서 이제 거기 술안주 있는 걸 내 놓고서 그렇게 하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한
테 절을 해 그때서.}

10207 # 그 인재 퍼 노쿠선 폐:백 강애강 거털. {그 이제 퍼 놓고서 폐백 가져간 것을.}

10207 # 그래 머꾸서 인재, {그렇게 먹고서 이제.}

10207 # 그른대시개 밤: 대출 다: 머글 쭈가 이써? {그런데 밤 대추를 다 먹을 수가 있
어?}

10207 # 그라면 그 신부가 그 관보걸 이러:케 이러케 이래 이러케 벌리가 구리야, 이러:케.
{그러면 그 신부에게 그 관복을 이렇게 이렇게 이래 이렇게 벌리가 그래, 이러
게.}

10207 # 아 벌 이러:케 벌리라고 하머닌 실랑 저: 아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털 한호콤씩
으: "봉 마이 바다라! 봉 마이 바다라" 그럼서루 해 여기다 던지줘:. {아 벌, 이러
게 벌리라고 하면 신랑 저 아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를 한움큼씩 으 '복 많이 받아
라!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서 해 여기에다 던져줘.}

10207 @ 예. {예.}

10207 # 으: 던지주면 여기 그러면 수부:카개 썬이지, 헤. {으 던져주면 여기 그러면 수복
하개 썬이지, 헤.}

10207 # 그라면 이러:케구서루 인재 절 다: 하구 인재 그르카구서 어 잔 잔 뷔: 주구서 그
르카구서 이제 드르가지 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절 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어 잔 잔을 부어 주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들어가지 으.}

10207 # 이: 저내 우리하 우리 거시기 성온 서 성인될 찌개 그러케 해:써. {예전에 우리
우리 거시기 성인 서 성인될 적에 그렇게 했어.}

10207 # 그러케 해:서요. {그렇게 했어요.}

10207 @ 예:. {예.}

10207 # 어:. {어.}

10207 @ 그 폐:배기 결구근 인재 시택 으:른드란테, {그 폐백이 결국은 이제 시택 어른들
한테,} 10207 # 그러치:. {그렇지.} 10207 @ 인사하능 거지요? {인사하는 거지

요?} 10207 # 그러 그러치요. {그러 그렇지요.} 10207 @ 예. {예.} 10207 # 으:. {으:}.

10207 # 시 시택 으:런한테 인재 그 인사하능 기여. {시택 어른한테 이제 그 인사하는 거 야.}

10207 @ 그러구서 인재 시대개 와따가 한 사날:썸 이따가 다시 친정애 가지요? {그러고서 이제 시택에 왔다가 한 사날썸 있다가 다시 친정애 가지요?}

10207 # 그러치 친정애 인재 그: 저:길 가지 인재, 또. {그렇지 친정애 이제 그 저기를 가지 이제, 또.}

10207 @ 그걸 저 자 자양이라 그래나요, 자양? {그걸 저 자 자양이라 그러나요, 자양?}

10207 # 그러치 자양이라 구라지. {그렇지 자양이라 그러지.}

10207 # 자양이라구 하는데 그거뚜 인재 부 거기 가면 인재 장:인 장모 또 수리라:두 받꾸 인재 또 머 마:매 인는대루 뭇 인재 잡술 쥔 해: 가주가:-하기도 하고 인재 그러 치요 그냥. {자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부 거기 가면 이제 장인 장모 또 술 이라도 받고 이제 도 뭇 마음에 있는대로 뭇 이제 잡수실 걸 해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요 그냥.}

10207 @ 열뚜 해 가구 그래따면서요? {옛도 해 가고 그랬다면서요?}

10207 # 아: 여뚜 한 도방구리씩 이래 해: 가구, 참 마썸 만는 말쓰미여. {아, 옛도 한 도 방구리씩 이래 해 가고, 참 말썸 맞는 말썸이야.}

10207 @ 그걸 무슨 여시라 그래요? {그걸 무슨 옛이라고 해요?}

10207 # 폐:뽕 녀:. {폐백옛.}

10207 @ 폐:뽕 녀:. {폐백옛.}

10207 # 어:. {어.}

10207 # 폐 폐백 폐뽕 여신대, 아:이 근 폐:뽕 여시라구 하능 기 아니라 그걸, {폐 폐백 폐 백옛인데, 아이 근 폐백옛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10207 @ 채 채반? {채, 채반?ㄷ}

10207 # 어 채반, 채반여시여 채반년. {어 채반, 채반옛이이야 채반옛.}

10207 @ 예. {예.}

10207 # 으:. {으.}

10207 # 자본 요: 잘못뽕 거넌 나:중에 요거 저거 자가 저기릴 증정얼 잘 다시 잘 해야 돼. {** 요 잘못된 거는 나중에 요거 저거 저기를 정정을 잘 다시 잘 해야 돼.}

10207 @ 걱정하지 마셔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10207 # 그 그렇 기 난 어려워서로 잘못 찌꺼리면... {그 그런 게 난 어려워서 잘못 지껄이면...}

10207 @ 잘못뽕 거넌 업쓰니까 그렇 거는 걱정 하지 마시구요. {잘못되는 거는 없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10207 # 그개 그개 어려워. {그개 그개 어려워.}

10207 @ 그러구서 그: 머여 갈 때 열 까툇 거 이르캐 가져가서 인재 그췌개 또 인사 하능 거자녀요 그개? {그러고서 그 뭇야 갈 때 옛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그췌 에 또 인사하는 거잖아요,그개?}

10207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07 # 그르카면 그췌개 인재 친정 저기: 먼 당수기 이따던지 자근아부지가 이따던지 그

라머넌 거기 그 좌서개 안 와쥴 찌개넌 지부루 땡기민서 인사럴 히야, 실랑하구 새다카구. {그렇게 하면 그쪽에 이제 친정 저기 무슨 당숙이 있다든지 작은아버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 그 좌석에 안 왔을 적에는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해, 신랑하고 새댁하고.}

10207 # 그 신 신부 째 신부 째 그: 저 가족떨한트루. {그 신 신부 째 신부 째 그 저 가족 들한테로.}

10207 @ 예. {예.}

10207 # 다: 땡기민서루 인사럴 해여. {다 다니면서 인사를 해요.}

10207 @ 거 도방구리는 멀루 맨드러요? {그 도방구리는 뭘로 만들어요?}

10207 # 그: 이:저넌 버드나무, {그 예전에는 버드나무,}

10207 @ 예. {예.}

10207 # 이저내는 어키 저: 쟁이 이 까부르는 쟁이, {예전에는 이렇게 저 키 이 까부르는 키,}

10207 @ 예. {예.}

10207 # 그제 다: 저: 거시기:: 베실 모타니더리 그걸 맨드러쎄요. {그제 다 저 거시기 베풀 못한 이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10207 @ 예:. {예.}

10207 # 그런대 그거뚜 다: 그 그사람더리 맨드러쎄요, 이:저내, 으. {그런데 그것도 다 그 그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예전에, 으.}

10207 @ 버드나무루. {버드나무로.}

10207 # 얘: 버드나무를, {예 버드나무를,} 10207 @ 거: 꺾따기 베껴놓 거, {그 꺾타기 벗겨 놓은 거.} 10207 # 꺾따기 그 그걸 썬야 버껴져. {꺾타기 그 그걸 썬야 벗겨져.}

10207 @ 네에:. {예.}

10207 # 썬서 베깁 거뚜, 이꾸 요새 물 오른 때라 요새넌 기냥 베끼두 되고. {썬서 벗긴 것도 있고, 요새는 물오른 때라 요새는 그냥 벗겨도 되고.}

10207 # 그 아주 간자노름::항 거 인재 그걸루다 그러케 이::뿌개 그러케 맨드러서로 그래 그래 가다 다마 가주 가구 그래요. {그 아주 가느다란한 거 이제 그걸로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그래 가지고 담아 가지고 가지고 그래요.}

10207 @ 그걸 머라 그래요, 그 버드나무까지 그걸? {그걸 뭘라고 해요, 그 버드나뭇가지 그걸?}

10207 @ 채까지라 그래요? {챗가지라고 해요?}

10207 @ 그 꺾따기 베깁 거? {그 꺾타기 벗긴 거?}

10207 # 채가지는 채가지는 싸리나무 꺾따기털 채까지라구 하는대, {챗가지는 챗가지는 싸리나무 꺾타기를 챗가지라고 하는데,}

10207 @ 싸리나무 꺾따기 베깁 거, {싸리나무 꺾타기 벗긴 거,}

10207 # 야야 그런대 그걸 머:라구 하는지 모루건내. {예 예 그런대 그걸 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10207 # 그건 기양... {그건 그냥...}

10207 # 기양 저 기냥 버덜 버덜... {그냥 저 그냥 버들 버들...}

10207 @ 버들. {버들.}

10207 # 어:. {어.}

10207 # 버들라무 쫄거리:: 인재 그기 그 정돈대에:, 예 그정돈대. {버드나무 줄기 이제 그게 그 정도인데, 예 그 정도인데.}

10207 # 피넨 인재 껌때길 빼껴야 인재 그기 채:가 되닝 거여. {피는 이제 껌데기를 벗겨야 이제 그게 채가 되는 거야.}

10207 @ 하:야캐. {하얏게.}

10207 # 어: 하:야캐 되지 으:. {어 하얏게 되지요, 으.}

10208 @ 전 저: 그저내 홀레식 때는 음식근 어떻 걸 준비해요? {전, 그전에 혼레식 때는 음식은 어떤 걸 준비해요?}

10208 # 그 이저내두 머 홀레시기라능 거 저: 떠꾸가니면 국쭈유. {그 이전에도 뭐 혼레식 이라는 거 저 떡국 아니면 국수요.}

10208 @ 국쭈. {국수.}

10208 # 예:. {예.}

10208 # 여러시 인재 이러캐 대중썰그루 인재 잔치꾼더리 와서 머글 썰넨:, {여럿이 이제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제 잔치꾼들이 와서 먹을 적에는,}

10208 # 참 그러 그래 그래 해썰요, 떠국 잔치해너 이더런 줌 녀너카개 사:너니고: 간시니 우티개 사:너니넨 국쭈 해서 그저: 쪼망쿰썰 쪼마 이러캐 해셔루 노나 머꾸 으 그 래썰요. {참 그러 그래 했어요, 떡국 잔치하는 이들은 좀 넉넉하게 사는 이고 간신히 어떻게 사는 이는 국수 해서 그저 조그만쿰썰 쪼그만 이렇게 해서 나눠 먹고 으 그랬어요.}

10208 @ 국쭈두 지배서 하능 거 이꾸 저: 기계루 해: 오능 거뚜 이짜너요? {국수도 집에서 하는 거 있고 저 기계로 해 오는 것도 있잖아요?}

10208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08 # 지배서 하능 건 인재 지배서 이러캐 반주걸 해: 가서 참 솜씨 이너이더리, 지배서 할라만 거 여러시 안자서 해야 되요, 잔치릴 할라만 쓰:닝 거넨. {집에서 하는 건 이제 지배서 이렇게 반죽을 해 가지고 참 솜씨 있는 이들이, 집에서 할려면 그 여럿이 앉아서 해야 돼요, 잔치를 하려면 썰는 것은.}

10208 # 근대 기계루 하능 거선 이래 몽치 가주셔루 느:닝개 머 교수님두 알:시지마넨 트레 가서 느쿠셔루 머 기계루 이르게 증:기만 느:만 도라가서 다: 빠져 나오자나? {그런데 기계로 하는 것은 이렇게 몽쳐가지고 넣으니까 뭐 교수님도 아시지만 틀에 가서 넣고서 뭐 기계로 아렇게 전기만 넣으면 돌아가서 다 빠져 나오잖아?}

10208 @ 예. {예.}

10208 # 그거 머 가루 머 참 크:개 잔치 하너니넨 열땀 말 머 한: 섬썰뚜 국쭈릴 하구 머 이르게 하는데 아 음:넨 사람더런 우트기 하. {그거 뭐 가루 뭐 참 크게 잔치하는 이는 열땀 말 뭐 한 섬썰도 국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10208 # 쪼망쿰썰 쪼망쿰썰 해:셔루. {조그만쿰썰 조그만쿰썰 해서.}

10208 # 어: 대대로 사:넨 대대로. {어, 대대로 사는 대대로.}

10208 # 그래서 인재 머 수리 참 이쓰머넨, 다행이 머 저기 지배서 해: 는 술 그통 거 이

쓰머년. {그래서 이제 뭐 술이 참 있으면, 다행히 뭐 저기 집에서 해 넣은 술 같은 게 있으면.}

10208 # 그땐 머: 우리 장:개들 쟤만 해두 왜정 때라 수리라능 건 일쩐 그 금:지씨씨 아주. {그때는 뭐 우리 장가들 대만 해도 왜정 때라 술이라는 건 일절 금 금지였었어 아주.}

10208 @ 예. {예.}

10208 # 으: 저 세:무서에서 나와서 모:타개 해씨. {으, 저 세무서에서 나와 못하게 했어.}

10208 # 그래키 또래 도가 쭈리지 머 도가 쭈. {그렇기 때문에 도가 술이지 뭐 도가 술.}

10208 @ 예. {예.}

10208 # 지그미나 예:나 가따 다라카면 도가에서 가따 줍니다. {지그미나 예나 갖다 달라고 하면 도가에서 갖다 줍니다.}

10208 # 함 말 가주 오시오 두: 말 가주 오시오 그라면 달라는 대루 가따 줘씨. {한 말 가지고 오시오, 두 말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달라는 대로 갖다 줬어.}

10208 @ 예. {예.}

10208 # 그래 그거 가주서루 해씨 머. {그래 그거 거지고 했지 뭐.}

10208 # 저: 지금마냥으루 맥:쭈니 머 사이다니 이렇 거 그땐, {저 지금처럼 맥주니 뭐 사이다니 이런 거 끄대는,} 10208 @ 업씨씨요. {없었지요.} 10208 # 읍:씨씨요. {없었어요.}

10208 @ 구쭈두: 저기 반주캐 가주구 칼루다가 쓰릉, {국수도 저기 반죽해 가지고 칼로 썬,} 10208 # 야:. {예.} 10208 @ 국쭈는: 이르멀 머라 그래요? {국수는 이름을 뭐라고 해요?}

10208 @ 그거는, {그거는,} 10208 # 칼국쭈지요. {칼국수지요.} 10208 @ 칼국쭈구. {칼국수고.}

10208 # 으: 칼국쭈두 인재 국:개 해서 뜨끈 뜨근하게 인재 뜨거개 해서 멍녕 건, 건 누룽구기라고 하고, 누룽국. {으 칼국수도 이제 굵게 해서 뜨끈 뜨끈하게 이제 뜨겁게 해서 먹는 건, 그건 누룽국이라고 하고, 누룽국.}

10208 @ 누룽국카구 칼국쭈하구 달라요? {누룽국하고 칼국수하고 달라요?}

10208 # 그러치, 아 다인 칼 한 솜썬 다 갬대 끄린 재 끄리서 멍녕 자체가... {그렇지, 아 다 칼 한 솜씨는 다 같은데 끓인 이제 끓여서 먹는 자체가...}

10208 # 저: 고운 국쭈넌 인재: 참무래다가 이러케 시코 가주서로... {저 고운 국수는 이제 찬물에다 이렇게 시켜가지고...}

10208 @ 칼루 칼루, {칼로 칼로,}

10208 # 어: 칼국쭈 항 거넌 어:. {어 칼국수 한 거는 어.}

10208 # 또 누룽국뚜 칼루 그내해서 조금 국:개 이제 쓰:러 가주서루 건 뜨끈 뜨그나개 해서 이래 뜨거울 찌개 근 머거, 예. {또 누룽국도 칼로 그렇게해서 조금 굵게 이제 썰어 가지고 그건 뜨끈 뜨끈하게 해서 이렇게 뜨거울 적에 그건 먹어, 예.}

10208 @ 누룽구근 뜨거울 때 멍능 거구:, {누룽국은 뜨거울 때 멍능 거구,} 10208 # 야: 뜨거울 찌 머거야, {예 뜨거울 때 먹어야.}

10208 # 요썬 뜨거울- 걸 머거야 소:기 시원히야. {요썬 뜨거운 걸 먹어야 속이 시원해.}

10208 @ 예:. {예.}

10208 # 헤, 그래 으:배 가도 뜨거웁 거루 사 머거 그저. {헤, 그래 읍에 가도 뜨거운 걸로

사 먹어 그저.}

10208 @ 예:. {예.}

10208 # 뜨끈 뜨끈한 누룽국. {뜨끈 뜨끈한 누룽국.}

10208 # 에 근대 국쭈라닝 건 그거여. {에 그런데 국수라는 건 그거야.}

10208 # 국쭈구 수런 참 야 여 인년 지배래야 그저 우쑈님 대:접한다구 좀 해: 가주서루:. {국수고 술은 참 여 있는 집이라야 웃손님 대접한다고 좀 해 가지고.}

10208 # 우쑈니미라던 그 그기 상:객 후:객 양 그르켜썬요? {웃손님이라면 그 그게 상객 후객 안 그렇겠어요?}

10208 # 상:개근 인재 실랑 실랑이 데리구 가나가 상:개기구 후:개건 인재 딸 딸 뒤에 따라오니가 인재 친칭 아버지가 오던지 하라부지가 오던지 그 냥반더리 인재 그이 후, 그래 그분더리 후:개기거덜. {상객은 이제 신랑 신랑이 데리고 간 이가 상객이고 후객은 이제 딸 딸 뒤에 따라 온 이가 이제 친정 아버지가 오든지 할아버지가 오든지 그 양반들이 이제 그 후, 그분들이 후객이거든.}

10208 @ 예:. {예.}

10208 # 그분덜 인재 대저팔라구 인재 참 어디 몰:래 참 후미진대 쪼금 해 놔:따가 대저과는 수두 이꾸 그래썬요. {그분들 이제 대접하려고 이제 참 어디 몰래 후민진 데 쪼금 해 놔다가 대접하는 수도 있고 그랬어요.}

10208 @ 수리요? {술이요?}

10208 # 예:. {예.}

10208 @ 그: 국쭈하면 우애다가 또:... {그 국수하면 위애다가 또...}

10208 # 어: 고명, 그 그걸 고명이라 구리야. {어 고명, 그 그걸 고명이라 그래.}

10208 @ 그 머:... {그 뭐...} 10208 # 저: 계란. {저 계란.}

10208 # 계란-을 이러캐 저: 부쳐 가주서루 끝 고:깨 이러캐 쓰:러서 그거 노코:, {계란을 이렇게 부쳐 가지고 그걸 곱게 이렇게 썰어서 그거 놓고,}

10208 # 또 서기라능 개 이썬요, 서기 서기버썬. {또 석이라는 게 있어요, 석이 석이버섯.}

10208 @ 예:. {예.}

10208 # 아 알, {아 알,}

10208 @ 미끌미끌향 거. {미끌미끌한 거.}

10208 # 어:. {어.}

10208 @ 까:마쿠. {까맣고.}

10208 # 야:. {야.}

10208 # 그개 그기 저: 바우에서 따요. {그개 그개 저 바위에서 따요.}

10208 @ 예. {예.}

10208 # 바우두 이 너푼 바우 큰: 바우에 이개 허리가 저길 동아주덜 매:구서루 이러캐서 그 부쳐서 따능 건대 그거 따다 주근 사라미 마:나요, 그 서기버서시라능 기. {바 위도 그 높은 바위 큰 바위에 이개 허리에 저기를 동아줄을 매구서 이렇게 해서 그 붙여서 따는 건대 그거 따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 석이버섯이라는 게.}

10208 @ 예:. {예.}

10208 # 그거 인재 쌀머 나서 이러캐서 고:깨 이러캐 쓰:러 가주서로 거기다 계란 썰: 거 하구 이러캐 서겨 가주서루 그래 국쭈 뜨머년 국쭈 쏘개다 이러캐 쪼꼬망큼씩 이러캐 소느루 지버 너:서 그러개 내:가지. {그거 이제 삶아 놔서 이렇게해서 곱게

이렇게 썰어 가지고 거기에다 계란 썬 거 하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래 국수 뜨면 국수 속에다 이렇게 조그만큼씩 이렇게 손으로 집어 넣어서 그렇게 내가지.}

10208 @ 고명이랑거요?. {고명이라는 거요?.}

10208 # 야: 글 고명이라 구리야. {야 그걸 고명이라 그래.}

10208 @ 지 지 짐:두 부셔 노차너요? {지 지 김도 부셔 놓잖아요?}

10208 # 야: 짐:두 부셔 노치요, 으:. {야 김도 부셔 놓지요, 으.}

10208 @ 그거 가치 하능 거요? {그거 같이 하는 거요?}

10208 # 야야 예:. {야야 예.}

10208 @ 서기버서타구? {석이버섯하고?}

10208 @ 호박뚜 저기 쓰러 노쿠 그러지요? {호박도 저기 썰어 놓고 그러지요?}

10208 # 호박건 거시기 할 찌개 누룽구칼 찌개. {호박은 이제 거시기 할 적에 누룽국 할 적에.}

10208 @ 아. {아.}

10208 # 그거 땀 호박그텅 건 그런대 쓰더라구. {그거 땀 호박 같은 건 그런대 쓰더라고.}

10208 @ 예. {예.}

10208 # 고운 고궁 고:운 국쭈에넌 단 인재 거시기 여 인재 차무래다 이러케 함 번 행귀 가주서로 어: 무릅시 이러케 해서 다마서로 으 쪼끔 쪼끔 물끼 이래 이래 해서 그래 고:운 국쭈구. {고운 고운 고육 국수에는 단 이제 거시기 여 이제 찬물에다 이렇게 한 번 행귀 가지고 어 물 없이 이렇게 해서 담아서 으 조금 조금 물끼 이래 이래해서 그래 고운 국수고.}

10208 @ 예:. {예.}

10208 # 그 인재 근: 지금 내누내 싸 줌 쌀랑하지. {그 이제 그것은 지금 내눈에 쌀 줌 쌀랑하지.}

10208 @ 예. {예.} 10208 # 예예 그. {예예 그.}

10208 @ 우애 올리능 걸 고명이라 그래구. {위에 올리는 걸 고명이라 그러고.} 10208 # 야: 걸 고명이라 구래요. {야 그걸 고명이라고 해요.}

10208 @ 고기:는 안 나요? 계란하고, {고기는 안 놓아요? 계란하고,}

10208 # 어: 그거만 히야. {어 그거만 해.} 10208 @ 서기하구 저 그거 머여 뿌싱 거. {석 이하고 저 그거 뭐야 부신 것.}

10208 # 야, 아이 거 그땀 머 그땀 머 고기가 우쨌 머: 이쨌쨌 고기두? 노면이야 조:키야 조:치요마넌 소고기 그통 거 다져서 느면 조:치:. {야, 아이 거 그때는 뭐 그때는 뭐 고기가 어쩐 뭐 있었어 고기도? 놓으면이야 좋기야 좋지요마는 소고기 같은 거 다져서 넣으면 좋지.}

10208 # 그뚜 머 드르가 드르가 안 드르간다구두 모타구 드르간다구두 함 하 모타구 그근 그리유 으: 그때. {그것도 뭐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도 못하고 들어간다고도 하 하 못하고 그건 그래요 으 그때.} 10208 @ 이쓰면 하구. {있으면 하고.}

10208 # 아:: 그러치요 그건 머:. {아 거렁지요 그건 뭐.}

10208 # 다소가 다소가 움녕 거요 그개. {다소가 다소가 없는 거요 그게.}

10208 @ 예:. {예.}

10208 @ 그리구 저:기 소뚜쨌 뒤지버 가주구 기 기름 쳐 가주구, {그리고 저기 솔뚜쨌 뒤 집어 가지고 기 기름 쳐 가지고, } 10208 # 어: 부침 부침 하녕 거. {어 부침 부

침 하는 거.}

10208 @ 예. {예.}

10208 @ 밀가루루 하능 거지요? {밀가루로 하는 거지요?} 10208 # 그러치유, 그 밀가루 지유. {그렇지요, 그 밀가루지요.}

10208 @ 그걸 머:라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해요?}

10208 # 그기 적 뿌치, 저기라 구라지 머 적:. {그거 적 부치, 적이라 그러지 뭐 적.}

10208 @ 적. {적.}

10208 # 어: 적뿌침. {어 적부침.}

10208 @ 적뿌침. {적부침.}

10208 # 어:. {어.}

10208 @ 그거: 저기 짐치:두 느쿠 파두 느쿠 그래능 거지요? {그거 저기 김치도 넣고 파도 넣고 그러는 거지요?}

10208 # 그거 인재 그건 저 막찌기구:, {그거 이제 그건 저 막적이고,}

10208 @ 예:. {예.}

10208 # 막찌기구 그냥 보통 저건 거기 저:: 찐지 지저 배차:. {막적이고 그냥 보통 적은 저기 저 김치 저 배추.}

10208 @ 예. {예.}

10208 # 배차 인재 다마뎡 거 저기 인저 통배추루 해뎡 거 인저 그눔 이러캐 행귀 가주서 그눔, {배추 이제 담궜던 거 저기 이제 통배추로 했던 거 이제 그눔 이렇게 행귀 가지고 그눔,}

10208 # 조 고춧가루 그텅 거 인재 부터두 갠찬치만 그거 한 한 노쿠 파:, {저 고춧가루 같은 거 이제 붙어도 괜찮지만 그거 한 하나 넣고 파,}

10208 @ 예. {예.}

10208 # 파 하나 노쿠: 이러캐 머 고사리두 드르가구 머 거기 머 다소가 업써 그거뚜. {파 하나 넣고 이렇게 뭐 고사리도 들어가고 뭐 거기 뭐 다소가 없어 그것도.}

10208 # 그래 찌리 꼬쟁이루 이래 꾸어 가주서루:, {그래 찌릿고쟁이로 이렇게 꿰어 가지고,}

10208 @ 예:. {예.}

10208 # 그래서 인재 저: 처래다가 사개 올리 노쿠서룬 밀가루룰 인재 푸러 고:개 푸러 가주서루 게 인재 이개 국짜 그걸루다 이래 떠서루 요래 요래 자꾸 발라서루 이러캐 하지. {그래서 이제 저 철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서 밀가루를 이제 풀어 곱게 풀어 가지고 그래 이제 이게 국자 그것으로 이렇게 떠서 요래 요래 자꾸 발라서 이렇게 하지.}

10208 # 그래서 인재 발르면 또 이러캐 어퍼 노쿠 밋 여기 인재 또 또 이:꾸, 그 인재 처리 다라쓰잉까. {그래 이제 발르면 또 이렇게 얹어놓고 밋 여기 이제 또 또 익고 그 이제 철이 달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르면 또 이렇게 얹어 놓고 밋 여기 이제 또 또 익고, 그 이제 철이 달았으니까.}

10208 @ 예:. {예.}

10208 # 그래 안파스로 그래 이퀴 가서로 그래 하구. {그래 안팍으로 그렇게 익혀 가지고 그리 하고.}

10208 @ 그걸, {그걸,}

10208 # 으:. {으.}

10208 @ 저기라 그래요? {적이라고 해요?}

10208 # 예: 글 저기라 그래요, 으. {예 그걸 적이라고 해요, 으.}

10208 @ 밀까루루만 하기두 하구 그래쪄요? {밀갈루로만 하기도 하고 그랬지요?}

10208 # 야: 인제 아이 거기두 여러 가지 드르가: 저기:. {야 이제 아이 거기도 여러 가지 들어가 저기.}

10208 # 녹뚜. {녹두.}

10208 @ 예. {예.}

10208 # 녹뚜두 가라서두 해요, 그거:. {녹두도 갈아서도 해요, 그거.}

10208 @ 밀까루루두 하구. {밀가루로도 하고.}

10208 # 예 매 예. {예 매 예.}

10208 # 녹뚜루 향 건 참 노로름:향 기 머거 보문 마시 조:치. {녹두로 한 건 참 노르스름 한 게 먹어 보면 맛이 좋지.}

10208 # 또 메밀까루두 하두 하구:. {또 메밀가루로도 하고.}

10208 @ 예. {예.}

10208 # 막찌기루 인제 하넝 거션 꼬추두 다지고 호박뚜 다지구 머 이러개 이르게 막 따져 가주서로 밀까루 그거하구 막: 이러개 버마리 가주서루 그래 국짜루 하낙씩 이르게 처래다 떠 노쿠서 인제 이그면 이러개 두접꾸 이러개 두접꾸 그래서 인제 이그면 참 쓰:러서 이러개 손님 대:접뚜 하구 인제 그라는데 근 막찌기여 막쩍. {막 적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고추도 다지고 호박도 다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다져 가지고 밀가루 그거하고 막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래 국자로 하나씩 이렇게 찹에다 떠 놓고 이제 익으면 이렇게 뒤집고 이러게 뒤집고 그래서 익으면 참 썰어서 이렇게 손님 대접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건 막적이야 막적.}

10208 @ 머 썩:러 가주구 서껴서 그냥 하능 건 막찌기구, {뭐 썰어서 가지고 섞어서 그냥 하는 건 막적이고,}

10208 # 야: 야. {야 야.}

10208 @ 꼬챙이루 꺾어서 하능 건, {꼬챙이로 꿰어서 하는 건,} 10208 # 예 꼬챙이루 이래 어어. {예 꼬챙이로 이래 어어.}

10208 # 그건 인제 제:사애두 제사애두 그러캐서 인제 쓰구 인제, {그건 이제 제사애도 제사애도 그렇게 해서 이제 쓰고 이제.}

10208 @ 예. {예.}

10208 # 그러케 하는 저기구. {그렇게 하는 적이고.}

10208 @ 그건 저기구 그런다구? {그건 적이고 그런다고?} 10208 # 예 예. {예 예.}

10208 @ 예:예. {예.}

10208 @ 그 저기: 찹쌀까루:, {그 저기 찹쌀가루,}

10208 # 으:. {으.}

10208 @ 또는 저: 수수, {또는 저 수수,} 10208 # 으:. {으.} 10208 @ 수수까루루 이르게 두툼:해개 하능 거뚜 이짜너요? {수숫가루로 이렇게 두툼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10208 # 그 그러치요. {그 그렇지요.}

10208 @ 차징 거. {차진 거.}

10208 # 이썬요. {있어요.}

10208 # 그기 인재 저: 찻쌀까루루 항 거넌 순전히 인재 그걸 저:기 이러캐 푸러 가주서로:, {그게 이제 저 찻쌀가루로 한 것은 순전히 이제 그걸 저기 이렇게 풀어 가지고,}

10208 # 그 인재 하넌 걸 보닝깨루 쪼끔 되:개 푸러 가주서넌 그 처래다가 노쿠서루: 인저 지러멸 이러캐 두루구서 거기다 떠냐:. {그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조금 되게 풀어 가지고는 그 철에다가 놓고서 이제 기름을 두르고 거기에 떠냐.}

10208 @ 예:. {예.}

10208 # 떠 논는데 그러면 저 익짜나요? {떠 놓는데 그러면 저 익잖아요?}

10208 # 여 이래 해넌대, {여 이렇게 하는데,}

10208 @ 꾸꿍 눌러 가민서 해능 거지요? {꾸궂 눌러 가면서 하는 거지요?}

10208 # 어: 이러캐 눌러 가민서 인재 우노내 파:지거덩. {어 이렇게 눌러 가지면서 이제 *** 퍼지거든.}

10208 @ 예. {예.}

10208 # 그러면 인재 그걸 다: 인재 귀 귀: 가주구서루 인재 편, 퍼니라넌 거선 떡:, 떠걸 인재 이러캐 체루다 이르캐 놔:서 인재 고물 로쿠 또 떡까루 노쿠 이러캐 해서 시루애다 인저 이러캐서 찌 찌능 거시 그걸 퍼니라 구리야.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이제 구워 구워 가지고 이제 편, 편이라는 것은 떡, 떡을 이제 이렇게 체로 이렇게 놓아서 이제 고물 놓고 또 덕가루 놓고 이렇게 해서 시루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찌 찌는 것을 그걸 편이라 그래.}

10208 @ 그건 지금 얘기한 찻쌀까루하구 수수까루루 항 거하구 다름 거지요? {그건 지금 얘기한 찻쌀가루하고 수수가루로 한 것 하고 다른 거지요?}

10208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08 @ 그거는 저:기 북 북... {그것은 저기 북 북...}

10208 # 뿌끼미구: 쑤쑤루 항 건 부끼미구: 으:. {부꾸미구, 쑤수로 한 건 부꾸미구.}

10208 @ 찻살루 항 건뇨. {찻살로 한 것은요?}

10208 # 준: 준. {전 전.}

10208 @ 찻살루 항 건 즈니라 그래구. {찻살로 한 건 전이라고 하고.} 10208 # 아: 저 준:. {아 저 전.}

10208 @ 수수루 항 건 부끼미구. {수수로 한 건 부꾸미구.}

10208 # 어: 또 고기 요기 저 송편, {어, 또 고기 요기 저 송편,} 10208 @ 크기가 얼마해요? {크기가 얼마해요?} 10208 # 송편 그치, {송편 같이,}

10208 # 으? 아: 그 부끼머 크게 헬라만 머 철 생긴대루다 크게두 하구 머 근 다소가 업썬요. {으? 아 그 부꾸미 크게 할려면 뭐 철 생긴대로 크게도 하고 뭐 그건 다소가 업어요.}

10208 @ 전:두 그래요? {전도 그래요?}

10208 # 어 어 전:두 그러쿠:. {어 어 전도 그렇고.}

10208 @ 예. {예.}

10208 # 그래 인재, {그래 이제,}

10208 @ 그래구, {그리고,}

10208 # 저: 송편마냥 요마:하개 쪼마끔하개 이짜나? {저 송편마냥 요만하게 조그만하게

있잖아아?)

10208 @ 예. {예.}

10208 # 고건 인재 찹쌀 여기 향 거 이건 이래 돌리노쿠서루 고: 우에다 이러케 뵈기 조:
캐 이러케 귀털 마취서 이러케 도라가민 이러케 노쿠서루 저기 그래 하지. {고건
이제 찹쌀 여기 한 거 이건 이렇게 돌려놓고서 그 위에다 이렇게 보기 좋게 이러
게 귀를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놓고서 저기 그렇게 하지.}

10208 # 그걸. {그걸.}

10208 @ 쫓고마캐, {조그만하게.}

10208 # 아: 그거 인재 퍼네 퍼네 올라가능 기여 그개 떡. {아 그개 이제 편에 편에 올라
가는 거야 그개 떡.}

10208 @ 예예:. {예.}

10208 # 그라던 인재 저기 그기 무슨 저: 회:갑 회갑녀니나 또 시사 시사 때 참 잘 지내던
사라든 시사 때 이러케 편떡 이러케 해서루 패요. {그러면 이제 저기 그개 무슨
저 회갑 회갑연이나 또 시사 시사 때 참 잘 지내는 사람은 시사 때 이렇게 편떡
이렇게 해서 패요.}

10208 # 그른대 그러케 하는데 그개 올라가요 그기:, 저 퍼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개
올라가요 그개, 저 편이.}

10208 @ 네에:. {네.}

10208 # 그란:대 그기 올라가. {그러는데 그개 올라가.}

10208 # 저: 찹쌀루 보꾸 기, 예:. {저 찹쌀로 볶은 게, 예.}

10208 @ 수수두 저기 찰수수두 이꾸:, {수수도 저기 찰수수도 있고,} 10208 # 찰수수두
이쥬요. {찰수수도 있지요.} 10208 @ 메수수두 이꾸 그래요? {메수수도 있고 그
래요?} 10208 # 그리 그리유. {그래 그래요.} 10208 @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요?} 10208 # 아: 농사 해 보닝개 그리유. {아 농사 해 보니가 그래요.}

10208 # 저:기 저거 메수수유, 저기 저 씨닝 거 저거. {저기 저거 메수수요, 저기 저 쓰는
거 저거.}

10208 @ 예:. {예.}

10208 # 장목쭈수라닝 거 저거 멘 멘 메쭈수여. {장목쭈수라는 거 저거 메 메 메쭈수야.}

10208 @ 메쭈수구. {메쭈수고.}

10208 # 예. {예.}

10208 @ 빨강 거 수수파며캐멍녕 거 그개, {빨간 거 수수팔떡 해 먹는 거 그개.}

10208 # 꼬꼬타구 왜 몽타카개 이래 인는데 그기 찰수수라 그래대요. {꼳꼳하고 왜 몽탁하
게 이렇게 인는데 그개 찰수수라고 그러데요.}

10208 # 우린 그거 농사릴 여적 안해 바:서요. {우리는 그거 농사를 여지껏 안해 봤어요.}

10208 # 참 한 한가비:년 인저 구시비 가깝두룩 그 농사년 안해 바씨. {참 환 환갑이 넘어
이제 구십이 가깝도룩 그 농사는 안해 봤어.}

10208 # 이거 농사년 이거 만날 이거 매:느라구 이거 매서, {이거 농사는 이거 만날 이거
매느라고 이거 매서,}

10208 @ 비 매느라구, {비 매느라고,}

10208 # 야: 이거 매서 내가 씨느라구 이거는 농살 해 받는데 그거년 안해 바씨, 그거. {야
이거 매서 내가 쓰느라고 이것은 농사를 해 봤는데 그것은 안해 봤어, 그거.}

10208 # 또 이러캐 스녕 거 말:고: 이거마냥 패: 가주 이르캐 수구리녕 거뚜 찰수수요. {또 이러캐 서는 것 말고 이것마냥 패 가지고 이렇게 숙이는 것도 찰수수요.}

10208 # 뽕:경 거넌, {붉은 것은,} 10208 @ 뽕:경 거, {붉은 거,} 10208 # 야:. {야.} 10208 @ 예. {예.}

10208 # 그거두 찰수수유. {그것도 찰수수요.}

10208 @ 예저내는 그렇 거여짜너요? {예전에는 그런 거였잖아요?}

10208 # 야: 그렇 거 해썬요. {야 그런 거 했어요.}

10208 @ 떡 떠:근 어떻 개 이썬요. {떡 떡은 어떤 게 있어요.}

10208 @ 시루애 하녕 거뚜 이꾸:,{시루애 하는 것도 있고.}

10208 # 시루애 해능 거뚜 머 그기 여러 가지지유 머:. {시루애 하는 것도 뭐 그게 여러 가지지유 뭐.}

10208 @ 참쌀짜 저:, {참쌀자 저,}

10208 # 으:. {으.}

10208 # 찹쌀, {참쌀,} 10208 @ 판, 판꼬물, {팔, 팔고물,}

10208 # 그르치 판꼬물두 이꾸 인재 저: 쿵 쿵까루: 쿵 보까서 빵: 거. {그렇지 팔고물도 있고 이제 저 쿵 쿵까루 쿵 볶아서 빵은 것.}

10208 # 그거두 인재 저:기 찰떠가니머넌 저: 뽕쌀까루만 빠: 가주서루 인재 이러캐 시루 애다 깔:구서는, {그것도 이제 저기 찰떡 아니면 저 뽕쌀까루만 빵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루애 깔고는,}

10208 # 그 하능 거만 보구선 넌전 얘기로. {그 하는 거만 보고서는 전 얘기로.}

10208 @ 예:. {예.} 10208 # 으:. {으.}

10208 # 그래 인재 쿵까루 우꾸 그 저: 고무리머넌 쿵까루라 인재 딱: 이르캐 피구. {그래 이제 쿵까루 없고 그 저 고물이면 이제 족 이렇게 피고.}

10208 @ 예. {예.}

10208 # 또 그 우애다 쌀까루 또: 노쿠서 또 쿵까루 노쿠: 그르카구선 쌀까루 노쿠 또: 쌀 까루 노쿠서넌 인재 다른 고무리 또 이썬머넌 판꼬물. {또 그 위애다 쌀까루 또 놓고서 또 쿵까루 놓고 그렇게 하고서 쌀까루 놓고 또 쌀까루 놓고서는 이제 다른 고물이 있으면 팔고물.}

10208 # 판꼬무리라녕 건 그 저 껌떠기 다: 저기 제거해 가주서 인재 그기 저, 할라면 따 루 그걸 땀드라이디야. {팔고물이라는 건 그 저 껌떠기 다 제거해 가지고 이제 그 게 저, 하려면 따로 그걸 만들어야 돼.}

10208 # 맏도래다, {맏돌애다,} 10208 @ 기 기피한다 그래지요? {기 기피한다 그러지요?} 10208 # 어:, 기:피. {어, 기피.}

10208 # 기:피해 가주서루 인재 글 파꼬물두 따루 천 썬 가주서루 인재 이래 썬:야디야 저 기루. {기피해 가지고 이제 그걸 팔고물도 따로 썬 가지고 이제 이렇게 썬어야 돼 저것으로.}

10208 # 도:기때루 이러캐 썬 썬 가주서루 인재, {절굿공이로 이렇게 썬 썬어 가지고 이제,}

10208 # 인재 다: 가튼 한 시루란대두 또 그 체가 체이닝개 다른 고물두 또 쓸 썬가 이썬 요, 거기, 어:. {이제 다 같은 한 시루라고 해도 또 그 체가 체이니까 다른 고물도 또 쓸 수가 있어요, 거기, 어.}

10208 # 저: 창깨, 꺼먹창깨가 이짜나요? {저 참깨, 검은참깨가 있잖아요?}

10208 # 참 꺼먹창깨 그거두 인재 고무리 드러가능 거구. {참 검은참깨 그것도 이제 고무리로 들어가는 거고.}

10208 # 그러케, 그러케 맨 맨들드라우유. {그렇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10208 @ 그런 그런 떠글 머 무슨 떠기라 그래요 그걸? {그런 그런 떡을 뭐 무슨 떡이라고 해요 그걸?}

10208 # 편 기양. {편 그냥.} 10208 @ 편떠기라 그래요? {편떡이라고 해요?} 10208 # 어 어 편떡. {어 어 편떡.}

10208 @ 이러케 층층이 돼 인능 거요?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거요?}

10208 # 예: 그걸 퍼떠기라 그래요? {예 그걸 편떡이라고 해요.}

10208 @ 그러구 저 콩하구 막:: 서껴서 한 떡두 이짜너요? {그리고 저 콩하고 막 섞어서 한 떡도 있잖아요?} 10208 # 그건 막 버버 버머리떠기지 머. {그건 막 버버 버무리떡이지 뭐.}

10208 # 버머리떡 인재 그건 뜨거울 쥔 안 대고 그걸 인재 이르게 쏘다 가주구서 쏘다 가주서루 칼루다 이르게 요고마콤하게 잘라 가주구서넌 요로케 요망콤하게 이러케 해서 쓰:러. {버무리떡 이제 그건 뜨거울 때는 안 되고 그걸 이제 이렇게 쏘아 가지고 쏘아 가지고 칼로 이렇게 요고만큼하게 잘라 가지고 요렇게 요만큼하게 이렇게 해서 썰어.}

10208 @ 예. {예.}

10208 # 어 쪼끔 시거야대야, 저개 뜨거울 쥔 하면 헛트러져서 안 대요. {어 조금 식어야 돼. 저개 뜨거울 때 하면 헛트러져서 안 되요.}

10208 @ 예:. {예.}

10208 # 그릴 쪼개 인재 고 쓰:러 가주서 인재 손님- 덜 줄라면 접씨다 이러케 죽: 이러케 돌리나: 가주서 이러케 손님 대접파구. {그릴 적에 이제 그 썰어 가지고 손님들 주려면 접시에다 이렇게 죽 돌려놓아 가지고 이렇게 손님 대접하고.}

10208 @ 그 그거를 무슨 떠기라고요? {그 그것을 무슨 떡이라고요?}

10208 # 저:기 깨끼떡, 깨끼떡. {저기 깨끼떡 깨끼떡.}

10208 # 깨끼, 칼루 깔 쓴:다구 깨끼떠기라 구라드라. {깨끼, 칼로 깔 썬다고 깨끼떡이라고 그러더라고.}

10208 @ 예:. {예.}

10208 # 그걸. {그걸.}

10208 @ 콩 콩 막: 서껴서 항 거. {콩 콩 막 섞어서 한 거.}

10208 # 예: 콩 막 써싸넌 그래서 쪼 가주서루 쓸:머넌 콩두 이르게 하:야케 이르게 쓸:리구. {예 콩 막 섞어서 하면 그래서 쪼 가지고 썰면 콩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썰리고.}

10208 @ 예. {예.}

10208 # 그래여 디야, 그래 깨끼떠기라고 그라드라고. {그래야 돼, 그래 깨끼떡이라고 그러더라고.}

10208 @ 깨끼떡. {깨끼떡.}

10208 # 야. {예.}

10208 @ 마 마구설기? {마 마구설기?}

10208 # 막 막떠기라는 건 머 그양 솔 쏘다 가주서 그냥 떠러지닌 대루 뜨더서루 그래
저... {막 막떡이라는 건 뭐 그냥 솔 쏘아 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대로 뜯어서 그래
저...}

10208 # 기양 하:야캐:에 하녕 건 인재 백썰기구. {그냥 하얗게 하는 건 이제 백썰기고.}

10208 @ 예. {예.}

10208 # 쿵 느서 인재 그러캐 하녕 거닌 줌 저: 머여 마구떠기라구 그래민서루 그걸 떠서
그냥 그냥 이래 모도 머꾸 그 그르캐 하대요. {쿵 넣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저 뭐야, 마구떡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떼어서 그냥 그냥 이래 모두 먹고 그 그
렇게 하대요.}

10208 @ 그저내 저기 머 쌀: 같은 거 귀해 가지구 쑤기나, {그전에 저기 뭐 쌀같은 거 귀
해 가지고 쑤이나,} 10208 # 으 으. {으 으.} 10208 @ 나무 저기 무슨 나무지요
그 이파리, 느티나무 가치 생깁 거. {나무 저기 무슨 나무지요, 그 이파리, 느티나
무 같이 생깁 거.}

10208 # 야 야 야야 비듬나무. {야 야 야야 스무나무.}

10208 @ 예? {예?}

10208 # 비듬. {스무.}

10208 @ 비듬나무. {스무나무.}

10208 # 으: 비듬나무데 그캐 이퍼릴 이 막 틀 썩겐: 으—ㄴ:할 썰 그거 밀가루하구 비비
가주서루 바배 썩서 머거썩요. {스무나무데 그거 이파리 이 막 틀 적에는 연할 적
에 그거 밀가루하고 비벼 가지고 밥에 썩서 먹었어요.}

10208 @ 저두 그거 머거 바썩요. {저도 그거 먹어봤어요.}

10208 # 잡썩 바:썩. {잡썩 봤지.}

10208 @ 마싯트라구요. {맛있더라고요.}

10208 # 그:때 마시 이썩. {그때 맛이 있어.}

10208 # 배가 고퍼닝캐 그래 마시 이썩 머, 으허허허 참. {배가 고프니까 그래 맛이 있지
뭐, 으허허허 참.}

10208 # 그렇 개 잡썩 바:파닝캐 참 머:. {그런 거 잡썩 봤다니까 참 뭐.}

10208 # 시골래서 나시기 저: 생장하신나비여. {시골에서 낳으시기 저 성장하셨나봐.}

10208 # 우리두 그거 마:아 머거 바:썩요. {우리도 그거 많이 먹어 봤어요.}

10208 # 지금 저: 우리 반머리 가면 거 비듬나무 쿵: 기 하나 인넌대 그늘썩다구 중가늘
탁: 비서루 지금 미테 미테 등크렁만 사라 인는데 경 이썩두 안 머거요 그거 지
금. {지금 저 우리 발머리 가면 그 스무나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늘진다고 중간
을 탁 베어서 지금 밑에 밑에 등크렁만 살아 있는데 그냥 있어도 안 먹어요 그거
지금.}

10208 @ 예:. {예.}

10208 # 아유: 그거 비듬넙 머 머거파 그라야문 지금 절문 사람들 알:두 모탑니다. 흐허.
{아이고 그거 시무나무 잎 먹 먹었다고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 알지도 못합니
다.}

10208 @ 그러구 그 저:기 썩 썩뚜 버무려서, {그리고 그 저기 썩 썩도 버무려서,}

10208 # 예: 썩빠머리. {예 썩버무리.}

10208 # 쑤걸 살마 가주구서, {썩을 삶아 가지고,}

10208 @ 예. {예.}

10208 # 쭉걸 살마 가주구서루 인재 예서 인저: 쌀까루나 쌀까루-나 밀 밀 저: 메물, {썩을 삶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쌀까루나 쌀까루나 밀 밀 저 메밀,}

10208 @ 예. {예.}

10208 # 메물까루나 또 그르자느만 인재: 밀까루나 조:키넌 미 메물까루가 켈: 조:치 쭉개넌. {메밀까루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밀까루나 좋기는 메 메밀까루가 제일 좋지 썩에는.}

10208 @ 예. {예.}

10208 # 그거넌 미끄럽떨 아니야. {그거는 미끄럽지가 않아.}

10208 @ 예:. {예.}

10208 # 이배다 느:두. {입에다 넣어도.}

10208 # 근데 밀까루하구 이러캐 서꺼서 항 거넌 이보머넌 이배쓰면 미끄러워, 으:. {그런데 밀까루하고 이렇게 섞어서 한 것은 입에 넣으면 입에 있으면 미끄러워, 으.}

10208 # 으: 쌀까루 쌀까루하구 밀 메물까루하고는 암 미끄러운데, {으, 쌀까루 쌀까루하구 밀 메밀까루하고는 안 미끄러운데.}

10208 @ 예:. {예.}

10208 # 밀까루는 느:서 버며서 하면 점 미끄러운 기가 나요. {밀까루는 넣어서 버무려서 하면 좀 미끄러운 기가 나요.}

10208 @ 그런 떡캐:서 대저과구, 돼지 잡쪄요? {그런 떡 해서 대접하고, 돼지 잡쪄요?}

10208 # 으:. {으.}

10209 @ 돼지 어트개 자버요? {돼지 어떻게 잡아요?}

10209 # 돼:지는 머: 지그면 머 증:기루다 잡는다구 하딩구면 그저네는 머: 참 거 자벌 쫄아:넌 사래미 인재 줌 자바 달라카머넌 와서 잡꼬 그라는데. {돼지는 뭐 지금은 뭐 전기로 잡는다고 하더구면 그전에는 뭐 참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좀 잡아달라고 하면 와서 잡고 그러는데.}

10209 # 머 무꺼 노코서 머: 무꺼노쿠 저: 머여 대가리 함 번 탁: 때리면 니:미 고만 벌벌벌 떨뒤: 그 인재 목 따서 피 썩 빼구서 그래 이제 끌른 무래다 이러캐서 궁그리면 꼬:내 노쿠서넌 인재 막 주무르면 터러구가 홀랑 보:야개 껌 빼꺼지더라고. {뭐 묶어 놓고서 뭐 묶어놓고 저 뭐야 대가리 한 번 탁 때리면 네미 그만 벌벌벌 떨고 그 이제 목 따서 피 썩 빼고서 그래 이제 끓는 물에다 이:ㅎ게 해서 굴리면 꺼내 놓고서 이제 막 주무르면 털이 홀랑 보얹게 껌 벗겨지더라고.}

10209 @ 끌른 무래다 느쿠 이르캐 저러캐... {끓는 물에다 넣고 이렇게 저렇게...}

10209 # 으: 어: 막 둘러. {으 어 막 둘러.}

10209 # 건대 지그면 그른 짓 안 해요 지그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짓 안 해요 지금은.}

10209 # 안 하구 주전자에다 물 뜨거운 물, {안 하구 주전자에다 물 뜨거운 물,}

10209 # 여 우리집 할마이 오나배. {여 우리집 할마이 오나봐.}

10209 @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10209 # 하하하. {하하하.}

10209 #2 손님 오시쓰만 이: 방으로, 저 암빵...{손님 오셨으면 이 방으로, 저 안방...}

10209 @ 아이 갠차나요, 갠차너. {아이 갠찮아요, 갠찮아.}

10209 @ 예 어이 드려오셔요. {예, 어어 들어오셔요.}

10209 #2 식사는 어티가구. {식사는 어떻게 하고.}

10209 # 어? 아 저 모종꼴서 좀 저개 주시서 머겨썬요. {어? 아 저 모종꼴서 좀 저기 주셔서 먹었어요.}

10209 #2 아이구. {아이고.}

10209 # 하하하 아이 그 아:덜더리 완년대 아덜더리 완년대 저 송니 머 문장대 귀경간다구 하구. {하하하 아이 그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왔는데 저 속리 문장대 구경간다고 하고.}

10209 # 그 메뉴리 하나가 지비 나마서루 그래 이 저 교순님하고 그래서 자르더 머겨썬. {그 머느리 하나가 집에 남아서 그래 이 저 교수님하고 그래서 잘 읊어 먹었어.}

10209 # 건대 지금 떠 떠:카고 머 어지 잔치 그릉걸 나:떠러 무르니 내가 머 보기만 해썬 머 하하하 아라, 아:는 대루 줌 말씀 줌 해썬... {그런데 지금 떡 떡하고 뭐 어 잔치 그런 걸 나더러 물으니 내가 뭐 보기만 했지 머 하하하하 알아, 아는 대로 줌 말씀 줌 해썬... 10209 #2 떡찌배 가 아라야지.{떡집에 가 알아야지.}

10209 # 어 말씀 줌, {어 말씀 줌,}

10209 @ 아니 머 잘 하시내 머 다: 아시는데. {아니 뭐 잘 하시네 뭐 다 아시는데.}

10209 #2 수:바기나 잡썬유. {수박이나 잡썬요.}

10209 # 그래캐요. {그렇게 해요.} 10209 @ 아이 대썬요, 할머니. {아니 됐어요, 할머니.}

10209 # 그래요. {그래요.}

10209 @ 제가 사와야지요. {제가 사 와야지요.}

10209 # 그래 김학평이라는 그 교수 누이여 저이가. {그래 김학동이라는 그 교수 누이야 저이가.}

10209 @ 예:. {예.}

10209 # 나: 나 내 처나미거덩 바로. {나 나 내처남이거든 바로.}

10209 @ 네에:. {네.}

10209 # 그래 그래서 인재 돼:지 인재 그래서 꼬:내 노쿠서 인재 칼루 막 이르캐서 보이:: 야캐 글거 가주서넌, {그래 그래서 이제 돼지 이제 그래서 꺼내 놓고 이제 칼로 막 이렇게 해서 뽕얇게 굽어 가지고는, 10209 @ 그거 저기, 튀 튀... {그거 저기, 튀 튀...}

10209 # 어: 튀기여. {어, 튀기여.}

10209 @ 튀긴다 그래요, 튀한다 그래요? {튀간다 그래요, 튀한다 그래요?} 10209 # 어: 뜨군 무래다 튀긴다. {어 뜨거운 물에다 튀긴다.}

10209 @ 튀긴다 그래요? {튀긴다 그래요?} 10209 # 어: 튀긴다 그라드라고. {어 튀긴다 그러더라고.}

10209 @ 예. {예.}

10209 # 그래 보이:야, {그래 뽕얇,} 10209 @ 닥뚜 그르캐, {닭도 그렇게,}

10209 @ 닥뚜 털 뽕꾸, {닭도 털 뽕고,} 10209 # 닥뚜 그러치 딱뚜 여 여 야:. {닭도 그렇지 닭도 여 여 야.}

10209 @ 뜨거움 무래다, {뜨거운 물에다,}

10209 # 그래 뜨거운 무래다 고만 휘휘 둘러서... {그래 뜨거운 물에다 그만 휘휘 둘러서...}

10209 # 그래머넌 닥뚜 머 지그먼 저: 이 통애다 느쿠서 스이찌만 느머넌 타르르 둥구러

가면 뽀이::야캐 지금 댜 나오자나? {그러면 답도 뭘 지금은 저 이 통에다 넣고 스위치만 넣으면 탈르르 돌아가면 뽀얏게 지금 되어 나오잖아?}

10209 # 그러캐 해야지 사:람 일리리 한 소느로, {그렇게 해야지 사람 일일이 한 손으로,}

10209 @ 예 예저내는 다: 지배서 자버짜니요. {예 예전에는 다 집에서 잡았잖아요.}

10209 # 그러치요, 지배서 잡 해:찌요 머 누가. {그렇지요, 집에서 잡 했지요 뭘 누가.}

10209 @ 예. {예.}

10209 @ 그래 가주구 털 뽀부고 인재 그러면 저 어티개 자버요, 그 다매는? {그래 가지고 털 뽑고 이제 그러면 저 어떻게 잡아요, 그 다음에는?}

10209 # 그라만 다: 해서 깨::꼬타개 해 가주서로 고만 요래 배 갈러고 인재 내:장 꼬:내구 인저 그래서 각 댜 가주서루 인재 어 압 압 인재 다 댜:서 인재 거러캐서 인재 가 따 이르게 세우넌대 거러 노턴지 그리자느면 그 장소에서 빼털 바르던지 인재 창자넌 인재 뭘: 그 인저: 피가 나오자나? {그러면 다 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그 만 요렇게 배 가르고 이제 내장 꺼내고 이제 그래서 각 떼어 가지고 이제 어 앞 앞 이제 다 떼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이렇게 세우는데 걸어 놓던지 그러지 않으면 그 장소에서 빼를 바르든지 이제 창자는 이제 뭘 그 이제 피가 나오잖아?}

10209 @ 네:. {네.}

10209 # 피가 나오면 인재 피하구 인재 거기 양니미 드르가야 돼요. {피가 나오면 이제 피 하고 이제 거기 양념이 들어가야 돼요.}

10209 # 파: 파 파두 인재 쓰:러서 거기 인재 피하구 조하벌 하기 또래 파가 드르가야 되고 저:: 비지 비지두 느쿠: 또 그러자느면 두부두 느쿠 두부두 느쿠 막 이러캐 주물러 가주서루 막: 이래 비비 가주서루: 노면 그래서 인재 이:... {파, 파 파도 이제 썰어서 거기 이제 피하고 조합을 하기 때문에 파가 들어가야 되고 저 비지 비지도 넣고 또 그러지 않으면 두부도 넣고 두부도 넣고 막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막 이래 비벼 가지고 놓으면 그래서 이제 이...}

10209 # 그 인재 그거뚜 대:지가 대:지나 이 사:래미나 창자가 두: 가지 아니유. {그 이제 그것도 돼지가 돼지나 이 사람이나 창자가 두 가지 아니요.}

10209 @ 네:. {네.}

10209 # 이래 가는 누문 소:창이고: 대:창언 이러캐 굴:거요. {이래 가는 놈은 소창이고 대창은 이렇게 끓여요.}

10209 @ 예:. {예.}

10209 # 으:. {으.}

10209 # 그 인재 대창애는 그기 마:니 드르가고: 이 소:창애는 놀라면 심두 들구 그런대 소창애다 자 느:머넌 그기 여:래 노나 먹끼가 조아요. {그 이제 대창애는 그게 많이 들어가고 이 소창애는 넣으려면 힘도 들고 그런데 소창애다 넣으면 그게 여럿이 나누어 먹기가 좋아요.}

10209 # 그래 가주서 인재 머 머 그래서 꼭: 짜매서 는 드르간대 꼭: 짬매 가서루 저: 끌런 무래 느: 가주서 한:참 되머넌 꼬러 내:노쿠서루 그래 모도 그 자브니덜하고 모도 허허 머꾸 그 그 그르캐덜 하드라구유. {그래 가지고 이제 뭘 뭘 그래서 꼭 동여매서 넣은 들어간대 꼭 동여매 가지고 저 끓는 물에 넣어 가지고 한참 되면 끌어 내놓고서 그래 모두 잡은 이틀하고 모두 허허 먹고 그 그 그렇게들 하더라고

요.}

10209 # 여 인재 내내 여개 지비 저서 모도 하녕 거넌 크니리 이써서 어: 애경상무내, {여 이제 내내 여기 집에서 모두 하는 거는 큰 일이 있어서 어 애경상문에,}

10209 @ 예:. {예.}

10209 # 어: 애경상무내 인재: 손님 접때할라구 인재 잠는데: 그러케 인재 할 쫄 아는 사람 지그면 다: 불러서 해요. {어 애경상문에 이제 손님 접대하려고 이제 잡는데 그렇게 이제 할 쫄 아는 사람 지금은 다 불러서 해요.}

10209 # 그: 하는 사람 불러서 해지 지배서 안 해요, 지금더런. {그 하는 사람 불러서 하지 집에서 안 해요, 지금들은.}

10209 # 으: 그때닌 인재 참 동:내서두 인재 사:넌 중애편러 거 하닌 이가 이쓰머닌 아이 거 수고시럽찌만 그 줌 해: 달라 그라머닌 해 줘요, 그뎌 또. {으 그때는 이제 참 동네서도 이제 사는 중에서 거 하는 이가 있으면 아이 그거 수고스럽지만 그것 줌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요, 그때는 또.}

10209 @ 아까 그: 소창 대창애 이르케 는는 거를, {아까 그 소창 대창애 니렇게 넣는 거를,}

10209 # 으:. {으.}

10209 @ 그 그개 순:대지요? {그 그개 순대지요?}

10209 # 그리유, 그기 순대유. {그래요, 그개 순대요.}

10209 @ 순대 그지요? {순대 그렇지요?} 10209 # 예. {예.}

10209 @ 그래구 각 떤다 그래짜나요? {그리고 각 떤다 그랫잖아요?}

10209 # 어: 그거 가걸 떠니. {어 그거 각을 떠니,}

10209 @ 각 떠능 개 어트개 하능 걸... {각 떼는 게 어떻게 하는 걸...}

10209 # 가글 떨라면 인재 여기 갈비 부꾸 인재 뒤따리 따루 이꾸 인재 갈비 이짜뚜 갈비 부꾸 압 양짜개 다 다리가 두: 개 아니여, 압따리 두:개 뒤따리 두:개. {각을 떼려면 이제 여기 갈비 불고 이제 뒷다리 따로 있고 이제 갈비 이짜도 갈비 불고 앞 양쪽에 다 다리가 두 개 아니야, 앞다리 두 개 뒷다리 두 개.}

10209 @ 예. {예.}

10209 # 그 인재 부위별루 그거 떠: 내능 개 그걸 각떤다 구라지 머. {그 이제 부위별로 그거 떼어 내는 게 그걸 각떤다 그러지 뭐.}

10209 @ 부위별루 떠:능 거? {부위별로 떼는 거?}

10209 # 어:. {어.}

10209 @ 그래 가주구 인재 그거 돼지 차버서 사람들 잔치하구 음식 나눠주구 그리 아까 떠카구 머...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 돼지 잡아서 사람들 잔치하고 음식 나누어 주고 그렁 아까 떡하고 뭐...} 10209 # 예:. {예.} 10209 @ 하능 거지요? {하는 거지요?}

10210 @ 그리구서 인재 그: 장개간 다매:, {그리고 이제 그 장가간 다음에, } 10210 # 으:. {으.} 10210 @ 자양 가서 가쓸 때 그렇가요? {자양 가서 갔을 때 그런가요?} 10210 # 어: 그러치 자양. {어 그렇지 자양.}

10210 @ 예. {예.}

10210 @ 자양갈 때 그래나요, 그러면 처가집 똥내 가면:, {자양갈 때 그러나요, 그러면 처갓집 동네 가면,}

10210 # 아니여 꺼써 일부루. {아니야 켜어 일부러.}

10210 #2 으? {으?}

10210 # 일부루 꺼써. {일부러 켜어.}

10210 # 여기 여 마신 마시닌대 자꾸 저거 마:리 저거 한:드로 저기 퍼:진다구. {여기 여 마신 마시는데 자꾸 저거 말이 저거 한테로 저기 퍼진다고.}

10210 @ 그쪽 사람드리이: 실랑 꺼꿀루 매다려 노쿠 그래자나요? {그쪽 사람들이 실랑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러잖아요?} 10210 # 아아, 실랑 다룬다구 인제 그 장난하너라고 그런지태쨌요. {아아, 실랑 다룬다고 이제 그 장난하느라고 그런짓 했지요.}

10210 @ 그거 어티개 하능 거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요?}

10210 # 아이 여기 저 머 저 저버멀 하 주던지 멀 줌 찌거서 찌거 잡썰... {아이 여기 저 뭐 저 저 젓가락을 하나 주든지 뭘 줌 찍어사서 잡수실...}

10210 @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냥 소느루,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냥 손으로,}

10210 # 요기. {요기.}

10210 @ 아니요, {아니요,} 10210 @ 호:꾸. {포크.} 10210 @ 돼썰요. {됐어요.} 10210 # 호:꾸{포크.}.

10210 @ 아니 그냥 이러케 하면 되자녀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0210 # 하하하하 미아내서. {하하하하 미안해서.}

10210 @ 아니요. {아니요.}

10210 #2 저기 가, {저기 가,} 10210 # 호호. {호호.}

10210 @ 아 이거 월래 이러케 명능 거, {아 이거 월래 이렇게 먹는 거,} 10210 #2 저버무루 잡썰 쭈가 업썰서... {젓가락으로 잡수실 수가 없어서...}

10210 @ 월래 이르게 명능 건대, 할머니두 드셔요. {원래 이렇게 먹는 건데, 할머니도 드세요.}

10210 @ 어디 가따 오셔썰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10210 #2 바태요. {밭에요.}

10210 @ 예? {예?}

10210 #2 바태. {밭에.}

10210 @ 바태요? {밭에요?}

10210 #2 예. {예.}

10210 @ 이 더운데? {이 더운데?}

10210 #2 예. {예.}

10210 @ 아이구:. {아이고.}

10210 #2 꼬추애 뜸무리 들: 떠러저서 그 쪼끔 뿌리: 줌 바:썰. {꼬추애 진땀물이 덜 떨어저서 그 조금 뿌려 줌 봤어.}

10210 #2 저 암빵애루 저기 하지 그래 여:기... {저 안방애로 저기 하지 그래 여기...}

10210 @ 갠차는대요, 시언하구 조운대요? {괜찮은대요, 시원하고 좋은대요?}

10210 # 그 알 깔리놓 거시 느께 또 그개 저기 뜨물랄 그러면 거시기가 대:꾸면. {그 알 깔려놓은 것이 늦게 또 그개 저기 진땀물 알 그러면 거시기가 되었구면.}

10210 #2 아이구 거기서 줌:시닐 잡썰썰. {아이고 거기서 점심을 잡수셨어.}

10210 # 어디 식당애 가 저: 으배 식당애 가서 자:꾸 점심 사주신다구 하녕 거럴 송고리 어머이가 머 난: 주거두 안 따라갈 탕개 헤헤 헤. {어디 식당애 가 저 읍에 식당

에 가서 자꾸 점심 사준시다고 하는 것을 송골이 어머니가 뭐 나는 죽어도 안 따라갈 테니까 해해 해.}

10210 #2 식땅에 가야 가 그냥바넨 잡술 깨 아무거뚜 읊썸. {식땅에 가야 가 그냥반은 잡수실 게 아무 것도 없어.}

10210 #2 얼크:마구 매웅 거넨. {얼큼하고 매운 것은.}

10210 # 그 애: 저기더리 사우: 아덜 모두 났:... {그 애 저기들이 사위 아들 모두 내일...}

10210 #2 그러치:, 올 꺼 거떠라고. {그렇지, 올 것 같더라고.}

10210 # 전부 온디야, 와서 머 개: 한바리 저기 저기 개:하구 닥 뚜마리하구 자버다 달:라구 시기떠야. {전부 온대, 와서 뭐 개 한 마리 저기 저기 개하고 닭 두 마리하고 잡아다 달라고 시켰대.}

10210 @ 할아버지가: 총기가 조으셔 가주구요, {할아버지가 총기가 좋으셔가지고요,}

10210 #2 아니 총기 조투 모타시여. {아니 총기 좋지도 못하시여.}

10210 @ 아이 조으셔요. {아이 좋으셔요.}

10210 @ 제가 보니까 저기 연새가 이르케 마:느신 분 중에 이르케 총기 조으신 부니 업썸요. {제가 보니까 저기 연새가 이렇게 많으신 분 중에 이렇게 총기 좋으신 분이 없어요.}

10210 # 실랑 새닥 인재 사:주 사:주 쓰구 인재 태길 저: 날태길 바다 가주서로 인재 그날 저기 겨로 겨론식:. {신랑 새댁 이제 사주 쓰고 이제 택일 저 날택일 받아 가지고 이제 그날 저기 결혼 결혼식.}

10210 @ 예. {예.}

10210 # 으: 겨론시카넨 거 그렇 거 얘기해:꼬, 허허 그래서 인재 겨로시카고 인재 그 이튼날 찌녀개 인재 실랑 신부 인재 상:방 상:방 지키닝 거 이러케 참 해서루 상 차리다 노:쿠. {으 결혼식하는 거 그런 거 얘기했고, 허허 그래서 이제 결혼식하고 이제 그 이튼날 저녁에 이제 신랑 신부 이제 상방 상방 지키는 거 이렇게 참 해서 상 차려다 놓고.} 10210 #2 텔레비 보면 다: 아시자나요, 텔레비 그래구. {텔레비전 보면 다 아시잖아요, 텔레비전도 그러고.}

10210 # 그라만, 그라구 그라구선 인재 문 다드면 인재 그 신랑시더리 마냥: 저 머꾸 시분대루 머꾸 머 허허 흐허허허. {그러면, 그리고 그리고는 이제 문 닫으면 이제 그 신랑 신부들이 마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허허 허허허허.}

10210 # 그라만 구:경꾼드리 가면 쪼차 니야:. {그러면 구경꾼들이 가면 쫓아 내.}

10210 # 막 얼릉 가 자라구 막 쪼차내 우리 아번니미 그래서썸 우리 누인덜 저기 출가하실 찌개. {막 얼른 가 자라고 막 쫓아내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 우리 누이들 저기 출가하실 적에.}

10210 # 가 자라구 말짱. {가 자라고 모두.}

10210 @ 예:. {예.}

10210 @ 그 실랑 다룬다구 하능 거는, {그 신랑 다룬다고 하는 거는,}

10210 # 으 으. {으 으.}

10210 @ 그 왜 하능 거요? {그 왜 하는 거요?}

10210 # 장난하너라고 근대 장난하너라고, 으 그 실랭이 똑또카냐, 으: 줌 배웅 기 즈:그냐, 그렇 거 그렇 거 그렇 거 아를라구 그래 그래 그런 지설 해썸요. {장난하느라고 그러는데 장난하느라고, 으 신랑이 똑똑하냐, 으 줌 배운 게 적으냐,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알려고 그래 그래 그런 짓을 했어요.}

10210 # 그러면 인재 기냥 이썬 거 인재 처가찌배서 머: 참 수리쓰면 쭈리라두 하구 인재 콩나물꾸글 그랜더 끄리구 해서 인재 모도 방으루 드루오라카서 죽:: 드러가서 인재 먹꾸서 인재 그때서 인재 사 실랑하고 모도 손 자꼬 인재 인재 인:사도 하고 머 이러캐 너머 지나친 장나널 해서 미안하다고 하던지 어: 이러캐 인사가 서루 이 이꾸:... {그러면 이제 그냥 있어, 그 이제 처가집에서 뭐 술 있으면 술이라도 하고 이제 콩나물국을 그런데 끓여서 하고 이제 모두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죽 들어가서 이제 먹고서 이제 그때서 이제 신랑하고 모두 손 잡고 이제 이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지나친 장난을 해서 미안하다고 하든지 어 이렇게 인사가 서로 이 있고...}

10210 @ 예:. {예.}

10210 # 그리여 그 장나니여 장난, 다름 거 아:무 거뚜 업써. {그래 그 장난이야 장난,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어.}

10210 @ 그걸 실랑 다룬다 그래요, 다룬다구? {그걸 신랑 다룬다 그래요, 다룬다구?}

10210 # 어: 실 실랑 다룬다 구리야 기양. {어 신 신랑 다룬다 그래 그냥.}

10210 @ 다룬다? {다룬다?}

10210 # 야:. {예.}

10210 #2 손 따그세요, 여기씨. {손 닦으세요, 여기 있어.}

10210 @ 예 대썬요, 예 갠차나요. {예, 됐어요, 예 괜찮아요.}

10210 @ 동상네라능 개 이썬요, 동상네? {동상레라는 게 있어요, 동상레?}

10210 # 동상네라능 건 춤: 든넌대. {동상레라는 건 처음 듣는데.}

10210 # 모루는... {모르는...}

10210 @ 어디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10210 # 그쵸 동상...{글쵸 동상...}

10210 @ 그 저기 그 아까 얘기: 헐는데 그 초레청에서어:, {그 저기 그 아까 얘기했는데 그 초레청에서,}

10210 # 으:. {으.}

10210 @ 그 이르캐 나오면 실랑이 이르캐 거리가자나요? {그 이렇게 나오면 신랑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10210 # 으:. {으.}

10210 @ 그 자리 까라 나짜나요? {그 자리 깔아 뉘잖아요?}

10210 # 어:. {어.}

10210 @ 그 미태다 콩두 느: 노쿠 머 그랜대면서요? {그 밑에다 콩도 넣어 놓고 뭐 그런 다면서요?} 10210 # 그래 인재 그런 지설 해:서요. {그래 이제 그런 짓을 했어요.} 10210 @ 장난치느라구. {장난치느라고.}

10210 # 그런 지 그런 지설 해:써:. {그런 짓 그런 짓을 했어.}

10210 # 헐:넌대, 그: 실랑이 침차칸 사라민가 아닌가 그렁 거 알라볼라고:. {했는데, 그 신랑이 침착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거 알아보려고.}

10210 # 침차칸 사라미면 그렁 걸 미리 알구서로... {침착한 사람이면 그런 걸 미리 알고 서.}

10210 # 그 신바리라능 거시 왜 그 관복 이꾸서루 저:기 잉:금 미태 왜 그 내:시덜 왜 싱

꾸 와따가따 하능 거 이짜나, 그 그른 신바린대: 뽀뽀티야 그게:. {그 신발이라는 것이 왜 그 관복 입고서 저기 임금 밑에 왜 그 내시들 왜 신고 왔다갔다 하는 거 있잖아, 그 그런 신발인데 뽀뽀해 그게.}

10210 @ 예:. {예.}

10210 # 바다기 이래: 평판이고, 슬:슬 이래 나가면서 이래 이래 해 보면서 거러나가:. {바닥이 이래 평판이고, 슬슬이래 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면서 걸어나가.}

10210 # 그 자리릴 떠날 띠개. {그 자리를 떠날 적에.}

10210 @ 예:. {예.}

10210 # 그릉 거 불라구 하능 기여 그게. {그런 거 불려고 하는 거야 그게.}

10210 @ 예. {예.}

10210 @ 그러면 콩이 여푸루 퍼져, {그러면 콩이 옆으로 퍼져,} 10210 # 그러치:. {그렇지.} 10210 @ 가니까 인재 그러케 암 미끄루꾸. {가니까 이제 그렇게 안 미끄럽고.}

10210 # 어:. {어.}

10210 # 쫓 미끄러 지머넌 거기 여러신넌대 우 우수개빠탕이 되자나?: {쫓 미끄러지면 거기 여럿이 있는데 우 우스개바탕이 되잖아?}

10210 @ 예:. {예.}

10210 # 해해. {해해.}

10210 @ 그저내 저 어릴 때 보니까 종인가요 머 이런 대다가 재 가통 거뚜 너 가꾸 막 떼 지구 그래대요? {그전에 저 어릴 때 보니까 종이인가요 뭐 이런데다가 재 같은 것도 넣어 거지고 막 던지고 그래대요?}

10210 # 어 그래 해해 그 그거 마장, {어 그래 해해 그 그거 맞아,} 10210 @ 그 그릉 거뚜 함 번 바썰요. {그 그런 것도 한 번 봤어요.}

10210 # 그 장나내 일췌 일췌이여. {그 장난의 일종 일종이야.}

10210 @ 예:. {예.}

10210 # 그라구 그 저: 절하구서 인저 술 머걸 찌개 그 왜 그 술짜넌 너리 오자너 술짜넌 너리 오고 여 아패는 인저 상얼 이래 놓 기 인넌대. {그리고 그 저 절하고서 이제 술 먹을 적에 그 왜 그 술잔을 내려 오잖아 술잔을 내려 오고 이 앞에는 이제 상을 이래 놓은 것이 있는데.}

10210 # 그 장난 시:만 사람더런 어디가 장작개비릴 이렇 걸 두: 개 가따 노:민서 그 저버 미라구 이걸루 지버서 머그라구, 두부. {그 장난 심한 사람들은 어디가서 장작개비를 이런 걸 두 개 갖다 놓으면서 그 젓가락이라고 이것으로 집어서 먹으라고, 두부.}

10210 @ 예. {예.}

10210 # 두버릴 인재 너리 술안주 두부릴 너 논대, 그 그걸 지버서 두 두저버. {두부를 이제 내려 술안주 두부를 넣어 놓는데, 그 그걸 집어서 뒤집어.}

10210 # 두점는데 아이 지두 모티야 이런 장작개비릴 글썽 장난꾼더리 그런 지설. {뒤집는데 아이 쥐지도 못해, 이런 장작개비를 글썽 장난꾼들이 그런 짓을,}

10210 # 함 번 저: 우리 큰대개 큰지배서 가녕 아이 그런 장난 하녕개 아이구: 우리 하라 번니미 막: 걱쟁얼 하시민서 근데 으: 그런 수가 인너냐고 그런 몰쌍시킨 지설 하너냐구 막 걱쟁얼 하시구. {한 번 저 우리 큰택에 큰집에서 가는데 아이 그런 장

난 하니까 아이고 우리 할아버님이 막 걱정을 하시면서 그런데 으 그런 수가 있으
나고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느냐고 막 걱정을 하시고.}

10205 @ 여자가: 이르케 시지까짜나요? {여자가 이렇게 시집가잖아요?}

10205 # 예:. {예.}

10205 @ 그러면 시대개 시꾸드리 만:치요? {그러면 시댁에 식구들이 많지요?}

10205 # 만:치 만 그췌 머 그 인재 그주 그주 가:무루 딸런는데 마:는 집뚜 이꾸 고조칸
집뚜 그 근대 어: 다소가 업찌 머:. {많지 많 글췌 뭐 그 이제 그집 그집 가문에
달렸는데 많은 집도 있고 고적한 집도 그 그런데 어 다소가 없지 뭐.}

10205 @ 예:, 인재 대개 마:는 지븐 어른들두 계시구: 형재두 여러시구: 머 이러자나요?
{예, 이제 대가 많은 집은 어른들도 계시고 형제도 여럿이고 뭐 이러잖아요?}

10205 @ 그라면 머라구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10205 @ 우애 이제 남편 이짜너요, 실랑. {위에 이제 남편 있잖아요, 신랑.}

10205 # 으:. {으.}

10205 @ 실랑에: 할아버지 할머니두 이꾸, {신랑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10205 #
으: 으:. {으 으.} 10205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205 @ 실랑에 아버지 어머니두 이꾸.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10205 # 어:. {어.}

10205 @ 실랑에 형두 이꾸 동생두 이꾸. {신랑의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10205 # 으:. {으.}

10205 @ 또 머 누이두 이꾸. {또 뭐 누이도 있고.}

10205 # 응: 그러치:. {응 그렇지.}

10205 @ 누님두 이꾸 이르케 동생두 이꾸 그르차나요? {누님도 있고 이렇게 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10205 # 그러치. {그렇지.}

10205 @ 그 이르미 다: 다르지요? {그 이름이 다 다르지요?}

10205 # 다: 다르지 머: 어:. {다 다르지 뭐.}

10205 @ 그렇יק까 맨: 우에서부터, {그러니까 맨 위에서부터,}

10205 # 시하라부지:, {시할아버지.}

10205 @ 예:. {예.}

10205 # 시하라부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10205 @ 예:. {예.}

10205 #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10205 @ 예:. {예.}

10205 # 또 고: 미태 인저: 실랑에 와서 인재 인저 시 실랑 생이 이쓰면 시숙:. {또 그 밑
에 이제 신랑에 와서 이제 이제 시 신랑 형이 있으면 시숙.}

10205 @ 예. {예.}

10205 # 시숙:, 글 시수기라 그래여 디야, 어:. {시숙, 그걸 시숙이라 그래야 돼, 어.}

10205 @ 그 부인. {그 부인.}

10205 # 어 어:. {어 어.}

10205 # 그거넌 인재 기양 재이 보통 여 형님두 인재 이러케 이러케, 으: 하구, {그거는 이
제 그냥 저 보통 여 형님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으 하고.}

10205 # 또 시동에씨면 인재 저 참 저 장:개 가씨면 서방니미라구 인재 그르캐두 하구 인재 그랜는데 글 서짜. {또 시동생 있으면 이제 저 참 저 장가 갔으면 서방님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글 서자.}

10205 @ 네:. {네.}

10205 # 글 서짜 모: 방자 글 배우넌 니 니럴 서방니미라 구리야, 그 하:대가 아니유:. {글 서자 모 방자 글 배우는 이 이를 서방님이라고 해, 그 하대가 아니요.}

10205 # 서방님 서방님 어? {서방님 서방님 어?} 10205 @ 예 예 그러치요. {예 예 그렇지요.}

10205 # 으: 거텅 먼 이:스방 박스방 그라자나? {으 보통 뭐 이서방 박서방 그러잖아?}

10205 # 그: 승:이 따라서 글 배우넌 그: 저: 거시기릴 존중해서 하넌 얘기여. {그 성에 따라서 글 배우는 그 저 거시기를 존중해서 하는 얘기야.}

10205 # 그 모 몰르는 몰르는 사라면 이스뱅이 머구 박쓰뱅이먼 머 머 그개 머여 그기, 뻔:때업씨 그 그런 소릴 한 드려요. {그 모 모르는 모르는 사람은 이서방이 뭐고 박서방이먼 뭐 뭐 그개 뭐야 그개, 본대없이 그 그런 소릴 한 들어요.}

10205 @ 예:. {예.}

10205 # 으: 내 나넌 그래슨 소리 존중할 찌개 그 존 존경하는 말루 난 아라요. {으 내 나는 그런 소리 존중할 적에 그 존경하는 말로 난 알아요.}

10205 @ 보통은 여기 싸람들한테, {보통은 여기 사람들한테,} 10205 # 글뺑. {글방.}

10205 @ 그러면 안 존경 안 하는 말루 아나요? {그러면 안 존경 안 하는 말로 아나요?}

10205 # 아:는 사라미 만:치요. {아는 사람이 많지요.}

10205 @ 예:. {예.}

10205 # 건대 우리넌 아라들 찌개 글뺑에서 글 배우넌 도련님 어: 멀 크에헤헤 또 장:가 가신 서방님 글 서짜. {그런데 우리는 알아들을 적에 글방에서 글 배우는 도련님 어 -을 크에헤헤 또 장가 가신 서방님 글 서자.}

10205 @ 예:. {예.}

10205 # 어: 도련님 글뺑 도련님. {어 도련님 글방 도련님.}

10205 @ 장:가 양 간 사람. {장가 안 간 사람.}

10205 # 으: 도련니미라 그래 도령님, 으. {으 도련님이라 그래 도련님, 으.}

10205 @ 도령님. {도련님.}

10205 # 어: 도련님. {어 도련님.}

10205 # 그르캐: 하드라고요, 도련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도련님.}

10205 # 으: 둘째 또: 도련님 시:째 또련님 도련님 그르캐 인재 그기 저: 으 칭호릴... {으 둘째 또 도련님 셋째 도련님 도련님 그렇게 이제 그 저 으 칭호를...}

10205 @ 여자한테는요? {여자한테는요?}

10205 # 응:~? {응?}

10205 @ 남편내, {남편의, } 10205 # **. 10205 @ 누 누님. {누 누님.}

10205 # 누니먼 시누지 머: {누니먼 시누이지 뭐.}

10205 @ 시누. {시누이.}

10205 # 어:. {어.}

10205 @ 동생은? {동생은?}

10205 # 동 동생언 인재: 저 어: 올캐 올캐라구 올캐라 구라덩가? {동 동생은 이제 저 어 올캐 올캐라고 올캐라 그러던가?}

10205 @ 신 시누: 소뉘 시누구 손아래 씨누, {시 시누이 손위 시누이고 손아래 시누이,}

10205 # 아 아래 씨누:. {아 아래 시누이.}

10205 @ 예. {예.}

10205 # 아 손아래 씨누라구 그러키야 기양. {아 손아래 시누이라고 그렇게 해 그냥.}

10205 @ 예:. {예.}

10205 # 소나래 누가 나만태 애길할 켜 손아래 씨누루 씨누라 구라구, 으:. {손아래 누가 남한테 얘기할 때는 손아래 시누루 시누라고 그러고, 으.}

10205 @ 시누가 저기 시지분: 사라만태 얘기할 때 올캐자너요? {시누이가 저기 시집온 사람한테 얘기할 때 올캐잖아요?}

10205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05 @ 그지요? {그렇지요?}

10205 # 그리여, 그 가치 그지배 드르가서: 가치 드르와서 형 동생 이러캐 어: 부부 전 그 르캐 될 썸어 어: 올캐:. {그래, 그 같이 그집에 들어가서 같이 들어와서 형 동생 이렇게 어 부부 저 그렇게 될 적에는 어 올캐.}

10205 @ 예:. {예.}

10205 # 어:. {어.}

10205 @ 동 동서. {동 동서.}

10205 # 어: 동서:. {어 동서.}

10205 # 으: 동 동서: 올캐 그 그르캐 또 그르캐 얘기한 하드라구유. {으 동 동서 올캐 그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205 # 아::이구 거: 거 예뻐 다: 지금 모: 차자 해유:. {아이고 그거 그거 예뻐 다 지금 못 찾아 해요.}

10205 @ 거이 다 머 마니 업써저씨요, 인재? {거의 다 뭐 많이 없어졌지요, 이제?}

10205 # 다: 업써저씨요, 그 소리 그런 소리, 으:. {다 없어졌어요, 그 소리 그런 소리, 으.}

1.2.6. 환갑잔치

10223 @ 할아버님 저기 환갑잔치 하셨어요? {할아버님 저기 환갑잔치 하셨어요?}

10223 # 향:갑잔친 해:씨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쨌는데. {환갑잔치는 했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었는데.}

10223 @ 그때:?: {그때?}

10223 @ 아: 할아버님 향갑 오르니, {아 할아버님 환갑 (때) 어른이,} 10223 # 예: 예:. {예 예.} 10205 10223 @ 계:시따구요? {계셨다고요?} 10223 # 예: 예:. {예 예.}

10223 # 그때, {그때,} 10223 @ 아이고 오래 사셨나 부내요? {아이고 오래 사셨나보내요?}

10223 # 예:. {예.}

10223 # 여기 이 지배서 해씨요. {여기 이집에서 했어요.}

10223 @ 장, 장: 하싱:... {장 장수하신...}

10223 # 야 이지배서 내가 항:갑-벌 해 해썬요. {야 이집에서 내가 환갑을 해 했어요.}

10223 # 육씨배야 육씨빌 쎄애 그르잉께 헨나: 그 그래. {육십에야 육십일 세에 그러니까 헨나 그 그래.}

10223 # 하고 또 인저 그때넌 다: 양치니 다: 도라가신넌데 또 팔썬 해준다구 팔씨베:. {하고 또 인저 그때는 다 양친이 다 돌아가셨는데 또 팔썬 해준다고 팔십에.}

10223 @ 예:. {예.}

10223 # 지금 저 나가 인넌 내 큰자시카구 자근자식 또 따리 여러시닝께 딸덜하고 모도 이 아래 올라오다 거 월드커비라고 거: 가서 팔썬잔치꺼정두 해:썬요. {지금 저 나가 있는 내 큰자식하고 작은자식 또 딸이 여럿이니까 딸들하고 모두 이 아래 올라오다가 그 월드컵이라고 거기 가서 팔썬잔치까지도 했어요.}

10223 # 으 여: 가근동애 저: 너매 똥내 경노당 노인 다:는 모:빨리고 경노당 노인내덜 요미테 이 동네 모도, 이 동넌 머 거 동:넌 다: 다: 하다시피 해썬마닌 게 팔썬꺼정두 애:더리 해서루 으:더 머거썬요. {으 어 가근동애 저 너머 동네 경로당 노인 다는 못 부르고 경로당 노인네들 요 밑에 이 동네 모두, 이 동네는 뭐 거 동네는 다 다 하다시피 했지마는 그레 팔썬까지도 애들이 해서얻어 먹었어요.}

10223 @ 그럼 환갑잔치할 때애: 어떠케 하녕 거요, 그 잔치하는 순서가 또 이짜너요, 그거? {그럼 환갑잔치할 때 어떻게 하는 거요, 그 잔치하는 순서가 또 있잖아요, 그거?}

10223 @ 거 머 상두 처려노쿠 절두하고 그 순서가 쭉 인능 거 인능 거 같던데. {그 뭐 상도 차려놓고 절도 하고 그 순서가 죽 있는 것 있는 것 같던데.}

10223 # 항갑쌀치 할 쎄넌: 그때넌 저:기 예: 어머니 아버지: 기:시면 인저: 어머니 아버지넌 생조내 기:시닝께루 우선 고기 인재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어머니 아버지가 기시자나, 그러면 할머니 하라부지 아니개썬요? {환갑잔치 할 때는 그때는 저기 예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 어머니 아버지는 생존해 계시니까 우선 고기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10223 @ 예:. {예.}

10223 # 항:갑똥안어. {환갑돌아오는.}

10223 # 그: 으:런더런 다런 그: 우애- 예넌 모:타드래도 요거 상애다가서 거: 저기 여기다 상열 노쿠서: 거 음식 한대루: 그레 쪼마큼 쪼마큼 소규모루다 이러케 다마서 노쿠서로 항:갑 도라오느니가 자널 올리여, 거시서. {그 어른들은 다른 그 위에는 못 하더라도 요거 상애다가 그 저기 여기에서 상을 놓고서 그 음식한대로 그레 조그만큼 조그만큼 소규모로 이렇게 담아 놓고서 환갑 돌아오는 이가 잔을 올려, 거기에서.}

10223 # 어 잔 올리구 인재 절하구: 그러면 인재 자여질덜도 모도 가치 절하고, 그개 저: 아라드께 말씀디리자머넌 하라부지 저 오늘 항:가비니 술 한 잔 으:더 어 거 마실텐데 할아버지 머너 한 잔 저: 거시기 하세요. {어 잔 올리고 이제 절하고 그러면 이제 자여질들도 모두 같이 절하고 그개 저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할아버지 저 오늘 환갑이니 술 한 잔 얻어 어 마실텐데 할아버지 먼저 한 잔 저 거시기 하세요.}

10223 @ 예:. {예.}

10223 # 잡수세요 하구서 그거 그 인사여: 다룽 거 업썬: 으: {잡수세요 하고서 그거 그 인

사여 다른 거 없어 으.}

10223 @ 예:. {예.}

10223 # 그러칸 뒤에는 인재 아부지 인저 어머니한테 인재 또 저기 인재 상 이래 차리서
아부지 인재 차 잔 올리 디리구. {그렇게 한 뒤에는 이제 아버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또 저기 이제 상 이렇게 차려서 아버지 이제 잔 올려 드리고.}

10223 # 그러칸 뒤에래야 내가 안자서루 저럴 저기 자식들한테 저를 바다. {그렇게 한 뒤
에라야 내가 앉아서 절을 저기 자식들한테 절을 받아.}

10223 # 으, 으:런덜버텸... {으, 어른들부터...}

10223 @ 황:가팔라면 머 줌비할 깨 또 이짜나요? {환갑하려면 뭐 준비할 게 또 있잖아
요?}

10223 # 준비 머 다른 거 업썬요. {준비 뭐 다른 거 없어요.}

10223 # 머 국쭈나 하구 그저 머 돼:지 그텨 거뚜 함 마리 자:꾸 머 그래 하머넌 돼:찌 머.
{뭐 국수나 하고 그저 뭐 돼지 같은 것도 한 마리 잡고 그렇게 하면 됐지 뭐.}

10223 # 그래 산: 사람 멍녕 건 머: 거시가 읍썬어:, 으: 그래. {그래 산 사람 먹는 건 뭐
거시기가 없어, 으 그래.}

10223 # 그저 손님 마:느면 마:니 장만하구: 그리 그러치요. 허허. {그저 손님이 많으면 많
이 장만하고 그렇 그렇지요.}

10224 @ 황갑쌍: 차 준비하자너요, 황갑쌍. {환갑상 차 준비하잖아요, 환갑상.}

10224 @ 거기 머머 올려 봐요.{거기 뭐 뭐 올려봐요.}

10224 # 황갑쌍:~? {환갑상?}

10224 @ 예. {예.}

10224 # 황갑쌍언 머 거기 맨든대로 쪼망큼 쪼망큼 담마 노쿠서 쪼망큼 쪼망큼 기냥 담아.
{환갑상은 뭐 거기 만든대로 조그만큼 조그만큼 담아 놓고서 조그만큼 조그만큼
그냥 담아.}

10224 @ 머: 대충가 머 이렇 거 이러케 싸노쿠, {뭐 대추인가 뭐 어린 거 이렇게 쌓아놓
고 , 10224 # 그러치. {그렇지.}

10224 # 아이구 그건 부:자더리 부자더리 하는 애기지: 그건 그러케 모:태요 우리네는. {아
이구 그건 부자들이 부자들이 하는 애기지, 그건 그렇게 못 해요, 우리네는.}

10224 # 쪼마큼 접씨 이러케 다마 와서루 이러케 기냥 저기만 가취서 순서만 가취서 그러
케 하구서루 인재 애더란테 절 바꾸서 그걸 인재 '느 모두 노나 머거라' 으 이러케
하민서루 이러나지. {조그만큼 접시에 이렇게 담아 와서 이렇게 그냥 저기만 갖취
서 순서만 갖취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애들한테 절 받고서 그걸 이제 '너희 모두
나눠 먹어라' 으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지.}

10224 # 이러나면 인재 거 절 바드면 인저 파리쓰면 딸 하지 사우 이쓰면 사우더리 또 저
절하지 또 이천 손자가 이쓰면 손자두 저 저 절 절하지 머 다: 으: 그르 그르케
해. {일어나면 이제 그 절 받으면 이제 딸 있으면 딸 하지 하위 있으면 사위들이
또 절 절하지 또 이제 손자가 있으면 손자도 저 저 절하지 뭐 다 으 그렇 그렇게
해.}

10224 # 그래서 끝나지유. {그래서 끝나지요.}

10224 @ 그러면 그: 상애는 머 머 어떻 거 올려봐요? {그러면 그 상애는 뭐 뭐 어떤 거
올려 봐요?}

10224 # 그쵸 머 그쵸: 그건 머 머머라고 얘길 묻:, {글쵸 뭐 글쵸 그건 뭐 뭐뭐라고 얘길 못,} 10224 @ 종뉴가 여러 가지지요?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10224 # 모:티 야, 머 머든지 다: 올려나두 갠자나요. {못 해, 뭐 뭐든지 다 올려봐도 괜찮아요.}

10224 # 사:람 이배 드려가능, 산: 사람 이배 드려가능 거라. {사람 입에 들어가는, 산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이라.}

10224 @ 예:. {예.}

10224 # 지:사 지내는 음식기 아니니까. {제사 지내는 음식이 아니니까.}

10224 @ 예:. {예.}

10224 @ 그때 하라버지는 주로 머:, 생이리 언재라 그러서쵸요? {그때 할아버지는 주로 뭐, 생일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10224 # 사:월. {사월.}

10224 @ 사:월. {사월.}

10224 # 음력 사:월 이십싸이리요, 내 생이리 호. {음력 사월 이십사일이요, 내 생일이.}

10224 @ 그르니까 한 한:참 저기 파:라캐 임 나구 이럴 때내요? {그르니까 한 한참 저기 파랗게 잎 나고 이럴 때내요?}

10224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24 # 버리밥뚜 잘 모드더 머걸 때여. {보리밥도 잘 못 얻어 먹을 때야.}

10224 @ 그때가 *** {그때가 ***} 10224 # 그때는 허허 야. {그때는 허허 야.} 10224 @ 옛날루 마라먼 버리꼬개 그때쵸 대겐내요? {옛날로 말하면 보릿고개 그때쵸 되 겠네요.} 10224 # 어: 어:. {어 어.}

10224 # 저기 출쟁기한 나런 일구이사년 유월이시꾸일라리 내 호:적쟁이리여, 어:. {저기 출생기한 날은 일구이사년 유월이십구일날이 내 호적생일이야, 어.}

10224 @ 호:저개. {호적에.}

10224 # 어:. {어.}

10224 # 다령 건 모대워도 그거넌 애워야 주민등록 호어 그: 생년워리튼 아려야 디야. {다른 건 못 외워도 그거는 외야 주민등록 허, 그 생년월일은 알아야 돼.}

10224 @ 주민등록 번호두 왜우세요? {주민등록 번호도 외우세요?}

10224 # 그쵸 그기 저이 어:. {글쵸 그게 저기 어.}

10224 # 그기 저기여 버노가. {그게 저기야 번호가.}

10224 @ 뒤애두 이짜나요? {뒤에도 있잖아요?}

10224 # 으: {으?}

10224 @ 뒤애두 이짜나요? {뒤에도 있잖아요?}

10224 @ 일구이사년 유월? {일구이사년 유월?}

10224 # 유:월 이시꾸일 아니여. {유월 이십구일 아니야.}

10224 @ 이시꾸일 쵸? {이십구일 쵸.}

10224 # 어:. {어.}

10224 # 단기루는 사:천이백: 맨너니여 단기. {단기로는 사천이백 몇 년이여 단기.}

10224 @ 그러겐내요. {그렇겠네요.}

10224 # 으: 단기루. {으 단기로.}

10224 # 그래 내가 대:정 때 대:장 일번 싸람덜 대:정 때 대:정 십쌔너닝가 쵸이 쵸이유. {그래 내가 대정 때 대정 일본 사람들 대정 때 대정 십삼년인가 새이 쵸이요.}

10224 # 대:정 심삼년 생. {대정 심삼년 생.}

10224 @ 예:. {예.}

10224 # 그래서 총총히야: 년. {그래서 총총해 연.}

10224 @ 헤헤헤. {헤헤헤.}

10224 # 어디 일:하다가서 주민등록 사진 찌그라고 해서 나가떠니만 이러케 총총하개...
{어디 일하다가 주민등록 사진 찍으라고 해서 나갔더니만 이렇게 총총하개...}

10225 @ 그럼 그: 인재 향갑 한다구 나미 이르케 저기 다른 사라를 초대하자나요? {그러면 그 이제 환갑 한다고 남이 이렇게 저기 다른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10225 # 으:. {으.}

10225 @ 그런대 인사 가자나요? 가자나요 거기? {그런데 인사 가잖아요? 가잖아요 거기?}

10225 @ 그지요? {그렇지요?}

10225 # 그러치:. {그렇지.} 10225 @ 초대바드면 가자나요? {초대받으면 가잖아요?}

10225 # 어어 그러치 오시라구, {어어 그렇지 오시라고,} 10225 @ 가만 어티개 해요, 갈 때 그냥 가나요, 아무 거또 업씨? {가면 어떻게 해요, 갈 때 그냥 가나요, 아무 것도 없이?} 10225 # 기냥 가지 머 어트개. {그냥 가지 뭐 어떻게.}

10225 @ 그냥 가서 어더머꾸 오능 거요? {그냥 가서 얻어 먹고 오는 거요?}

10225 # 아아:, 나매 지배 갈 찌개는. {아아, 남의 집에 갈 적에는?}

10225 @ 예. {예.}

10225 # 기냥 기냥 모:까지:. {그냥 그냥 못 가지.}

10225 # 으 봉토지 머: 다소란대두 동 봉토지 쪼금 느: 가주서루 그래 가지 기냥 가는 이 베랑 업씨요. {으 봉투 뭐 다소라도 동 봉투에 쪼금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 그냥 가는 이 별로 없어요.}

10225 @ 그저내두 그래씨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10225 # 그저내 그래씨요, 그저내닌. {그전에 그랬지요, 그전에는.} 10225 @ 옴:나래두. {옛날에도.}

10225 # 지금두 아마 그, 그런대 지거면 항:갑잔치 그통 거 아:내요. {지금도 아마 그, 그런데 지금은 환갑잔치 같은 것 안 해요.}

10225 @ 잘 안 하지요? {잘 안 하지요?}

10225 # 으: 하만 팔쭈니나 하면 하닌대 팔쭈내닌 그렇 거 바떨 안히야, 월래. {으 하면 팔순이나 하면 하는데 팔순에는 그런 거 받지를 안 해, 원래.} 10225 @ 예:. {예.}

1.2.7. 장례 절차

10226 @ 그래다 인재: 사라미 죽짜나요? {그러다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10226 # 예:, 그러치요. {예, 그렇지요.}

10226 @ 주그문 인재 절차가 복짜파지요? {죽으면 이제 절차가 복잡하지요?}

10226 # 그러치요:, 절차 만:치 머:. {그렇지요, 절차 많지 뭐.}

10226 @ 고: 절차를 좀 자세하게 좀 얘기줘 보세요. {그 절차를 좀 잘하게 좀 얘기해줘 보세요.}

10226 @ 그걸 여러 군대 여쭙봐두: 자세하게 이르케 잘 모르능 거 가꾸 또 동네마다 집집

마다 쪼:금씩 차이가 이쁘라구요? {그걸 여러 군데 여쭙봐도 자세하게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동네마다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10226 @ 일단 맨: 첫째 인재 사라미 주그먼 그때부터,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10226 # 그러지. {그렇지.} 10226 @ 할 이리 만:차나요? {할 일이 많잖아요?}

10226 # 으 그러치:. {으 그렇지.}

10226 @ 예, 고거를 하나:하나 좀 얘기줘 보세요. {예 고거를 하나하나 좀 얘기해줘 보세요.}

10226 # 그래 인재: 지그먼 저: 전부 예:식장얼 저: 예식장이라네 으 예:식장이 자꾸 이배 발려서, 장이사찌부루 땀장 가자나요? {그래 이제 지금은 저 전부 예식장을 저 예식장이라네 으 예식장이 입에 발려서, 장의사집으로 모두 가잖아요?}

10226 @ 예. {예.}

10226 @ 예나랜 다 지배서 해짜나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했잖아요?}

10226 # 다: 지배서 해짜요:. {다 집에서 했지요.}

10226 @ 예:. {예.}

10226 # 이러캐서 모 모:시구 이따가서 운명하시자나? {이렇게 해서 모 모시고 있다가 운명하시잖아?}

10226 @ 예:. {예.}

10226 # 운명이라던 인재 도러가시따던 얘기가 인재 그 운명하시따녕 건대, 은: 인재 ****. {운명이라는 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이제 그 운명하셨다는 건데, 운 이제 ****.}

10226 # 그러면 인재 지반덜 다: 모도 소리해 가주구서 또 지반뿐 아니라 이래구 나그치 이래 고조카하구 사 사:는 사람 거트만 이우지란대두 알리구. {그러면 이제 잡안들 다 모두 소리해 가지고 또 집안뿐 아니라 이러고 나같이 이렇게 고조카하고 사 사는 사람 같으면 이웃이라도 알리고.}

10226 @ 예. {예.}

10226 # 사:래미 주거쓰닝까 아날릴 쭈가 이써? {사람이 죽었으니까 안 알릴 수가 있어?}

10226 @ 예. {예.}

10226 # 으 예 알: 알리구. {으 예 알 알리고.}

10226 # 그러면 인재 개중에 인재 참 이: 그런 이:릴 해보니넌 송파늘 송파늘 요래 깨::꼬 탄 송파늘 하나, 얼래넌 부모가 연세가 마:느머넌 그런 송파늘 하나 준비해 나:두녕 거유 월래. {그러면 이제 개중에 이제 참 이 그런 일을 해 본 이는 송판을 송판을 요래 깨끗한 송판을 하나, 원래는 봄가 연세가 많으면 그런 송판을 하나 준비해 놔 두는 거요 원래.}

10226 @ 미리? {미리?}

10226 # 어:. {어.}

10226 # 또 관두 지비서 짜놀: 시미 되면 관두 짜 노쿠:. {또 관도 집에서 짜 놓을 힘이 되면 관도 짜 놓고.}

10226 # 어: 짜서 그 관 여패다 이르게 부치서루 인저: 오치릴 하던 먼: 치릴 하던 치릴 해:서 이래서 저 워디다 잘: 간수릴 해 놔따가서 도라가신 뒤에 그걸 가따가 쓰넌 대. {어 짜서 그 관 옆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제 옷칠을 하든 무슨 칠을 하든 칠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 어디에다 잘 간수를 해 놔다가 돌아가신 뒤에 그걸 갖다가 쓰는데.}

10226 # 인재: 수:미 지머년 대번 이 저기 사:래미 고만 이기 빼가 구더지닝개 뻘뻘태져.
{이제 숨이 지면 대번에 이 저기 사람이 그만 이게 빼가 굳어지니까 뻘뻘해져.}

10226 @ 네:. {네.}

10226 # 그러니까 인재 거, 만 만지 보니는 니가 모 보니가 인재 드러서서로 죄: 이러캐 이런 인재 이러캐 누워 인년데 죄: 이 팔다리릴 이러캐 쪽: 이래 피 피서루 이러캐 노쿠. {그러니까 이제 그, 만 만져 보는 이가 본 이가 이제 들어서서 죄다 이렇게 이런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죄다 이 팔다리를 이렇게 족 이렇게 퍼 퍼서 이렇게 놓고.}

10226 # 그라고 주글 째 이버편도 베끼야 디야. {그리고 죽을 적에 입었던 옷도 벗겨야 돼.}

10226 # 어: 주글 째 입 이버편 온 베끼고 새로 이피요. {어 죽을 적에 입 있었던 옷 벗기고 새로 입혀요.}

10226 # 으 새루 인재 참 저: 보통 그저 이: 호돈: 알봉 거, 그렇 겐 이피드라고요. {으 새로 이제 참 저 보통 그저 이 훌옷 얇은 거, 그런 겐 입히더라고요.}

10226 # 으 그렇 겐 새루 인재 이피 가주서루 요래서 족: 이르게 이래 손바를 이러캐 부두러캐 해 가주서년. {으 그런 겐 새로 이제 입혀 가지고 요렇게 해서 족 이렇게 이래 손발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 가지고는.}

10226 # 요러캐 합짱얼 히야, 합창 합짱 요래서 으, 소닐. {요렇게 합장을 해, 합장 합장 요렇게 해서 으, 손을.}

10226 # 이래 합짱해서 요기 두 두 요기 요기릴 인재 째:매 가주구서 흥거부루, {이렇게 합장해서 요기 두 요기 요기를 이제 동여매 가지고서 형겅으로,} 10226 @ 엄지송꼬라그루. {엄지손가락으로.} 10226 # 어: 째:매능 거년 인재 그 이버편 오꼬르미 이쓰면 오꼬르미나 또 그렇 개 읍씨머년 다른 흥검 머 지드랑 거 이렇 겐 찌아개 가주구서루 요래 째:매 가주서루 저: 발고락뚜 이러캐 이러캐 두:를 마때 가주구서. {어 동여매는 건 이제 그 입었던 옷고름이 있으면 옷고름이나 또 그런 게 없으면 다른 형겅 뭐 기다란 거 이런 것을 찢어 가지고 요래 동여매 가지고 저 발가락도 이렇게 이렇게 둘을 맞대 가지고.}

10226 @ 네:, ***. {네, ***.}

10226 # 요래 마때 가주구서 요기릴 째:미야, 요기릴. {요렇게 맞대 가지고 요기를 동여매, 요기를.}

10226 @ 예:. {예.}

10226 # 요기릴 째:매서 이건 이리::캐서 여길 가치 가취 가주서루 땡 이 바짝 이르게 해: 먼 또 안 디야. {요기를 동여매서 이건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같이 갖취 가지고 당기 이 바짝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10226 # 이 어지간::니 꼬꼬타드룩 요러캐 잠매야지. {이 어지간히 꼳꼳하도록 요렇게 동여매야지.}

10226 @ 그럼 엄지방가락 발까라카구, {그럼 엄지발가락 발가락하고,} 10226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26 @ 엄지송꼬라카구 가치... {엄지손가락하고 같이...}

10226 # 그러치유, 그래서 인재 여기 해서 이래 자버 미야, 그라구선 인재 저: 문창호루지

두 해던지 흥거비쓰면 흥거부루다가 이러캐 인재 *** 또 짬매 올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해서 이렇게 잡아 매, 그러고는 이제 저 문창호지로 하든지 형 갚 있으면 형갚으로 이렇게 이제 *** 또 동여매 올려.}

10226 # 여꺼지 여기 팔까지 여꺼정 짬:매 올려. {여기까지 여기 팔까지 여기까지 동여매 올려.}

10226 @ 바래서부터 위로... {발에서부터 위로...}

10226 # 으으: 죄: 짬매 올리요. {으으 죄다 동여매 올리요.}

10226 # 짬매 올리리시구서 서루 인재 그 칠쌍파내다가 인재 언저 가주구서루, 여기 칠쌍 판두 미테: 이런 거시기가 이씨야 디야, 토매기. {동여매 올리시고서 서로 이제 그 칠성판에다 이제 얹어 가지고, 여기 칠성판도 밑에 이런 거시기가 있어야 돼, 토막이.}

10226 @ 예. {예.}

10226 # 토매기 인재 이 칠쌍파니 알부머닌 시: 개가 드르가고 두꺼우면 두: 개가 드르가는데: 이 머리 인넌데 하나 노코: 여 발치에 하나 노코 이래서 거기다 올리봐:. {토막이 이제 이 칠성판이 얹으면 세 개가 들어가고 두꺼우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머리 있는데 하나 놓고 여 발치에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올리봐.}

10226 # 어 올리 올리봐: 가주구서루 올리노쿠 인재 송판하구 또 시 여 시:신하구 또 이러캐 아래 올 다: 짬미야. {어 올려 올려봐 가지고 올려놓고 이제 송판하고 또 시 (신) 여 시신하고 또 이렇게 아래 위를 다 동여매.}

10226 # 짬:매구선 인재 그래 올리노쿠선 혼니불 저: 이버 더 더퍼면 인재 혼니불 인저 그걸 인재 꺾띠기 알봉 거 인재 그누멸 인재 뜨 뜨더 가주서루 더퍼:. {동여매고는 이제 그렇게 올려놓고고서 홀이불 저 입었 더 덮었던 이제 홀이불 이제 그걸 이제 꺾떼기 얹은 거거 이제 그놈을 이제 뜯 뜯어 가지고 덮어.}

10226 # 시시닐 더퍼 인재. {시신을 덮어 이제.}

10226 @ 예:. {예.}

10226 # 인재 인재 인재 이 우리 지부루 말하머닌 저:가 나미구 여가:가 부기유. {이제 이제 이 우리 집으로 말하자면 저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요.}

10226 @ 예. {예.}

10226 # 그른데 꼭 이 부그루다 머리털 둘루구서 저: 알루 바털 이러캐 두구 이러캐, 난 지녀개 자두 여가 머리 머리 닫는 대여. {그런데 꼭 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저 아래로 발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나는 저녁에 자도 여기가 머리가 닫는 데 야.}

10226 # 여가. {여기가.}

10226 @ 북쫓그루. {북쪽으로.}

10226 # 어: 이 이러캐 두루누 자는데. {어 이 이렇게 드러누워 자는데.}

10226 # 그러캐 시시닐 그러캐 노쿠서루 인재 혼니부루 저기 더 그래 폭:: 더꾸서닌 인재 인재 바람 안 드러가개 이런대:, 바람 안 드러가개 이러캐 포::가주 이르캐 알 싸구서는 또 올리노쿠서 인재 평풍 가따가서 이러캐 저기 치지. {그렇게 시신을 그렇게 놓고서 이제 홀이불로 저기 더 그래 폭 덮고서는 이제 이제 바람 안 들어가게 이런데, 바람 안 들어가게 이렇게 폭 아주 이렇게 싸고는 또 올려놓고 이제 병풍을 가져다가 이렇게 저기 치지.}

10226 # 거 인재 인재 조문꾼덜 여기 드리오느 이두 이꾸 안 드리오느 두 이짜나? {그 이제 이제 조문꾼들 여기 들어오는 이도 있고 안 들어오는 이도 있잖아?}

10226 # 인재 조문꾸니 드리오면 안 뵈요, 평풍얼 치머넌. {이제 조문꾼이 들어오면 안 보여요, 병풍을 치면.}

10226 # 요기 조 무바내 우리 평풍이 저기 열두 쪼긴대 뇌피가 거즘 예자나 디야. {요기 저 선반에 우리 병풍이 저기 열두 쪽인데 높이가 거지반 여섯자나 돼.}

10226 # 야 반야 바 반야바라밀따심경이여 거 쓴 평풍 글씨가. {야 반야 바 반야바라밀다 심경이야 거기 쓴 병풍 글씨가.}

10226 @ 네:. {네.}

10226 # 그때 누가 기증해서 내가 으:든 평풍인데. {그때 누가 기증T○해서 얻은 병풍인데.}

10226 # 그래서넌 평풍 둘러치구서넌 거기 머 참 저 아패 저기 으: 포라도 함 마리 놔:야 디야. {그래서는 병풍 둘러치고는 거기 뭐 참 저 앞에 저기 으 포라도 한 마리 놔야 돼.}

10226 # 술잔 술잔 하나 노쿠 으 저봄 하나 노쿠 인재 고 상이 하나 놔:야 디야, 상얼. {술잔 술잔 하나 놓고 으 젓가락 하나 놓고 이제 그 상을 하나 놔야 돼, 상을.}

10226 # 그람 인재 여기 드려와서루 인사할 싸라면 거 와서 드루와 하구:, 그라면 상재넌 여길 바워 노쿠서 저: 한:대 서썩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인사할 사람은 거기 와서 들어와 하고, 그러면 상제는 여기를 비워 놓고 저기 한테 서 있어요.}

10226 # 공서걸 저기 멀: 피구 자리덜 피구서 한:대 서서 손니덜 바다, 그때넌. {공석을 저기 뭇 퍼고 자리를 퍼고 한테 서서 손님을 받아, 그때는.}

10226 # 어트개 받너냐 하머넌 저:기 이 두루매기덜 인재... {어떻게 받느냐 하면 저기 이 두루매기를 이제...}

10226 # 인재 그땐 머: 저기 닫는대루 입녕 거지 머: 기-르: 두루매기가 이씨면 기-르: 두루매기 이꾸 여러미면 여림 하:양 거 인재 그 두루매기 입는데 예: 한쪽 팔덜 빼더라고. {이제 그때는 뭐 저기 단닫는대로 입는 거지 뭐 겨울 두루매기가 있으면 겨울 두루매기 입고 여름이면 여름 하얀 거 이제 그 두루매기를 입는데 예 한쪽 팔을 빼더라고.}

10226 # 해넌데: 고거넌 내가 워너걸 빼넌지 고걸 참 기어걸 잘 안나내요. {하는데 그것은 내가 어느 것을 빼는지 그건 참 기억이 잘 안나내요.}

10226 # 왼:작 팔덜 빼닝가 오른작 판 바능가 상재가. {왼쪽 팔을 빼는가 오는쪽 팔을 빼는가 상제가.}

10226 @ 예. {예.}

10226 # 상재가 두:리 되고 하나가 되거던 인재 한쪽 팔리 떠러저따능 기여 그라면. {상제가 둘이 되든 하나가 되거든 이제 한쪽 팔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10226 # 아버지가 주거편지 어머니가 주거편지 한쪽 팔리 떠러지닝개 이걸 두루매기 소매덜 버서. {아버지가 죽었든지 어머니가 죽었든지 한쪽 팔이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두루매기 소매를 벗어.}

10226 @ 예:. {예.}

10226 # 어: 벌:구서 이러캐 이러캐 걸:민서 두루매기 오꼬루무라다 이러캐 잠:매야. {어 벌고 이렇게 이렇게 걸면서 두루매기 웃고름으로 이렇게 동여매.}

10226 # 으 이래 잠:매구서 인재 손니모면 항:상 그저 그 거기 서서루 그래 인녕 기여. 여기 방애 잘 안 드리오구: {으 이렇게 동여매고서 이제 손님 오면 항상 그저 그 거기 서서 그렇게 있는 거야. 여기 방애 잘 안 들어오고.}

10226 # 그래 참 여기도 우리 그튼 경우는 여기 쪼부닝개루 저: 마당애두 갠자나. {그래 참 여기도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좁으니까 저 마당애도 괜찮아.}

10226 # 마당에서두 인재 손님 그러케 안자서 바다두 되고. {마당에서도 이제 손님 그렇게 앉아서 받아도 되고.}

10226 # 예:: 지거면 그런 상무널 당하면 함 번 가만 두:부넌 모:까요. {예 지금은 그런 상문을 당하면 한 번 가면 두 번은 못 가요.}

10226 # 근대 꼭 그 맹인한테 저럴 묻: 모:타넌 경우두 이꾸 하는 경우두 이짜나요? {그런데 꼭 그 망인한테 절을 못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0226 # 어: 마냐개 안싸돈때기 주근대 배깁싸도니 가서루: 어이어이 하구서루 절하거썬요? {어 만약에 한사돈택이 죽은데 바깥사돈이 가서 어이어이 하고 절하겠어요?}

10226 # 어? 안사도닌대. {어? 안사돈인데.}

10226 # 그래 그튼 때넌 인재 상제만 인재 인사릴 하고 그러니더런 어: 얼마나 애:통하개 썬니까? {그래 그런 때는 이제 상제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런 이들은 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10226 # 어 그러면 예: 그저 애:통합니다. {어 그러면 예 그저 애통합니다.}

10226 # 그기 인사여:. {그게 인사야.}

10226 @ 예:. {예.}

10226 # 저: 상 상제 상제 상제래서 마:래 그저 얼마나 저: 조문꾸니 '얼마나 상열 당해서 애통합니까' 그러면... {저 상 상제 상제 말에 그저 얼마나 조문꾸니 '얼마나 상을 당해서 애통합니까' 그러면.}

10226 # 이 처다보넌 뵈비 읍서요, 서루. {이 처다보는 법이 없어요, 서로.}

10226 # 저:개 상제가. {저기 상제가.}

10226 # 그만 하이 이러캐구서, 지그면 이르캐서 머: 손두 자꾸 이 다: 하자나요? {그만 하이 이렇게 하고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뭐 손도 잡고 이 다 하잖아요?}

10226 # 절:때 그기 읍썬썬니다, 이:저내 으:. {절때 그게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으.}

10226 # 그래 여 그저 애:통합니다: 그저 그뿌니여, 인사가 으:. {그래 여 그저 애통합니다 그저 그뿐이야, 인사가 으.}

10226 # 그라구 인재 여 드리와서루 참 볼 싸라면 여 와서 공만 하머넌 공만 하면 이 과가내 드르가기 저내넌 저를 안 히야 으.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와서 참 볼 사람은 여기 와서 곡만 하면 곡만 하면 이 꼭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을 안 해 으.}

10226 # 상제한테 저럴 안 히야. {상제한테 절을 안 해.}

10226 @ 아:. {아.}

10226 # 어: 여 시신: 어 시신 인는데서 저럴 안 히야. {어 여기 시신 있는데서 절을 안 해.}

10226 @ 파:넌. {관에.}

10226 # 어: 과내 이파넌 해야마니, {어 관에 입관을 해야 만이,} 10226 @ 입파나기 저내는, {입관하기 전에는,} 10226 # 그러치. {그렇지.} 10226 @ 저를 안 한다구요? {절을 안 한다고요?}

10226 # 이파늘 한 뒤:에래야지 상재더리 상보걸 이버요. {입관을 한 뒤에라야 상제들이 상복을 입어요.}

10226 # 으 상보걸 이그, {으 상복은 입어.} 10226 @ 그러면 입 찌기 입관할 때 다시 또 시시에다가, {그러면 입(관) 저기할 때 다시 또 시신에다가,} 10226 # 그 그러치 인저 시시내. {그 그렇지 이제 시신에.} 10226 @ 온 니피구 그러쥬? {옷 입히고 그러지쥬?}

10226 @ 그걸 그걸, {그걸 그걸,} 10226 # 그러치유. {그렇지쥬.} 10226 @ 염:한다 그 래능 거요? {염한다 그러는 거요?} 10226 # 그러치유 그거 인재 으一口:한다 그 라지유. {그렇지쥬 그거 이제 염한다 그러지쥬.}

10226 # 근대 그때 인재 그 입:, 주글 주근 뒤에 그 이피편 오설 또, 근대 미리 바서 주글 꺼 그트머년 숨:서 부터 이쉴 찌개 오설 다시 이피여.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입, 죽을 죽은 뒤에 그 입었던 옷을 또 그런데 또, 그런데 미리 봐서 죽을 것 같으면 숨이 붙어 있을 적에 옷을 다시 입혀.}

10226 # 으: 자제더리 그: 자제덜 저:기 주그니 아덜더리 이쓰면 그걸 알:구서루 발써 이 피, 깨그타개 빨래해 놓 거 싸개 온 니피라구, 그러면 그 온 니꾸 도러가시자나? {으 자제들이 그 자제들 저기 죽은 이 아들이 있으면 그걸 알고서 벌써 입혀, 깨끗하게 빨래해 놓은 거 빨리 옷 입히라고, 그러면 그 옷 입고 돌아가시잖아?}

10226 # 그러면 인재 그거 인재 그래 이핑 거년 으一口:할 찌개 염:사가 제 베끼여.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그렇게 입힌 것은 염할 적에 염사가 죄다 벗겨.}

10226 # 으: 혼니불 찌워 노쿠서. {으 훌이불 띄워 놓고서.}

10226 # 혼니불루 더퍼노쿠서. {훌이불로 덮어놓고서.}

10226 # 그러면 인재 여기서 아래또리서버텀 인재 자:꾸 빼:내구 인재 그르케 하지. 인재 여기 암 버겨전대 칼루 여건 다 찌저 내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랫도리에서부터 이제 자꾸 빼내고 이제 그렇게 하지. 이제 여기 안 벗겨지는데는 칼로 이건 다 찢어 내고.}

10226 # 그걸루 다: 찌저 내버리구. {그걸로 다 찢어 내버리고.}

10226 @ 저는 함 번두 모:빠서 그건 모르개쥬요.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그건 모르겠어요.}

10226 # 으:. {으.}

10226 # 잘 암 보셨지. 그 머 장의사에 가서 하능 거나 보머년 알까 지금 지배서년 안 하 닙개 잘 모르실 껴요. {잘 안 보셨지. 그 뭐 장의사에 가서 하는 거나 보면 알까 지금은 집에서는 안 하니까 잘 모르실 거요.}

10226 @ 예:. {예.}

10226 # 그래 그래서 인재 그걸 인재: 다: 으一口: 저기 파내 느:서 인재 이러캐서 또 다시 인재 저기 거기다 칠썩파내 또 올리 봐:.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 여 저 기 관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제 저기 거기다 칠성판에 또 올려 봐.}

10226 @ 예:. {예.}

10226 # 어: 여기서 인재 주근 자리서 여기서 다: 으一口:물 해: 가주구서 인저 저 늘: 디리 다가 디리다 노쿠서 인재 거기다 느:서 인재 이래서, 수 저 수문쟁이라 구리야 수 문장, 늘: 뚜껍 우:애 여패 여기 때리 방넝 걸 거 수문쟁이라 구리야. {어 여기서

이제 죽은 자리에서 여기에서 다 엮을 해 가지고 이제 저 널 들여다가 들여다 놓고서 이제 거기에다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 저 수문장이라고 해 수문장, 널 뚜껑 위에 옆에 여기 때려 박는 걸 그 수문장이라고 해.}

10226 @ 예. {예.}

10226 # 으: 그거 딱: 빠가 가주서루 인재 저: 깨뜨탄 종이루다 이래 관 싸 가주서루 여기다 인재 으 노쿠서루 또 평풍얼 이래 치지. {으 그거 딱 박아 가지고 이제 저 깨끗한 종으로 이렇게 관 싸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으 놓고서 또 병풍을 이렇게 치지.}

10226 # 으: 그르칸 뒤:애년 이제 상제가 저: 보걸 이버. {으 그렇게 한 뒤에는 이제 상제가 저 복을 입어.}

10226 # 상보걸, 글 글 발쌩이라 구라드라구 발쌩. {상복을, 그걸 그걸 발상이라고 그러더라고 발상.}

10226 @ 발쌩. {방상.}

10226 # 필 빨짜. {필 발자.} 10226 @ 예:. {예.} 10226 # 필 빨짜, 인재 저: 상 상사라는 상가라는 그 상짜 인재 그 필, 발쌩이라 구라드라구. {필 발자, 이제 저 상 상사라는 상가라는 그 상자 이제 그 필, 발상이라고 그러더라고.}

10226 # 난: 해 해 남 지끄리능 거 드꾸만 난 한 얘기로. {나는 해 해 남 지꺼리는 거 듣고만 나는 한 얘기로.}

10226 @ 예:. {예.}

10226 # 으허:. {으허.}

10226 # 내 소느루두 그 으:덜 더루 해: 바쨌요. {내 손으로도 그 엮을 엮을 더러 해 봤어요.}

10226 # 메 뻔 해: 반년대 잘 할 쫘두 몰르구 인재 그래서 하능 거만 그래 보구서 교순니 만태 애:긴대. {몇 번 해 봤는데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는 것만 그렇게 보고서 교수님한테 애긴대.}

10226 # 그래서 인재 상보걸 이꾸서는 저: 마당애다 명서걸 피구서 명세기나 머 자리털 피구서: 안쌍재는 안쌍재대로: 또 거기 보긴더런 보긴덜대로 한쫘그로 여자년 여자덜 남자년 남자덜찌리 이러캐 퍼늘 갈라서루 이러캐서 꾸부리구 업떠려. {그래서 이제 상복을 입고는 저 마당애다 명석을 펴고서 명석이나 뭐 자리를 펴고서 안상제는 안상제대로 또 저기 복인들은 복인들대로 한쪽으로 여자는 여자들 남자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편을 갈라서 이렇게 해서 꾸부리고 업드려.}

10226 @ 예:. {예.}

10226 # 업떠려서로 고걸 히야. {업드려서 곡을 해.}

10226 @ 예. {예.}

10226 # 거기서, 여기서 하능 기 아니라 거기서, {거기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10226 @ 예:. {예.}

10226 # 어: 한대 고 여기서 널르면 여기서 하년대: 이러캐 쫘부머년, {어 그런데 그 여기가 넓으면 여기서 하는데 이렇게 좁으면,} 10226 @ 바깥에서 하능 거구, {밖에서 하는 거고.} 10226 # 어: 바깥에서 해두 디야. {어 밖에서 해도 돼.}

10226 # 그건 명서걸 피던지... {그건 명석을 펴던지...} 10226 @ 예:. {예.} 10226 # 어: 한대. {어 그런데.}

10226 # 그래서 인재 거기서 한창 이러케 서루: 고걸 하구 인재 머 울:구 머 이런 그라던
머 경장이 인재 거시카지 머:.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참 이렇게 서로 곡을 하고
이제 뭐 울고 뭐 이런 그러면 뭐 팽창히 이제 거시기하지 뭐.}

10226 # 그걸 상향고기라 구라더라구, 상향곡. {그걸 상향곡이라고 그러더라고, 상향곡.}

10226 @ 예:. {예.}

10226 # 상향고기라구 그러케 인재 저: 그: 저: 백년축지배 그기 아마 사용 그 또 나 인는
지 몰라, 저기 우리 우땡애 저기 다: 이썬요, 우리 아번니미 해 놓 개 상, 저기가
반 백년축집뚜. {상향곡이라고 그렇게 이제 저 그 저 백년축집에 그게 아마 사용
그 또 나 있는지 몰라, 저기 우리 윗방에 저기 다 있어요, 우이 아버님에 해 놓은
개 상, 저기가 반 백년축집도.}

10226 # 주거서버텀 소:대상 전::부 나두룩 저기 시사꺼지 머 전::부 다 추기 다: 다: 인넌
대 축찌벌 해 놔:썬요, 아버지:-꺼서. {죽어서부터 소대상 전부 나도록 저기 시사
까지 뭐 전부 다 축이 다 다 있는데 축집을 해 났어요, 아버지께서.}

10226 # 그래 그걸 상향고기라 구리야. {그래 그걸 상향곡이라고 해.}

10226 # 인재 그 인재 그지서넌 인재 저: 상재가 인저: 어:: 아버지가 줌 주그머넌 대나무
어머니가 주그먼 버드나무 으: 지팡이가 틀리유. {이제 그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저
상재가 이제 어 아버지가 죽으면 대나무 어머니가 죽으면 버드나무 으 지팡이가
달라요.}

10226 @ 네:. {네.}

10226 # 어:. {어.}

10226 # 그래서 지꾸:. {그래서 짚고.}

10226 # 인재 보긴더런 인재 그냥 저기 평보긴더런 인재 머 상 저 상 저기 보긴 표 하너
라고 여 압치마 하나 둘루는두 이꾸 인재 머 이꾸 상재마넌 안쌍재넌 여 글 저
기:-라 구리야:. {이제 복인들은 이제 그냥 저기 평복인들은 이제 뭐 상 저 상 저
기 복인 표시 하느라고 여기 앞치마 하나 두르는 수도 있고 이제 뭐 있고 상재만
은 안상제는 여 그걸 저기라 고 해.}

10226 # 예: 예:: 수질. {예 예 수질.}

10226 # 머리 수짜. {머리 수자.}

10226 @ 예. {예.}

10226 # 머리 수짜 수지리라 구라드라구 이르게 동아줄 이르게 트러서루 이, {머리 수자
수질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동아줄 이렇게 틀어서 이,} 10226 @ 굴개 이러:
개 항 거? {굽게 이렇게 한거?} 10226 # 그러치 어: 여 그러치 여 삼, 빼깁쌍
저: 부모가 주그머넌 삼 저 삼베루 하구:. {그렇지 어 여 그렇지 어 삼, 바깁쌍(제)
저 부모가 죽으면 삼 저 삼베로 하고.}

10226 @ 예:. {예.}

10226 # 아~이 아니 저: 상 빼깁 쌍루 저: 거시키루 해 삼. {아이 아니 저 상 바깁쌍(제)
저 거시기로 해 삼.}

10226 @ 예. {예.}

10226 # 음: 저 대:마. {음 저 대마.}

10226 @ 예. {예.}

10226 # 그걸루 하구. {그걸로 하고.}

10226 # 또 어머니가 주그머넌 또 멀루 하드라, 이러케 오링 거 그거 어머니가 주그머넌
아마 칠거지루: 칠거지루 하딩가 멀:루 따 따라 달라. {또 어머니가 죽으면 또 뭘
로 하더라, 이렇게 오린 것 그거 어머니가 죽으면 아마 줍으로 줍으로 하딘가 뭘
로 (하든가) 달 달라.}

10226 @ 예:. {예.}

10226 # 으: 그기 하능 기. {으 그게 하는 게.}

10226 # 글캐 하구서 인재 그태서넌 인재 손니면 저기 서서 인재,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때서는 이제 손님은 저개 서서 이제,}

10226 @ 이 이 저기 머리에 이러:캐 하능 거 수지리라구 그랜다구요? {이 이 저기 머리에
이렇게 한 거 수질이라고 그런다고요?} 10226 # 그거, 야: 수지리요. {그거, 야
수질이요.}

10226 @ 그거 이르를 알:라구 제가, {그거 이름을 알려고 제가,}

10226 # 그걸 트질 이기 허리 띠닝 거넌 요질. {그걸 ** 이게 허리에 띠는 것은 요질.}

10226 @ 요질:. {요질.}

10226 # 어:. {어.}

10226 # 여 여기 허리 띠닝 건 상재만:-니 여기 여기 띠지:, {여 여기 허리 띠는 것은 상
제만이 여기 띠지,} 10226 @ 예:. {예.} 10226 # 보기더런 안 해요, 기영 건만
쓰구 그 저: 여기 봉 봉만 보곤만 입찌. {복인들은 안 해요, 그냥 건만 쓰고 그 저
여기 복 복만 복옷만 입지.} 10226 @ 여기 여기 행전가통 거.{여기 여기 행전
같은 거.}

10226 # 그러치 보건 이거 이거 행전꺼정언 칠 칠 쭈 이썸 보긴더런. {그렇지 복은 이거
이거 행전까지는 칠 칠 수 있어, 복인들은.}

10226 @ 예. {예.}

10226 # 으:. {어.}

10226 # 근대 여 머리에 이:거꺼정언 그건 상재배긴 안 하능 기여. {그런데 여기 머리에
이거까지는 그건 상재밖에는 안 하는 거야.}

10226 # 그: 버비. {그 법이.}

10226 @ 그 그거 여자두 하구 남자두 하구, {그 그거 여자도 하고 남자도 하고,}

10226 # 그러치요 상재는 다: 또가터. {그렇지요 상재는 다 똑같아.}

10226 @ 또까꾸. {똑같고.}

10226 # 으: 메누리 자식뚜 자시기요, 아들 난 아덜두 자시킨대 게 메누리 자식뚜 예:예:
으:, 수질.} {으 며느리 자식도 자식이요, 아들 난 아들도 자식인데 그래 며느리
자식도 예 예 으, 수질.}

10226 @ 근대 인재 바깥쌍재는 보면 이러:캐 땡 거뚜, {그런데 이제 바깥쌍재는 보면 이
렇게 된 것도,}

10226 # 그 개: 굴건, {그 개 굴건.}

10226 @ 예:. {예.}

10226 # 그거 굴거니여. {그거 굴건이야.}

10226 @ 굴거니지요? {굴건이지요?}

10226 # 어:. {어.}

10226 # 굴거니여. {굴건이야.}

10226 # 그런데: 굴건 하는데 예:: 굴건두 그 저: 조카나 이편지 동생이 이편지 주그니: 이 쓰면 예:: 그, 아: 그건 안 해 안 해드라구. {그런데 굴건 하는데 예 굴건도 그 저 조카가 있든지 동생이 있든지 죽은 이 있으면 예 그, 아 그건 안 해 안 하더라도.}

10226 # 어: 안 히야, 아 상제 상제만 히야. {어 안 해, 아 상제 상제만 해.}

10226 # 상제만 하구 중다넌 이버. {상제만 하고 중단은 입어.}

10226 # 어: 조카나 조카나 동생이나 으: 중단 중장 기양 중다넌 입뜨라구 또. {어 조카나 조카나 동생이나 으 중단 중단 그냥 중단은 입더라고 또.}

10226 # 중다나라능 건 여 저: 소매 이러쿠 삼베루다 두매기 그치 장:거 그걸 가주 중다나라 그래요. {중단이라는 건 여기 저 소매 이렇고 삼베로 두루마기 같이 지은 거 그걸 가지고 중단이라고 해요.}

10226 @ 길쭉카개 항 거. {길쭉하게 한 거.} 10226 # 그래 그러치요. {그러 그렇지요.}

10226 @ 거 두루매가치 항 거, 예. {거 두루마기 같이 한 거, 예.} 10226 # 아야: 그거요 그거 입뜨라구요. {야 야 그거요 그거 입더라고요.}

10226 @ 정보칸다능 건 머예요? {성복한다는 건 뭐예요?}

10226 # 그 정보기라능 개 그거 이판 드러가개 하능 거시 그기 정보기여. {그 성복이라는 게 그거 입관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성복이야.}

10226 # 어, 이를 썩자 북 북짜. {어 이를 성 자 북 북자.}

10226 # 그 정보기여 그개. {그게 성복이야 그개.}

10226 @ 그릉잉까 염: 해 가주구, {그러니까 염을 해 가지고,}

10226 # 그러치. {그렇지.}

10226 @ 과내요? {관예요?}

10226 # 으:. {으.}

10226 # 어: 정보캐:썩. {어 성복했어.}

10226 @ 사내 모시능 거. 산에 모시는 거.}

10226 # 어:, 누구한테 무를 썰 '아이 그지배 상당헌대 정보캐썩 어트개' 그래 아:느인 '아이 자시 모르건는데' 그라구 또 아:느이는 '아이 성복 끝나썩' 으: 상제 줌 바두 인제 돼야. {어, 누구한테 물을 때 '아이 그집에 상당헌대 성복했어 어떻게' 그래 아는 이는 '아이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고 또 아는 이는 '아이 성복 끝났어' 으 상제 줌 봐도 이제 돼.}

10226 @ 그럴 때 인제 절하지요? {그럴 때 이제 절하지요?}

10226 # 예:, 그때 인제 상젠님하구 절하구두 인제 하구 인제 그러케 참 머: 으: 또 달리 머 애:기할 꺼 이쓰면 애:기두 하구 인제 이라는대, 그저네넌 그저네넌 그양 저: 가서 인사하구 '얼매나 애:통하냐'구 그 인사하며넌 상제가 '아이구 저 애통합니다' 이래 그거 그뿐이지 달리 머 애:기할 거시 읍썩:, 어:. {예, 그때는 이제 상제님하고 절도 하고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참 뭐 으 또 달리 뭐 애기할 거 있으면 애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냥 저 가서 인사하고 '얼마나 애통하냐고'고 그 인사하면 상제가 '아이고 저 애통합니다' 이렇게 그것 그뿐이지 달리 뭐 애기할 것이 없어, 어.}

10226 @ 맨 처:매요:~? {맨 처음예요?}

10226 # 예:. {예.}

10226 @ 초종이라능 거 이썬요, 초종? {초종이라는 거 있어요, 초종?}

10226 # 초종이라능 건 인재 철썬사가 초종 아니거썬요? {초종이라는 건 이제 첫 제사가 초종 아니썬어요?}

10226 # 초종이라능 거 초종 어. {초종이라는 것 초종 어.} 10226 @ 아 그거 철썬사라 그래요? {아 그거 첫 제사라 그래요?}

10226 @ 왜, {왜,}

10226 # 츠:매 주거서 인재: 가따 장네 모시면 인재 대:번 초우루 드르가요, 초우. 어:. {처음에 죽어서 이제 갖다 장례 모시면 인재 대번에 초우로 들어가요, 초우.}

10226 # 초우. {초우.}

10226 # 초우루 드르가넌데 초우 지나구 인재 그이::튼날 아치매넌 재:우 어:. {초우로 들어가는데 초우 지내고 이제 그이튼날 아침에는 재우 어.}

10226 # 그 축 잉넌 거시키션 다: 또까타요. {그 축 읽은 거시기는 다 똑같아요.}

10226 @ 그러면 저 장네 지내고 천 천날. {그러면 저 장례 지내고 첫 첫날.}

10226 # 천날 치루 사내서 와 가주구 그 초우썬사여. {첫 날 치루(고) 산에서 와 가지고 그 초우 제사야.}

10226 @ 그날 지내능 거. {그날 지내는 거.}

10226 # 어: 응:급초우: {어 응급초우.}

10226 @ 예:. {예.}

10226 @ 그 다음날 지내능 개 재:우. {그 다음날 지내는 게 재우.} 10226 # 으: 어:. {으 어.}

10226 @ 그러구서, {그러고서,}

10226 @ 아: 그래서 삼오라 그래능 거요? {아 그래서 삼오라 그래는 거요?}

10226 # 예 예 사모유 사몬대: 그이 저:기 일썬 바: 가주구서 나흘마네 사모가 드는 날두 이꾸: 사흘마네 드넌 날두 있구 그걸 그러케 해넌대: 그거 지금 안 따지유. {예 예 삼오요, 삼온데 그 저기 일잔 봐 가지고 나흘만에 삼오가 드는 날도 있고 사흘만에 드는 날도 있고 그걸 그렇게 하는데 그거 지금 안 따져요.}

10226 # 그저 가따 장:사지내고 사흘마니면 삼오능 개비다. {그저 갖다 장사지내고 사흘만 이면 삼온는 가보다.}

10226 # 그래 이러케 해서로 지내넌데 그 충마넌 세: 가지가, 우: 성우 어 우사사냥, {그래 이렇게 해서 지내는데 그 축만은 세 가지가, 우 성우 어 우사사, }

10226 # 어: 우사상향 성사사 아이 성사상향이 라 나중애지 아마 성사상향. {어 우사상향 성사사 아이 성사상향이 나 나중애지 아마 성사상향.}

10226 # 가마이썬 저:기... {가만히 있어 저기...}

10226 @ 가주 오시개? {가지고 오시게?}

10226 # 어:. {어.}

<<잡음>>마이크 스치는 소리

10226 @ 이: 저기 맨: 처:매요? {이 저기 맨 처음에요?}

10226 # 으:. {으.}

10226 @ 맨 처:매 도라가시면 왜 지붕애다가, {맨 처음에 돌아가시면 왜 지붕애다가,}

10226 # 아: 초흔. {아 초흔.}

10226 @ 초흔. {초흔.}

10226 # 어:. {어.}

10226 @ 초혼. {초혼.}

10226 @ 예:, 초혼. {예, 초혼.}

10226 # 어: 초혼, 혼 불러낸 인재 혼. {어 초혼, 혼 부르는 이제 혼.}

10226 @ 그건 어티개 하는 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요?}

10226 # 그건 인재: 그 벼개 부르낸 이가 그 맹이내 태코릴 태코 태코면 인재 예를 드려서
인재 여기 종곡 은 복실. {그건 이제 그 벼에 부르는 이가 그 망인의 택호를 택호
택호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종곡 은 복실.}

10226 @ 예. {예.}

10226 # 어: 복실 하라부지라고: 하도 되고 머: 인재 아주 나이가 절무니면 아전 머 거시
기 내은대 거 인재 때에 따라서 인재 어 그래:-민서루 '복::복' 어 하민서 '속점-쌈
바다 가시오' 하민서로 이래 혼드러. {복실 할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뭐 이제 아주
나이가 젊으면 아저(씨) 뭐 거시기 *** 거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어 그러면서 '복
복' 어 하면서 '속적삼 받아 가시오' 하면서 이렇게 혼들어.}

10226 @ 뭇 바다 가라구요? {뭇 받아 가라고요?}

10226 # 소포 속:적삼. {속적 속적삼.}

10226 @ 예. {예.}

10226 # 어 '속:적삼 바다 가시오' 하민서로 그걸 이러케 혼들드라구. {어 '속적삼 받아 가
시오' 하면서 그걸 이렇게 혼들더라고.}

10226 # 그래서 혼들더이머면 머 지병애다 편진다구 하능 건 나는 모: 바꼬: 그걸 인재 혼
들면 가따가서 여 시:신 여기다 가따가 더퍼. {그래서 혼들더니만 뭐 지병애다 던
진다고 하는 건 나는 못 봤고, 그걸 이제 혼들면 갖다가 여기 시신 여기에다 갖다
가 덮어.}

10226 # 어 아패 가따 그 적싸물. {어 앞에 갖다 그 적삼을.}

10226 @ 어떤 때는 가니까 그걸 지병애 편진대요. {어떤 때는 가니까 그걸 지병애 던진대
요.}

10226 @ 그래서 인재. {그래서 이제.}

10226 # 으:. {으.}

10226 @ 동네마다 다르 다르자나요. {동네마다 다르 다르잖아요.} 10226 # 그 그리여, 여
기. {그 그래, 여기.} 10226 @ 그래서 여쭙 보능 거요. {그래서 여쭙어 보는 거
예요.}

10226 # 어: 여기서넌 그러케 그러케넌 안 아니하고 기냥 거기서 저 무나패 서서루, 저:
한델 내다보민서루, 으: 저:기 태코가 이쓰면 태코루 인재 '아무거시 낭반: 아무거
시 낭반' 하던지 원 '아무거시 하라부지: 하라부지' 그라던지 어 세: 번 불르구 으:
'복:복' 또 세: 번 하구 그르카면 '속:적삼 바다 가십씨오:' 하구서는 인재 그라구선
이러:케 이러:케 내둘루:떠니 고만 도라서서 가주 드루와서 여기 시신 우애다 더퍼.
{어 여기서는 그렇게 그렇게는 안 앓하고 그냥 거기서 저 문 앞에 서서, 저 한테
를 내다보면서, 으 저기 택호가 있으면 택호로 이제 '아무개 양반 아무개 양반' 하
든지 원 '아무개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든지 어 세 번 부르고 으 '복 복' 또 세
번 하고 그렇게 하면 '속적삼 받아 가십시오' 하고는 이제 그러고는 이렇게 이렇게
내두르더니 그만 돌아서서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시신 위에 덮어.}

10226 @ 예. {예.}

10226 @ 그러구 저:기 무나패다가 머 신두 가따 노쿠... {그리고 저기 문 앞에다가 뭐 신도 갖다 놓고...}

10226 # 아~: 그러치:. {아, 그렇지.}

10226 # 그거는 이제 저기리야. {그것은 이제 저기래.} 10226 @ 고건 언제 하능 거요? {그건 언제 하는 거요?}

10226 # 아: 그 인재 도라가시면 대:번 해야. {아 그 이제 돌아가시면 대번에 해.}

10226 # 그기 인재 사자: 사자빠비라구 사자. {그게 이제 사자 사갓밥이라고 사자.}

10226 # 데리구 간 사 사자:.{데리고 가는 사 사자.}

10226 @ 예:. {예.}

10226 @ 어:. {어.}

10226 # 사자빠비라구 그걸 해 노치 시: 그런씩, 밥 씨그를 시: 접시: 으:. {사갓밥이라고 그걸 해 놓지 세 그릇씩, 밥 세 그릇 세 접시 으.}

10226 # 거 신두 인재 고로캐 인재 신두 인재 저짜그루 나가개 시리 이르캐 노쿠. {거 신도 이제 그렇게 이제 신도 이제 저쪽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놓고.}

10226 # 시너편 신, 으: 고무시니면 고무신 구두 구두이면 구두: 인재 이러캐서 그 버승 걸 가따가 이러캐 노쿠 으 그러캐 해년대. {신었던 신, 으 고무신이면 고무신 구두 구두면 구두 이렇게 해서 그 벗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으 그렇게 하는 데.}

10226 #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도러가시서년 우리 아번님두, 어머니가 머라 먼여 도러가신년 대 '하지 마라', '베기실캐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해썩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서서는 우리 아버님도, 어머니가 먼저 먼저 돌아가셨는데 '하지 마라', '보기싫게 그거 하지마라' 그래서 안 했어요.}

10226 # 안 헐는데 우리 아번니미 나:중애 도러가신는데, 우리 아번님 도러가시서 그런 그럴 거 안 해썩요. {안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서서 그런 그런 거 안 했어요.}

10226 # 그래 우리 어머니미 머녀 도러가신는데 그땐 우리 외삼추니 여기 계시썩꺼덩 요짜개, 큰 기아지배. {그래 우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대는 우리 외삼촌이 여기 계셨었거든 요짜애, 큰 기와집에.}

10226 # 여기 여 약빵인 약빵애 그때 여 사랑으루 쓸 건대 사랑으루 쓰년대 인재 여기에 모두 안즈시서루 또 그 으:른뿐 아니라 여기 아부한테 사:춘 처남되는 양반 여 뒤찌배 사라썩. {여기 여 약방인(데) 약방에 그때 여 사랑으로 쓸 건데 사랑으로 쓰는데 이제 여기에 모두 앉으셔서 또 그 어른뿐 아니라 여기 아버지한테 사춘 처남되는 양반이 여기 뒷집에 살았어.}

10226 # 여기 그 어르니 참: 필 이 글 필적두 조:쿠 참 그냥바니 자래썩, 이: 으一口:하녕 거 그 양반 소느루 암 만친, 지반니런 다: 해썩, 그 양바니. {여기 그 어른이 참 필, 이 글 필적도 좋고 참 그양반이 잘했어, 이 염하는 거 그 양반 손으로 안 만진, 집안 일은 다 했어, 그 양반이.}

10226 # 그 으:러니 참 그 저: 사사부 그통 그 으른두 모:타개 하드라구. {그 어른이 참 그 저 사갓밥 같은 거 그 어른도 못하게 하더라고.}

10226 # 으: 아이 그 또 오 외삼촌 되는 으르니 그리야, '아 함 번 자바까지 또 또 자바 가

라구 그르케 바패 노쿠 그라능 겨 하지 마라' 헤헤 하이 걱쟁얼 하시더라구. {으 아이 그 또 외 외삼촌 되는 어른이 그래, '아 한 번 잡아가지 또 또 잡아 가라고 그렇게 밥해 놓고 그러는 거야, 하지 마라' 헤헤 아이 걱쟁을 하시더라고.}

10226 # 아이구 구래 안 해썬요 그질루 어. {아이고 그래 안 했어요 그길로 어.}

10226 @ 으음. {으음.}

10226 # 또 자바 가라구 머머 바패 주구 머 그 히야, 헤헤헤 헤헤 허허허. {또 잡아 가라고 뭐 뭐 밥 해주고 뭐 그 해, 헤헤헤 헤헤 허허허.}

10226 # 그 우리 외삼촌이 배우싱 거넌 업썬요. {그 우리 외삼촌이 배우신 것은 없어요.}

10226 # 그런 그러켄 저기 한 그런 움넌대 그리두 내 압 거시기는 돼요, 그리. {글은 그렇게 저기 한 글은 없는데 그래도 내 앞 거시기는 돼요, 글이.}

10226 # 그르신대: 남 애경상무내 가시머넌 다: 관서벌 하시넌 양바니여. {그러신데 남의 애경상문에 가시면 다 간섭을 하시는 양반이야.}

10226 @ 예:. {예.}

10226 # 사:래미 주거서 인재 사내 묘:릴 쓰루 가자나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산에 묘를 쓰러 가잖아요?}

10226 # 가마넌 인재 거기 회:장꾼덜두 가구 머 거 시역 일:하넌 사람두 인재 가고 그라넌 대 거 맵인한테 잘모타머넌 불러 가주서루 그 어디 그러케 이:릴 그러케 하느냐고: 거: 회릴 비비서 쓰넌대도: 회두 골고루 안 서꾸 또 물두 제대로 이러케 주두 안 하구 그냥 마른 호개 허여케 해서루 가따 쓰면 작 단:장 가라주구 쪼차와서루 이눔더라 이거 머하는 지시여 으: 당장 이거 저 물 줘 가주서루 다: 몸빼비 느 암 비비느냐구 마리어. {가면 이제 거기 회장꾼들도 가고 뭐 거 시역 일하는 사람도 이제 가고 그러는데 거 맵인한테 잘못하면 불러 가지고 그 어디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 회를 비비서 쓰는 데도 회도 골고루 안 섞고 또 물도 제대로 이렇게 주지도 안 하고 그냥 마른 흙에 허엿게 해서 갖다 쓰면 작 단장 가지고 쫓아와서 이눔들아 이거 뭐하는 것이야 으 당장 이거 저 물 줘 가지고 다 붓 비비느(냐고) 안 비비느냐고 말이야.}

10226 # 이른 걱쟁얼 하시넌대: 내가 여기 살민서로 외가찌비 저태라 우리 외하라부지 외증:조하라부지꺼지 내가 기지사 참사를 한 사라미유, 요기 저태 살민서루. {이런 걱쟁을 하시는데 내가 여기 살면서 외갓집이 곁이라 우리 외할아버지 외증조할아버지까지 내가 기제사 참사를 한 사람이요, 요기 곁에 살면서.}

10226 @ 네:. {네.}

10226 # 그래 그 인재 조카덜두 이찌: 그 양반 아덜덜두 이찌 생질두 이찌 모도 다: 참 그 제:관더리 마:나. {그래 그 이제 조카들도 있지 그 양반 아들들도 있지 생질도 있지 모두 다 참 그 제관들이 많아.}

10226 # 으 마는데 인재 참 너할 짜리 너하구 이러케 하는데 느: 나며 저: 회장 가머넌 멀: 하루 땡기니 으 대분 그러카시여. {으 많은데 이제 참 너할 자리 너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 남의 회장 가면 뭘 하러 다니니 으 대번에 그렇게 하셔.}

10226 # 그래 야:무 쏘리두 아나구 안자씨면 '그개 그렇 개 아니다 나무 회장 가려 갈 때 넌, 느:가 배가 고파서 바판수쌀 으:더 머그루 가능 거냐, 모기 말라서 수릴 한 사발 으더 머글라구 가능 거냐, 주그니한테 잘모타넌 거 이씨면 거기서 애:기릴 하구 곤치 주구 해야지: 가서 배비나 주면 바비나 먹구 수리나 주면 수리나 머꾸 그

런지타지 마라 아프루' 으 그러카구 도라가신 으:러니요 그 으:러니. {그래 아무 소리고 안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그런 게 아니다 남의 회장 가려 갈 때는 너희가 배가 고파서 밥 한 숟가락 얻어 먹으로 가는 거냐, 목이 말라서 술을 한 사발 얻어 먹으려고 가는 거냐, 죽은 이하테 잘못하는 거 있으면 거기서 얘기를 하고 고쳐 주고 해야지 가서 밥이나 주면 밥이나 먹고 술이나 주면 술이나 먹고 그런짓 하지 마라 앞으로' 으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어른이요 그 어른이.}

10226 # 흐허 흐허 허. {흐허 흐허 허.}

10226 @ 그개 저기 회장간다는 개 무슨 뜨시예요? {그게저기 회장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0226 # 인재 회: 도라올 회짜 도라올 회짱가 머 이러캐 저기 그 회짜가 드리가는대 도라 온다넌 으 도라올 회 회 회장이여 장:사 장사 보구 온다는, {이제 회 돌아올 회자 돌아올 회자인가 뭐 이렇게 저기 그 회자가 들어가는데 돌아온다는 으 돌아올 회 회 회장이야, 장사 장사 보고 온다는,} 10226 @ 예: 예:. {예 예.} 10226 # 으 그 그건 회:장인데. {으 그 그건 회장인데.}

10226 @ 예. {예.}

10226 # 도라올 회짜가 이 이 이꾸 아내 이르카구 이 이 이거지? {돌아올 회자가 이 있고 안에 이렇게 하고 이 이 이거지?}

10226 @ 두: 개 입 구 두 개 인능 거요. {두 개 입 구 두 개 있는 거요.} 10226 # 어 이꾸 어 이꾸 두 개. {어 입 구 어 입 구 두 개.}

10226 @ 입구 아내 입꾸 드리장 거요. {입 구 안에 입 구 들어간 거요.} 10226 # 그래 이꾸 아내 이꾸 드릉 거 그 도라올 회짜. {그래 입 구 안에 입 구 들은 거 그 돌아올 회자.}

10226 # 그래 어. {그래 어.}

10226 @ 둘: 회짜. {둘 회자.}

10226 # 으:. 그래 보구서 도라 인재 지부루 인저 그래 도라온다능 기 그 뜨시 그기 회쟁 잉개비여 아마: 으:. {으 그래 보고서 돌아 이제 집으로 이제 그래 돌아온다는 게 그 뜻이 그개 회장인가봐 아마 으.}

10226 # 그래서 그: 외삼추난태 걱쟁두 내가 마:니 드른 사라미유:. {그래서 그 외삼촌한테 걱정도 내가 많이 들은 사람이요.}

10226 @ 소:렘 대:렘이래능 거 이썬요? 소:렘 대:렘? {소렘 대렘이라는 거 이썬요? 소렘 대렘?}

10226 # 술: 대:려미. {소(렘) 대렘이.}

10226 @ 스판다 그래자나요 습:. {습한다 그러잖아요 습.}

10226 # 으? {으?}

10226 @ 습판다능 개 그, {습한다는 게 그,} 10226 # 염:습. {염습.} 10226 @ 염스판다능 거요? {염습한다는 거요?} 10226 # 어 염:습. {어 염습.}

10226 @ 소:렘 대:렘. {소렘 대렘.}

10226 # 어 대:려미 염:스파능 기 대려미 저:기리야 소 소:리미리야. {어 대렘이 염습 하는 게 대렘이 저기래 소 소렘이래.}

10226 @ 염스파능 거요? {염습하는 거요?}

10226 # 저:: 아내 기시넌 양바니 함 번 그른 애길 하시드라고: 맨: 츠:매 수시 거두능 기

그기 대:려미래요 으. {저 안에 계시는 양반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맨 처음에 수세 거두는 게 그게 대령이래요 으.}

10226 @ 맨: 처매개 대려미예요? {맨 처음에 것이 대령이에요?} 10226 # 어 어 그기 대:, 손과 이래 손 발, {어 어 그게 대, 손과 이래 손 발,} 10226 @ 이르캐 송가락, {이렇게 손가락,} 10226 # 어: 째:매서 하능 기 그기 대:려미라구 그 양반 마:른 그라드라고. {어 동여매서 하는 게 그게 대령이라고 그 양반 말은 그러더라고.}

10226 @ 예:. {예.}

10226 # 근대 워너기 마즌지는 난두 몰라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나도 몰라요.}

10226 @ 예:. {예.}

10226 # 그기. {그레.}

10226 @ 그리구 파내, {그리고 관에,}

10226 # 어:. {어.}

10226 # 거 인제 거 인제 익판. {그 이제 그 이제 입판.}

10226 @ 예 고때 하능 개 소:려미고? {예 고때 하는 게 소렴이고?}

10226 # 어: 그개 소:려미라 그라드라고. {어 그게 소렴이라고 그러더라고.}

10226 @ 예:. {예.}

10226 # 그 으런 마리. {그 어른 말이.}

10226 @ 그 다매 인제 나매 지배 나매 지배 누가 상 당하면 가자나요, 가 인사하러 가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집에 남의 집에 누가 상 당하면 가잖아요, 가 인사하러 가잖아요?}

10226 # 으: 으:. {으 으.}

10226 @ 그걸 머:라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해요.}

10226 @ 머: 간다 그래요. {뭐 간다 그래요.}

10226 # 거 그러닝개 머 저기 머: 무 무 문 문:생이라 구라지 문:상. {거 그러니까 뭐 저기 지 뭐 무 무 문 문상이라 그러지 문상.}

10226 # 상재 무루루 간다구, 으 상 상재. {상재 물으러 간다고, 으 상 상재.}

10226 @ 예, 상재 무르러 간다구. {예, 상재 물으러 간다고.}

10226 # 어 참 머 자별 맹인하구 자별하개 거시캐 지내던 차이머닌, 아이 머 아무지 양개는 글러기 그만하시던데 오터개 그간 또 의중하시 가주서루 그래 상사를 당하쓰니 얼마나 애통하건느냐구 그러 그러캐는 머: 그 얘기 그르캐 무를테지 머: 우리 추츠개 어? {어 참 뭐 자별 망인하고 잘별하게 거시기하게 지내던 사이면, 아이 뭐 아무렇지 않게 근력이 그만하시던데 어떻게 그간 또 위중하셔 가지고 그래 상사를 당했으니 얼마나 애통하겠느냐고, 그렇 그렇게는 뭐 그 얘기를 그렇게 물을 테지 뭐 우리 추츄에 어?}

10226 @ 치장이래능 건 머요, 치장? {치장이라는 건 뭐요, 치장?}

10226 # 치장? {치장?}

10226 @ 예. {예.}

10226 # 치장이라능 거슨 모르건네요, 으. {치장이라는 것은 모르겠네요, 으.}

10226 @ 다스릴 치짜에다가 이르캐 장사 장짜 쏹 건대. {다스릴 치자에다가 이렇게 장사 장자 쓴 건데.}

10226 # 치장이라능 거 그거 산소에 그람 멀: 잘 거시기를 하라는 뜨싱개빈대예:, 이를 이를 치짜요 머요? {치장이라능 거 그거 산소에 그러면 될 잘 거시기를 하나는 뜻인가본데, 이를 치자요 뭐요?}

10226 @ 다스틸 치짜요. {다스틸 치자요.}

10226 # 다스틸 아: 다스틸 치짜. {다스틸 아 다스틸 치자.}

10226 @ 저 먼: 잘 모:르게써요. {저 무슨 잘 모르겠어요.} 10226 # 그쵸요 그거 잘 모르거써요 머 나도. {글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뭐 나도.}

10226 @ 친구한다 그러지요 친구? {친구한다 그러지요 친구?}

10226 # 어 천:구 저 방에서 나갈 췌 천:구. {어 친구 저 방에서 나갈 때 친구.}

10226 @ 관. {관.}

10226 # 어: 나갈 췌개. {어 나갈 적에.}

10226 @ 고거뚜 저:기 머 시기 이때요. 이따 그래대요. {그것도 저기 뭐 식이 있던데요. 있다고 그러대요.}

10226 # 현고지에 감:고 건:고 그래 그러치. {현고지에 감고 건고 그래 그렇지.}

10226 # 어: 어 간단해야 고 잉녕 거. {어 어 간단해 그 읽은 거.}

10226 @ 그러면서 나갈 때 머 여기 저 바가지? {그러면서 나갈 때 뭐 여기 저 바가지?}

10226 # 으: 그거 인재 근 사사루다가, {으 그거 이제 그건 사사로다.} 10226 @ 네. {네.} 10226 # 뽕여리야 그기 뽕연대 그날 장:사가 모:찌넬 라래는 그거를 발:구서 바가지질 뿌시민서 나가머닌, 어허 그개 저기가 저: 잘모뽕 개 다: 움췌진다고:, {뽕여래 그개 바여인데 그날 장사를 못 지넬 날에는 그것을 밟고서 바가지를 부수면서 나가면, 어허 그개 저기가 저 잘못된 게 다 없어진다.}

10226 @ 예:. {예.}

10226 # 그래 그 사사루다 그런 지설 하지:. {그래 그 사사로 그런 짓을 하지.}

10226 @ 뽕여라능 개 머요, 그러니까... {뽕여라는 게 뭐요, 그러니까...}

10226 # 방여, 방여 그거 인재, {방여, 방여 그거 이제,}

10226 @ 방여. {방여.}

10226 # 어: 잡귀 인재 묻: 거시기 한다고, {어 잡귀 이제 못 거시기 한다고,}

10226 @ 저 머 머 부정타능 거 망는다 이런 뜨싱거지요? {저 뭐 뭐 부정타는 거 막는다 이런 뜻인거지요?} 10226 # 예: 어 그러 그러치. 잘모뽕 거 인재. {예 어 그렇 그렇지. 잘못된 거 이제.}

10226 @ 예 그거 망는다는 뜨시지요? {예 그거 막는다는 뜻이지요?} 10226 # 예: 그 그 뜨시다구 그라대요. {예 그 그 뜻이라고 그러대요.}

10226 @ 그래가주구 박 인재: 나가서:, {그래 가지고 밖 이제 나가서,}

10226 # 으: 행여 행여 아패, {으 상여 상여 앞애,}

10226 @ 예:. {예.} 10226 # 행여 꾸미서 노꾸, {상여 꾸며 놓고,} 10226 @ 예:. {예.}

10226 # 어: 그거 말썽하실라 그라자나? {어 그거 말썽하시려 그러잖아?} 10226 @ 예 인재 고 순서대루 예:. {예 이제 고 순서대로 예.}

10226 # 그기 인재 저기지 머. {그게 이제 저기저 뭐.}

10226 # 영이 영이 축: 아 저: 영이. {영이 영이 축 아 저 영이.}

10226 @ 네:. {네.}

10226 # 바린 추기여 그기 바린 축. {발인 축이여 그게 발인 축.}

10226 @ 예:. {예.}

10226 # 어 바린 예허, 나갈 쟈 예해해 영이 영이기가 왕조기오테 재진겨레 으—○:결용찬.
{어 발인 예허, 나갈 때 예해해, 영이 영이기가왕조강기오테재진겨레영결용찬.}

10226 @ 예:. {예.}

10226 # 으: 고거여 고거 일그머년 인재 저기 모도 인재 상제더런 인재 고카고 인저 그르
카고서루 인재 생여군더리 인재 거기 차리 놔:땡 거 인재 모두 쓰:러서 저기 술
한 잔씩 머꾸서 그라구 인재 떠나:. {으 고거야, 고거 읽으면 이제 저기 모두 이제
상제들이 이제 곡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상여군들이 이제 거기 차려 왔던
거 이제 모두 썰어서 저기 술 한 잔씩 먹고서 그러고 이제 떠나.}

10226 # 떠나능 기여 인재, 그러닝개 으—○:결종천이여 허허허. {떠나는 거야 이제, 그러
니까 영결종천이야 허허허.}

10226 # 어 허허허허 참 애통하지:. {어 허허허허 참 애통하지.}

10226 @ 예:. {예.}

10226 @ 그:: 바린:할 때요:, {그 발인할 때요,}

10226 # 예. {예.}

10226 @ 인재 그 그 아이 바린하기 저내 전날 저녁 때에:, {이제 그 그 아이 그 발인하기
전에 전날 저녁 때,}

10226 # 으:. {으.}

10226 @ 사람드리 마당애 모여 가주구:, {사람들이 마당애 모여 가지고,}

10226 # 예:. {예.}

10226 @ 상여 구미자나요. 우애 우애 똑 저기 지봉은 빼:구, {상여 꾸미잖아요. 위에 위에
뚜(경) 저기 지봉은 빼고,} 10226 # 그 그 그러치. {그 그 그렇지.} 10226 @ 미
태만 빼구 거기 종치는 사람 올라서 가주구, {밑에만 빼고 거기 종치는 사람 올라
서 가지고,}

10226 # 야: 야: 글 글 글. {야 야 그걸 그걸 그걸.}

10226 @ 그거는 뭐... {그거는 뭐...}

10226 # 그걸 대떠리라 그리야 대떠리. {그걸 때떠리라 그래 대떠리.}

10226 @ 대떠리:. {대떠리.}

10226 # 어: 대:. {어 대.}

10226 # 그 대채거덩 그기. {그 대채거든 그게.}

10226 @ 아 거기에 이리:캐, {아 거기에 이렇게,}

10226 # 어: 꼬쟁이가 그 대채여. {어 꼬쟁이가 그 대채야.}

10226 @ 이러캐 네모루 땡거. {이렇게 네모로 된 거.} 10226 # 어: 대채 인재 어: 대떠리
라 구리야 대떠리. {어 대채 인재 어 대떠리라 그래 대떠리.}

10226 @ 예:. {예.}

10226 # 무슨 뜨신지 몰라두 대떠리라 구리야.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대떠리라고 그래.}

10226 @ 예. {예.}

10226 # 그래 참 오래:: 사이 참 명인 저 오래 나이 여 오래 살구 인재 그 머: 저: 주그니
아덜두 인재 나이가 망:쿠 인재 그르카머년 그룽 거 해:도: 상제더리 머 그거 하지
말라쏘리두 안히야. 그래 참 오래 살(고) 참 망인 저 오래 나이 여 오래 살고 이
제 그 뭐 저 국은 이 아들도 아제 나이가 많고 이제 그러면 그런 거 해도 상제들

이 뭐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안해.}

10226 # 으 다: 그 조: 조아하구 으 그르케 하드라구유. {으 다 그 종 좋아하고 으 그렇게 하더라고요.}

10226 # 여기 우리 외하라번님 저 객쌀 하시쎄요, 외:하라번니미. {여기 우리 외할아버님 저 객사를 하셨어요, 외할아버님이.}

10226 @ 예. {예.}

10226 # 저: 어디 저: 종사에 가따가 으 술 잡쑈구서 지릴 잘못 뜨러 가주 바매 거기서 호냐 그만 질 캉:카만 아 시:월 그믐나리만 저기 아 구월 그믐날이면 월매나 그 어두워. {저 어디 저 종사에 갔다가 으 술 잡수시고 길을 잘못 들어 가지고 밤에 거기서 혼자 그만 길 캉캉한 아 시월 그믐날이면 저기 아 구월 그그믐날이면 얼마나 어두워.}

10226 @ 예:. {예.}

10226 # 구월 음력 구무 구:월 그믐나린대 그래서 한 달마내, 문중에 시사가 전부 시월파리면 시사여. {구월 음력 그믐 구월 그믐날인데 그래서 한 달만에, 문중에 시사가 전부 시월 달이면 시사야.}

10226 @ 예. {예.}

10226 # 그러니 사:라멸 귀경할 쑤가 이씨야지 장:벨 모시지. {그러니 사람을 구경할 수가 있어야지 장례를 모시지.}

10226 # 저:: 미원 땅애 청천, 거가 저: 거시키요. {저 미원 땅애 청천, 거기가 저 거시키요.}

10226 # 구방나라넌댄대 거가 청천 땅이지. {구방리라는데인데 거기가 청천 땅이지.}

10226 # 저 괴산 개다가 괴산 땡이지 거가 그냥. {저 괴산 개다가 괴산 땡이지 거기가 그냥.} 10226 @ 예 예. {예 예.}

10226 # 그리 그리 가시년대 한 달털 뒤:따가 모시 뉘뉘따가서 한 달마내 그리 모시가쎄요. {그리 그리 가시는데 한 달을 두었다가 모셔 왔다가 한 달만에 그리 모셔왔어요.}

10226 # 으: 그러년대 그 어른 참 대떠리릴 하년대:, 그뻘 여기 하:인덜 여개 산지기덜 이쎄요. {으 그러는데 그 어른 참 대떠리를 하는데, 그때는 여기 하인들 여기 산지기들이 있어요.}

10226 # 저 여 경주 김씨네 모도 저기 채시래 산지기릴 두구서루 그 종토 부치 머꾸 산지더리 뜨즌대, 그 산지기 하나가 여거 근:대 산지긴대, 근대 근:대 으 가까운 대:. {저 여 경주 김씨네 모두 저기 채실에 산지기를 두고서 그 종토 붙여 먹고 신지기들이 ***, 그 산지기 하나가 여기 근대 산지기인데, 근대 근대 가까운 데.}

10226 @ 예:. {예.}

10226 # 근:대애 산지긴대 그: 구벼니 조쿠 그래 그래쎄서 그래 대떠리 올라서서 이러케 요량얼 흔들구 이래 하니깨루 상지더런 머 거 모도 모도 무나패 족:: 그러케 안져서 인재 드끼만 하고 해해 그르케 해:쎄쎄요, 으. {근대에 산지기인데 그 구변이 좋고 그래 그랬었어, 그래 대떠리 올라서서 이렇게 요령을 흔들고 이렇게 하니까 상제들은 뭐 그 모두 모두 문앞에 족 그렇게 앉아서 이제 듣기만 하고 해해 그렇게 했었어요, 으.}

10226 # 그걸 대떠리라 구라드라구 대떠리. {그걸 대떠리라 그라더라고 대떠리.}

10226 @ 그때 머 술두 주구, {그때 뭐 술도 주고,} 10226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26 @ 머 떡두 그러치요? {뭐 떡도 주고 그러치요?} 10226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26 # 돈:두 인재 가따 거:는 자손더리 이쓰면 돈:두 가따 걸구:. {돈도 이제 갖다 거는 자손들이 있으면 돈도 갖다 걸고.}

10226 @ 예:. {예.}

10226 # 으: 그래서 글 대떠리라고 그 호호. {으 그래서 그걸 대떠리라고 그래 호호.}

10226 @ 대떠리할 때두 머라구 머라구 하자나요? {대떠리할 때도 뭐 뭐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10226 # 아:: 머 구구하지 머: 지끄리닝 기 머:머:머 다:. {아 뭐 구구하지 뭐 지꺼리는 게 뭐 뭐 뭐 다.}

10226 @ 기영나시능 거 이쓰면 한두 **이래두, {기억 나시는 거 있으면 한두 **이라도,}

10226 # 읍썌요. {없어요.}

10226 # 아: 우 읍썌 구변두서 그렇 거 드러야 머 몰라 그래. {아 없 없어 그변도 없어 그런 거 들어야 뭐 몰라 그래.}

10226 # 이거 흔들민서루 으 머 그거 인재 다: 추천해 추천하넌 소리드라고: 으:. {이거 흔들면서 으 뭐 그거 이제 다 축원하 축원하는 소리더라고 으.}

10226 @ 예:. {예.}

10226 # 예 그런 얘길 하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10228 @ 그 그 그럴 때 인재 으 저기 멘: 그거 메:자나요 어깨애다가. {그 그 그럴 때 이제 으 저기 멘 그거 메잖아요 어깨애다가.}

10228 # 으 으 그러치 그 저 인재 행상 미지 인재. {으 으 그렇지 그 저 이제 상여 메지 이제.}

10228 @ 거 맴 메 싸라미나, {그 몇 몇 사람이나,}

10228 # 그개 저기::요:. {그개 저기요.}

10228 # 아하 인재 그건 다소가 업썌요. {아하 이제 그건 다소가 없어요.}

10228 # 흐허 허. <기침 소리>

10228 # 거개 행여 밀: 싸라미 읍:씨머넌 예:: 여선 저짜개 싰: 이짜개 싰: 그 이 꼬챙이 하나 바친대 하나 이:짜개 하나 이:짜개 하나 둘: 그러면 두:라니유? {거 상여 멜 사람이 없으면 예 여섯 저쪽에 셋 이쪽에 셋 그 이 꼬챙이 하나 바친대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둘 그러면 둘 아니요?} 10228 @ 예. {예.} 10228 # 또 가운데 두:라니유? {또 가운데 둘 아니요?} 10228 @ 예. {예.} 10228 # 또 저 뒤에 두:라니유 그러면 여섯시자나요? {또 저 뒤에 둘 아니요, 그러면 여섯이잖아요?} 10228 @ 예. {예.}

10228 # 사라미 마:느만 머 다소가 업썌요, 거기. {사람이 많으면 뭐 다소가 없어요, 그게.}

10228 # 저: 아이: 여러 그렇게 여더리 밀: 미넌 수도 이꼬: 여러 미넌 수도 이꼬 그리유. {저 아 여러 그러니까 여덟이 멜 메는 수도 있고 열이 메는 수도 있고 그래요.}

10228 # 짜걸 마취서 인재. {짜을 맞취서 이제.}

10228 # 그러면 인재 아패서 인재 이거 혼드는 사람-두 다: 수:짜에 드르가유 그거뚜.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이거 혼드는 사람도 다 숫자에 들어가요 그것도.}

10228 # 으 그라구 또 인재 저게 참 그 인재 권: 상주더리 할 거시킨대. {으 그리고 또 이제 저게 참 그 이제 주인 상제들이 할 거시킨데.}

10228 # 그러케 이러케 해녕 건 인저 외주럴 하고 행여쭈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외줄을 하고 상여줄을.}

10228 @ 예. {예.}

10228 # 이짜개 이짜개 한 줄 이짜개 한 줄 그라만 두: 줄 아니개썬요? {이쪽에 이쪽에 한 줄 이쪽에 한 줄 그러면 두 줄 아니겠어요?}

10228 @ 예. {예.}

10228 # 그런대 한짜개 두: 줄 쏘리 드르가, 두: 줄 쓰리기. {그런데 한쪽에 두 줄 소리 들어가 두 줄 소리기.}

10228 # 근대 인재 광:우보다 이러케 이러케 이 이리 이리 이러케 이러케 하고: 또 이리 이러케 하고 이라면 두: 주리:, {그런데 이제 광우보다 이렇게 이렇게 이 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리 이렇게 하고 이라면 두 줄이,}

10228 @ 예:. {예.}

10228 # 어: 두: 주리고: 그라만 요기 닐: 항 카내 닐: 닐 여더리 드르가거덩. {어 두 줄이고 그러면 요기 넷 한 칸에 넷 넷 여덟이 들어가거든.}

10228 @ 그러면 열여서시내요. {그르면 열여섯이내요.}

10228 # 그 그래 그러치:. {그 그래 그렇지.}

10228 # 연 저저시 사, {열여섯이 사.}

10228 @ 양쪼그루. {양쪽으로.}

10228 # 사:류건, {사룩은,}

10228 @ 요기두 넌 요기두 넌 여더리고. {요기도 넷 요기도 넷 여덟이고.}

10228 # 그러치. {그렇지.}

10228 @ 요쪽뚜 열리니까, 그러잉까 열서삼 명이구. {요쪽도 여덟이니까, 그러니까 열 여섯 명이고.}

10228 # 여 열여섯. {여 열여섯.}

10228 # 어: 요량 요량 하나 하지. {어 요령 요령잡이 하나 하지.}

10228 @ 그럼 열아홉 명이내요, 요량까지. {그럼 열아홉 명이내요, 요령잡이까지.}

10228 # 그르케: 그러케 우리 외하라버지닌 그 그러케 저기 미:구 여기서 보은 으배꺼정 너리가시썬요. {그렇게 그렇게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 그렇게 저기 메고 여기서 보은 읍에까지 내려가셨어요.}

10228 # 보은 으배서 가시 가주구서 거기서루 거시가다 보니깨루 한나저리 지내썬. {보은 읍에서 가서 가지고 거기서 거시가다 보니까 한나절이 지났어.}

10228 # 한나저리 헐:썬 지낸넌대 지금 이 시가내 지금 떠날까 말히야. {한나절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떠날까 말까해.}

10228 # 거기릴 삼:장 그러케 행여루다가 거꺼지 미구 가썬. {거기를 계속 그렇게 상여로 거기까지 메고 갔어.}

10228 @ 그 그 저: 광모그루다가 끈 하자너요? {그 그 저 광목으로 끈 하잖아요?}

10228 # 예:. {예.}

10228 @ 그 끈 이르미 따루 이썬요, 머라구? {그 끈 이름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10228 # 거 생 그양 생여쭈리지 며. {거 상 그냥 상여줄이지 뭐.}

10228 # 어: 상여 주리여. {어 상여 줄이야.}

10228 @ 거기 저:기 작때기루 이르캐, {거기 저기 작대기로 이렇게,}

10228 # 연초때. {연춏대.}

10228 @ 연초때. {연춏대.}

10228 # 어: 그거 연초때라 구리야. {어 그거 연춏대라고 해.} 10228 @ 그거 하나 더 꼬
즈먼 사라미, {그거 하나 더 꽃으면 사람이,}

10228 # 두: 개서 둘 어, {두 개서 둘 어,} 10228 @ 양쫓그루, {양쪽으로,} 10228 # 어:
니:시 드르가던지 두:리 더 드르가던 그리여. {어 넷이 들어가든지 둘이 더 들어가
든지 그래.} 10228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28 # 하나하나 드르가구. {하나하나 들어가고.}

10228 # 그기 그래 드르가구. {그게 그래 드렁가고.} 10228 @ 그 연초때라 그래구. {그
연춏대라고 하고.}

10228 @ 이 미태 거는 대채라 그래구. {이 밑에 거는 대채라고 하고.}

10228 # 그 대채구. {그 대채고.}

10228 @ 대채두 이쪽 아패 뒤에 머 이르미 따루 인나요? {대채도 이쪽 앞에 뒤에 뭐 이름
이 따로 있나요?}

10228 # 아:나여 따루 읍썌요. {아니야 따로 없어요.}

10228 @ 그 우:애 언능 건 머라 그래요? {그 위에 얹는 건 뭐라고 해요?}

10228 @ 인재 그 우애. {이제 그 위에.}

10228 # 행상? {행상?}

10228 @ 예 행상 우애 이르캐 침막뚜 이꾸 미태 이르캐 꾸며놓 거 이짜나요. 그건 머:라
구 이르미 읍썌요? {예 행상 위에 이렇게 천막도 있고 밑에 이렇게 꾸며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이름이 없어요?}

10228 # 그개 그전 지금두 머 그럴 테지 머 종이 맨:-등 거또 이꾸 그른대 이:저내 행여라
능 건 저기 그 츠:누루다 맨드러썌요. {그개 그전 지금도 뭐 그럴 테지 뭐 종이로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전에 상여라는 건 저기 그 천으로 만들었지요.}

10228 # 으: 츠:누루다 인재 그 머머머 무슨 머 사:자니 머 이렇 거 거시기두 그리구 인재.
{으 천으로 이제 그 뭐뭐뭐 무슨 뭐 사자니 뭐 이런 거 거시기도 그리고 이제.}

10228 # 그앤대 그 가운데 이러:캐 행상 복판내 가운데텔 이러캐 허리 떠닝 거마냥 이러캐
둘러 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상여 복판에 가운데를 이렇게 허리 떠는 거
처럼 이렇게 둘러 떠요.}

10228 # 더 떠 가주서 저: 뒤:루 인재 도라가서 잠:매는대 그걸 그걸 휘쟁이라 구라드라고
요. {더 떠 가지고 저 뒤로 이제 돌아가서 동여매는데 그걸 그걸 휘장이라고 그러
더라고요.}

10228 @ 예:. {예.}

10228 # 휘장. {휘장.}

10228 # 휘쟁인데 예:: 그 인재 우애 뚜경 행상 뚜경 뚜경 복판내 이렇 거 이짜너 방울.
{휘장인데 예 그 이제 위에 뚜경 상여 뚜경 뚜경 복판에 이런 거 있잖아 방울.}

10228 @ 예. {예.}

10228 # 그거를 엘 방자오리라 구리야, 그걸 방자울. {그것을 에 방자울이라 그래, 그걸 방
자울.}

10228 @ 방자울. {방자울.}

10228 # 예: 방자울. {예 방자울.}

10228 # 방자오리라구 인재 그라는데 저: 사니 인재: 그:하구 인재 이랄 쟤년 그 행상얼
기냥 그 그거만 인재 거시기 해서 다: 거길 모:돌라가면 걸리고: 그라면 그: 방자
오리라넹 거 저 그걸 고거만 씨우구서루 그래 사내 올라가는 수가 이썬요. {방자
울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저 산이 이제 거하고 이제 이럴 때는 그 행상을 그냥 그
그것만 이제 거시기 해서 다 거기를 못 올라가면 걸리고 그러면 그 방자울이라는
거 저 그것을 그것만 썬우고 그래 산에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10228 # 거 거 때애 다라서루. {거거 때애 따라서.}

10228 @ 예. {예.}

10228 # 으: 예. {으 예.}

10228 # 기양 시신 저: 관 이러캐 내 보이게 그냥 덜렁 이러캐 암 미 앙 가고, {그냥 시신
저 관 이렇게 내보이게 그냥 덜렁 이렇게 안 메(고) 안 가고,}

10228 @ 암 보이게. {안 보이게.}

10228 # 예 암 보이게 고: 저: {예 안 보이게 고 저.}

10228 # 그걸루다가 인저 글 인재 무시칸 말루는 인재 행상뚜쟁이라 구라지. {그걸로다 이
제 그걸 이제 무식한 말로는 이제 행상뚜쟁이라고 하지.}

10228 # 그래 방자오리라 구리야 그 방자울. {그래 방자울이라 그래 그 방자울.}

10228 @ 그개 뚜경 뚜경 가치 생깁 거애 우애 저 꼬까치 생깁 걸 방자오리라 그래요 그
전채를, {그개 뚜경 뚜경 같이 생깁 것에 위에 저 꽃같이 생깁 걸 방자울이라고
해요 그 전채를,} 10228 # 예: 그 전채를 방자오리라 그라드라구. {예 그 전채를
방자울이라고 그러더라고.} 10228 @ 방자오리라 그래요? {방자울이라고 해요.>}

10228 @ 아 전채를: {아 전채를.}

10228 # 예 예. {예 예.}

10228 @ 저:기 이르캐 뚜경가치 생깁 전채를, {저기 이렇게 뚜경같이 생깁 전채를, 10228
예 예. {예 예.} 10228 @ 방자오리라 그래구요? {방자울이라고 그러고요?}

10228 # 예 예. {예 예.}

10228 # 게 번쩍 드르면 머 그 아내 시신 뵈이지 머. {게 번쩍 들으면 뭐 그 안에 시신 보
이지 뭐.}

10228 @ 예: {예.}

10228 # 그라구 그 미테 휘장 둘롱 거 그놈 또 끌러내머년 머 다: 뜨더 내넹 거지 머. {그
라구 그 밑에 휘장 두른 거 그놈 또 끌러내면 뭐 다 뜯어내는 거지 뭐.}

10228 @ 그 아패:-두 사람드리 머, {그 앞에도 사람들이 뭐,} 10228 # 방자울. {방자울.}

10228 @ 들구 가자너요? {들고 가잖아요?}

10228 # 만사. {만사.}

10228 @ 만사. {만사.}

10228 @ 글씨 쓰구 머 이렇 거. {글씨 쓰고 뭐 이런 거.}

10228 # 예:, 인재 거 글 한 양반더런 인재 그 친구더리라든지 누가 인재 저기 예:: 글 한
이에 쓰머년 기냥 양 가. {예 이제 거 글 한 양반들은 이제 그 친구들이라든지 누
가 이제 저기 예 글 한 이가 있으면 그냥 안 가.}

10228 # 거 그를 씨 가주서루 그래 만사를 지어서 길::개. {거 글을 씨 가지고 그렇게 만

사를 지어서 길게,}

10228 # 월래는 그 츠:네다가 쓰능 건대 명주나 저: 이런테다 써 가주서루 가루 간는데 그 건 인재 무설-니넨 인재 문창호지 그거럴 인재 거시기 오려 가주서루 거기다 그를 써 가주서루 그래 그 그지부루 보내지:, {원래는 그 천에다가 쓰는 건데 명주나 저 이런 테다 써 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그건 이제 없는 이는 이제 문창호지 그것을 이제 오려 가지고 거기다 글을 써 가지고 그래서 그 그집으로 보내지,} 10228 @ 예. {예.} 10228 # 상가찌부루. {상가집으로.}

10228 # 보내만 인재 그날 장:넨-날 인재 산에 가두루건 아패서 족: 그 들구 나가요, 그걸. {보내면 이제 그날 장례날 이제 산에 갈때까지는 앞에서 족 들고 나가요, 그걸.}

10228 @ 거기 저기 사진두 가꾸 가자나요, 아패. {거기 저기 사진도 가지고 가잖아요, 앞에?}

10228 # 야:, 사진두 가주 가는데 이:저내는 사진 어디 사지니 혼해썬요? {야 사진도 가지고 가는데 이전에는 사진 어디 사진이 혼했어요?}

10228 # 으, 지그미니께 사진 들구 가구 구라지. {으, 지금이니까 사진 들고 가고 그러지.}

10228 @ 그래 가주구 이러께 가:능 걸, 금묘라 그래나요, 금묘?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금묘라고 그러나요, 금묘?}

10228 @ 묘:애 이르케 도착카능 걸 금묘? {묘에 이렇게 도착하는 걸, 금묘?}

10228 # 묘:애 도착카넹 거? {묘에 도착하는 거?}

10228 @ 예. {예.}

10228 # 묘:애 도착카능 건 머 저 거시키지:: 혼백. {묘에 도착하는 건 뭐 저 거시키지 혼백.}

10228 @ 이거 미구 저: 상여 메구 가능 거. {이거 메고 저 상여 메고 가는 거.}

10228 @ 중가내 가다가두 쉬구, {중간에 가다가도 쉬고,}

10228 # 가:마 그치 생깁 거? {가마 같이 생깁 거?}

10228 # 가:마 그치 생깁 거 쪼고 압똥에서 두:리 미기능 거. {가마 가티 생깁 거 쪼금 앞뒤에서 둘이 메는 거.}

10228 @ 예:. {예.}

10228 # 그 요요라 그래 요요. {그 요요라고 해 요요.}

10228 @ 요요? {요요?}

10228 # 으:, 거기다 혼배걸 느:서 다마 가주서 그래 두:리 미구 가지. {으 거기에 혼백을 넣어서 담아 가지고 그렇게 둘이 메고 가지.}

10228 @ 예:. {예.}

10228 # 으:, 그거 미너이꺼지 다: 건 써:. {그거 메는 이까지 다 건을 써.}

10228 @ 예:. {예.}

10228 # 행여 미너이두 건 쓰구: {상여 메는 이도 건 쓰고.}

10228 # 방자오릴 아까 내가 그: 잘못 찌끄리썬:. {방자올이를 아까 내가 잘못 지꺼렸어.}

10228 # 그 우:애 저 행상 뚜경애, {그 위에 저 상요 뚜경애,} 10228 @ 예. {예.} 10228 # 뚜경 치구 양:짜개 왜 이래 이래 바친대 방우리 달리짜나? {뚜경 치고 양쪽에 왜 이렇게 이렇게 바친데 방울이 달렸잖아?}

10228 @ 예:. {예.}

10228 # 방우리 떨그렁 떨그렁 하거덩, 그걸 그기 방자오리여 참.{방울이 떨그렁 떨그렁 하거든, 그걸 그게 방자올이야 참.}

10228 @ 아:. {아}

10228 # 그기 방자 예 예:. {그게 방자(울) 예 예.}

10228 # 행상 기양 행여뚜경이라 구리여 그걸. {상여 그냥 상여뚜경아고 그래 그걸.}

10228 # 저:기 아까 애기 행건 예:. {저기 아까 애기한 건 예.}

10228 # 그 바 그 숨 배껴써. {그 바(꾸) 그 숨 바뀌었어.}

10228 @ 중가내 가다가 이르케 쉬어서 또 절하구: 머: 개울 건너갈 때두 쉬어 가구 머 그 르자나요?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쉬어서 또 절하고 뭐 개울 건너갈 때도 쉬어 가고 뭐 그러잖아요?}

10228 # 그러치유 인재 대견하면 쉬어 가년대. {그렇지요 이제 대견하면 쉬어 가는데.}

10228 # 아머: 장난 심:하게 하는 사람드른 인재 장난두 하구 그라는데, 그렁 거 절때구 여기 여기 여기 이 아내 사는 사람드른 그렁 거 아 업써요. {아머 장난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장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절대로 여기 여기 여기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10228 # 장난하구 머 시신 모시구 가다가 흔들구 머 미덜따 땡기거나 그런 닐 모:타개 해요. {장난하고 뭐 시신 모시고 가다가 흔들고 뭐 밀었다 당기거나 그런 일 못하게 해요.}

10228 @ 네:. {네.}

10228 @ 그거뚜 보니까 동네: 동네 아패는 안 지나가능 거라 그래쪼요? {그것도 보니까 동네 동네 앞에는 안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지요?}

10228 # 동네 아패넌 지나는데, {동네 앞에는 지나는데,} 10228 @ 샘:까애하구. {샘가에 하고.}

10228 # 음: 저기 저: 거시기 뒤 동네 뒤루넌 저: 상주찌배서두 그: 뒤:루 땡기녕 건 줌 꼬 리 꼬 저: 마땅치 안치, 나무 동네 드르가서 동네 뒤:루 그래 가녕 건 마땅치 안치 유. {음 저기 저 거시기 뒤 동네 뒤로는 저 상제집에서도 그 뒤로 다니는 건 줌 꺼리 꺼(려) 저 마땅치 않지, 남의 동네 들어가서 동네 뒤로 르렇게 가는 건 마땅 치 않지요.}

10228 @ 동네 뒤루 가면 안대요? {동네 뒤로 가면 안되요?} 10228 # 예:, 안되고 아푸로 가녕 건 그 동네서 인재 거시기 해 주면 드르가능 거요. {예, 안되고 앞으로 가는 건 그 동네서 거시기 해 주면 들어가는 거요.}

10228 # 동네서 처리, 어 처분하기 달려써. {동네서 처리, 처분하게 달렸어.}

10228 @ 샘:까 샘: 가통 거는, {샘가 샘 같은 거는,}

10228 # 갠차나: 이:저내는 머 덩끼두 하구 그랜는데 지금 그 그런짓 아내유 여 으:. {괜찮 아 이전에는 뭐 덮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그런짓 안해요 여 으.}

10228 @ 이:저내는 샘 덩꾸 그래서요? {이전에는 샘 덮고 그랬어요?}

10228 # 아 그럼: 이:저내 덩 덩끼두 하구 그래쪼요. {아 그럼 이전에 덮 덮기도 하고 그랬어요.}

10228 # 저: 교회 여패 고 새:미 하나 이썬는데 거 지금 다: 무치구, 거 이:장덜 집 뜨르가 는데. {저 교회 옆에 고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금 다 묻히고, 거 이장들 집 들어가는대.}

10228 @ 예:. {예.}

10228 # 거기 가 올라가보신-을 티지. {거기에 가 올라가 보셨을테지.}

10228 @ 이장집 가 바씨요. {이장네집 가 봤어요.}

10228 # 어: 고기 드러가는데 고 여기 여 회통 하나 무꾸서 새:미 물 조:아씨요, 그거 지금 다: 파무치서 그러치. {어 고기 들어가는데 고 여기 여 회통 하나 묻고 샘이 물 좋았어요, 그거 지금 다 파묻혀서 그렇지.}

10228 # 거기 행상이 올라가는데 누가 가따 거 물 멍느니가 얼릉 가따 더퍼뜨라구. {거기 상여가 올라가는데 누가 갖다 거기 물 먹는 이가 얼른 갖다 덮었더라고.}

10228 # 다 주그니두 다: 그 물 머꾸 살란 저: 살:다 주건는데 머:. {다 죽은 이도 다 그 물 먹고 살았 저 살다가 죽었는데 뭐.}

10228 # 허허허허 허허 그 머 머 그렇 거 끄려유. {허허허허 허허 그 뭐 뭐 그런 거 꺼려요.}

10228 @ 엔나래는 돌림뺑 대매 그래쉴 거요. {옛날에는 돌림뺑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10228 # 도 그때: 돌림뺑에 참 마:니 주거씨요. {도 그때 돌림뺑에 참 많이 죽었어요.}

10228 @ 그거 때무내 물 오염 되면 여러 사라미 돌림뺑 걸릴까바:. {그것 때문에 물 오염 되면 여러 사람이 돌림뺑 걸릴까봐.}

10228 # 몰라 그래: 그랜는지 머: 우째는지 그 그걸 줌 주근 사라멸 끄:리드라구유. {몰라 그래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그 그걸 줌 죽은 사람을 꺼리더라고요.}

10228 @ 예:. {예.}

10228 # 으 그런데 우린 거렁 거 상관 안 해유. {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10228 # 주근 사람 머 주거꺼나 사라서 사람 산: 사라래미거나 머: 사:라면 다: 또:까턴대 머: 좀 이럼만 이럼만 달라찌 머 주그니라구 이럼만 달라찌 머 별거 이씨유. {죽은 사람 뭐 죽었거나 살아서 사라 산 사람이거나 뭐 사람은 다 똑같은데 뭐 좀 이름만 이름만 달랐지 뭐 죽은 이라고 이름만 달랐지 뭐 별거 있어요.}

10226 @ 반고기래능 거 이씨요? 반곡? {반곡이라는 거 있어요?}

10226 @ 곡-카능 거 반곡? {곡하는 거 반곡?}

10226 # 반고기라능 거선 아이고 아이고 하녕 건 대:고기고:, {반곡이라는 것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건 대곡이고,} 10226 @ 예. {예.} 10226 # 크게:. {크게.} 10226 @ 예. {예.} 10226 # 반고기라능 건 내가 생각할 쟈 그러내요? {반곡이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때 그러내요?}

10226 # 어이 어이 하고 어이고기라구 이씨 어이 어이 하고. {어이 어이 하고 어이곡이라고 있어 어이 어이 하고.}

10226 @ 예. {예.}

10226 # 어 인재 저기 예:: 상지덜 말구 그 미태 여타는 어이 어이 하고 상지는 아이고 아이고 하구 이러캐 고걸 하자나? {어 이제 저기 예 상제들 말고 그 밑에 여타는 어이 어이 하고 상제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곡을 하잖아?}

10226 @ 예:. {예.}

10226 # 그 어이 어이 하능 거시 그기 반고기라 하능 거 글:-치 생가기 드러가는데. {그 어이 어이 하는 것이 그 반곡이라고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10226 @ 예:. {예.}

10226 # 그 자꾸 이게 저기가 너리가민서루 저:기두 예:저리 너리가민서 보기 자꾸 감:해
저요. {그 자꾸 이게 저기가 내려가면서 저기도 예절이 내려가면서 복이 자꾸 감
해져요.}

10226 @ 네:. {네.}

10226 # 으? 그래서 그 반고기 그거 아닝가 시픈 생가니 나내요. {으? 그래서 그 반곡이
그거 아닝가 싶은 생각이 나네요.}

10226 @ 네:. {네.}

10226 @ 그: 그날 그래구 그리잉까 장사지내구 와서 침: 지내능 개 초우. {그 그날 그리고
그러니까 장사지내고 와서 처음 지내는 게 초우.}

10226 # 초우 어. {초우 어.}

10226 @ 다음날 하능 개 재우:. {다음날 하는 게 재우.}

10226 # 재우:. {재우.}

10226 @ 그 다매 하능 개 삼우 그렇 거지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삼우 그런 거지요?}

10226 # 어:. {어.}

10226 @ 그걸 인재 우재지낸다 그래능 거요? {그걸 이제 우재지낸다 그러는 거요?}

10226 # 그래 그러 그러치유. {그래 그렇 그렇지요.}

10226 @ 그러구 인재 졸곡? {그리고 이제 졸곡?}

10226 # 어: 졸고건 인재 그 주근 저: 날짜에서 인재 따:저서 그 졸고기 나와 여기 여기두
위디 차츠면 이 이쓸 끼유, 졸괴기. {졸곡은 이제 그 죽은 저 날짜에서 이제 따저
서 그 졸곡이 나와 여기 여기도 어디 찾으면 이 있을 거요, 졸곡이.}

10226 # 어: 여기 위디:. {어 여기 어디.}

10226 @ 예:. {예.}

10226 # 예:. {예.}

10226 # 그거 인재 그거닌 ***. {그거 이제 그거는 ***.}

10226 @ 졸고근 언재 하능 거요? {졸곡은 어제 하는 거요?}

10226 # 그췌 주근 지: 고 날짜: 장사지낸 날짜애 인재 따라서루 인재 그개 나올 끼유, 아
마 어디 어디 이쓸 끼유 여기. {글췌 죽은 지 고 날짜 장사지낸 날짜애 따라서 이
제 그개 나올 거요, 아마 어디 어디 있을 거요 여기.}

10226 # 이기 쫘 지: 졸곡 찌래 졸곡 충무닐췌 여기. {이게 졸(곡)제 졸곡 제사 졸곡 축문
일췌 여기.}

10226 @ 예:. {예.}

10226 # 인재 이 머 그 사유가 읍쓸 테지 머:, 메칠마내 지내, 하라능 거션 여기 읍쓸 끼여
그냥. {이제 이 뭐 그 사유가 없을 테지 뭐, 며칠만에 지내, 하라는 것은 여기 없
을 거여 그냥.}

10226 @ 예:. {예.}

10226 # 서싱만 나와췌:. {서식만 나왔지.}

10226 @ 인재 그 졸고:근 언 얻 어트개 하능 거요? {이제 그 졸곡은 어 어 어떻게 하는
거요?}

10226 # 졸곡뚜 머 이거 다: 또까타 지:사. {졸곡도 뭐 이거 다 똑같아 제사.}

10226 @ 언재 지내능 거요? {언제 지내는 거요?}

10226 # 어? 새보개 지내요 새보개. {어? 새벽에 지내요 새벽에.}

10226 @ 그러면 장사지내구... {그러면 장사지내고...}

10226 # 으: 초 초우 재우 사무 다: 이 날 희번하게 지내. {으 초 초우 재우 삼우 다 이 날 희번하게 지내.}

10226 # 희번할 찌개. {희번할 적에.}

10226 # 예를 드려 요새 머 네:시 바니머년 희번하구 그르차나요? {예를 들어 요새 뭐 네 시 반이면 희번하고 그렇잖아요?}

10226 @ 예:. {예.}

10226 # 그때에 지니야. {그때 지내.}

10226 # 거 인재 추서 지사 참석 하리더리 인재 안쌍재더리 다: 모도 음식걸 맨 저 해 노코 인재: 메빠비 처째 메다서 이썬닝개 바패서 지어 노코, 그럼 인재 거 제:관더리 저 와 거주서로 그래 그때 날 해번하게 새면서루 지니야. {그 이제 추서 제사 참석할 이들이 이제 안상제들이 다 모두 음식을 맨 저 해놓고 이제 메밥이 첫째 메다서 있으니까 밥 해서 지어 놓고, 그러면 이제 그 제관들이 저 와 가지고 그래서 그때 날 희번하게 새면서 지내.}

10226 # 이 졸곡뚜 그럴 껴요 아파. {이 졸곡도 그럴 거요 아파.}

10226 @ 졸 졸곡째는 언제 지내능 거요? {졸 졸곡째는 언제 지내는 거요?}

10226 # 그째 여기 산 저 거시키년 몰:라. {글째 여기 산 저 거시기는 몰라.}

10226 # 근데 여기 메 칠마내 지라는 난 거시기가 우 읍:쓸 끼여 여기년. {그런데 여기 메 칠만에 제라는 거시기가 없 없을 거야 여기는.}

10226 # 인대 고거럴 내가 몰라서루 메칠마내 그 날 날짜가: 무슨 날짜에 지내녕 거시 그기 나와 이썬 건대 으 으. {그런데 고걸 내가 몰라서 며칠만에 그 날 날짜가 무슨 날짜에 지내는 것이 그게 나와 있을 건대 으 으.}

10226 @ 그 다으매 그 저기 소:상 대:상이래능 거뚜 이짜나요? {그 다음에 소상 대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10226 # 야:, 소:상 대:상 이썬유. {야 소상 대상 있지요.}

10226 @ 그건 멀:... {그건 뭘...}

10226 # 천 처뻥 지:사. {첫 첫번 제사.}

10226 @ 일런 일런 대구. {일년 일년 되고.}

10226 # 그러치 일런 일러내 인재 저기 그 주근 날짜가 인재 도라오면 그기 처뻥 지사내 지내능 개 소:생이구 고: 다미 인재 대:상. {그렇지 일년 일년에 이제 저기 그 죽은 날짜가 이제 돌아오면 그게 첫번 제사 지내는 게 소상이고 고 다음이 이제 대상.}

10226 # 어 그리 그래 그래 나가. {어 그리 그렇게 그렇게 나가.}

10226 @ 삼년째 하능 개. {삼년째 하는 게.}

10226 # 아 그 그건... {아 그 그건.} 10226 @ 삼년상 해짜나요 예저내. {삼년상 했잖아요 예전에.}

10226 # 소:상 대:상에 소:상 대:사 이 지내머년 끝나:. {소상 대상에 소상 대상 이 지내면 끝나.}

10226 @ 예:. {예.}

10226 # 어: 끝나옹 기유. {어 끝나는 거요.}

10226 @ 그러면 탈쌍한다능 거요? {그러면 탈상한다능 거요?}

10226 # 그르카면 대:상애 인재 탈쌍하능 거지. {그렇게 하면 대상애 이제 탈상하는 거지.}

10226 # 혼백 까따가 거기 가따 묘:애 가따가 아패 가따 묻꾸 인재 그라면 저기 지배서 다: 상복 고만 벌꼬 벌꾸서 인재 다른 인재 두루매길 임:는다는지 이러카구서 인재 저 마쌍재가 인재 들구 가든지 그 미태 손자더리 이쓰면 손자가 들구 가든지 이 혼백 이르게 싸: 가주서루... {혼백 갖다가 거기 갖다가 묘애 갖다가 앞에 갖다 묻고 이제 그러면 저기 집에서 다 상복 그만 벗고 벗고서 이제 다른 이제 두루마기를 입는다는지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저 만상재가 이제 들고 가든지 그 밑에 손자들이 있으면 손자가 들고 가든지 이 혼백 이렇게 싸 가지고서...}

10226 # 저:기 여기선 기냥 모두 이거 들구 나가는대: 저: 아랜넉 까머넌 우리 고향애 가머넌 거 혼 마당 가운데다가 상얼 노쿠서 상얼 노쿠서 상 우애다 이르게 보재길 퍼 노쿠서 거기다 혼배걸 가따 봐:. {저기 여기서는 그냥 모두 이거 들고 나가는 데 저 아랜넉 가면 우리 고향애 가면 거 혼 마당 가운데다가 상을 놓고 상을 놓고 상 위에 이렇게 보자기를 퍼 놓고서 거기에 혼백을 갖다 봐.}

10226 # 거기다 혼배걸 가따 노쿠서 인재 거 아패다가서 인재 술 술뺑하구 인재 이러캐서 노쿠서는 한 잔 수릴 한 잔 거기다 부어:. {거기다 혼백을 갖다 놓고서 이제 거 앞에다가 이제 술 술병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서 놓고는 한 잔 술을 한 잔 거기다 부어.}

10226 # 어 부꾸서넌 머 추천 우:꾸 추천 우:꾸 인재 그래 잔 올리구서 그르카구서 인재 다 싸 가주서루 마쌍재가 들구 나가자: 여기 싸람드른 기냥 가, 잔 암 부꾸 그냥 들구 나가드라구. {어 붓고는 뭐 축은 없고 축은 없고 이제 그렇게 잔 올리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다 싸 가지고 만상재가 들고 나가자 여기 사람들은 그냥 가, 잔 안 붓고 그냥 들고 나가더라고.}

10226 @ 거 혼배근 어트캐 마련하능 거요? {그 혼백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요?}

10226 # 혼배건 인재: 예:: 그거 인재 저기: 머 거기다 글씨:릴 안 써 는넝 거 그때요. {혼백은 이제 예 그거 이제 저기 뭐 거기다 글씨를 안 써 넣는 것 같데요.}

10226 # 기냥 저: 삼배나: 삼배 거시기 읍쓰면 그저넌 머 문창호지루 저꾸 혼배걸 따루 저 버요. {그냥 저 삼배나 삼배가 거시기 없으면 그전에는 뭐 문창호지로 접고 혼백을 따로 접어요.}

10226 # 저버 요로케 요래 요래 요래 이러캐 접는데. {접어, 요롱게 요래 요래 요래 이렇게 접는데.}

10226 @ 문창호지애요? {문창호지애요?}

10226 # 저: 삼배루두 저꾸:, {저 삼배로도 접고,} 10226 @ 아 삼배루. {아 삼배로.}

10226 # 어 명주루두 저꾸:, {어 명주로도 접고,} 10226 @ 예:. {예.}

10226 # 또 그거뚜 인재 안 되머넌 저 이 문창호지 이걸루두 저꾸 인재 그래는데, 그래 고기 인재 가운데를 청실 홍실 인재 그걸루, 그 거시키에서 따라와요, 저: 장이사 쯔배 저: 거시기에서. {또 그것도 이제 안 되면 저 이 문창호지 이걸로도 접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 고기 이제 가운데를 청실 홍실 이제 그걸로, 그 거시에서 따라와요, 저 장의사 집에서 저 거시기에서.}

10226 # 저 상포 흥정하는 지배서 그 시:리 따라와:. {저 상포 흥정하는 집에서 그 실이 따라와.}

10226 # 그라면 인재 가운데 이래 잘 이르게서 이르게 무꺼서 여 고 양짜그루 쌍고릴 내:

서 이래 잠:매 가주서루 이르케 고기다 느쿠서루 인재 과개: 이래 이래 예:를 드러서 이개 과기머년 과기머년 고기 느쿠서 이러개 인재... {그러면 이제 ㄴ운데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 그 양쪽으로 쌍고를 내거 이렇게 동여매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다 넣고서 이제 콕에 이래 이래 예를 들어서 이개 콕이면 콕이면 고기 넣고서 이렇게 이제...}

10226 # 아치매 인재 아치미만 인재 아침 상:석 저 나재는 인저 상:서기 우꾸 지녀개 인재 저녁뚜 상:석. {아침에 이제 아침이면 이제 아침 상석 저 낮에는 이제 상석이 없고 저녁에 이제 저녁도 상석.}

10226 # 그러케 할 쟈년 그 혼뱅 무늘 이걸 여러 노쿠서 인재 저기 고카구서 고카구서 인재 그르카구서년 저: 물 물 떠다 논대 밥 이러케 떠다 가따 무레 이러케 노쿠서 인재 좀 쪼금 이따가서루 그래 수깅 로쿠서년 개 더꾸선 그 이 저기 이거 혼백 우:애 뚜껍 더꾸서는 그라구선 또 이르카구서 인재 또 나오지. {그렇게 할 때는 그 혼백 문을 이걸 열어 놓고서 이제 저기 곡하고서 곡하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는 저 물 물 떠다 놓은데 밥 이렇게 떠다 갖다 물에 이렇게 놓고서 이제 좀 쪼금 있다가 그렇게 숟가락 놓고서 개 텅고서는 그 이 저기 이거 혼백 위에 뚜껍 텅고는 그리고는 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또 나오지.}

10226 # 그라구서 아패 지창 문 이러케 저기 머야 카탕 카탕 거치 이르케 양쪼그루 주리 이썬요. {그리고서 앞에 제창 문 이렇게 저기 뭐야 커튼 커튼 같이 이렇게 약쪽으로 줄이 있어요.}

10226 @ 예:. {예.}

10226 # 이러케 너렁 기. {이렇게 내린 게.}

10226 # 그거 인재 이짜개서 자버 땡겨서 이르케 저기 달꾸서년 그래 나오지. {그거 이제 이쪽에서 잡아 당겨서 이렇게 저기 달고는 그렇게 나오지.}

10226 # 그래 나와서 인재 자기는 아치멸 아치미면 아침 지녀기면 저녁 으 그르케. {그렇게 나와서 아제 자기는 아침을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으 그렇게.}

10226 @ 맨:날 하능 거요? {매일 하는 거요?}

10226 # 그러치 인재 으: 삼년상 나두루건 으:. {그렇지 이제 으 삼년상 나도록은 으.}

10226 @ 초하루하구. {초하루하고.} 10226 # 음:. {음.} 10226 @ 상망에, {삭망에,} 10226 # 초하루 상망 그리야. {초하루 삭망 그래.} 10226 @ 하능 거요 아니면 맨날 하능 거요? {하능 거요 아니면 매일 하는 거요?} 10226 # 초하루, 그... {초하루, 그...}

10226 # 아:이 초하루 맨날 하지 하기야 어: 맨날 하는대 인재 상망애는 인재 쪼끔 머: 음식 머 누가 더 장만하구 들: 장만하능 기 예버비 이썬요? {아이 초하루 매일 하지 하기야 어 매일 하는데 이제 삭망애는 이제 쪼금 뭐 음식 뭐 누가 더 장만하고 덜 장만하는 게 예법이 있어요?}

10226 @ 예:. {예.}

10226 # 우:꼬:. {없고.}

10226 # 아침 지녀그루 이 물 떠다 노코 아이고 아이고 하능 거뚜: 상재가 드:래 나가서루 일:하다가서루 오마년 저물개두 드러오구 그라는데: 그때년 할 쭈 업썬: 할 쭈 우꾸 그양 저기 축썰가내 이러케 떠다 노쿠서 수깅 그래 놔: 노쿠서는 혼뱅 저: 문 여러 놔:따가 저 쪼끔 이따가서 이러케 다:꾸서는 고만 이래 기양두 나오구 그리

유. {아침 저녁으로 이 물 떠다 놓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도 상제가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오면 저물게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때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고 그냥 저기 축술간에 이렇게 떠다 놓고 숯가락 그렇게 놔 놓고는 혼백 저 문 열어 놔다가 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닫고는 그만 이렇게 그냥도 나오고 그래요.}

10226 # 꼭: 꼭: 머 저 그러케 때 차자서루 꼭: 그르케만 하녕 개 아니여 그르케 하다보면 머 저기, {꼭 꼭 뭐 저 그렇게 때 찾아서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다보면 뭐 저기,}

10226 @ 다른 이를 모타지요. {다른 일을 못 하지요?}

10226 # 말:두 모타구 잘모타면 상지덜 굴머 주그라구, 허허허허 허. {말도 못하고 잘못하면 상제들 굶어 죽으라고, 허허허허 허.}

10226 # 아이 세:묘사리 하능 거 교수님 얘기 드르시쎬요? {아이 시묘살이 하는 거 교수님 얘기 들으셨어요?}

10226 @ 예:. {예.}

10226 # 세:묘사리. {시묘살이.}

10226 @ 저 때집 지꾸:, {저 때집 짓고,}

10226 # 그러치요, 사내... {그렇지요, 산에...} 10226 @ 묘 여팩 삼년 산, 삼년 나능 거. {묘 옆에 삼년 사, 삼년 나는 거.}

10226 # 그래:. {그래.}

10226 @ 예:. {예.}

10226 # 아이 거 세:묘사리 하다가 절짜손 해떠야 어:. {아이 거 시묘살이 하다가 절자손 했대 어.}

10226 # 자손도 모:뚜고: 머리두 모:까꾸: 해헤 오뚜 오뚜 이븐대루 그냥 사느라구 머리두 앙 까까때요. {조손도 못두고 머리도 못 깎고 해헤 옷도 옷도 입은대로 그냥 사느라고 머리도 안 깎았대요.}

10226 # 귀 귀신 그치 이러케 가주서로 그 세:묘사리라고 으:. 10226 @ 예:. {귀 귀신같이 이렇게 가지고 그 시묘살이라고 으.}

10226 # 그래따는대 아이구:: 그거 머 크 큰 소리, {그랬다는데 아이고 그거 뭐 그 그런 소리.}

10227 @ 그래서 과늘 사느루 가주 가자나요? {그래서 관을 산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10227 # 예. {예.}

10227 @ 그러면 인재 관 무들 짜리를 파자나요? {그러면 이제 관 문을 자리를 파잖아요?}

10227 # 예. {예.}

10227 # 광:중. {광중.}

10227 @ 광:중. {광중.}

10227 # 어:. {어.}

10227 @ 그래가주구 과늘 느치요? {그래가지고 관을 넣지요?}

10227 # 으:. {으.}

10227 @ 고 고: 해 가주구 우애 그 봉분하능 거까지: 고건 또 어크개 해요? {고 고 해가지고 위에 그 봉분하는 것까지 고건 또 어떻게 해요?}

10227 @ 관 광중 파능 거부터. {관 광중 파는 것부터.}

10227 # 파넌데: 팔 찌개:, 팔 찌개 인재 거기 판다구 또 결: 저 토지 그 저 파토 파토 추

기 또 이써 거기. {파는데 팔 적에, 팔 적에 이제 거기 판다고 또 그걸 저 토지
그 저 파토 파토 축이 또 있어 거기.}

10227 @ 예:. {예.}

10227 # 그래 충 니꾸서넌 인재 참 지그먼 코:크렁으루 파지만 이:저넌 코크렁 읍씨먼 사:
람 일러구루다 파짜나요? {그래 축 읽고는 이제 참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파지만
이전에는 포클레인이 없으면 사람 인력으로 봤잖아요?}

10227 # 으 그랜는데 이 벌광으루 파구서루 깨:꼬타개 인재 해 해 가주구서루 예:: 과늘
디리노쿠서 인재 할 경우머닌, 흔히 지그먼 탈관하자나요? {으 그렸는데 이벌광으
로 파고서 깨끗하게 이제 해 해 가지고 예 관을 들여놓고서 이제 할 경우면, 흔히
지금은 탈관하잖아요?}

10227 @ 네:. {네.}

10227 # 탈관하는데 과늘 디리노쿠 쓸 띠개넌 저: 잘하는 닌, 저 인재 줌 잘하는 사람 애:
기요. {탈관하는데 관을 들여놓고 쓸 적에는 저 잘하는 이는, 저 이제 줌 잘하는
사람 애기요.}

10227 @ 예:. {예.}

10227 # 그러면 지금 저 강 강회라구 이써요 강회. {그러면 지금 저 강 강회라고 있어요
강회.}

10227 # 그저내두, {그전에도,}

10227 @ 하양 거. {하양 거.}

10227 # 어 하양 거 그거 돌:밍이를 뷔: 가주구서: 부리다 귀: 가주구서루 이래 나뉘따가
누가 인재 장:네 저: 상 당해서 사루 오머닌 그걸 말루 돼서 파랴요. {어 하양 거
그거 돌멩이를 부어 가지고 불에다 구어 가지고 이렇게 나뉘다가 누가 이제 장레
저 상을 당해서 사러 오면 그걸 말로 돼서 팔아요.}

10227 # 말루 돼서 파는데 인재 그거털 가따 이래 뷔: 노코서넌 판 흐클 인재 거그다 이러
캐서 더퍼 더꾸서 인재 거기다 무털 부머닌 보골보골보고라개 막 이래 그래 끝짜.
{말로 돼서 파는데 이제 그것을 갖다 이렇게 부어 놓고는 다른 흙을 이제 거기다
이렇게 해서 덮어 덮고서 이제 거기다 물을 부으면 보골보골보골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꿔지.}

10227 # 그래서 인재 한:창 이러개 더퍼 노먼 어지가:니 그개 막 이르게 자:꾸 이르게 저:
거시기마냥 저 찌빵마냥 이러개 부러유, 이러개. {그래서 이제 한참 이렇게 덮어
놓으면 어지간히 그개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 거시기마냥 찌빵마냥 이렇게 부
풀어요,이렇게.}

10227 @ 예. {예.}

10227 # 으 부르면 인재 그지서넌 사부루 하던가 이걸 골::고루 서껴요. {으 부르면 이제
그제야 삽으로 하든거 이걸 골고루 섞어요.}

10227 # 골:고루 서껴 가주구서루 이르게 과닐 이러개 가따 놔:씨머닌 이 양 녀웁 인재 널
르머닌 예를 드러서 이러개 널르면 관 노쿠서, {골고루 섞어 가지고 이렇게 관을
이렇게 갖다 댔으면 이 양 옆을 이제 너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르면 관 놓
고,} 10227 @ 예. {예.} 10227 # 널르면 여 흐크루 채워가민서루 이 관 여패다
거 회털 느: 가민서루 그르개 해유. {너르면 여 흙으로 채워가면서 이 관 옆에다
그 회를 넣어 가면서 그렇게 해요.}

10227 @ 예. {예.}

10227 # 으, 그르개 인재 하구서넌 인재 우:애 뚜경언 내: 뵈이개 나: 두구서 그르카구서
여기 인재 천개털 덮찌. {으 그렇게 이제 하고서 이제 위에 뚜경은 내 보이게 놔
두고서 그렇게 하고서 여기 이제 천개를 덮지.}

10227 @ 예:. {예.}

10227 # 천개라능 개. {천개라는 게.} 10227 @ 요로캐, {요렇게,} 10227 # 어:. {어.}

10227 @ 송판, {송판,}

10227 # 예 송판누루 하던가 인재 예:저내는 머 온나무루두 마:니 해파는데, {예 송판으로
하든가 이제 예저내는 뭐 옷나무루도 많이 했다는데,}

10227 @ 예:. {예.}

10227 # 예:: 지그믄 돌:루 하기 또래 돌루다가 짝: 떠퍼 이러캐. {예 지금은 돌로 하기 때
문에 돌로 짝 덮어 이렇게.}

10227 # 짝: 떠꾸서 인재 그 우애다 인재 문창호지나 머 이렇 거루다 함 벌 그 우엘 관 우
엘 더퍼 더꾸서넌 또 회루다가 그 우애를 또 퍼 그 우애다. {짝 덮고서 이제 그
위에 이제 문창호지나 뭐 이런 걸으로 한 번 그 위애를 관 위애를 덮어 덮고는 또
회로다 그 위를 또 퍼 그 위애.}

10227 # 그르칸 뒤:애넌 예: 인저 코코느루다가 막 저기 인재 이르캐 거시킴, 인재 늘:
암 뵈이두루건 이르캐서 호컬 이래 더퍼 그르카구한 뒤:애 인재 저 밤:넌 사람더
리 드르가서 발바. {그렇게 한 뒤애는 예 이제 포클레인으로 막 저기 이제 이렇게
거시킴, 이제 널 안 보일때까지 이렇게 해서 흙을 이렇게 덮어 그렇게 한 뒤애
이제 저 밟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아.}

10227 @ 그거 하기 저내 저 상주가 이르캐 오새다가 흑 바더 가주구, {그거 하기 전에 저
상주가 이렇게 옷애다 흙을 받아 가지고,}

10227 # 아: 아: 그건 취:토. {아 아 그건 취토.}

10227 # 취:토 으. {취토 으.}

10227 # '취토요! 취토요!' 해민서 상제 두:리건 시:시건 아배피 다: 도라가민서 그 '취토요!
취토요!' 그리야 인재. {'취토요! 취토요!' 하면서 상제 둘이건 셋이건 앞앞이 다 돌
아가면서 그 '취토요! 취토요!' 그래 이제.}

10227 @ 며 뵈 하능 거요 그개? {몇 번 하는 거요 그개?}

10227 # 어? {어?}

10227 # 그래 '취토요! 취토요!' 하민서 시: 번 지꺼리구: 인재 절하구 나오만 또 담:치두
저개 상제가 인재 온 싸서 또 또 싸다가 거기서 인재 떼지구 떼지구 그라능 기여.
{그렇게 '취토요! 취토요!' 하면서 세번 지껄이고 이제 절하고 나오면 또 다음에도
저기 상제가 이제 옷에 싸다가 또 또 싸다가 거기서 이제 던지고 던지고 그러는
거야.}

10227 # 거 영전 더꾸서. {그 영전 덮고서.}

10227 @ 남자만 하능 거요? {남자만 하는 거요?}

10227 # 아니여 여자두 하구. {아니야 여자도 하고.}

10227 @ 여자두 하구요. {여자도 하고요?}

10227 # 여자두 하구 남자두 하구. {여자도 하고 남자도 하고.}

10227 # 어 그거 그거 내가 여 으, {어 그거 그거 내가 여 으,}

10227 @ 그러케 하구서 인재, {그렇게 하고서 이제,}

10227 # 그러치유 어, 그라 그러면 거기 영전 저 행상 아페 왜 들구 이짜나? {그렇지요
어, 그러 그러면 거기 영전 저 상여 앞에 왜 들고 있잖아?}

10227 @ 네:. {네.}

10227 # 어: 저: 거시기 할 남자 그트면 머 학생이며 벼시리 아닌 하너니넨 거시기가 이찌
마넨 저: 이찌만 우 아 움:너이넨 전부 학생이거덩 어:. {어 저 거시기 할 남자 같
으면 머 학생이면 벼슬이 아닌 하는 이는 거시기가 있지만 저 있지만 우 아 없
는 이는 전부 학생이거든 어.}

10227 @ 예. {예.}

10227 @ 머 학생부군 머 이러캐. {뭐 학생부군 뭐 이렇게.}

10227 # 어: **면,{어 그러면,}

10227 # 아무 김공이면 김씨면 김공 어: 저: 으: 지위. {아무 김공이면 김씨면 김공 어 저
으 지위.}

10227 @ 지묘. {지묘.}

10227 # 어 어 어. {어 어 어.}

10227 @ 지구. {지구.}

10227 # 어 지구. {어 지구.} 10227 @ 지구라 그래지요? {지구라 그러지요?} 10227 #
어 머 어 지구. {어 뭐 어 지구.}

10227 @ 예. {예.}

10227 # 지구라 그래 썩썩. {지구라고 그렇게 썩어.}

10227 # 그래 인재 그거 관 우애 그러케 더꾸, 그르카구서 인재 그 우애 조:이. {그래 이제
그거 관 우애 그렇게 덮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위에 종이.}

10227 # 저 조 조이럴 조이 더끼 저내 폐:배기라구 이짜나 폐:백 어:. { 저 조 종이를 종이
덮기 전에 폐백이라고 있잖아 폐백 어.}

10227 # 폐:배기라구 인재 거서 폐:배기 따루 와요, 흥거부루다가 인저 새:파란 흥겹 빨간
흥겹 이래 두: 가지구 또 실:두 저: 두: 가지루다 이르케 헛는데 그 실:하구 인재
시:런 인재 그 흥겹 새까리대루 인재 이래서루 어 좌우루 인재 이러케 으 이거 느
쿠서루 그래구선 종이루 더꾸서는 인재 그라구서 흐기 인재 더퍼지지. {폐백이라
고 이제 거기서 폐백이 따로 와요, 형겅으로 이제 새파란 형겅 빨간 형겅 이렇게
두 가지고 또 실도 저 두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 실하고 이제 실은 이제 그 형
겅 색깔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좌우로 이제 이렇게 으 이거 넣고서 그러고는
종이로 덮고는 이제 그러고 흙이 이제 덮어지지.}

10227 # 그라구서 인재 그기 인재 암 보이두룩 이만:창 이제 인재 흑 퍼거서 이래 하면 인
재 그 저 회 회 더편 우애 인재 흐기 드르가닝깨루, {그러고서 이제 그게 이제 안
보이도록 이만큼 이제 이제 흙 퍼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저 회 회 덮은 위에 이
제 흙이 들어가니까.}

10227 @ 네. {네.}

10227 # 그 인재 도라서서 인재 발:꾸 인재 이라는대 머: 참 선소리꾼도 인재 함 마디씨카
면 또 그: 뒤에 싸람더리 머 대: 직 또 따라서 하고: 하고 인재 이래서 한 서너 축
그러케 발바. {그래 이제 돌아서서 이제 밟고 이제 이러는데 뭐 참 선소리꾼도 이
제 한 마디씩 하면 또 그 뒤에 사람들이 뭐 직 또 따라서 하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서너 축 그렇게 밟아.}

10227 @ 그 연초때루 하능 거요, 이르케? {그 연초대로 하는 거요, 이렇게?}

10227 # 아니 그러 그러 그러캐두 해지요. 여기서넌 그러케 어: 그러케 안 하구 여기넌 기
 냥 사:라미 드르가 이래 밥:짜:. {아니 그러 그러 그렇게도 하지요. 여기서는 그
 례 어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그냥 사람이 들어거 이렇게 밟지.}

10227 @ 예. {예.}

10227 # 연초때는 양 가주 드르가는데 저: 강원도루 가면 전:부 강원도선 그러캐따구. {연
 초대는 안 가지고 들어가는데 저 강원도 가면 전부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10227 # 우리 삼추니 저: 거 가서 기:시는데 저: 홍천 거: 근방인데 거기넌 꼬챙일 전:부
 지꾸서루 으: 그 봉추걸 다: 맨드런 논: 뒤에-이리야 그 사람더리 너리와, 밟:꾸
 서. {우리 삼촌이 저 거기 가서 계시는데 저 홍천 거기 근방인데 거기는 꼬챙이를
 전부 쪼고서 으 그 봉분을 다 만들어 놓은 뒤에라야 그 사람드리 내려와, 밟고
 서.}

10227 @ 여기는 그건, {여기는 그건,} 10227 # 예: 건. {예 그건,} 10227 @ 그냥 밟기
 만 하구요. {그냥 밟기만 하고요.}

10227 # 어: 기양 밟기만 하고 연초때 그팅 건 안 드러가. {어 그냥 밟기만 하고 연초때
 같은 건 안 들어가.}

10227 # 야 그 광중 이: 아내. {야 그 광중 이 안에.}

10227 @ 예. {예.}

10227 # 이: 아내 인재 여 여기하구 또:까치 이러케 된대 거꺼정 밟바. {이 안에 이제 여
 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된대 거기까지 밟아.}

10227 # 어 밟:, {어 밟,} 10227 @ 그걸 머 하능 걸, 머한다 그래요, 그걸? {그걸 뭐 하
 는 걸, 뭐한다고 해요, 그걸?}

10227 # 글 머 다: 다진다 그러지 다지여 으. {그걸 뭐 다 다진다 그러지 다져 으.}

10227 # 다지년대 인재 자:꾸 코쿠텔이 인재 호컬 파 언지머넌 이래 봉군이 생길 꺼 아니
 유? {다지는데 이제 자꾸 포클레인지 이제 흙을 파 얹으면 이렇게 봉분이 생길 거
 아니요?}

10227 @ 그거 다지능 걸 흑씨 달 달구지리라구는 안 해요? {그거 다지는 걸 흑씨 달 달구
 질이라고는 안 해요?}

10227 # 달구지리라능 거 그: 아내 드르가는데가 그 다 다: 달구지래 또까치 드르가능 거
 요 그개. {달구질이라는 거 그 안에 들어가는데가 그 다 다 달구질에 똑같이 들어
 가는 거요 그개.}

10227 # 어 다 어 '달구여! 달구여!' 그라자나. {어 다 어 '달구여! 달구여!' 그러잖아.}

10227 # 그거 다질 찌개. {그거 다질 적에.}

10227 # 에헤: 어, {에헤 어,} 10227 @ 에헤:, {에헤,} 10227 # 어 달구여. {어 달구여.}

10227 @ 예:. {예.}

10227 # 또 에헤 달구여 머 그 그리여 만날. {또 에헤 달구여 뭐 그 그래 만날.}

10227 @ 선소리꾸는 뭐 어떤 마를 해요. {선소리꾼은 뭐 어떤 말을 해요.}

10227 # 아: 인재 자기 구 구:변대루:, {어 이제 자기 구 구변대로,}

10227 @ 예:. {예.}

10227 @ 뭐 어떤 사라는 머: 산 애기두 하구, {뭐 어떤 사람은 뭐 산 애기도 하고,}

10227 # 그래 산 얘기두 하지유. {그래 산 얘기도 하지요.}

10227 @ 예:. {예.}

10227 # 어너 산 명기가 여와서 떠러전년대, 헤헤 헤헤헤헤, 멘 만나 어: 어너 문쟁이 날
꺼냐 어. {어느 산 명기가 여기와서 떨어졌는데, 헤헤 헤헤헤헤, 몇 만나 어 어느
문장이 날 거냐 어.}

10227 # 머 이런 소리두 하구 별 머 구:변대로 근, 그 근 다: 얘기할 썬가 업써:.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별 뭐 그변대로 그건, 그 그건 다 얘기할 수가 없어.}

10227 @ 기억나능 거 이써요, 흑써? {기억나는 거 있어요, 흑시?}

10227 # 읍써요:. {없어요.}

10227 @ 그거는 저기 실제로 하는데 가서 드러바야지 될 꺼 가터요. {그건 저기 실제 하
는데 가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0227 # 그래 그리유. {그래 그래요.}

10227 # 그리유. {그래요.}

10227 # 그래 그: 인재 봉구널 인재 그르개 해서 다지머닌 자꾸 이르게 쟁이루다 이르게
도라가민서 이래 돌리구선 또 떼릴 요 요로:개 도라가민 노쿠선 또 그 흐 클 거다
노쿠선 또 발꾸: 또 발꾸 다: 이러개 그, {그래 그 이제 봉분을 이제 그렇게 해서
다지면 자꾸 이렇게 쟁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리고는 또 데를 요 요로
게 돌아가면서 놓고는 또 그 흙을 거기다 놓고는 또 밟고 또 밟고 다 이렇게 그,}

10227 @ 층층이. {층층이.}

10227 # 으: 그르개 해는데. {으 그렇게 하는데.}

10227 # 이러:개 봉구널 이러개 맨드러 노쿠 이랑 통째루 이러개 이피서로, {이렇게 봉분
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입혀서,} 10227 @ 예. {예.}

10227 # 이피서 그르카구서 인재 우애다 흐걸 찌구서 막 뚜뜨려. {입혀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위에 흙을 끼얹고 막 두드려.}

10227 # 사부루 뚜디리면 정시 너리 언마나면 일러니면 다 사라 부트닝개 그기. {삽으로
두드리면 정시 ** 웬만하면 일년이면 다 살아 붙으니까 그게.}

10227 @ 예:. {예.}

10227 @ 그래서 똥그르개 해놓 거를 머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둥그렇게 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해요?}

10227 # 그래 그 그기 봉 봉추기지 봉축. {그래 그 그게 봉 봉분이지 봉분.}

10227 @ 봉축. {봉분.}

10227 # 어 봉군 어: 이 바다개는 인재 자체 지저리구. {어 봉군 어 어 이박은 이제 전체
가 제절이고.}

10227 @ 제저리구. {제절이고.}

10227 # 으 제저리구. {으 제절이고.}

10227 @ 이거는? {이거는?}

10227 # 봉축. {봉분.}

10227 @ 봉추기구. {봉분이고.}

10227 @ 그래구 이로:개, {그리고 이렇게,} 10227 # 어 봉군. {어 봉분.} 10227 @ 길:개
요로:개 또 해찌요? {길게 요렇게 또 했지요?}

10227 # 뒤애:. {뒤에.}

10227 @ 예. {예.}

10227 # 그 인저 저: 건 뒤에 항 건 인재 용미. {그 이제 저 그건 뒤에 한 건 이제 용미.}

10227 @ 용미구. {용미고.}

10227 # 어: 용미 용미 뛰애 이러캐 이러키 이러 이진 용미구 이래: 둘릉 거넌, {어 용미 용미 뒤에 이렇게 이렇게 이리 이진 용미고 이렇게 두른 것은,}

10227 @ 이러:캐, 예. {이렇게, 예.}

10227 # 저 용미구 이거넌 저::기 으:- 요 요 용 아 그걸 용미여 그 용-미여 그기. {저 용미구 이거는 저기 으 요 요 용 아 그걸 용미여 그 용미여 그기}

10227 # 어: 꼬리 꼬리 미짜. {어 꼬리 꼬리 미자.}

10227 # 꼬리 미짜. {꼬리 미자.} 10227 @ 이러캐 양쪼그루 날개가치 뵈 거?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같이 된 거?} 10227 # 야 야 야 야 그걸 다: 그걸 용미라 구라드라구. {야 야 야 야 그걸 다 그걸 용미라 그러더라고.}

10227 # 예 용미. {예 용미.} 10227 @ 이러:캐 뒤루 **. {이렇게 뒤로 **}

10227 # 예 예 요만:창 묘가 이러캐 되넌대 여기에 동구란하고 요기서 요로:캐 저개 쪼끔 여기 나가짜나:. {예 예 요만큼 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그랗고 요기서 요렇게 저기 조금 여기 나갔잖아. 10227 @ 이러:캐 오구 이러:캐 되 인능 거. {이렇게 오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10227 # 그러치 글 용미라 구라드라구 애:묘. {그렇지 그걸 용미라 그러더라고 애묘.}

10227 # 참 애묘, 애묘 애묘 이기 애묘. {참 애묘, 애묘 애묘 이게 애묘.}

10227 # 용미 애묘. {용미 애묘.}

10227 @ 그리잉까, {그러니까.}

10227 # 으: 애묘 이 이기 물 물 모:뜨러오게 한다는 인재 판 그기 뜨신대 인재, {으 애묘 이게 물 물 못 들어오게 한다고 이제 판 그 뜻인데 이제.} 10227 @ 똥구랑거는:, {동그란 거는,}

10227 # 봉군. {봉분.}

10227 @ 봉군. {봉분.}

10227 @ 요로:캐 뵈 거는? {요렇게 된 거는?}

10227 # 애묘:. {애묘.}

10227 @ 애묘. {애묘.}

10227 # 어. {어.}

10227 @ 뒤루 이러:캐 뵈 거는 용미? {뒤로 이렇게 된 거는 용미?}

10227 # 용미. 아: 용미 애묘. {용미, 아 용미 애묘.}

10227 @ 아: 길쭉 길쭉캥 개 용미:. {아 길쭉한 게 용미.} 10227 # 용미 아: 그 용미. {용미 아 그 용미.}

10227 # 어: 용미. {어 용미.}

10227 @ 그래구 물 모뜨러 오개 이러캐, {그리고 물 못 들어오게 이렇게,}

10227 # 어:. {어.}

10227 @ 똑까치 쌍 개 그개 애묘. {똑같이 쌍은 게 그개 애묘.}

10227 # 애 어 애묘. {애 어 애묘.}

10227 @ 아:아 그거 이르믄 몰라가꾸 제가 여:러 사라만태 무러바썰요. {아 아 그거 이름을 몰라가지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10227 # 그개 그래 그리유 으:. {그게 그래 그래요 으.}

10227 @ 오늘 하라버지한테 참: 배웠네요 이거 엄청 중요항 거를. {오늘 할아버지한테 처음 배웠네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걸.}

10227 # 아마 그기 저 용 용짤:지 몰라 무슨 용 짱가 용미:, 꼬리 미짤: 꺼여 아마?: {아마 그게 저 요 용자인지 몰라 무슨 용 자인가 용미, 꼬리 미자일 거야 아마?}

10227 @ 예:. {예.}

10227 @ 그럴 꺼 간내요. {그럴 것 같네요.}

10227 # 으 꼬리 미짱걸 끼유. {으 꼬리 미자일 거요.}

10229 @ 그: 저기: 장례식 때 음식근 어떻 거를 해요? {그 저기 장례식 때 음식은 어떤 것을 해요?}

10229 # 장:례식 때 음식근 다소 업썬요:. {장례식 때 음식은 다소 없어요.}

10229 @ 근대 저 어릴 때에: 저히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데 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10229 # 으:. {으.} 10229 @ 맨날 무슨 얘기 해주면 얘기 해달라 그러믄뇨? {만날 무슨 얘기 해주면 얘기 해달라고 그러면요?} 10229 # 으. {으.}

10229 @ 머 누가 어트개 해는데 어트개 해는데 그래가꾸 머 버스를 하다가 잘사러따 그러구 어끄저께 주거서 내가 가서 빨간떡 으더 머꾸 와따구 맨날 그러서 끄딩뇨. {뭐 누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래 가지고 뭐 버스를 하다가 잘살았다 그러고 엇그제 죽어서 내가 가서 빨간떡 얻어 먹고 왔다고 만날 그러셨거든요.}

10229 # 빨간떡? {빨간떡?}

10229 @ 예. {예.}

10229 # 그쵸요, 그건 머 머 머 여기는 모르건는데 그렇 건 머 다소가 업썬요, 무슨 때기 던지 머 떠건. {글쵸요, 그건 뭐 뭐 뭐 여기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뭐 다소가 없어요, 무슨 떡이든지 뭐 떡은.}

10229 # 인절미두 해들러러 할 쭈가 이꾸 머 켈: 머 줌 거시키: 으: 쉬:운 떠글 하지 머:. {인절미도 하려면 할 수가 있고 뭐 제일 뭐 줌 거시기 으 쉬운 떡을 하지 뭐.}

10229 # 으 편, 퍼니라넝 건 저 저:기서두 얘기해꾸면 저 쌀까루 이러캐서 시루애 피 노쿠 또 저: 고물 이러캐 노쿠서넝 또 또 또 이래 체체루 이러개서 인저 이 칼루 이래 쓰:러 가주서 인재 그거 그 일 보느이더런 그거 접씨 손님덜 그거 접대하고 지사애도 내내 그걸루 쓰구:, 으 퍼니. {으 편, 편이라는 건 저 저기에서도 얘기했구먼 저 쌀가루 이렇게 해서 시루애 피 놓고 또 고물 이렇게 놓고 또 또 또 이렇게 켜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절 칼로 이렇게 썰어 가지고 이제 그거 그 일 보는 이들은 그거 접시에 손님들(에게) 그거 접대하고 제사에도 내내 그걸로 쓰고, 으 편이.}

1.2.8. 제사.

10230 @ 지:사두 종뉴가 여러 가지가 이짜나요? {제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0230 # 종뉴 머:. {종류 뭐.}

10230 @ 제사. {제사.}

10230 # 종뉴 머:. {종류 뭐.} 10230 @ 일런마, 지사지넝 때 지사지내는 나리 언제요?

{일년마다, 제사지낼 때 제사지내는 날이 언제요?}

10230 @ 그 도라가신 날 지내요 고 전날 지내요? {그 돌아가신 날 지내요 고 전날 지요?}

10230 @ 도라가시기 저내. {돌아가시기 전에,}

10230 # 예릴 드리썬면, 예릴 드려서 우리는 그러케 지내요. {예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지내요.}

10230 # 예릴 드려서 우리 아버지가 오닐 도라가신년대: 도라가신 날 던 날 지녀개 열뚜 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돌아가시)던 날 열두 시에,} 10230 @ 예. {예.} 10230 # 으 열두 시에. {으 열두 시에.}

10230 @ 도라가신날 저녁 열두 시에. {돌아가신 날 저녁 열두 시에.} 10230 # 예 열두 시에 그러케 우린 지내썬요. {예 열두 시에 그렇게 우리는 지냈어요.}

10230 @ 예:. {예.}

10230 @ 아니 어디 가니까 고: 전날 그부니, {어디 가니까 고 전날 그분이,} 10230 # 그 그 나 그 전날이지 머: 이기. {그 그 날 그 전날이지 뭐 이게.} 10230 @ 그부니 사라게서든 날. {그분이 살아계셨던 날.}

10230 # 그르치. {그렇지.} 10230 @ 그날 지낸다구 고 전날 지낸다구, {그날 지낸다고 고 전날 지낸다고,} 10230 @ 어: 그래 여. {어 그래 여.}

10230 @ 보름 날 도라가서썬면 열나흔 날 열두 시에 밤에 지낸다 그래대요? {보름 날 돌아가셨으면 열나흔날 열두 시에 밤에 지낸다 그러테요?}

10230 # 지사 지사 드넌 그 저 도라가신 인재 그날, {제사 제사 드는 그 저 돌아가신 이제 그날,}

10230 @ 그날. {그날.}

10230 # 어: 그날 인재 저기여. {어 그날 이제 저기야.}

10230 @ 그날 지내서, {그날 지내서.} 10230 # 야 어 열두 시: 딱 그랭개 즈: 증: 열두 시 되머넌 이러케 죽: 바라구 이따가서 지둔 사람 이따가 딱: 열두 시 되면 그때 인재 저기 분향 분향하고 참 저기 인재 모도 인재 저기 하자나. {야 어 열두 시 딱 그러니가 정 정각 열두 시 되면 이렇게 죽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린 사람 있다가 딱 열두 시가 되면 그때 이제 저기 분향 분향하고 참 저기 이제 모두 이제 저기 하잖아.}

10230 # 사신 사시니라구 인재 분향한 뒤에 인재, {사신, 사신이라고 이제 분향한 뒤에 이제,}

10230 @ 고거는 쫄쫄 이따가 제가 여쭙 보께요. {고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여쭙어 볼게요.}

10230 @ 고로케 일런, 도라가시구 나서 일런마다 이러:케 지내는 지:사를 기지 기 기지사라 그래나요? {고렇게 일년, 돌아가시고 나서 일년마다 이렇게 지내는 제사를 기제 기 기제사라 그래나요?}

10230 # 인재 다: 탈상해서: 혼백 가따 무든 뒤에 인재 도라오머넌 그때 기지사지. {이제 다 탈상해서 혼백 갖다 묻은 뒤에 이제 돌아오면 그때가 기제사지.}

10230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230 # 어:. {어.}

10230 @ 인재 탈상하기 저내는 인재 소:상. {이제 탈상하기 전에는 이제 소상.}

10230 # 그래 그러치요 어 어. {그래 그렇지요 어 어.} 10230 @ 대상이구? {대상이고?}

10230 @ 그래구 고 대상 지내구 나서 도라오면 인재 그때부터는 기제사지요? {그리고 그 대상 지내고 나서 돌아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제사지요?}

10230 # 어:. {어.}

10230 # 참 애통하머닌 아여 상재가 대:상 지내서루 인재 초 초기가 도라와두 애통하머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고덜 하고:. {참 애통하면 아 상재가 대상 지내서 이제 초 초기가 돌아와도 애통하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고를 하고.}

10230 # 애곡:. {애곡.}

10230 @ 예. {예.}

10230 # 글 애고기라 구라대:. {그걸 애곡이라 그러데.}

10230 @ 애곡? {애곡?}

10230 # 어: 어: 슬플 애:짜. {어 어 슬플 애자.}

10230 @ 예. {예.}

10230 # 애고기라구 그러카고: 또 그르자느면 다: 어이고구루 나와. {애곡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 어이곡으로 나와.}

10230 # 그기 인재 반고기지 쪼끔 인재 가 감:해따능 기여 여: 어? {그게 이제 반곡이지 조금 이제 가 감했다는 거여 여 어?}

10230 @ 예:. {예.}

10230 # 어 보걸 감:해따는 그 뜨싱 기여. {어 복을 감했다는 그 뜻인 거야.}

10230 @ 예:. {예.}

10230 @ 차례지낸다는 말두 써요, 차례? {차례지낸다는 말도 써요, 차례?}

10230 # 차례라닝 차례라닝 건 그 차례라닝 건 저기유. {차례라는 차례라는 것은 그 차례라는 것은 저기요.}

10230 # 차례-찌사는 추석 추성명저리던지 스:리라던지 그거여 어:. {차례제사는 추석 추성 명절이든지 설이라든지 그거야 어.} 10230 @ 명절 때 지내능 거. {명절 때 지내는 거.}

10230 # 그런대 인재 저 우 추서개는 그기 제사::도 제사지마닌 헐꼭씩 해:서루 조상에 천:신하능 거요 천:신. {그런데 이제 저 우 추석에는 그게 제사도 제사지만 헛곡식 해서 조상에 천신하는 거요 천신.}

10230 @ 예:. {예.}

10230 # 그 천:시니유. {그건 천신이요.}

10230 @ 조상드란테, {조상들한테,} 10230 # 예:. {예.} 10230 @ 덕뿌내 이르캐 농사... {덕분에 이렇게 농사...}

10230 # 예 예 천:시니라구 인재 어 이 헐꼭씨그루 해:쓰니깨루 조상님덜 재 잡췌보라구 하능 기 그 천:시니지 어. {예 예 천신이라고 이제 어 이 헛곡식으로 했으니까 조상님들 인제 잡췌보라고 하는 게 그 천신이지 어.}

10230 # 명일 지사 저: 슬: 찌사는 인재 해가 배껴쓰닝개 인재 참 떠꾸캐 가주서 인재 그 래 지내구. {명일 제사 저 설 제사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참 떡국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10230 # 지낸 뒤에 인재 동: 저: 저 지반 으:런덜 이씨면 으:런더란테 세:배, 해가 배껴쓰니 으 우트개 글러기 어떠시냐구 기냥 이러캐민서 인사럴 인재 또 가 드르가. {지낸 뒤에 이제 동 저 저 집안 어른들 있으면 어른들한테 세배, 해가 바뀌었으니 으

어떻게 근력이 어떠시냐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이제 또 가 들어가.)

10230 # 어제 바:뜨른대두 그러케 인사하구 구리야. {어제 봤더라도 그렇게 인사하고 그 래.}

10230 # 해개 배개 배껴쓰니 글러기 어 그만하시냐구. {해가 바뀌 바뀌었으니 근력이 어 그만하시냐고.}

10230 # 그러케 인사럴 하구. {그렇게 인사를 하고.}

10230 # 세:배 지금 세:배 읍습니다. {세배 지금 세배 없습니다.}

10230 @ 요샌 잘 안하지요. {요새는 잘 안하지요?}

10230 # 아: 읍:썩유. {아 없어요.}

10230 @ 시재:는, {시제는,}

10230 # 시제. {시제.} 10230 @ 시:월 따래, {시월 달에,}

10230 # 야: 시 시월 딸 시:월 인재 초하룻날버텀 인재 그 인재 날바다 지내능기 또래, 으. {예 시 시월 달 시월 이제 초하룻날부터 이제 그 이제 날받아서 지내는 것이기 때 문에, 으.}

10230 @ 그거는 저:기 지배서 저 지:사 안 지내는 분들 지내능 거지요? {그거는 저기 집 에서 저 제사 안 지내는 분들 지내는 거지요?}

10230 # 아이 머 거 시제는 머 그 자손더리머년 거기 인저 자 자손더리면 다: 가 가구 시 품 가구 그르치요 머. {아이 뭐 그 시제는 뭐 그 자손들이면 거기 이제 자 자손들 이면 다 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지요 뭐.}

10230 @ 그래잉까 기지사 지내는 사라문: 지배서 지내구, {그러니까 기제사 지내는 사람 은 집에서 지내고,} 10230 # 그러치. {그렇지.} 10230 @ 기지사 안 지내는 사라 문 시사 지내능 거자나요? {기제사 안 지내는 사람은 시사 지내는 거잖아요?}

10230 # 그러치유 머 저기 어:. {그렇지요 뭐 저기 어.}

10230 @ 겨우 그:, { 거 그.} 10230 # 아니:, {아니.}

10230 # 삼년상 나기 저내 지배서 지내쩌만 삼년상 나만 인재 다: 다: 사내가 지내야지 머:, 시사는. {삼년상 나기 전에는 집에서 지냈지만 삼년상 나면 이제 다 다 산에 가서 지내야지 뭐, 시사는.}

10230 @ 예:. {예.}

10230 @ 시사는뇨? {시사는요?}

10230 # 어: 지그른 사내두 앙 가요? {어 지금은 산에도 안 가요.}

10230 # 다: 지배서 기양 이 방에서 저기해던지 대:청애 저: 제쌍 노쿠서루: 이 충 축 거시 기 머 지방... {다 집에서 그냥 이 방에서 저기 하든지 대청애 저 제상 놓고서 이 축 충 거시기 뭐 지방...}

10230 @ 예. {예.}

10230 # 어. {어.}

10230 # 인재 학생이면 학생 어: 인재 그러케 써서루 부치구서는 으: 잔 부찌. {이제 학생 이면 학생 어 이제 그렇게 써서 붙이고는 으 잔 붓지.}

10230 # 사내 머 차 지금 사내 앙 가:. {산에 뭐 지금 산에 안 가.}

10230 # 다: 그리여, 난 난 우리 지배서 그러케 모:타닝께 다: 그르 그른 줄루 알:구. { 다 그래, 나는 나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못 하니까 다 그리 그런 줄로 알고.}

10230 @ 다 다 거의 다 그래요. {다 다 거의 다 그래요.}

10230 # 다: 그른 줄루 산소애 양 가:. {다 그른 줄로 알고 산소에 안 가.}

10230 @ 거이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10230 # 야. {야.}

10230 @ 저히들두 그저내 가다가 인재 사람두 모이기 힘들구 그러니까 모 까드라구요.
{저희들도 그전에 가다가 이제 사람도 모이기 힘들고 그러니까 못 가드라고요.}

10230 # 그리요 예. {그래요 예.}

10230 @ 그거 시제를 시:향이라 그래도... {그거 시제를 시향이라 그러기도 (하나요)?}

10230 # 거 시 시:향. {그 시 시향.}

10230 @ 시향, 시양? {시향, 시양?}

10230 # 시향. {시향.}

10230 @ 시향. {시향.}

10230 # 그 향:라능 거 이 향:짚지 몰:르거써:. {그 향이라는 거 이 향자인지 모르겠어.}

10230 # 행:이라능 개 어? {향이라는 게 어?}

10230 @ 예. {예.}

10230 # 시:향이라넝 건 인저 올린다는 뜨스루다 인재 이잘 끼여 아마 향이. {시향이라는 건 이제 올린다는 뜻으로 이제 이 (글)자일 거야 아마 향이.}

10230 @ 예 예 예. {예 예 예.}

10230 # 으:, 근재 시라능 거넝 인재: 그해 인재 시:월 따래 인재 올리개 그때 시향이라구 인재 그르캐. {으 그 이제 시라는 것은 이제 그해 이제 시월 달에 이제 올리개 그때 시향이라고 이제 그렇게.}

10230 # 시향애는 머 저기 날 자손더리 날 바더서 올리기에 달려써요. {시향애는 뭐 저기 날 자손들이 날 받아서 올리기에 달렸어요.}

10230 # 때 따르 탄 나리 다: 따루 업:써요. {때 다른 따른 날이 다 따로 없어요.}

10230 @ 예:. {예.}

10232 # 소:상이나 기제사나 방버븐 또까통 거지요? {소상이나 기제사나 방법은 똑같은 거지요?}

10232 # 그러치요. 아: 충무니 틀리지 시향언 저: 시사하구. {그렇지요, 아 축문이 다르지 시향은 저 시사하고.}

10232 @ 충무는 틀리구, {축문은 다르고,} 10232 # 어:. {어.} 10232 @ 준비한 하가꾸 뭐, {준비한 해 가지고 뭐,} 10232 # 그 그림:. {그 그림.} 10232 @ 다른 절차는 가통 거지요? {다른 절차는 같은 거지요?} 10232 # 그리지요 머. {그렇지요 뭐.}

10232 # 뽕뽕비, 저기 뽕뽕비 이씨머넝, {메밥이, 저기 메밥이 있으면,}

10232 @ 예. {예.}

10232 # 머: 숙채나물두 장만하구:, {뭐 숙채나물도 장만하고,}

10232 @ 숙채나무리요? {숙채나물이요?}

10232 # 어: 채 채:소:. {어 채 채소.}

10232 @ 예. {예.} 10232 # 어:. {어.}

10232 @ 멀:루 만드러요? {뭘로 만들어요?}

10232 # 채소라는 인재 고기:: 탕:두 하구 인재 두부 인재 두부 인재 어:, 대: 대 소:탕 소:창 아 아니 소:탕 대:탕. {채소라는 이제 고기 탕도 하고 이제 두부 이제 두부 이

제 어, 대 대 소탕 소창 아 아니 소탕 대탕.} 10232 @ 예. {예.} 10232 # 그 두: 가지여. {그 두 가지야.}

10232 # 소:탕이라넝 건 인재: 두부나 느쿠 인재 이르캐서 도 간단하개 항 개 그 소, 저기 소:탕이구 으 두부나 하구 인재 이라능 거 소탕. {소탕이라는 것은 이제 두부나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 게 그 소, 저기 소탕이고 으 두부나 하고 이제 이러는 게 소탕.}

10232 # 그 외탕이라능 거 탕 인재 하나지, 외탕언. {그 외탕이라는 건 탕이 이제 하나지, 외탕은.}

10232 @ 예. {예.}

10232 # 외탕 아니구 할라면 삼:탕얼 히야. {외탕 아니고 할려면 삼탕을 해.}

10232 @ 예. {예.}

10232 # 삼:탕얼 해서 탕 시그러걸 하고. {삼탕을 해서 탕 세 그릇을 하고.} 10232 @ 짝수룬, {짝수로는,} 10232 # 탕이 어, {탕이 어.} 10232 @ 안 하능 거요? {안 하는 거요?.}

10232 # 어: 탕:이 이씨면 여기 밥 바배 따라서루 자:반두 이씨야 되구, {어 탕이 있으면 여기 밥 바배 따라서 자반도 있어야 되고,}

10232 @ 예. {예.}

10232 # 으, 또 갱물두 따루 이씨야 되구, {으, 또 갱물도 따로 있어야 되고,}

10232 @ 예. {예.}

10232 # 주과포는 저 저기 머여 주과포는 자:반 이씨두 고만 업씨두 고만 그리여, 건 떡뿐이니까. {주과포는 저 저기 뭐야 주과포는 자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 그건 떡뿐이니까.}

10232 # 어: 바쁜 우꾸 주과포넌. {어 밥은 없고 주과포는.}

10232 # 그리잉개 바비 이씨머넌 이게 저기가 제:무리 줌 더 더 드르가야 디야. {그러니까 밥이 있으면 이게 저기가 제물이 줌 더 더 들어가야 돼.}

10232 @ 자바는 멀: 가주구 자반이라 그래요? {자반은 뭘 가지고 자반이라고 해요?}

10232 # 어: 붕어그치 생깁 거 왜 바다에서 조기. {어 붕어같이 생긴 거 왜 바다에서 조기.}

10232 @ 조기. {조기.}

10232 # 어: 조기 그. {어 조기 그,}

10232 # 소그매 썬 거 그걸... {소금에 절인 거 그걸....}

10232 # 그걸 자:반 자:바니라 구리야. {그걸 자반 자반이라 그래.}

10232 @ 그: 그러구 인재 그런 음식글 이러캐 노차나요? {그 그러고 이제 그런 음식을 이렇게 놓잖아요?}

10232 # 예:. {예.}

10232 @ 음식뚜 이쪼개 논능 거 이쪼개 논능 거 아패 논능 거 뒤에 논능 거 다르지요? {음식도 이쪽에 놓는 거 이쪽에 놓는 거 앞에 놓는 거 뒤에 놓는 거 다르지요?}

10232 # 달르지요:. {다르지요.}

10232 # 여기 워디 저:기 잉가 이씨요. {여기 어디 저긴가 있어요.}

10232 # 여기 여기: 여 여기 다: 여기 보는 다 으:. {여기 여기 여 여기 다 여기 보는 다 으.}

10232 # 일과. {일과.}
 10232 @ 예. {예.}
 10232 # 이:채. {이채.}
 10232 @ 예. {예.}
 10232 # 삼:탕. {삼탕.}
 10232 @ 예. {예.}
 10232 # 으 시:째는 삼:탕. {으 셋째는 삼탕.}
 10232 @ 예. {예.}
 10232 # 여긴 적쫄. {여기는 적쫄.}
 10232 @ 예. {예.}
 10232 # 적쫄. {적쫄.}
 10232 # 그라구 여기 신주:, 신주넌 인재 저기지 머. {그리고 여기는 신주, 신주는 이제 저
 기지 뭐.}
 10232 @ 가운데 인능 거랑. {가운데 있는 거랑,}
 10232 # 어: 가운데 저기: 이게 아니여. {여 가운데 저기 이게 아니야.}
 10232 @ 여기 사람 인는 대지 이쫄개, {여기 사람 있는데지 이쫄개,} 10232 # 여 여기
 이쫄. {여 여기 이쫄.} 10232 @ 이쫄개서 볼 때 그렇 거지요? {이쫄에서 볼
 때 그런 거지요?}
 10232 # 그리 그리치유. {그리 그렇지요.}
 10232 @ 여기서 볼 때, {여기서 볼 때,} 10232 # 어 어 어. {어 어 어.} 10232 @ 맨:
 아패가 인재, {맨 앞에가 인재,} 10232 # 어:. {어.}
 10232 @ 과:일. {과일.} 10232 # 으 어, 조유 조율. {으 어, 조유 조율.}
 10232 @ 조:율 예:. {조율 예.}
 10232 @ 시? 이: 이시. {시? 이 이시.} 10232 # 어:. {어.}
 10232 @ 조율이시. {조율이시.} 10232 # 조율이시 예. {조율이시 예.}
 10232 # 으 이기 머여 이기 머. {으 이기 뭐야 이기 뭐.}
 10232 @ 정채? {정채?} 10232 # 며 {몇,}
 10232 @ 정 정채? {정 정채?}
 10232 # 저 저 증:과. {저 저 정과.}
 10232 @ 예:. {예.}
 10232 # 등::과 아니유? {정과 이니요?}
 10232 @ 아 광가요? {아 과 과인가요?}
 10232 # 실과 과짜. {실과 과자.}
 10232 @ 아 과짜내요. {아 과자네요.}
 10232 # 어: 아 그거넌 여과채여, 여과차. {어 아 그거는 여과차야, 여과차.}
 10232 @ 예:, 여과. {예 여과.}
 10232 # 다: 인재 그: 미트론 과루 다: 뜨르가닝개. {다 이제 그 밑으로는 과로 다 드러가
 니까.}
 10232 @ 예:. {예.}
 10232 # 여과차라. {여과차라.}
 10232 @ 여과차, 천 쭈리 그러쿠. {여과차, 첫 줄이 그렇고.}

10232 # 어: 차:. {어 차.}

10232 @ 그 다매 인재 전?: {그 다음에 이제 전?

10232 @ 두번째 쭈리? {두 번째 줄이?}

10232 # 두번 인재 시:번채 쭈리 인저: 일과이채삼:탕. {두 번 이제 세 번째 줄이 이제 일과이채삼탕.}

10232 @ 예. {예.}

10232 # 탕: 쭈래 시지 시째가. {탕 줄에 서지 셋째가.}

10232 @ 예:. {예.}

10232 # 탕: 쭈. {탕 줄.}

10232 # 인저 네:번채가 인재: 적 쭈.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적쭈.}

10232 @ 예:. {예.}

10232 # 적 쭈두 보낭개 저: 면적 밀가루 하구 인재 그래 여기 쭈: 면여 여가 거기 인재 여기 어 인재 고기 저긴지 머 여기 저: 똥고랑 걸 귀 똥고랑땡이 머여 그기 유:깔라빈데:, {적쭈도 보니까 저 면적 밀가루 하고 이제 그렇게 여기 제일 먼저 여가 거기 이제 여기 어 이제 고기 적인지 뭐 여기 저 똥그란 걸 구어 똥그랑땡인지 뭐야 그게 육갈랍인데.}

10232 @ 예. {예.}

10232 # 예 고기에 명칭은 다: 여기 암 뵈어서 모루넨대 그러케 인재 순서대루 하구 여기 소:저기라구 두부저기 맨: 가양으루 가유 소:저기. {예 고기의 명칭은 다 여기 안보여서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하고 여기 소적이라고 두부적이 맨 가로 가요 소적이.}

10232 # 어 여기 ****. {어 여기 ****}

10232 # 요기년 여 거시기루 자:반 반잔갱인데 반 뵈:뺨 노쿠 가운데 잔 노쿠 저: 또 반잔 갱 요개 신:주가, {요기는 이제 거시기로 자반 반잔갱인데 반 메밥 놓고 가운데 잔 놓고 저 또 반잔갱 요기에 신주가,}

10232 @ 예:, 가운데. {예 가운데.}

10232 # 신:주가 이편지 인재 위패 쓴 거 머머 노쿠 반, {신주가 있든지 이제 위패 뭐 뭐 쓴 거 놓고 반.} 10232 @ 예. {예.} 10232 # 뵈뺨 반. {메밥 반.} 10232 @ 예. {예.} 10232 # 잔 갱 으 이래. {잔 갱 이렇게.}

10232 @ 그러케, {그렇게.} 10232 # 으:. {으.}

10231 @ 그러구서 인재 어트개 해요?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10231 @ 그러케 차려 노쿠 여기 아패서? {그렇게 차려 놓고 여기 앞에서?}

10231 # 으. {으.}

10231 # 그라면 인저 거기 인저 마다덜 마달-더리라던지 맡손자라던지 마다더리 우:꾸 인저 손자가 인저 저:기 주 주생이 될 꺼 거터머넨 손자가 인저 거시키 해야지.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맡아들 맡아들이라든지 맡손자라든지 맡아들이 없고 이제 손자가 이제 저기 주 주상이 될 것 같으면 손자가 이제 거시기 해야지.}

10231 # 주 저: 주호니지 인재 그래낭개 어? {주 저 주혼이지 이제 그러니까 어?}

10231 # 인재 맘 마쌍재가 이쓰면 마쌍재가 저: 향뽈버텀 피워 노쿠. {이제 맘 맘상제가 있으면 맘상제가 저 향불부터 피워놓고.}

10231 # 향뽈 피워서 인재 영기날 쟈 인재 절하구:. {향불 피워서 이제 연기날 때 이제 절

하고.}

10231 # 또: 저기 잔 너리다가, 그러면 인재 내우가 다: 이쓰면 인재 이러케 내우가 인재
함싸 함사릴 하자나? {또 저기 잔 내려다가, 그러면 이제 내외가 다 있으면 이렇
게 내외가 이제 함사 함사를 하잖아?}

10231 @ 예. {예.}

10231 # 함싸릴 하면 인재 인저 어머니 자닐 가따가서루 부냥얼 하더라 어 하더라구, 어머
이 자닐. {함사를 하면 이제 이제 어머니 잔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더라고 어 하더
라고, 어머니 잔을.}

10231 # 부냥얼 인재 가따가서루 이 조:꿈 뷔: 가주서루 인재 여 영기나년 대 이러:케 해
가주서루 이: 미태 탄 그르새 이래: 부구서 그르카구 인재 이러서서 그러면 인저
제 제관더리 일똥 다: 저릴 히야. {분향을 이제 가져다가 이 조금 부어 가지고 이
제 여 연기나는 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밑에 탄 드룻에 이렇게 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일어서서 그러면 이제 제 제관들이 일똥 다 절을 해.}

10231 @ 고걸 머:라 그래요? {고걸 뭐라 그래요?}

10231 # 어? {어?}

10231 # 그 그기 인재 저기여. {그 그게 이제 저기야.}

10231 # 참신. {참신.}

10231 @ 참신 예:. {참신 예.}

10231 # 그걸 참시니라 구리야. {그걸 참신이라 그래.}

10231 @ 예:. {예.}

10231 # 참신-널 하구서 인재 또 인재 그 상 저: 매:너 인재 아더리 되건 손자가 되던 그
사래미 안자서 인재: 자 자닐 바다:. {참신을 하고서 이제 또 이제 그 상 저 뎌 어
이제 아들이 되든 손자가 되든 그 사람이 앓_ㄴ아서 이제 자 잔을 받아.}

10231 @ 예:. {예.}

10231 # 저:기서 인재 집싸 그걸 지싸라 구리야, 양:짜개서 인재 잔 너리 주고:, {저기서
이제 집사 그걸 집사라 그래, 양쪽에서 잔 내려 주고,} 10231 @ 예:. {예.}
10231 # 또 잔 바더서 올리 농거릴 그거릴 집사라 구래요. {또 잔받아서 올려 놓
는 걸 그걸 집사라 그래요.}

10231 @ 예:. {예.}

10231 # 그 집사가 인재 잔 너리오:고 인재 그러면 인재 아부지버텨 잔 뷔:서 인재 올리구
또 고 다매 인재 어머니 잔 올리구. {그 집사가 이제 잔 내려오고 이제 그러면 이
제 아버지부터 잔 부어서 이제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잔 올리고.}

10231 @ 예. {예.}

10231 # 그러면 이제 절하고 절 두 번 하고 나와:. {그러면 이제 절하고 절 두 번 하고 나
와.}

10231 @ 그걸 초허니라 그래나요, 초헌? {그걸 초헌이라 그러나요, 초헌?}

10231 # 아: 그러치 초헌. {아 그렇지 초헌.}

10231 @ 예. {예.}

10231 # 초흐니여 초헌. {초헌이야 초헌.}

10231 @ 예. {예.}

10231 # 디리 디릴 헌짚:-지? {드릴 드릴 헌자인지?}

10231 @ 예. 예. {예. 예.}

10231 # 그래 하구선 인재 나면 인재 또: 예: 자그나더리 이씨면 자그나더리 드려서 인재 어 아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나면 이제 또 예 작은아들이 있으면 작은아들이 들어서 이제 어 아흔.}

10231 @ 예. {예.}

10231 # 아흔 인재 그거 또 또:까지 인재 그래 인재, {아흔 이제 그거 또 똑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10231 @ 예. {예.}

10231 # 잔 이 잔 비우, 자늘 바다서 비우구 나와. {잔 이 잔 비우, 잔을 받아서 비우고 나와.}

10231 @ 예. {예.}

10231 # 츠:매 잔 잔 부니가. {처음에 잔 잔 부은 이가.}

10231 @ 예. {예.}

10231 # 이러서면 이 잔 이 바들 그러시 저태 이쓰닝께 이걸 들구서 이러케 서쓰면 집사가 가따가 여기 비우거덩. {일어서면 이 잔 이 받을 그릇이 곁에 있으니까 이걸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집사가 가져다가 여기 비우거든.}

10231 @ 예. {예.}

10231 # 으: 집사가. {으 집사가.}

10231 @ 거 그르스 머라구 머라 그래요? {그 그릇은 뭐라고 뭐라고 해요?}

10231 # 갱 갱끄룩 갱 어:. {갱 갱그릇 갱 어.}

10231 # 어: 아이 저: 그 퇴주 짬, 퇴 퇴주 끄런. {어 아이 저 그 퇴주 잔, 퇴주 그릇.}

10231 @ 퇴주 끄런. {퇴주 그릇.}

10231 # 어: 퇴주 그런 내가 {어 퇴주 그릇 내가.}

10231 @ 모래두 이꾸: {모래도 있고.}

10231 # 아: 근 모사:. {아 그건 모사.}

10231 @ 모:사. {모사.}

10231 # 어: 그거넌 저: 주거서루 저기 해쓸찌개 해능 기요. {어 그거는 저 죽어서 저기 했을 때 하는 거요.}

10231 # 저: 저 건 머 머여 저기 저 혼백 혼백 모이 쓸 찌개 아침 지너그루 아이고 아이고 밥 떠널 쟈 그때 거기다 인재 여기다 인재 상애다가 향쌍 여패다가 여 이기 향쌍 인대 향쌍 아패 고기 모사라구 빈 그르새다 모사랴 깨::끄탄 모래릴 이러케 해다가 노쿠서루 거기다가 저 띠푸리라능 기 이씨요, 띠풀. {저, 저 거 뭐 뭐야 저기 저 혼백 혼백 모섯을 적에 아침 저녁으로 아이고 아이고 밥 떠 놓을 쟈 그때 거기다 이제 여기다 이제 상애다 향쌍 옆애다가 여 이게 향쌍인데 향쌍 앞에 고기에 모사라고 빈 그릇애다 모사를 깨끗한 모래를 이렇게 해다가 놓고서 거기에다가 저 띠풀이라는 게 있어요, 띠풀.}

10231 @ 예. {예.}

10231 # 조:기 저 저:기 나 항 거 인는데 띠푸릴 인재 요만:창 해서루 요래 가운데 요로깨 무껴서 고다 꼬자 봐:. {조기 저 저기 나 한 거 있는데 띠풀을 이제 요만큼 해서 요렇게 가운데 요렇게 묶어서 고기다 쫓아 봐.}

10231 @ 예. {예.}

10231 # 거기다 꼬자 노쿠서 거기다 늘 거기다 수털 뷔: 수털 분는대 개 인재 여러 번 자꾸 부:면 냄새가 날 꺼 아니유? {거기다 꽃아 놓고서 거기다 늘 거기다 술을 부어, 술을 붓는데 게 이제 여러 번 자꾸 부으면 냄새가 날 거 아니요?}

10231 # 그러면 그 모래릴 또 빠라 가서 어허허, 다롱 걸 떠다 논능 기 아니라 그 모렐 가서 빠라 무리서. {그러면 그 모래를 또 발아 가서 어허허, 다른 걸 떠다 놓는 게 아니라 그 모래를 가서 빨아 물에서.}

10231 @ 예:. {예.}

10231 # 어 이러케 빠라 가주서 다시 가따 노쿤 또 그기 그기 모:사라구. {어 이렇게 빨아 가지고 다시 가져다 놓고는 또 그게 그게 모사라고.}

10231 # 모산대 으: 인재 인재 아까 그 저:, {모사인데 으 이제 이제 아까 그 저,}

10231 @ 잔 함 번 부꾸 두 번째 잔 하구 그지요? 그걸 아:허니라 그러구? {잔 한 번 붓고 두 번째 잔 하고 그렇지요? 그걸 아현이라고 하고?}

10231 # 어어 아:현 인재 사문. {어어 아현, 이제 삼현.}

10231 # 또 사문꺼정도 해요. {또 삼현까지도 해요.}

10231 @ 예. {예.}

10231 # 세: 번째꺼정 으. {세 번째까지 으.}

10231 # 하고 인재 저:: 종현. {하고 이제 저 종현.}

10231 @ 예. {예.}

10231 # 또 네 번째는 그걸 종허니라 그리야. {또 네 번째는 그걸 종현이라고 해.}

10231 @ 예. {예.}

10231 # 그 인재 맨: 만 마다덜 맡쑈자나 마다더리 츠:매 맨, {그 이제 맨 만 맡아들 맡손자나 맡아들이 처음에 맨,}

10231 @ 예. {예.}

10231 # 츠:매 저: 잔 올린 이 그이가 또 안자서 저: 밥 메 꼬 맨 저 뚜경 복찌개라던지 어 그거릴 이래 가주구서 이러케 안지머던 집싸가 여거다 수털 뷔: 줘: 그러면 쪼끔 뷔: 가주서 이래 이래 가시 가주서 인저 여기다 그 잔 비워뎠 그르새 이러케 가서서 부찌. {처음에 저 잔 올린 이 그이가 또 앉아서 저 밥 메 그 메 저 뚜경 복찌개라던지 어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앉으면 집사가 여기다 술을 부어 줘, 그러면 조금 부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서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그 잔 비웠던 그릇에 이렇게 가서서 붓지.}

10231 # 그러구서 인재 재:벌 이러카머던 고 잔 두: 개면 두: 개 불만:창 이 쪼꼬만 쪼 이러케 세: 번 짜 따라서 분:넌대 고가 불만창 이러케 따화:. {그리고서 이제 재벌 이렇게 하면 고 잔 두 개면 두 개 부을 만큼 이 조금만큼 이렇게 세 번 따라서 붓는데 고기에 부을 만큼 이렇게 따워.}

10231 # 그러면 넘:치거나 마나 고거 인재 잔: 두: 개다 다: 이러케 어 부어:, 넘치두 나다: 고기 드러 이쓰닝개 수린. {그러면 넘치거나 마나 고거 이제 잔 두 개에다 다 이렇게 어 부어, 넘쳐도 다 고기 들어 있으니까 술은.}

10231 @ 예:. {예.}

10231 # 그래 부꾸서 인재 이러나서 인재, 함무니라구 아르새게요, 함문? {그렇게 붓고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함문이라고 아세요, 함문?}

10231 @ 문 단녕 거? {문 단는 거?}

10231 # 어: 그걸 함무니라 구라대요? {어 그걸 함문이라고 하데요?}

10231 @ 예. {예.}

10231 # 으 그러면 인재 바매닝개 인재 요 초뿔 씨 노쿠 인재 이러개, {그러면 이제 이제 밤이니까 이제 요 촛불 켜 놓고 이제 이렇게,} 10231 @ 잠깐 나가 인능 거지요. {잠깐 나가 있는 거지요.} 10231 # 어: 조용::하개 인재 잡쑤라구: 제관더리 쌍 나가. {어 조용하게 이제 잡수시라고 제관들이 짹 나가.}

10231 # 쌍: 나가서 인재 예:: 한 일 일 이래서 한 백-꺼지 시년 고런 순간까지 이따가서 조용:하개 이따가서 인저 지치멸 하민서 무닐 여러. {짝 나가서 이제 예 한 일 일 일에서 한 배까지 세는 그런 순간까지 있다가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기침을 하면서 문을 열어.}

10231 @ 예. {예.}

10231 # 어 어 그간 인재 헤헤 하 마:이 잡쑤 허허 소:그로 인재 그간 마:이 잡쑤냐구. {어 어 그간 이제 헤헤 하 많이 잡수서 허허 속으로 이제 그간 많이 잡수셨느냐고.}

10231 # 그러캐서 인재 하구서는 저:,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서는 저,}

10231 @ 침자근 안 해요? {참작은 안 해요?}

10231 # 침자기 내내: 내내 침자기 그거여. {침자기 내내 내내 침작이 그거여.}

10231 @ 맨: 마지막개 하능 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10231 # 어 마지막 하능 개 으. {어 마지막 하는 게 으.}

10231 @ 종헌할 때. {종헌할 때.}

10231 # 으:. {으.}

10231 # 그르카구서 인재 츠매 그 저 인재 뽀빠과구 갱무리짜나. {그렇게 하고서 이제 처음에 그 저 이제 메밥하고 갱물 있잖아.} 10231 @ 예. {예.} 10231 # 저:기. {저기.}

10231 # 탕. {탕.}

10231 @ 예. {예.}

10231 # 탕:얼 인재 저기 양짜절 다: 이러개 인재 가주구 나가며넌 고 비 고 비워뽀 그러 새다가 인재 가주 가서 고: 비워뽀 그르새다가 저 저 냉수. {탕을 이제 저기 약쪽 것을 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가면 고 비 고 비웠던 그릇에다가 이제 가지고 가서 고 비웠던 그릇에다가 저 저 냉수.}

10231 @ 예. {예.}

10231 # 그 인재 저기 그냥 승냥이라 구리야 승냥이라 구라는데, 그걸 또 고두 고 그러설 가따가 고기 봐야 요기 어머니만 어머니:한테서 가주간 그러설. {그 이제 저기 그냥 승냥이라 그래, 승냥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고 고 그릇을 가져다가 고기 봐야 어머니만 어머니한테서 가지고 간 그릇을,} 10231 @ 예. {예.} 10231 # 비워 가주 거 가다 노치: 아버지 그러설 또 일:루 잉기구 어머니 그러설 아버지한테루 잉기구 그러켄 안 해요. {비워 가지고 거기 갖다 놓지 아버지 그릇을 또 이리로 옮기고 어머니 그릇을 아버지한테로 옮기고 그렇게는 안 해요.}

10231 @ 예. {예.}

10231 # 그러캐 거가 그러캐 대: 이쑤.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

10231 @ 예. {예.}

10231 # 어 그래서 그 개갱 인저 으 해: 가주구서 인재 예:: 저: 적 저범 올리농 거 저범

두 매: 수팔 두: 개 인재 저개 뽕빠배 꼬저땡 거 이짜나? {어 그래서 이제 그 개 갱에 이제 해 가지고 이제 예 저 젓 젓가락 올려놓은 거 젓가락 두 매 숟가락 두 개 이제 저기에 메밥에 꽃았던 거 있잖아?}

10231 @ 예. {예.}

10231 # 그거 인재 이러캐서 거기 인재 이래 거티 봐:따가서 인재 거 인재 메 뽕 솜신 인재 고 동아내 이래 고만 해서 너리여. {그거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이렇게 거티 났다가 이제 거 이제 몇 번 손신 이제 고 동안에 이렇게 고만 해서 내려.}

10231 # 저부를 너리서 고만 다: 치우구 인저 개 더꾸 개 더꾸 인재 또 야깐 이러캐 저기 술 술짜널 야깐 이러캐 여패서 건드리능 거 그치 히야, 둘: 다:. {젓가락을 내려서 고만 다 치우고 이제 개 덮고 개 덮고 이제 또 약간 이렇게 저개 술 술잔을 약간 이렇게 건드리는 거 살이 해, 둘 다.}

10231 # 그르카서 일똥 다: 재뻔 하지. {그렇게 하고서 일똥 다 재배를 하지.}

10231 # 그라던 인재 끈낭 기여 제:사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제사가.}

10231 @ 개 덮는다는 개 뚜껑 덮는다는 거지요. {개 덮는다는 게 뚜껑 덮는다는 거지요?}

10231 # 그러치유, 그걸 개 어:... {그렇지요, 그걸 개 어...} 10231 @ 저 밥. {저 밥.}

10231 # 예 예 예 {예 예 예.} 10231 @ ** 뚜껑 {** 뚜껑.} 10231 # 어 그걸 개 덮는... {어 그걸 개 덮는...} 10231 # 아까 그 복찌개. {아까 그 복찌개.}

10231 # 예: 복찌개. {예 복찌개.}

10231 @ 그거 덮는다는 거지요? {그거 덮는다는 거지요?}

10231 # 예: 그거 얘기치유. {예 그거 얘기치유.}

10231 @ 그러면 끝나지요? {그러면 끝나지요.}

10231 # 어 끝나지. {어 끝나지.}

10231 @ 그러구 인재 끝나구 나서 또 술두 한 잔씩,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술도 한 잔씩.}

10231 # 그러치유 인재 다: 그라던 철쌍이지 머:. {그렇지요 이제 다 그러면 철쌍이지 뭐.}

10231 # 치우녕 걸 다: 철쌍이라 구라대. {치우는 걸 다 철쌍이라 그러데.}

10231 @ 예:. {예.}

10231 # 으, 철쌍.{으 철쌍.}

10231 # 그라던 음:시카녕 거 인재 저기루 나가서 하던지 인재 건 저 안 거시기 대서 가따 가 쓰:러서 머끼 조캐 이러캐 뽕짱 머 저기 접씨애다 담:깁가 이래 이러캐 하구서, 여기서넌 인저 지:쌍 인재 다: 거더 치우구 평풍칭 거 건꾸 인재 이래서 가따 놀 때 가따 노쿠 인재 그라구 죽: 도라안자서루 그래 저기서 인재 노나서, 고기 이쓰 먼 고기대루 인재 쓸:구 머 저기면 적때루 이래 쓰:러서 모도 이래 죽: 가주 와유 접씨다. {그러면 음식하는 거 이제 저기로 나가서 하든지 이제 그건 저 안 거시기 되어서 갖다가 썰어서 먹기 좋게 그렇게 모두 뭐 저기 접씨애다 담든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는 이제 제상 이제 다 건어 치우고 병풍친 거 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을 때 갖다 놓고 이제 그러고 죽 돌아앉아서 그렇게 저기서 이제 나눠서, 고기 있으면 고기대로 썰고 머 적이면 적대로 이렇게 썰어서 모두 이렇게 죽 가지고 와요 접씨애다.}

10231 # 간장 머: 이렇 거 다: 가주구 술하구 또 저 머 술 머글 쫄 아느이는 머 두: 잔두

머꾸 머 암 멍느이는 한 잔두 암 머꾸. {간장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술하고 또 저 술 마실 줄 아는 이는 뭐 두 잔도 마시고 머 안 먹느이 이는 한 잔도 안 마시고.}

10231 # 그래 머 저: 제:사 음식기라능 개 구구해요요:. {그래 뭐 저 제사음식이라는 게 구구해요.}

10231 # 어:, 다: 다: 장만하면 다: 쓰 다: 써요, 다: 좋기여 그개. {어, 다 다 장만하면 다 써 다 써요, 다 좋은 거야 그개.}

10231 @ 예. {예.}

10231 @ 그개 음보칸할 그래능 거요? {그개음복한다 그러는 거요?}

10231 # 그러치 음뵈기지 그개. {그렇지 음복이지 그개.}

10231 @ 술, {술,} 10231 # 어: {어.} 10231 @ 다 끝나구 술, {다 끝나고 술,}

10231 # 야 야 그걸 음:보기라 구라드라구. {예 예 그걸 음복이라고 하더라고.}

10232 @ 그 제:사 음식근 주로 누가 맨드려요? {그 제사 음식은 주로 누가 만들어요?}

10232 # 그 머 맨드닝 거 따루 읍찌요 머:. {그 뭐 만드는 거 따로 없지요 뭐.}

10232 @ 아내서 만드나요? {안에서 만드나요?} 10232 # 어 어 으? {어 어 으?}

10232 @ 안 안 아내. {안 안 안에서.}

10232 # 그러치 머:, 그러쿠 인재 사다 주녕 거넌 인재 아내서두 사: 오년 수 이꾸 바뿌머넌 인저 남자덜두 가서 제:사 흥정 거시기 해서 뭐: 인재 살꺼럴 대충 인재 지배서 저거 가주구서 인재 가서 보머넌 일 사가주 오구 인재 그러치요. {그렇지 뭐, 그렇고 이제 사다가 주는 거는 이제 안에서도 사 오는 수 있고 바쁘면 이제 남자들도 가서 제사 흥정 거시기 해서 뭐 이제 살 것을 대충 이제 집에서 적어 가지고 이제 가서 보면 사가지고 오고 이제 그렇지요.}

10232 @ 아까 인재 사과 배: 머: 대:추 이렇 거 이르케 쫓 놓 거자나요? {아까 이제 사과 배 뭐 대추 이런 거 이렇게 죽 놓은 거잖아요?}

10232 @ 그렇 과일 사구 그지요? {그렇 과일 사고 그렇지요?}

10232 # 야 그러치요. {예 그렇지요.}

10232 @ 사과 배 감:. {사과 배 감.}

10232 # 지배 이씨면 인는대루 쓰구 읍씨면 사구. {집에 있으면 있는대로 쓰고 없으면 사고.}

10232 @ 생서는 어떻 걸 써요? {생선은 어떤 걸 써요?}

10232 # 생선 그개:: 모루거써, 저 생선 이저내 자:바넌 자:바넌 그거 저-거여 소그매 절궁 거 자:반. {생선 그개 모르겠어, 저 생선 이전에 자반은 그거 저거야 소금에 절인 거 자반.}

10232 @ 조기. {조기.}

10232 # 어: 그건 생서니 안 돼 아니자나. {어 그건 생선이 안돼 아니잖아.}

10232 # 생서넌 아니구 생선 써 우린 생서넌 안 써봐서 그건 애:길 모타견내유. {생선은 아니고 생선 써 우리는 생선을 안 써봐서 그건 애기를 못 하겠네요.}

10232 @ 저:기 저 저:기 어디여 안동. {저기 저 저기 어디야 안동.}

10232 # 예 안동. {예 안동.}

10232 @ 저: 부:산 이런대 가면 꿩: 무너를 써요. {저 부산 이런데 가면 꼭 문어를 써요.}

10232 # 무너? {문어?}

10232 @ 예:. {예.}

10232 # 아:. {아.}

10232 @ 근대 이쪽 내륙개서는 무너 안 쓰자나요. {그런데 이쪽 내륙에서는 문어 안 쓰잖아요.}

10232 # 어: 거기하구 여 거 여기하구 틀려요. {어 거기하고 여 거 여기하고 달라요.}

10232 @ 예:, 그래서 인재 여기서는 어떻 거 쓰는지 제가 여쭙 보능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깁서는 어떤 것을 쓰는지 제가 여쭙어 보는 거예요.}

10232 # 아이 진설하능 거뚜 여기하구 거 경상도하고 또 틀리드라구. {아이 진설하는 것도 어기하고 거기 경상도 하고 또 다르더라고.}

10232 @ 다르지요? {다르지요?}

10232 # 예 여기 여기 쥔설하구 나가 내가 거기 아랫넉 참 조상이 다: 기시마년 거기 시사애 가 보면 진설하능 거뚜 틀리유. {예 여기 여기 진설하고 내가 내가 거기 아랫넉에 참 조상이 다 계시지만 거기 시사에 가 보면 진설하는 것도 달라요.}

10232 # 거긴 다: 모라서 이러캐 해요. {거기는 다 몰아서 이렇게 해요.}

10232 # 지럼 지럼적-카면 지럼저개 미태서 포: 명태포면 명태포 이래구서버텀 미태서 명태포 노쿠서 우애 지럼저기구 우:루 올라가구 맨: 우애 또 저: 소:조기쓰면 소:죽 이렇 걸 해서 이리 이러:캐 이러:캐 꺾야 아주. {기름 기름적 하면 기름적에 밑에서 포 명태포면 명태포 이렇게 해서부터 밑에서 명태포 놓고 위에 기름적이고 위로 올라가고 맨 위에 또 저 소:죽 있으면 소:죽 이런 걸 해서 이리 이렇게 이렇게 꽤 아주.}

10232 @ 수부카개? {수복하게?}

10232 # 예:, 그리잉개 간단하지 머 여가 지:쌍이. {예, 그러니까 간단하지 뭐 여기가 제사상이.}

10232 @ 예. {예.}

10232 # 예. {예.}

10232 @ 떠:근 어떤 떠캐요? {떡은 어떤 떡해요?}

10232 # 여기년 여기년 경상도하구 틀리요:. {여기는 여기는 경상도하고 달라요.}

10232 # 여기는 떠기머 떠걸 하머년 편, 저기서두 애:기 해꾸면, {여기는 떡이면 떡을 하면 편, 저기에서도 애기 했구면,}

10232 @ 편떡. {편떡.}

10232 # 예, 편떠기유, 편떡. {예, 편떡이요, 편떡.}

10232 @ 절편 가통 거는 해요, 힌떠기나? {절편 같은 건 해요, 흰떡이나?}

10232 # 아이 절편두 해서 써요. {아이 절편도 해서 써요.}

10232 # 절편두 그 우:애 저기 그 편 꽤 논 우:애 거기 절편두 쓸 수가 이썬요 우:애다. {절편도 그 위에 저기 그 편 꺾어 놓은 위에 거기 절편도 쓸 수가 있어요 위에 다.}

10232 # 거 머: 음식기라 제 제사음시란 다소가 업썬요:. {거 뭐 음식이라 제 제사음식이란 다소가 없어요.}

10232 # 으, 근대 대: 대:추 밤: 배: 저: 꼬:감 그거년 그건 이썬야 디야. {으, 그런데 대 대추 밤 배 저 콧감 그거는 그건 있어야 돼.}

10232 # 그르닝개 주과:포여. {그러니까 주과포야.}

10232 # 술, 과, 포. {술, 과, 포.}

10232 @ 예. {예.}

10232 # 그래 주과폰대 해. {그래서 주과포인데 해.}

10232 # 주과포애 일종이여, 여기 어? {주과포의 일종이야, 여기 어?}

10232 # 포:는 저기 명태: 그거, {포는 저기 명태 그거,}

10232 # 어:. {어.} 10232 @ 말링 거 그 저 ** 항 거자나요? {말린 거 그 저 **한 거잖아
요?} 10232 # 그 그 그거뚜 쓰구 인재:. {그 그 그것도 쓰고 이제.}

10232 # 그러치 지금 마냐 그거 쓰는데 잘하너이던 참 무너 무너포두 쓰구: 으 상어포두
쓰구 그래요. {그렇지, 지금 많이 그거 쓰는데 잘하는 이는 참 문어 문어포도 쓰
고 으 상어포도 쓰고 그래요.}

10232 # 또 미너, 미너 미너라능 거 봉어크치 생깁 거 또 하 이써 그릉 거뚜 쓰구. {또 민
어, 민어 민어라는 거 봉어같이 생긴 거 또 하 있어 그런 것도 쓰고.}

10232 # 근대 이 기지사애는 그릉 거 다: 모: 써요, 모: 쓰고 참 큰 시사 우때: 그 저 종무
리나 만:쿠 그런 지사애넌 다: 그러캐 써유, 그걸루. {그런데 이 기제사애는 그런
거 다 못 써요, 못 쓰고 참 큰 제사 윗대 그 저 종물이나 많고 그런 제사애는 다
그렇게 써요, 그것으로.}

10232 # 개 다: 다: 할 쭈가 업써:. {게 다 다 할 수가 없어.}

10232 @ 옛날하구 제사지내능 거뚜 마니 달라져쨌요? {옛날하고 제사지내는 것도 많이 달
라졌지요?}

10232 # 달라지구 말고요 지금. {달라지고 말고요 지금.}

10232 @ 어티개 달라져쨌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10232 # 아이 달라지닝 개 머 그 당궁 거 우꾸 저: 사내 가 지대 지내딩 거, {아이 달라지
는 게 뭐 그 다른 거 없고 저 산애가 지내 지내딘 거,}

10232 # 거 지구 갈 싸라미 이써 사내: {거 지고 갈 사람이 있어 산애?}

10232 @ 예예:. {예.}

10232 # 그런 사람더리 움쓰닝개 전부, 큰 제사 저 제시리 이쓰면 제시리 인재 그 으관 저
기 거 제:사 제당이 이짜나 건대 거런대 거기서 지내구.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전부, 큰 제사 저 제실이 있으면 이제 그 의관 저기 거 제사 제당이 있잖아 그런
데 그런데 거기서 지내고.}

10232 # 그런두: 또 읍:써 시사 올리넌 산소가 있으면 기양 지배서 여기서 방안짜사 지내
능 거마냥 그러캐 저기만 저: 위패만 써 노쿠서루 부치구 그르카구 지내구 말:지
머. {그런데도 또 없이 시사 올리는 산소가 있으면 그냥 집에서 여기서 방안 제사
지내는 것마냥 그렇게 저기만 저 위패만 써 놓고서 붙이고 그렇게 하고 지내고 말
지 뭐.}

10232 # 근대 거기넌 시사지내넌 데넌 고괴 읍써요. {그런데 거기는 시사지내는 데는 곡이
없어요.}

10232 # 거 고기 우:꼬: 구보기라고: 다: 이러개 다: 할 께 다: 해 노쿠선 땡짱 이러캐 업
띠리서루 한참 이러캐 이러캐서루 기다려. {거 곡이 없고 구복이라고 다 이렇게
다 할 것 다 해 놓고서 모두 이렇게 엎드려서 한참 이렇게 이렇게 기다려.}

10232 # 조용:하개 잡쭈라구. {조용하게 잡수시라고.}

10232 # 그래 구:보기라 구리야 그걸. {그래서 구복이라고 그래 그걸.}

10232 # 저 몰라 저 우리 경상도애선 그걸 그르캐 해여. {저 몰라 저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

10232 # 그걸 구:보기라 구리야. {그걸 구복이라 그래.}

10232 @ 여기서는 어트개 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10232 # 여기서넌 머 시사에 나무 시사에 가보덜 안해서 몰루거써요 건 어. {여기서는 뭐 시사에 남의 시사에 가보지를 안해서 모르겠어요 그건 어.}

10232 # 으 우리 나넌 황가라 김씨내 시사지내넌 대넌 앙 가바서 잘 몰루거써. {으 우리 나는 황가라 김씨네 시사지내는 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10232 @ 할아버지 아주 자세히 마니 아시내요. {할아버지 아주 자세히 많이 아시네요.}

10232 @ 저는 이르키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부늘 함 번두 모 빠꺼튼요. {저는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주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10232 # 아이구 머 다: 남 하는 소리 드꾸서만 이러개 지꺼리구 남 또 뵈 스넌 데 가서 귀경해끼 또래 그 귀경한 대루 그런대 지끄리능 거지 아무거뚜 배웅 거뚜 읍써요. {아이고 뭐 다 남 하는 소리 듣고만 이렇게 지껄이고 남 또 묘 쓰는 데 가서 구경했기 때문에 그 구경한 대로 그런대 지껄이는 거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어요.}

파일 번호: 05

SCB_BE_05

파일 내용: 제1편 구술발화: 1.3. 생업활동-1.3.1. 논농사(쟁와 쟁기질), 1.2 일생의례-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제보자의 조상.)

조 사 자: 박경래(1958년 2월 17일생)

제 보 자: 황종연(黃鐘淵, 1924년(甲子年)생, 男, 86세, 쥐띠, 무학 한글 해독, 서당에서 천자문 학습, 농업)

보조 제보자:

전 사 자: 홍현화, 박경래

주 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296번지

조 사 장 소: 제보자의 집

조 사 일 시: 2009년 8월 2일

1.3 생업 활동

1.3.1. 논농사(쟁기와 쟁기질)

10302 # 그거 인재 지:드랑 개 그 성엔데 성애가 짤라. {그거 이제 기다란 게 그게 성엔데 성애가 짧아.}

10302 # 요만히야. {요만해.}

10302 # 이런데 아:주 요러케 오가, 그 나리. {이런데 아주 요렇게 옥아, 그 날이.}

10302 # 으 나리 오근대 여이 여이 수레 이기 이기 수리여, 여기 수린대 여기 더빠 더뺑이가 드르가짜나. {으 날이 옥은데 여기 여기 술에 이게 이게 술이야, 여기가 술인데 여기 덧뺑 덧뺑이가 들어갔잖아.}

10302 # 여기 여 흑쟁이 그 날 날 우:애 더뽕이 드르가 거기. {여기가 여 극쟁이 그 날 날 위에 덧뽕이가 들어가 거기.}

10302 # 거 사지내 이짜너. {거기 사진에 있잖아.} 10302 @ 쪼끄망 거 예. {조그만한 것 예.} 10302 # 어:. {어.}

10302 @ 그걸 더뽕이라 그래요? {그걸 덧뽕이라고 해요?}

10302 # 야:. {예.}

10302 # 그거릴 내가 저: 하쳐내 그 떼짱당이 바설 가를 가라 가주서 해 머글라고 그걸 으:더다 써 바:써요. {그것을 내가 저 하천에 그 떼장당이 받을 갈려(고) 갈아 가지고 해 먹으려고 그걸 얻어다 써 봤어요.}

10302 # 으더다가 인저 소 함 바리 메워 가주구서루 해: 보닝께 그 툼잔대기 바태두 자관 이러케 거 떼잔대미만태 이기 드르가기만 하만 막 이 가라저. {얻어다가 이제 소 한 바리 메워 가지고 해 보니까 그 떼잔당이 발에도 좌우간에 이렇게 그 떼잔당이 한테 이케 들어가기만 하면 막 이(게) 갈아져.}

10302 # 흐하하. {흐하하.}

10302 # 소년 심드르긴 심드년대 으 흑쟁이루는 모: 까라, 이 우리 지금 저 흑쟁이루는 모: 까라 그릉 걸, 야:. {소는 힘들기는 힘드는데 으 극쟁이로는 못 갈아, 이 우리 지금 저 극쟁이로는 못 갈아 그런 것을, 예.}

10302 # 그걸 내 그때 함 번 쪼끔 써 바:써요. {그걸 내가 그때 한 번 조금 써 봤어요.}

10302 @ 그거 그거뚜 그림 종류가 여러 가지내요 그: {그거 그것도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내요?}

10302 # 그러치 머:. {그렇지 뭐.} 10302 @ 지영마다, {지역마다.}

10302 @ 쫌 다르구: 모양두 다르구:, {쫌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10302 # 음:. {음.}

10302 # 그래 그걸 강원도선 따:비라 구라드라구 따:비. {그래 그걸 강원도에서는 따비라 그러더라고 따비.}

10302 @ 예:. {예.}

10302 @ 함 마리가: 함 소 함 바리가 끄능 거는, {한 마리가 한 소 한 마리가 끄는 것은,}

10302 # 호리. {호리.}

10302 @ 호리. {호리.}

10302 # 어:. {어.}

10302 # 호리라 구라드라구 또. {호리라고 그러더라고 또.}

10302 @ 두: 바리가 끄능 거는, {두 마리가 끄는 것은,}

10302 # 쌍경이라고 하고. {쌍경이라고 하고.} 10302 @ 쌍경. {쌍경.} 10302 # 으:. {으.}

10302 # 갈: 경짜. {갈 경자.}

10302 @ 예. {예.}

10302 # 갈 경짜라구 이찌유? {갈 경자라고 있지요?}

10302 @ 예: 예. {예 예.}

10302 # 그 그거 쌍경이여. {그 그게 쌍경이야.}

10302 # 그른대 나 그건 보덜 모태년대 사 이러케 비야리 지자나요? {그런데 나는 그건 보지를 못 했는데 사 이렇게 비탈이 지잖아요?}

10302 # 바시라능 게 저: 산 산삐알 산 산전때가 그러커덩. {밭이라는 게 저 산 산비탈 산

산전떼기가 그렇거든.}

10302 # 이러케 아래 우:루 소가 가는대: 우애 우애 쏘넨 노프닝께 무루벌 풀룬다내요.
{이렇게 아래 위로 소가 가는데 위에 위에 소는 높으니까 무릎을 꿇는다네요.}

10302 @ 네에:. {예.}

10302 # 이러캐서 업떠리서 기: 간디야. {이렇게 해서 옆드려서 기어 간대.}

10302 @ 아: 우애 꺼요. {아 위에 거요.}

10302 # 예 지폰대 인녕 건 서서 이러케 , {예 깊은데 있는 건 서서 이렇게,} 10302 @
그냥 서서 가구, {그냥 서서 가고,} 10302 # 어:. {어.}

10302 # 여기 여 멩애릴. {여기 여 멩애를.}

10302 # 멩애가 이래 이래 고든 멩애여. {멩애가 이렇게 이렇게 곧은 멩애야.}

10302 # 으 작떼기, {으 작대기,} 10302 @ 일 일짜루 땡 거. {일 일자로 된 거.}

10302 # 야:: 일짜루 땡 거. {아 일자로 된 거.}

10302 @ 여기 꺼는 이러:캐, {여기 컷은 이렇게,}

10302 # 그러치. {그렇지.}

10302 @ 구버짜나요? {굽었잖아요?}

10302 # 어: 거기서 끈만 해서 모가지루 이러캐서 이짜개 걸:머넨 그 소 메웅 기여. {어
거기서 끈만 해서 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걸면 그게 소를 메운 거야.}

10302 # 메웅 거구, 인재 가운데 이르캐 인재 이러캐 이러:캐 징: 개 작떼기가 하나 이래
나가 나가:, 작떼기가. {메운 거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긴 게
작대기가 하나 이렇게 나가 나가, 작대기가.}

10302 # 가운데 인재 소하구 소하구 췌재기. {가운데 이제 소하고 소하고 사이(예).}

10302 @ 예:. {예.}

10302 # 작떼기가 하나 이췌 인재 이걸 저:기다 인재 이러캐서 연결리 해는데, {작대기가
하나 있어 이제 이걸 저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데,}

10302 # 그 이기 무루벌 풀러 풀:룬다 구리야 거기 싸람더리, 우애 꺼넨. {그 이게 무릎을
꿇어 꿇는다고 그래 거기 사람들이, 위에 컷은.}

10302 @ 예:. {예.}

10302 # 또 미 저기서 인재 가 올 나가따가서 들어올 찌개는 또 미턴 누매 인재 우:루 올
라가쓰닝께 또 그누미 또 무루벌 꾸꾸. {또 미 저기에서 이제 가 올 나갔다가 들
어올 적에는 또 밑에 놈이 이제 위로 올라갔으니까 또 그놈이 또 무릎을 꿇고.}

10302 @ 예:. {예.}

10302 # 하. {하.}

10302 # 그르캐 간:다 구리야, 어:. {그렇게 간다 그래, 어.}

10302 @ 아이구 그러면 소가 힘들지요? {아이고 그러면 소가 힘들지요?}

10302 # 힘들지 머. {힘들지 뭐.}

10302 # 아: 이른 바우두 큰:: 바우두 막 거기 다갈리기만 하넨 막 그 알루 곤두박질릴 해
래:서 인재 떠너리 가고 그래넨데. {아 이런 바위도 큰 바위도 막 거기 다갈리기
만 하면 막 그 아래로 곤두박질을 해서 이제 떠내려가고 그러는데.}

10302 # 또 궁구러 가고. {또 굴러 가고.}

10302 @ 그거는 가:는 사람두 잘 가라야 되겐내요? {그것은 가는 사람도 잘 갈아야 되겠
네요?}

10302 # 그럼요:. {그럼요.}

10302 @ 그 그 저기 멍애에서 이러:캐 저기 쟁기루: 그 꼬니 인능 개 그개 보쭈링가요?
 {그 그 저기 멍애서 이렇게 저기 쟁기로 그 끈이 있는 게 그개 붓줄인가요?}

10302 # 보쭈. {붓줄.}

10302 @ 예:. {예.}

10302 # 보쭈 저기 지금 저: 보쭈 지금 달르 달려 가쭈 이썬요. {붓줄 저기 지금 저 붓줄
 지금 달려 달려 가지고 있어요.}

10302 @ 예:. {예.}

10302 # 달리 가쭈 이썬, 예. {달려 가지고 있어, 예.}

1.2 일생의례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제보자의 조상.)

10201 # 우리 아번님 호:여 호. {우리 아버님 호요 호.}

10201 # 춘짜 포짜. {춘자 포자.}

10201 @ 춘짜 포짜구. {춘자 포자고.}

10201 @ 의짜 배:짜. {의자 배자.}

10201 # 의짜 배:짜. {의자 배자.}

10201 @ 음:. {음.}

10201 # 어:. {어.}

10201 # 의짜가 항 항렬짜요. {의자가 항 항렬자요.}

10201 @ 예:. {예.}

10201 # 으: 나넌 몬 연짜 고 미태 몬: 연짜구. {으 나는 못 연자 고 밑에 못 연자고.}

10201 # 또 내 미트루넌 저: 어지린짜가 돌림짜구. {또 내 밑으로는 저 어질 인자가 돌림
 자고.}

10201 @ 예:. {예.}

10201 # 또 어지린짜 미태넌 여림 하:. {또 어질 인자 밑에는 여림 하.}

10201 # 어 저기 저기 다: 족 우리 족뽕유 저기 호호. {어 저기 저기 다 족 우리 족보요
 저게 호호.}

10201 # 우리 방촌 할아버지 이십삼대손- 인테 우리 우리 파루만 해 와썬요, 저기. {우리
 방촌 할아버지 이십삼대손인데 우리 우리 파로만 해 왔어요, 저기.}

10201 @ 예:. {예.}

10201 # 장수 황씨 **. {장수 황씨 **.}

10201 @ 본이 장수시고. {본이 장수시고.}

10201 # 예: 장수유. {예 장수요.}

10201 # 그 장수 인재 그 하라부지 회짜 그: 하라부지가 그 장수에서로: 저기 기:시다가서
 로, {그 장수 이제 그 할아버지 회자 그 할아버지가 그 장수에서 저기 계시다가,}

10201 # 그 세:종대왕 때 하:이 그 정치릴 그 안 되고 하닝께로 어너 신하가 그 가만 그
 저: 으: 황회 그 으:러니 기:시는데 그 으:러는 이 와야 정치릴 한다 그라닝께, {그

세종대왕 때 하도 그 정치가 안 되고 하니까 어느 신하가 그 가만 그 저 으 황희
그 어른이 계시는데 그 어른이 와야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10201 # 세:종대왕이 신할 보내 가주서로 가 모셔 오라 구래서 그런대 아이 앙 간다 구라
닝개로 아: 머 어거지로 자:꾸 가자 구래서 따라가시썸다는데, {세종대왕이 신하를
보내 가지고 가 모셔 오라고 그래서 그런대 아이 안 간다 그러니까 아 머 어거지
로 자꾸 가자고 그래서 따라가셨다는데,}

10201 # 그래 예레덜 패럴 으:, {그래서 열여덟 해를 으,}

10201 # 진: 양짜 물 썬짜. {진 양자 물 수자.}

10201 @ 예. {예.}

10201 # 소:유 소:윤공파지요? {소윤 소윤공파지요?}

10201 # 어 어 소:윤공. {어 어 소윤공.}

10201 # 즈:글 쏘짜 만윤짜. {작을 소자 만 윤자.}

10201 @ 예. {예.}

10201 # 귀 공짜루 해서 **. {귀 공자로 해서 **.}

10201 # 그래서 삼: 정성얼 다: 하시썸요. {그래서 삼정승을 다 하셨어요.}

10201 @ 예. {예.}

10201 # 영이정 좌이정 우이정 세: 정 삼 정성얼 하시썸 그 으:러니. {영의정 좌의정 우의
정 세 정 삼정승을 하셨어 그 어른이.}

10201 @ 예:. {예.}

10201 @ 아주 유:명하신 분이지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지요.}

10201 # 아: 으— 저: 저 우리 하 저 시조 중시 중시조여. {아 으 저 저 우리 하 저 시조
중시 중시조야.}

10201 # 그 우루두 뎌 때가 인: 기시는데 다: 차떨 모티야. {그 위로도 몇 대가 있(는데)
계시는데 다 찾지를 못해.}

10201 @ 예:. {예.}

10201 # 황 경히라구 하는 으:러니 저 우뎌대 그 으:런도 저기 차떨 모테요. {황경희라고
하는 어른이 저 뉘대인데 그 어른도 저기 찾지를 못해요.}

10201 # 저기 인재 중신 거기서버텀 배긴 모:때요. {저기 이제 중시(조) 거기부터 밖에는
못되요.}

10201 # 여러 대가 우애 기:시넌대. {여러 대가 위에 계시는데.}

10201 # 월래는 그 물락짜 물락짜 외자 이러미신대 츠:매 황 저: 우리 시조가, {원래는 그
물 낙자 외자 이름이신데 처음에 황 저 우리 시조가,}

10201 # 거 우리 아:는대루 인재 중시조 인재 거기서버텀 대 나와유. {거 우리 아는대로
이제 중시조 이제 거기서부터 대 나와요.}

10201 @ 예. {예.}

10201 # 게 머 버벌 영이정 지내실 썬개 그른 버블 해:썸때요. {그래 뭐 법을 영의정 지내
실 적에 그런 법을 했었대요.}

10201 # 그 과:부더럴 과:부더리 하:두 난자과개 하니개로 과:부 고만 시집 모까개 하능 걸
버블 내:썸, 내가 드른 마래. {그 과부들을 과부들이 하도 난잡하게 하니까 과부
그만 시집 못 가게 하는 걸 법을 내었어, 내가 들은 말에.}

10201 @ 예:. {예.}

10201 # 그래여 머: 따끄만 머머 거시기지 머:. {글애야 뭐 따끔한 뭐 뭐 거시기지 뭐.}

10201 # 과:부더리 머 부당 모:타구. {과부들이 뭐 부당 못하고.}

10201 # 그 기기 그랜는대. {그 그게 그랬는데.}

10201 # 그래 그: 우리 중시조 저: 께서 마릴 타고 이래 가시년대 거 말꾸 말짜우개 머 피
가 다 매쳐떠라구 그른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 우리 중시조께서 말을 타고 이래
가시는데 거 말 말자국에 뭐 피가 다 맺혔더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

10201 @ 예:. {예.}

10201 # 나와 드러썰요. {나와 들었어요.}

10201 # 하도: 원한이 대:서 과:부더리 눈무럴 흘린 그 피가 돼 가주서 눈물 흘린 피가
돼:. {하도 원한에 돼서 과부들이 눈물을 흘린 그 피가 되어 가지고 눈물 흘린 피
가 되어.}

10201 # 그래서 아이고 애 내가 안 되거따 이르캐서 이 버벌 풀러 봐야지 안 되거따. {그
래서 아이고 애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법을 풀어 봐야지 안 되겠다.}

10201 # 그래서 그걸 그건 풀러 봐:때요, 나:중애:. {그래서 그걸 그건 풀어 났대요, 나중
애.}

10201 @ 예:. {예.}

10201 # 저: 경북 어디 저: 그 으른 쓰신 그 유물가기 또 이썰요, 여 경북개. {저 경북 어
디 저 그 으른 쓰신 그 유물각이 또 있어요, 여기 경북애.}

10201 @ 예:. {예.}

10201 # 유물가긴대 거긴 내가 모: 까 바썰요. {유물각인데 거기는 내가 못 가 봤어요.}

10201 # 모: 까 받는데. {못 가 봤는데.}

10201 # 그 애:길 모티야. {그 얘기를 못해.}

10201 @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10201 # 경:북. {경북.} 10201 @ 인는지는 아:시
구? {있는지는 아시고?}

10201 # 여기 족보애 족보엔 다: 이는데 한:참 차자두 머:. {여기 족보애 족보애는 다 있는
데 한참 찾아도 뭐.}

10201 @ 예: {예.}

10201 # 잘 모: 차자요. {잘 못 찾아요.}

10201 @ 아주 할아버니미 총기도 조으시고: 또 아:는 거뚜 마:느시고: 그래 가지고 여쭙
보능 개 참 제가 여쭙 보면서 마:능 걸 배워썰요. {아주 할아버님이 총기도 좋으
시고 또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그래 가지고 여쭙어 보는 게 참 제가 여쭙어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10201 # 드꾸서 하능 얘기, 이거 이거 한 쪽 더 드르세요, 몽말라. {듣고서 하는 얘기, 이
거 이거 한 쪽 더 들으세요, 목말라.}

10201 # 으: 아이 교 교수님 으 드르세요. {으 아이 교 교수님 으 들으세요.}

파일 번호: 06

SCB_BE_06

파일 내용: 제1편 구술발화: 1.3. 생업 활동-1.3.2. 가을걷이와 겨우살이(자리매기), 1.3.1.
논농사

조 사 자: 박경래(1958년 2월 17일생)

제 보 자: 황종연(黃鐘淵, 1924년(甲子年)생, 男, 86세, 취미, 무학 한글 해독, 서당에서 천자문 학습, 농업)

보조 제보자:

전 사 자: 홍현화, 박경래

주 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296번지

조 사 장 소: 제보자의 집

조 사 일 시: 2009년 8월 2일

1.3. 생업 활동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자리매기)

10323 @ 본 저기 이꺼든요. {본 적이 있거든요.}

10323 # 어: 그런데 그거를 누가 빌리 달래서로 가주 가썸. {어 그런데 그것을 누가 빌려 달래서 가지고 갔어.}

10323 # 저: 아래 똥내 아래 똥내서. {저 아래 동네 아래 동네에서.}

10323 @ 머:틀요? {뭐틀요.}

10323 # 요:만한 씨, 씨고드래뜰. {요만한 쇠, 쇠고드랫돌.}

10323 @ 아: 췌고드래뜰. {아 쇠고드랫돌.}

10323 # 어: 그걸 빌리 가썸. {어 그걸 빌려 갔어.}

10323 # 그거릴 귀경 하 시키디리만 하는데 그걸 빌리 가서로... {그것을 구경 하 시켜 드리면 하는데 그것을 비려 가서...}

10323 # ㅎㅎ 지금 지배 우:꼬:. {ㅎㅎ 지금 밭에 없고.}

10323 # 자리 매: 농 거년 여기 이썸. {자리 매 놓은 것은 여기 있어.}

10323 @ 저개 무슨 푸리에요 그러면? {저게 무슨 풀이에요, 그러면?}

10323 # 떠푸리라고, {떠풀이라고,} 10323 @ 예. {예.} 10323 # 떠푸리라고 저개 떠가 마:니 번 저기 번 번 저길 해여 버더:. {떠풀이라고 저게 떠가 많이 번 저기 번 번 저길 해 번어.}

10323 # 그라구 매디가 읍씨 이러캐 커요 저기. {그리고 마디가 없이 이렇게 커요, 저게.}

10323 # 그래서 그걸 비어 가주서 이:전 으:런덜-리 제:서걸 저걸로 해 제:석. {그래서 그것을 베 가지고서 이전에 어른들이 제석을 저것으로 해 제석.}

10323 @ 예:. {예.}

10323 # 인재 혼:관 인재 저:: 집싸 인재 서넌 자리. {이제 현관 이제 저 집사 이제 서는 자리.}

10323 @ 저거 아:무대서나 볼 쥬 이썸요? {저거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어요?}

10323 # 아니 아무대나 안 안 나요 저기. {아니 아무 데나 안 안 나요 저게.}

10323 # 나는 대만 거시기 이썸. {나는 대만 거시기 있지.}

10323 @ 어디 사내 이썸요? {어디, 산에 있어요?}

10323 # 사내도 인넌 대가 이꼬 인재 저 논뚝-그튼대 저런 질까애 그 호니 그런 대가 이

썩. {산에도 있는 데가 있고 이제 저 논둑 같은데 저런 길가에 그 흔히 그런 데가 있지.}

10323 @ 저 말려 노:니까 잘 모:르게썩요. {저 말려 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10323 # 예 요거 인재 저기 인재 새:파란데 말르면 변:질돼요 또. {예, 요거 이제 저기 이제 새파란데 마르면 변해요 또.}

10323 # 으: 참 누르름:하개 이르케 변지리 디야. {으 참 누르름하게 이렇게 변하게 돼.}

10323 @ 예:. {예.}

10323 # 예:. 지그먼 새:파란데. {예, 지금은 새파란데.}

10323 # 어제 어제 지넉 때 저:: 너매 저기 대곡 성대곡 선생님 비가기따구 해짜나? {어제 어제 지넉 때 저 념에 저기 대곡 성대곡 선생님 비각 있다고 했잖아?}

10323 @ 예. {예.}

10323 # 그: 나라가머넌 거기 줌 그저내 이썩서루 거길 가뜨니, 아이구 머 푸리 우기저서 모:또라 땡기여. {그 내려가면 거기 줌 그전에 있어서 거길 갔더니, 아이고 뭘 풀이 우거저서 못 돌아 다녀.}

10323 # 그래 우티개 뚜꾸 드러가서 향 군대 보닝개 조꿈 이뜨라고요. {그래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한 군데 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10323 # 그래서 저걸 어제 해 와썩요. {그래서 저걸 어제 해 왔어요.}

10323 @ 저걸루다가 인재 제 제:사 지넉 때 아패... {저것으로 이제 제 제사 지넉 때 앞에...}

10323 # 예예 까는 지시썩 자리. {예예 까는 제석자리.}

10323 @ 아: 그래서... {아 그래서...}

10323 # 으: 가만 가만 가만 이썩바. 내 그거 자리 구경 줌 시키 디리께. {으 가만 가만 가만 있어봐. 내 그거 자리 구경 줌 시켜 드릴게.}

10323 # 귀두 움녕 걸 그냥... {귀도 없는 걸 그냥.}

10323 # 선님께서 ****를 하신는데 참 선님께서... {선친께서 ***를 하셨는데 참 선친께서...}

10323 @ 할아번님이 매:신 거요? {할아버님이 매신 거요?}

10323 # 예: 이진 내가... {예 이진 내가...}

10323 @ 아우:: 그거 하나하나 하나:... {아우 그거 하나하나 하나...}

10323 # 아이 향 향 개가 드러강 개 아니여 이기. {아이 한 한개가 들어간 게 아니야 이게.}

10323 # 가능 거넌 시: 개가 드러강 거뚜 이꾸, 굴근 누문 두: 개 드렁강 거뚜 이꾸. {가는 것은 세 개가 들어간 것도 있고, 굵은 놈은 두 개 들어간 것도 있고.}

10323 @ 예:. {예.}

10323 # 그 그르캐서 향 건대. {그 그렇게 해서 한 건데.}

10323 # 머 이거 머 혼:관 여기 안저서 저 잔 올리구 그라넉 건 지:러두 별수 우꺼덩. {머 이거 머 현관 여기 앉아서 저 잔 올리고 그러는 것은 길어도 별수 없거든.}

10323 @ 네:. {예.}

10323 # 요런 방애두 요기 제:쌍 노머넌 요기 나마:. {요런 방에도 요기 젓상 놓으면 요게 남아.}

10323 @ 네:. {예.}

10323 # 내미 가주 가서 인재 어디 사당이나 향교 그턴대 까넌덴 머 참 지:릉 기 조:치.
 {남이 가지고 가서 이제 어디 사당이나 향교 같은데 까는데 뭐 참 긴 것이 좋지.}

10323 # 우린 기지사애 때 쓸 쓰느라구요. {우리는 기제사에 때 쓸 쓰느라고요.}

10323 # 지금 저 백 쌀, 와 요 저내 오시서 왜 저짜개 왜... {지금 저 백 쌀, 왜 요 전에
 오셔서 왜 저쪽에 왜...}

10323 @ 예:. {예.}

10323 # 모시구 가씨짜너, 그 어:른두 귀가 어두워. {모시고 갔었잖아, 그 어른도 귀가 어
 두워.}

10323 @ 네:. {예.}

10323 # 그 여 데리구 간 이가 내 외:사추니여. {그 여 데리고 간 이가 내 외사촌이야.}

10323 @ 예:. {예.}

10323 # 둘:째 째 둘째 외삼촌-내 아더리여. {둘째 째 둘째 외삼촌네 아들이야.}

10323 @ 네:. {예.}

10323 # 그래 그 양반 둘:째 형이 지금 사라 기:시는대 백 백- 두 사리여 오래. {그래 그
 양반 둘째 형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백 백 두 살이야 올해.}

10323 @ 네:. {예.}

10323 # 그 으:르니 이거덜 매시머넌 우래 해는 이거 거기 따라가덜 모:티야. {그 어른이
 이것을 매시면 우리 것은 이거 거기 따라가지를 못해.}

10323 # 어티개 숨씨가 조은지 하하하하하. {어떻게 숨씨가 좋은지 하하하하하.}

10323 @ 이거 잘: 만드런는대요? {이거 잘 만들었는대요?}

10323 # 예:, 그 어:르니 이:저내 저 사랑애 사랑방 아니여, 그저내. {예, 그 어른이 예전에
 저 사랑애 사랑방 아니야, 그전에.}

10323 # 지그문 경노당이지만 그저넌 사랑인데... {지금은 경로당이지만 그전에 사랑인
 데....}

10323 # 인재 그 사:춘되지 저기 그 사랑애. {이제 그 사촌되지 저기 그 사랑애.}

10323 # 사:춘 되는 양반덜 사랑인데 꼴썬. {사촌 되는 양반들 사랑인데 꼴썬.}

10323 @ 네:. {예.}

10323 # 그 저: 예:저넌 출가하는 저: 새신부덜... {그 저 예전에는 출가하는 저 새신부
 들...}

10323 @ 예:. {예.}

10323 # 예:저내 신 우꾸 할 찌개 그 때 싱:꾸 가능... {예전에 신 없고 할 적에 그 때 신
 고 가는...}

10323 # 으으 어:, 고령 거덜 맨드러시넌대 {으으 어, 그런 것을 만드는데}

10323 # 참:: 이뿌개 잘 맨드러써유. {참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10323 # 지금 그렇 거덜 하마 향 커리 그 어르니 그 사무머넌 아마 심마닐 달란대두 그거
 누가 보구서 사갈 꺼유. {지금 그런 것을 아마 한 켄레 그 어른이 그 삼으면 아마
 십만 원 다라고 해도 그거 누가 보고서 사갈 거요.}

10323 @ 네. {예.}

10323 # 이런대다 노쿠서루 이러캐 저: 견보누루다가 어 그른대. {이런데다 놓고서 이렇게
 저 견본으로다 어 그른데.}

10323 # 그 맨드는 기구가 다: 인재 읍써저써요:. {그 만드는 기구가 다 이제 없어졌어요.}

10323 # 사:람 늘그닝께 그거뚜 다: 고만 스:사루 읍써지고 ㅎㅎ. {사람 늙으니까 그것도 다 그만 서사로 없어지고 ㅎㅎ.}

10323 # 그래 그러케 하신 으:르니여 그기. {그래 그렇게 하신 어른이야 그제.}

10323 # 둘:째 둘째 그: 둘:째 으르는 양 가보시쓸꼐? {둘째 둘째 그 둘째 어른은 안 가보셨을겠?

10323 @ 몯: 뽕써요. {몯 뽕었어요.}

10323 # 몯: 뽕찌. {몯 뽕었지.}

10323 # 바로 고 여페 그 스라버집 잘:: 진 집. {바로 고 옆에 그 슬라브집 잘 니은 집.}

10323 @ 아:. {아.}

10323 # 어 거기 거기 기시여. {어 거기 거기 게서.}

10323 # 그 테루... {그 테리고...}

10323 @ 정정하싱가요? {정정하신가요?}

10323 # 어 테리구 가니 아버지여. {어 테리고 간 이 아버지여.}

10323 @ 예:. {예.}

10323 # 그저 지팽이 지꾸 여 한:대 와따가따 하새유 지금. {그저 지팽이 짚고 여기 한데 왔다갔다 하세요 지금.}

10323 @ 지금두요? {지금도요?}

10323 # 예: 허허허. {예, 허허허.}

10323 # 손자더리 저 사내 가서 나무 해다 이러케 저기 요망큼씩 꼬너다 인재 이르케 노:먼, 안자서 이르케 타:탁 때리서루 죄: 그 쪼개서 때유. {손자들이 저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이렇게 저기 요만큼씩 끊어다가 이제 이렇게 놓으면 앉아서 이렇게 탁탁 때려서 죄 그 쪼개서 때요.}

10323 # ㅎㅎ 하하하. {ㅎㅎ 하하하.}

10323 @ 아:, 정정하시내유. {아, 정정하시네요.}

10323 # 어 그런대 머: 테리비 나오능 거 들면 뽕열뚜 살 머근 니두 난 이따고 하고 그리드라고요. {어 그런데 머 텔레비전 나오는 것 틀면 뽕열두 살 먹은 이도 난 있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10323 # 할머니더라구 그: 보닝께 함 번. 으: 근대. {할머니더라고 그 보니까 한 번. 으 그런데.}

10323 # 그러케 참 오래 사르니 기저기여. {그렇게 참 오래 사니 기적이며.}

10323 @ 그럼요. {그럼요.}

10323 # 기저기여. 우리 전구개서두 인재 그런 이가 한둘:- 리지 그러케 마니 오래 산: 양바니 읍쓸 꼐루 **기여. {기적이며. 우리가 전국에서도 이제 그런 이가 한둘이지 그렇게 많이 오래 산 양반이 없을 겐로 **이며.}

10323 @ 이 동네가 장:수마을인가 봐요:. {이 동네가 장수마을인가 봐요.}

10323 # 아: 장:수마으리요. {아 장수마을이요.}

10323 @ 대부분 다 장:수하시는데요? {대부분 다 장수하시는데요?}

10323 # 마:니 저 연 연고한 사람더리 지금두 뽕 쪼 이써요, 으:. {많이 저 연 연고한 사람들이 지금도 몇 집 있어요, 으.}

10323 # 구십 그저 구십 녁:꾸 백 쌀 된 양바넨 그 그 으:른, 너문 양바는 그 으:른 함 부니고. {구십 그저 구십 녁고 백 쌀 된 양반은 그 그 어른, 녁은 양반은 그 어른

한 분이고.}

10323 @ 예:. {예.}

10323 # 그 아니두 그냥반 동개비 여자두 이꾸 남자두 이꾸 그런대 머 다: 도라가시구 이
어:른 하나만 지금. {그 아니어도 그냥반 동갑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런데
뒤 다 돌아가시고 이 어른 하나만 지금.}

10323 # 젤: 연고한 양바니 그 어르니요. ㅎㅎ. {제일 연고한 양반이 그 어르니요. ㅎㅎ.}

10323 @ 으음. {으음.}

10323 # 바로 우리 어머니 둘:째 동생이여, 어머니한테. {바로 우리 어머니 둘:째 동생이야,
어머니한테.}

10323 @ 예:. {예.}

10323 @ 그러며는 그 위에 저기 어머님 형제가 마:느션나 보내요? {그러면 그 위에 저기
어머님 형제가 많으셨나 봐요?}

10323 # 어머니미 젤: 마지시고 딸루. {어머님이 제일 만이하시고 딸로.}

10323 @ 아:. {아.}

10323 # 딸로 마지시고 인재 아더런, 인재 아덜 동생 아덜로 동생언, 여기 인재 젤 큰 지
아집 인재 그 그냥바니 종소니지. {딸로 만이시고 이제 아들은, 이제 아들 도생
아들로 동생은, 여기 이제 제일 큰 기와집 이제 그 양바니 종손이지.}

10323 @ 네. {예.}

10323 # 우리 어머니가 남자 돼:씨면 우리 어머니가 종소닌대 여자라 인재 참 나무 지배
우리 아버지한테루 출가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남자 되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종
손인데 여자라 이제 참 남의 집에 우리 아버지한테로 출가하시고.}

10323 # 그래 동생이 인재, 인젠 대 전 종소니요. {그래 동생이 이제, 이제 대 저 종손이
요.}

10323 # 그래 인재 그: 으:런 도라가시닝께 그: 아더리 또 인재 종손 아니개쓰요? {그래
이제 그 어른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이 또 이제 종손 아니겠어요?}

10323 @ 네:. {예.}

10323 # 또 그냥반두 나보다 한 살 더 머건넌대 도라가시씨요. {또 그냥반도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돌아가셨어요.}

10323 # 어:, 난 갑자생이구 거 건 계해생인데. {어, 난 갑자생이고 거 거건 계해생인데.}

10323 # 인재 그 어른 아더리 지금 여기 와따가따 저기 저 여여, 이평 아빠뜨애 사:는데,
올러 땡기민서 집 집 팔리럴 하고 다: 다 농사도 다 지:꼬 그래요, 그 그거. {이제
그 어른 아들이 지금 여기 왔다갔다 저기 저 여여, 이평 아파트에 사는데 올라 다
니면서 집 집관리를 하고 다 다 농사도 다 짓고 그래요, 그 그거.}

10323 # 농사가 아마 삼십 마지기두 한 사:십 마지기 가차이 될 꺼요. {농사가 아마 삼십
마지기도 한 사십 마지기 가까이 될 거요.}

10323 @ 예:. {예.}

10323 # 그 제가 그러개 하나 한대... {그 제가 그렇게 하나 한대...}

10323 # 향문두 저기두 한:문두 마:이 배와씨요, 이 사라미. {학문도 저기도 한문도 많이
배웠어요.}

10323 # 독선생얼 안치노쿠서루 하라 거 하라부지 되넌 부니 우리 가문내는 글 배우니가
웁씨:. {독선생을 앓혀놓고서 할아 그 할아버지 되는 분이 우리 가문에는 글 배운

이가 없어.}

10323 # 그래서 하:도 거시기해서로 손자 하나 좀 글 갈킨다고 독썬생얼 안치노쿠서 그래 갈키파구요, 그 손자덜. {그래서 하도 거시기해서 손자 하나 좀 글 가르친다고 독 선생을 앓혀놓고서 그래 가르쳤다고요, 그 손자를.}

10323 # 지금 여 와파가따 하는 손자덜. {지금 여기 왔다갔다 하는 손자들.}

10323 @ 예:. {예.}

10323 # 예. {예.}

10323 # 그래, 머 한:문 배웅 거뚜 마:니 씨: 머그야 될텐데... {그래. 뭐 한문 배운 것도 많이 씨 먹어야 될텐데.}

10323 # 그래서 인재: 저: 기과내 기과내서 인재 차자서 기과내 가서 인재 머: 이따가 구: 네. {그래서 이제 저 기관에 기관에서 이제 찾아서 기관에 가서 이제 뭐 있다가 군에.}

10323 # 어 군: 행정 보다가서루 정년퇴직강가 이러케 해군 해: 가주구서루 나 지배 나와 이찌유. {어 군 행정 보다가 정년퇴직인가 이렇게 하고는 해 가지고서 나 집에 나와 있지요.}

10323 @ 예:. {예.}

10323 @ 이 이 자리는 떠풀루 만드능 거구요? {이 이 자리는 떠풀로 만드는 거고요?}

10323 # 예: 저:기 저 푸리유. {예, 저기 저 풀이요.}

10323 @ 예 바까태서, 너러 놓 거요? {예, 바깥에 넣어 놓은 거요?}

10323 @ 저거 이러케 말려 가주구 인재 요러케 하능 거요? {저거 이렇게 말려 가지고 이제 요렇게 하는 거요?}

10323 # 예: 이걸 바쌍 말리 가주서루 인재 사루 인재 이르케 이르케 할 찌개는 인재 새루 무ړ 쭉기 가주구서... {예, 이걸 바짝 말려 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할 적에는 이제 새로 물을 축여 가지고서...}

10323 # 빠상 마룽 거 그냥얼 하머넌 조이미 안 되고 되덜 아내요. {바짝 마른 거 그냥 하면 조임이 안 되고 되지를 않아요.}

10323 @ 이 이거는 멸:로 항 거요? {이 이거는 무엇으로 한 거요?}

10323 # 그거넌 저:기요 지금. {그것은 저기요 지금.}

10323 # 저: 나일롱 시:리유 저 삼 삼포바태 하넌. {저 나일론 실이요 저 삼 삼포밭에 하는.}

10323 @ 으음. {으음.}

10323 # 시:리유 요 요 날도 시:리고 예:저내는 으: 예:저내는 여 사내 가서 거 칠거지. {실이요 요 요 날도 실이고 예전에는 으 예전에는 여 산에 가서 그 칩.}

10323 @ 예:. {예.}

10323 # 칠거지 요 요러 매디, 매디매디 요러케 나 매디가. {칩 요 요령(게) 마디, 마디마디 요렇게 나 마디가.}

10323 @ 네:. {예.}

10323 # 근대 매디 지:내서 끄너면 이게 거시기가 기스가 나서 안 뒹야. {그런데 마디 지 나서 끊으면 이게 거시기가 기스가 나서 안 돼.}

10323 # 매디매디 이래: 끄너 가주구서루 저: 무리다가 당구머넌 꺾띠가 사가유. {마디마디 이래 끊어 가지고서 저 물에다 담그면 꺾테기가 삭아요.}

10323 @ 예:. {예.}

10323 # 사가면 인재 잘: 드는 칼루다가서루, 으:런덜 그래 하시닝 걸 보니까, 요기다 대구서 칼루다가서 이러캐서 요:러캐 자부댕기면... {삭으면 이제 잘 드는 칼로, 어른들 그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요기다 대고 칼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잡아당기면...}

10323 # 안파스루다 이러캐 해서 한 자부댕기고 이러캐서 자부댕기구 이러캐면 소개 하::애요. {안팎으로 이렇게 해서 한 잡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면 속에 하애요.}

10323 # 그래 그거설 청을 청을치라 그리야, 이러덜. {그래 그것을 청을 청을치라 그래, 이름을.}

10323 @ 그걸 청을치라 그래요? {그걸 청을치라 그래요?}

10323 # 예: 그걸 청을치. {예 그걸 청을치.}

10323 @ 청을치라는 소리는 드러 받는데, {청을치라는 소리는 들어 봤는데,}

10323 # 예: 헤헤 헤헤헤. {예, 헤헤 헤헤헤.}

10323 @ 멀: 청을치라 그래는지 몰란내요. {무엇을 청을치라 그러는지 몰랐네요.}

10323 # 지금 여기 청을치가 뭐:냐고 무루먼 질문 저 뭐탄 사람드른 하나도 몰라요. {지금 여기 청을치가 뭐냐고 물으면 젊은 밋한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10323 @ 예:. {예.}

10323 # 우리 나:이잉개 그기 청을친 줄 알:지. 헤헤. {우리 나이니까 그게 청을치인 줄 알지. 헤헤.}

10323 @ 그래잉까 그렇 거:... {그러니까 그런 것...}

10323 # 그렇걸루 인재 이래 꼬아서루 카:주 저 세:사루다가 파: 가주서 이거덜 하고. {그런 걸로 이제 이래 꼬아서 아주 세사로 파 가지고 이것을 하고.}

10323 # 또 그래자느면 저 대:마-초 대:마. {또 그렇지않으면 대마초 대마.}

10323 @ 예:. {예.}

10323 # 대:마덜 인재 예 삼베 나:녕 거넌 이르캐 저: 썸 가주서루 베끼 가주서 하지만 이렇 거 노 쏜넌 데넌 마른 사무로 그냥 마른 대:마루다 그냥 말려 가주구서. {대마를 이제 삼베 나는 것은 이렇게 저 썸 가지고 벗겨 가지고 하지만 이런 것 노 꼬는 것은 마른 삼으로 그냥 마른 대마로 그냥 말려 가지고.}

10323 @ 예:. {예.}

10323 # 이러캐 똑 뿌질만 인재 거시캐서 이래 똑 뿌질머넌 거기 인재 주리 인재 이래 거시기가 기스가 나요. {이렇게 똑 분지르면 이제 거시기 해서 이래 똑 분지르면 거기 이제 줄이 이제 거시기가 기스가 나요.}

10323 # 그라면 인재 그걸 가주 이래 빼끼지.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래 벗기지.}

10323 # 그래 가늘개 이래 이래 빼낄 가주서루... {그래 가늘게 이래 이래 벗겨 가지고...}

10323 # 인재 이 노를 풀라면 아주 잘개 이러캐 참 세:사루 어 세: 인재 인재 이견 저 실 사:덜 인재 애:길 해자면 그걸 세:사덜 아주 맨드능 기여 이걸. {이제 이 노를 꼬려면 아주 잘개 이렇게 참 세사로 어 세 이제 이제 이것은 저 실 실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것을 세사를 아주 만드는 거야 이것을.}

10323 @ 네:. {예.}

10323 # 어 세:사. {어 세사.}

10323 # 그래서 그걸루두 하구 그래 예 예:저넌 그래찌:, 이 나이롱이 나오구 날 안 하짜

나 예:저내넌.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그래 예 예전엔 그랬지. 이 나일론이 나오고 나(오지를) 안 했잖아 예전에는.}

10323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23 # 예:. {예.}

10323 # 지금 해:방 되구서 참 이 미국 사람 나오구 인재 이래 하니까 이르치. {지금 해:방 되구서 참 이 미국 사람 나오고 이제 이래 하니까 이렇지.}

10323 # 이기나 이거넌 뭐: 이거 한 님 매:는대 이게 끄너지는 베비 읍썬요. 으 이게. {이 것이나 이것은 뭐 이거 한 님 매:는데 이게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으 이게.}

10323 # 끄너지덜 안 해유 이게. {끊어지질 않해요 이게.}

10323 @ 예:. {예.}

10323 # 자리덜 그러케 여런 님 매:썬두 함: 번두 이게 일루 끄너지 예:가 업썬. {자리를 그렇게 여러 님 매:썬두 한 번도 이게 끊어진 예가 없어.}

10323 @ 그 그걸 노끄니라 그래나요? {그 그걸 노끈이라고 그래나요?}

10323 # 예 그러지 인재 그걸 노라 구라지 노. {예 그러지 이제 그걸 노라 그러지 노.}

10323 @ 노. {노.}

10323 # 으:. {으.}

10323 # 저:짜개 인재 여 그 저내 저 우리 외하라버님 사라 게시서 인재 하, 하라버니면 그 노 파 노 파 대닝 개 인재 이:리시여. {저쪽에 이제 여 그전에 저 우리 외하라 버님 살아 게서서 이제 할, 할아버님은 그 노 파 노파 대는 게 이제 일이서.}

10323 # 자리 매 자리 치넌데 예. {자리 매 자리 치는 데 예.}

10323 # 돛짜리. {돛자리.}

10323 @ 예. {예.}

10323 # 치넌데. {치는데.}

10323 # 그래 인재 외삼추니, {그래 이제 외삼촌이,}

10323 @ 돛짜리는 치능 거요? {돛자리는 치는 거요?}

10323 # 예:. {예.}

10323 # 바디 바디 이짜나 바디 으. {바디 바디 있잖아 바디 으.}

10323 # 예 바디 인재 이래 웨: 가주서루 이러키 이러케 달:개 이러케 이러케 질:개시리, 그래 해서. {예 바디에 이제 이렇게 웨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촌촌하게 이렇게 이렇게 길게, 그렇게 해서.}

10323 # 그래 인재 워너 구녀개 마즐 꺾지 모르니깨루 이걸, 요 새재기애 구녀기 또 하낙 썩 이꺼덜. {그래서 이제 어떤 구멍에 맞을 것인지 모르니까 이걸, 요 사이에 구멍이 또 하나씩 있거든.}

10323 @ 네: {예.}

10323 # 으: 인대 인재 요러케 카널 맨들라머넌, {으, 그런데 이제 요렇게 칸을 만들려면,}

10323 # 돛짜리넌 그 돛짜리넌 카니 이러케 너르덜 안 하지요. {돛자리는 그 돛자리는 칸 이 이렇게 넓지 안 하지요.}

10323 @ 예:. {예.}

10323 # 마:이 널러야 요:만창 되넌데. {많이 넓어야 요만큼 되는데.}

10323 # 그래 고 항 칸썬덜 띄우머넌 이러케 이러케 디야. {그래서 그 한 칸썬을 띄우면 이렇게 이렇게 돼.}

10323 @ 예:. {예.}

10323 @ 예. {예.}

10323 # 해해. {해해.}

10323 @ 그 왕골루 하능 거뚜... {그 왕골로 하는 것도...}

10323 # 예: 내내 그기 왕골, 어 왕골자리 하능 거구 그기. {예 내내 그게 왕골, 어 왕골자리 하는 것이고 그게.}

10323 # 예 돌짜리넌. {예 돛자리는.}

10323 @ 돌짜리는 왕골루 하구. {돛자리는 왕골로 하고.}

10323 # 예:. {예.}

10323 # 예: 이:저넌 우리 클 찌개 그 왕골 으런더런 여 칼로 이러 푹 떼고서 이러케 이러케 하고 인재 인젠 우:리넌 저짜개 안저서 이러케 붙짜꾸 이쓰면 여겨정 쪽 쪼개저서 나와. {예, 예전에는 우리 클 적에 그 왕골을 어른들은 이 칼로 이렇게 푹 떼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우리는 저쪽에 앉아서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여기까지 쪽 쪼개저서 나와.}

10323 # 그러면 요거 떠:서 또 이러케 노:쿠 또 이러케 노:면 또 요러케 노쿠. {그러면 요것을 떼어서 또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으면 또 요렇게 놓고.}

10323 @ 갈라서. {갈라서.}

10323 # 어: 그럼 인재 고거 다: 쪼개서 인재 나오 나면 가운데 꺼시 인재 하:야케 인재 꼬갱이가 남찌. {어 그러면 이제 고거 다 쪼개서 이제 나오 나면 가운데 것이 이제 하얏게 이제 속이 남지.}

10323 @ 예:. {예.}

10323 # 그러면 인재 땅애다 노:코 허 허허. {그러면 이제 땅애다 놓고 허허허.}

10323 # 그래 인재 이망:큼써개 한 단씩 인재 이르캐서루. {그래서 이제 이만큼씩 한 단씩 이제 이렇게 해서.}

10323 # 이러케 저: 노쿠서루. {이렇게 저 놓고서.}

10323 # 그 생거 찌개 해야 되요 그개. {그 생거일 적에 해야 돼요 그개.}

10323 @ 네:. {예.}

10323 # 저 왕골 점 노내서 인재 이래서 뽀 이 저기 해 해 해다가서루. {저 왕골 저 눈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뽀(아) 이 저기 해 해서.}

10323 # 그러면 인재 머: 그거시 머 마:느면 막 이러케 무 거시키 크 만:치 이러케. {그러면 이제 뭐 그것이 뭐 많으면 막 이렇게 뭉 거시기 크(지) 많지 이렇게.}

10323 # 이러케 뽀 뭉치씩 이 하는 이두 이꾸 자리 마:니 하는 이넌. {이러헤 뽀 뭉치씩 이 하는 이도 있고 자리 많이 하는 이는.}

10323 # 그러면 그리 인재 한:태다 무꺼 가주구서루 조 구역찌다 이러케 바짝 디리쳐서 우엘 툅툅:툅 툅디리유. {그러면 그래 이제 한테다 묶어서 저 구석에 이렇게 바짝 들여쳐서 위를 툅툅:툅 두드려요.}

10323 # 툅툅 툅디리면 미꾸녕이 간:충할 꺼 아니여 여 바다개. {툅툅 두드리면 밀이 간충할 거 아니여 이 바닥에.}

10323 @ 예:. {예.}

10323 # 어:. {어.}

10323 # 그람 저 우:에서 거 뽀 뽀바 올려, 젤: 징: 걸로만 고 가통 칭으로. {그러면 저 위

에서 뿔 뿔아 올려, 제일 긴 것으로만 그 같은 층으로.}

10323 # 으 이래 툭툭 뚫디리 가주서. {으 이래 툭툭 두드려 가지고.}

10323 # 뽀바 올려 그래 다: 뽀바 내머닌 또 고 미태 층애 또 툭툭 뚫디리 뚫디리 가주서
고 미태 층애 뽀바 내 가주서루. {뽀아 올려, 그래서 다 뽀아 내면 또 밑에 층애
또 툭툭 두드려 두드려 가지고 고 밑에 층애 뽀아 내 가지고서.}가

10323 # 그래잉개 고대로 고대로 요망쿵씩 따루 묵찌. {그러니까 고대로 고대로 요만큼씩
따로 묵지.}

10323 @ 그럼 긴 {그럼 길이.}

10323 # 그러치 길 어: 어 장다닐, 장다닐 맞추지. {그렇지 길(이) 어 어 장단을, 장단을
맞추지.}

10323 @ 가통 기리까:리:. {같은 길이끼리.}

10323 # 어:. {어.}

10323 # 장다년 인재 마초 가주구서루 이래 몽넌대. {장단을 이제 맞춰 가지고 이렇게 뚫
는데.}

10323 # 그러면 인재 그걸 따개 가주서루 고몽치 고몽치 무껴야지 이몽치 하구 저거하구
하머닌 다: 세끼서루 그거 그러개 한 보라미 읍썩썩. 허허허 허허. {그럼 이제 그
걸 따개서 고몽치 고몽치 묶어야지 이몽치하고 저거하고 하면 다 섞여서 그거 그
렇게 한 보람이 없어요. 허허허 허허.}

10323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23 # 어 보라미 읍썩썩. {어 보람이 없어요.}

10323 # 그래서 잘 그 그거 인저 자리 농사가 이:전에 선비덜 찌배서 자리 농사 해찌:.
{그래서 자리 그 그거 이제 자리 농사가 예전에 선비들 집에서 자리 농사 했지.}

10323 # 참, {참,}

10323 # 해해해. {해해해.}

10323 # 우리마냥 몽:두남바라구 이랜 지벤 그 자리 농사 하두 모태썩썩. {우리마냥 몽두
남발하고 이런 집은 그 자리 농사 하지도 못했어요.}

10323 # 선비더리 또 노도 꼬코 안자서 하지 일:하느닌 드:래 나가 일:해야지 뭐 그거 풀
썩가 이썩썩? {선비들이 또 노도 꼬코 앉아서 하지 일하는 이는 들에 나가 일해야
지 뭐 그거 풀 새가 있어요?}

10323 # 으 허허허. {으 허허허.}

10323 @ 그러면 왕골자리두 이꾸. {그러면 왕골자리도 있고.}

10323 # 으:. {으.}

10323 # 왕골자리 다:매 인재 이거지 머. {왕골자리 다음에 이제 이거지 뭐.}

10323 @ 이게 초석짜리요? {이게 초석자리요?}

10323 # 예예 이건 초서기여. {예 예 이건 초석이야.}

10323 @ 초석. {초석.}

10323 # 어 푸리 이 이기 푸리라고. {어 풀이 이 이것이 풀이라고.}

10323 @ 예:. {예.}

10323 # 그래 인재 풀 초짜 인재 자리 석짜 인재 그래 초서긴 모녕이여. {그래 이제 풀 초
자 이제 자리 석자 이제 그래서 초석인 모양이야.}

10323 @ 집 푸로다 해요? {짚으로 해요?}

10323 # 어: 지:푸루 삼:넝, 지:푸루 하능 건 인재: 저: 왕:고릴 이래 전:- 따기야 통왕골로 말리 가주서. {어 짚으로 삼는, 짚으로 하는 건 이제 저 왕골을 이렇게 저 쪼개, 통왕골로 말려 가지고.}

10323 @ 예:. {예.}

10323 # 통왕골로 말리 가주서 이래서 따개 가주서루 인재 지파구 이러캐 가운데털 싸 가 주구서루 이걸 매: 써요. {통왕골로 말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쪼개 가지고 이제 짚하고 이렇게 가운데를 싸 가지고 이것을 땀어요.}

10323 @ 아:, 그러캐요? {아, 그렇게요?}

10323 # 어: 이걸, 어:. {어 이걸, 어.}

10323 # 그거는 맹그러 보닝께, 나는 그거는 안해 봐써요. {그것은 만들어 보니까, 나는 것은 안해 봤어요.}

10323 # 그런데 이망:큼씨카개 카니 이러캐 널러요. {그런데 이만큼시하게 칸이 이렇게 생겨요.}

10323 @ 예:. {예.}

10323 # 이러캐 달:덜 안 하구. {이렇게 춤춤하지 않고.}

10323 @ 예:. {예.}

10323 # 그기 예: 이 동네서는 그거릴 멘 째 그걸 아 안:헨넌대 저: 청주 가보니까루 청주 가:덕. {그게 예 이 동네서는 그것을 몇 집 그것을 안했는데 저 청주 가보니까 청주 가덕.}

10323 @ 네:. {예.}

10323 # 거기 우린 둘:째 누니미 그리 출가하신는데 거기릴. {거기 우리 둘째 누님이 그리 출가하셨는데 거기로.}

10323 # 가보닝께 전:부는 거기닌 거긴 맨자리유 그개. {가보니까 전부 거기는 거긴 맨자리요 그개.}

10323 # 이 이래 맨자리. {이 이래 맨자리.}

10323 # 이 이거 시그루다 이래 맨:자리여, 예:. {이 이거 식으로 이렇게 맨자리여, 예.}

10323 @ 아무 거뚜 안하구 요르캐 행 걸 맨자리라 그래요? {아무 것도 안하고 요렇게 한 걸 맨자리라 그래요?}

10323 # 예 예:. {예예.}

10323 # 그 매 아이 소느루 매:따구 맨:자리여. {그 매 아니 손으로 땀다고 맨자리여.}

10323 @ 아: 매:따구? {아, 땀다고?}

10323 # 매:따구. {땀다고.}

10323 @ 예:. {예.}

10323 @ 치능 거 하구 {치는 것하고,} 10323 # 예 치능 거 하구 {예 치는 것하고,}

10323 @ 매능 거하구. {매는 것하고.}

10323 # 으: 이:러캐 행 건 그 도시구, 으:. {으 이렇게 한 것은 그 돛이고, 으.}

10323 @ 돛. {돛.}

10323 # 어: 돛짜리. {어 돛자리.}

10323 @ 예: 도시구.{예 돛이고.}

10323 @ 아 치능 건 도시라 그래구? {아 치는 건 돛이라 그러고?}

10323 # 예 예예. {예 예예.}

10323 # 이거 이걸 인젠 소느루 해능 개 이걸 맨자리구. {이거 이걸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이걸 맨자리고.}

10323 @ 그러면 왕골: 왕골자리는 그개 돈짜리내요? {그러면 왕골 왕골자리는 그개 돛자리내요?}

10323 # 예 예 그개 그개 돈짜리유. {예 예 그개 그개 돛자리요.}

10323 # 근데 저: 지금두 그거 왕골씨: 여기 우리 할 여기서두 어디 하는대가 이걸 이따 덩구먼 어디 민속초내서 할 테지 머:. {그런데 저 지금도 그거 왕골씨 여기 우리 할 여기서도 어디 하는대가 있기는 있다더구먼 어디 민속촌에서 할 테지 뭐.}

10323 # 민속초내서 하고 강화도 가면 지금 마:니 한대요 그거, 으:. {민속촌에서 하고 강화도 가면 지금 많이 한대요 그거, 으.}

10323 # 강화도:: 가머닌 강화도 가보텔 아내서루 자시한 애길 모타건년대 듣는 애기루닌 화본 화문석: 화문석:. {강화도 가면 강화도 가보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는데 듣기로는 화문 화문석 화문석.}

10323 @ 예:. {예.}

10323 # 저: 꽃:, 꼬뚜 노쿠 글짜두 노쿠 이러캐 해서 전부 거기닌 저: 삭씨더리 안자서 그러캐 짤대요 그걸, 이걸. {저 꽃, 꽃도 놓고 글자도 놓고 이렇게 해서 전부 거기는 저 색시들이 앉아서 그렇게 짤대요 그걸, 이걸.}

10323 # 그른대 고드래또리 인재 요 쪼마:트라구 하드라구요. {그러면 고드랫돌이 이제 요 조그맣더라고 하더라고요.}

10323 # 이거 다:니까. {이게 닿으니까.}

10323 @ 네:. {예.}

10323 # 크머닌 이거 이개 서루 부대끼서 싸와서 안 되거덩, 어:. {크면 이게 이게 서로 부딪쳐서 싸워서 안 되거든, 어.}

10323 # 이거뚜 부대끼구 싸우는데 이거보다 더 달:먼 대꾸 엉키구 안 되거덩요. {이것도 부딪치고 싸우는데 이것보다 더 촘촘하면 자꾸 엉키고 안 되거든요.}

10323 # 그래 그 강화가따 와서 오니들 얘기하는데 연:일 뭐 이러캐 자꾸 이러캐 뭐 여닐 너 냉기년대 참 잘 매드라 구래요. {그렇게 그 강화갔다가 와서 온 이들 얘기하는데 연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연일 넘 냉기는데 참 잘 매드라 그래요.}

10323 # 그래 화문세기라구 한대구 그래요. {그렇게 화문석이라고 한대고 그래요.}

10323 @ 예:. {예.}

10323 # 으: 화문석. {으 화문석.}

10323 @ 강화도에서 만드는 거요. {강화도에서 만드는 거요.}

10323 # 예: 강화에서. {예 강화에서.}

10323 @ 오늘 거기 너러 노싱 거 보구서 {오늘 거기 넣어 놓으신 것 보고서,} 10323 # 허허 허허. {허허 허허.} 10323 @ 오늘 또 조:응 거 하나 배웠내요. {오늘 또 좋은 것 하나 배웠네요.}

10323 @ 이거 몰:라쨌는데 이거:. {이거 몰랐었는데 이거.}

10323 # 그래서 화문서기여. {그렇게 해서 화문석이야.}

10323 # 그래 주로 인재 지금 제:사에 쓸 이러캐 제:석짜리 하는 데는 이걸루 써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 제사에 쓰 이렇게 제석자리 하는 데는 이것으로 써요.}

10323 @ 예:. {예.}

10323 # 아이 뭐 이유 읍썌요. 이걸 내 소느로 하닝께 내가 이걸 쓰지: 이거 내 소느루 모 타느이는 이 이거 알두 모태요. {아이 뭐 이유 없어요. 이걸 내 손으로 하니까 내가 이걸 쓰지 이거 내 손으로 못하는 이는 이 이거 알지도 못해요.}

10323 # 그냥 저 장애 가서 나이롱 자리 그거 싸다가... {그냥 저 장애 가서 플라스틱 자리 그거 사다가...}

10323 # 아이 함 번 이걸 하나 매: 가주 장애 가니깨루 어떤 아주머이가 디다보더니 '이거 머하는 자리요?' {아이 한 번 이걸 하나 매 가지고 장애 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들여다보더니 '이거 뭐하는 자리요?'}

10323 # 아이 제:사 지낼 찌개 까는 제:서기요. {아이 제사 지낼 적에 까는 제석이요.}

10323 # 그래 이개 뭐유. 이르미 뭐유. {그래 이게 뭐요, 이름이 뭐요.}

10323 # 띠자리 아니유, 띠자리. 으: 띠자리. {띠자리 아니요, 띠자리. 으 띠자리.}

10323 # 그래 얼마 달래유? {그래 얼마요?}

10323 # 이거이 이거 이걸 한 님 매자머년 매년 과정이, 매년 과정만 해두 꼭: 이기 여썌 가 여썌 여썌가 걸리야 이기 어. {이것이 이거 이걸 한 일 매자면 매는 과정이, 매는 과정만 해도 꼭 이게 옛새가 옛새 옛새가 걸려야 이게 어.}

10323 # 하루 매야 요만:창배끼 몸: 매유 하루. {하루 매야 요만큼밖에 못 매요, 하루.}

10323 # 어 하루. {어 하루.}

10323 # 하루 요 요만:창음 어 요망알 쪼끔 더 맬텐 요만:창 맬테지. {하루 요 요만큼 어 요만큼 조금 더 맬 텐 요만큼 맬 테지.}

10323 @ 예:. {예.}

10323 # 매는 과정만 그리야. {매는 과정만 그래.}

10323 # 이거 이거 재료 장만하고 이런 과정은 다: 제해 노쿠서루. {이거 이거 재료 장만 하고 이런 과정은 다 제해 놓고서.}

10323 # 매는 데가 푸미 드러유. {매는 것이 품이 들어요.}

10323 # 요고 요고 요고 한: 날 윙기는데 궁딩이가 함 번씩 와 와따가따 해야 되요. {요고 요고 요고 한 날 읍기는데 궁텅이가 한 번씩 왔다갔다 해야 돼요.}

10323 @ 그러깁내요. {그러겠네요.}

10323 # 이러 어 이러캐 안꾸: 이러캐 만날 만날 이개 이리여. {이러 어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만날 만날 이개 이래.}

10323 @ 예: 이쪼개 기리가 이쓰니까. {예 이쪽에 길이가 있으니까.}

10323 # 야 해해 해 그러캐 그러캐야 이기 되닝 거요. {야 해해 해 그렇게 그렇게 해야 이 게 되는 거요.}

10323 # 여기 가운데 안자서 저짜개 가서루 나 매구서루 꺼꺼 닝기덜 모티야 저걸. {여기 가운데 앉아서 저쪽에 가서 나 매구서 꺾어 넘기지를 못해 저걸.}

10323 @ 그러캐썌요. {그렇겠어요.}

10323 # 게 인재 여기 오면 여기서 인재 마지막 이래 꺼거서루 요 한 도맨 냉기구서 또 요와 매구 또 한 도매 내와서 냉기서루 요와 매구 이래 이라능 건대 어. {그래 이제 여기 오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꺾어서 요 한 도매 넘기고 또 요기 와서 매고 또 한 도매 내서 넘겨서 요기 와서 매고 이렇게 이르는 것인데 어.}

10323 # 그래 이개 이개 꺼끈 자리 아니요 이개? {그래 이게 이게 꺾은 자리 아니요 이

게?}

10323 @ 네:. {예.}

10323 # 이기 꺼끈 자리요. {이게 꺾은 자리요.}

10323 @ 여기 마무리두 이쁘게 돼 인내요? {여기 마무리도 예쁘게 되어 있네요?} 10323
마머리, 예 꺼끈 자리유. {마무리, 예 꺾은 자리요.}

10323 # 내 선넘께서닌 이러캐 이러캐 한 자랑 놀러서 이러캐두 하시더라고 이러:캐, 으
예. {내 선친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 자락 놀러서 이렇게도 하시더라고 이렇게,
으 예.}

10323 # 그러캐두 하신 이리 인는데 하두 인재 오래 돼서 그 다: 그만 떠러지구 그래서 그
만 저기 소 소화시키구 마라썬요, 여기 다:. {그렇게도 하신 일이 있는데 하도 이
제 오래 되어서 그 다 그만 떨어지고 그래서 그만 저기 소화시키고 말았어요, 여
기 다.}

10323 @ 어티개 헨는지 꼬치 아주 매:꼬마고 이빠요. {어떻게 했는지 끝이 아주 매꼬롭고
예빠요.}

10323 # 혼석짜리라구 왜, {혼석자리라고 왜,}

10323 # 교순님! {교수님!}

10323 @ 예? {예?}

10323 # 저기 혼석짜리 혼석. {저기 혼석자리 혼석.}

10323 @ 예:. {예.}

10323 # 혼석짜리라구 이저내 딸 래놀라머닌 자리릴 한 녀씩 가주 갑니다, 자리릴. {혼석
자리라고 예전에 딸 내놓으려면 자리를 한 잎씩 가지고 갑니다, 자리릴.}

10323 # 자리릴 인재 그 그: 자리릴 대:례서개서 까라따가 까라따 인재 그 거뒤서 인재
예: 저: 거시기 실랑 신부 인재 만나던 그 천날 찌녀개, {자리를 이제 그 그 자리
를 대례석에서 깔았다가 깔았다 이제 그 거뒤서 이제 예 저 거시기 신랑 신부 이
제 만나던 그 첫날 저녁에,}

10323 @ 예:. {예.}

10323 # 그걸 방에 깔구. {그걸 방에 깔고.}

10323 # 그래따가서 인재 인재 새댁 데리구 갈 찌개 새댁 까마 아내 그걸 거시기 해 가주
가요 그걸 이걸. {그랬다가 이제 이제 새댁 데리고 갈 적에 새댁 가마 안에 그걸
거시기 해 가지고 가요 그걸 이걸.}

10323 @ 예:. {예.}

10323 # 자리릴 허허. {자리를 허허.}

10323 # 그래 한 님씨걸 가주 가썬요. {그래 한 잎씩을 가지고 갔어요.}

10323 # 다름 건 모태두 자리 한 니번 해: 보내야 디야. {다른 건 못해도 자리 한 잎은 해
보내야 돼.}

10323 @ 예:. {예.}

10323 # 개 인재 정동 저: 좀 인너 이년 저런 장:농두 인재 하서... {그래 이제 정동 저 좀
있는 저런 장농도 이제 해서...}

10323 # 인재 놓이 두: 짜가니요. {이제 놓이 두 짝 아니요.}

10323 # 아래 우애 두: 찌긴대 한태는 아너퍼진디야, 그걸. {아래 위에 두 짝인데 한테 안
엮어진대, 그걸}

10323 # 그래잉깨루 이래 저 멜빵 해: 가주구서루 두:리 이러캐 지구 가구. 헤헤헤 헤헤.
 {그러니까 이래 저 멜빵을 해 가지고 둘이 이렇게 지고 가고. 헤헤헤 헤헤.}

10323 # 그래 이:지래 그러캐 해써. {그래 예전에 그렇게 했어.}

10323 # 그러캐 하능 걸 바:써요, 우리 누님덜 출가할 썩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누님들 출가할 적에.}

10323 @ 그러면 그 때: 그: 보내는 자리:는 이거 이걸루 만드능 거요? {그러면 그 때 그 보내는 자리는 이거 이것으로 만드능 거요?}

10323 # 자 왕:골루 해:찌유. {왕골로 했지요.}

10323 @ 그건 왕골루 하구. {그건 왕골로 하고.}

10323 # 어 왕:골루 헨:는대 그건 아주 참, 어:. {어 왕골로 했는데 그건 아주 참, 어.}

10323 @ 골짜 곱:짜니요? {곱자 곱잖아요?} 10323 # 예: 고:깨 저기... {예 곱게 저기...}

10323 # 저짜 저짜 저 사 저짜 사랑 말래 거 어디 저: 하나 지금 이써유. {저짜 저짜 저 사(랑) 저짜 사랑 마루에 거기 어디 저 하나 지금 있어요.}

10323 # 인는데 그건 제:서그루 쓰덩 거유, 우리가. {있는데 그건 제석으로 쓰던 거요, 우리가.}

10323 # 우리 아번님 소느루 그 맨드싱 건대. {우리 아버님 손으로 그 만드신 건데.}

10323 # 개 애:초애 좀 여기덜 세:사루다가 이르게 저 노털 파: 가주 이르게 하션넌데. {개 애초애 좀 여기를 세사로 이렇게 저 노를 파서 이렇게 하셨는데.}

10323 # 요 요 향 귀검 내개 되머닌 이라:캐 바디덜 이러캐 찌우려서 이러캐 몬: 내려오게 해: 노코서넌 요거덜 저짜뚜 하구 이짜 하구, 인재 여긴 바디 이러캐 하느니가 이꾸 여기서 인재 꼬재이루 이러캐 **서 이러캐 질르자너 이러캐. {요 요 한 귀검 내개 되면 이렇게 바디를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못 내려오게 해 놓고서 요것을 저짜도 하고 이짜 하고, 이제 여기는 바디를 이렇게 하는 이가 있고 여기서 이제 꼬쟁이로 이렇게 **서 이렇게 지르잖아 이렇게.}

10323 @ 예. {예.}

10323 # 어:. {어.}

10323 # 하낙 여 하노쿠 하낙씩 하낙씩 자꾸 질러. {하나 여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자꾸 질러.}

10323 # 그라만 요만:창 되머닌 고고 또 저버서루 여 귀 역 माम리 माम리하고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요만큼 되면 그거 또 접어서 여 귀 여기 마무리 마무리하고는 또 하고 또 하고.}

10323 # 엄::칭이 마:이 푸미 드려요. {엄청나게 많이 품이 들어요.}

10323 # 우리 아번님하구 나하구 두:리 천년대, 허허. {우리 아버님하고 나하고 둘이 찼는데, 허허.}

10323 # 저기 따루 인재 어지가:니 절판나썩 그런대 저짜 어디 이써요, 그래. {저기 따로 이제 어지가니 결판났어 그런데 저짜 어디 있어요, 그래.}

10323 # 자:꾸 부리 놀라구 하능 걸 저:우 내 내:자 되너니가 부리 놀라구 하능 걸... {자꾸 불에 넣으려고 하는 걸 겨우 내 내자 되는 이가 불에 넣으려고 하는 걸...}

10323 # 그 왜 그랴:. {그 왜 그래.}

10323 # 부모애 부모 소느루 강 거넌 부모 손 강거 넌 아무 때란대도 지배 두면 나:중애 우리 자식칸태란두 이어서 그 애기덜 해 줄 수가 이짤느냐구. {부모의 부모 손이

간 것은 부모 손 간 것은 아무때라도 집에 두면 나중에 우리 자식한테라도 이어서
그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지 않느냐고.}

10323 # 그런 얘기랄 해:쓰요, 내우 가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외 간에.}

10323 # 그래서 불 부리두 문: 느껴 머. {그래서 불 불에도 못 넣었어 뭐.}

10323 # 몰라 하하 나 몰래 나 몰래 흐니 가따 내:버리능 개 마:나요 그이가. {몰라 하하
나 몰래 나 몰래 흔히 갖다 내버리는 게 많아요 그이가.}

10323 # 그이가. {그이가.}

10323 @ 이 저기 자리틀 이짜나요. 자리틀두 이르미 여러 가지가 이썬요, 거기에? {이 저
기 자리틀 있잖아요. 자리틀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10323 # 거기에 자리트런 항 가지요. 음:. {거기에 자리틀은 한 가지요. 음.}

10323 # 하나요. {하나요.} 10323 @ 자리트리라고만 해요? {자리틀이라고만 히요?}

10323 # 예 그양 자리트리요. 둔 예. {예 그냥 자리틀이요, 돛 예.}

10323 @ 가마 가마니:... {가마(니) 가마니...}

10323 # 가마니 짜는 틀 가마니틀. {가마니 짜는 틀 가마니틀.}

10323 @ 예:. {예.}

10323 # 가마이틀 자리틀. {가마니틀 자리틀.}

10323 @ 거기두 보면 이 저기 바디 바디가... {거기도 보면 이 저기 바디 바디가...}

10323 # 그르치요. 그래 어 그 그기 일번 짜람더리 으-ㄴ:구 해서 나옉 거 아니요, 그게
가마나라능 개? {그렇지요. 그래 그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연구해서 나온 거 아니
예요, 그게 가마나라는 게?}

10323 @ 예:. {예.}

10323 @ 바디... {바디...}

10323 # 으: 이거 이거 이거 도짜리 맨 저: 짜넌 자리트런 이런 저 나무를 이러케 아래 아
으래릴 까까 가주구서: 까까 가주구서 양짜개 인재 발 바리 이짜나요? {으 이거
이거 이거 돛자리 맨 저 짜는 자리틀은 이런 저 나무를 이렇게 아래를 깎아 가지
고 깎아 가지고 양쪽에 이제 발 발이 있잖아요?} 10323 @ 예. {예.} 10323 #
이래 미태. {이렇게 밑에.}

10323 # 바리 이썬야지 소니 드러가그덩 늘 노릴 이라:키 냉기 가주선 일루 빼서 인재 거
시키 해서 어:. {발이 있어야지 손이 들어가거든 늘 노를 이렇게 넘겨 가지고 이
리로 빼서 이제 거시기 해서 어.}

10323 # 이 이래 자:꾸 거시기 하기 또래. {이 이래 자꾸 거시기 하기 때문에.}

10323 # 이래 소니 드르가개 미치 뜨지 여가. {이래 손이 들어가게 밑이 뜨지 여기가.}

10323 @ 예:. {예.}

10323 # 그른대 그 나무에서 인재 고걸 구별 맨들구, 또 그러케 재료가 안 되머넌 거기다
인재 저: 판 판나무를 이러케 디야. {그런데 그 나무에서 이제 그걸 굽을 만들고,
또 그렇게 재료가 안 되면 거기에다 이제 더 판 판 나무를 이렇게 대.}

10323 # 그러면 그 미트루 쫘 더 놀:고 이만:청 노퍼야지 소니 드르가요. {그러면 그 밑으
로 쫘 더 놀고 이만큼 높아야지 손이 들어가요.}

10323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323 # 이르:캐 냉기 냉기 가주서루 이썬 손 저: 미트루 해서 이썬 쏘느루 미러 느면 일
루 일루 바다 가서 이러캐서 거 바디 꾸녕애다 웨어 가주서루 이: 쫘:매구선 또

끈:쿠션 또 이러캐 해 가주션 하구, 으:. {이렇게 넘겨 넘겨 가지고 이쪽 손 저 밑으로 해서 이쪽 손으로 밀러 넣으면 이리로 이리로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거바디 구멍에 꿰어 가지고 동여매고는 또 꿰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으.}

10323 # 그 꿰: 가주서루. {그 꿰어 가지고.}

10323 # 예 바디에다 꿰: 가주구서 이러캐, ㄸ닐. {예 바디에다 꿰어 가지고 이렇게, 끈을.}

10323 @ 소니 마:니 가는 거내요? {손이 많이 가는 거내요?}

10323 # 마:니 가지요:. {많이 가지요.}

10323 @ 가마이 가마이트른 그 저:기 이 바디가 이꾸. {가마니 가마니틀은 그 저기 이 바디가 있고.}

10323 @ 그거뚜 지폴 이르키 너:야 되자나요? {그것도 짚을 이렇게 놓어야 되잖아요?}

10323 # 아:이 그르치유. {아이 그렇지요.}

10323 # 대나무가 인재 이르캐 된는데, {대나무가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10323 @ 예. {예.}

10323 # 여가 인재 여가 인재 조금 오망하지 인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오목하지 이제.}

10323 # 여기서 느 드르가녕 거넌 여기다 거러 가주서 이러캐 미:러 느쿠. {여기에서 넣어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다 걸어 가지고 이렇게 밀어 놓고.}

10323 @ 예:. {예.}

10323 # 또 인재 지피라능 거시 이짜근 가늘구 이짜근 두 두겹짜나요? {또 이제 짚이라는 것이 이쪽은 가늘고 이쪽은 두 두겹잖아요?}

10323 # 그래 인재 이짜그루 또 뽀버 널 켜 아 여기 꺼시가 이썸. {그래 이제 이쪽으로 또 뽀아 널 때는 아 여기 거시기가 있어.}

10323 # 낙씨 그치 ** 여가 {낙씨 같이 ** 여기가.} 10323 @ 예. {예.} 10323 # 깔꾸랭이가. {갈고리가.}

10323 # 그러면 여기서 이래 미리 주면 인재 바디 바 이러캐 이러캐 하느니가 저짜개서 병개그치 가따 거러 주지 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면 이제 바디 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가 저쪽에서 번개같이 갖다 걸어 주지 뭐.}

10323 # 그럼 이러캐 자부댕기면 인재 또 이러카구서 또 드러오면 또 또 일:빈 가야 디야 소니 이짜개. ㅎㅎ 해해.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제 또 이렇게 하고서 또 들어오면 또 또 일변 가야 돼, 손이 이쪽에. ㅎㅎ 해해.}

10323 @ 그건 머:라 그래요, 이르미? {그건 뭐라 그래요, 이름을?}

10323 # 으? {어?}

10323 # 그래잉개 그건 저::기... 어::... {그러니까 그건 저기... 어...}

10323 # 그거 자리 그걸 미 밀 밀:때라 그라덜가 그개 잘 그개 이러멀 이러버런내요. {그거 자리 그걸 미 밀 밀대라 그러던거 그개 잘 그개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10323 @ 그거 찰 때 왜 새끼주리 이르:캐 나려 나짜너요? {그거 찰 때 왜 새끼줄을 이렇게 날아 놓았잖아요?}

10323 # 예 나려 놔:썸. {예 날아 놓았어.}

10323 @ 그러면 뒤에서 이러:캐 너머와서요,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넘어와서요,}

10323 # 예:. {예.}

10323 @ 그개 인재 호물호물하면 안 되자나요. {그개 이제 호물호물하면 안 되잖아요?}

10323 @ 그래서 뒤에다가 긴: 작때기루다가, {그래서 뒤에다가 긴 작대기로,}

10323 # 그러치 인재 우:에서, {그렇지 이제 위에서,}

10323 @ 예. {예.}

10323 # 이기 우:애 두: 쪼가리여. {이게 위에 두 쪽이야.}

10323 @ 예:. {예.}

10323 # 어 우애 언지녕 거시 두: 쪼가린대 인재 인재 여기다 췌:걸 쳐 이쭈 저쭈. {어 위에 얹는 것이 두 쪽인데 이제 이제 여기다가 췌기를 쳐 이쭈 저쭈.}

10323 # 췌:걸 치면 췌:기 인재 이러캐 미리 드러가면 팽팡할 꺼 아니여? {췌기를 치면 췌기가 이제 이렇게 밀어 들어가면 팽팡할 거 나니야?}

10323 @ 예:. {예.}

10323 # 탕탕하지 머 아주. {탕탕하지 뭐 아주.}

10323 # 그러면 이러캐 이러캐 해두 너리갸도 아나구.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내려가지도 앓고.}

10323 @ 예:. {예.}

10323 # 개 인재 이만:창 이거 다트로 인재 치머닌 인재 그 췌:걸 빼고선만 느러지시. {그래 이제 이만큼 이거 달으로 이제 치면 이제 그 췌기를 빼면 늘어지시.}

10323 @ 예:. {예.}

10323 # 그러면 이러캐 이러캐 하면 인재 그기 회저니 되지 현재 알:루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회전이 되지 현재 아래로 해서.}

10323 # 이러캐 이래:{이렇게 이렇게.} 10323 @ 놀러 가주. {놀러 가지고.}

10323 # 예:. {예.}

10323 # 그래서 여기 여기만:창 인재 다:머닌 또 인재 또 그 췌:길 또 또 치구서닌 또 이러캐 하구. 흐허허. {그래서 여기 여기만큼 이제 닿으면 또 이제 또 췌기를 또 또 치고서 또 이렇게 하고. 흐허허.}

10323 # 이거뚜 또까타. {이것도 똑같아.}

10323 # 그 또 저 왕골루 하능 거 하구. {그 또 저 왕골로 하는 것 하고.}

10323 # 가마이 치능 거 하구. {가마니 치는 것 하고.}

10323 @ 자리 매:능 거뚜 그러캐 하구요? {자리 매는 것도 그렇게 하고요?}

10323 # 이 매:능 거닌 단수니 {이 매는 것은 단순히,} 10323 @ 저:기 돈짜리 {저기 돛자리,}

10323 # 아: 돛짜리두 그러캐 해요. 으. {아 돛자리도 그렇게 해요. 으.}

10323 @ 매:능 거닌 하나씩 소느루 하능 거니까. {매는 것은 하나씩 손으로 하는 것이니까.}

10323 # 예:. {예.}

10323 @ 예저내 저기 하라버지가 자리 매:능 거 함 번 본 저기 이썰요. 저 사기루 된 고드래뜰, {예전에 저기 할아버지가 자리 매는 거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저 사기로 된 고드랫뜰,}

10323 # 어: 그거는 그거른 아마: 이러캐 아니구 조끔 드뭇 걸 끼유. {어 그것은 그것은 아마 이런게 아니고 조금 드뭇 것일 거요.}

10323 # 요러캐. {요렇게.}

10323 @ 예:. {예.}

10323 # 으:. {으.}

10323 # 그래서 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 마른 왕골 이 따개서루 소:개 집 항 개씩 이르
개 싸서루.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 마른 왕골을 쪼개서 속에 짚을 한
개씩 이렇게 싸서.}

10323 @ 예:. {예.}

10323 # 이래 행 거 아마 그기: 그 그 인재 그 모두 아나구 이러케 지:가 애기하녕 건 너
머 경술한 애긴대. {이렇게 한 것 아마 그게 그 그 이제 그 보지도 앓고 이렇게
제가 애기하는 것은 너무 경술한 애긴데.}

10323 @ 그래쓸꺼 가태요 저 잘 어리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잘 어리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10323 # 그짜그룬 그걸 마:니 써요. {그쪽으로는 그걸 많이 써요.}

10323 @ 예:. {예.}

10323 # 저짜그룬. {저쪽으로는.}

10323 @ 금 그:러케 항 거는 이르미 이거는 초석짜리구.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은 이름이
이것은 초석자리고.}

10323 # 으:. {으.}

10323 @ 그러케 항 거는 이르미 머요? {그렇게 한 것은 이름이 뭐예요?}

10323 # 맨덕짜리 맨자리. {맨덕자리 맨자리.}

10323 # 그냥 맨자리. {그냥 맨자리.}

10323 @ 그냥 맨자리. {그냥 맨자리.}

10323 # 어 어 이건 돌 저 이러케 행 거넌 돌짜리. {어 어 이건 돛 저 이렇게 한 것은 돛
자리.}

10323 @ 칭 거는 돌짜리. {친 것은 돛자리.}

10323 # 예 예: 예. {예 예 예.}

10323 @ 요거는 인재 초석짜리구. {요것은 이제 초석자리고.}

10323 # 기양 기양 초서기구. {그냥 그냥 초석이고.}

10323 @ 왕골 소개다가, {왕골 속에다가,}

10323 # 어 어 그거 이러케 이러케 벙기서 항 거넌 그건 맨자리구. {어 어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넘겨서 한 것은 그건 맨자리고.}

10323 @ 맨자리구. {맨자리고.}

10323 # 예:. {예.}

10323 # 그 그르케... {그 그렇게...}

10323 # 그래 그르케 그르케 츠:매 드러써요, 지:가 드러털. {그래 그렇게 그렇게 처음에
들었어요, 제가 듣기를.} 10323 @ 아: 예:. {아, 예.} 10323 # 허허. {허허.}

10323 @ 아이 저기 바까태 저 띠풀 인능 거 보구서 오늘 자리 조:응 거 배웠내요? {아이
저기 바깥에 저 띠풀 있는 거 보고 오늘 자리 좋은 것 배웠네요? 10323 # 헤헤
하하하. {헤헤하하하.}

1.3. 생업 활동

1.3.1. 논농사

10302 @ 어제 제가 저기:, {어제 제가 저기,}

10302 # 으:. {으.}

10302 @ 어끄저께 농사진능 거 저 여쭙 본다 그래씨짜나요? {엇그저께 농사짓는 것 저 여쭙어 본다고 그랬었잖아요?}

10302 # 예:. {예.}

10302 @ 논농사: {논농사.}

10302 # 으:. {으.}

10302 @ 논농사 진능 거: 맨: 처매 씨: 씨:부터 해 가주구: 타작- 카 하구 방아 찌:면 끝나능 거자나요? {논농사 짓는 거 맨 처음에 씨 씨부터 해 가지고 타작하고 방아 찧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10302 # 예:. {예.}

10302 @ 거기까지. {거기까지.}

10302 @ 맨: 처매 씨를 어트캐... {맨 처음에 씨를 어떻게...}

10302 # 그러면 머여: 곡씨뚜 여러 가진대 나락뚜 이꾸 보리두 이꾸 또 밀 밀두 이꾸. {그러면 뭐야 곡식도 여러 가지인데 나락도 있고 보리도 있고 또 밀도 있고.}

10302 @ 그래잉까 하 저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 저 하나하나...}

10302 # 그래. {그래.}

10302 # 교순니미 말씀... {교수님이 말씀...}

10302 @ 나락뿌터... {나락부터...}

10302 # 어 나락뿌터 인재-는 예:: 사뭇, 한식 찌내머넌 썬나라걸 당과요. {어 나락부터 이제는 예 삼월, 한식 지내면 씨나락을 담가요.}

10302 @ 예. {예.}

10302 # 어: 저기 저 한디다 너리기다 인재 썬나라걸. {어 저기 저 한테다가 너리기에다 이제 씨나락을.}

10302 # 우리 내 농사질: 찌개 그르캐 해:씨요. {우리 내(가) 농사지를 적에 그렇게 했어요.}

10302 # 내가 농사질 찌개. {내가 농사지를 적에.}

10302 # 나 예레서 쌀버팀 농사릴 해뵈:넌대. {나 열여섯 살부터 농사를 해 봤는데.}

10302 # 그러면 인재 당귀따가서, {그러면 이제 담갔다가,}

10302 # 그리잉개 고구라는 절후가 이짜나요 고구. {그러니까 곡우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곡우.}

10302 @ 네:. {예.}

10302 # 고구라넝 건 인재 그 서리가 그친다는 인재 글 근:대:, 고구. {곡우라는 것은 이제 그 서리가 그친다는 이제 그 그건데, 곡우.}

10302 # 그 때 무르배 가머넌 인재 노내 가서 모자리터털 인재 가라 가주구서 가라 가주서 루 인재 무털 물 무털 대:서 거시기 갈:지:. {그 때 무렵에 가면 이제 논에 가서 못 자리터를 이제 갈아 가지고 갈아 가지고서 이제 물을 물 물을 대서 거시기 갈지.}

10302 # 그러면 인재 소루다가서 인재 막 쓰:레루다가 거 쓰:레두 이꾸 다: 이짜나요? {그

러면 이제 소로 이제 막 씨레로 거 씨레도 있고 다 있잖아요?}

10302 # 거 쓰:레루다가 인재 소루다 살마서로 고::께 이러케 살머 가주구서넌 예럴 인재 이래 예럴 드러서 이런 이러케 파널 맨드러요. {거 씨레로 이제 소로 삶아서 곱게 이렇게 삶아 가지고는 예를 이제 이래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판을 만들어요.}

10302 @ 예:. {예.}

10302 # 어: 이 밀 밀개루 이러케 주릴 띄워 가면서 이러케 파널 맨드러 가주서넌, 그래서 인재 구취. {어 이 고무 고무래로 이렇게 줄을 띄워 가면서 이렇게 판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굳혀.}

10302 # 무릴 빼가주 쪽: 빼구서 끝 구취. {물을 빼 가지고 쪽 빼고 굳 굳혀.}

10302 @ 예:. {예.}

10302 # 어: 그 모자리터털. {어 그 못자리터틀.}

10302 # 그래 줌 어느 정도 단단하드록 이래 저기 구쳐 가주구서넌 인저 낼: 거 썬나라걸 파종해야 디야 거기다 나라걸. {그래 줌 어느 정도 단단하도록 이렇게 저기 굳혀 가지고는 이제 내일 그 씨나락을 파종해야 대 거기다가 나락을.}

10302 # 그라면 인재 무릴 대: 가주구서넌 인재 대 뒤편가서루 그 썬나라걸 인재 물리 쪽: 빠진 뒤에 인재 바 그거뚜 바라미 불:면 안 대요 무런. {그러면 이제 물을 대 가지고는 이제 대 두었다가 그 씨나락을 이제 물이 쪽 빠진 뒤에 이제 바 그것도 바람이 불면 안 돼요 물론.}

10302 # 인재 여기 무리 이씨닝개 바라:미 불면 물싸리 쳐서루 나라기 자꾸 물리구 그래서 인재 흔히 식찌내 가서 마니 চে요. {이제 여기 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쳐서 나락이 자꾸 물리고 그래서 이제 흔히 식전에 가서 많이 쳐요.}

10302 @ 네:. {예.}

10302 # 인재 광:자카느니는 우티개 다: 식찌내 모: 치닝개 나매 노벌 으더 음:꾸 이래 가주구서루 가치 가서 치구 이라넌대. {이제 광작하는 이는 어떻게 다 식전에 못 치니까 남의 농을 얻어 얻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갖이 가서 치고 그러는데.}

10302 # 그라면 인재 메칠 지:나면 인재 그 무레서루 이러케 초기 트지요.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그 물에서 이렇게 축이 트지요.}

10302 @ 고거 할 때요, {그거 할 때요,}

10302 # 으:. {으.}

10302 @ 이 이게 노니 이망:큼 이쓰면, {이 이게 논이 이만큼 있으면,}

10302 # 으:. {으.}

10302 @ 요로:캐 요로캐 면 개 만들자너요 요로캐. {요렇게 요렇게 몇 개 만들잖아요 요렇게.}

10302 # 으:. {으.}

10302 # 글쎄요, 그러케 맨드러 아까 말씀드리쎄:. {글쎄요, 그렇게 만들어 아까 말씀드렸지.}

10302 @ 예:. {예.}

10302 # 이러 이거 이거마냥 이래 파널 맨든다구. {이러 이거 이것처럼 이렇게 판을 만든다고.}

10302 @ 예:. {예.}

10302 # 예:. {예.}

10302 @ 그걸 다 그거 모판이라 그래요? {그걸 다 그것을 모판이라고 해요?}

10302 # 예: 그걸 모판이라 그러는데, {예, 그걸 모판이라 그러는데,}

10302 @ 그 전체는, {그 전체는,}

10302 # 모자리 기양 모자리터:. {못자리 그냥 못자리터.}

10302 # 모자리터:. {못자리터.}

10302 @ 예. {예.}

10302 @ 모자리터고 고 하나 하나는 모판니구. {못자리터고 그 하나 하나는 모판이고.}

10302 # 예 거, {예 그,}

10302 @ 그개 그개 쪼끔 요로:캐 요로:캐 파 노만 쪼름 눅쪼름 고기는? {그게 그게 조금 요
렇게 요렇게 파 놓으면 조금 높지요 고기는?}

10302 # 어 그른대 어: 그러치 인재 그르케 해구서루 이래 이래 인재 이래 갈라 가주구서,
{어 그런데 어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갈라 가지
고,}

10302 @ 네. {예.}

10302 # 이 이래 이래 갈라 가주 갈라 가주구서 가운데가 좀 도도로카자나? {이 이렇게
이렇게 갈라 가지고 갈라 가지고 가운데가 좀 도도룩하잖아?}

10302 @ 예:. {예.}

10302 # 그럼 이 미 밭 이래 양쪽 고:릴 할 찌개 밭:개루 이래 글거 언지요. {그러면 이
미 밭 이래 양쪽 골을 할 적에 고무래로 이래 긁어 없어요.}

10302 @ 예:. {예.}

10302 # 글거 언지면 인재 저짜카구 이짜카구 가치 글거 언지야 그 말짜나요? {긁어 언으
면 이제 저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긁어 없어야 그 맞잖아요?}

10302 @ 네:. {예.}

10302 # 그러면 저: 소 왜 쓰:레 아패 왜 이러케 송판때기 대:구서 이래 고르능 거 그거
이써 저:기 사지내. {그러면 저 소 왜 써레 앞에 왜 이렇게 송판을 대고 이렇게
고르는 거 그거 있어 저기 사진에.}

10302 @ 예:. {예.}

10302 # 그걸루 인재 가운데 서서루 이래 발루 쿠쿠쿠쿠 발부민서 자꾸 뒤루 이래 따라
나가요. {그것으로 이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발로 쿡쿡쿡 밟으면서 자꾸 뒤로
이렇게 따라 나가요.}

10302 # 그러면 호칼루다간 이러케 생판 이 이거그치 이개 패너리::하개 골라지지.{그러면
흙칼로 이렇게 생판 이것 같이 이게 팬하게 골라지지.}

10302 # 너푼 눅도 가라양꾸. {눅은 눅도 가라앉고.}

10302 @ 예:. {예.}

10302 # 그런 뒤:애 인재 구취 가주구서, {그런 뒤에 이제 굳혀 가지고,}

10302 @ 예:. {예.}

10302 # 구취 가주구서 인재 봐:따가 인재 물 대 가주서 그래 그 씨나라걸 인재 가주와서
씨나라기 인재 그때 가면 제우 눈 터요. {굳혀 가지고 이제 놓았다가 이제 물을
대 가지고 그렇게 씨나라를 이제 가져와서 씨나라가 이제 그때 가면 겨우 눈이 터
요.}

10302 @ 네:. {예.}

10302 # 요래 하얏개 눈: 터. {요렇게 하얏개 눈이 터.}

10302 # 그랄꺼 가트면 가따 인재 파종얼 해:서. {그럴 것 같으면 가져다가 이제 파종을 해서.}

10302 # 그 인재 어너 정도 요만:창 인재 크머넌 무럴 쪽 빼 가주서 이걸 단단하개 구취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요만큼 이제 크면 물을 쪽 빼 가지고 이걸 단단하개 굳혀요.}

10302 # 썬나라기 인재 이래 어:, 또 으: 나라기 요만:창 트머넌. {썬나라기 이제 이렇게 어, 또 으 나라기 요만큼 트면.}

10302 @ 트면 {트면,} 10302 # 예. {예.} 10302 @ 트면 {트면,}

10302 # 어. {어.}

10302 # 트면 트면 요만:창 트면, {트면 트면 요만큼 트면,}

10302 @ 한 매디 정도 트면 그러나요 요로케 송까학 함 매디. {한 매디 정도 트면 그러나요, 요렇게 손가락 한 매디.}

10302 # 으: 너머 질:개 트머넌 이개 드로뉘 가주서루 이러나시덜 모태요. {으 너무 길게 트면 이개 드러누워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10302 @ 예:. {예.}

10302 # 그래잉개 요만:창 트러서 일찌개 일찌기 그걸 저: 말리닝 거시 조아. {그러니까 요만큼 틀어서 일찍 일찍 그걸 저 말리는 것이 좋아.}

10302 # 그걸 '그룬다' 구라지. {그것을 '그룬다' 그러지.}

10302 # 으 모자리 터, 모자리 그룬다구. {으 모자리 터, 모자리 그룬다고.}

10302 @ 그거뚜 또 침: 드러보눔 마리오.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10302 # 모:자리 그룬다 구래요. {못자리 그룬다 그래요.}

10302 @ 고로케 물 빼 가주구, {그렇게 물 빼 가지고,}

10302 # 예 예:. {예 예.}

10302 @ 요:. {요.}

10302 # 어: 그러치. {어 그렇지.}

10302 @ 구쳐 가주구 인재 뿌리 내리개 하능 거요? {굳혀 가지고 이제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10302 # 예:. {예.}

10302 # 그래야 인재 이후애 꼬꼬타개 스구. {그래야 이제 이후애 깨끗하게 서고.}

10302 # 그 대번 그래 구쳐서루 물 대머넌 이기 인재 뿌링이가 한두 개요, 모 뿌링이가? {그 대번 그렇게 굳혀서 물 대면 이게 이제 뿌리가 한두 개요, 모 뿌리가?}

10302 # 마:니 나오넌대 인재: 새 뿌리가 너리와 가주서로 인재 거기 인재 거름도 모도 채 간대도 언치구 이래쓰닝개 거 인재 채 거름 맏뽀구서 인재 이기 자꾸 인재 크지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새 뿌리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거름도 모두 채 간대도 얹히고 이랬으니까 거 이제 채 거름 맛보고 이제 이게 자꾸 이제 크지요.}

10302 # 으: 그만 인재 요마 요만:창 되쓸 찌개 인재 그래 한 번 그루구 나:중애 또 한 번 그룰 쭈가 그룰 쭈두 이썬요 또. {으 그만 이제 요만 요만큼 되었을 적에 이제 그렇게 한 번 그루고 나중애 또 한 번 그룰 수가 그룰 수도 있어요 또.}

10302 # 또 요만:창 인재 바늘마크마개 크면 또 함 번 그룰 쭈두 이꾸 그리유 그개. {도

요만큼 이제 바늘만큼하게 크면 또 한 번 그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제.}

10302 # 그러면 인재 저: 미친 날 인재 모 싱군다. {그러면 이제 저 며칠날 이제 모 심는다.}

10302 # 그러면 인재 망중 무러비머년 일찌기, 버리 인재 그 버리 전 망중이면 버리 인재 누루루:매서 인재 될 그 저 절훈대. {그러면 이제 망중 무렵이면 일찍, 보리 이제 그 보리 전 망중이면 보리 이제 누르륵해서 이제 될 그 절기인데.}

10302 # 젤: 먼저 인재 존: 물 조:쿠 존: 논 부치닌 이가 그 때 일찌기 싱:깨 되지유. {제 일 먼저 이제 좋은 물 좋고 좋은 논 부치는 이가 그 때 일찍 심게 되지요.}

10302 # 장개 저룬대. {** 절기인데.}

10302 # 그저 요 주머개서 요래 한 주머개서 요만:창만 크머년 뽀바 시머썬요 그걸. {그저 이 주먹에서 이래 한 주먹에서 요만큼만 크면 뽀아 심었어요 그걸.}

10302 @ 네:. {예.}

10302 # 어. {어.}

10302 # 전:부 요 판파니 하낙씩 드러서서루 인재 모 싱구너니더리 드러서서루. {전부 요 판판이 하나씩 들어서서 이제 모 심는이들이 들어서서.}

10302 # 이래 뽀바 가주구서루, 그 인재 이래 요마:쿰 이래이래 한 오쿰씨캐서루 하면 이 러캐 소내다 이 러캐 노쿠 인재 이래 이래 이 러캐 노쿠 인재 인재 이 이래 어, 이 래 이래 이래 이래 느: 가주서루... {이렇게 뽀아 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이렇게 한 움쿰씩 해서 하면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이렇 게 이렇게 놓고 이제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 가지 고...}

10302 @ 어금매끼루. {어긋맏기로.}

10302 # 어: 어금매끼루. {어 어긋맏기로.}

10302 # 이래 느썬만 여길 지푸루다가 이래 가마 가주구서 이래서 느:카서루 이르카면 여 가 인재 줄리여 으:. {이렇게 놓았으면 여기를 짚으로 이렇게 감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조여 으.}

10302 # 예를 드러서루, {예를 들어서,}

10302 @ 나중애 시물 때 그거 잘 뽀 저 빠지라구 하능 거지요 그거? {나중에 심을 때 그 거 잘 뽀 저 빠지라고 하는 거지요 그제?}

10302 # 어: 끌르기가 쉬워. {어 끌르기가 쉬워.}

10302 @ 예:. {예.}

10302 # 그러면 그걸 끌르덜 안 하구 한 오쿰: 한 오쿰 빼: 가주서 해야지 끌러 노머년 자 꾸 이걸 왕기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끌르지를 앓고 한 움쿰 한 움쿰 빼 가지고 해야지 끌러 놓으면 자꾸 이것을 옮겨야 되니까.}

10302 # 어 자꾸 이랬 어: 이 러캐 저 뒤:로 왕기가민서 하닝깨루 기냥 고대루 봐:두구서루 이래 한 오쿰씩 빼:서 하머년 그 화:가너트리지고. {어 자꾸 이래 어 이렇게 저 뒤 로 옮겨 가면서 하니까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이렇게 한 움쿰씩 빼서 하면 그 확 안 흐트러지고.}

10302 # 그래 그거뚜 저: 이래 모 뽀넝 거뚜 그거뚜 묘도기 이썬야 되유, 기냥 이 러캐 자 꾸 이 러캐 자부달리기만 한 안: 디야. {그래 그것도 저 이렇게 모 뽀는 것도 그것 도 묘독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잡아달리가마 하면 안 돼.}

10302 # 이러캐 왜해 이러캐 이러캐 자꾸 이르게 하면 여가 인재 드러올 꺼 아니여 모가.
 {이렇게 왜해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들어올 것 아니야 모가.}

10302 @ 예. {예.}

10302 # 그러면 요러캐 살:살 이래 이러캐 이러캐 돌리 가민서루, {그러면 요렇게 살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 가면서,}

10302 @ 예:. {예.}

10302 # 어, 이러캐 이러캐 회저널 시키가민서 이르게 자꾸 뽀바야지 뿌랭이가 칸초카지,
 {어, 이렇렇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자꾸 뽀아야지 뿌리가 칸총하지,}

10302 @ 아:. {아.}

10302 # 예 헤헤. {예 헤헤.} 10302 @ 그렇 개 또 이썬요? {그런 게 또 있어요?}

10302 # 예: 칸총하지 기냥 막: 이러캐 뽀부면 칭이 자꾸 이기 칭이 저 미끄 때. {예 칸총하지 그냥 막 이렇게 뽀으면 층이 자꾸 이게 층이 쳐서 밀 끝예.}

10302 # 그러면 이러캐 싱굴 찌개 우 뿌랭이가 이러캐 꺼꺼... {그러면 이렇게 심을 적에 위 뿌리가 이렇게 꺾어...} (전화 벨 소리)

10302 # 장판. {잠깐.}

(전화 벨소리)

1030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02 # 으: 참 마:나. {으 참 많아.}

10201 @ 그러닝깐 겐지는 머 일너내 함 번씨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겐진은 뭐 일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해요?}

10201 # 그르치유 일너내 인재 함 번씨카는대 저 짱 만는 나이가 이꾸 짹 암 만는 나이가 이짜나, 나이가? {그렇지요 일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 짹 맞는 나이가 있고 짹 안 맞는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10201 # 그래 인재 내가: 내가 내너내 짱 만넌 나이 나일 끼유. {그래 이제 내가 내가 내년에 짹 맞는 나이 나이일 거요.}

10201 # 저 호:적쌍으루 **. {저 호적쌍으로 **.}

10201 # 그른대 그래서 그래서루 존:화루 한나비여 아마 하아.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전화로 했는가봐 아마 하아.}

10201 @ 호적 호저카구 그냥 나이하구 쪼끔 다르지요? {호적 호적하고 그냥 나이하고 조금 다르지요?}

10201 # 다른대 다른대 줌 몰:러, 다: 호:적 뽀구 지금 거시기 시:행하자너? {다른데 다른데 줌 몰라, 다 호적 보고 지금 거시기 시행하잖아.}

10201 @ 예:. {예.}

10201 # 그리유, 으:. {그래요, 으.}

10201 @ 하라부지 월래: 저기 머여 생시는 언젠대요? {할아버지 원래 저기 뭐야 생신은 언제인데요?}

10201 # 사:월 음력 사:월 이십사:일 나리유 생이리. {사 월 음력 사 월 이십사일 날이요 생일이.}

10201 # 그른대 호:저걸 바루 해써:. {그런데 호적을 바로 했어.}

10201 # 유:월 이시 유:월 이시꾸일 나리, {유 월 이십 유 월 이십구일 날이,}

10201 @ 예. {예.}

10201 # 내 호:적 썩이리라고. {내 호적 생일이라고.}

10201 @ 였나래는 머 저:기 호:저칼 때 일 한두 해 막 이따가 하구 그래짜너요? {였날에는 머 저기 호적할 때 일 한두 해 막 있다가 하고 그랬잖아요?}

10201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01 # 그래 우리 아번니면 인재 바로 가따 호:저걸 행는데 내 나이애두 인재 좀 느께 한 사라면 고 해 너머간 고 이듬해 하면 한 사리 까머꾸 드르가 호:저개. {그래 우리 아저님은 이제 바로 갖다 호적을 했는데 내 나이에다 이제 좀 늦게 한 사람은 그 해 넘어간 그 이듬해 하면 한 살을 까먹고 들어가 호적에.}

10201 @ 예. {예.}

10201 # 어:, 그래 행정상으루다 멀: 할 썩개 하는데 그 조은 점두 이꾸 나쁜 점두 이뜨라구 으:. {어 그래 행정상으로 뭘 할 적에 하는데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고 으.}

10201 @ 예. {예.}

10201 # 호:니 저 지금 머 점 우리 돈 저: 머여 어:: 동니벌 인재 으:더 가주구서루 구니닐 인저 가구 그라자나? {흔히 저 지금 뭘 저 우리 돈 저 뭘야 어 독립을 이제 얻어가지고 군인을 이제 가고 그러잖아?}

10201 # 도쿤 나라애 저 구니니 이씨야 구니니 나라를 지키능 거 아니개씨요? {** 나라애 저 군인이 있어야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10201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01 # 그래 인저 그: 다: 거 호:정 나이 가주서루 인재 시행얼 하는데. {그래 이제 그 다 그 호적 나이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는데.}

10201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201 # 으 그래 일번 썩치 때 그 사람 저:기 지배 바들 썩개두 나보다 한 살 더 머그니가 참 어제 아:래두 그걸 말쓰멀 디리꾸만 한:문 좀 배워 배운다구 한:문만 드르안자서 배우는데 그 아버지가 호:저걸 느께서 해써 으:. {으 그래 일본 정치 때 그 사람 저기 지배 받을 적에도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이가 참 어제 그저께도 그걸 말씀들 드렸구먼 한문 좀 배워 배운다고 한문만 들어앉아서 배우는데 그 아버지가 호적을 늦게 했어 으.}

10201 # 그래서 한 사리 까머저저 가주구서루 나하구 가치 구니를 가씨. {그래서 한 살이 까먹어져 가지고 나하고 같이 군인을 갔어.}

10201 # 죽 주거서 모:되씨요, 주거씨. 허허허 허. {죽 죽어서 못 왔어요, 죽었어. 허허허 허.}

10302 @ 아까 얘기하시등 거요. {아까 얘기하시든 거요.}

10302 # 으:. {으.}

10302 @ 그럼 모:... {그럼 모...}

10302 # 어 그래 모 모. {어 그래 모 모.}

10302 @ 예 그걸 뽐는다 그래요? {예 그걸 뽐는다 그래요?}

10302 # 어: 모: 쥘다 구라지 모 쥘다구, 썩. {어 모 쥘다 그러지 모 쥘다구, 썩.}

10302 # 으: 모럴 썩, 뽐녕 개 아니 모 뽐녕 개 아니구 뽐녕 거 아나구 다 쥘다 구리야 그

걸. {으 모를 찌, 뽑는 게 아니(고) 모 뽑는 게 아니고 뽑는 게 아니고 다 찢다 그
래 그걸.}

10302 @ 예:. {예.}

10302 # 예 자부당겨서 이래 이래해서 대:꾸 무껴서 이러캐 내:노쿠 하능 걸 그 모 찢다
구리야. {예 잡아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꾸 묶어서 이렇게 놓고 하는 걸 그
모 찢다 그래.}

10302 @ 삼두 그런 말 쓰자녀요? 사미나 저 깨 가통 거뚜 베능 거를, {삼도 그런 말 쓰잖
아요? 삼이나 저 깨 같은 것도 베는 것을,}

10302 # 으:. {으.}

10302 @ 그릴 때두, {그릴 때도,}

10302 # 그 찢다 구라지. {그 찢다 그러지.}

10302 # 그 나스루 깡는 깡능 걸 찢다 구리야, 깨 찢고 으: 산나구 그라자너 윈. {그 낫으
로 깡는 깡는 걸 찢다 그래, 깨 찢고 으 **고 그러잖아 윈.}

10302 # 내 온 오늘 들깨 찢야 될 텐데. {나 오 오늘 들깨 찢야 될 텐데.}

10302 @ 예:. {예.}

10302 # 창깨 찢야 될 텐데 이러캐 이러캐 마:리 이러캐 나가지. {참깨 찢야 될 텐데, 이러
게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가지.}

10302 @ 글썸 그래능 거 가터요. {글썸 그러는 것 같아요.}

10302 # 그걸 나스루 깡능 거뚜 찢다 구리야. {그걸 낫으로 깡는 것도 찢다 그래.}

10302 @ 예:. {예.}

10302 # 어:. {어.}

10302 @ 모 이거 저:, {모 이거 저,}

10302 # 모 자버당기닝 거뚜 그거뚜 모 찢다구 하구. {모 잡아당기는 것도 그것도 모 찢다
고 하고.}

10302 @ 예:. {예.}

10302 @ 그래 가주구 인재 무껴서, {그래 가지고 이제 묶어서,}

10302 # 어:. {어.}

10302 # 그람 인재 그라 잼 인재 인재 다: 이래 모두 자:꾸 찢는대루 인재: 머 모 싱구넌
대 샤:라미 한둘 가주 되거썬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모두 자꾸
찌는래로 이제 뭐 모 심는데 사람이 한둘 가지고 되겠어요?}

10302 # 그람 인재 저 애:덜 저 모 모 일: 모:타는 애덜두 인재 가 드르가서 인재 이르:캐
건지다가서 논뚜개 주서 내노면 인재 무리 자꾸 빠지자나? {그러면 이제 저 애들
저 뭐 뭐 일 못하는 이들도 이제 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건져서 논둑에 주어 내
놓으면 이제 물이 자꾸 빠지잖아?}

10302 # 빠지면 인재 먼: 노내넌 인재 지개루 지구 가기도 하고, 지구 지구 가서 인재 금
이러캐 여:기 저기 편지여 이러캐. {빠지면 이제 먼 논에는 이제 지개로 지고 가
기도 하고, 지고 가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여:기 저기 던져 이렇게.}

10302 # 여:기 저기 인재 싱굴 만:치 이르개 편지 노머넌 그 인재 싱구너니덜 인재 드르가
가주서루 이러캐 모추덜 이래 갈라 가주서루 인재 싱구고. {여:기 저기 이제 심을
만큼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그 이제 심는 이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모춤을
이렇게 갈라 가지고 이제 심고.}

10302 # 또, {또,}

10302 @ 멀: 갈라요? {뭘 갈라요?}

10302 # 갈라 자주구서 이 모추멀. {갈라 가지고 이 모춤을.}

10302 @ 예:. {예.}

10302 # 어: 니: 모수니미까 인대가 하 한 주먹 항 거 이르케 **거 한 오쿰씩 이래 드르가여. {어 네 모숨이니까 이제 한 한 주먹 한 것(을) 이렇게 **거 한 움쿰씩 이렇게 들어가.}

10302 @ 니: 모숨쟁 무꺼요? {네 모숨씩 묶어요?} 10302 # 그리, 예:. {그리, 예.}

10302 # 으: 그럼 인재 그건 니: 번씩 갈라서 소내 드려여 디야. {으 그러면 이제 그건 네 번씩 갈라서 손에 들어야 돼.}

10302 # 그래서 싱구고. {그래서 심고.}

10302 # 모가 왕길 찌개 아주 멀:머년, 으: 그땐 머: 마:차두 우:꼬 그럴 쟈 인재 전부 소 등어리 아니면 사:람 등어리루 저 가. {모를 읊길 적에 아주 멀면, 으 그때는 뭐 마차도 없고 그것을 이제 전부 소 등 아니면 사람 등으로 저 가.}

10302 # 어 소애 인재 질마 언지 자주구서루 인재 거기다 인재 실:꾸서루 멀:리 가는대는 으: 그 노내 대해서루 모자리터가 읊씨머년 어디던지 내 내 농사애 모자리 무리 인년 대래야 모자릴 하거덩? {오 소애 이제 질마 얹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싣고서 멀리 가는대는 으 그 눈에 대해서 모자리터가 없으면 어디든지 내 내 농사에 못자리 물이 있는 데래야 못자리를 하거든?}

10302 # 어 물: 따라서 그래기 또래 모:자리 뽀바 자주구서루 멀:리 가는 수가 마:나요. {어 물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못자리 뽀바 가지고 멀리 가는 수가 많아요.}

10302 @ 네:. {예.}

10302 @ 그러면 그러케 모를 인재 저 날려야 되자녀요? {그러면 그렇게 모를 이제 저 날려야 되잖아요?}

10302 # 으:. {으.}

10302 @ 질마:두 보먼요? {길마도 보먼요?}

10302 # 야: 질마두 보먼, {야 길마도 보먼,}

10302 @ 우애 우애다가 언지녕 거뚜 이꾸 여패 이러케 주머니 가치 하구... {위에 우애다가 었는 것도 있고 옆에 이렇게 주머니 같이 하고...}

10302 # 그애 그러치, 그 질마 우:애 그개 언치능 거요. {그래 그렇지, 그 길마 위에 그개 었는 거요.}

10302 @ 우애 하능 거. {위에 하는 거.}

10302 # 그러치 이러케 이래 질마가 이러기 생긴년대 이개 소 등어리루 이러케 가서 언치능 기여. {그렇지 이렇게 이래 길마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개 소 드으로 이렇게 가서 었히는 거야.}

10302 @ 예:. {예.}

10302 # 으: 언치년대 인재 이거시 인재 질마가 히뚝히뚝 안 너머 가드록 이기 다: 조종얼 인재 해 자주구서루 그 인저 모 모 실렁 거 인재 그 저: 보리 흑째 하능 거 이렇거 다: 인재 글 인저 글 웅:기라 구리야 재, 으: 재:웅:기. {으 었히는데 이제 이것 이 이제 길마가 히뚝히뚝 안 너머 가도록 이개 다 조종을 이제 해 가지고 그 이제 모 모 싣는 거 이제 그 저 보리 흑째 하는 것 이런 것 다 이제 그 이제 그것을 웅

기라 그래 재, 으 재옹기.}

10302 # 어: 모 모 인재 담:넝 거 모: 저: 글:채 모꼴채. {어 모 모 이제 담는 것 모 저 걸 채 모꼴채.}

10302 # 나락꼴채. {나락걸채.}

10302 # 나락 비: 가주서 인재 말리따가 인재 지배 타자카루 올 찌개 실렁 건 나락꼴채. {나락 베어 가지고 이제 말렸다가 이제 집에 타작하러 올 적에 싣는 것은 나락걸채.}

10302 @ 그거는 작때기루다가 이르케... {그것은 작대기로 이렇게...}

10302 # 으 야 야 그르 으: 야 그르케 압뛰 압뛰애 자라개서 인재 해: 가주서로 사내끼 줄 양짜그루 이르케 인재 하구 인재 바다개는 이렇 거 인재 저기 나랑 이상 안 날리게 이렇 걸루 해 가주서로 그래 인재 양짜그루 이러케 해서루 소애다 인재 실:꾸서루 이래 이래 데리고 나가서 마당에서... {으 야 야 그렁 으 야 그렇게 앞뒤 앞뒤에 자락에서 이제 해 가지고 새끼 줄을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바닥에는 이런 것 이제 저기 나락 이삭 안 날리게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소애다 이제 싣고서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마당에서...}

10302 @ 그건 글: 글:채라 그래요? {그것은 걸 걸채라고 해요?}

10302 # 예: 그걸 나락글채라 구라지요. {예 그걸 나락걸채라 그러지요.}

10302 @ 여기 여패 재: 하능 건 재:옹기. {여기 옆에 재 하는 건 재옹기.}

10302 # 어: 재:옹기. {어 재옹기.}

10302 # 인재 저 모 시러 나르능 건 인재 이러케 이러케 인재 열거 가주서루 열거 가주 그물 그물. {이제 저 모 실어 나르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엮어 가지고 엮어 가지고 그물 그물.}

10302 @ 예:. {예.}

10302 # 그물마냥 그르케 열거 가주서 미꾸녀개 인재 저: 꼬쟁이루다가선 꼬쟁이루다 이러케 인재 이작 저작 이르케 해서루 연결해서 꼬쟁일 찢르지. {그물같이 그렇게 엮어 가지고 밑에 이제 저 꼬챙이로 꼬챙이로 이렇게 이제 이쪽 저쪽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꼬챙이를 지르지.}

10302 # 그러면 그 우:애 주서 느두 그개 안 흘리. {그러면 그 위에 주워 넣어도 그개 안 흘리.}

10303 @ 그걸루다가 저서 노내 가따가 골고루, {그것으로 저서 눈에 가져다가 골고루,}

10303 # 예. {예.} @ 편저 노치요? {던져 놓지요?}

10303 # 편저 노면 인재 싱구녀이더리 드르가서루... {던져 놓으면 이제 심는 이들이 들어가서...}

10303 # 아:래두 그 말씀 디리씨자나? {그저께도 그 말씀 드렸었잖아?}

10303 # 그저내년 전부 그냥 이래 이래 예:릴 드리서 이게 노니머년 죽: 여기 일꾼더리 드르가서루 내 압 될 망금씩 이러케 자바 가주서루 시머유, 이러케 예 심넌대. {그전에는 전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논이면 죽 여기 일꾼들이 들어가서 내 앞 될 만큼씩 이렇게 잡아 가지고 심어요, 이렇게 예 심넌데.}

10303 # 이러케 이러케 이러케 시무면 전부가 이러케 네:방찌비 돼요, 그거뚜 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전부가 이렇게 네방집이 돼요, 그것도 치면.}

10303 # 그런데 요리캐 이러캐 된넨 원제던지 카늘마 여기다 시머야 디야. {그런데 요렇게 이렇게 되는 언제든지 *** 여기에다 심어야 돼.}

10303 # 여기다 여기다 시머야 이기 마자 드르가 그개. {여기에다 여기에다 심어야 이게 맞아 들어가 그개.}

10303 # 저 줄 대구 싱구녕 마냥 지그먼 왜 이 줄 대구 싱구녕 거 그치 그르캐 해요. {저 줄 대고 심는 것 마냥 지금은 왜 이 줄 대고 심는 것같이 그렇게 해여요.}

10303 # 이 기냥 막: 싱구녕 거뚜. {이 그냥 막 심는 것도.}

10303 @ 예. {예.}

10303 # 그러캐두 그기 되긴 되드라고요. {그렇게도 그개 되기는 되더라고요.}

10303 @ 그냥 막: 씬능 거는 그건. {그냥 막 심는 것은 그건.}

10303 # 산:식 산:식. {산식 산식.}

10303 @ 산:식. {산식.}

10303 @ 그 다매 줄... {그 다음에 줄...}

10303 # 음: 건 증:조식. {응 그건 정조식.}

10303 # 정:조식. {정조식.}

10303 @ 정:조식. {정조식.}

10303 # 어:. {어.}

10303 @ 줄모라구 해녕 거뚜 이써요? {줄모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10303 # 그기 줄모지 머. {그개 줄모지 뭐.}

10303 # 증조시카능 기 그 줄모여. {정조식 하는 게 그개 줄모야.}

10303 @ 줄... {줄...}

10303 # 야: 줄 띄우고 하능 개 줄 띄운다구 줄모여. {야 줄 띄우고 하는 게 줄 띄운다고 줄모야.}

10303 @ 예:. {예.}

10301 @ 그 모두 저:기 종뉴가 아 베. {그 모두 저기 종류가 아 벼.}

10301 # 베 베종뉴 {벼 벼종류.} 10301 @ 나락. {나락.}

10301 # 베 종뉴는 구구하지 머 이전넨 머 그 머 다: 몰:라요, 그런데 머. {벼 종류는 구구하지 뭐 예전에는 뭐 그 뭐 다 몰라요, 그런데 뭐.}

10301 # 금:베라능 거뚜 이꾸 금:베. {금벼라는 것도 있고 금벼.}

10301 # 금:베라넨 나라건 키가 크드라구. {금벼라는 나락은 키가 크더라고.}

10301 # 보:통 금:베라넨 나라걸 마:니 해써요. {보통 금벼라는 나락은 많이 했어요.}

10301 # 그라구 이 저: 지베 디리다가서 이런 저 똥:그런 이런 저: 나무 인재 굴:근 나무 그렁 걸 인재 이러캐 노쿠서루 사람 인재 수짜대루 이러캐 여러시면 인재 징:걸 놔야 되고, 머 하나나 두:리 하녕 거넨 인재 저: 절꾸때질 해서루 찌: 머넨 저 저 거뚜 인재 노코 하구 뭐. {그리고 이 저 집에 들여가서 이런 저 둥그런 이런 저 나무 이제 굵은 나무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놓고서 사람 이제 숫자대로 이렇게 여럿이면 이제 긴 것을 놓아야 되고, 뭐 하나나 둘이 하는 것은 이제 저 절구질해서 찢으면 저 저것도 이제 놓고 하고 뭐.}

10301 # 그건 다소가 업 그건 다소가 업써요 그래서. {그건 다소가 없 그건 다소가 없어요 그래서.}

10301 # 그개 나라기 그저넨 잘 떠러져써요. {그개 나락이 그전에는 잘 떨어졌어요.}

10301 # 소루 시러 오는데도, {소로 실어 오는데도,}

10301 @ 금베가? {금벼가?}

10301 # 예 야: 금:베가. {예 야 금벼가.}

10301 # 금:베라능 거뚜 이꾸 구 구궁호. {금벼라는 것도 있고 구 구궁호.}

10301 @ 예:. {예.}

10301 # 구궁호라능 거뚜 이꾸, 머 저기 산짜드래기라넌 나라건 보던 안한대 으런덜 말쓰
미 산짜드래기 나락뚜 이떠야. {구궁호라는 것도 있고, 뭐 저기 산자드락이라는
나락은 보지는 았했는데 어른들 말씀이 산자드락이(라는) 나락도 있대.}

10301 # 그개 그개 바비 조:코 그러다고, 어: 그거 지금 하:나두 업습니다, 그 나락씨. {그
개 그개 밥이 좋고 그렇다고, 어 그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락씨.}

10301 @ 예:. {예.}

10301 # 해해 칠리호라능 거뚜 칠리호라구. {해해 칠리호라는 것도 칠리호라고.}

10301 # 칠리호라능 건 좀 귀가 찢긴지 이 머 이 칠리를 끌구 가도 안 떨어진다고 흐 허
허 그래서 칠리호라 구래요. {칠리호라는 것은 좀 귀가 찢긴지 이 뭐 이 칠리를
끌고 가도 안 떨어진다고 흐 허허 그래서 칠리호라 구래요.}

10301 # 으 그랜다구. {으 그런다고.}

10301 # 그르캐 하시드라구요 말씨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10301 @ 그개 저기 일찍 잉능 거뚜 있구:... {그개 저기 일찍 익는 거도 있고...}

10301 # 예: 그거뚜 인재 종:자애 따라서 인재 다: 그르치요. {예 그것도 이제 종자에 따라
서 이제 다 그렇지요.}

10301 # 뱀 메칠 쟈 점 느징 거뚜 이꾸. {뱀 며칠쫂 좀 늦은 것도 있고.}

10301 @ 느개 잉능 거뚜 이꾸 그르차나요. {늦게 익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10301 # 예: 빨릉 거뚜 이꾸 그래요. {예 빠른 것도 있고 그래요.}

10301 @ 그렇 겐 머라 그래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10301 # 조:생중, 만 어 느느 느 저 느개 만생중 그르캐, 그르캐 예 그르캐. {조생중, 만
어 느느 늦 저 늦게 만생중 그렇게, 그렇게 예 그렇게.}

10301 @ 일찌카능 건 조생중. {일찍하는 것은 조생중.}

10301 # 아: 일찌기나 하 인재 저, {아 일찌기나 하 이제 저.}

10301 @ 잉능 거. {익는 거.}

10301 # 어: 추수릴 추수릴 일찌기 하능 거넌 조:생중이고 쫂쫂 느개 하능 건 서리 올 때
하능 건 좀 만생이구. {어 추수를 추수를 일찍 하는 것은 조생중이고 조금 늦게
하는 것은 서리 올 때 하는 것은 좀 만생중이고.}

10301 @ 거 중가내 하능 거는뇨? {그 중간에 하는 것은요?}

10301 # 그건 중생중이지 머 그냥. {그건 중생중이지 뭐 그냥.}

10301 @ 중생중. {중생중.}

10301 # 중생중. {중생중.}

10303 @ 그르캐 해 가주구 인재 그걸 심:짜나요, 인재 아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걸 심잖아요, 이제 아까?}

10303 # 음:. {음.}

10303 # 아 모 인재 싱구녕 과정. {아 모 이제 심는 과정.}

10303 @ 예. {예.}

10303 @ 모 심 시물 때: 중가내 또 모 모 심파가 밥뚜 머꾸 그르자나요? {모 심 심을 때
중간에 또 모 모 심다가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10303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03 @ 중가내. {중간에.}

10303 # 새이라능 건 읍썌요. {참이라는 것은 없어요.}

10303 # 새이라능 건 하두 가난 모두 가나나개 사라서로 새이라능 건 아주 저년 읍썌썌.
{참이라는 것은 너무 가난 모두 가난하게 살아서 참이라는 것은 아주 전혀 없었
어.}

10303 # 나재 점:심 항 끄럭. {낮에 점심 한 그릇.}

10303 # 아치매 인재 아침 가 머꾸 가머년 인재 저: 즘심이라능 거 인재 즘심 저내 나와서
쉬:기는 쉬어요. {아침에 이제 아침 가 먹고 가면 이제 저 점심이라는 거 이제 점
심 전에 나와서 쉬기는 쉬어요.}

10303 # 으: 담:배 피우고 인재 이르케 쉬:구서, {으 담배 피우고 이제 이렇게 쉬고서,}

10303 # 인재 머 머 마:니 썌:대야 머 한 십 뿐 똥안 아니면 이십 뿐 좀 느께 저 쉬 오래:
쉬머년 이:십 뿐만 쉬:구 이라는대 그람 인재 서드는 이가 그러지. {이제 뭐 뭐 많
이 썌다고 해야 뭐 한 십 분 동안 아니면 이십 분 좀 늦게 저 쉬(면) 오래 쉬면
이십 분간 쉬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서두르는 이가 그러지.}

10303 # '아이구 이거 저: 오늘 일꺼리가 벅차니 좀 서드러서 시머야거썌'. {'아이고 이거
저 오늘 일꺼리가 벅차니 좀 서둘러서 심어야겠어'}

10303 # 그러면 인저 여타 일꾼덜 '그리여 어냥 일찌기 시무 상:구서 가능 거시 조아'. {그
러면 이제 여타 일꾼들(이) '그래 원래 일찍 심 심고서 가는 것이 좋아'}

10303 # 일찌기 싱구녕 거년 팬자년대 너 나중엔 저무려서루 어두머년 누가 시머. {일찍
심는 것은 팬찮은데 너 자중에 저물어서 어두우면 누가 심어.}

10303 # 그렇께 일찌기 서러 서드러서 심꾸 가. {그러니까 일찍 서둘러 서둘러서 심고
가.}

10303 @ 예. {예.}

10303 # 에헤헤 참 이 이런 애길 해: 가민서 그래 시머썌니다, 우리가. {에헤헤 참 이 이런
애기를 해 가면서 그래 심었습니다, 우리가.}

10303 @ 예 그런대 그거 모 시물 때 논 갈:자나요? {예 그런데 그거 모 심을 때 논 갈잖
아요?}

10303 # 예: 갈:지요. {예 갈지요.}

10303 @ 그거 언제 가려요, 그거? {그것은 언제 갈아요?}

10303 # 그거는 인재 인재 때가 업썌요. {그것은 이제 이제 때가 없어요.}

10303 # 해동하면 바로 가라요. {해동하면 바로 갈아요.}

10303 # 바루 가는대 노니라능 개 다: 물가리 무리 이썌서 물가리하능 개 아니요. {바로
가는대 논이라는 게 다 물갈이 물이 있어서 물갈이하는 게 아니예요.}

10303 # 물가리 다: 하능 개 아니구 인재 물 나:중애 인재 무리 인재 생겨서루 예: 그때
싱구녕 건 인재 마룽가리. {물갈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물 나중에 잇 물이 이
제 생겨서 예 그때 심는 것은 이제 마룽갈이.}

10303 # 마룽가리여 기냥 건가리. {마룽갈이 그냥 건갈이.}

10303 @ 그럼 물 업썌 가능 거요? {그럼 물 없이 가는 건가요?}

10303 # 아: 무렵썌 거 가 가:능 개 그 그 인재 건 건가리지 그개 건가리. {아 물 없이 그

가 가는 게 그 그 이제 건 건같이지 그제 건같이.}

10303 # 건가런데 물 이씨 가능 거넌 인재 물드른 대 갈:머넌 인재 갈거 소릴 이래 메워서 드르가민서로 이래 갈:먼 흑쟁이에 머: 펼펼펼펼 이러캐 흑쟁이가 인재 나가민서로 인재 이러캐 이러캐 인재 가면 저:짜개서 소릴 이러캐 돌리 가주서로 도라오며 넌 늘 이 흑쟁이랑 저:기 지금 우리 흑쟁이 이썸니다 저기. {건같이인데 물 있게 가는 것은 이제 물이 들어 있는데 갈면 이제 갈거 소를 이렇게 메워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갈면 극쟁이에 뭐 펼펼펼펼 이렇게 극쟁이가 이제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면 저쪽에서 소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돌아오면 늘 이 극쟁이와 저기 지금 우리 극쟁이 있습니다, 저기.}

10303 # 교수님 저: 드리오시다 암 보이썸 끼유. {교수님, 저 들어오시다가 안 보이셨을 거요.}

10303 @ 예:. {예.}

10303 # 어: 거기 내가 재 거기 골똥푸무루다가 거기 안 안 내버리구 그냥 거기 거긴 여패 저짜겐 날두 이꾸 그런대. {어 거기 내가 재 거기 돌동품으로 거기 안 안 내버리고 그냥 거기 거기 옆에 저쪽에는 날도 있고 그런대.}

10303 # 그러면 인재 이짜그루 갈 켜 이짜그루 여길 찌구 이 손재비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여기를 끼고 이 손잡이를.}

10303 @ 예:. {예.}

10303 # 어: 여기 인재 자부쨌 인재 잡조지가 두:개 아니요, 이러캐. {어 여기 이제 잡조지 이제 잡조지가 두개 아니요, 이렇게}

10303 @ 예:. {예.}

10303 # 두: 갠대 미태 인능 건 인재 질:구 이러캐 우애 인능 건 요로캐 찔르구. {두 개인데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길고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은 요렇게 짧고.}

10303 @ 예:. {예.}

10303 # 근대 인재 이짜그루 인재 이짜개서 저짜그루 나갈 쨌넌 이짜 소년 인재 징: 걸 자꼬 이짜 쏘넌 인재 우애 쪼고망 걸 자꼬.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갈 때는 이쪽 손은 이제 긴 것을 잡고 이쪽 손은 이제 위에 조그만 것을 잡고.}

10303 # 그래민서 인재 징: 거 잠는두루 인재 풀뽕이럴 자바, 소풀뽕이. {그러면서 이제 긴 것 잡는데로 이제 고삐를 잡아, 소고삐.}

10303 # 그람 인재 이짜그루 쪼끔 이짜그루 가면 이러캐 이러캐 자부댕기민서 '이랴로 이랴로 이랴로!' 하면 소가 아라 드꾸 이리 일리 드러시지.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조금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랴로 이랴로 이랴로!' 하면 소가 알아 듣고 이리 일리 들어서지.}

10303 # 늘 그 나이 인재 늑꾸 오래: 부린 소년 발싸 이러캐 돌리면 저 드르갈 뽕 착착 아라서 드르가요 소도. {늘 그 나이 이제 늑고 오래 부린 소는 벌써 이렇게 돌리면 저 들어갈 때는 착착 알아서 들어가요 소도.}

10303 # 어: 어허 참 묘한 짐승이요, 소가. {어 어허 참 묘한 짐승이요, 소가.}

10303 @ 예:. {예.}

10303 # 죽:또록 그러캐 일해 주구 나중애 늘그머넌 고만 그뚜 사:람 소내 그만 다 읍써지구 인재: 어: 그라는 짐성 아니개썸요, 그개? {죽도록 그렇게 일해주고 나중에 늘

으면 그만 그것도 사람 손에 그만 다 없어지고 이제 어 그러는 짐승 아니겠어요,
그게?}

10303 @ 예. {예.}

10303 # 예 ㅎㅎ. {예 ㅎㅎ.}

10303 @ 그르케 건가리 하구 물가리 하구. {그렇게 건갈이하고 물갈이하고.}

10303 # 예: 그래 인재 그래 물가리두 인재 함 번 가르머넌 씨:레: 거 씨:레 이때: . {예 그
래 이제 그래 물갈이도 이제 한 번 갈면 씨레 그 씨레 이때:}

10303 @ 예. {예.}

10303 # 쓰:레루다가 인재 함 번 이러케 실쩍 도러 도러댕기요. {썰레로 이제 한 번 이러
게 슬쩍 돌아 돌아다녀요.}

10303 # 그러면 인재 노편 대가 이래: 가라안자서로 다: 이 무리 인재 쟁기게 되지. {그러
면 이제 높은 데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다 이 물이 이제 잠기게 되지.}

10303 # 그러면 그개 인저 저개 부:패가 되지 인재 마:니. {그러면 그개 이제 저기 부패가
되지 이제 많이.}

10303 # 무레 인재 썩 씨근 씨거 나 노니. {물에 이제 썩 썩은 썩어 나 논이.}

10303 # 으: 노니 씨거. {으 논이 썩어.}

10303 @ 그거 할 때 저:기 사내 가서 푸리나 나문넙 가통 거 날 때 그거뚜 뜨더다가...
{그거 할 때 저기 산에 가서 풀이나 나뭇잎 같은 거 날 때 그것도 뜯어다가...}

10303 # 야 야: 야 야 그런대 가마이 조거 여 저: 거시키 인재 논 가능 거 과정 쪼끔 나만
넌데... {야 야 야 야 그런대 가만히 저거 여 저 거시키 이제 논 가는 것 과정 조
금 남았는데...}

10303 # 그래서 인재 물가리라능 건 인재 가라서 그르케 인재 겐쓰렐 봐: 노코: 또 마룽가
리넌, {그래서 이제 물갈이라는 건 이제 갈아서 그렇게 이제 겹씨레를 봐 그하고
또 마른갈이는,}

10303 @ 겹씨리요? {겹씨리요?}

10303 # 야 그겹 겹쓰리라 그리야 그거, 겹쓰레. {야 그겹 겹쓰리라 그래 그거, 겹씨레.}

10303 # 으: 겹쓰레 아주 모 싱구개 삼:능 거넌, 아주 마마리 되넌 거넌 인재 참 아주 저:
머여 머라구 하까 아주 종어 인재 끝나능 거지 그진. {으 겹씨레 아주 모 심게 삶
는 것은, 아주 마무리 되는 것은 이제 참 아주 저 머야 뭐라고 할까 아주 종어 이
제 끝나는 거지 그것은.}

10303 # 쓰:레지리. {썰레질이.}

10303 @ 예: . {예.}

10303 # 끝나능 거고. {끝나는 것이고.}

10303 # 인재 그래서 쓰:레 해 거주서루 인재 번지 저런 번지루다 이르케 자꾸 도매럴
봐:, 도매럴. {이제 그래서 씨레 해 가지고 이제 번지 저런 번지로 이렇게 자꾸 도
매를 놓아, 도매를.}

10303 # 이러 이러:케 나가면 여기 한 도매: 두: 도매 남구고 저짜그로 도라와 거주서로
인저 또 도라갈 쟈 요기 나문 대로 드르가고. {이러 이렇게 나가면 여기 한 도매
두 도매 남기고 저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또 돌아갈 때 요기 남은 데로 들어
가고.}

10303 # 또 저:짜개넌 생 늘 저짜개 인재 생 저기럴 안한 대넌 인재 {또 저쪽에는 생 늘

저쪽에 이제 생 저기를 안한 데는 이제,} 10303 @ 안한 대루 가능 거지요? {안한 데로 가는 거지요?} 10303 # 그르케 안한 대루 가 자주구서 이쪽 와서는 건 인재 고 나뭇 절로, 응 소가. {그렇게 안한 데로 가 가지고 이쪽에 와서는 그건 이제 그 남은 걸으로, 응 소가.}

10303 # 척:척 소가 드러서요, 그거 돌리 보며넌. 허허. {척척 소가 들어서요, 그거 돌려 보면. 허허.}

10303 @ 예:.{예.}

10303 # 그래 그래서 번지 이러케 다라 자주서루 저: 널빤지 다라서 이러케 팬:해개 골라 주면 그때바텀 인재 친구넌 과정이 드르가능 기라 그개. {그래 그래서 번지 이렇게 달아 가지고 저 널빤지 달아서 이렇게 팬하게 골라주면 그때부터 이제 심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라 그개.}

10303 # 인재 저 가:는 과정에서 마룻가리 물 읍씨 가능 거넌, 인저: 이러캐서, 가능 건 또 까타요, 이 물가리나 마룻가리나. {이제 저 가는 과정에서 마룻같이 물 없이 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똑같아요, 이 물같이나 마룻같이나.}

10303 # 그른대 아이 가라 자주구서 한 이트리구 사호리구 나뉘따가 요러케 고:렐 맨드러요. 요짜개 나서 한 흑 요래 요망굼씩 남구구서 떠느 떠, 전부 이러케. {그런데 아이 갈아 가지고 한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뉘다가 요렇게 골을 만들어요. 요쪽에 나서 한 흑 요래 요만큼씩 남기고서 떠 넣어 떠, 전부 이렇게.}

10303 # 뜨면 이게 가운데가 우명할 꺼 아니요? {뜨럼 이게 가운데가 우명할 것 아니요?}

10303 @ 예: . {예.}

10303 # 그러면 인재 거기 태양열 바다 자주구서 이기 건화가 머거, 호키. {그러면 이제 거기 태양을 받아 가지고 이게 건화가 먹어, 흙이.}

10303 @ 건화요? {건화요?}

10303 # 어 건화라능 개 인재 공중 인재 태양열 바다 자주서로 으:. {이 건화라는 게 이제 공중 이제 태양을 받아 가지고 으.}

10303 # 그리 그래 저 건화가 머그라고 인재 그러캐서로 고:렐 질른다 그러지 그거렐. {그래 그래서 저 건화가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골을 지른다 그러지 그것을.}

10303 # 골: 질른다구. {골 지른다고.}

10303 # '마룻가리 골: 질르루 가.' '머 하루 가!' 그러면. {'마룻같이 골 지르러 가.' '뭇하러 가!' 그러면.}

10303 # '마룻가리 골: 질르루 가.' {'마룻같이 골 지르러 가!'}

10303 # 소 물구선 그러지. {소 물고는 그러지.}

10303 # 그럼, '그리여?' {그럼, '그래?'}
10303 # 그라면 그건 다소가 업썬요. {그러면 그건 다소가 없어요.}

10303 # 소 건지 거시캐서 이너이가 이찌 다: 인녕 건 아니자나? {소 건지 거시기 해서 있는 이가 있지 다 있는 건 아니잖아?}

10303 # 그래 이 손 메기는 지배 가서 인재 아이 그 골: 질르개 소썬 달라구 하면 인재 주구. {그래서 이 소 먹이는 집에 가서 이제 아이 그 골 지르개 소썬 달라고 하면 이제 주고.}

10303 # 그래 인재 또 거시기 하면 그 인재 두 분채 할 찌개는 또 이러케 된 데 거 생 글 부긴넌 대 거기렐 떠. {그래서 이제 또 거시기 하면 그 이제 두 번째 할 적에는

또 이렇게 된 데 그 생 그 복 있는데 거기를 떠.}

10303 # 거길 떠서 자:꾸 이르캐서 하구 그러면 그 두 번 가리. {거기를 떠서 자꾸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그 두 번 같이.}

10303 # 으: 두: 번 골 질러 시: 번 골질러 이리캐 하는데 그리캐껴정언 다: 모타고 농사지 썬요. {으 두 번 골 질러 세 번 골 질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다 못하고 농사짓지요.}

10303 # 두: 번 하능 기 마:니 하능 기요. {두 번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거요.}

10303 # 어 그래서 인재 물 들머닌 인재 썬:레 가주서루 삼:썬 또. {어 그래서 이제 물 들면 이제 썬:레 가지고 삶지 또.}

10303 # 예, 음:. {예, 음.}

10303 # 아까 모자리 인재 팔 관개 관련캐는 인재 쪼끔 마른 논 인재 마:는 사라면 모자리 쥔 쪼끔 느껴 하고: 으: 사철 무리 이썬서 물가리하넝 거닌 쪼끔 일찌기 하고... {아까 못자리 이제 관 관개 관련해서 이제 조금 마른 논 이제 많은 사람은 못자리를 조금 늦게 하고 으 사철 물이 있어서 물갈이하는 것은 조금 일찍 하고...}

10303 # 그래 다: 농사꺼리가 이썬도: 다: 내 소느룬 다: 모탐니다. {그래 다 농사거리가 있어도 다 내 손으로는 다 못합니다.}

10303 # 참 그때도 저: 품삯 주구서, 품삯 주구서 이르캐 나무 놓 으:더서 하기도 하고. {참 그때도 저 품삯 주고, 품삯 주고 이렇게 남의 놓 얻어서 하기도 하고.}

10303 # 또 가설 내가 가서 저 집 모 싱귀 주면 저이가 또 우리 집 모 싱귀 주구서 그거 푸마시. {또 가서 내가 가서 저 집 모 심어 주면 저이가 또 우리 집 모 심어 주고 그것은 품앗이.}

10303 # 서로 푸마시. {서로 품앗이.}

10303 # 이러 이러그로 그랜 농사쥔 이러캐 지어꼬. {이러 이러그러 그런 농사를 이렇게 지었고.}

10303 # 인재 그: 저: 풀 사내 가서 인저 풀 해다가 하넝 거선 주로 인재 가랑넝: 가랑넝 저: 저 참나무 인재 그 저: 빈 대서 인재 움: 도둥 거, 이마:끔 지내능 거 그개 인재 저:기. {이 저 풀 산에 가서 이제 풀 해다가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가랑잎 가랑잎 저 저 참나무 이제 그 저 베어낸 데서 이제 움 돌은 것, 이만큼 지내는 것 그개 이제 저기.}

10303 # 예:: 그거시 소:만, 기후가 그 소:마니라능 기 이썬 아나요? {예 그것이 소만, 절기가 그 소만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10303 @ 예. {예.}

10303 # 어: 소:만 때 가면 그걸 절초라 구리야 절초. {어 소만 때 가면 그걸 절초라 그래 절초.}

10303 @ 예:. {예.}

10303 # 인재 나즈루 이래 까끄닝개 절초 매디 절짚대 인지 먼지 그르개 매디 절짚지 절초한다 그래요. {이제 낮으로 이렇게 깎으니까 절초 마디 절자인데 인지 무엇인지 그렇게 매디 절 자인지 절초한다고 그래요.}

10303 # 절초하고 인재 나중애 저: 일러기 인너이닌 움:푸리구 저: 바다개, {절초하고 이제 나중애 저 인력이 있는 이는 움폴이고 저 바닥에,}

10303 @ 네. {예.}

10303 # 어 바다개 또 저: 무름폴 무름폴 무름푸리구 그 인재 폴 머 시퍼령 거 아무개라두
 까까 그건. {어 바닥에 또 저 무름폴 무름폴 무름폴이라고 그 이제 폴 뭐 시퍼런
 것 아무데라도 짹아 그건.}

10303 # 그래 인재 또 가따가 까까다 언치구 그라먼 나라기 잘 되지요, 그개 머. {그래 이
 제 또 갖다가 짹아다 얹고 그러면 나락이 잘 되지요, 그개 뭐.}

10303 # 그런 뒤에 인재 가라 가주:, 그런 뒤에 가라 가주구서 해: 시머. {그런 뒤에 이제
 갈아 가지고, 그런 뒤에 갈아 가지고서 해 심어.}

10303 # 그 푸럴 갈 이르개 흑쟁이. {그 폴을 갈 이렇게 극쟁이.} 10303 @ 그러면 갈:기
 저내, 노내다가 가따가 {그러면 갈지 전에, 논에다 갖다가,} 10303 # 어 어 야
 갈:기 저내. {어 어 야 갈기 전에.}

10303 # 어: 갈: 기 저내. {어 갈기 전에.} 10303 @ 그러구서 간 가능 거지요? {그리고서
 간 가는 거지요?} 10303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03 # 그러개 해찌요. {그렇게 했지요.}

10303 @ 그 저기 아까 가랑넵 때는 나무 가통 거 이르개 비면:, {그 저기 아까 가랑잎 되
 는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베면,}

10303 # 음:. {음.}

10303 @ 여파 싸기 막 올라오자너요? {옆에 싸기 막 올라오잖아요?}

10303 # 그리유.{그래요.}

10303 @ 그걸 머:라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해요?}

10303 # 그 머 그걸 머 음:싸기지 머 그기. {그 머 그걸 뭐 음:싸기지 뭐 그게.}

10303 # 어: 음:싸기여 큰 나무애 그 미태 도둥 거 음:싸기여. {어 음:싸기야 큰 나무에 그
 밑에 둔 거 음:싸기야.}

10303 # 지금 지:서찌 예:저넵 여 어디 이러개 지:서찌요? {지금 무성하지 예전에 여 어디
 이렇게 무성했어요?}

10303 # 그르데 예: 해:방되기 저내도 파리로 해:방되기 저내도 저: 살림청에서로 인재 허
 가릴 내: 줘요. {그런데 예 해방되기 전에도 8.15 해방되기 전에도 저 산림청에서
 이제 허가를 내 줘요.}

10303 # 어: 그 절초 글 절초라 구리야. {어 그 절초 그걸 절초라 그래.}

10303 # 절초 인재 저: 거시기 하:지 하:지 무려배 아니 소:만 소:만 때 가만 인재 그걸 인
 재 허가될 군청에서 산림청에서 해 저 군 산림계에서루 날 때 해: 줘요, 날짜리
 저. {절초 이제 저 거시기 하:지 하:지 무렵에 아니 소만 소만 때 가면 이제 허가를
 군청에서 산림청에서 해 저 군 산림계에서 날 때 해 줘요, 날자리 저.}

10303 # 그날버텀 절초하라구. {그날부터 절초하라고.}

10303 # 그래 머 일력 인너이더런 참 마:니 하고 일력 업너이더런 머: 기냥도 싱구고 그저
 머 여부가 업찌요 머. {그래서 뭐 인력 있는이는 참 많이 하고 인력 없는 이들은
 뭐 그냥 심고 그저 뭐 여부가 업지요 뭐.}

10303 @ 건생기라는 건 머요? {건생기라는 건 뭐요?}

10303 @ 건상기. {건상기.}

10303 # 건생기:~? {건생기?}

10303 @ 예. {예.}

10303 # 건생기라넵 건 그쵸 초벌 초벌 이러케 논 가라서 이러케 저: 나 일헛 너편대기가

드리나능 거 아니여 물 대머닌. {건생기라는 건 글썄 초벌 초벌 이렇게 논 갈아서
이렇게 저 나 일한 높은대기가 들어나는 거 아니야 물 대면.}

10303 # 아무래도 이르게 팬:하개 대, 무리 이르게 마:이 델 쭈가 이써? {아무리도 이렇게
판판하게 돼, 물을 이렇게 많이 델 수가 있어?}ㅈ

10303 # 그래잉개 너푼대기 슬쩍 슬쩍 이개 미러서루 가라안치녕 거요 그거. {그러니까 높
은대기를 슬쩍 슬쩍 이렇게 밀어서 가라앉히는 거요 그제.}

10303 # 그래 건생기여. {그래서 건생기야.}

10303 @ 가라 놓 거를? {갈아 놓은 것을?}

10303 # 예: 그개 논 삼 논 사 살마 놓 거 인재 그개 함 번 이르게 쓰:레루 도러댕기능 기
건생기유. {예 그개 논 삶 논 사 삶아 놓은 거 이제 그개 한 번 이렇게 써레로 들
아다니는 게 건생기요.}

10303 # 그래야 물두 마디구. {그래야 물도 마디고.}

10303 @ 아: 그래잉까 저:기 가:러 놓거를, {아} 그러니까 저기 갈아 놓은 것을,}

10303 # 예:. {예.}

10303 @ 울통불통항 거를, {울통불통한 것을,}

10303 # 예: 그르카노쿠서 인재, {예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10303 @ 대:충 이러케 항 거를, {대충 이렇게 한 것을,}

10303 # 예: 소:만 때 가서 인재 사내 가 절초해다가 인재 우:애다 까능 기여. {예 소만 때
가서 이제 산에 가서 절초해다가 이제 위에다 까는 거야.}

10303 # 그르카구서 인재 이등가리 인재 그르캐서 이등가리 인재 가라 가주구서루 인저
살마서 그때 인재 친구는 과정이 그 인재 드르가능 기 모자리서버터. {그렇게 하
고서 이제 이듬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듬같이 이제 갈아 가지고서 이제 삶아서
그때 이제 심는 과정이 그 이제 들어가는 게 못자리에서부터.}

10303 @ 그러면, {그러면,} 10303 # 찌다가. {찌다가.}

10303 @ 절초:는 함 번 노늘 가라서 노쿠, {절초는 한 번 논노을 갈아서 놓고,}

10303 # 으:. {으.}

10303 @ 그리구 절초해다 노쿠서 이듬 가능 거요? {그리고 절초해다 놓고서 이듬 가는 거
예요?}

10303 # 그 그러치요. {그 그렇지요.}

10303 # 어: 그래야 그 푸리 땅으루 드르가거덩. {어 그래야 그 풀이 땅으로 들어가거든.}

10303 # 그러칸 뒤에 또 소루다 이르게 살마. {그렇게 한 뒤에 또 소로 이렇게 삶아.}

10303 @ 예:. {예.}

10303 # 또 소로 살문대 인재 거트루 인재 나가 이래 비저서 이 쓰:레빠래 걸리 가주서 자
꾸 올라오능 개 이짜나? {또 소로 삶은데 이제 겉으로 이제 나가 이래 비집고 이
렇게 이 썰랫발에 걸려 가지고 자꾸 올라오는 게 있잖아?}

10303 @ 예:. {예.}

10303 # 그럼 저 쓰:레빨래 소 몰구 따라가면서 자꾸 발로 발바 느:, 어 이래 걸 우애 올
라강 거닌. {그러면 저 썰랫발에 소 몰고 따라가면서 자꾸 밟아 넣어, 어 이래 걸
우위 올라간 것은.}

10303 @ 그러면 건생기는 함 처빠내 그럼, {그러면 건생니는 한 첫번에 그럼,} 10303 #
예:. {예.} 10303 @ 갈:구 나서, {갈고 나서,} 10303 # 갈:구 나서 인재 건생기

노치. {갈고 나서 이제 건생기 놓지.} 10303 @ 그다매 하능 개 건생기? {그 다음에 하는 게 건생기?}

10303 # 예:. 가라 가주서 츠:매 하능 개 그 건생기요. {예 갈아 가지고 처음에 하는 게 그 건생기요.}

10303 @ 건생기: 머 한다 그래요, 논는다 그래요, 친다 그래요? {건생기 뭐 한다고 해요, 놓는다고 해요, 친다고 해요?}

10303 # 건생기 기양 한다 구라지. {건생기 그냥 한다 그러지.}

10303 # 으 건생기 친다 구리야. {으 건생기 친다 그래.}

10303 # 건생기 처:. {건생기 처.}

10303 @ 아 건생기 친다 그래요? {아 건생기 친다고 해요?}

10303 # 야 무리 참 마딘는 논 그트머닌 기양 한 해두 조:치마닌 무리 줌 하:폰 노닌 건생길 처야 그 노내 무리 마디요. {야 물이 참 마딘 논 같으면 그냥 한 해도 좋지만 물이 줌 해폰 논은 건생기를 처야 그 눈에 물이 마디요.}

10303 # 으: 마디고 또 무리 사철 인넌 노내두 건생기럴 친 뒤에 저: 푸럴 해다 느:쿠 그래야 갈:기두 조:쿠 으: 풀 해다가 피기두 조:쿠. {으 마디고 또 물이 사철 있는 논에도 건생기를 친 뒤에 저 풀을 해다 넣고 그래야 갈기도 좋고 으 풀 해다가 퍼기도 좋고.}

10303 # 그래 마른 노내닌 이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애 고:털 맨드러짜나? {그래 마른 눈에 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을 만들었잖아?}

10303 # 고털 맨드러쓰면 여기두 푸럴 해다 늘 느:쿠 시푸면 느:요. {골을 만들었으면 여기에도 풀을 해다 넣을 넣고 싶으면 넣어요.}

10303 # 는는데 이진 허꼬래다 느치. {넣는데 이진 헛골에다 넣지.}

10303 # 예: 이 허풀래다. {예 이 헛골에다.}

10303 # 그라먼 인재 이걸 풀 또 푸럴 싸. {그러면 이제 이걸 풀 또 풀을 싸.}

10303 # 소루다가 흐 흑쟁이루 가리서 싸는데 그땐 이 노폰 두걸 또 대:서 이러캐 하머닌 이기 가운데 인재 푸리 이쓰닝께 이기 가운데 푸리 싸이지. {소로 극 극쟁이로 갈아서 싸는데 그때는 이 높은 독을 또 대서 이렇게 하면 이게 가운데 이제 풀이 있으니까 이게 가운데 풀이 싸이지.}

10303 @ 그래잉깐 허풀리 기피 기폰 대다가 푸를 느:쿠, {그러니까 헛골이 깊이 깊은 데다가 풀을 넣고,}

10303 # 예:. {예.}

10303 @ 이쪼개 노풍 거를 그쪼그루다 냉겨 가주, {이쪽에 높은 것을 그쪽으로 넘겨 가지고,}

10303 # 아: 그러 그르캐 해유. {아 그렇 그렇게 해요.}

10303 @ 그래서 인재 덤능 거지요, 그러 그지요? 10303 # 예 예. {그래서 이제 덮는 거지요, 그렇 그렇지요?}

10303 # 근대 물 무린 노내 인는 노내 풀 향 거 하고 물 움넌 노내 가따 능 거 하고 논 삶끼가 시미 드려요, 물 움넌 노내닌. {그런데 물 물 있는 눈에 있는 눈에 풀 한 것 하고 물 없는 눈에 갖다 놓은 것 하고 논 삶끼가 힘이 들어요, 물 없는 눈에는.}

10303 @ 안 써거서요? {안 써어서요?}

10303 # 어: 그기 저: 가랑니피 삭떨 안 하고 그래 거주서루 이거넌 무런넌 노내넌 부들부들 하거덩 발써 사가서로 으: 근 아무 지설 해두 갠자넌대 마룻가리 논 한테넌 물 드르가서루 인재 물 대: 저:기 무리 드러서로 모 싱굴라구 살무머넌 아 이누무 거 새 가랑-이피 막 물 우애 대:꾸 기 올라오고 그래민 인재 자:꾸 발바야 대요. {어 그게 저 가랑잎이 삭지를 안 하고 그래 가지고서 이것은 물 있는 논에는 부들부들 하거든 별써 삭아서 으 그것은 아무 짓을 해도 괜찮은데 마룻같이 논 한테는 물 들어가서 이제 물 대 저기 물이 들어서 모 심으려고 삶으면 아 이놈의 것에 가랑잎이 막 물 위에 자꾸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자꾸 밟아야 돼요.}

10303 # 인저 소 뒤:애 따라가너이도 바쁘지만넌 또 작때기 지꾸서 인재 도러댕기며 발바야 대요. {이제 소 뒤에 따라는 이도 바쁘지만 도 작대기 짚고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밟아야 돼요.}

10303 @ 그 그 가랑-잎 나무를 그걸 머라 그래요? 갈 갈 뜯어... {그 그 가랑잎 나무를 그걸 뭐라고 해요? 갈 갈 뜯어...}

10303 # 갈:리빈대 갈리빈대 머 구구해유 그거 사내 나넌 거. {갈 잎인데 갈 잎인데 뭐 구구해요 그거 산에 나는 거.}

10303 # 뭐:던지 다: 해러 화 저기넌 날 까주 깡녕 건 다 까까다 느:써요. {뭐든지 다 하러 화 저기는 낫 가지고 깎는 건 다 깎아다 넣었어요.}

10303 @ 그럼 그거 하러 가면 머:하러 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러 가면 뭐하러 간다고 해요.}

10303 # 절초하루. {절초하러.}

10303 @ 절초하루 간다. {절초하러 간다.}

10303 @ 그러구서 인재 짹: 괜:하개 인재 쓰:레질하구 또 그 다매 번지... {그러고서 이제 짹 판판하게 이제 써레질하고 또 그 다음에 번지...}

10303 # 으: 번지질 하고. {으 번지질 하고.}

10303 @ 번지질 하고 그라민 인재 괜:해지지요? {번지질 하고 그러면 이제 판판해지지요?}

10303 # 그르지 판해지지. {그렇지 판판해지지.}

10303 # 그래두 인재 저 저: 거시기 모도 풀까지 해다 능 거시 이르게 뜯 거넌, {그래도 이제 저 저 거시기 모두 풀까지 해다 넣은 것이 이렇게 뜯 것은,}

10303 # 참 애 근 애:덜두 조:꾸 으:런두 조:꾸 머 참 그 이:저넌 여자더리 그런대 나가서 일:하넌 건 읍:써써요. {참 애 그건 애들도 좋고 어른도 좋고 뭐 참 그 이전에는 여자들이 그런데 나가서 일하는 것은 없었어요.}

10303 # 모 싱구녕 거뚜 우리 클 썩쟁 그래써요. {모 심는 것도 우리 클 적에는 그랬어요.}

10303 @ 예:. {예.}

10303 # 근대 거 중녀내, 근대 일절 일정 그 말려내, 그때넌 머 참 남녀 읍씨 다: 드:래 가서 모 싱구고. {그런데 그 중녀내, 그런데 일정 일정 그 말녀내, 그때는 뭐 참 남녀 없이 다 들에 가서 모 심고.}

10303 # 아이 몸빼라능 개 이짜나요. {아이 몸빼라는 게 있잖아요.}

10303 # 지금 모 모그치 전부 그렇 거 이꾸서 지금 장애두 가구 여자더리 그라넌대. {지금 뭐 뭐같이 전부 그런 거 입고 지금 장애도 가고 여자들이 그러는데.}

10303 @ 네:. {예.}

10303 # 그때년 어디 그러케 하구 남루하게 그러케 장애 양 가십니다. {그때는 어디 그렇게 하고 남루하게 그렇게 장애 안 갔습니다.}

10303 # 그 인재 일:하는 거시키루다가 그거덜 이꾸서루 일번 싸람더리 시켜썬요, 몸빼덜. {그 이제 일하는 거시기로 그것을 입고서 일본 사람들이 시켰어요, 몸빼를.}

10303 @ 네:. {예.}

10303 # 어: 그 일번 싸람덜 인재 지뻐 바다서 몸빼라능 거시 이꾸서 나가서 이:덜 헨넌 대. {어 그 일본 사람들 이제 지배를 받아서 몸빼라는 것을 입고 나가서 일을 했는데.}

10303 # 거 츠:매 우리 츠:매 이 농사 배울 쟈넌 여자덜 지배서 배비나 해 주고 바느지리나 하고 그래 해찌 들:틸이라넌 건 몰라썬요. {그 처음에 우리 처음에 이 농사 배울 제는 여자들은 집에서 밤이나 해 주고 바느질이나 하고 그래 했지 들일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10303 @ 그러면, {그러면,}

10303 # 그리잉개 인재 그 그 저 개명이 똥 거지 그기, 세워리. 호호.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저 개명이 된 거지, 세월이. 호호.}

10303 @ 예. {예.}

10303 @ 그르케 해 가주구 인재 모를 심꾸, 요새는 기계루 다: 심썬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모를 심고, 요새는 기계로 다 심썬요?}

10303 # 지그면 기계루 심는데: 노내 가따 풀 해다 는는 사람도 우꼬: 지금 머 비료 화학 비료가 인재 거시기 마:느니께 비료 이러케 하 함 번 언치구 인재 그러카고선 고만 노:타리 그걸 느 가주구서 해빠리구서넌 다: 그 노타리하면 거기 다 쟁 저: 번지라능 거뚜 다: 거기 달리꺼덩요. {지금은 기계로 심는데 눈에 갖다 풀 해다 넣는 사람도 없고 지금 뭐 비료 화학비료가 이제 거시기 많으니까 비료 이렇게 하한 번 없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그만 노타리 그걸 넣어 가지고 해버리고는 다 그 노타리하면 거기 다 쟁 저 번지라는 것도 다 거기 달렸거든요.}

10303 # 번지는 함 번 달 달지 그러면 기계루다 심넌대, 기계루 머 하루만 싱구면 마:니 싱귀요. {번지는 한 번 달 달지 그러면 기계로 심는데, 기계로 뭐 하루만 심으면 많이 심어요.}

10303 # 참: 편해요 지금 농사지끼. {참 편해요, 지금 농사짓기.}

10304 @ 농사질 때 쓰는 저:기 농기구가 이짜나요? {농사지을 때 쓰는 저기 농기구가 있잖아요?}

10304 # 으: 으:. {으 으.}

10304 @ 어떻 거뜨리, {어떤 것들이,}

10304 # 다: 농기계 따러따너, 다: 농기계 농기계여. {다 농기계 따랐잖아, 다 농기계 농직예야.}

10304 # 다: 농기계. {다 농기계.}

10304 @ 농 강까, 어떻 거뜨리 이썬요, 옌나래 농사질 때 쓰등 거 머머머머 만:차나요 그지요? {농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농사지을 때 쓰던 것 뭐뭐뭐뭐 많잖아요 그렇지요?}

10304 # 농사지 거 머 다: 그거지 머:, 저기 저: 지금 새로 신 기계 나오기 저넌 머: 참 소

가 하녕 거 소가 하녕 거 흑쟁이 쓰:레 어: 쟁기: 장기두 일번 싸람들 나오고서 장기가 나와쪼요. {농사지은 거 뭐 다 그거지 뭐, 저기 저 지금 새로 신 기계 나오기 전에는 뭐 참 소가 하는 거 소가 하는 거 극쟁이 씨레 어 재이 재이도 일본 사람들도 나오고서 장기가 나왔지요.}

10304 # 으: 우리 조선 싸람더런 장기 알:기나 해요? {으 우리 조선 사람들은 쟁기 알기나 해요?}

10304 @ 흑쟁이:... {극쟁이...}

10304 # 예 그 흑쟁이 그거 가주 해:쪼. {예 그 극쟁이 그거 가지고 했지.}

10304 @ 예:. {예.}

10304 # 예:. {예.}

10304 @ 흑쟁이 미태:는 그거 저 쇠지요? {극쟁이 밑에는 그거 저 쇠지요?}

10304 # 쪼지요, 으 쪼요 무쇠. {쇠지요, 으 쇠요 무쇠.}

10304 @ 예. {예.}

10304 # 무쇠 그 인재 저저 이전 그 조선 쓸 ** 쇠부리 으: 주물 주물공장 주물공장에서 그거 만드자나요. {무쇠 그 이제 저저 예전 그 조선 쓸 ** 쇠부리 으 주물 주물공장 주물공장에서 그거 만들잖아요.}

10304 @ 그거 보, 그 쇠를 머라 그래요? {그거 보, 그 쇠를 뭐라고 해요?}

10304 # 무쇠: 무쇠. {무쇠 무쇠.}

10304 @ 아니 저: 쟁기 미태 이르키 끼웁 거. {아니 저 쟁기 밑에 이렇게 끼운 것.}

10304 # 그 그 무쇠요 다: 그뚜, 무쇠요. {그 그 무쇠요 다 그것도, 무쇠요.}

10304 @ 그 이르른 머예요? {그 이름은 뭐예요?}

10304 # 글 보스비라 그래드라고 보습:. {그걸 보습이라고 그러더라고 보습.}

10304 @ 보습. {보습.}

10304 # 예:. {예.}

10304 @ 예:. {예.}

10304 @ 그럼 쟁기가 있고 또 쓰:레가 이꼬... {그러면 쟁기가 있고 또 씨레가 있고...}

10304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04 @ 번지두 이꼬. {번지도 있고.}

10304 # 번지 이꼬. {번지 있고.}

10304 @ 또 먼- 파능 거뚜 이꾸 머 머 만:차나요? {또 뭐 파는 것도 있고 뭐 뭐 많잖아요.}

10304 # 파능 건 업썬요:. {파는 건 없어요.}

10304 # 으 소 소 소 저 소가 할 쪼개 소가 파녕 건 읍썬요. {으 소 소 소 저 소가 할 적에 소가 파는 건 없어요.}

10304 @ 사라미 아이. {사람이 아이.}

10304 # 으:. {으.}

10304 @ 그거 말:구두, {그거 말고도.}

10304 # 지금 지금 머 코크렁이 나오구 인재 그래서 그 그 그기 지금 이쥬: 사라미 파능 건 그냥 썬이루 파구 인재 사부루 이래 떠 내구 그래쪼. {지금 지금 뭐 포클레인 지 나오고 이제 그래서 그 그 그게 지금 있지 사람이 파는 건 그냥 썬이로 파고 이제 삽으로 이래 떠 내고 그랬지.}

10304 @ 팽이 삼. {팽이 삼.}

10304 # 예: 무여 사내 누가 상 당해서루 이:를 가도 전부 사:라미 파구 꼬쟁이 예 꼬쟁이
 날 꼬쟁이 그거 가주, {예 뭐야 산에 누가 상 당해서 일을 가도 전부 사람이 파고
 곡팽이 예 곡팽이날 곡팽이 그거 가지고,}

10304 @ 양쪼개 빼쭈캉 거. {양쪽에 뽕죽한 거.}

10304 # 야: 그거 그거 가주 파구 인재 파 노쿠서 인재 사부루 이르게 떠 내고: 이래서 참
 장:네 모시구 이래 이래 해서... {야 그거 그거 가지고 파고 이제 파 놓고 이제 삼
 으로 이렇게 떠 내고 이래서 참 장례 모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304 @ 거름 퍼낼 때는 멀:루 해썬요? {거름 퍼 낼 때는 뭘로 했어요?}

10304 # 거름 퍼낼 찌개 머 저:기 산태미 소로 소애다 인젠 언지서 내갈 쟈넌나 지개 노코
 지개애 다머서 할 쟈나 산태미, {거름 퍼 낼 적에 뭐 저기 산태미 소로 소애다 이
 제 없어서 내갈 제는-나 지개 놓고 지개에 담아서 잘 제나 삼태미,}

10304 @ 예:. {예.}

10304 # 지푸루 맨든 산태미, 산태미 거기다 인재 이러케 팽이루 글거 다마서 이래 지개애
 가따가 바:소고리, 바:소고리라능 개 이개 짜리까지루 이래 여겨서루 거 지개 우애
 이러케 언징 건대 거기 인재 뵈:서 다마 가주구서넌, 인재 그 인재 주로 버리바:태
 인재 버리 꺼럼 널 찌개 그개 마:니 그래 해썬요. {짚으로 만든 삼태미, 삼태미 거
 기에 이제 이렇게 팽이로 긁어 담아서 이렇게 지개에 갖다가 발채, 발채라는 게
 이개 짜릿가지로 이렇게 엮어서 그 지개 위에 이렇게 얹은 건데 거기 이제 부어서
 담아 가지기고는, 이제 그 이제 주로 보리밭에 이제 보리 거름 널 적에 그개 많이
 그래 했지요.}

10304 # 또 소애 재옹기라구 아까 하시짜나 재옹기에 이래 할 쟈 이쥌 한 산태미 저쥌 한
 산태미 이러케 해서 번차레로 자:꾸 이러캐서 인재 소 기운 인재 내 될 망:큼씩,
 너머 무리하게 하면 또 소도 대견하자나? {또 소애 재옹기라고 아까 하쥌잖아 재
 옹기에 이렇게 할 제 이쥌 한 삼태미 저쥌 한 삼태미 이렇게 해서 번차레로 자꾸
 이렇게 해서 잇 소 기운이 이제 될 만큼, 너무 무리하게 하면 또 소도 대견하잖
 아?}

10304 # 쟈:일 그러케 퍼서 등어리다 질머지구 땡기녕 거 사:라미나 짐성이나 다: 또까찌
 머. {종일 그렇게 퍼서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지
 뭐.}

10304 # 그래서 인재 가따가서 이러케 글:채미가 이러 고래기 이러케 양짜개 이래 베끼구
 저: 아패 가서 고래기털 고만 탁 하면 쏘다지고 쏘다지고 인재 그르케, 그르케 하
 고. {그래서 이제 갖다가 이렇게 걸채가 이렇 고리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벗기고
 저 앞에 가서 고리를 그만 탁 하면 쏘아지고 쏘아지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
 고.}

10304 @ 이르:캐 생겨 가주구 바리 여러 개가 인능 거 이짜너요, 썩루다 땡 거 이러케.
 {이렇게 생겨 가지고 발이 여러 개가 있는 거 있잖아요, 쇠로 된 거 이렇게.}

10304 @ 저 오양간 가튼대서 이르:캐, {저 외양간 같은데서 이렇게,}

10304 # 끌거내능 거? {긁어내는 거?}

10304 @ 예. {예.}

10304 # 그건 깔키지 머, 깔키. {그건 갈퀴지 뭐, 갈퀴.}

10304 @ 깔 깔, {깔 깔,}

10304 # 소시랑. {쇠스랑.}

10304 @ 소시랑? {소시랑.}

10304 # 어: 소시랑. {어 쇠스랑.}

10304 @ 아: 소시랑. {아 쇠스랑.}

10304 # 야:. {야.}

10304 @ 깔끼가치 생긴, 소시랑하구 깔끼는 조금 달롱 거지요? {갈퀴같이 생긴, 쇠스랑하고 갈퀴는 조금 다른 거지요?}

10304 # 달르지요. {다르지요.}

10304 # 소시랑은 인재 세:발 아니면 네:바리고. {쇠스랑은 이제 세발 아니면 네발이고.}

10304 @ 예:. {예.}

10304 # 깔키는 여서 빠리나 여덜 빠리나 뭐. {갈퀴는 여섯 발이나 여덟 발이나 뭐.}

10304 @ 예:. {예.}

10304 # 그건 달:개 할라면 머 열 개까정두 이러케 꼬부리 가주서 이러케 꼬부리 가서루 꼬쟁이다 꺾:서 이러케 매 막 저 갈:키 맨들구. {그건 촌촌하게 하려면 뭐 열 개까지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꼬쟁이에다 꺾:어서 이렇게 매 막 저 갈퀴 만들고.}

10304 # 저 우리 사랑 아패 갈키두 이꾸 다: 이썬요. {저 우리 사랑 앞에 갈퀴도 있고 다 있어요.}

10304 @ 저거는 머요. {저것은 뭐요?}

10304 @ 한 사라미 이르키 딱 대: 주면 저쪼개서 끈... {한 사람이 이렇게 대 주면 저쪽에 서 끈...}

10304 # 가래 가래. {가래 가래.}

10304 @ 가래? {가래?}

10304 # 으: 근 가래라 구리야. {으 그건 가래라 그래.}

10304 @ 그거 두: 사라미 하능 거뚜 이꾸 그 머 네:시... {그거 두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뭐 넷이...}

10304 # 니: 사람두 하구 그래요. {네 사람도 하고 그래요.}

10304 # 니: 사람까정언 땡 하, 하나넌 장치 이러케 대: 주구. {네 사람까지는 해, 하나는 장부 이렇게 대 주고.}

10304 @ 예. {예.}

10304 # 그거 인대 이:저내 조선까래라넝 거넝 조선까래라넝 거넝 인재 거 저: 나무때기루 다 장치릴 하넝대 아패 사 여 꼬트머리 삼날그치 이러케 맨드려요. {그게 이제 예전에 조선가래라는 것은 조선가래라는 것은 이제 그 저 나무로 장부를 하는데 앞에 사 여 끝에 삼날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10304 @ 예. {예.}

10304 # 그런데 이 나무때기루 이르케 맨든 다:매 인재 대:정까내서루 요로::캐 썬루다 요러케 요기 요기 요 만는 걸 요로케 맨드려요. {그런데 이 나무로 이렇게 만든 다 음에 대장간에서 요렇게 쇠로 요렇게 요기 요기 요 맞는 걸 요렇게 만들어요.}

10304 @ 보스까치 맨드능 거지요? {보습같이 만드는 거지요?}

10304 # 어: 보스까치 이르케 아패 그래 이: 빼:쪼카지 아피가 저:가. {어 보습같이 이렇게

앞에 그래 이 뽕족하지 앞이 저기가.}

10304 # 그래면 여기 인저 그 쇠: 여기 인재 구녀걸 뚫버 가주서넌 이런 이런 거시키릴 달
자너 거기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쇠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는 이런 이
런 거시기를 달잖아 거기에.}

10304 # 다리 가주서 여기다가 꼬늘 꼬늘 달:지. {달아 가지고 여기에다 끈을 끈을 달지.}

10304 # 어 니: 니:시 할 켜 여기서 두: 두: 줄루 해서 달개 이 곧 고래기애다 두:를 다라
가주서 자부댕기 이짜뚜 또 두:리 해서 자부댕기구. {어 넷 넷이 할 제는 여기서
두 두 줄로 해서 달개 이 고리 고리에 둘을 달아 가지고 잡아당기(고) 이쪽도 또
둘이 해서 잡아당기고.}

10304 # 그거 참 그 예:전 조선까래 큰:: 건 이만큼 해요. {그거 참 그 예전 조선까래 큰
건 이만큼 해요.}

10304 # 그른대 다: 지금 읍써져썬요, 그제. {그런데 다 지금 없어졌어요.}

10304 # 그거뚜 다 거 이쓰면 골똥푸민데 지금 저 민속초내 가면 이썰 끼유 그기 민속초
내는. {그것도 다 그 있으면 골똥푸민데 지금 저 민속초내 가면 있을 거요 그제
민속초내는.}

10304 # 그런 그래 쓰다가서 인재 예:: 이 제 일변 싸람 정치 인재 하민서버텨 인재 기양
쇠루다가 이러캐 넘짜카개 행 거 그 그 가래지 머. {그런 그렇게 쓰다가 이제 예
이 제 일본 사람 정치 이제 하민서부터 이제 그냥 쇠로 이렇게 넓적하게 한 거 그
그 가래지 뭐.}

10304 # 우리 저: 허까내 저:기 가래 저 쇠루 항 거 그 그뚜 저:기 하나 언치썬요. {우리
저 헛간에 저기 가래 저 쇠로 한 거 그 그것도 저기 하나 었혔어요.}

10304 # 두: 줄 두:리 이르캐 해서 끈 다려서 하녕 거 허허. {두 줄 둘이 이렇게 해서 끈
달아서 하는 거 허허.}

10304 # 지금 그거 누가 씌니까? {지금 그거 누가 씌니까?}

10304 # 전:부 으:, 저: 거시키루 코크링이루 하지. {전부 으, 저 거시기로 포클레인으로 하
지.}

10304 # 호미 호미 머이 으 논 매는데두 호미루 매구. {호미 호미 뭐 으 논 매는데느도 호
미로 매고.}

10304 @ 감자 캐구, {감자 캐고.}

10304 # 으: 감자 캐구 다:. {으 감자 캐고 다.}

10304 @ 고구마 캐구 할 때. {고구마 캐고 할 때.}

10304 # 예 어:. {예 어.}

10304 @ 아까 제가 생가기 안 나서 못 여쭙 반나 흑씨 저기: 나무 비:구 나면 이러:캐 똥
그러차녀요 미태가? {아까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못 여쭙어 봤는데 흑씨 저기 나무
베고 나면 이렇게 둥그렁자나요 밀이?}

10304 # 으:. {으.}

10304 @ 금 요 똥:그런 요 가애루다가 새루 싸기 나지요? {그럼 요 둥그려 요 가애 새로
썩이 나지요?}

10304 # 그르치유, 그 꺾띠기 부튼데서, {그렇지요, 그 꺾띠기 붙은데서,} 10304 @ 꺾띠
기 부튼데, {꺾띠기 붙은데,} 10304 # 야: 거기서넌 마니 나요. {예 거기서는 많
이 나요.}

10304 @ 그걸 뚜거지라 그래요? {그걸 뚜거지라고 해요?}

10304 # 으? {어?}

10304 @ 뚜거 뚜거지라는 말:두 이썬요? {뚜거 뚜거지라는 말도 있어요?}

10304 # 음:싸기지 음:쌈. {음쌈이지 음쌈.}

10304 @ 음:쌈. {음쌈.}

10304 # 아: 음:쌈. {아 음쌈.}

10304 @ 두르 두릅 까툭 거뜰두 우애 꺼끄먼 여패서 또 나자너요. {두르 두릅같은 것도 위에 꺾으면 옆에서 또 나잖아요.}

10304 # 그러 그러치요, 여패서 수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지. 두릅. {그렇 그렇지요, 옆에서 수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지. 두릅.}

10304 @ 그거 그거 여패서 나오능 건 머라 그래요? {그거 그거 옆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 해요?}

10304 # 인재 인재 따 머꾸서 두 인재 저기 츠:매 따능 건 인재 초벌. {이제 이제 따먹고 두 이제 저기 처음에 따는 건 이제 초벌.}

10304 @ 예. {예.}

10304 # 나:중애 따능 건 인재 음:순. {나중애 따는 건 이제 음순.}

10304 @ 음:순. {음순.}

10304 # 어: 음:순. {어 음순.}

10304 # 근대 마시 음:순하고 초벌 따능 거 하고 마시 틀리요. {그런데 맛이 음순하고 초벌 따는 것 하고 맛이 달라요.}

10304 # 두루번 산 돈: 주고 사 먹편지 하면 츠:매 돈: 주고 사 머거야지 나:중애 하능 건 음:순 이래 나오능 건 까실까실하기도 하고: 근 마시 츠:미 따년망 거만 모티여. {두릅은 산 돈 주고 사 먹든지 하면 처음에 돈 주고 사 먹어야지 나중애 하는 것은 음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까실까실하기도 하고 그것은 맛이 처음에 따는것만 못해.}

제2편 어 휘

2.1. 농 경

2.1.1. 경 작

20101	벼	나락
20102	이삭	벼이삭
20103	볍씨	찢나락, 씨나락
20104	못자리	모자리, 모자리터
20105	모판	모자리파니, 모파니지
20106	쟁기	장기
20107	보습	보습
20108	벼	보습귀라구
20108-0-1	-가	보습귀
20109	극쟁이	따:비, 흑쟁이
20110	씨레	씨:레, 쓰:레
20111	번지	번지
20112	모내기	이:앵이라구(+신), 이:양(+신), 모싱기(+구)
20113	흙덩어리	흑땡어리가
20114	고무래	밀:개, 밀개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나랑너는 고밀개, 고밀개
20114-2	고무래(채 용도)	백:꼬밀개(부엌 고무래), 고밀개
20114-3	고무래(흙 용도)	고밀개, 밀개두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
20115	쇠스랑	소시랑
20116	곡괭이	목괭이
20117	괭이	괭이고
20118	삽	삽:
20119	호미	호미, 호땡이(+구)
20120	농기구	농사연무, 연무
20121	김	풀, 지심(+구), 지심푸리여
20122	김매다	지시를 매:서, 지심미야, 지심매구
20123	애벌 매다	아이 땡채, 아이벌
20123-1	두벌 매다	두벌, 두벌 매구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시:벌채, 세:벌채
20124	논두둑	논뚝

20124-1	논두렁	논둑
20125	밭둑	밭-새:둑, 경개새:둑, 만경개둑, 만둑:, 새: 뚜개
20126	밭두둑	종자꼬리고, 씨골, 두두기, 두둑, 두둑
20127	밭고랑	이랑, 헐꼬런, 받꼬리라구두, 받꼬리지
20128	밭이랑	골:
20128-1	(밭이랑을)타다/갈다/째다/파다	골:탄다
20128-2	이랑밟기	머리밟밭:끼, 머리밟밭끼
20129	보리	머리(+다, +구), 보리(+소, +신)
20129-1	가을보리	갈:머리
20129-2	봄보리	봄머리
20130	보리쌀	보리쌀(+신)
20131	가을갈이	추경
20132	감부기	감:배기
20133	두엄	두엄, 토비
20134	거름	거름, 거름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추수(한다)
20202	벼단	나락판, 벼판, 벼판
20202-1	벼단(한 줌정도)	*
20202-2	벼단(타작할 정도)	벼판
20202-3	벼단(한 아름정도)	벼판
20203	가리(積)	가리
20204	가리다(積)	벼까리 쌓:는다, 벼티미 쌓:는다
20205	벚가리	벼데미, 나락까리, 벼까리
20206	난가리	벼데미, 벼까리데미
20207	타작	타:작, 탈곡
20208	벼훑이	쪽찌깨
20208-1	그네	홀태
20209	개상	개:상, 개:생일쌔
20209-1	자리개	자리개
20209-2	자리개질	자리개질
20210	도리깨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장:치, 도르깨장:치
20210-2	도리깨열	도르깨○二늘:
20210-3	도리깨꼭지	도르깨꼭찌미
20211	벼짚	벼짚

20211-0-1	-를	벼찌블
20211-0-2	-에	벼찌페, 벼찌배
20212	새 패기	해:기, 집패:기
20213	쭉정어	쭉쟁이
20214	티	티, 티검버리
20215	까끄라기	까:래기
20216	풍구	풍구
20217	원두막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허재비
20219	흥년	흥년
20220	머슴	머슴, 고용사리, 일:꾼
20221	놉	놉
20221-0-1	-를	노벌
20222	품앗이	푸마시
20223	품삿	품쌈:
20223-0-1	-로	품쌈기여, 품쌈개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방아
20302	디딜방아	디딜빵아
20303	방앗공이	방아공이
20304	방아확	확:, 방아확:
20305	물레방아	물레방아, 물방아
20306	연자방아	연자방아
20307	절구	도:구방아
20308	절구통	도:구통(+다), 도구통(+다), 절구통
20309	절굿공이	도:구때(+다), 절구때, 도:기때(+다)
20310	절구질	절구질
20311	겨	겉쫄, 겉떠기,
20312	보릿겨	버리깨, 보리깨 cf.겉깨구, 곤:개,
20313	왕겨	왕개
20314	등겨	쌀개
20315	검불	북때기, 검부지기머, 북떠기
20316	겉질	겉떠기, 겉쫄, 겉때기

2.1.4. 곡물

20401	곡식	곡씩
-------	----	----

20402	참쌀	참쌀
20403	멥쌀	멥쌀
20404	쌀보리	쌀버리
20405	조	조, 스:숙
20406	차조	차좁쌀, 찰스숙, 차조
20407	메조	메수숙, 메조, 메좁쌀
20408	좁쌀	좁쌀
20409	잘다	자라, 잘지
20410	조이삭	스:숙-이삭
20411	수수	쭈수, 수수
20411-1	붉은색 수수	쭈수
20411-2	장목수수	장목쭈수, 장목수수
20411-3	찰수수	찰수수
20411-4	메수수	메쭈수, 메수수
20412	수수깡	쭈수깥이
20413	옥수수	옥쭈수
20413-1	찰옥수수	찰옥쭈수
20413-2	메옥수수	메옥쭈수
20414	귀리	귀:리
20415	메밀	메밀, 메물
20416	콩	콩
20417	콩깍지	콩깍찌
20418	메주	메주
20419	매달다	달드라구, 다라요, 다라매지, 다라매고
20420	떠우다	떠우는데, 떠워, 뜨라구, 떠야
20421	곰팡이	진:
20422	강낭콩	감자콩
20423	콩기름	콩기름, 콩지름, 콩지럼, 콩기럼
20424	깨	깨
20424-1	참깨	창깨
20424-2	들깨	들깨
20425	고소하다	고시구, 고시다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
20502	나물	나물
20502-1	나물(발 재료)	야:채, 채:소
20502-2	나물(발 반찬)	겉찌리

20502-3	나물(들 재료)	야생채, 나물
20502-4	나물(들 반찬)	나물 볶:서, 무침
20502-5	나물(산 재료)	산채, 산나물
20502-6	나물(산 반찬)	산채, 산채무침
20503	푸성귀	푸징개
20504	다듬다	따듬는다, 따드머야
20505	반찬	반찬
20506	무	무:
20507	썰다	썰:던, 썰:구, 쓰:러서, 쓰:러
20508	무청	씨래기
20509	시래기	씨래기
20510	무말랭이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장아리
20512	배추	배:차, 배:추
20513	고깡이	숙:꼬깨~이, 꼬깡이
20514	오이	오:이(+신), 무뢰(+구)
20515	오이지	외:장아찌
20516	오이소박이	*
20517	가지(茄子)	가지
20518	호박	호:배긴대, 호:배기여, 호:박
20519	고구마	고구마
20520	감자	감자
20521	우엉	우엉
20522	파	파, 대파
20523	고추	고추
20524	시금치	시금치
20525	미나리	메나리
20526	부추	푸초, 정구지
20527	상추	상추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나생이(+구), 나싱개(+구), 냉이(+신)
20531	달래	달랭이
20532	도라지	도라지, 길경(약명)
20533	더덕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흰쌀밥, 이:밥
20602	찬밥	찬밥, 참밥, 찬배비지
20602-1	더운밥	뜨신밥
20603	조밥	조밥
20604	누룽지	누룽지
20605	눌은밥	누룽밥, 누룽지(밥알만), 송냥(밥알+물)
20606	송냥	송냥(물만)
20607	뜨물	뜨물, 뜯물
20608	김(蒸氣)	짐:
20609	갱죽(羹粥)	진:넙죽
20610	싱겁다	싱겁따
20611	국수	국쭈
20612	칼국수	칼국쭈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틀국쭈
20613	건더기	건더기, 국건데기
20613-1	국물	궁물
20614	고명	고명(=꾸미, +존), 꾸미(=고명, +평)
20615	꾸미	꾸미(=고명, +평), 꾸미(=고명, +평), 고명(=꾸미, +존)
20616	미역	미역
20617	김(海苔)	짐:, 김:
20618	수제비	수지비, 수제비
20619	끼니	때
20620	미음	미염, 미웁, 무웁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다린다, 다리여, 다리먼
20621	엿기름	여절곰
20622	식혜(食醴)	단술, 감주
20623	식해(食?)	*
20624	달다(甘)	달다
20625	가루	가루
20625-0-1	-에	가루애, 가루에다
20625-0-2	-를	가루넌
20625-0-3	-도	가루망(-가주와), 밀까루두
20626	밀가루	밀까루
20627	밀기울	지울, 밀찌울(+다, +구), 밀끼울(+소, +신)
20628	미숫가루	미수까루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간장(+신), 장:물(+구)
20702	된장	된:장
20703	고춧가루	고추까루
20704	고추장	고추장(+신), 고치장(+구, +다)
20705	소금	소금, 소곰
20706	김치	김치(+신), 찐지(+구)
20707	김장	김장
20708	깍두기	깍:뛰기, 깍:뚜기
20709	나박김치	김치꼭
20710	담그다	당군다
20710-0-1	-고	당구나, 당구구
20710-0-2	-어라	다만느냐, 다마라
20711	양념	양념
20712	버무리다	버무린다, 버머리자구, 비빈다
20713	버섯	버섯
20713-0-1	-가	버서시지
20714	콩나물(재료)	콩나물
20714-1	콩나물(반찬)	콩나물, 콩나물무침
20714-2	숙주(나물)	숙채나물, 녹뚜나물, 숙채
20715	두부	두부
20716	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비지떼기라 구라지
20717	달걀	겨란, 계란
20718	가래떡	가래떡, 떡까래, 흰떡까래
20719	시루떡	시루떡
20720	송편	송편
20721	빚다	비저, 빚는다
20722	흰떡	흰떡
20723	고물	고물
20724	팔죽	팔죽
20725	새알심	새알수지비, 새알수제비
20726	백설기	백설기, 설기
20727	튀밥	튀밥
20728	술	술
20729	막걸리	마:걸리
20730	소주	쏘주
20731	부침개	적, 부침개(조사자제시)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막
20802	가마솥	가마솥
20802-0-1	-를	가마소설
20802-0-2	-에	옹:소세
20803	아궁이	버가궁지(부엌아궁이)
20803-0-1	-가	아궁지가, 버가궁지가(부엌아궁이가)
20804	그을음	끄:림
20805	불쏘시개	불소시개
20806	연기	연기
20806-1	내(煙氣)	연기 cf. 내굽따
20807	그을리다	끄:리가주, 끄:러써
20808	부지깻이	부주쟁이
20809	부삽	불쌈
20810	넙다	내구워, 내굽따
20811	냄비	냄비
20812	그릇	그러시여, 그런
20812-0-1	-를	그러설
20813	뚜껑	뚜껑
20814	주발 뚜껑	복찌개, 개(제사때)
20815	사발 뚜껑	사발 뚜껑
20816	숟뚜껑	숟뚜껑, 소두방
20817	밥주걱	주걱
20818	숟가락	수갈
20819	젓가락	저범
20820	종지	종지
20821	보시기	반찬끄룩, 반찬끄러시지, 반찬끄럭
20822	툇배기	툇배기, 둑배기
20823	접시	접씨
20824	조리	조:리
20825	이남박	함박
20826	바가지	바가지, 물빠가지
20827	행주	행주
20828	행구다	행귀, 행구녕거여
20829	설거지	설거지
20830	개숫물	자신물, 찌꺼기(조사자제공)
20831	찌꺼기	찌끼, 찌끄리기, 찌그레기
20832	화로	화:로

20832	화로	화:로, 화:리에
20833	화룻불	화:로뿔
20834	부젓가락	불쩌범
20834-0-1	-가	불쩌버미, 불쩌베미
20834-1	불순가락	불쭈갈
20835	다리쇠	구멍쇠
20836	석쇠	적쇠, 석쇠
20837	도시락	도실박(+구), 도시락(+신)
20838	바구니	보고리
20839	뒤주	두주
20840	찬합	찬:합
20841	강판	강판
20842	개다리소반	생이여 상, 상, 소반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안뽕이고, 안뽕
20902	벽	베름뽕
20903	다락	다락
20904	벽장	벽짱
20905	감추다	감추능기여, 감초따, 감취씨
20906	흙	흙:, 기스(일본말임)
20907	돌쩌귀	돌쪼구
20907-1	암짱	암쇠
20907-2	수짱	쭈쇠
20908	미닫이	밀짱문, 밀짱, 미다지
20909	여닫이	여다지
20910	덧문	던문
20911	열다	여러노치마넌, 연다
20912	문고리	문고리, 문꼬리
20913	자물쇠	잠물쇠, 잠물통
20914	간히다	가쳐따, 가칭거지
20915	열쇠	열:쇠
20916	잠그다	장구고, 장과쎄요
20917	구멍	구멍이, 뭉꾸녁, 구머구루
20917-1	쥐구멍	쥐굴
20918	찢다	찌꾸, 찢저, 찢는다

20919	구들	구들, 구들빼, 구들쟁이나
20920	흙받기	흑판, 흑빠지판
20921	흙손	고데(일본말)
20922	흙칼	호칼, 흑손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흑-손, 흑쏜, 호칼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흑-손, 흑쏜
20923	바르다	발라, 발르만, 발르지, 바르능거, 바르고, 바른다던지
20924	장판	장판
20925	종이	종이, 조:이
20926	도배	도배
20927	구석	구역찌
20928	굽도리	굽또리
20929	깨끗하다	깨끄타구
20930	문지방	문쭙방
20930-0-1	-에	문쭙방에
20931	틈	트미, (문)새 재기, 새이
20932	가장자리	가양, 간
20933	가운데	복판, 가운데
20934	시렁	실경
20935	살강	살강
20936	선반	선반
20937	서랍	빼다지
20938	경대	경대
20939	거울	거울
20940	걸다	걸지, 건다, 거러라
20941	호룽	호룽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애
21002	기와	개와
21003	기와집	개와집
21004	수키와	용말재와, 용말끼와
21005	암키와	바닥개와
21006	대들보	대들뽀
21007	서까래	서까래
21008	추녀	추녀

21009	처마	처마
21010	오두막	오두막집
21011	초가집	초가집
21012	이영	응:여꺼, 영:
21012-0-1	-에서	영:마람
21013	용마름	용두새, 용마래미라구
21014	기스락	처마
21015	낙숫물	처마물, 낙쭈
21015-1	기스락물	써근샘물, 지병써근물
21016	사닥다리	사다리
21017	용마루	용말
21018	토방	뜨럭
21019	댕돌	*
21019-1	섬돌	요지뚝, 요지뚫
21020	마루	마루
21020-0-1	-에	마루에
21021	뿔마루	뿔마루
21022	기둥	지둥, 기둥
21023	주춧돌	주추, 주춧돌
21023-0-1	-를	주춧또런
21024	굴뚝	굴:뚝(전체), 연통때(연통만), 굴:뚝때(연통만), 연통(연통만)

2.3.3. 마당

21101	뜰	* cf. 화단
21102	마당	마당
21103	넓다	널르다
21103-0-1	-어서	널러서, 널래
21104	넓히다	늘릴래야, 늘귀쓰면, 늘구녕거구
21105	곶간	두주, 두지
21106	외양간	오양간
21107	마구간	마:방, 마:방간
21108	광	광:
21109	헛간	헛간, 허간
21110	쓰레기	쓰러기, 쓰레기
21111	장독대	장:꽝이라구두(+구), 장:뚝때여(+신)
21112	장독 뚜껑	단:지 뚜껑, 장뚝 더깨
21113	변소	뒤까니라구두(+구), 변소(+신)

21113-1	똥장군	장군
21114	울타리	울따리
21115	담	담
21115-0-1	-에	다메 cf. 담 우에
21115-0-2	-도	담두
21116	사립문	삼짝
21117	뒤곶	뒤마당(+신), 뒤안(+구)
21117-0-1	-에	뒤아내서(+구), 뒤마당애(+신)
21118	바깥	바깥
21118-0-1	-에	바깥태서
21119	모퉁이	모퉁이
21120	모서리	모퉁이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마을
21202	윗마을	움:마을, 우앰마을
21203	이웃	이:운
21203-0-1	-가	이우시
21203-0-2	-에	이우제서
21204	마을가다	마실간다
21205	우물	삼:, 두루박삼:, 두레박삼:
21206	두레박	물뚜루배기여
21207	샘(泉)	웅당삼:
21208	가(邊)	가양에
21208-0-1	-를	가:설, 가양얼
21208-0-2	-에	가양에서, 가양에
21209	물지게	물찌개
21210	가게	가:게(채소나 먹는 것 파는 곳)
21211	싸다	싸다
21212	비싸다	비싸, 비싸다
21213	홍정	홍정
21214	중매인(거간꾼)	중개인, 중매인두, 거:간(우시장 중개인)
21215	잔돈	잔전, 즈:근도느루
21216	에누리	에누리
21217	거스름돈	거시름똥, 거스름똥
21218	거스르다	거실러
21219	꾸다(借)	취해주먼, 취한다, 취헨다
21219-0-1	-어야	취하, 취해, 취해따, 취해서, 빌려야지

21220	구두쇠	구두쇠
21221	말기다	매껴따
21222	나머지	남저지
21223	덤	우:수
21224	몫	모거치, 포기
21224-0-1	-를	모거치, 모그루
21225	빚	빚
21225-0-1	-를	비설
21225-0-2	-에	비세
21226	이자(利子)	이:자
21227	심부름	심:보름, 심:부름, 심:보름, 심:버름
21228	두름	한 두리미
21228-1	축	한 축
21228-2	꽤	한 떼
21228-3	집	한 집, 집
21228-4	쌈	쌈지, 한 쌈지
21228-5	두름	한 줄
21228-6	단/뭇(작은 묶음)	다발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다발
21228-8	툇	툇, 한 토세
21228-9	모숨	오콤
21229	컬래	커리, 컬래
21230	마지기	마지기루두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배:고시평이닝깨(한 마지기 넓이)
21231	꾸러미	꾸리미, 한 줄, 계란 꾸레미
21232	그루	그루, 주
21233	포기	포기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布袋)	자루
21235-0-1	-를	자루 가주와
21235-0-2	-에	자루에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개	한 개
21236-2	한-되	한 되빳, 한 되, 한 되박
21236-3	한-말	한 말
21237	둘	둘:
21237-1	두-개	두: 개
21237-2	두-되	두: 되박, 두: 되
21237-3	두-말	두: 말

21238	셋	센:, 센, 신:
21238-1	세-개	세: 개
21238-2	세-되	서: 되
21238-3	세-말	스: 말
21239	넷	나:시먼, 넌:, 넨
21239-1	네-개	네: 개
21239-2	네-되	느: 되
21239-3	네-말	느: 말
21240	다섯	다서, 다션
21240-1	다섯-개	다서 깨
21240-2	다섯-되	단 띄
21240-3	다섯-말	단 말
21241	여섯	여서, 여션
21241-1	여섯-개	여서 깨
21241-2	여섯-되	연 띄
21241-3	여섯-말	연 말
21242	일곱	일고, 일곱
21242-1	일곱-개	일고 깨
21242-2	일곱-되	일곱 띄
21242-3	일곱-말	일곱 말
21243	여덟	여덜
21243-1	여덟-개	여덜 깨
21243-2	여덟-되	여덜 때
21243-3	여덟-말	여덜 말
21244	아홉	아호, 아홉
21244-1	아홉-개	아호 깨
21244-2	아홉-되	아홉 띄
21244-3	아홉-말	아홉 말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 개, 열 깨
21245-2	열-되	열 띄
21245-3	열-말	열 말, 열 마리먼
21246	스물	시물
21246-1	스무-개	시무 개
21246-2	스무-되	수무 되
21246-3	스무-말	시무 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른 개
21247-2	서른-되	서른 되

21247-3	서른-말	서른 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개	마흔 개
21248-2	마흔-되	마흔 되
21248-3	마흔-말	마흔 말
21249	쉰	쉬인
21249-1	쉰-개	쉰: 개
21249-2	쉰-되	쉰: 되
21249-3	쉰-말	쉰: 말
21250	예순	예순
21250-1	예순-개	예순 개
21250-2	예순-되	예순 되
21250-3	예순-말	예순 말
21251	일흔	일흔
21251-1	일흔-개	이른 개
21251-2	일흔-되	일흔 되
21251-3	일흔-말	이른 말
21252	여든	여든
21252-1	여든-개	여든 개
21252-2	여든-되	여든 되
21252-3	여든-말	여든 말
21253	아흔	아흔
21253-1	아흔-개	아흔 개
21253-2	아흔-되	아흔 대
21253-3	아흔-말	아흔 말
21254	백	백:
21254-1	백-개	백 개
21254-2	백-되	백 되
21254-3	백-말	백 말
21255	이백	이:백
21256	한둘	한둘
21256-1	한두-개	한두 개
21256-2	한두-되	한두 되
21256-3	한두-말	한두 말
21257	두셋	두셋
21257-1	두세-개	두세 개
21257-2	두세-되	두서너 되
21257-3	두세-말	*
21258	두서넛	두서넛

21258-1	두서너-개	두서너 개
21258-2	두서너-되	두서너 되
21258-3	두서너-말	두서너 말
21259	서넛	서너, 세:넛
21259-1	서너-개	세:네 개, 세내 개
21259-2	서너-되	서:너 되
21259-3	서너-말	서너말
21260	네댓	네댓, 네:다서시지, 네다섯, 네:다섯, 너덜
21260-1	네댓-개	네대: 깨, 너덜 깨, 네다섯 깨, 너더 깨,
		네대: 깨, 너대 깨
21260-2	네댓-되	너댓 띄, 너덜 띄
21260-3	네댓-말	네뎌: 말
21261	대여섯	대:여섯, 대:여섯이라구
21261-1	대여섯-개	대:여섯 깨, 대여섯 깨, 대:여섯 깨
21261-2	대여섯-되	대:여섯 띄
21261-3	대여섯-말	대:여섯 말
21262	여닐곱	여닐곱, 예:닐곱
21262-1	여닐곱-개	여닐고 깨
21262-2	여닐곱-되	여닐곱 되
21262-3	여닐곱-말	여닐곱 말
21263	일여덟	이러덜
21263-1	일여덟-개	이러덜 깨, 이래덜 깨
21263-2	일여덟-되	이러덜 띄
21263-3	일여덟-말	이러덜 말
21264	여덟아홉	여덜아홉, 여다홉
21264-1	여덟아홉-개	여더라오 깨
21264-2	여덟아홉-되	여다홉 띄
21264-3	여덟아홉-말	여다홉 말
21265	여남은	여나무시지
21265-1	여남은-개	여나무 개, 여나무 개
21265-2	여남은-되	여나무 되
21265-3	여남은-말	여나무 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마
21302	길이	지리기
21303	저고리	저구리,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색동저구리
21305	두렁이	배두렁이, 두렁이
21306	무네	무네
21307	고쟁이	쪽빠질썰, 고쟁이라구
21308	바지	바지
21309	두루마기	두루매기
21310	의복	의보기여, 온:, 오시여
21311	구겨지다	꾸겨저
21312	옷고름	오꼬름
21313	단추	단초
21314	동정	동정
21315	겉	겉
21315-0-1	-에	거태
21315-0-2	-를	거설, 거틀
21316	홀옷	호돋, 호도시
21317	겹옷	겨볼, 겨보시
21318	잠방이	담:방중우, 담:뱅이
21319	누더기	누더곤, 누더고시여
21320	거지	거린, 비렁거지, 비렁거:지, 거:지라
21321	구겉	둥:냥
21322	조끼	조끼
21323	내의	소:곶, 소:고시여, 소:고수루, 내이
21324	껴입다	찌이버, 찌임넌다그래요
21325	소매	소매
21326	주머니	주머니, 염낭, 염낭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엽쭈머니, 개화쭈머니, 주머니, 호주머니
21328	허리띠	허리끈(한복), 허리빵(한복), 혁때(양복)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포
21331	삿갓	사깔, 사까싱가
21331-0-1	-에	사까세
21332	고깔	꼬깔
21333	사모	샤:모
21334	유건	유건
21335	대님	댄님, 켄님
21336	감발	감:발
21337	짚신	집썬(+신), 집-시니여, 집씨기(+구)
21338	미투리	미:투리
21338-1	(짚신을)삼다/만들다/트다/겉다	삼:는다

21339	나막신	나무깨, 나목썸
21340	설피	설피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명주
21401-1	명주실	명주실, 비단시리여, 조선빼단시리여
21402	목화	모과
21402-1	목화다래	다래, 모과-다래
21403	무명	명:배, 무명배
21403-1	무명실	무명실
21404	씨아	씨아시
21405	자새	자새
21406	물레	물:레
21407	배	배 찐다
21408	길쌈	질쌈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질고리	반지끄러신대, 반지끄럭
21411	가위	가새
21411-0-1	-를	가새 가주와
21411-0-2	-에	가새에
21412	마르다(裁)	마룻개질한다, 말르능겨, 말른다
21412-0-1	-고	말르구 이따
21412-0-2	-어라	말라라
21413	형겉	홍:겉, 홍:겉쫓가리(+비, 작은 조각)
21413-0-1	-를	홍거벌
21413-0-2	-에	홍거배
21414	바늘	바늘
21415	꿰다	꾸지, 꾸여
21415-0-1	-고	꾸구
21415-0-2	-어라	꾸어라
21416	바느질	바느질
21417	재봉틀	재봉
21418	끈	끈
21419	노끈	노여, 노
21420	참바	동아줄
21421	매듭	마등가리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맨는대, 끈 맨넝기여, 끈 매증기여, 매자
21422	보자기	보재기

21423	이불	이불
21424	숨	숨:
21425	포근하다	포근:하다
21426	흔이불	흔니불
21427	겹이불	겹니불
21427-1	숨이불	숨:니불이
21428	누비이불	누비이불
21429	베개	베:개, 비:개
21430	베갯잇	비:개이불, 베:개겹띠기
21430-0-1	-에	베:개겹띠기에
21431	목침	목침
21432	퇴침	퇴:침(송판으로 짠 것)
21433	방석	좌:료(+존), 깔빵석, 방서기라구는(막 하는 말, 보통 말)
21434	담요	담:뇨
21435	빨래하다	빨래빨다, 빨래한다
21436	빨랫방망이	물빵맹이, 물빵매~이
21437	빨래터	빨래터
21438	빨랫줄	빨래줄
21439	다리미	다리미
21439-1	다리미질	다리미질
21440	인두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디미방맹이
21442	다듬잇돌	따디미뚝, 다디미뚝, 다디미도:기라구
21443	다듬이질	다디미질 한다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라리지, 슬:명절, 설:랄
21502	설	스:를, 슬:명저래
21503	섣달 그믐날	스:딸 그믐날
21504	묵은세배	무근세:배
21505	올해	올해럴
21505-0-1	-는	금녀네년, 올해에년
21505-1	작년	과년, 지난해, 장년, 무근해
21505-2	재작년	재:장년, 저:지난해
21505-3	내년	내년
21505-4	후년	후:년

21505-5	내후년	그후년
21506	작은설	자근서런, 자근슬라리여, 자근설랄
21507	웃	운:
21507-0-1	-를	유:설
21507-0-2	-에	유:까치에, 유:세다
21507-1	웃놀이	운:노리
21508	웃가락	유:까치, 운:까치, 운:까락
21508-1	도	도
21508-2	개	개
21508-3	걸	걸
21508-4	웃	운:
21508-5	모	모:
21509	단동	*
21509-1	외동무니	외말, 한동 나가따
21509-2	두동무니	두:동이여
21509-3	석동무니	숙:똥
21509-4	넉동무니	막똥이여
21509-5	막동	외동이지, 외동 빼기가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름날, 보름
21510-1	삭망	상망은, 초하루보름
21511	추석	추성명절, 추석
21512	망월	망:위리, 달부리
21513	쥐불놀이	지:불, 지:불로리가
21514	자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
21514-2	긴막대	자때
21515	수수께끼	수수거끼
21516	호미씻이	호미시(농기구 모아놓고 술 마시고 노는 일, 백중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 깽가리, 썰과리, 깽매기
21517	썰과리	장고, 장구
21518	장구	새이참(오전), 지역새이참(오후)
21519	겉두리	무:당(경 읽고 점치는 사람), 정각쟁이(경 문만 읽는 사람), 무:뎡이지
21520	무당	박쭈무당(춤도 추고 경읽고 점치는 사람)
21520-1	박수	고시네
21521	고수레	고시네!
21521-1	고수레!	점쟁이지
21522	점쟁이	행여
21523	상여(喪輿)	

21524	굴건	굴건
21525	제사	제:사
21526	제기	제:기
21527	귀신	귀:시너지
21528	도깨비	도깨비

2.5.2.농경용품

21601	고삐	꿀뻘, 소꿀뻘
21602	굴레	굴레
21603	명예	명예
21604	길마	질마
21605	부리망	임명예
21606	구유	구수, 소구수
21607	작두	작두
21608	꼴	쇠칼
21609	여물	여물
21610	쇠죽	여물쭈, 소죽, 쇠죽, 여물-주기지
21611	쇠죽바가지	쇠죽빠가지
21612	수레	달구지(바퀴 두 개), 마:차구(바퀴 네 개), 우:마차
21613	끝다	끝지, ㄱ:능기라, ㄱ:는데만
21613-0-1	-고	끝구가고
21614	바퀴	바퀴(pakhwi)
21615	새끼(繩)	새끼, 사내끼, 새끼줄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 나따
21616	망태기	망태기
21617	떡등구미	등:구미, 등구미
21618	거적	거적, 꺼적
21619	가마니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가마니틀
21620	돛자리	돛짜리
21621	자리틀	자리틀
21621-1	(자리틀)짜다/치다/만들다/결다	맨다, 친다 (cf.돛자리는 치고 왕골자리나 제석은 맨다고 함.)
21622	왕골	왕골
21623	삼태기	산태미
21623-1	짚 삼태기	집싼태미
21623-2	짜리 삼태기	어렁이

21624	명석	명석
21625	어레미	얼기미
21625-1	고운체	곤:체
21625-2	굵은체	중간체
21626	대장장이	대:정
21627	대장간	대장간
21628	풀무	풀무, 풍구
21629	모루	머리쇠
21630	모루체	메, 쇠메, 큰메
21631	갈퀴	갈키, 깔키
21632	집게	찌깨
21633	장도리	장:도리
21633-1	노루발	빠:루(큰 못 뽑는 것)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배, cf. 톱나래
21635	도끼	도:끼
21636	자루(柄)	자루
21636-0-1	-를	자루를
21636-0-2	-에	도:끼 짜루에
21637	갈고리	갈꾸리
21638	썰기	썰:기
21639	송곳	도레송곳
21639-0-1	-에	도레송:고시유, 도레송고시유
21640	뽕죽하다	빼:조카먼, 빼쪼카다, 빼쪼카니
21641	수돗	수똥, 수또리여
21641-0-1	-에	수또래
21642	맷돌	매똥
21642-1	수쇠	쭈쇠
21642-2	암쇠	암쇠
21643	지게	지게
21644	발채	바:소고리
21645	지게 작대기	지개작때기
21646	막대기	막때기
21647	몽둥이	몽:덩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짜루
21702	광주리	광주리

21703	소쿠리	소고대미
21704	함지	함지, 모감지
21705	풀비	술:, 풀쓸
21705-1	귀알	풀쓸, 풀꽤
21706	독	독
21706-0-1	-에	도개다
21707	물독	물뚜멍
21708	항아리	항아리
21709	단지	단:지
21710	물동이	물뚱우, 물뚱이
21711	따리	따뱅이
21712	옹기	옹:기
21713	표주박	표주박, 종구락빠가치
21714	키(箕)	챙이
21715	떡살	살:, 떡쌀
21716	다식판	다식판
21717	시루	시루, 떡씨루
21717-0-1	-를	시루털
21717-0-2	-에	시루에
21718	시룻밑	시루민, 시루껍거리
21718-0-1	-에	시루미시지(‘低’의 뜻)
21719	시룻번	뻘, 시루뻘, 본
21720	부싯돌	부싯돌
21720-0-1	-를	부싯돌
21721	부시	부시
21722	부싯깃	질, 지시라그리야
21723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배때
21725	담배설대	대설때
21726	담배통	꼬바리
21727	물부리	물쭈리, 대물쭈리
21728	담배쌈지	담:배쌈지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벼로
21732	가락지	가락찌
21733	비녀	비네
21734	참빗	참빔, 참비시여
21734-0-1	-를	참비슬

21734-0-2	-에	참비세
21735	얼레빗	얼기빔, 얼기비스루, 얼기비시라구
21736	세숫대야	세:수때야, 물때야
21737	비누	비누
21738	도투마리	도투마리
21739	활대	용두머리(?제)
21740	잉앗대	잉아, 잉아때
21741	부티	부:테
21742	도롱이	도링이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마
21802	이마 빼기	마:빠기라구
21803	눈자위	*
21804	검은자위	꺼먹창
21805	흰자위	흰창
21806	눈꺼풀	눈꺼풀, 눈깍떠기 cf. 눈떠버리(눈거풀과 눈썹부분)
21807	거적눈	*
21808	눈썹	눈썹
21808-0-1	-가	눈썹비
21809	속눈썹	송:눈썹
21809-0-1	-가	송:눈썹비
21810	눈두덩	눈탱이
21811	안경	안:경
21812	안경집	안:경-집
21813	돋보기	돋뵈기
21814	주름살	주름쌀
21814-0-1	-가	주름싸리
21815	엷되다	애:때 뵈인다
21816	수염	수염
21817	구레나룻	구리날구지
21817-0-1	-를	구린날구지털
21818	코	코
21818-0-1	-가	코가
21819	코수염	코씨염(코 안에 있는 털도)
21820	코딱지	코딱쟁이

21821	콧구멍	코꾸녁, 코꾸멍, 코꾸먹
21821-0-1	-를	코꾸머걸
21821-0-2	-에	코꾸머가네서, 코꾸멍에서
21822	콧물	코-물, 콤-물
21823	입술	입쏘버리
21823-0-1	-에	운넙쏘버리에, 아랜입쏘버리에
21824	다물다	다무리여, 다무리구
21825	어금니	아금니
21826	덧니	든니
21827	휘파람	회파람
21828	침	치미, 추미
21829	삼키다	생키지머, 생켜
21830	가래(痰)	가:래
21831	빨다	배:타야지머, 배타보먼
21832	혀	쇠, 혀, 혀빠닥(혀 또는 혃바닥), 쇠빠다기 라구(혀 또는 혃바닥)
21833	혃바늘	쇠빠늘
21834	귓볼	귀뺨
21835	귀고리	귀거리
21835-1	귀걸이	귀거리
21836	귀지	귀창
21837	귀이개	귀휘비개
21838	소리	소리가
21839	엇듣다	으一:뜯는다
21840	귀청	고막, 귀창
21841	귀밑	*
21841-0-1	-를	귀미태
21842	관자놀이	관진노리, 관지노리가
21843	기미	기미, 끼미
21844	주근깨	주근깨
21845	턱	턱:, 턱쭈가리(+비), 테거리가(+비)
21846	턱수염	아래시염, 아래씨염
21847	뺨	뺨
21847-1	볼	볼, 귀통배기(+비), 볼태기(+비)
21848	가름하다	*
21849	보조개	*
21850	머리카락	머리카락(하나)
21851	비듬	비듬
21852	기계총	기계창

21853	정수리	배코
21854	대머리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꼬두머리, 고두머리, 곱쌀머리, 곱셀머리
21856	가르마	가름배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탄다고
21857	가마	가마
21857-1	가마(鼎)	가마
21857-2	가마(轎)	가:매, 가:마
21857-3	가마(질그릇)	옹:기굴:
21857-4	가마(가마니)	가마, 가마니
21858	뒤통수	뒤통시
21859	뒷덜미	뒤떨미
21860	목	목, 모강지라구두(+비)
21861	먹살	먹쌀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
21902	밀치다	민다, 미:녕걸 밀친다, 밀친다
21903	겨드랑	저드랭이
21904	등	등, 등때기(+비)
21905	가슴	가슴
21906	결리다	결린다
21907	갈비뼈	갈비, 갈비뼈
21908	허파	허파, 폐:
21909	쓸개	쓸개, 담:
21910	콩팥	콩관
21910-0-1	-에	콩과세서
21910-0-2	-를	콩과설
21911	팔	팔
21912	팔꿈치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갈짱찌넝거구
21914	손톱	손톱
21915	오른손	오른쪽손, 바른쪽손, 바른손
21916	왼손	왼:소느루, 왼:쪽손
21917	다르다	틀린다
21917-0-1	-아서	틀려서
21917-1	틀리다	틀린다
21918	왼손잡이	왼:손재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
21920	집게손가락	인지
21921	가운뎃손가락	모지(?제)
21922	약손가락	*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송꾸락
21924	생인손	생인손
21925	사마귀	사:마구
21926	손아귀	손아구
21927	손목	홀목
21928	뺨	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단:장(멧으로), 지팡이(필요해서)
21931	옆구리	여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지럽따
21933	간지럼	간지름
21934	잔허리	가는허리
21935	근육	그:늑
21936	배꼽	배꼽, 배꾸먹
21937	목물	등먹

2.6.3. 하체

22001	복사빠	복송씨
22002	발가락	발꼬락
22003	발바닥	발빠당, 발-바당, 발빠닥
22004	발톱	발톱
22005	냄새	냄새나지
22006	고린내	구린내
22007	굳은살	뚝쌀
22008	정강이	장갱이, 압짱갱이
22009	종아리	종아리
22010	장딴지	장:딴지
22011	회초리	호초리, 회초리
22012	무릎	무루팍, 무릅
22012-0-1	-를	무루과걸, 무루불
22012-0-2	-에	무루배
22013	오금	오곰, 오곰쟁이
22014	엉덩이	응:치
22015	궁둥이	방광, 궁:덩이두, 궁텅이

22016	불기	불기, 불:기, 궁:뎡이("궁뎡이=불기")
22017	명	명
22018	명울	망오리, 망아리
22019	가랑이	가랭이
22020	사이	새이
22021	살	사태기
22021-0-1	-가	사태기가
22021-0-2	-를	사태기를
22022	사타구니	사태기, 사타고니나(조사자제시), 사타구니 라는(조사자제시)
22023	가래뚝	가래뚝:
22023-0-1	-를	가래뚝시
22024	허벅다리	허벅찌, 념떡다리
22025	넙적다리	허벅찌, 념떡다리
22026	가부좌(跏趺坐)	책쌍다리
22026-1	가부좌(跏趺坐)치다/앉다/트다/ 꼬다/하다	한다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강:기, 감:기
22102	기침	기침
22103	채채기	채채기
22104	사레	사:레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사:레)들리따
22105	딸꾹질	겔떠기, 꺼:기
22106	트림	게트름
22107	곰보	곰:보
22108	천년두	천년두, 마마뽕이라
22109	여드름	여:드름, 여:드림
22110	학질	학쩔, 초학
22110-1	하루거리	학쩔
22110-2	이틀거리	학쩔
22110-3	매일 앓는 학질	학쩔
22111	홍역	호녁
22112	불거리	항아리손님
22113	땀띠	땀때기
22114	두드러기	두드러기, 두드레기, 두드리기가
22115	버짐	버즘

22115-1	마른버짐	마른버짐
22115-2	진버짐	진버짐
22115-3	도장 버짐	도장버짐
22116	문둥이	문:덩이(+비)
22116-1	문둥병	문둥병, 대:풍창병이여, 대:풍창(+존)
22117	부스럼	부스럼
22117-1	종기	종:기
22118	고름	고름
22119	곰기다	곰겨써, 곰긴다녕건
22120	난쟁이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사:파리, 사:팔따기, 힐기중눈
22122	언청이	째보, 어:청이(조사자 제시)
22123	소경	안맹, 안:맹, 봉:사
22123-1	달달봉사	달달봉사
22124	애꾸	통쟁이, 짹뿔사, 외쪽봉사지, 외통눈, 외통쟁이
22125	눈곱	눈꼽, 눈꼽. 눈-곱
22126	다래끼	다라키, 다래키, 눈따래키
22126-1	다래끼(눈 위쪽)	우:따래키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아래따래키
22127	절름발이	절름바리
22128	곰사등이	곰싸
22129	귀머거리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말더드미
22131	병어리	버버리
22132	잠꾸러기	장꾸래기
22133	줄리다	줄:리녕거뚜, 줄리머년
22134	하품	하품
22135	줄음	조름
22135-0-1	-를	조르멀
22135-0-2	-에	조르미
22136	잠꼬대	군:소리(자면서 지꺼리는 것), 장꼬대(자면 서 말을 하고 소리지르는 것)

2.7. 육아

22201	입덧	입편나따고
22201-0-1	-를	입떠설
22202	갓난아이	간난애기

22203	어린아이	어린애기
22204	경기(驚氣)하다	경끼
22205	눅히다	누이지, 뉘여
22206	계집아이	여자애기, 지지바라구(+비), 기지바(+비)
22207	예쁘다	이:뻘, 이:뿌다
22208	사내아이	머시마고, 사나
22209	아우 타다	아수탄다구두(조사자 제시)
22209-1	아우보다	아수를 봐:따구, 아수봐:따
22210	야위다	주러따(?조)
22211	쌍둥이	쌍:똥이, 쌍:둥이
22212	오줌	오조멸(+소), 오좡(+다)
22213	똥	똥얼
22214	기저귀	기저구
22215	뉘다(排便)	누키어, 뉘켜
22216	방귀	방:구
22216-1	뀌다	뀌여
22217	구린내	구룬내
22218	구리다	구리다
22219	포대기	포대기
22220	기지개	기:지개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기:지개 쏜다
22221	거짓말	그:진말, 그:짐말, 거:진말, 거:짐말
22222	남부끄럽다	내미 부꾸럽따, 나미 뿌꾸럽따, 남새시럽 따, 남사시럽따, 남부꾸럽따
22223	겹쟁이	겹쟁이
22224	불쌍하다	불쌍하다
22225	죄암죄암	죄암죄암하지
22226	곤지곤지	진:진
22227	따로따로	따루따루따루따루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짹짹, 짹짹 짹짹하지
22230	부라부라	불무:불무
22231	걸음마	거름마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어푸리지
22234	곤두박질	곤두박질
22235	안기다	앵키여, 앵:기여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
22237	호드기	호:디기

22238	숨바꼭질	숨바꼭질
22239	소꿉놀이	동고파리
22240	사금파리	새금파리여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방패연
22241-2	가오리연	홍어여나라구 하까(?제)
22242	걸리다	걸려써
22243	고누	꼰, 꼬노
22244	땅뺨기	땅뺨끼
22245	팽이	팽이
22246	딱지치기	표치기, 딱찌치기
22247	구슬	마:부리(일본말)
22248	그네	그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그네 뛴다구
22249	밑싹개	미짱개, 그:네발파니여
22250	굴렁쇠	도롱태
22251	굴리다	돌린다구, 굴린다
22251-0-1	-고	굴리구
22251-0-2	-어야	굴려야
22252	자전거	자전거지
22253	목말	*
22254	말타기	등마타기
22255	달음박질	다름박질
22256	썰매	설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설매 탄다
22256-2	송곳	송:꼰, 설매송:꼰
22257	엄살	영구럭
22257-1	(엄살)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영구럭 뻘다
22258	부아	부애나따

2.8. 친족

22301	아버지	부친, 아버지, 아번님
22301-1	아버지(호칭)	아번님, 아부지:!, 아부지!
22302	어머니	모친, 어머니, 어먼님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니:!, 어머니!
22303	할아버지	하라버지, 하라부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 하라버님
22304	할머니	할머니, 조몬니미구

22304-1	할머니(호칭)	할머니!
22305	남편	남편니여
22305-1	남편(호칭)	여보시요!(?조), 애기아빠!
22306	아내	내:자, 부인
22306-1	아내(호칭)	여보시요(?조)
22307	형	형, ,형님
22307-1	형(호칭)	형님!, ,형!
22308	아우	동생이, ,아오여
22308-1	아우(호칭)	아오야!(?조)
22309	누나	누이, 매씨(남한테 존중해서 말할 때), 누:
		님
22309-1	누나(호칭)	누님:! 누님!, 누이!
22310	누이	동생, 누이동생
22310-1	누이(호칭)	이름만 부르지, 애!
22311	자식	자식
22312	만아들	큰아드를, ,마다들, 장:자
22313	맏딸	맏딸, 큰딸
22314	막내	망내
22315	오빠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22315-1	오빠(호칭)	오빠
22316	언니	형님, 형("언니"는 요즘 쓰는 말)
22316-1	언니(호칭)	형이여, 형님
22317	아비	애비, 크나(어디간니?)
22317-1	아비(호칭)	그나야!, 애비야!(손자 낳으면), OO애비야,
		자그나야!
22318	어미	에미야!, 아가여
22318-1	어미(호칭)	아가야!, 아:이미(아이 낳으면)
22319	손자	손자
22320	손녀	손녀
22321	사위	사위
22321-1	사위(호칭)	O서방
22322	외손자	외손자
22323	외손녀	외손녀
22324	꾸짖다	야단치녕거, 훈:기한다구라지
22324-0-1	-고	야다닐 처씨
22324-1	나무라다	나무랜다, 꾸진다, 꾸지러멸 해:따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녀
22327	혼인	결혼, 호년도(+구), 결혼도(+신)
22327-1	혼인식	결혼식

22328	혼인 잔치	결혼잔치
22329	장가가다	장:가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집간다
22330	혼숫감	혼수
22331	함	혼수함, 함:
22332	겹사돈	겹사돈
22333	새색시	새댁, 새대기여, 새새댁
22333-1	새색시(호칭)	OO(택호)땡 새댁, OO(택호)쩍 새댁
22334	시아버지	시아번님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번님
22335	시아머니	시아먼님
22335-1	시아머니(호칭)	어먼님
22336	비위	비우
22337	아주버니	시아주바니, 시아주번님
22337-1	아주버니(호칭)	큰서방님
22338	서방님	시동생님
22338-1	서방님(호칭)	자근서방님
22339	도련님	도령님, 도련님, 시동생, 데련님
22339-1	도련님(호칭)	도련님
22340	형님	형님이라
22340-1	형님(호칭)	형니미지
22341	시누이	시누
22341-1	시누이(호칭)	시눈님(아이와 무관), 고몬님/큰고모/자근 고모(아이 있을 때)
22341-2	아가씨	아가씨
22341-3	아가씨(호칭)	아가씨, 자근아씨, 크나씨
22342	올케	올케
22342-1	올케(호칭)	올케, oo(아이 이름)자근엄마
22343	매형	매형
22343-1	매형(호칭)	매형
22344	매제	매제
22344-1	매제(호칭)	이러물 불루딩가, o(성)서방
22345	큰아버지	백뿌, 크나번니미지, 크나부지가, 크나버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백뿐님, 크나번님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중:백뿌, 두째크나부지, 둘:째아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세:째중백뿌, 세:째백뿌, 세:째아부지, 시째 크나부지, 시:째크나부지, 세:째중백뿌
22346	큰어머니	크너머니, 뱅모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넴마, 크너머니지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둘:째자그너머니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시:째짜그너무니, 세:째자그너머니
22347	큰집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O째삼초니다, 삼촌, 삼초니여, O째아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O째아부지
22349	작은어머니	자근엄마, 숭모, O째숭몬님, O째자근어머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O째자근어머니, 숭몬님, 자근어먼님
22350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촌!
22351	아저씨	당숙, 아저씨
22351-1	아저씨(호칭)	OO(택호)아저씨
22352	아주머니	당고모
22352-1	아주머니(호칭)	고몬니미여
22353	조카	조카
22354	조카딸	조카딸
22355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몬님, OO(택호)고몬님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 OO(택호)고모부
22357	고종	내외종간, 고종사춘
22358	이모	이모지
22358-1	이모(호칭)	이모여, OO(택호)이모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지, (택호)이모부(조사자제시)
22360	이종	이종간, 이종매(여자)
22360	이종	이종사:춘(남자)
22361	외삼촌	외삼촌, 외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삼초니여, 크뇌삼촌, 둘째외삼촌, 시:째외삼촌
22362	외숙모	외숭모
22362-1	외숙모(호칭)	외숭몬님, 크뇌숭모, 0째(둘:째, 세:째)외숭모
22363	외종	외사:춘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라부지, 외하라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외하라버지, 외하라번님
22365	외할머니	외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외할머니, 할머니!, 외할먼님
22366	장인	장:인, 장:인으른이라, 변장으르니라구(+존)
22366-1	장인(호칭)	변장님(+존), 장인으른

22367	장모	장:몬니덜, 빙몬니라, 장:모, 빙모
22367-1	장모(호칭)	장몬니미지, 빙몬님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이럼도 불르구, 처남!
22369	처남댁	처나매택
22369-1	처남댁(호칭)	처나매택, 즈:외승몬님
22370	홀아버	호라버지, 홀-애비, 호래비여
22371	홀어미	과:부
22372	계모	바루자근어머니시여, 의모, 둘째어머이지, 계:모여, 자근어머니
22372-1	계부	의부
22373	아저씨	OO(택호)으런, OO(택호)으:르신내, 아자씨 (+신)
22373-1	아저씨(호칭)	아저씨라고도, 어르신내
22374	아주머니	OO(택호)어르신내, 아주머이
22374-1	아주머니(호칭)	OO(택호)아주머이
22375	사나이	장:사, 장:정이라구두
22376	영감	(손자이름)하라부지
22376-1	할망구	저누무 할머니가
22377	나이	나이
22377-0-1	-를	나이럴
22378	환갑	한:갑, 회:갑, 수연
22378-1	환갑 잔치	향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토리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 궤기
22402	민물고기	میم물꼬기서버텀, 밍물궤기
22403	피라미	피래미
22404	지느러미	진누리미(?제), 진누레미(?제)
22405	아가미	아그미
22406	창자	창자
22407	송사리	송사리(=물고기 새끼)
22408	헤엄	휘엄치민서
22409	메기	메:기
22410	자라	자:래
22411	거북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꾸리(보조)
22413	개구리	개구리, 꺾구리
22414	올챙이	올챙이, 올챙이여, 올:챙이
22415	두꺼비	두꺼비
22416	거머리	거:머리, 그:머리
22417	다슬기	올갱이, 벚트롤뱅이, 도슬베, 벚트롤뱅이, 벚트롤갱이라 구라지(보조)
22418	우렁이	올:뱅이, 올갱이, 노놀뱅이구, 우렁
22419	고둥	올뱅이여, 올갱이
22420	달팽이	딸팽이(보조), 달:팽이
22421	새우	새우(보조), 새오
22421-1	새우(민물 대)	징:기미
22421-2	새우(민물 소)	새오
22421-3	새우(바다 대)	대하
22421-4	새우(바다 소)	새우(보조)
22422	새우젓	새우젼
22422-0-1	-가	새우저시라구(보조), 새우저션
22423	가재	가:재
22424	갈치	갈치그태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홍어, 가오리라구두 하고
22427	가자미	가재미두
22428	멸치	머르치, 멸치(보조)
22429	명태	명태
22429-1	동태	동:태
22429-2	황태	황태
22429-3	노가리	노가리
22429-4	북어	부거, 건태, 건명태
22429-5	생태	생명태, 생태요
22430	조기	조기라구두, 조거("죽어"), 자:반(간을 한 반찬)
22431	도미	*
22432	뱀장어	뱀:장어(보조), 뱀:장어여, 장:어(보조)
22433	낙시	낙씨가
22434	미끼	괴기뺨, 미끼
22435	낙싯대	낙씨-대
22436	얼레	낙씨짜새여, 낙씨-자새
22437	조개	조개여
22438	소라	소라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거지(보조), 벌레여(보조), 버러지라구
22502	날벌레	날빨거지
22503	파리	파:리
22503-1	쉬파리	쇠파리라구두, 왕파리
22504	쉬슬다	쇠칼린다구
22505	가시	까시, 구디기라구(보조), 구:디기, 구테기라구라지(보조)
22506-1	(진땀물) 끼다/얹다/생기다	땀무리 찌어따구라지(보조), 땀무리 끼어따, 땀물 안지머년
22507	잠자리	남자리
22508	방아깨비	땅개비
22508-1	암컷	땅개비, 땅가치(보조)
22508-2	수컷	때때기
22509	메뚜기	며뚜기
22510	여치	여:치, 으:치
22511	사마귀	보메땅가친대, 사:마귀(+다), 오줌싸개(조사자 제시)
22512	벌	꿀머리라구라지유(보조), 꿀빨, 참벌, 뿔:, 버:리여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벌: 친다구
22513	땅벌	땅:빨
22514	나비	나비
22515	하루살이	하루사리
22516	풍뎅이	풍뎅이여, 풍:뎅이(보조), 풍뎅이, 편뎅이
22517	모기	모:기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매:미
22520	개똥벌레	개똥벌래(보조), 개똥불(+구)
22521	반딧불	개똥부리라(+구), 반디뿌리라(+신, 조사자 제시, 보조)
22522	거미	거미
22523	굼뽕이	굼:뽕이, 굼:뽕이, 굼:뽕이
22524	구더기	구:더기, 구:디기구
22525	노래기	노내기
22526	그리마	거르매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미
22529	바구미	바:귀미가, 바:구미, 바:기미

22530	진드기	가부진대
22531	벼룩	벼룩
22532	이	이:
22532-1	서캐	서카리
22532-2	빈대	빈대그치
22533	송충이	송충이, 송칭이가
22534	귀뚜라미	귀뚜라미(보조), 귀뚜래미넌
22535	누에	누에, 뉘애
22536	고치	꼬추, 뉘애꼬추, 뉘애고추
22537	번데기	번디기가(보조), 번데기뉘애(보조)
22538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여
22539	회충(蛔蟲)	거시라구두(+구), 회충(+신)
22540	소금쟁이	열쌍수라구리야
22541	방개	방:개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축
22602	암소	암소
22603	송아지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네:미 네미 그리야
22605	황소	황소, 수쏘
22606	길들이다	지럴 디리야지(보조), 기럴 디리야지(보조)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라, 이러(보조)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위:위, 위:위:위위, 위: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라)	이랴로:, 일러로:(보조)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라)	어저저저저, 어저저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물러:
22607	쇠고기	소고기, 쇠:고기
22608	고기(肉)	고긴데
22609	들치	들치
22610	꼬리	꽁지, 꼬리
22611	망아지	망아지
22612	당나귀	당나귀
22613	갈기	갈:기머리
22614	돼지	돼:지
22614-1	멧돼지	산돼지, 뽕돼지

22615	주둥이	이비지, 주덩이(보조, +비), 주탱이(+비)
22616	돼지 머리	대:지 머리, 대:지 대가리(+비)
22617	돼지우리	대지우리(보조), 돼지우리
22617-1	오래오래	오래오래오래오래, 오래오래오래 그래지
22618	개(犬)	개:
22618-1	수캐	쭈캐(보조), 수깨
22618-2	암캐	암캐, 암깨
22619	강아지	강아진대
22620	염소	염소
22621	고양이	고:양이, 고:앵이파여(보조)
22621-1	수고양이	순꼬양이, 수꼬양이
22621-2	암고양이	암꼬양이
22622	토끼	토끼
22623	거위(鵞)	거위(+신), 게우(+구)
22624	암탉	암딱
22625	병아리	병아리
22626	모으다	불러 모디여, 모지녕건, 모디지
22627	수탉	장딱
22627-0-1	-가	장때기
22628	벼슬(鷄冠)	베시리, 벼시리여, 벼슬(보조)
22629	부리	주덩이(보조), 이비구
22630	모이	모이라구두(보조), 모시, 달구 모시, 달기 모시
22630-0-1	-를	달구 모시, 모이럴
22630-1	모이다	모인다
22631	닭털	달구털, 달기털
22632	닭똥	달구똥
22633	어리	달기둥어리, 병아리둥어리
22634	닭장	달기장, 달구장
22635	둥우리	달기둥어리(보조), 알똥어리
22636	날개	날개
22637	깃	질, 날개쩨
22637-0-1	-를	지시라구, 지시여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랑이(보조), 호:랑일쎄, 호:랭이여, 범:
22702	살쾡이	살가지(보조), 살갱이, 삭쟁이
22703	여우	여울쎄 여우

22704	원숭이	원:싱이(보조), 잔내비라고, 원:숭이
22705	사슴	사슴(보조), 꼬싸스미여
22706	노루	노:루여
22706-0-1	-가	노:루가
22706-0-2	-를	노:루 자바따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두더지, 두디기라구두, 땅뚜디기, 땅뚜더지
22709	족제비	족:찌비, 족제비가(보조)
22710	뱀	뱀:, 배미여
22711	도마뱀	동아뱀:, 도마뱀:
22712	구렁이	구렁이
22713	살모사	살무산(조?)
22714	생쥐	생:쥐, 새앙쥐([wi])
22715	박쥐	박:쥐
22716	거꾸로	꺼꿀루
22717	다람쥐	다람쥐([wi])
22718	새(鳥)	새:, 날째성이지(보조)
22719	꿩	꿩지
22720	솔개	매:, 솔개미
22721	독수리	독쭈리
22722	제비(燕)	제:비
22723	두루미	두리미 떼(?제)
22724	소쩍새	서쪽새가
22725	평	평:
22726	장끼	장평
22727	까투리	암:꿩얼, 까토리라, 암:평
22727-1	꺼병이	평애병아리
22728	종달새	노고조리
22729	빼꾸기	빼꼭새
22730	기러기	기러기여
22731	뜸부기	뜸:비기
22732	올빼미	올빼미
22733	까치	까:치, 깐: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여
22735	덧	차귀([wi]), 차구, 쥐차귀([wi]), 덧(보조), 둔
22735-0-1	-를	더시여 덧(보조), 더새, 도설
22736	올가미	올:개미(보조), 올구매두, 흘미, 올개미라구 두

2.10. 식물

2.10.1. 꽃과 식물

22801	진달래꽃	진달래(+신), 창꼬시여(+구)
22802	철쭉꽃	철쭉꽃, 철쭉꼬선
22803	민들레	민들레(+신), 범버꼬시라(보조), 범버꿍
22804	맨드라미	맨두라미, 맨드래미, 맨두래미
22805	봉선화	봉숭아
22806	파리	파:리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래기
22808	꽃봉오리	몽오리, 꾀망우리, 꾀:몽오리(보조)
22809	시들다	시드러, 시드니깨
22810	질경이	질:경이, 질경,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질쟁이, 질:경이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질쟁이꼭, 질쟁이-국
22811	빨기	떠풀, 떠라구두
22812	비름	비럼, 비름, 참비럼
22813	쇠비름	개:비럼, 쇠비럼, 소비럼
22814	쌈바귀	실:쌈바구여, 쌈:바구
22815	고들빼기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고들빼기하구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꼬들빼기, 고들빼기나물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고비, 괴비(보조)
22818	도깨비바늘	까:치바늘(보조), 까치바느리여
22819	도꼬마리	도꾸마리
22820	억새	억:썰푸리여, 워:썰, 억:썰
22821	갈대	갈때
22822	이끼	이:끼
22823	아주까리	피마자,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
22825	수세미	수세미
22826	덩굴	덤부럴
22827	덤불	덤부리라
22827-1	가시덤불	까시덤불
22828	잔디	떼, 잔디라두구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나무
22902	솔방울	솔뽕울
22903	관솔	광:솔
22904	솔가리	갈비, 솔갈비
22905	그러모으다	글거봐:가주구서
22906	뽕나무	뽕나무, 뽕나무에
22907	오디	오돌갠:대(+구), 오디(+신), 오돌개(+구)
22908	도토리	도토리테
22909	떡갈나무	떡갈림나무, 떡갈
22910	상수리	떡갈도토리
22911	웃	온:, 오시라
22911-0-1	-로	오설
22912	버드나무	버들
22913	느티나무	괴목(+다), 느티나무라구두
22914	그림자	그늘, 거름자여, 그림자가, 그림자
22914-1	그늘	그느리지
22915	숲	숲:
22915-0-1	-를	수비라 구래요
22915-0-2	-에	수베
22916	시원하다	시언하다
22917	절레	절레
22918	칠	척:, 칠거지
22918-0-1	-에	치:긴대, 칠거지에, 치개서
22919	가지(枝)	가쟁이(+다), 가지
22920	끝	끝:
22920-0-1	-가	끄치
22920-0-2	-를	끄튼, 끄춘
22920-0-3	-에	끄테
22921	삭정이	삭쫓가리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따따, 따와
22922	나무	나무, 냉기(나무-가)
22922-0-1	-를	나무ړ, 낭걸
22922-0-2	-에	낭게두, 낭기애
22923	나무하다	나무하루 가따, 나무하러 간다
22924	그루터기	뿌리~이가, 그루, 뿌랭이루다, 등그럭, 등 치, 뿌링이, 등크럭(조사자 제시), 뿌리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끄끄렁

22925	등걸	토막
22926	장작	장작
22927	패다	팬다구(+다), 쪼갬다(+소)
22928	부스러기	부수레기
22929	숫	숫:
22929-0-1	-가	수시
22929-0-2	-를	수설
22929-0-3	-에	수세
22930	불잉걸	잉글불
22931	썩	썩어나구, 썩기구
22932	잎	입싸구라, 이파리라, 이퍼리 (cf. 입싸구와 이파리를 구별 못함)
22932-0-1	-를	이벌
22932-1	잎사귀	이퍼리(+다, 구별 못함)
22933	가랑잎	가랑니피(버석버석)
22934	뿌리	뿌리여, 나무 뿌리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금(+구), 사과(+신)
23002	돌배	돌배
23003	복숭아	복숭아다
23004	곶감	고감
23005	홍시	홍시
23006	고욤	고욤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도
23010	오얏	옹애
23010-0-1	-를	옹애털
23011	석류	성뉴
23012	모과	모:과, 모파(木瓜)
23013	과일	과:실, 실과, 과:이리여, 가:실
23014	꼭지	꼭찌, 꼭때기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송아리, 밤:송아리
23015-2	팻밤	푸빠먼
23015-3	알밤	알밤
23015-4	쌍동밤	쪽뺨

23016	보늬	버네
23017	호두	추자, 호도
23018	가래(楸子)	*(없다고 함)
23019	개암	깨금
23020	머루	머루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망개뎡불, 망개덤불
23023	으름	어:름
23024	참외	차:외
23025	딸기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딸기고
23025-2	딸기(밭 야생)	*
23025-3	딸기(들 재배)	*
23025-4	딸기(들 야생)	개미딸기
23025-5	딸기(산 재배)	*
23025-6	딸기(산 야생)	산딸기
23026	뱀딸기	개미딸기
23027	마름(菱)	*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꼭뚜배기, 고:지
23102	기슭	기슬기라구, ,기슬기, 산끼슬기
23102-0-1	-에	기슬기 저따(기슭에 지었다)
23103	골짜기	구렁, 골:, 골짜
23104	메아리	사눌림, 바:느미라구(反音)(?조)
23105	고함	괘: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괘:)지른다
23106	묘	묘:소, 묘:여, 산소
23107	뿔자리	뿔:짜리, 산소짜리
23107-1	광중	광:중
23108	구덩이	구덩이
23109	비탈	빼알, 비알
23110	가파르다	비알지다구
23111	언덕	어더기
23112	낭떠러지	낭떠러지기(가운데가 들어간 모양), 층벽 (="베랑", 수직), 베랑얼(="층벽", 수직)
23113	들(野)	드:리여

23113-0-1	-에	드:레
23114	벌	*
23115	갈림길	갈림길
23116	헤어지다	헤:진다, 갈려간다, 갈라진다(조사자 제시), 갈라간다, 헤어진다(조사자 제시)
23117	바위	바위(wi)
23117-0-1	-를	바위덜
23117-0-2	-에	바위애
23118	돌(石)	돌:맹이, 돌맹이, 돌:
23118-0-1	-를	도:리, 돌멍이가
23118-0-2	-에	돌맹이애
23119	자갈	자갈
23120	모래	모새(+다), 모래(+소)
23120-0-1	-를	모새덜
23121	진흙	진:흑
23121-1	찰흙	차:룩, 찰:흑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물
23202	거품	거품
23203	개운하다	시원:하다, 개운:하다
23204	도랑	도:랑(개울보다 큰 것)
23204-1	봇도랑	보또랑
23205	둑	뚜걸
23206	잠기다	쟁겨따, 침수가 돼따, 침수 돼:따
23207	개울	개울, 내:여
23208	내(川)	내:여
23209	미역 감다	모요칸다(+신), 미역 껌는다(+구), 모교카능건
23210	발가숭이	빨거덩이지, 벌거덩이
23211	목욕하다	모요카능기여
23212	수채	수채꾸먹(수채, 수채구멍의 뜻), 수채
23213	개골창	*
23214	시궁창	웅:덩이, 시금치(조?)
23215	웅덩이	웅:텅이, 웅:덩이
23216	수렁	쭈:
23217	늪	*
23217-0-1	-에	*

23218	배(船)	배
23219	나루터	나루터, 강나루, 뱃나루
23220	돛	돛
23220-0-1	-에	도설, 도세다
23221	돛대	도때
23222	돛배	돈배
23223	돛 줄	당줄
23224	돛 줄	고정끈(?조), 고정줄(?조)
23225	거루	나루배
23226	상앗대	밀때(?제)
23227	개(펼)	개뻔
23228	물	육찌
23228-0-1	-로	육찌루
23229	밀물	*
23230	썰물	*
23231	가라앉다	가라안자따
23232	그물	그:물
23233	해녀	해:녀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보개
23302	새벽밥	새벼가침
23303	아침	아치매
23304	아침밥	아침, 아침밥, 조:반
23305	점심	즘심, 점심밥, 점:심, 점심밥
23306	저녁	저녁, 석빤
23307	설핏하다	설푸타다, 설푸:타다
23308	농을	농오리, 농을
23308-0-1	-를	농오린데, 농오리가
23309	불그레하다	빨거, 발:강걸로, 북따, 북짱꾸, 불고리해다, 불그레하다
23310	해거름	해질꺼림
23311	땅거미	*
23312	봄	봄철, 봄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위가(wi)
23315	추위	추위가(wi)
23316	가을	가을

23316-0-1	-에	가으레서부터, 갈:개 따요
23317	겨울	겨을
23317-0-1	-에	즈:레, 겨으레
23318	얼음	어:름
23319	오늘	오놀, 오늘
23320	내일	내일, 널:
23321	모레	모레
23322	글피	글패
23323	그글피	그글패
23324	어제	어제
23325	그저께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그끄저께
23327	훗날	훈:날, 후이레(후일-에)
23328	하룻날	하룬날, 초하루
23329	이튿날	이튼날
23330	사흘날	사흔날
23331	나흘날	나흔날
23332	닷셋날	다쎄날
23333	엿셋날	여쎄날
23334	이렛날	이렌날
23335	여드렛날	여드렌날
23336	아흐렛날	아흐렌날
23337	열흘날	열흘날
23338	하루	하루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23341	나흘	나흘
23342	닷새	다쎄
23343	엿새	여쎄
23344	이레	일헤, 이레
23345	여드레	여드레
23346	아흐레	아흐레
23347	열흘	열흘
23348	한나절	한:나절
23348-1	반나절	반:나절
23349	그믐	그믐
23349-1	그믐께	그믐께, 그믐개
23350	지금	지금, 지그미구
23351	아직	아직, 안죽

23352	이 제	인재
23353	이미	이미, 밭씨
23354	요즈음	요즈믄(조사제 제시)
23355	금방	방금, 요즈매(조사자 제시)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별, 해:뵈, 뵈
23401-0-1	-가	벼:테, 벼시, 베테, 베테나, 벼시
23401-0-2	-를	벼설, 해뵈선
23402	따스하다	따시다, 따서저
23403	아지랑이	아지랭이라
23404	응달	음지
23405	양달	양지
23406	비(雨)	비뽕울, 비
23407	가랑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슬비
23409	안개	안:개
23410	논개	안개여
23411	무지개	무:지개
23412	소나기	쏘내기가, 소나기
23413	갑자기	각:쫙애
23414	홍수	수해 나따, 홍수
23415	번개	번개
23416	천둥	뇌성, 천둥, 천둥
23417	벼락	벼락
23418	무섭다	무섭찌, 무서워
23419	함박눈	함방눈이라
23420	싸락눈	싸랑눈
23421	발자국	눈:짜옥, 밭짜옥
23422	진눈깨비	진눈깨비
23423	우박	우:박, 유리
23424	고드름	고두라미
23425	햇무리	햇무리구, 햇물 에워써
23426	달무리	달물 에와써, 달무리구
23427	둥글다	둥굴대요, 둥굴구, 둥굴다
23428	은하수	은:하수, 으나수
23429	금성	초지녀뽕(?조), 초성뽕, 초성
23430	가뭄	한:해, 가뭄미여, 가뭄

23431	마르다	말른다, 말르구
23431-0-1	-어서	말라따, 말라서
23432	위	우애, 우애가
23433	아래	아래
23434	왼쪽	왼:작
23435	오른쪽	오른작
23436	결	겨트로
23436-0-1	-에	겨테루, 겨티먼, 저테
23437	회오리바람	회호리바람이라(+구), 돌개바람이라(+신)
23438	북풍	북풍
23439	남풍	남:풍
23440	동풍	동풍
23441	서풍	서풍

제3편 음 운

3.1. 음운 체계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테가
31001-0-2	테(輪)-보다	테보다
31002-0-1	태(胎)-이/가	태가
31002-0-2	태(胎)-보다	태보다
31003-0-1	떼(群)-이/가	떼가
31003-0-2	떼(群)-보다	떼보다, 떼구
31004-0-1	때(時)-이/가	때가
31004-0-2	때(時)-보다	때보다, 때구
31005-0-1	틀(機)-이/가	트리
31005-0-2	틀(機)-보다	틀보다
31006-0-1	털(毛)-이/가	터리
31006-0-2	털(毛)-보다	털보다
31007-0-1	글(文)-이/가	그리
31007-0-2	글(文)-보다	글보담두
31008-0-1	걸(옷)-이/가	거리
31008-0-2	걸(옷)-보다	걸보다
31009-0-1	기(旗)-이/가	기여
31009-0-2	기(旗)-보다	기럴, 기보다
31010-0-1	귀(耳)-이/가	귀가(약이중모음)
31010-0-2	귀(耳)-보다	귀보다(단모음), 귀두(단모음)
31011-0-1	시(生時)-이/가	시꺼정언
31011-0-2	시(生時)-보다	시두

31012-0-1	취(蠅卵)-이/가	쇠가(단모음), 쇠털(단모음)
31012-0-2	취(蠅卵)-보다	쇠보다(단모음)
31013-0-1	쇠(鐵)-이/가	쇠가(단모음)
31013-0-2	쇠(鐵)-보다	쇠보단(단모음)
31014-0-1	외:국(外國)-이/가	외:국이(단모음)
31014-0-2	외:국(外國)-보다	외:국보다(단모음)
31015-0-1	왜국(倭國)-이/가	왜누미라구두
31015-0-2	왜국(倭國)-보다	왜난
31016-0-1	쉬:다(休)-고/더라	췌다(단모음)
31016-0-2	쉬:다(休)-아/어	쉬어(단모음), 쉬:야지(단모음)
31017-0-1	쇠:다(설을~)-고/더라	췌다(단모음)
31017-0-2	쇠:다(설을~)-아/어	쇠췌(단모음)
31018-0-1	베(布)-이/가	베가
31018-0-2	베(布)-보다	베두, 베보다
31019-0-1	배(船)-이/가	배가
31019-0-2	배(船)-보다	배보다
31020-0-1	배(腹)-이/가	배가
31020-0-2	배(腹)-보다	배보다
31021-0-1	(떡)메-이/가	메:, 메, 쇠메가, 떡메, 쇠메
31021-0-2	(떡)메-보다	쇠메보다
31022-0-1	매(鞭)-이/가	매:가
31022-0-2	매(鞭)-보다	매:보다
31023-0-1	매:다(擔)-더라	멘:다, 민다구두, 미:구, 메:고
31023-0-2	매:다(擔)-어서	매:넝거, 미:넝거
31024-0-1	매:다(繫)-더라	매:노코, 매구
31024-0-2	매:다(繫)-어서	매:능거, 마:
31025-0-1	떼:다(分離)-더라	떼구
31025-0-2	떼:다(分離)-어서	떼지

31026-0-1	때:다(炊)-더라	때:구
31026-0-2	때:다(炊)-어서	때:지
31027-0-1	베:다(切斷)-더라	베:구
31027-0-2	베:다(切斷)-어서	빙:거하구, 베주
31028-0-1	배:다(孕胎)-더라	배:따
31028-0-2	배:다(孕胎)-어서	배:서
31029-0-1	세:다(算)-더라	세:고
31029-0-2	세:다(算)-어서	세:지, 시지
31030-0-1	새:다(漏泄)-더라	새개, 새:거덩
31030-0-2	새:다(漏泄)-어서	새:닝개
31031-0-1	뒤(後)-이/가	뒤:가(단모음)
31031-0-2	뒤(後)-보다	뒤에(단모음)
31032-0-1	되(升)-이/가	되(단모음), 되가(단모음)
31032-0-2	되(升)-보다	되빱(단모음)
31033-0-1	게:(蟹)-이/가	게:가
31033-0-2	게:(蟹)-보다	게:덜
31034-0-1	개:(犬)-이/가	개:가
31034-0-2	개:(犬)-보다	개:를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러시
31035-0-2	여럿(多)-보다	여:러 사라미
31035-0-3	여럿(多)-을/를	여러슬
31036-0-1	물결(波)-이/가	물싸리
31036-0-2	물결(波)-보다	물싸리
31036-0-3	물결(波)-을/를	물쌀 끼우니
31037-0-1	예:의(禮儀)-이/가	예:의가, 예:이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예:저래서

31037-0-3	예:의(禮儀)-을/를	예:저 려, 예:빠 벌
31038-0-1	계:획(計劃)-이/가	계:혹
31038-0-2	계:획(計劃)-보다	계혹
31038-0-3	계:획(計劃)-을/를	계:호 걸
31039-0-1	규칙(規則)-이/가	규치기
31039-0-2	규칙(規則)-보다	규치개
31039-0-3	규칙(規則)-을/를	규치걸
31040-0-1	휴일(休日)-이/가	휴이리고
31040-0-2	휴일(休日)-보다	휴이런
31040-0-3	휴일(休日)-을/를	휴이럴
31041-0-1	교통(交通)-이/가	교툑이, 교통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교통도
31041-0-3	교통(交通)-을/를	교통얼
31042-0-1	효:자(孝子)-이/가	효:자가
31042-0-2	효:자(孝子)-보다	효:자나써
31042-0-3	효:자(孝子)-을/를	효:자럴
31043-0-1	웬일(何事)-이/가	웬니리
31043-0-2	웬일(何事)-보다	웬닐로
31043-0-3	웬일(何事)-을/를	무순닐로
31044-0-1	괘:(짹)(櫃)-이/가	괘:여(단모음), 괘:짹(단모음)
31044-0-2	괘:(짹)(櫃)-보다	괘:지(단모음)
31044-0-3	괘:(짹)(櫃)-을/를	괘:넌(단모음)
31045-0-1	왜란(倭亂)-이/가	임:진 왜나니라고
31045-0-2	왜란(倭亂)-보다	임:진 왜난
31045-0-3	왜란(倭亂)-을/를	*
31046-0-1	헛대(鷄架)-이/가	꽤라구리야
31046-0-2	헛대(鷄架)-보다	꽤애
31046-0-3	헛대(鷄架)-을/를	꽤럴
31047-0-1	원망(怨望)-이/가	원:망, 원:맹이여
31047-0-2	원망(怨望)-보다	원:망두, 원:망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원:망얼
31048-0-1	권:투(拳鬪)-이/가	권:투가
31048-0-2	권:투(拳鬪)-보다	권:투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권:톨
31049-0-1	의논(議論)-이/가	의노니
31049-0-2	의논(議論)-보다	의논이여
31049-0-3	의논(議論)-을/를	의노넌
31050-0-1	무늬(紋)-이/가	무니가
31050-0-2	무늬(紋)-보다	무늬
31050-0-3	무늬(紋)-을/를	무니럴
31051-0-1	왕(王)-이/가	왕:이여
31051-0-2	왕(王)-보다	왕보다
31051-0-3	왕(王)-을/를	왕:얼
31052-0-1	과자(菓子)-이/가	과자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과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과자럴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이리
31053-0-2	일(一)-보다	일보다
31054-0-1	일:(事)-이/가	이:리
31054-0-2	일:(事)-보다	일:보다
31055-0-1	매(鞭)-이/가	매가
31055-0-2	매(鞭)-보다	매보다
31056-0-1	매:(鶯)-이/가	매:가
31056-0-2	매:(鶯)-보다	매:보다
31057-0-1	밤(夜)-이/가	바미
31057-0-2	밤(夜)-보다	밤보다
31058-0-1	밤:(栗)-이/가	바:미

31058-0-2	밤:(栗)-보다	밤:보다
31059-0-1	눈(眼)-이/가	누니
31059-0-2	눈(眼)-보다	눈보다
31060-0-1	눈:(雪)-이/가	누:니
31060-0-2	눈:(雪)-보다	눈:보다
31061-0-1	말(馬)-이/가	마리
31061-0-2	말(馬)-보다	말보다
31062-0-1	말(斗)-이/가	마리
31062-0-2	말(斗)-보다	말보다
31063-0-1	말:(言)-이/가	마:리, 마:를
31063-0-2	말:(言)-보다	말:루, 말:보다
31064-0-1	손(客)-이/가	손님
31064-0-2	손(客)-보다	소년
31065-0-1	손(手)-이/가	소니
31065-0-2	손(手)-보다	손보다
31066-0-1	손:(孫)-이/가	소:니
31066-0-2	손:(孫)-보다	손:세가
31067-0-1	배(梨)-이/가	배가
31067-0-2	배(梨)-보다	배보다
31068-0-1	배:(倍)-이/가	배:가
31068-0-2	배:(倍)-보다	배:는
31069-0-1	벌(罰)-이/가	버리
31069-0-2	벌(罰)-보다	벌보다
31070-0-1	벌:(蜂)-이/가	버:리, 버:리여
31070-0-2	벌:(蜂)-보다	벌:보다
31071-0-1	솔(松)-이/가	소리여, 소리라구
31071-0-2	솔(松)-보다	솔리뿐다

31072-0-1	솔:(刷)-이/가	소:리
31072-0-2	솔:(刷)-보다	솔보다, 솔:보다
31073-0-1	줄(鉉)-이/가	주리
31073-0-2	줄(鉉)-보다	줄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주릴, 주리
31074-0-2	줄:(연장)-보다	줄두
31075-0-1	돌:(石)-이/가	도:런 도:린대:, 돌멍이가
31075-0-2	돌:(石)-보다	돌멍이보다, 돌맹이보다
31076-0-1	담(牆)-이/가	다미
31076-0-2	담(牆)-보다	담보다
31077-0-1	담:(膽)-이/가	다:미, 담:
31077-0-2	담:(膽)-보다	다:문
31078-0-1	들:(野)-이/가	드:리어, 드:레
31078-0-2	들:(野)-보다	들보다
31079-0-1	달-(懸)-고	달드라, 다라매:구
31079-0-1	달-(懸)-더라	달구
31080-0-1	달-(甘)-고	달고, 달구
31080-0-1	달-(甘)-더라	달드라
31081-0-1	달:-(熱)-고	달쿠
31081-0-1	달:-(熱)-더라	달자나
31082-0-1	갈-(換)-고	갈:고, 갈:구
31082-0-1	갈-(換)-더라	갈:드라
31083-0-1	갈-(磨)-고	갈:구
31083-0-1	갈-(磨)-더라	갈드라
31084-0-1	갈:-(耕)-고	갈:구
31084-0-1	갈:-(耕)-더라	갈:드라
31085-0-1	건-(收)-고	건꼬, 거더
31085-0-1	건-(收)-더라	거떠라

31086-0-1	걸:-(步)-고	걸:꾸, 거리간다
31086-0-1	걸:-(步)-더라	거:떠라, 거:찌
31087-0-1	적:-(書)-고	적꾸, 저거노는다
31087-0-1	적:-(書)-더라	적떠라, 정는다
31088-0-1	적:-(小)-고	즈:꾸
31088-0-1	적:-(小)-더라	즉:떠라

3.2. 음운 과정

3.2.1. 활용

1) 기초 항목

32001-0-1	막-(防)[ㄱ]-지	막찌
32001-0-2	막-(防)[ㄱ]-고	막꾸
32001-0-3	막-(防)[ㄱ]-더라	막뜨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그니까, 마그니까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마가따
32002-0-1	흐르-(流)[ㅡ]-지	흘르지
32002-0-2	흐르-(流)[ㅡ]-고	흘르구
32002-0-3	흐르-(流)[ㅡ]-더라	흘르드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흘르니까, 흘르니까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흘러가구
32003-0-1	오-(來)[ㅓ]-지	오지
32003-0-2	오-(來)[ㅓ]-고	오구
32003-0-3	오-(來)[ㅓ]-더라	오더라
32003-0-4	오-(來)[ㅓ]-으니까	오니깨
32003-0-5	오-(來)[ㅓ]-아/어(왔/었다)	와따, 와쓰니
32004-0-1	듣-(聞)[ㄷ 변]-지	드찌
32004-0-2	듣-(聞)[ㄷ 변]-고	드꼬
32004-0-3	듣-(聞)[ㄷ 변]-더라	드떠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드르닝깨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드러서
32005-0-1	많:-(多)[ㄴᄃ]-지	만:치
32005-0-2	많:-(多)[ㄴᄃ]-고	망:코
32005-0-3	많:-(多)[ㄴᄃ]-더라	만:터라
32005-0-4	많:-(多)[ㄴᄃ]-으니까	마:느니까
32005-0-5	많:-(多)[ㄴᄃ]-아/어(왔/었다)	마:너서
32006-0-1	맡-(任)[ㅌ]-지	맡찌
32006-0-2	맡-(任)[ㅌ]-고	맡꼬
32006-0-3	맡-(任)[ㅌ]-더라	마타 주더라
32006-0-4	맡-(任)[ㅌ]-으니까	마트니까
32006-0-5	맡-(任)[ㅌ]-아/어(왔/었다)	마타서, 마타 줘
32007-0-1	알:-(知)[ㄹ]-지	알지?
32007-0-2	알:-(知)[ㄹ]-고	알:고, 알:구
32007-0-3	알:-(知)[ㄹ]-더라	알:드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아:니까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아라따
32008-0-1	감:-(閉眼)[ㄱ]-지	감찌, 감:찌
32008-0-2	감:-(閉眼)[ㄱ]-고	깡:꾸
32008-0-3	감:-(閉眼)[ㄱ]-더라	감떠라
32008-0-4	감:-(閉眼)[ㄱ]-으니까	까므닝께
32008-0-5	감:-(閉眼)[ㄱ]-아/어(왔/었다)	까마따
32009-0-1	벗-(脫)[ㅍ]-지	버찌
32009-0-2	벗-(脫)[ㅍ]-고	벌:꾸
32009-0-3	벗-(脫)[ㅍ]-더라	버떠라
32009-0-4	벗-(脫)[ㅍ]-으니까	버스닝께
32009-0-5	벗-(脫)[ㅍ]-아/어(왔/었다)	버서따
32010-0-1	올:-(可)[ㅇ]-지	올치
32010-0-2	올:-(可)[ㅇ]-고	올코
32010-0-3	올:-(可)[ㅇ]-더라	올터라, 올타구
32010-0-4	올:-(可)[ㅇ]-으니까	오르니~께
32010-0-5	올:-(可)[ㅇ]-아/어(왔/었다)	오라따

32011-0-1	입-(着衣)[ㅂ]-지	입찌
32011-0-2	입-(着衣)[ㅂ]-고	이꾸
32011-0-3	입-(着衣)[ㅂ]-더라	입떠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이부니까
32011-0-5	입-(着衣)[ㅂ]-아/어(왔/었다)	이버라
32012-0-1	바꾸-(換)[ㅌ]-지	바꾸지
32012-0-2	바꾸-(換)[ㅌ]-고	바꾸고
32012-0-3	바꾸-(換)[ㅌ]-더라	바꾸드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바꾸니까
32012-0-5	바꾸-(換)[ㅌ]-아/어(왔/었다)	바꿔와, 바꿔따
32013-0-1	덮-(覆)[ㅍ]-지	덮찌
32013-0-2	덮-(覆)[ㅍ]-고	덮꼬
32013-0-3	덮-(覆)[ㅍ]-더라	덮떠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더푸니까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더퍼
32014-0-1	묻:-(問)[ㄷ 변]-지	무:찌
32014-0-2	묻:-(問)[ㄷ 변]-고	무:꾸
32014-0-3	묻:-(問)[ㄷ 변]-더라	무:떠라
32014-0-4	묻:-(問)[ㄷ 변]-으니까	무르니까
32014-0-5	묻:-(問)[ㄷ 변]-아/어(왔/었다)	무러
32015-0-1	낫:-(癒)[ㄴ 변]-지	나:찌
32015-0-2	낫:-(癒)[ㄴ 변]-고	나꾸, 나:꾸
32015-0-3	낫:-(癒)[ㄴ 변]-더라	나:트라, 나:떠라
32015-0-4	낫:-(癒)[ㄴ 변]-으니까	나:닝 깨
32015-0-5	낫:-(癒)[ㄴ 변]-아/어(왔/었다)	나:서
32016-0-1	닫-(閉)[ㄷ]-지	다찌
32016-0-2	닫-(閉)[ㄷ]-고	닫꾸
32016-0-3	닫-(閉)[ㄷ]-더라	다:떠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드니까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다떠니, 다다라
32017-0-1	쫓-(追)[ㅈ]-지	쫓찌
32017-0-2	쫓-(追)[ㅈ]-고	쫓꾸

32017-0-3	쫓-(追)[ㅈ]-더라	쫓떠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쫓츠닝깨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쫓차따
32018-0-1	베:-(枕)[ㅂ]-지	베주
32018-0-2	베:-(枕)[ㅂ]-고	베구
32018-0-3	베:-(枕)[ㅂ]-더라	비드라, 베더라
32018-0-4	베:-(枕)[ㅂ]-으니까	베:니까, 베:니깨
32018-0-5	베:-(枕)[ㅂ]-아/어(왔/었다)	비어라
32019-0-1	깨:-(破)[ㅍ]-지	깨지
32019-0-2	깨:-(破)[ㅍ]-고	깨:구서
32019-0-3	깨:-(破)[ㅍ]-더라	깨:더라
32019-0-4	깨:-(破)[ㅍ]-으니까	깨:니깨
32019-0-5	깨:-(破)[ㅍ]-아/어(왔/었다)	깨:써, 깨:따
32020-0-1	펴-(伸)[ㅍ]-지	펴지
32020-0-2	펴-(伸)[ㅍ]-고	펴:구
32020-0-3	펴-(伸)[ㅍ]-더라	펴드라
32020-0-4	펴-(伸)[ㅍ]-으니까	펴니깨
32020-0-5	펴-(伸)[ㅍ]-아/어(왔/었다)	펴따, 피어
32021-0-1	밝-(明)[ㅂ]-지	박찌
32021-0-2	밝-(明)[ㅂ]-고	발꼬
32021-0-3	밝-(明)[ㅂ]-더라	박떠라
32021-0-4	밝-(明)[ㅂ]-으니까	발그니깨
32021-0-5	밝-(明)[ㅂ]-아/어(왔/었다)	발가서
32022-0-1	삶:-(烹)[ㄹ]-지	삼:찌
32022-0-2	삶:-(烹)[ㄹ]-고	삼:꾸
32022-0-3	삶:-(烹)[ㄹ]-더라	삼:떠라
32022-0-4	삶:-(烹)[ㄹ]-으니까	살무닝깨
32022-0-5	삶:-(烹)[ㄹ]-아/어(왔/었다)	살마
32023-0-1	을-(吟)[ㅇ]-지	을푸지
32023-0-2	을-(吟)[ㅇ]-고	을푸고
32023-0-3	을-(吟)[ㅇ]-더라	을푸드라

32023-0-4	을-(吟)[ㄹㅡ]-으니까	을푸니까
32023-0-5	을-(吟)[ㄹㅡ]-아/어(왔/었다)	을퍼따
32024-0-1	밟:-(踏)[ㄹㅂ]-지	밟:찌
32024-0-2	밟:-(踏)[ㄹㅂ]-고	밟:꾸
32024-0-3	밟:-(踏)[ㄹㅂ]-더라	밟:떠라
32024-0-4	밟:-(踏)[ㄹㅂ]-으니까	밟브닝깨
32024-0-5	밟:-(踏)[ㄹㅂ]-아/어(왔/었다)	밟바, 밟바야
32025-0-1	하-(爲)[ㅏ 변]-지	하지
32025-0-2	하-(爲)[ㅏ 변]-고	하고
32025-0-3	하-(爲)[ㅏ 변]-더라	하드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하니까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하여쓰니까, 해:쓰니까
32026-0-1	맷-(結)[ㅈ]-지	매찌
32026-0-2	맷-(結)[ㅈ]-고	맷꼬
32026-0-3	맷-(結)[ㅈ]-더라	매뜨라
32026-0-4	맷-(結)[ㅈ]-으니까	매증거
32026-0-5	맷-(結)[ㅈ]-아/어(왔/었다)	매자써, 매자따
32027-0-1	없:-(無)[ㅂㅅ]-지	업:찌
32027-0-2	없:-(無)[ㅂㅅ]-고	업:꼬
32027-0-3	없:-(無)[ㅂㅅ]-더라	업:떠라
32027-0-4	없:-(無)[ㅂㅅ]-으니까	업:쓰니까
32027-0-5	없:-(無)[ㅂㅅ]-아/어(왔/었다)	업:써
32028-0-1	앉-(坐)[ㄴㅅ]-지	안:찌
32028-0-2	앉-(坐)[ㄴㅅ]-고	안:꼬
32028-0-3	앉-(坐)[ㄴㅅ]-더라	안:떠라
32028-0-4	앉-(坐)[ㄴㅅ]-으니까	안지닝깨
32028-0-5	앉-(坐)[ㄴㅅ]-아/어(왔/었다)	안자써
32029-0-1	비비-(刮)[ㅣ]-지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비비구
32029-0-3	비비-(刮)[ㅣ]-더라	비비드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비비닝깨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비비서

32030-0-1	끄-(消)[一]-지	끄지
32030-0-2	끄-(消)[一]-고	끄구
32030-0-3	끄-(消)[一]-더라	끄더라
32030-0-4	끄-(消)[一]-으니까	끄니까
32030-0-5	끄-(消)[一]-아/어(왔/었다)	꺼라, 꺼따, 꺼떠니
32031-0-1	꺾-(折)[ㄱ]-지	꺾찌
32031-0-2	꺾-(折)[ㄱ]-고	꺾꾸
32031-0-3	꺾-(折)[ㄱ]-더라	꺾떠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꺾끄니까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꺾꺼따
32032-0-1	신:-(履)[ㄴ]-지	신:찌
32032-0-2	신:-(履)[ㄴ]-고	신:꾸
32032-0-2	신:-(履)[ㄴ]-고	신:꼬, 신:꼬
32032-0-3	신:-(履)[ㄴ]-더라	신:떠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신:느니까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신:너서
32033-0-1	보-(視)[ㄷ]-지	보지
32033-0-2	보-(視)[ㄷ]-고	보구
32033-0-3	보-(視)[ㄷ]-더라	보더라
32033-0-4	보-(視)[ㄷ]-으니까	보니까, 보닝개
32033-0-5	보-(視)[ㄷ]-아/어(왔/었다)	봐:쓰닝개
32034-0-1	추-(舞)[ㅈ]-지	추지
32034-0-2	추-(舞)[ㅈ]-고	추고
32034-0-3	추-(舞)[ㅈ]-더라	추더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추:니까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춰:떠니
32035-0-1	피우-(吸煙)[ㅍ]-지	피우지
32035-0-2	피우-(吸煙)[ㅍ]-고	피우고
32035-0-3	피우-(吸煙)[ㅍ]-더라	피우더라
32035-0-4	피우-(吸煙)[ㅍ]-으니까	피우닝개
32035-0-5	피우-(吸煙)[ㅍ]-아/어(왔/었다)	피워따

32036-0-1	서-(立)[ㄱ]-지	스지
32036-0-2	서-(立)[ㄱ]-고	스고
32036-0-3	서-(立)[ㄱ]-더라	스더라, 서더라
32036-0-4	서-(立)[ㄱ]-으니까	스닝께, 스니까
32036-0-5	서-(立)[ㄱ]-아/어(왔/었다)	서서, 서이떠라
32037-0-1	기-(匍腹)[ㅣ]-지	기지
32037-0-2	기-(匍腹)[ㅣ]-고	기고
32037-0-3	기-(匍腹)[ㅣ]-더라	기드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기닝께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기어, 기: 가기도, 기 갈, 기: 땡 기내
32038-0-1	이-(戴)[ㅣ]-지	이지
32038-0-2	이-(戴)[ㅣ]-고	이구
32038-0-2	이-(戴)[ㅣ]-고	이:구서
32038-0-3	이-(戴)[ㅣ]-더라	이:더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이:닝께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이어떠니
32039-0-1	아니-(否)[ㅣ]-지	아니지
32039-0-2	아니-(否)[ㅣ]-고	아니구
32039-0-3	아니-(否)[ㅣ]-더라	아니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아니께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아니서
32040-0-1	되-(升)[ㅍ]-지	되주
32040-0-2	되-(升)[ㅍ]-고	되고
32040-0-3	되-(升)[ㅍ]-더라	되더라
32040-0-4	되-(升)[ㅍ]-으니까	되닝께
32040-0-5	되-(升)[ㅍ]-아/어(왔/었다)	돼:라
32041-0-1	있-(有)[ㅍ]-지	이찌
32041-0-2	있-(有)[ㅍ]-고	이:꼬
32041-0-3	있-(有)[ㅍ]-더라	이떠라
32041-0-4	있-(有)[ㅍ]-으니까	이쓰문
32041-0-5	있-(有)[ㅍ]-아/어(왔/었다)	이써서

32042-0-1	놓-(放)[ㅎ]-지	노치
32042-0-2	놓-(放)[ㅎ]-고	노코
32042-0-3	놓-(放)[ㅎ]-더라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노닝깨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놔:떠니
32043-0-1	홀-(扱)[ㅈ]-지	홀찌, 홀찌
32043-0-2	홀-(扱)[ㅈ]-고	홀꼬
32043-0-3	홀-(扱)[ㅈ]-더라	홀떠라
32043-0-4	홀-(扱)[ㅈ]-으니까	홀트닝깨
32043-0-5	홀-(扱)[ㅈ]-아/어(왔/었다)	홀터
32044-0-1	곱:-(麗)[ㅂ 변]-지	곱:찌
32044-0-2	곱:-(麗)[ㅂ 변]-고	고:꾸
32044-0-3	곱:-(麗)[ㅂ 변]-더라	곱:떠라
32044-0-4	곱:-(麗)[ㅂ 변]-으니까	고우니깨
32044-0-5	곱:-(麗)[ㅂ 변]-아/어(왔/었다)	고:와서
32045-0-1	쥐:-(握)[ㄱ]-지	쥐주
32045-0-2	쥐:-(握)[ㄱ]-고	쥐:구
32045-0-3	쥐:-(握)[ㄱ]-더라	쥐:더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쥐:니깨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쥐어서
32046-0-1	가-(去)[ㄱ]-지	가지
32046-0-2	가-(去)[ㄱ]-고	가구
32046-0-3	가-(去)[ㄱ]-더라	가드라
32046-0-4	가-(去)[ㄱ]-으니까	가닝깨
32046-0-5	가-(去)[ㄱ]-아/어(왔/었다)	가서, 가쓸 께다

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머꾸, 먹찌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따, 머거두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뜨꾸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더썩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간꼬, 가떠라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타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야트드라, 야찌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타서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헐:꾸, 헐꾸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호터따, 허지버, 후: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날르지, 날르드라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날라가따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지, 울:구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리따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일구, 일더라
32054-0-2	일-(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 이리따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얼더라, 얼지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러따, 어러서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넘찌, 넘떠라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 오더라, 너머떠니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찌, 숨:떠라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따, 수머서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쉽:떠라, 쉬:꼬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위서, 쉬:위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두리누더라, 두루눅찌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러노:따, 드러노라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지:찌, 지꾸, 지떠라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워
32061-0-1	밋-(憎)-지 -고 -더라	밋따, 밋떠라
32061-0-2	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워, 미워서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노꾸, 높떠라, 높찌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파도, 노파서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지:꼬, 지떠라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어따, 지:닝께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부찌, 붙:꼬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어써, 부어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운:꼬, 우:떠라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서따, 우서서
32066-0-1	짓:-(吠)-지 -고 -더라	지:떠라, 지찌
32066-0-2	짓:-(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서서, 지서
32067-0-1	꽃:-(插)-지 -고 -더라	꼬쭈, 꼰꾸
32067-0-2	꽃:-(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자서, 꼬자써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나:코, 나코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서, 나:따
32069-0-1	땅:-(辯)-지 -고 -더라	따:치, 따:코
32069-0-2	땅:-(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따, 땅:거
32070-0-1	끊:-(切)-지 -고 -더라	끈치, 끈터라
32070-0-2	끊:-(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너라, 끄너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괜잔쌔니다, 괜잔트라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괜차나요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익떠라, 이꼬, 익찌, 이꾸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거떠니, 일거서, 일거라
32073-0-1	뜯:-(瀝)-지 -고 -더라	뜯떠라, 뜯꾸, 뜯찌
32073-0-2	뜯:-(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뜯버, 뜯버서
32074-0-1	움:-(遷)-지 -고 -더라	움:찌, 움:넌다
32074-0-2	움:-(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마서, 올마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뚫찌, 뜨꾸, 뚫떠라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뜯버써
32076-0-1	꿇:-(跪)-지 -고 -더라	꿀꾸, 꿀찌

32076-0-2	꿇-(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꾸롱거구, 꾸러따
32077-0-1	닦-(扞 연필 심이)-지 -고 -더라	달치, 달터라, 딸터라
32077-0-2	닦-(扞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라썩, 따러따
32078-0-1	닿-(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다리지, 따리드라, 따리고
32078-0-2	닿-(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리여, 따리여, 따려, 다려썩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짜다, 짜구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짜서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말고, 말지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라서, 마런는데, 마라따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쓰지, 쓰구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써서, 써따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올라가고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올라간다, 올라가더라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바쁘드라, 바쁘구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바쁘다, 바빠서, 바빠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고푸지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파, 고파서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쏘치, 쏘터라, 쏘쿠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썩:, 썩:서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꾸지, 꿈꾸다가, 꾀다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뀨:년대, 꾀:썩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머물지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머물러따, 머무리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다듬썩, 따듬꾸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드며, 다드머라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전디구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견더따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마룻개질하구이따
32090-0-2	말르-(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라, 말라써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찌더라, 찌지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어따, 찌어서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시구, 마시지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셔따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세:고, 세:더라, 시:다, 세:다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어서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포개지, 포개구, 포갠다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포개여, 포개서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뚜디리지, 뚜디리구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디런넌대, 뚜디리두, 두디리두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키:고, 키지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켜라, 켜
32097-0-1	썰:-(바람을)-지 -고 -더라	썰다, 썰:지
32097-0-2	썰:-(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따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쇠기(저내), 쇠더라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쇄:따, 쇜:서
32099-0-1	쉬:-(體)-지 -고 -더라	쉬:더라, 쉬:고
32099-0-2	쉬:-(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따카고, 쉬어서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히다, 히개, 혀:서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볶꾸, 볶찌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까, 보까라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안찌, 끄란뚜, 양:꾸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나따, 끄라너두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무:떠라, 묻:꼬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무더따, 무더서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불구, 불지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러떠니, 부:러두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지, 빨고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빠라따, 빠라서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찌, 주꾸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거따, 주거서
32107-0-1	걷:-(步)-지 -고 -더라	거:찌, 거:꾸
32107-0-2	걷:-(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거리 간다, 거러서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물지, 가물더라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무리서, 가무리따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졸:지, 졸:구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조라따, 조라서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쓸고, 쓸지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쓰러, 쓰러따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강:꾸, 감:떠라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꼭)까마서루, 가마따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듬꼬, 더듬찌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더드머찌, 더드머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구:꼬, 구찌, 구:뜨라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귀:라, 구어따, 귀:따, 구어서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거꾸, 무겁떠라, 무겁찌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무거워서, 무거워도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일:꾸, 일:찌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서야, 이서따, 이서서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베찌, 뽕 꾸만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서따, 비서두, 빼서도, 비서서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까:마치, 까:마트라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미야, 꺼머, 꺼머서, 까마서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느치, 느터라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떠라, 느:서, 느:씨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고:꾸, 고찌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과:, 과:서, 과:떠니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언떠라, 언:꼬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언저따
32121-0-1	귀찮-(囁)-지 -고 -더라	귀찬터라, 귀창쿠
32121-0-2	귀찮-(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차너서, 귀차나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가리고, 가리더라, 발르지, 발르 고, 발르고, 바르드라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발라 내고, 발러라, 가려따, 가려 떠니, 가려
32123-0-1	말-(淸)-지 -고 -더라	막떠라, 말꼬, 막찌
32123-0-2	말-(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가서, 말개
32124-0-1	곰:-(膿)-지 -고 -더라	곰:찌, 곰:꾸, 곰:떠라
32124-0-2	곰:-(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마따, 골마
32125-0-1	굴:-(太)-지 -고 -더라	국:떠라, 국:찌, 굴:꼬
32125-0-2	굴:-(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거따, 굴거서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얇:찌, 얇:떠라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얇바도, 얇바
32127-0-1	썰-(春)-지 -고 -더라	썰코, 썰치
32127-0-2	썰-(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러씨, 썰라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일치, 일:꾸, 일:터라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따, 이러서
32129-0-1	핥-(舐)-지 -고 -더라	할꼬, 할찌, 할떠라

32129-0-2	핥-(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할터따, 할타라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짜르고, 짜르다, 짜르고, 찰르드 라, 찰르다, 찰르고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찰라서, 찰라도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래더라, 놀래지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놀:래따, 놀:래서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지, 자구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자따, 자서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타고, 모:타지, 모:타드라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모:티야, 모:태서, 모:태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몰르더라, 모르고, 모르더라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몰:라서, 몰:라따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푸지, 아피고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파서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지, 크구, 크드라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커서, 커따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꼬트라, 꼬:쿠, 꼬치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파:서, 파:따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쭈지, 쭈구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쭈어서, 쭈:따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마추드라, 마추구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춰따, 마춰서
32140-0-1	데우-(煑)-지 -고 -더라	데:고, 데:구, 데:지
32140-0-2	데우-(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디어서, 데워, 데워따
32141-0-1	이:-(盍 지붕을)-지 -고 -더라	이:고, 이:지, 이:드라
32141-0-2	이:-(盍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야, 이어따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기지, 갈기구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기따, 갈겨따, 갈겨서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기다리지, 기다리지, 기다리구, 기다리구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달리두, 기달리따가, 기달려따
32144-0-1	세:- (算)-지 -고 -더라	시:지, 시:고, 신:다, 시:드라, 세: 고
32144-0-2	세:- (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어따, 시여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더라, 빼:구, 빼:지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따, 빼:서
32146-0-1	켜-(툼을)-지 -고 -더라	케:구, 케:고, 케:지,
32146-0-2	켜-(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켜:서, 키어, 켜:라, 켜:따
32147-0-1	되:- (硬)-지 -고 -더라	되:다, 되:지, 되:더라
32147-0-2	되:- (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돼:서, 돼:두, 돼:따
32148-0-1	쉬:- (休)-지 -고 -더라	쉬:고, 쉬:지
32148-0-2	쉬:- (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야지, 쉬어따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할키구, 할키지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켜따
32150-0-1	눈:- (焦)-지 -고 -더라	누:떠라, 누:찌, 눈:꾸
32150-0-2	눈:- (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러따, 누러서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깨닫꼬, 깨다꼬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라따, 깨다라서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매려꾸, 매렵찌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러워서, 매루워, 매려워두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꾸럽따, 부꾸럽찌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꾸러워서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까꾸, 가깝찌, 가깝떠라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까와도, 가까와서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집떠라, 집찌, 집꼬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퍼도, 지퍼서
32156-0-1	긔-(劃)-지 -고 -더라	그:떠라, 근다, 그:찌, 근꼬
32156-0-2	긔-(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러따, 그러서,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씻:꼬, 씻:떠라, 씻:찌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씻서두, 씻서따, 씻언는데도
32158-0-1	짚-(搗)-지 -고 -더라	찌:뜨라, 찌꼬, 찌:꾸, 찌치, 찌터라
32158-0-2	짚-(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어따, 찌어, 찌어라
32159-0-1	깎-(搔)-지 -고 -더라	끌:꾸, 글뜨라, 꼬:꼬, 극:찌, 끄:떠라, 극:꾸
32159-0-2	깎-(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끌거, 글거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찌, 굶:꾸, 굶:떠라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굶머따, 굶머떠니
32161-0-1	닮-(似)-지 -고 -더라	담:떠라, 담:찌
32161-0-2	닮-(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마떠라, 달마서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실타, 실터라, 실치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서, 시러도
32163-0-1	끓-(𩪖)-지 -고 -더라	끓꾸, 끓치
32163-0-2	끓-(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따, 고라서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부:꼬, 부:떠라, 부찌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뵈:, 뵈:라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구, 타지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따, 타터니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마른다, 마르구, 마르드라, 말르기두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라서, 말란네, 말라써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쓰지, 쓰구, 쓰더라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서, 써두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푸다, 슬푸지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슬퍼서, 슬퍼두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쁘다, 기쁘더라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기뻐서, 기뻐
32170-0-1	쏘-(蜂 벌이)-지 -고 -더라	쏘터라, 쏘치, 쏘쿠
32170-0-2	쏘-(蜂 벌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썩:서, 썩:따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주구, 주주 말:구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쥬:라, 쥬:따, 조:썩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우구, 키우지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키워야, 키워따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지, 가두고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되따, 가둬서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부시구, 뿌시지, 뿌시구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셔, 부셔썩두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논:쥬, 논:뜨라, 논:썩, 논:꾸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노나, 노나따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소기구, 소긴다, 소기지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소겨, 소겨도, 소겨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치:지, 썩:지, 치:드라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썩여썩, 치어따, 치어썩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튀지, 튀고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튀어, 튀:따, 튀서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고이더라, 관:다, 고이지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여따, 고이서
32180-0-1	여위-(癯)-지 -고 -더라	야위진다, 야위지더라
32180-0-2	여위-(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야위저썩, 야위저따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맵:떠라, 맵:썩, 맵꼬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와서, 매와두
32182-0-1	뀌:-(屍)-지 -고 -더라	뀌지, 끼더라
32182-0-2	뀌:-(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뀌어서, 끼두, 끼어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곤치고, 곤치지, 곤치드라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곤쳐라, 곤쳐따
32184-0-1	싯:-(載)-지 -고 -더라	싯쭈, 싯:꼬, 싯떠라
32184-0-2	싯:-(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따, 시러서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으:찌, 으:꾸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으:더, 으:더써
32186-0-1	뽡-(粉碎)-지 -고 -더라	빠추, 빠코 ,빠터라
32186-0-2	뽡-(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서, 빠따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파:라터라, 파:라쿠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파:라먼, 파:래서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다르더라, 다르다, 달르더라, 달 르다, 달룽기여, 틀리더라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라서, 틀려서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푸구, 푸지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서, 피 분넌다, 피따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누지, 누구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뉘:야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드:럽뜨라, 드:럽따, 드:럽찌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러워서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견꼬, 견떠라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더썸, 거더서, 거더따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끌코, 끌터라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러도, 끄러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기지, 이기구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겨따, 이겨서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바시드라, 바시지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시서, 바셔두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빠지더라, 자빠지지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져써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일래끼고, 일래끼지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래껴라, 일래껴따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댕기지, 댕기드라, 댕기고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당겨따, 당겨, 땡겨따, 땡겨서, 땡기따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버리더라, 버리지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려라, 버려따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치구, 훔치지, 훔치더라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쳐따구, 훔쳐 와쓰면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고, 지구, 지지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떠니, 저따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외우구, 외우더라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와, 외와라, 외와따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사귀지, 사귀고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귀여, 사귀야, 사귀어라
32204-0-1	썩-(腐)-지 -고 -더라	썩꾸, 썩찌
32204-0-2	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겨따, 썩겨서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구, 질지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러서, 지러두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부르지, 까불르구, 까불구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불러, 까부러, 까불러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지, 드물개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러, 드무러서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줄:지, 줄더라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러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싱군다, 싱구고, 싱구지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머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씨다듬찌, 씨다듬꼬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씨다드며, 씨다드며따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사:납찌, 사:낙꾸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사:나워애:, 사:나와서, 사:나와두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개법떠라, 개버꾸, 개버꼬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개부워서, 개버워서, 개버워도
32213-0-1	젓:-(撈)-지 -고 -더라	저찌, 절:꾸
32213-0-2	젓:-(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저서, 저스먼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두껍찌, 두꺼꾸, 두껍따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두꺼워서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물르드라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물러서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부질지, 부질구, 뿌질더라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질러따, 부질러서, 뿌질러서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배우지, 배우더라, 배우고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배와서, 배와씨먼
32218-0-1	다리-(躰)-지 -고 -더라	다리지, (온)따리구
32218-0-2	다리-(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려라, (온:)다리(임는다), 다리여, 다려서
32219-0-1	후비-(耳 귀를)-지 -고 -더라	휘빈다, 후비지, 휘비구
32219-0-2	후비-(耳 귀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휘비서, 휘벼떠니다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아리지, 아리구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려서

32221-0-1	그리-(畵)-지 -고 -더라	그:리고, 그리지
32221-0-2	그리-(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러따, 그러서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저리다, 저리지
32222-0-2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려, 저려두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불구지, 불구고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귀라, 불귀, 불귀서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뜨시더라, 뜨시고, 뜨시다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서서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끄리지, 끄리구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려, 끄려서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뉘빈다, 뉘비고, 뉘비지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뉘벼두, 뉘벼떠니
32227-0-1	꾸기-(皴)-지 -고 -더라	꾸기지, 꾸기고, 꾸기더라
32227-0-2	꾸기-(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기서, 꾸겨서, 구겨저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비:구, 비지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어따, 비어떠라, 비서, 비어서, 벼:서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시쿠더라, 시쿠지, 시쿠고, 시쿠 구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꿔따, 시꿔, 시켜서, 시켜, 시 꿔서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매지, 맨:다, 매고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야, 매야, 매:라, 매:서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자버맨:다, 째매지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째:매라, (꽁:)미야, 잠:미야, 째: 매라, 째:매따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뛰고, 뛰드라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어, 뛰어서
32233-0-1	담:- (盛)-지 -고 -더라	담찌, 당:꾸, 담:떠라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마따, 다마라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가렵따, 가렵떠라, 가려꾸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려워서, 가려워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때리지, 때리고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리따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두꾸, 어둡따, 어둡찌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두워서, 어두워두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떠라, 잡찌, 자꼬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바라, 자바따, 자바서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차지, 차고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떠니, 차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지라고, 모:자라고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질라따, 모:지래따, 모:지래서, 모:잘라따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르고, 부르지, 불르더라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따, 불러떠니, 불러도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따루더라, 따르지, 따루지, 따루 고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뤄야, 따뤄, 따루라, 따뤄서
32242-0-1	쫓:-(啄)-지 -고 -더라	쫓실드라, 쫓실고, 쫓실르지
32242-0-2	쫓:-(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쫓시러, 쫓실러따, 쫓실라찌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더라, 두지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라, 뒤:따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시키구, 시키지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켜라, 시켜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지리구, 지리지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려따, 지려서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던지지, 던지구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던저서, 던지서, 던저따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이지, 모이구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여따, 모여서
32248-0-1	만지-(搯)-지 -고 -더라	만지지, 만지고
32248-0-2	만지-(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저따, 만저떠니
32249-0-1	쫌:-(曬)-지 -고 -더라	쫌이구, 쫌이지
32249-0-2	쫌:-(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쫌여따, 쫌이두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비틀지, 비틀구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트리, 비트러따
32251-0-1	돕:-(助)-지 -고 -더라	도:쪼, 도와주구, 도와주지, 도와 주더라
32251-0-2	돕:-(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와쪼:라, 도와라
32252-0-1	썰-(咀)-지 -고 -더라	썰쪼, 썰꾸만
32252-0-2	썰-(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버라, 썰버떠니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럽쪼, 미끄러쪼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러워서, 미끄러우니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다:트라, 다:치, 다:쿠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따, 다: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눌:루구, 눌루구, 눌루지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러떠니, 눌:러, 눌루뜨라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주무르지, 주물르고, 주무르드라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물러, 주물러두, 주물러도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메우주, 메우고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워라, 메워야, 메워떠니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고시더라, 고시고, 고시지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서서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너리고, 너리지, 너리더라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려따, 너려도, 너리서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굴르드라, 굴르지, 궁글드라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러, 굴:러따, 궁구러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만들고, 만들더라, 만들지, 맨들지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드러서, 맨드러
32262-0-1	늑-(老)-지 -고 -더라	늑꾸, 늑찌, 늑떠라
32262-0-2	늑-(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늑거, 늑거따
32263-0-1	알-(痛)-지 -고 -더라	알:치, 알터라, 알:쿠
32263-0-2	알-(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라, 아라따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따루구, 따루더라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뤄, 따뤄서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지, 사더라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서, 살따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우지, 치우구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워라, 치워따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부러지지, 부러지구, 부러지더라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져서, 부러져따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치지, 다치구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쳐서, 다쳐따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리지, 느리고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려서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무치지, 무치고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쳐따, 무쳐서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쪼이먼, 쪼이지, 쪼이고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쪼여라, 조여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지, 팔더라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파라써, 파라서, 파라따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찌, 뽑떠라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뽑바따, 뽑바서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뒤지지, 뒤지더라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뒤저, 뒤저따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마치지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치서, 마쳐따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절구지, 절구고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저러라, 절귀라, 절귀따, 저뤄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휘구, 휘지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휘어라, 휘어따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줍쭈, 주:찌, 줌:꼬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서, 주서따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빼:찌, 빼:꾸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빼사따, 빼사서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기우르다, 찌우르다, 찌우르지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찌우러서, 끼우러써, 끼울러지더라, 기우러서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떠라, 아깝꼬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까와, 아까워애, 아까워서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반갑찌, 반갑떠라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반가와서, 반가운대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지, 찌고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찌, 찌서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라치, 노:라코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노:라서, 노:라, 노:래서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푸루구, 푸루지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푸러서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서들지, 서들구, 서들더라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서드러라, 서드러서, 서드러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설:지, 서:틀고, 서:틀다, 서틀더라, 설:다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서:러서, 서:트리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게우르지, 게울루구, 게울르드라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게올리, 게올러서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뜨타더라, 따시다, 뜨시더라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시서, 뜨서서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춡꼬, 춡떠라, 춡찌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추워서, 취파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뜨겁찌, 뜨겁꾸, 뜨겁떠라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뜨거워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나, 밍큰하개, 밍큰하더라, 밍큰:하다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미지근히야, 밍큰:해, 밍큰:하, 밍큰:해서두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드라, 차지, 차두, 차구, 차구니께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차서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부럽따, 부럽떠라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러워, 부러워서
32295-0-1	알밋-(憎)-지 -고 -더라	알믹개, 알밋떠라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알미위썸, 알미위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스타다, 비스타지, 비스타드라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스태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새롭따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새로웨, 새로워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스:러깨, 스:럽떠라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스:러워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드럽떠라, 까:드럽찌, 까:달시 롭뜨라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드리워서루, 까:달시러워서, 까:드리워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외로꼬, 외롭찌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로워서, 외로워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아십짱깨, 아시웁떠라, 아십떠라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시워, 아시운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단단하구, 단단하고, 단단하닝께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단단해서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깨, 늦찌 양깨, 늦뜨룩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따, 느저서
32304-0-1	남:- (餘)-지 -고 -더라	남:찌, 남:떠라
32304-0-2	남:- (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마따, 나마서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낭구지, 낭구더라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낭과따, 낭귀라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자빠트리지, 자빠트리구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자빠트리따, 자빠티러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찌그리구, 찌그리지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찌그러저따, 찌그러저서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대:보고, 대:본다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대:봐따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외우녕기여, 외우머넌, 외머넌, 외우고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워따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대구, 문대지
32310-0-2	문지르-(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벼떠니, 문대떠니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가리치녕거, 가리치고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리쳐따, 가리쳐서, 가리치어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가리키지, 가리키고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켜서, 가리치어, 갈켜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겨누더라, 겨누지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겨눠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겨루고, 겨루지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겨뤄서, 겨뤄쓰면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개지, 달개구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기야, 달개서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뿐닐봐:라, 뿐바찌
32316-0-2	본받-(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뿐봐:라, 뿐닐떠라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질구, 어질지, 어질르구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질러봐:따, 어질러서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리고, 달리더라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려서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어기구, 어기더라, 어기지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기어, 어겨서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중얼거리지, 중얼거리구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얼거리여, 중얼거리서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지꺼리지, 지꺼리기두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꺼리여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댕기더라, 댕기니까, 댕기지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댕기서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떠러푸링 거구, 떠러푸리지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떠러피려, 떠러푸려따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더라, 깨:지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깨:서, 깨:따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구, 시더라, 시장깨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소사, 시어, 시어서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소떠라, 소꾸
32326-0-2	숫-(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소사따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타, 조:트라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조:와서, 조:와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빨:가트라, 빨가쿠, 빨꾸, 불꾸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빨:개서, 빨기야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끌:구, 끌:지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러, 끄러따
32330-0-1	넓-(廣)-지 -고 -더라	넙따, 널꼬, 널르드라, 널르지, 넙찌
32330-0-2	넓-(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넙버, 널래, 널러따, 널버서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하:야치, 하:야터라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애서, 하:안하개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32332-0-2	국(羹)-을/를	구걸
32332-0-3	국(羹)-에(서)	구게
32332-0-4	국(羹)-로	구구루
32332-0-5	국(羹)-도	국뚜
32333-0-1	논(沍)-이/가	노니 (cf. 논)
32333-0-2	논(沍)-을/를	노늘
32333-0-3	논(沍)-에(서)	노네

32333-0-4	논(畛)-로	노느로, 노누루
32333-0-5	논(畛)-도	논두
32334-0-1	쌀(米)-이/가	싸리
32334-0-2	쌀(米)-을/를	싸를
32334-0-2	쌀(米)-을/를	쌀
32334-0-3	쌀(米)-에(서)	사레서
32334-0-4	쌀(米)-로	쌀로
32334-0-5	쌀(米)-도	쌀두
32335-0-1	봄(春)-이/가	보미
32335-0-2	봄(春)-을/를	보멀
32335-0-2	봄(春)-을/를	보물
32335-0-3	봄(春)-에(서)	보메
32335-0-4	봄(春)-로	보무루
32335-0-5	봄(春)-도	봄두
32336-0-1	집(家)-이/가	지비
32336-0-2	집(家)-을/를	지벌
32336-0-3	집(家)-에(서)	지베서
32336-0-4	집(家)-로	지부루
32336-0-5	집(家)-도	집뚜
32337-0-1	옷(衣)-이/가	오시
32337-0-2	옷(衣)-을/를	오설
32337-0-3	옷(衣)-에(서)	오세서
32337-0-4	옷(衣)-로	오스루
32337-0-5	옷(衣)-도	오뚜
32338-0-1	방(房)-이/가	방이
32338-0-2	방(房)-을/를	방얼
32338-0-3	방(房)-에(서)	방에서
32338-0-4	방(房)-로	방으루
32338-0-5	방(房)-도	방두
32339-0-1	낮(晝)-이/가	나지
32339-0-2	낮(晝)-을/를	나설
32339-0-3	낮(晝)-에(서)	나제

32339-0-4	낮(晝)-로	*
32339-0-5	낮(晝)-도	날뚜
32340-0-1	낮(顔)-이/가	나시
32340-0-2	낮(顔)-을/를	나슬
32340-0-3	낮(顔)-에(서)	나세
32340-0-4	낮(顔)-로	*
32340-0-5	낮(顔)-도	날뚜
32341-0-1	부엌(廚)-이/가	부어기
32341-0-2	부엌(廚)-을/를	버:결
32341-0-3	부엌(廚)-에(서)	버:게서, 버:캐
32341-0-4	부엌(廚)-로	버:크루
32341-0-5	부엌(廚)-도	벽:뚜
32342-0-1	밭(田)-이/가	바시
32342-0-2	밭(田)-을/를	바설
32342-0-3	밭(田)-에(서)	바테
32342-0-4	밭(田)-로	바트루
32342-0-5	밭(田)-도	바뚜
32343-0-1	앞(前)-이/가	아피
32343-0-2	앞(前)-을/를	아펼
32343-0-3	앞(前)-에(서)	아패
32343-0-4	앞(前)-로	아푸루
32343-0-5	앞(前)-도	압뚜
32344-0-1	넋(魂)-이/가	너기, 녀씨
32344-0-2	넋(魂)-을/를	너글
32344-0-3	넋(魂)-에(서)	*
32344-0-4	넋(魂)-로	*
32344-0-5	넋(魂)-도	*
32345-0-1	흙(土)-이/가	호기
32345-0-2	흙(土)-을/를	호걸, 호컬, 흑, 흘글
32345-0-3	흙(土)-에(서)	호개
32345-0-4	흙(土)-로	흘그루, 호크루
32345-0-5	흙(土)-도	흑뚜

32346-0-1	여덟(八)-이/가	여더리
32346-0-2	여덟(八)-을/를	여더럴
32346-0-3	여덟(八)-에(서)	열여더레
32346-0-4	여덟(八)-로	여덜루
32346-0-5	여덟(八)-도	여덜도
32347-0-1	돌(週歲)-이/가	도리다
32347-0-2	돌(週歲)-을/를	*
32347-0-3	돌(週歲)-에(서)	도레
32347-0-4	돌(週歲)-로	*
32347-0-5	돌(週歲)-도	돌두
32348-0-1	값(價)-이/가	가비
32348-0-1	값(價)-이/가	갑씨
32348-0-2	값(價)-을/를	갑썰
32348-0-3	값(價)-에(서)	갑썰
32348-0-4	값(價)-로	갑쓰루는
32348-0-5	값(價)-도	갑또
32349-0-1	속:(內)-이/가	소:기
32349-0-2	속:(內)-을/를	소:겉
32349-0-3	속:(內)-에(서)	소:게서
32349-0-4	속:(內)-로	소:그루
32349-0-5	속:(內)-도	속:뚜
32350-0-1	돈:(錢)-이/가	도:니
32350-0-2	돈:(錢)-을/를	도:넬
32350-0-3	돈:(錢)-에(서)	도:네
32350-0-4	돈:(錢)-로	도:느루
32350-0-5	돈:(錢)-도	돈:두
32351-0-1	발(足)-이/가	바리
32351-0-2	발(足)-을/를	바를
32351-0-3	발(足)-에(서)	바래
32351-0-4	발(足)-로	발루
32351-0-5	발(足)-도	발도, 발두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여
32352-0-2	짐(荷物)-을/를	지멸
32352-0-3	짐(荷物)-에(서)	지매
32352-0-4	짐(荷物)-로	*
32352-0-5	짐(荷物)-도	짐두
32353-0-1	입(口)-이/가	이비
32353-0-2	입(口)-을/를	이벌
32353-0-3	입(口)-에(서)	이베
32353-0-4	입(口)-로	이부루
32353-0-5	입(口)-도	입뚜
32354-0-1	낫(鎌)-이/가	나시
32354-0-2	낫(鎌)-을/를	나설
32354-0-3	낫(鎌)-에(서)	나세
32354-0-4	낫(鎌)-로	나스루
32354-0-5	낫(鎌)-도	나뚜
32355-0-1	강(江)-이/가	강이
32355-0-2	강(江)-을/를	강얼
32355-0-3	강(江)-에(서)	강에서
32355-0-4	강(江)-로	강으로
32355-0-5	강(江)-도	강두
32356-0-1	젓(乳)-이/가	저시, 저지
32356-0-2	젓(乳)-을/를	저절
32356-0-3	젓(乳)-에(서)	저세
32356-0-3	젓(乳)-에(서)	저제
32356-0-4	젓(乳)-로	저스루, 저즈루만, 저즈루
32356-0-5	젓(乳)-도	저뚜
32357-0-1	꽃(花)-이/가	꼬치
32357-0-2	꽃(花)-을/를	꼬설
32357-0-3	꽃(花)-에(서)	꼬세
32357-0-4	꽃(花)-로	꼬스로
32357-0-5	꽃(花)-도	꼬뚜
32358-0-1	팥(赤豆)-이/가	파시

32358-0-2	팥(赤豆)-을/를	파설
32358-0-3	팥(赤豆)-에(서)	파세
32358-0-4	팥(赤豆)-로	파스루
32358-0-5	팥(赤豆)-도	팥뚜
32359-0-1	옆(側)-이/가	여피
32359-0-2	옆(側)-을/를	여펼
32359-0-3	옆(側)-에(서)	여패
32359-0-4	옆(側)-로	여푸로
32359-0-5	옆(側)-도	엽뚜
32360-0-1	쌈(賃金)-이/가	품쌌기
32360-0-2	쌈(賃金)-을/를	품쌌걸
32360-0-3	쌈(賃金)-에(서)	품쌌개
32360-0-4	쌈(賃金)-로	품쌌그루는
32360-0-5	쌈(賃金)-도	품쌌뚜
32361-0-1	닭(鷄)-이/가	대키, 다키
32361-0-2	닭(鷄)-을/를	다클
32361-0-3	닭(鷄)-에(서)	다케
32361-0-4	닭(鷄)-로	다크루
32361-0-5	닭(鷄)-도	닥또
32362-0-1	밖(外)-이/가	바까시, 바까티, 바까치
32362-0-2	밖(外)-을/를	바까틀, 바까슬
32362-0-3	밖(外)-에(서)	바까테
32362-0-4	밖(外)-로	바까트루
32362-0-5	밖(外)-도	바까뚜

제4편 문 법

4.1. 대명사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
40101-0-1	내-가	내가
40101-0-2	내	내
40101-0-3	나-를	나를
40101-0-4	나-에게	나에게, 나를, 나한테, 날, 나한테
40101-0-5	나-와	나하구
40101-0-6	나-는	나는, 나넌
40101-0-7	나-도	나두
40102	저/제-가	저, 저넌
40102-0-1	저-가	제:가, 지:가
40102-0-2	저-의	제, 저에
40102-0-3	저-을/를	저를
40102-0-4	저-에게	저에게, 저한테
40102-0-5	저-와/과	저하구
40102-0-6	저-는	저넌, 저는
40102-0-7	저-도	저도, 저두
40103	우리	우리가, 우리더리라
40104	저희	즈이더리, 저히더리
m40105	너	너, 자네(친구)
40105-0-1	-가	니:가, 자네가(친구간)
40105-0-2	-의	네꺼, 자네꺼(친구간)
40105-0-3	-을/를	너를, 자네를
40105-0-4	-에게	너에게, 자네에게, 너를, 너한테
40105-0-5	-와/과	너하고, 자네한테, 자네하구(친 구간)
40105-0-6	-는	너는

40105-0-7	-도	너두, 자네두(친구간)
40106	자네	자네라구
40107	당신	당시니, 당신
40108	너희	느:
40109	개	가:가
40109-1	애	야, 야:나 자:나
40109-2	재	자:가, 자
40110	자기	제, 제 주쟁이다
40111	당신	당신방이라고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여
40112-0-1	누-가	누가
40112-0-2	누구-의	누구 돈
40112-0-3	누구-를	누굴, 누구럴
40112-0-4	누구-에게	누구한테
40112-0-5	누구-와	누구하구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뭐:냐, 뭐:요
40113-0-1	무엇-가	뭐이
40113-0-2	무슨	뭔:, 무슨
40113-0-3	무엇-를	뭔:, 뭐:럴, 뭐:설
40113-0-4	무엇-와	뭔:로 뵈이나

4.1.3. 그 밖의 대명사

40114	어디	어데럴, 어디, 어데
40115	언제	어너새, 어느새, 언제
40116	어느	어너, 어느
40117	왜	우:째서, 우째, 왜(조사자 제시)
40118	얼마나	얼매나(조사자 제시)
40119	어떻게	어트가구, 우트개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거, 이거뚜
40121	그것	그거뚜, 그거뚜
40122	저것	저거
40123	여기	이고세, 이고설, 여기(보조)
40124	거기	고기, 거기(보조), 저:기
40126	이리	이고스로, 이리
40127	그리	그리, 글로, 글루(보조)
40128	저리	저고스로, 저리, 저:리

4.2. 조사

4.2.1. 격조사

40201	-이/가	갑씨, 코가
40203	-을/를	귀털, 저설, 바벌, 가펄(값을), 무털
40205	-에 게/게	저 사라멸(쥬:라), 자:애개, 저 사라매 개 쥬:(조사자 제시), 자:털, 나한테 쥬:(보조), 저 사람(쥬:라), 저 부내개
40206	-보고/더러	누구더러(보조), 누구한테
40207	-보고/더러	누구를, 누구털
40208	-에	지베
40209	-에	후:이레, 나중예(조사자 제시), 일후예(가까울 때)
40210	-에서	지베서 사내서
40211	-에서	노인정에서
40212	-에서	여기서루, 여기서
40213	-로	참쌀로도, 멤쌀로도, 틀루, 쌀루(보조)
40214	-로	지부루다가(보조), 지푸루
40215	-로	새끼루, 산내끄누루, 사나끄느 루, 사나끼루
40216	-로	어디루(보조)
40217	-와/과	사과 배, 수:바카구 차뵤, 수박 차뵤를

40218	-와/과	나하구
40219	-보다	동생보다, 형보다
40220	-처럼	왜:지그치
40221	-만큼	저 사람만창, 너만창, 너마청
40222	-만큼	머글 만창
40223	-아/야	봉나마!
40224	-아/야	봉나미!, 봉나미 친구 어디 가 능가?
40225	-아/야	영수야!, 영수 친구 어디 가능 가?, 영수:영수!
40226	-아/야	누님: 누님!
40226-1	-예	누님예!(경상도에서)
40227	-아/야	하라버지:!, 하라부지:!
40227-1	-요	*
40228	-랑	술과 고기, 그거랑 그거랑, 술 하구 고기하구(조사자 제시)
40229	-커녕	마:넌커냥

4.2.2. 보조사

40230	-은/는	수런 마셔두 담:배는
40231	-만	딸만
40232	-도	키두 크구 임물두
40233	-마다	날마다, 날:마둥
40234	-부터	오늘부터, 지금서버텀
40235	-까지	널:까지, 널:꺼지, 지금꺼지
40236	-조차	마실물꺼지, 마실물조차
40236-1	-할라	*, 비가 오는데
40237	-이야/야	마:리야, 마:런 잘하년대, 마:른 자란다
40238	-을랑	그런 소리, 그런 소릴랑(조사자 제시)
40239	-라도	부:잔데두
40240	-밖에	자내배끼
40241	-가지고	싸서, 싸가지고, 싸가주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오라고, 오라구
40243	알았어-요	아라씨요, 알:구 이씨요, 알:고 이씨요
40244	했지-요?	누가 하서씨요?, 누가 하시씨요?

4.3. 종결어미

4.3.1. 명령법

40301	-아라	안저라
40302	-게	안:깨
40303	-으오	안즈시유, 안즈세요
40304	-으십시오	안즈세요
40305	-세요	안즈세요

4.3.2. 청유법

40306	-자	가자
40307	-세	가새
40308	-으오	가세요(보조), 갑씨다
40309	-십시오	가시지요(보조), 가세요
40310	-세요	가세요

4.3.3. 의문법

40311	-니	오니?
40312	-나	오능가?, 와? 오나?(보조)
40313	-오	와요?
40314	-습니까	와요?
40315	-나요	와요?
40316	-니	가냐?, 가나?
40317	-나	가능가?, 가나?
40318	-시오	가세요?

40319 -십니까
40320 -세요

가세요?
가세요?

4.3.4. 서술법

40321 -는다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40325 -네요
40326 -다
40327 -네
40328 -소
40329 -으십니다
40330 -으세요

명낸다
먹떼(과거), 명네
머거요, 먹떼요(과거)
머꾸이썬요, 머거요, 명내요(보조)

머거요, 명내요(보조)
자:개, 작따
자:개, 자:그내, 장:내
자:가요
작:썬니다, 자:가요
작:썬니다, 자:가요

4.3.5. 반말

40331 -아
40332 -지

아파요?
갈꺼지요?(보조), 꼭: 갈래요?,
갈꺼지:(보조), 꼭: 까요?, 갈꺼
요?, 갈꺼예요?(보조)

4.3.6. -이다

40333 -다
40334 -니
40335 -네
40336 -인가

40337 -이오
40338 -이오
40339 -입니다.
40340 -입니까
40341 -시지요

생이리다
생이리지?, 생이리냐?
생이리여, 생이릴쎄
생이링가?(보조), 생이리여?, 생
이리지?(확인)
생이리요
생이리요?
생이리요, 생시니요
생시닝가요?
내:리요, 생시니요, 생시닝가요?

40342	-시지요	내이리지요?(불확실), 내:링가 요?
40343	-이냐?	뭐:냐 머:냐
40344	-인가?	뽕:가 뭐:잉가
40345	-이오?	뽕:닝까, 뽕:에요(약원순), 머요
40346	-입니까?	머:에요, 뽕:닝까
40347	-인가요?	뽕:니까, 머:에요
40348	-이야?	뽕:에요, 머:에요, 머요, 머여
40349	-이어요?	머:에요, 머:요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마:나요
40351	-습디다	만:태요, 마:나요
40352	-는구나/구나	잘 명네, 잘 명는다, 명녕구나 (조사자 제시)
40353	-는구먼/구먼	명네, 명녕구먼
40354	-일세	오래칸마닐쎄
40355	-으마	가풀개
40356	-음세	가퍼개, 가파 주건내, 가파 줄 개, 가풀개, 가품세(조사자 제 시, 보조제보자)
40357	-올라	다칠라(제보자 제시, 보조제보 자), 다친다(조심해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머꾸서
40402	-으면서	머그민서
40403	-어/-어서	추워서, 더워서, 바빠서
40404	-으니 /-으니까	따뜨태서, 뜨시서, 따시니까, 다 시서
40405	-관테	일로, 무슨 이리길래, 무슨 이 리건대, 무슨 이리길래, 무슨 이리글래

40406	-다가	일:하다가, 오다가
40407	-거든	만나거덩, 만나면, 만나면, 만나 거던, 만나며닌, 만내걸랑언
40408	-더라도	떼 씨두, 피우드른대, 피우되, 피우드라도, 피위도, 피우드란 대두, 피우드래도(조사자 제시), 피우드래두(보조)
40409	-으려고	머글라고
40410	-도록	새두룩, 빠지개, 빠지두룩, 죽뚜 룩
40411	-을수록	노풀쭈룩, 마:늘쭈룩
40412	-듯이	퍼 씨더탄다, 물 쓰더탄다(보 조), 물 씨더티야
40413	-지	보고, 보지

4.5. 주체 존대

40501	-셔	오시오, 오시어, 오셔
40502	-셨소	헨나(보조), 대썌요, 끈난나(보 조)

4.6. 시제

40601	웃는다	운넌다
40602	기어간다	기어간다
40603	크다	크다
40604	생일이다	생이리다
40605	오고 있다	오고 이썌요.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잡쭈시썌요, 머건니
40607	왔었다	간는데, 와썌는데
40608	먹더라	먹떠라
40609	먹더냐	먹뜨라구, 머거?, 먹떼?(보조)
40610	만나는 친구	만나넌
40611	만난 친구	만난
40612	만났던 친구	만난, 만내편, 마나편

40613	만날 친구	만날, 만낼
40614	큰 아이	큰, 크내
40615	크던 아이	크던
40616	켰던 아이	커튼
40617	마시지 않겠다	앙캐따
40618	비가 오겠다	더:꺼다, 오거따, 올꺼그따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안 머거써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조:치 안타, 조:치 아나다, 조:틀 아나, 안 조타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깨끄타지 모:타다, 깨끄찌 아나 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	장:가 앙 가써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만나보지 모:태따, 몸: 마나써, 몸: 마내써 안적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뚜 아나구, 먹찌두 아나구
40706-1	먹도 않고	*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몬: 머거, 몬: 마신다, 몸: 멍년 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마찌

4.8. 사동과 피동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려따, 살려 중거지
40802	늘리다	늘려따
40803	말리다1	말려라, 말린다
40804	말리다2	말린다, 말려따
40805	얼리다	얼려따(보조), 얼귀다
40806	녹이다	노꽈따, 노겨다
40807	싱기다	싱겨 조:라, 싱겨따
40808	보이다	보여따, 보인다
40809	알리다	알리구, 알려따

40810	입히다	이퍼 조:라, 이피고
40811	얏히다	안처따, 안처라
40812	벗기다	빼껴찌, 버겨써, 베껴서
40813	웃기다	우:깁다, 우:끼지
40814	씩히다	사퀴라, 사쿰다
40815	숨기다	송겨 뇌라
40816	끓기다	궁겨 궁겨따, 궁기지
40817	깨우다	깨와라, 깨와따
40818	돌우다	도꾼다, 도파따, 도꾸능 걸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재핑 거지
40820	깎히다	깨껴따, 깨끼따
40821	끼히다	찌어따 쩡겨따
40822	떼히다	떠어써, 떼:지
40823	채히다	채여써, 채여따
40824	단히다	다쳐따, 다쳐서
40825	들리다	들린다
40826	엎히다	어퍼찌, 어퍼써
40827	바뀌다	배껴따
40828	썩히다	씨핀다
40829	엎히다	언처따
40830	찍히다	찌켜따
40831	놀리다	놀:려서
40832	실리다	실려서
40833	끓기다	끈처따
40834	끓히다	헐켜써
40834	끓히다	끌킹거구
40834	끓히다	끌켜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시푸냐, 바꼬 시붕 기
40902	싶다	십떠니, 십뜨니(보조)

40903	보다	이버 봐:라, 이버 보시요, 보세 요, 이버 보니까
40904	버리다	머거 버런내
40905	대다	우리 썬는다, 우리 댄다(보조)
40906	-나/는가 보다	올라능 가배, 올라능 개비다
40907	-나/는가 보다	자능 개비다
40908	-나/는가 보다	추웅 개비다

4.10. 부사

41001	실컷	실큰
41002	많이	마:니
41003	너무	너무, 너머
41004	조금	쫘:꿈, 조:꿈만
41005	자주	자주
41006	빨리	빨리
41007	얼른	얼렁
41008	기어코	기어코, 기어쿠
41009	가끔	가:꿈
41010	먼저	머너
41011	나중에	나:중애
41012	가득	가뜨기지
41013	몽땅	몽딱
41014	모조리	몽땅, 삭
41015	혼자	혼자
41016	항상	항상, 늘:
41017	똑똑히	똑떠기
41018	겨우	간시니
41019	늘	만날
41020	저절로	지절루
41021	자꾸	자:꾸
41022	설마	설마
41023	하마터면	자찌 태쓰먼
41024	함께	함께(보조), 항꺼버내(보조), 함 모개, 한모개

41025	걸핏하면	껌뜨타면, 걸피타면(보조)
41026	공연히	고여:니, 공여니(보조)
41027	그냥	기양
41028	매우	엄청, 엄청이, 엄청이(보조), 억 쭈로(보조)
41029	곧장	바로, 월참, 곶짱(조사자제시)
41030	벌써	그새(보조), 하마(조사자제시)
41031	가장	제일(보조)
41031	가장	젤:
41032	가만히	가마니
41033	미리	미리
41034	이따금	이따끔, 가끔(보조), 이따끔(보 조)

4.11. 관용적 표현

4.11.1. 관용구

41101	여보	여보
41102	여보세요	여보시요:: 여보시요, 여보세요 (보조), 여보세요:: 여보세요
41103	들어가세요	안녕이 계시요, 드르가세요(남 이 쓴다고 함)
41104	수고하세요	안녕이 기시요, 안녕이 기세요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친구 참 오래칸마내 만난내 반 갑내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 는 인사말	안녕하세요(보조), 안녕하시요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 면서 하는 말	그간 근:강하십썸니까, 건:강하 시썸니까, 그가내 글려기 어떠 셔썸니까, 건강하세요(보조)
41108	여기 있습니다	물건깁 바드시오, 돈 바드세요, 물건깁 바드세요
41109	예	어(친구나 아랫사람), 예:(윗사 람), 야:(윗사람), 으:(아랫사람)
41110	아니	아:니, 아니(보조)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리치도 안타

41112	내버려 뒤	내비리 뒤:, 내버려 뒤:(보조)
41113	개나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으딩이뜨딩이, 되나마나

4.11.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미빠진 도개 물부끼, 단: 소태 물부끼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훔치넌 사례미 소털 모라 간다, 바늘 도도기 소도둑 된다 (보조), 바늘 도두기 소도동눔 된다
41116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안 땀 굴뚜개 연기 나랴, 아니 땀 굴뚜개 연기 나랴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 ◆ 위원장 | 이기갑 (목포대학교) |
| ◆ 위 원 | 강영봉 (제주대학교) |
| ◆ 위 원 | 김무식 (경성대학교) |
| ◆ 위 원 |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 위 원 | 김정대 (경남대학교) |
| ◆ 위 원 | 박경래 (세명대학교) |
| ◆ 위 원 | 소강춘 (전주대학교) |
| ◆ 위 원 | 최명옥 (서울대학교) |
| ◆ 위 원 | 한영목 (충남대학교) |
| ◆ 위 원 |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

